장편소설

박 윤

문학예술출판사
주체94(2005)

모든것을
생명도 사랑도 청춘도
조국에 바치여

(혁명시인 조기천의 시중에서)

장편소설 《순간과 영원》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구에서 싸운 인민군전략정찰일군의 투쟁을 그린 전쟁물소설이다.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으로 공작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곡절많은 나날을 거쳐 조국의 품에 안긴 주인공 림송(본명 박성일)의 투쟁모습을 통하여 전승위업승리를 위해 바치는 전사의 청춘은 순간이여도 그것은 어머니조국과 함께 영원히 빛난다는 사상을 제기하고있다.

미극동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 특수련락장교로 위장하고 최고사령부의 전략적기도에 맞게 정보활동을 벌리는 주인공의 가슴속에는 백두밀영에서 그들 부자를 만나시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임무에 충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귀중한 말씀이 언제나 뜨겁게 간직되여있었다. 림송의 높은 지성세계와 기민한 판단추리력, 정황에 따르는 대담성과 군사정치정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난관을 뚫고나가는 완강성과 침착성의 밑바닥에는 항상 장군님을 흠모하고 따르며 멀리 있는 조국을 그리는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맥박치고있다.

소설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폭과 규모, 조미대결전에서 승리한 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실재했던 사실과 한 인민군전략정찰일군의 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추구하고있다.

장편소설은 사건본위가 아니라 성격과 시대의 본질, 사회현상을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깊이있게 추구해나가는 작품의 특성을 옳게 살려나가고있다.

장편소설 《순간과 영원》은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신 민족적 존엄을 지니고 총대로 선군혁명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귀중한 생활의 길동무로 될것이다.

편집부

주요 인물

림 송　(본명 박성일) 조선인민군 전략정찰병
　　　미8군사령부 특수련락장교, 대위

한순정　조선인민군부대 정찰병
　　　미8군사령부 장교구락부 주인

리준구　(설민기박사) 《수성》조 조장겸 련락원

에니스　미8군사령부 첩보부장, 준장

듀페이　부관, 림송의 대학동창생, 중좌

겐지로　미8군사령부 방첩장교, 중좌

강수림　미8군사령부 타자수

제 1 장

그날도 전시의 평범한 나날들중의 하루였다.

전선서부에서 행동한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이날 전과를 확대하면서 광주, 진주, 영동, 황간 방향으로 진격하였다. 인민군보병련합부대는 땅크련합부대와 함께 영동일대에서 저항하는 미제침략군 1기병사단을 소멸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동동작을 조직하고 적의 폭로된 익측을 리용하여 일부 부대를 적의 량익측으로 우회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한편 전선중부의 인민군련합부대들이 소백산줄기의 동남부지역을 극복함으로써 함창, 안동 지역에서 적을 포위소멸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였다. 전선동부에서 행동한 인민군련합부대는 영덕남쪽계선에서 반돌격을 감행하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차지한 전선을 견지하기 위한 완강한 투쟁을 벌렸다.

이날 우리 나라 전반적지역은 개인 날씨였으나 북부고산지대에서는 아침에 약간한 비가 내렸다. 사람들은 한여름의 폭양과 열풍속에서도 준엄한 하루를 보내고있었다. 흥남비료공장 합성직장탑운전공인 한 로동자는 미제침략군 제5공군 17경폭격기련대의 폭격으로 심한 파편상을 입은 몸이였으나 희생되는 마지막순간까지 750기압이나 되는 3호압축기의 스위치접선을 끊어 압축기를 구원함으로써 전시생산을 보장하는데 기여하였다.

자급비료증산경쟁을 묻고 례년보다 많은 자급비료를 생산한 함경남도 함주군 하기천면 송당리 농민들은 년간풀베기계획을 100%로 수행하였다. 낮 2시경 평양 제14인민학교(당시)에서는 300여명의 소년단원들이 소년단열성자회의를 가지고 《소년호》비행기, 땅크를 전선에 헌납할것을 평양시안의 전체 소년단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이날도 역시 전시의 평범한 날이였다.

전선에서 먼곳, 대서양의 검푸른 물결이 굼실거리며 수세기전 콜롬브스의 공상과 착오의 눈길이 머물렀던 해안을 유혹적으로 적시는 대도시의 교외비행장에 한 낯선 사나이가 나타났다. 세련된 몸가짐과 약간 내민 턱이며 정교한 코마루가 다소 거만하게 느껴지

지만 입매며 눈기슭 어딘가에 완강하면서도 서글퍼보이는 애수가 깃든 젊은이였다. 그의 가명은 림송이였다.
림송은 뉴욕의 라 가디아공항 대기실에 들어서자 항공회사의 매대쪽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비행기리륙시간까지는 얼마간의 여유가 남아있었다.
림송은 희고 넓은 이마밑에서 예리하게 빛나는 눈길로 잠시 주위를 둘러본후 계원에게 다가가 항공권, 려권, 사증, 예방접종증명서들을 내밀었다.
코수염을 기른 갈색종의 계원은 카키색의 고급장교복을 입은 림송의 얼굴을 흘낏흘낏 바라보며 문건들을 뒤적이더니 출국카트를 내주었다.
림송은 그자리에서 성명, 년령, 주소, 직업, 국적, 려권번호, 발행일들을 들여다보고 수표하였다.
며칠전, 림송은 조국의 지시대로, 국무성 극동담당 차관보에게 사표를 낸후 륙군성 인사국에 가서 8군사령부에 근무할수 있는 발령장을 받았다.
어제저녁에는 송별연회가 있었다.
연회에는 그사이 친교를 맺은 국무성의 공무원들과 대학동창생들이 모여들어 림송의 출전을 축하하였다.
림송은 연회장창문너머 상록수가 무성한 국립공원묘지의 황금색 나트리움 등을 바라보며 자기가 그토록 오랜 세월 슬픔과 눈물, 피와 땀을 흘린 이 땅을 영원히 떠나 항시 마음속에 그리던 조국 가까이로 간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아 설레이는 가슴을 조용히 달래이였다.
림송은 공항카운다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아이, 림송씨, 인제야 오세요?》
귀에 익은 녀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림송은 그쪽으로 돌아섰다.
전쟁으로 워싱톤에서의 류학을 중단하고 귀국한다는 강수림이였다. 이미 그 녀자와는 며칠전에 미국주재 남조선《대사관》에서 만났을 때 함께 떠나기로 약속이 되여있었다.
림송은 그 녀자가 자기와 함께 떠나게 된데 대하여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는 수림이를 류행과 사치를 좇는 순진하면

서도 단순한 녀성으로 간주해왔던것이다.
《수림인 나온지 오래 됐소?》
림송은 시무룩하게 물었으나 입가에는 일종의 친근감이 비꼈다.
《전 사무엘선생과 함께 한시간전에 도착했어요.》
강수림은 애교있게, 녀성답게 눈을 깜박였다.
림송은 그제야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사무엘을 알아보았다.
《정보쎈터》시절부터 친교를 두터이하고있는 사무엘은 뉴욕—도꾜의 태평양주식회사 사장이였다.
림송은 다나까 사무엘과 악수한후 식탁을 마주한 수림이옆에 앉았다. 실상 림송이 대구에로 출발하게 된데는 자기 회사의 리익을 추구하는 사무엘의 방조가 컸었다.
《강수림양은 림송씨와 같은 기사와 동행하게 되여 마음이 놓일게요.》
사무엘은 림송에게 눈을 끔적하며 번들거리는 대머리에 창백한 손을 가져갔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봉사가 랭정한 나라이다. 미국에는 세계각국의 료리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자기 맛이 없고 음식의 단조로움, 통졸임, 랭동제품을 많이 쓰는것으로 하여 사람들속에서 평이 나빴다. 음료만 보더라도 가장 미국적인 술은 라이위스키와 바본위스키인데 서유럽제품에 비해 질이 몹시 떨어졌다. 림송이 하버드대학을 다닐 때는 시민들이 대부분 포도주대신 맥주나 코카콜라, 알콜음료로써 냄새가 나는 토인들의 정제하지 않은 술을 마셨다.
림송은 잔을 들고 두사람을 둘러보며 말했다.
《아가씨의 행운을 위해서 마십시다.》
그러자 수림이는 눈언저리가 푸르스름한 인상적인 검은 눈을 깜박이며 정찬 눈길로 림송을 바라보더니 서글프게 웃었다.
《전 어쩐지 전쟁판으로 돌아가기가 겁나요. 신문을 보니 리승만대통령의 정부도 부산으로 옮겨왔더군요. 림송씨는 아마… 한국에 가면 미국대사관의 통역으로 근무할테죠?》
《글쎄요. 어떤 운명이 기다릴지?》
림송의 시무룩한 말에 대머리를 만지던 사무엘이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니체는 말하기를 생은 권력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동양속담에

예로부터 녀자는 길쌈을 삼고 남아는 병기를 잡으라 했지요.》
사무엘의 말에 림송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옳소, 난 학창시절 정치외교학을 전공할 때 인간의 생과 행복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소크라테스를 동경했습니다.》
사무엘은 번들거리는 대머리에 비해 몹시 수염발이 굵고 면도자리가 질어보이는 턱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자네의 말에서는 현학적인 냄새가 풍기는걸, 볼꼰쓰끼공작도 전장에 나갈 때는 옷에 향수를 뿌리지 않았네. 자넨 미혼이니까 생명보험금을 기대하진 않겠지. 생명이 인간의 모든 행운을 담보한다는걸 잊지 말게.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 주은래나 위신쓰끼가 소심해지도록 하는데는 워커나 맥아더의 객기면 충분해.》
림송은 쓴웃음을 지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지. 〈내 그대들에게 진실로 말하노니 행복을 얻으려면 불행을 이겨내야 하노라.〉》
안내원이 들어와 손님들에게 뉴욕—도꾜—대구행비행기탑승시간이 되였음을 알렸다.
활주로에는 주미 남조선《대사관》 장면《대사》와 한표욱 《1등서기관》의 얼굴이 보였고 한쪽에 국무성 서기들과 하버드대학출신들이 림송을 전송하려고 나와있었다. 작별에 의례히 따르는 의미 없으면서도 일종의 의미를 부여해보려는 사교적인 대화가 오고갔다.
비행기에 오르기 앞서 사무엘은 크지 않은 봉투 두개를 내밀었다.
《림송, 이 봉투에는 은행권이 들어있네. 대구에 있는 나의 사무소 상무취체역 레이몬드 아담스에게 전해주게. 그리고 이건 8군사령부소속 한국련락장교단의 수석련락장교 문용채에게 보내는 문건이네. 누가 보내는가는 묻지 말게.》
《이걸 맡았다가 대신 총알을 선물받을건 아닌가?》
림송은 장갑을 낀채 문건을 받아 품에 넣으며 롱조로 말했다.
《안심하게. 외교문건도 아니고 구태여 말한다면 개인편지네. 림송, 우리 회사가 8군련락장교로 가는 자네에게 기대를 걸고있다는걸 잊지 말게. 모든걸 약속대로 해주게. 필요할 땐 나에게 련락하게. 자넨 이번에 나의 실력을 인정했을테니까.》
림송은 사무엘을 포옹했다.
《난 자네의 배경에 국방장관과 극동군사령관이 앉아있다는 예

감까지 드네. 사무엘, 자넬 잊지 않겠네.》
사무엘은 두눈을 감았다.
《참, 8군정보부 부관실에 있는 스테쎌 듀페이에게 인사를 전해 주게!》
려객기가 뉴욕상공을 날아오르자 림송은 원형창문을 통해 시가지 원경을 부감하면서 상념에 잠겼다. 이제 그는 대구에 가서 조국이 준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될것이였다.
어쩐지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그는 실로 오랜 나날을 바람찬 이국땅에서 살아왔다. 아버지가 운명하던 그 순간부터 그는 집없고 나라없는 방랑아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맛보았으나 간고한 생활속에서 한시도 조국을 가슴에서 떼여본적이 없었다.
1937년, 상해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아버지가 장개석의 비밀특무기관인 《람의사》밀정에게 사살되자 그는 정처없이 거리를 방황하였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자주 찾아와 시국형편도 론의하고 때로는 부대조건없이 자금도 보충해주군하여 인정이 많아보이던 카나다기업가 죠지 림메르트도 이때는 얼굴을 얼씬거리지 않았다.
림송은 창문이 부서져나간 외국인 조계지 동북쪽거리에 자리잡고있는 아버지의 사무소 현관에 주저앉아 말없이 자기의 운명을 지켜줄 미지의 사람들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언땅의 랭기가 배속으로 기여올랐다.
저녁녘에 사람들이 도착하였다. 하건만 얼굴이 험상궂은 그 사람들은 림송의 목덜미를 쥐여 개처럼 거리로 내던졌다. 찢겨진 얼굴에서도 그리고 가슴속에서도 피가 흘렀다.
림송은 선창가로 나갔다. 파도가 거친 해안을 물어뜯었다. 물때오른 잔교가 삐걱거렸다.
음산한 하늘, 하늘엔 별빛도 없었다.
캄캄한 그 하늘을 바라보느라니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던 아버지의 목소리며 고향—어머니가 계시는 묘향산의 정든땅이 못견디게 그리워졌다.
그는 그리운 그 땅이 저 멀리 하늘아래에 있다는것을 알았다. 그 모습은 신기루처럼 언뜻거리며 때없이 유혹했다.

바람부는 어느날, 그는 고기비린내가 주린 창자를 뒤집는 선창가에서 뜻밖에도 죠지 림메르트가 비밀임무를 주어보낸 웬 젊은이를 만났다. 설복은 필요없었다. 그들은 함께 외진 부두의 빈 나무상자속에 들어갔다.

조국으로 가려는 불타는 욕망이 자석처럼 끌어당겼던것이다. 그날밤 그들은 나무상자들과 함께 대양으로 출항하는 밀선에 실렸다. 나무통이 흔들거릴 때 그는 자기가 드디여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무서운 긴장속에서도 기뻐하였다. 하건만… 운명의 나루배는 그를 낯선 대륙의 항구로 실어가고있었다.

이때 그는 자기를 찾아 상해거리를 쉬임없이 걷고있는 친근한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그 친근하고 귀중한 사람들을 그는 10년세월이 흘러서야 만날수 있었다.

림송의 수난에 찬 소년시절은 북아메리카의 이국땅에서 흘러갔다. 그는 고난속에서 성장하고있었다.

하역작업의 고달픈 나날속에 소년의 연약한 잔뼈는 굵어갔으나 언제한번 따뜻한 잠자리가 그를 맞아준적은 없었다. 비와 눈과 바람이 그의 피부를 단련시켰고 때로는 옷을 대신해주었다.

그는 일본인 이주민들속에서 눈치밥을 얻어먹으며 개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때로는 밥도적으로 몰려 무리매를 맞기도 했고 때로는 며칠씩 굶은채 비내리는 거리에서 손을 내밀고 누거리 카페의 현관옆에 앉아있기도 하였다. 사람들은 때물이 흐르는 중고품작업복을 입고 류별나게 얼굴이 창백한 그의 옆을 지나면서 되돌아보는 일이 없었다… 미국방성 극동처의 지시밑에 오타와 가까운 교외에서 몇명의 선발된 아시아인들을 《재교육》하기 위한 이른바 《동양교육쎈터》라는 정보학교를 운영하고있던 로련한 정탐가인 죠지 림메르트가 드디여 때를 기다려 림송에게 손길을 뻗쳤다. 북극의 광풍이 몰아치는 낯선 거리에서 방랑아의 설음을 뼈에 사무치게 맛본 어린 넋에게는 이 유혹의 손길을 물리칠 힘이 없었다. 견장이 없는 야전복차림의 늙은이를 올려다보는 소년의 눈에는 야속함과 적의가 떠돌았으나 구원의 기슭에 선 사나이처럼 로병은 선의의 미소를 짓고있었다.… 회색풍을 친 육중한 군용차가 얼굴색이 같은 몇명의 소년들을 싣고 도시를 빠져나왔다. 거칠고 음산한 대지가 군용

차의 뒤로 펼쳐지면서 멀어져갔다. 아득한 광야 저멀리 회백색 하늘아래, 묵상에 잠긴듯한 검은 숲에서 검누른 독수리 한마리가 떠올라 쏜살같이 군용차를 뒤따라왔다. 림송은 군용차 적재함 모서리에 쪼그리고 앉아 그 신천옹같이 커다란 독수리를 올려다보았다.

저녁해의 잔광에 독수리의 랭혹한 두눈이 번쩍였다.

잔혹한 그 눈에는 무표정한 적의가, 랭랭한 비웃음이 흐르는것같았다. 광야를 질주하는 군용차가 땅우를 기여가는 벌레처럼 느껴지는듯 조그마한 위구도 없이 유유히 날개를 펼쳐들고 회백색하늘을 나는것이다. 림송은 문득 심장이 터지는것 같은 애수와 무서운 고독감이 밀물처럼 체내에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너 이 불운한 소년아, 너는 구원의 언덕으로 떠나간다고 생각할테지만 어리석다! 너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였다. 너는 고향도 어머니도 더는 볼수 없고 숙명의 회오리바람이 너를 어느 낭떠러지에 세울지 그 누구도 알수 없어. 그렇다. 너는 그 운명에 순종해야 해! 이 가련한 녀석아!… 독수리의 랭혹한 눈은 말하고있었다. 림송은 적재함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주먹을 불끈 쥐고 광야의 제왕을 올려다보았다. 아니다, 아니야! 난 반드시 고향땅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갈테다. 가고싶은곳, 가야 할곳이 아무리 멀어도 기어이 가야 해! 소년은 마음속으로 절규하며 두주먹을 흔들었다. 독수리는 날개를 한번 퍼득이더니 어둠이 짙어가는 검푸른 하늘로 사라져버렸다.

군용차가 문득 멎어버리자 차단봉을 친 검문소의 침울한 정문이 소년앞에 나타났다. 드디여 추억을 묻어버리고 공상이 없는 사나이들을 생산한다는 《공장》이 그들을 맞이한것이다. … 《일본륙군사관학교》출신의 교관들은 물론 림메르트자신이 날과 달이 흐를수록 명민하고 강직한 림송에게 차츰 눈길을 돌리게 되였고… 운명직전에는 유산상속자로 지명하게 되였던것이다. …

이 《동양교육쎈터》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림송은 몇해후 미련방수사국의 추천과 림메르트의 후원밑에 하버드대학을 거쳐 참모학교에 입학했던것이다. …

그러나 림송은 자기의 가슴속에 봄날의 아지랑이마냥 고향, 조국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눈보라 울던 밀영의 귀틀집창가의 불빛이 얼음장밑의 물줄기처럼 깊이 간직되여있었다는것을 퍽 후에야 깨달았다. 1946년 봄,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떠나려고 마음을 설레

이며 기회를 엿보는 림송에게로 조국의 부탁을 안은 평양의 련락원이 찾아왔었다. 몸이 부하고 온화한 눈빛에 머리총이 류달리 센 사람이였다. 웃을 때면 흰 대문이 두대가 드러나군하는데 첫눈에 마음이 이끌리고 믿음이 가는것이였다. …두사람은 사람들이 붐비는 워싱톤의 유니온역앞에서 만났다. 그들은 메마른 바람이 몰아치는 광장거리를 오래동안 거닐었다. 련락원은 많은 이야기끝에 림송의 아버지가 조국광복회 회원이였다는것을 그에게 상기시켜주었다.

《…아버지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참되고 성실한 사람이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랐던것입니다.》

련락원의 말에 림송의 가슴은 충격과 흥분으로 높뛰였다. 유년시절 물보라가 거친 해안을 들부시는 선창가에서 조국에 대하여, 백두의 령장 **김일성**장군님에 대하여 뜨겁게 이야기해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음장밑의 봄물줄기처럼 되살아올랐다.

어린 넋우에 떨어졌던 그 한알의 씨앗이 소생의 봄비처럼 그의 가슴을 따스하게 적셔주었다.

그는 련락원의 온화한 눈을 뚫어지게 마주보았다.

《제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가요?…》

《우린 림송동무를 믿습니다. 동무는 물론 조국으로 돌아가고싶을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세는 림송동무와 같은 유리한 환경에 있는 동무들이 적후에서 조국의 눈이 되고 귀가 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하신다면 그것을 바랐을겁니다. 아들세대가 걷는 길—그것은 아버지의 한생의 총화로 될것입니다.》

련락원은 포장길을 내려다보며 나직이 말하였다.

그는 이 순간 림송에게 모든것을 다는 말하지 않았다. 조국에서는 그에게 림송이 희망한다면 평양으로 데려올것을 지시했었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다면 림송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적후활동을 시작했으면 하는것이 조국의 의도였고 부탁이였다.

련락원은 자기가 림송에게 명령할수 없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전… 며칠 생각해보고싶습니다.》

림송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입안소리로 중얼거렸다. 련락원은 그의 심중이 리해되였다.

《그럼 다음주 월요일에 유니온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땐

림송동무가 나와 함께 떠나던가 여기에 남아있게 될것입니다.》

련락원은 림송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림송은 쇠못이 박힌 그의 손을 놓고싶지 않았다. 친근한 손이였고 그리웠던 손이였다. 그 손을 놓으면 무엇인가 귀중한것을 놓칠것 같았다. 련락원은 그의 심정을 리해했는지 대문이를 드러내보이며 미소를 지었다.

《림송동무, 이젠 안심해도 됩니다. 이젠 조국을 찾지 않았습니까. …》

그날밤, 림송은 잠들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그렇게 쉽게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수는 없다는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림송은 맨하탄의 고층호텔 침대에 몸을 잠그고 두눈을 감았다. 창밖에서는 바람소리가 들렸다. 그 바람소리는 어딘가 아득히 먼곳으로부터 귀에 익은 눈보라소리를 실어왔다. …

광야, 눈덮인 숲, 보라빛 먼산이 눈덮인 광야의 한끝에 솟아있다. 말파리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광야를 달렸다. 아들은 기세좋게 채찍을 휘두르는 아버지의 등뒤에 붙어앉아 눈바람 우는 낯선 광야를 바라보았다. 시작도 끝도 없이 광막하게 펼쳐진 들, 이제 저 우중충한 숲속으로 가면 따뜻한 잠자리와 더운 물이 있다고 아버지는 말했다.

아버지는 밀영에 도착하자 말파리에 싣고온 약품과 신문, 잡지들을 들고 어느 한 귀틀집으로 들어갔다. 젊고 인상좋은 유격대원이 아버지를 안내하였다. 림송이 따라서려 하자 아버지는 전령병몰래 엄한 눈짓으로 아들을 흘겨보았다. 림송은 귀틀집 출입문이 닫기자 주위를 둘러보다가 들창옆으로 다가갔다. 불이 사그라져가는 아궁옆에 앉았다. 꽁꽁 언손을 펴고 꺼져가는 불티우에 봇나무쪼각을 올려놓았다. 입으로 불었다. 허연 입김이 불티가 남아있는 재가루를 흩날렸다.

들창으로는 간간이 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와 함께 친근하고 청청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그 음성은 소년으로 하여금 만시름을 푹 놓게 하는 다정함과 따뜻함을 풍기고있었다. … 소년은 꿈속에서 다시 고향의 뒤동산, 잔디푸른 봄날의 언덕에 정다운 동무와 함께 앉아있었다. 변치 않을 우정을 맹세하는 노래를 불렀다. 어릴적부터 함께 자란 송아지동무, 목이 상큼하고 얼굴이 흰 녀동무 분이… 길다란 쑥대끝에 삼각을 메워 잠자리를 좇고 시내가 버들방천

에서 물싸움을 하던 동요시절의 벗… 소년은 꿈속에서 사진을 찍던 몇해전처럼 다시 꽃피는 동산에 둘이 함께 있는것이 이상했다. 무슨 말을 하려 해도 말이 나가지 않았다. 분이는 그저 웃기만 한다. 흰이를 드러내며 정다운 미소를 짓는다.… 림송은 쪽잠에서 깨여났다. 밀림속엔 어느새 어둠이 깃들고 성에낀 귀틀집창가엔 불빛이 밝다. 림송은 따뜻한 감정을 느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였다. 며칠전에 그들이 작별한곳은 꽃피는 동산이 아니라 바람찬 동구길이였다. 림송의 앞에는 성이 나면 등을 두드려주기도 하던 목이 가냘픈 소녀애가 아니라 눈과 몸매에 부드러움이 깃들기 시작한 처녀애가 서있었다. 부모들이 서로 롱말로 《사돈집》이라고 부른 다음부터 어쩐지 사이가 서먹해진 그들이였다. 하지만 작별의 순간엔 그들의 마음이 다시 옛시절로 돌아갔다.

《오빤 이제 가면 언제 와요？…》

《네가… 분이가 날려보낸 연을 찾으면 돌아오지.》

《피… 그게 언제 날아갔게…》

《그럼 난 이 땅을 다시 못밟을거야.》

림송의 롱말에 분이는 눈에 미소를 담았다.

《언니들이 그러는데 남자들의 말은 믿을게 못된다고 했어！》

《그럼 분인 우리의 약속두 안믿어？》

《안믿지 않구, 몰라！…》

어머니의 바래움속에, 마을사람들의 손저움속에, 정다운 동무의 눈길속에 떠나온 땅, 아버지와 함께 동구길 끝, 강변의 굽인돌이에 이르렀을 때 귀에 익은 정깊은 그 목소리를 들었다.

《성일오빠！ 꼭 돌아와！ 기다리겠어요！—》

그렇게 떠나온 고향이였다. 그렇게 작별한 벗이였다.… 림송은 출입문소리에 상념에서 깨여났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훤칠한 이마밑에서 안광이 번뜩이는분이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나오시다 문뜩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시였다.

《아니, 박동무, 저 불꺼진 화구앞에 앉은 소년이 누굽니까？》

아버지는 방한모를 두손으로 마주잡고 눈길을 내리깔았다.

《장군님, 저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까？ 박동무에게 이런 끌끌한 아들이 있었구만. 왜

함께 들어오지 않았소.》 그이께서는 림송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오시였다. 림송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자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잡으시였다. 《손이 다 얼었구만. 내가 이거 손님맞음을 잘 못했구만. 자,어서 방에 들어가자,몸이라두 녹여야지…》

장군님께서는 림송을 품에 안으시고 다시 귀틀집으로 들어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림송을 화로곁에 앉히고 따뜻한 손으로 그의 언손을 주물러주시였다. 그분의 손길이 몸에 닿자 림송은 온몸과 마음이 봄들에 나선것처럼 후더워지는것을 느꼈다.

《장군님,저는 아들애를 상해로 데려가려고 함께 떠났습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동무의 지하공작에도 유리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가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혁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걷는 길을 아들이 이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늘 벽에 〈지원〉이라는 글을 써붙였습니다. 오늘의 현실은 그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하고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사색에 잠기신 눈길로 아버지와 아들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상해는 나의 아버지가 조선국민회를 지도할 때부터 관심을 둔 곳입니다. 박동무는 이곳을 거점으로 혁명력량을 묶어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명의 2세만이 아니라 3세,4세까지도 잘 키워 혁명을 보위하고 조국에 기여해야 합니다.》

《장군님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절절한 목소리로 대답을 드리였다. 림송은 그이의 품에 안겨 그 귀중한 말씀을 듣고있었다.…

말파리는 다시 눈덮인 광야,어둠깔린 황야를 달렸다. 눈보라가 울고 공골말이 울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파리우에 서서 채찍을 휘둘렀다.

《아버지,그분이 바로 **김일성**장군님이시나요?》

숲속길에 들어섰을 때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는 피우던 담배불을 끄고 아들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다.

《그렇다,그분이 우리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선혁명의 사령관이신 장군님이시다. **김일성**장군님은 곧 우리 조선이다. 알겠니? 넌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그분의 전사,그분의 아들된 도리를 지켜야 한다!》

…메아리. 세월과 추억의 언덕을 넘어 그 메아리가 들려왔다. 림송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렇다. 련락원은 조국의 권고, 아니 명령을 안고 그에게로 왔던것이다. 림송에게 있어서 조국의 명령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김일성**장군님의 명령이였던것이다.

림송은 비로소 자기자신을 깨달은듯싶었다.

아버지가 걸어온 천리길우에 아들이 걸어갈 만리길이 펼쳐져있었던것이다. 고달픈 추억이 끝나는곳에 희망찬 래일이 시작되고있다는것을 그는 절감했다. 이틀후 림송은 유니온역에서 정깊은 련락원을 바랬다. 렬차가 멀리 철교로 사라질 때 그는 마음이 허전하면서도 동시에 든든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아직도 자기의 손에서 련락원의 체취를 느끼고있었다. 그 체취는 그가 조국을 배반하기전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것이였다.

…림송의 유년시절은 묘향산 기슭에서 흘러갔었다.… 그에게 있어서 조국의 표상은 묘향산의 봄하늘이였고 그 하늘에 아버지가 만들어준 연을 날리며 달려가던 아지랑이 피는 들판이였다.

림송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창공높이 날으는 연을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던 그 시절의 자기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군하였다. 연처럼, 연이 날리는 창공처럼 희망과 리상을 간직하던 동요시절… 만약 대양을 넘어 먼곳에 있는 그의 가슴속에 조국이라는 등대가 솟아있지 않았다면 그는 고통과 치욕을 맛보아야 했던 인생의 그 순간순간들을 결코 견디여내지 못했을것이다.

그는 고급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기보다 소달구지를 따라 고향의 눈석임물에 패운 농촌길을 걸어보고싶었으며 입에 선 서양음식보다 어머니의 터갈린 손이 지은 당콩에 기장을 섞은 고향의 햇밥에 토장을 찍어먹는것을 바랐다.

림송은 주머니에서 이태전 평양에 가서 조선인민군에 정식 입대할 때 어머니가 준 얼레빗을 꺼내들고 잠시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뭉클한 격정이 한순간 그의 가슴속에 치솟아올랐다. 그러자 다음순간 격동이 사라지고 애수와도 같은 야릇한 감정이 북받쳐오르는것이였다.

(과연 내가 조국광복회원이였던 아버지처럼 조국의 믿음에 보답할수 있을것인가.… 사랑하는 땅과 정다운 사람들로부터 너무도

오래동안 떨어졌던 내가… 전략정보사업이란 심장과 지혜를 요구한다. 한순간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내댈수 있는 그런 의지와 결단성이 필요하다.… 순간이 만사를 결정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나의 심장은 과연 언제나 한본새로 변함없이 고동칠수 있겠는가.… 혁명을 보위하고 조국에 기여할수 있을것인가?…)

고르롭게 흔들리는 비행기의 동체와 함께 림송의 마음속에도 불안의 파도가 일고있었다.…

림송은 팔을 굽혀 손바닥에 턱을 고이고 다시 얼마전 조국으로부터 새로운 임무를 받아안던 잊을수 없는 그날을 생각했다.

그날 림송은 륙군성 련락장교단의 통역으로 극동군사령부로 가던중 태평양의 작은 섬 하와이에 들리게 되였다. 교외의 공항에서 군용기가 급유와 충전, 급수, 기대정비 등으로 세시간 머무르게 된것이였다.

림송은 련락장교단 장교들이 호텔거리의 고급식당으로 들어가버리자 머리가 아프다는 핑게로 일행에서 빠졌다. 그는 호노룰루에서 련락원을 만날데 대한 조국의 지시를 받았던것이다.

림송은 상록수가 무성한 하와이대학근처까지 가서 택시를 잡아탔다. 동상 앞거리에서 내린 그는 천천히 보도를 걸으며 주위를 살폈다. 미행이 붙은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참모학교시절 림메르트의 지도밑에 《소농장》이라고 불리우는 버지니아주의 캠프페리아훈련소에서 몇달동안 특수훈련을 받은 일이 있었다. 훈련소에서는 오랜 정보생활을 한 머리가 희슥희슥한 교관들이 대상지 침투방법, 정보수집방법, 각이한 정황에서의 추리판단법과 지어는 설계보는법, 미술가능력까지 가르치고있었다. 림송은 그중에서 미행원칙 6가지를 머리속으로 상기해보았다.

① 미행대상자와 시선을 맞추지 말것.
② 색안경을 끼거나 마스크를 쓰는것을 피할것.
③ 미행중에 시계를 보지 말것.
필요한 경우 정거장, 상점 등의 벽시계를 자연스럽게 볼것.
④ 미행중에 동료를 만나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하지 말것.
⑤ 미행 인계, 교대는 부호 또는 약속된 암호에 의해 자연스럽게 할것.
⑥ 눈에 띄우는 옷차림을 하지 말것.

※ 미행은 반드시 3명을 한조로 할것.

…

림송은 다시 《동방》공원 야외음악당앞에서 돌아섰다. 그는 거리구경을 하는 관광객들속에 끼여 상점들속을 들락날락하다가 동상앞 《현대책방》이라고 쓴 집현판으로 들어섰다.

책방안에는 아시아계 대학생 몇명과 안경낀 젊은 녀성 등 얼마 안되는 손님들이 서가를 돌아보고있었다. 회색남방샤쯔를 입은 점원이 선풍기앞에 앉아있었다. 림송은 졸고있는 남방샤쯔에게 큰소리로 물었다.

《지난주 국제전화로 부탁한 데이비드의 〈복제인간〉을 가지러 왔습니다.》

그러자 남방샤쯔는 눈을 가늘게 뜨고 림송을 살펴보더니 기지개를 켰다.

《그럼 손님은 수요일에 부탁한 구입잔가요?》

《아닙니다. 금요일이였지요.》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주인님이 기다리십니다.》

남방샤쯔는 시들한 어조로 내밷더니 다시 눈을 감아버렸다.

림송은 책방의 안방으로 들어갔다.

어깨가 버그러진 중년의 사나이가 들창가에 서있다가 급히 돌아섰다.

림송은 그의 얼굴을 대하자 깜짝 놀랐다. 그는 몇해전 워싱톤으로 림송을 찾아왔던 련락원 리준구였던것이다.

《아니 련락원동지가 어떻게?!…》

림송은 반가움에 젖은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기다리고있었소.》 하고 리준구는 눈까풀이 얇은 진중한 눈에 미소를 담으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림송동무, 그사이 조국에서는 동무의 사업에 대해 만족을 표시해왔소. 정말 수고했소.》

《저야 뭐… 정말 부장동지랑 보고싶습니다.》

림송은 눈을 슴벅이며 리준구의 손을 더욱 으스러지게 잡았다.

이 순간 림송은 이태전 빠리—모스크바를 거쳐 비공식적으로 평양에 체류했던 그 잊을수 없는 나날이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그때 처음으로 인간된 자각을 느끼며 군기앞에서 첫 군인선서를 했고 단기강습소에서 혁명의 진리를 심장에 아로새겼다. 그리운

어머니와의 포옹도, 주한경장령과 함께 대동강가에서 숭어국을 끓여 놓고 작별연을 하던 그 시각도 그의 머리속에 생생히 남아있었다.
《림송동무.》 하고 리준구는 한참만에 그의 손을 놓으며 말했다.
《조국에서는 동무가 전번에 놈들의 신형무기개발정보를 제때에 보내주어 아군의 대전해방작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알려왔소. 조국에서는 동무에게 국기훈장을 수여했소. 축하하오!》
림송은 한순간 그를 마주보다가 나직이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겠습니다! …)
리준구는 격동된 림송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함께 의자에 앉았다.
《림송동무, 공작상 안전을 위해 우린 도꾜에서가 아니라 이곳에서 임무를 전달하기로 했소.》
리준구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림송은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예감을 느끼며 리준구를 올려다보았다.
《?! …》
리준구의 눈은 심중하게 번쩍거렸다.
《림송동무, 우리 총참모부의 통보에 의하면 지금 놈들은 락동강지역에 전선이 압축된 불리한 정세를 분석하면서 그 원인을 군사정찰 일면만 치중하면서 특수전략정보를 무시한데 있다고 보고있소. 자료에 의하면 얼마전 미중앙정보국 고위관리들이 극동군사령부정보국과 별도로 미중앙정보국의 지도를 받는 대규모의 특수정보부대를 조직하려 하고있소.》
《그러니… 지금까지 극동사령부 군사정보국과 캐논방첩기관에 눌려 비합법적으로 움직이던 미중앙정보국이 전쟁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군요.》
림송은 생각에 잠겨 리준구의 온화한 눈길을 마주보았다.
《그렇소. 통보에 의하면 얼마전 미국회 상원에 조선전쟁에서 전략정보를 확대할데 대한 제안이 제출되였다고 하오. 맥아더를 지지하는 외교위원회와 펜타곤 측근자들의 반대로 이 제안이 가결되지는 않았지만 알렌 덜레스를 비롯한 미중앙정보국 고위관리들이 지금 부지런히 막후활동을 교섭하고있다오. 조국에서는 이 문제를 대단히 심중하게 보고있소.》
림송은 최근 군사정세에서 나타난 일련의 난점들이 미국정계와 군

부에 커다란 동요를 일으켰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군사평론가들은 일치하게 맥아더가 군사적타격 일면만 강조하면서 상대측을 잘 모르고 덤볐기때문에 붉은 철의 장벽에 부딪쳤다고 날카로운 론조로 신문면들을 가득 채웠다.

사실 극동에서 맥아더의 극동군사령부 군사정보국은 방첩과 정보를 도맡아하고있었다. 군사정보국(지투)은 주로 항공, 지상 정찰 등 부대정찰을 하였는데 정보활동에서는 캐논방첩기관(씨아이씨)이 중추적역할을 하고있었다. 군대내 안전, 방첩 임무에서 일약 두각을 보여 맥아더의 신임을 얻은 씨아이씨책임자 캐논중좌는 형식상 정보국(지투)의 한개 부서로 되여있는 방첩기관을 독자적인 첩보기관으로 승격시키려 맹활동을 벌리고있었다. 캐논기관에 있어서 미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정보활동을 벌리고있는 미중앙정보국 (씨아이에이)이 극동전선에 공식적으로 개입한다면 하나의 충격적인 타격이 아닐수 없었다. 미중앙정보국이 조선전쟁에서 합법적인 권위를 세우게 되면 씨아이씨는 한갖 부대안전 즉 방첩임무만 수행하게 될것이였다. 이로부터 캐논은 미중앙정보국의 출현을 달가와하지 않는 군사정보국장 월로우비소장을 부추겨 맥아더의 공식문건이 미국회에 제출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미중앙정보국은 미국회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극동전선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미중앙정보국 책임자 알렌 덜레스는 극동군사령부와 8군관하의 각이한 병종 부서들에 자기의 첩자들을 교묘하게 박아넣는데 성공하였다.

실제상 지투의 주요작전들은 수행되기전에 문건으로 덜레스의 책상우에 제출되고있었다. 월로우비나 캐논이 이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였다. 아직은 덜레스가 극동전선에서의 정보활동을 좌지우지 하지는 못하였기때문에 그들은 신경은 쓰면서도 모르는체하고있었다. 하지만 승냥이는 자기가 물고있는 고기점을 사자가 바라보는것까지는 허용할것이다. 만약 주린 사자가 그 고기점만이 아니라 승냥이의 먹이구역까지 탐내여 침범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얼마전에.》 하고 리준구가 말꼭지를 떼는바람에 림송은 명상에서 깨여났다.

《나토군에서 정치정탐전문가로 자처하던 라이리 에니스가 8군사정보부요직에 임명되여왔소. 이 인물이 실제적으로는 미중앙정보국

극동분과 책임자라는걸 우리는 알고있소.》
《한때 카나다대사관에서 무관격으로 정보활동을 하던 대좌가 아닙니까?》
림송은 어쩐지 그 이름이 귀익어 얼굴을 들었다.
리준구는 책상우에서 담배곽을 집어들었다.
《지금은 준장이요. 제2차대전시기 전략정보전문가로서 2전선문제를 담당했댔소. 정보에 의하면 그가 미중앙정보국이 시도하는 전략정보부대창설때문에 대구에 날아왔다오. 워싱톤의 군사전문가들은 지금 조선전선에서 총공세는 빨라서 6개월을 준비해야 진행할수 있다고 하면서 말끝마다 전략정보부대에 대해서 떠들고있소.》
《그러니 놈들이 전략정보부대를 만들려면 반년간이 걸려야 한다는것이 아닙니까?》
리준구는 성냥불을 켜고 담배를 붙여물었다. 파르스름한 연기가 대문이짬으로 빠져나왔다.
《놈들이 전략정보부대 즉 제2전선특공대들을 준비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요구되는것만은 사실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촉박하오. 동무의 임무는 어떻게 하나 이 정보부대에 침투하여 비밀을 입수하는거요.》
《?!…》
《임무가 무겁소. 아직은 우리가 아는것이 너무도 적소. 우선 누가 이 부대를 조직하려는가? 어떤 방법으로 하려 하는가? 그 준비를 어떻게 하며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가? 부대를 어떤 규모로 하며 언제 조직하려 하는가? 어떤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가? 이걸 해명하고 확증하는것이 동무의 임무요.》
림송은 리준구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다가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저의 위치에서는 너무도 아름찬 과제가 아닙니까?》
리준구는 림송의 뜻밖의 대답에 잠시 마주보다가 빙그레 웃었다.
《왜 벌써부터 겁이 나오?》
림송은 책상우에서 담배가치를 집어들었다. 리준구가 담배불을 넘겨주었다.
《늘 단도직입적이군요. 저야 한갖 극동문제차관보 딘 러스크의 통역인데 그런 실질적인 고급정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요.》
《옳게 말했소. 그래서 우린 동무의 사업을 위해 얼마전부터 룩

군성 인사국을 상대로 위장작전을 벌렸소. 동무는 인차 워싱톤을 떠나 8군사령부소속 〈한국〉 련락장교단으로 소환될거요!》
《통역으로말입니까?》
림송은 저으기 놀라며 눈을 쪼프렸다.
리준구는 담배불을 끄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니, 련락장교로 가게 되오. 동무야 〈정보쎈터〉 출신이고 참모학교 졸업자격이 있지 않소! 동무를 유산상속자로 지명한 죠지 림메르트는 알려진데 의하면 미련방수사국조직자의 한사람이였소. 지금 극동에 나와있는 많은 정보장교들이 그자의 손탁에서 길들여졌소. 음흉하고 로련한자였소. 상해에서 조국광복회 사업을 하던 동무의 아버지를 살해하도록 〈람의사〉에 지령을 준자가 바로 림메르트였소.》
그것은 이미 림송자신이 확인한 사실이였다. 실지 림메르트는 기업인의 탈을 쓰고 상해에 드나들면서 림송의 부친과 《상업》거래가 있었다. 《정보쎈터》에로의 림송의 유인은 계획적인 음모의 빈틈없는 한 고리였다.
림메르트는 림송의 아버지가 《좌익물》이 든다면 상해의 많은 민족기업인들이 조국광복회의 영향하에 들어갈수 있다는것을 간파하였다.
그것은 친미적인 《상해림시정부》를 통해 미래의 《한국》을 설계하려는 백악관의 숨은 의도와 희망에 저촉되는것이였다.
음모는 형식상 장개석의 비밀특무기관 람의사의 이름으로 진행되였다.
심장병으로 운명하면서 림메르트는 자기가 고아로 만든 한 청년의 후원자로 되는 유언장에 수표하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후에 생각해보면 그 순간 림메르트의 앙상한 손가락이 떨렸었다. 그는 공증인의 도움속에 수표를 끝냈었다. 곁에는 동년배 정보장교들과 림송이 서있었다. 수표를 끝낸후 림메르트는 마지막기력을 모아 림송을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불안이 떠돌고있었다.
그는 실로 수백명의 정탐가들을 품들여 키웠지만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인물은 단 한명, 피부색이 다른 중키의 사나이 림송이였던것이다. 결국 운명은 그의 인생을 최후로 시험하려는것이다. 과연

저 청년이 나의 숙망을 지켜줄것인가? 그는 굳이 림송에게 모든 것, 명예와 정신력과 재부를 넘겨준다고 인정하게 되는 그자리에서 속죄의 세계에 머무르지는 않았다. 악으로 시작되여 선으로 종결짓는다면, 공상으로 내친 걸음을 실천으로 맺는다면 그런 사나이는 보람스러운 인생이였다고 그는 위안하게 되는것이였다.

하지만 그가 키운 사나이가 양이였는가, 사자였는가? 어쩌면 그는 줄곧 승냥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토양은 씨앗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법이다. 생명수조차 그것의 생사는 결정할수 있어도 그것의 그것아니기를 변경시킬수 없는것이다.

그 씨앗은 림메르트것이 아니였다. …

림송은 그 운명의 마당에서 지었던 쓰거운 웃음을 이 시각 다시 회고하게 되는것이였다.

리준구는 생각에 잠겨있는 림송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서둘러 말했다.

《동무는 일찌기 정보교육을 받았고 일어와 영어에 능한만큼 륙군성 인사국의 동의를 쉽게 얻을수 있었소. 그리고 동무의 인사조치에는 8군사령부의 한 인물의 후원이 있었소. …》

리준구는 더 설명하지 않고 출입문쪽을 바라보더니 이마를 찌프렸다.

《요즘 우리는 대구의 한개 련락선이 파괴된것때문에 머리를 앓고있소. … 놈들의 방첩기관의 신경이 예민해진만큼 당분간 련락소가 움직일 때까지는 부산의 위암동아지트만 리용해야겠소.》

《위암동아지트요? 그건 저의 비상련락선이 아닙니까?》

《그렇소. … 련락원과의 첫번째 접선장소는 부산의 국립공원뒤 반월성이고 두번째 접선장소가 위암동아지트입니다. 날자와 접선암호는 기억하고있겠지요? …》

《예.》

《조국의 지시는 당분간 평양방송을 통한 밤 12시 에쓰디 전문으로 받으시오. 이제 련락원이 중요한 암호문건을 가지고 부산련락소에 도착하게 되여있소. 그때까지면 동무가 8군사령부에 발을 붙이게 될거요.

조심해야겠소. 만약의 경우 사소한 의심이라도 생기면 첫번째 접선은 물론 두번째 접선도 포기해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두사람은 잠시 서로 마주보았다. 벌써 작별해야 할 시간이였다.
문득 리준구는 돌아서더니 벽장에서 무명보자기에 싼 크지 않은 꾸레미를 꺼내들었다.
《참, 잊을번했구만. 이 첫물 풋강냉이를 한이삭 들어보우.》
리준구는 방금 삶은듯한 풋강냉이 두 이삭을 림송에게 내밀었다.
《아니, 이건 조국의… 강냉이가 아닙니까?…》
《림송이, 부장동지가 며칠전에 묘향산 고향집에 들려왔다오.》
《그럼 어머니가?…》
림송은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듯한 풋강냉이를 소중히 가슴에 움켜안았다.
《어머님은 이 풋강냉이를 한아름 무명보자기에 싸보내면서 동무에게 고향을 잊지 말라고 전해왔소.…》
림송은 그 첫물 고향의 풋강냉이를 들여다보며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눈을 슴벅이며 리준구를 마주보았다.
《준구동지… 고맙습니다. 어릴 때 난… 강가에서 해종일 반두질을 하다가는 강냉이밭에 뛰여들어 채 여물지도 않은 풋강냉이로 주린 배를 채우군했지요.… 저에겐 그게 늘 조국의 표상으로 떠오르군 했습니다… 이 모든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리준구는 림송을 친근하게 바라보며 가볍게 짧은 숨을 내쉬였다.
《공작상 이렇게 몇이삭만 넣고왔소. 강냉이야 미국에도 흔하지만 세관관리들이 치과의사의 가방에 든 강냉이를 눈여겨보지 않을수 없지…》
《저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그런 모험을 마십시오.》
리준구는 림송의 말에 빙그레 웃었다.
《림송이, 자신을 너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지 마우. 그러단 신경을 상하겠소. 조국이… 늘 자기곁에 있다고 생각해야 하오.》
림송은 눈길을 내리깔았다. 무엇인가 이상야릇한것이, 부드러운 봄바람같은것이, 따뜻한 비줄기같은것이 두사람 사이를 덮었다.
《련락원동지, 그 말뜻을 알겠습니다. 저에 대해선 안심하십시오.…》
《어머니에게… 전할 말은 없소?》
리준구는 림송의 표정을 살폈다.

림송은 문득 얼굴빛이 근엄해지며 조용히 머리를 가로저었다.

《없습니다. … 아니,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전 늘 어머니가 주신 얼레빗을 품에 간직하고있다고. 그리고 전해주십시오. 세상에 자기를 낳아키워준 어머니를 잊을 아들이 어디에 있겠는가고…》

《알겠소! 꼭 전하지… 그리고 나도 인차 동무곁에 가게 될것 같소! … 대구의 치과병원을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되니까. …》

림송은 련락소밖으로 나왔다.

끄덕끄덕 졸고있던 남방샤쯔는 림송이 현관문에 이르렀을 때 슬며시 눈을 뜨고 그의 등뒤에 대고 다정한 미소를 보냈다. …

…안개낀 바다가 그의 눈앞에 펼쳐져있었다. 림송은 추억에서 깨여났다.

비행기는 포화에 물젖은 불타는 조국땅을 가까이하고있었다. …

림송은 다시 눈을 지그시 감고 사색에 잠겼다.

어떤 생활이 나를 기다릴것인가? … 도꾜나 대구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하긴 극동군사령부의 오덕준대령이나 정일권의 륙군본부의 강문봉이나 리형근 등은 도미류학 등으로 림송과 친교가 깊었고 필요할 때 그 우정을 활성화할수 있는 인물들이였다. 하지만 작전권이양으로 8군사령부에 소속된 조건에서 《국군》은 최종적으로 림송의 전선이 아니였다.

문득 스테펠 듀페이가 떠올랐다. 즉흥적이고 고집이 세면서도 미국인 고유의 명백한 성격이였다.

대학시절과 참모학교시기 림송은 어쩐지 저도 모르게 스테펠과 그중 가까이 지내게 되였다. 같은 미국시민이고 또 림송의 재산배경에 스테펠이 매혹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의 학급은 세계의 축소판이였다.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있었다. 그들은 같은 학문을 탐구하였지만 성격에는 민족의 피가 오랜 세월 빚어낸 특징이 남아있었다.

어느날 그들은 시가쿄 골프장에서 아름다운 베네수엘라처녀를 사귀여 커피를 마신 일이 있었다. 처녀와 함께 온 정체모를 사나이가 그들에게 차례로 그 녀자가 마음에 드는가고 물었다. 이때 미국인은 《좋아한다.》, 도이췰란드인은 《왜 묻는가?》, 중앙아프리카인은 《미인이다.》, 일본인은 《글쎄》, 에스빠냐인은 《무엇때

문에 마음에 든단 말인가?》,영국인은 《나에게 소개하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가는 사이 스테쩰은 벌써 그 처녀의 팔을 끼고 골프장문을 나서고있었다.… 한때는 로렌스나 조이스의 소설과 《남회귀선》,《특성없는 남자》 등을 읽고 소설을 쓴다고 몇달씩 밤을 밝히군하던 친구였다. 그가 바란것은 명예였고 얻으려는것은 돈이였다. 문인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시절이였다. 하지만 스테쩰은 삼촌이 경영하는 은행에도, 또 그의 글을 보고 초청한 일류급신문사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고 군복을 입어버렸다. 유럽원정을 떠난것이다.… 그때로부터 벌써 몇해가 흘렀다. 그는 어떤 인간이 되였을것인가? 또 라이리 에니스준장은 어떤 인간인가? 어떤 생활이 나를 맞을것인가?…

물론 그 물음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 2 장

스테쩰 듀페이소좌는 8군사령부 정보부 부관실 당직근무를 마치자 펜구락부에 전화를 걸었다. 레이몬드 아담스의 방은 비여있었다. 그제야 그는 아담스가 림송의 도착과 관련하여 장교숙소에 가겠다고 하던 말이 떠올랐다.

요즘은 저녁마다 대구시내의 장교구락부지하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박혀있으면서 취해있다나니 하루근무도 겨우 지탱해나가는 형편이였다. 그는 장교구락부에 얼마동안 드나들면서 얼굴이 해사한 접대원 한명을 손에 걷어쥐였다. 손쉽게 얻은 행운이 늘 그런것처럼 정열과 도취의 첫순간이 지나가자 스테쩰은 자기의 주머니를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말끔히 털어내는 만문한 고기덩어리에 불과한, 이 연지찍은 돈벌레에 대하여 극도의 환멸을 느끼게 되였다. 녀성에 대한 열정은 곧 도박과 술에 대한 정열로 탈을 바꾸었다. 그러나 인생의 쓴맛은 트럼프에서도 행운으로 바뀌지 않았다. 술이 그를 마셔버리고 트럼프장이 또 술을 마셔버렸다. 며칠사이에 스테쩰은 아예 거덜이 났다.

스테쩰은 요즘 부관실의 장교들은 물론 자주 련락을 다니게 되

는 8군사령부 보급계통장교들과도 얼굴을 피해다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였다. 처음 얼마쯤은 대구경제사무소 레이몬드 아담스의 도움으로 숨을 내쉴수 있었으나 또다시 채무단련에 머리를 앓고있었다. 그렇다고 아담스에게 계속 손을 내밀수도 없고 대구에 온지 한달도 못되여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삼촌에게 전보를 칠 용기도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삼촌의 은행은 파산에 직면하고있었다.

이러한 스테쎌에게 있어서 림송의 대구도착소식은 사막에 떨어진 비줄기와도 같은것이였다. 림송은 평소에 자기 돈지갑을 여는데 손을 떨지 않았던것이다.

스테쎌은 주섬주섬 서류들을 철함에 밀어넣고 상급인 에니스준장의 방으로 찾아갔다. 동촌비행장이 시내에서 10키로메터이상 떨어진 교외에 있는만큼 직속상관인 에니스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것이다. 최근 교외에서 인민군정찰병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미제침략군 병사들과 장교들이 피해를 입은 다음부터 사령부는 도로마다 검문소들을 두고 헌병을 배치하였다.

스테쎌이 방에 들어서자 에니스준장은 어디론가 갈 차비를 하며 군복저고리의 단추를 채우고있었다.

《어떻게 왔나? 소좌.》

준장은 넥타이를 바로 매며 시답지 않은투로 물었다.

《준장님, 교외에 좀 나갔다오겠습니다.》

《혹시 뉴욕에서 송금이라도 온게 아닌가? 자네 요즘 빚단련에 말이 아니라던데…》

《우리 사령부에 근무하러 오는 친구를 마중하려고 그럽니다.》

비끄는듯한 말에 기분이 잡친 스테쎌이 낯을 찌프리자 에니스는 흥미있는듯 홱 얼굴을 돌렸다.

《련락장교단에 오는 림송말인가? 문용채대령도 그를 마중간다고 했는데?…》

《준장님, 림송의 일에는 륙군성과 극동군 관리들까지도 조력하셨다던데요?…》

스테쎌은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에니스를 랭랭히 건너다보았다.

《소좌, 너무 으시대지 말게. 자네도 알겠지만 림송대위의 후원자였던 죠지 림메르트씨는 내가 오타와에서 외교관생활을 할 때 둘도 없는 친구였네. 아니 친구라기보다 스승이였지… 림송!…》

에니스의 졸음기가 실린듯한 눈에는 야릇한 미소가 떠돌았다.
《한번 만나보시렵니까?》
《후에 만나지.》
갑자기 에니스는 싸늘한 눈길로 스테쎌을 바라보았다. 스테쎌은 황급히 눈을 내리깔았다. 이런 경우 더 객기를 부리는것은 현명한 부하의 태도가 아니였다. 그는 이런 눈길에 영원히 습관될수 없을지도 모른다.
스테쎌은 얼마후 8군사령부청사를 나와 동촌비행장이 있는 대구교외쪽으로 승용차를 몰아갔다.
스테쎌은 비행장 서북쪽 수십대의 승용차들이 몰켜서있는쪽으로 바투 다가가 제동기를 밟았다.
땅우에는 황혼이 깃들었으나 아직도 하늘은 연분홍빛으로 가볍게 타오르고있었다.
《려객기가 예정시간보다 퍼그나 늦어진가봅니다.》
스테쎌의 옆에서 보통키에 걸늙어보이는 사나이가 서툰 영어로 중얼거렸다.
옆으로 보니 《국군》대령의 계급장이 눈에 띄였다. 에니스가 말하던 문용채대령이 분명하였다. 사령부복도에서 몇번 마주친 일이 있는 장교였다.
두손을 앞으로 자주 모아잡는 거동에, 약간 꼬리가 내려붙은 눈매에, 주름잡힌 밭은 목에 경망한 비굴성이 은근히 내비치는 중년의 사나이였다.
《거의 하루가 늦었다더군요.》
안경낀 체소한 중년녀인이 그의 말에 의미없이 맞장구를 치며 상공을 올려다보았다.
려객기가 활주로를 달려 지정된 자리에 멎어설무렵 검은 승용차 한대가 비행장 세관건물쪽에서 불쑥 나타났다.
스테쎌은 승용차가 낮익어 그쪽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차문이 열리더니 뜻밖에도 8군방첩기관의 브라운 겐지로소좌가 내렸다.
겐지로를 보는 순간 스테쎌은 어쩐지 불쾌한 생각이 들어 얼굴을 홱 돌려버리고말았다.
림송은 강수림과 함께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스테쎌은 서둘러 그들쪽으로 다가갔다.

《기다렸네. 림송！》
환성을 지른 자기의 큰 목소리에 놀란 스테쎌은 본능적으로 씨아이씨장교쪽을 바라보았다.
림송은 반갑게 두팔을 벌렸다.
《이렇게 나와주어서 고맙네.》
스테쎌은 림송을 포옹하고나서 트렁크를 받아들었다.
운전사인듯싶은 병장 한명이 림송에게 량해를 구하더니 강수림에게로 가까이 갔다.
《아가씨, 잠간… 씨아이씨에서 온 장교님이 사무엘씨의 부탁을 받고 차에서 기다립니다.》
그러자 강수림은 얼핏 림송을 바라보며 주저하는 빛을 띠웠다.
《어쩌면 좋을가요？》
림송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사무엘의 부탁을 받은분을 노엽힐 필요야 없지요.》
《그럼？》
《난 장교숙소에 들겠습니다.》
강수림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그 녀자는 서먹서먹한 태도로 병장과 림송을 번갈아보더니 얼굴을 붉히며 나직이 말했다.
《림송씨, 그럼 제가 부산으로 떠나기전에 호텔에서 다시 만나요.》
강수림이 검은 승용차쪽으로 가버리자 문용채대령이 림송에게로 다가왔다.
《림송씨, 원로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국련락장교단의 문용채대령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난 당신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림송은 봉투를 넘겨주며 문용채의 유표나게 모난 얼굴을 유심히 건너다보았다. 면도를 말끔히 한 칼칼하고 잔주름이 많은 누런 얼굴, 성긴 머리칼, 무표정한 눈빛.
림송의 머리속에는 한순간 딘 러스크차관보의 통역으로 있을 때 그의 금고에서 본 인물카드의 구절이 떠올랐다.
《극비. 인물자료. 문용채. 군번 172502.
일본륙군사관학교 56기생. 대위로 중일전쟁에 참전. 1945년 일본군

소좌의 견장을 달고 귀국하여 국방경비대사관학교 교장, 미군정청 통위부 경비대장, 국방경비대 군기대사령관, 도미류학후에는 국군 2사, 8사 사단장으로 활약하였다. 춘천주둔 6사의 표무원, 강태무의 의거입북으로 철직된 리응준소장의 사위다. 장모인 리씨는 리갑의 딸로서 서울녀류사교계의 주동인물이였다.
작전경험이 풍부하고 자존심이 강한 개인영웅주의자이며 부친은 물욕이 강한 기업가이다. 애처가이며 대부분의 여유시간을 승마와 군사서적, 정탐연구에 바치고있다.》
림송은 딘 러스크가 이 인물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투철한 반공산주의자이며 《청렴, 성실》을 좌우명으로 삼고있는 이 인간이 앞으로 군의 주요인물로 나서리라는것을 림송은 의심치 않았다.
승용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을 때 림송은 문용채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스테쎌 듀페이에게 물었다.
《방금 수림양을 마중나온 장교는 누군가?》
《해적두목같은 사나이지. 미국계 일본인인데 극동군방첩기관책임자 캐논중좌의 오른팔이고 8군방첩과장의 대리인일세.》
《낯이 익던걸?…》
《착각일테지. 겐지로소좌는 련합군상주후 도꾜와 남조선을 떠난 일이 거의 없다네.》 하고 스테쎌은 한손으로 운전대를 잡은채 림송이 내민 담배곽을 받아들며 말했다.
《그전에 상해외국인조계지와 서울에서 형사노릇을 했다더군.》
《상해에서?…》
림송은 번개치듯 머리속에 떠오르는 환영을 쫓으며 조용히 담배연기를 빨아들였다.
《위험한자일세. 태평양전쟁시기엔 서울에서 캐논의 첩자로 대학가에 기여들었댔지. 겐지로에게 걸려들어 잘못된 장교가 벌써 한둘이 아니야. 요즘 씨아이씨의 권한이 대단해졌거든.》
《그래 부대생활이 어떤가?》
림송은 죽은 도시처럼 컴컴하고 활기없는 대구시가를 바라보며 화제를 돌렸다.
《말두말게. 난 장차 사령부근무는 그만둘가 하네.》
스테쎌은 쓰거운듯 이마를 찌프렸다.

《그건 왜?》

《케자르는 인화와 조화가 장군의 필요라고 했지. 하지만 에니스준장은 파격파거든. 8군사령부에서 일하기란 간단치 않다네. 8군사령부에는 지금 스스로의 능력을 과시하는 일류참모보다 무조건 순종하는 이류참모들만이 남아있다네. 지성이 있는 장교들은 얼마 안있어 사단이나 련대로 내려가지.》

《이보라구, 스테셀.》 하고 림송은 웃으며 말했다.

《나폴레옹을 거장으로 보는 사람은 많아도 덕장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네.》

《흥, 자네두 이제 련락장교단에 있으면서 체험해보게.… 요즘 사령부공기가 말이 아니네. 미군은 이미 락동강지역까지 압축되여 일본으로 철수할 우려까지 보이고있네. 인민군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어엎고 파죽지세로 공격해오고있지… 하지만…우린 앞날을 락관하고있네. 정보전은 아직 시작도 안했으니까. 요즘 에니스준장이 큼직한 작전을 구상하고있지. 로련한 늙은이니까. 어쨌든 난 전선장교로 언제든지 출전할 용의가 있네.》

《난 자네가 그 출전에서 생명을 보존하길 바라네.》

《운명에 맡기지.》

《운명이란 나루배와 같은거야. 어디로 노를 젓는가가 문제지.》

두사람은 잠시 침묵에 잠겨 시창앞을 내다보았다.

승용차는 깨여진 장갑차들과 포탄상자들이 쌓여있는 역전거리를 지나 8군사령부 기지촌에 들어섰다.

자동차가 장교호텔앞에 멎자 스테셀은 림송을 돌아보았다.

《림송, 사령부에는 래일아침 들리게. 련락장교단 당직장교에게 내가 말해뒀어. 전선이 가까운만큼 조심하게. 자칫하다간 인민군의 포로가 되거나 공습에 개죽음을 당할수 있네. 그리고 요즘 통화팽창때문에 딸라의 시세도 대폭 저하됐다네. 절대로 접대원명색을 띤 위안부들에게 걸려들지 말게.》

《왜? 시내물에서 돌을 치우면 시내물은 노래를 잃는다네. 녀자란 비처럼 남자를 적시지.》

《흥! 랑만적인데. 이보라구, 그것들은 매춘부들과 다름없는 화류병환자들이라네.》

스테셀은 그 무슨 귀중한 교훈이라도 귀띔하는것처럼 열을 올리

더니 한손을 들어보이고 승용차발동을 걸었다.

림송의 방은 예약된대로 장교숙소 3층에 있었다.

림송이 안내원을 따라 방에 들어서자 회색양복에 흰 넥타이를 맨 중년의 사나이가 의자에서 정중히 일어나 허리를 굽혔다.

《림송씨, 먼길에 수고했소.》

《아, 아담스선생, 사무엘이 인사를 전했소. 그래 잘 있었소?》

림송은 그와 악수를 나눈후 담배를 권했다.

레이몬드 아담스는 담배를 물고 쏘파에 앉았다.

전쟁이 일자 부산의 펜구락부 기자명색으로 온 그는 림송이 뉴욕을 떠나기전에 다나까 사무엘로부터 소개받은 인물이였다.

한때 기자명색을 띠고 프랑스에서 경제정탐으로 명성을 떨치다가 빠리에서 체포되여 국제재판을 받고 몇년간 형무소생활을 한 일이 있는 레이몬드 아담스는 의협심과 의리가 있고 결단성이 있다는 사나이였다.

레이몬드가 체포된 경위만 놓고보더라도 친구의 딸을 구원하려고 스스로 경부를 찾아간것이였다.

정견이 따로 없는 전형적인 영국계 이딸리아인이였다.

결국 레이몬드 아담스는 겉으로 펜구락부 기자로 있으면서 부산과 대구에서 사무엘경제사무소를 대표하고있었다. 림송은 사무엘의 기관이 명목상 경제간판을 걸고있지만 미중앙정보국과 련결되여있음을 잘 알고있었다. 사무엘은 이번에 림송을 대구로 떠나보내면서 자기 사무소가 할 내적인 기본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주었었다. …

림송은 차를 마시면서 그간 레이몬드 아담스가 벌린 공작정형을 청취하였다.

《사무소에 몇명의 믿음직한 한국인들을 고용하는 일은 끝났지요.》 하고 레이몬드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최근에 우린 부산과도 련계를 지었습니다. 주목할만한것은 련락장교단의 문용채대령의 부친이 우리 사무소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보이고있는것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아담스선생. 당신은 내가 대구에 나타난 사실만 놓고도 사무엘씨의 경제협동체가 얼마나 조선에 관심이 있는가를 짐작할수 있을거요.》

레이몬드 아담스는 크게 얼굴표정을 바꾸지 않았으나 눈에 신중한 기색이 떠올랐다.

《어깨가 무거워지는군요.》

《전쟁은 하나의 경제전이기도 하오.》

사실 전쟁의 그라프가 최대치로 줄달음치는 극동으로, 조선으로 월가의 상인들과 기업가들의 눈과 손과 《렌트겐》선들이 움직이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였다. 산업정보전은 하나의 통화팽창과 같은 현상을 낳아 사실상의 《청렴한》 군사정보전문가들과 방첩책략가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오고있었다.

림송은 이 점을 노리고있었다.

그는 코수염을 약간 기른 레이몬드의 무표정한 얼굴을 예리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앞으로 우리의 무대는 조선반도요. 극동군의 움직임과 〈국군〉의 정보에 관심을 돌려야겠소. 다른 선들에 선손을 빼앗기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소.》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이 땅을 무대로 삼은 이상 상대적수가 그 누구이든 물러서지 않을것입니다.》

레이몬드는 진정이 담긴 목소리로 침착하게 말했다.

림송은 레이몬드가 돌아간후 팔짱을 끼고 방안을 오락가락하며 그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몇번 상대하지 못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의혹과 함께 일종의 믿음이 가는 인물이였다. 사무엘의 말에 의하면 레이몬드는 2차 세계대전시기 기자로서 련합군과 함께 노르망디상륙작전에도 참가했고 그후 련합군 제2전선부대들에 보급장교대표로 파견된적도 있었다는 흑막속의 사나이였다.

(레이몬드 아담스, 어떤 인간인가? 의협심이 있고 음울하면서도 성실한 인물, 그는 자기의 친구를 위해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지. 단순한 부르죠아남성관인가? 우정의 힘인가?… 그를 사무엘의 선에서만 리용해야 하는가?… 아니, 그는 미중앙정보국의 첩자일수도 있다!…)

림송은 침대에 누워 팔깍지우에 무거운 머리를 기댔다. 피곤해서인지 귀가 웅웅거렸다.

(…드디여 또다시 고국의 땅을 밟았구나! 고국이건만 너무도 낯설어보이는 적후의 땅을!… 나의 조장이며 련락원인 리준구동

지는 언제면 나타날가? 련락선은 언제 회복될가?…)

창밖에서는 보슬비가 내리고있었다. 음산한 바람이 창문으로 훅훅 밀려들어오고있었다. 역전거리의 불빛들은 어둠에 묻히여 부옇게 보였다.

림송은 방을 나서서 숙소밑층에 있는 고급장교식당으로 향했다. 그가 문밖을 나서는 순간 복도끝에서 한 사나이가 나타나 천천히 림송쪽으로 마주왔다. 두사람은 서로 눈길을 떼지 않고 마주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다.

약간 네모진 강마른 얼굴, 두드러진 관골, 총이 센 머리칼을 절반 가름내서 넘긴 머리밑의 좁은 이마, 세모진 눈… 왼편볼의 칼자리… 그 사나이와 어기는 순간 림송의 머리속에서는 번쩍하는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1937년, 홍콩의 서남쪽 애버딘, 아가씨들이 젓는 거루배, 동상광장, 총을 든 장개석 비밀특무의 손, 운명을 앞둔 아버지의 이그러진 얼굴… 그것은 소년의 눈에 영원히 아로새겨진 모습이였다.

림송은 승강기에 오른 다음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었다. 그는 브라운 겐지로의 얼굴에서 그날의 그 밀정의 인상깊은 모색을 찾아보았던것이다.

(브라운 겐지로!… 아버지의 원쑤! 준엄한 심판자가 돌아왔음을 선포한다!…)

《개인문건. 림송, 한국계 유엔군장교. 대위. 군번 100237. 1922년생.

평북도출신이다. 1937년 상해에서 기업활동을 하던 부친이 사망한후 카나다의 동양교육쎈터에서 재교육되였다. 미련방수사국 죠지 림메르트의 후원으로 하버드대학 정치외교과와 참모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4월 국무성 극동차관보 딘 러스크의 통역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영어, 일어, 조선어에 능하고 의지가 강하며 침착한 성격이다.

음악과 사격을 좋아하며 사업에서 책임성이 높다. 친구들과의 관계는 정상이며 독신이다.

동창생인 태평양주식회사 사장 일본계 미국인 다나까 사무엘과의 관계가 깊은것으로 보아 선친의 기업열과 재부에 대한 욕망을 물려받은것 같다. 극동사령부 외교국 통역으로 도꾜, 런던, 빠리, 홍콩

에 자주 래왕함. …

※ 상해에서의 그의 생활평정은 〈상해림시정부〉 김구의 녀비서 안미생이 작성함.》

8군사령부 군사정보부(지투)의 라이리 에니스준장은 문건철을 들여다보다가 지친듯 눈길을 들었다. 그는 쏘파에 몸을 묻고 긴장한 자세로 서있는 보좌관 아이부스대좌를 바라보며 뜨직이 물었다.

《그래 캐논방첩기관에서 보내온 자료는 이게 다요?》

그러자 아이부스대좌는 대머리를 번들거리며 차렷자세를 취했다.

《그렇습니다.》

《안미생이라면 국군 륙군 공보처장의 처가 아니요?》

《평양을 동경한 아버지와는 달리 공보처장인 김구의 아들 김신은 반공정신이 강합니다. 그로 해서 부자간이 결별했지만… 안미생 역시 현대미국의 감정을 철저히 소유한 녀성입니다.》

《그가 어떻게 림송의 생활을 보증했소?》

에니스는 눈을 가늘게 쪼프렸다.

《림송의 부친은 상해에서 림시정부의 오찬회에 자주 나타나군 했지요. 향료와 직물을 가지고 북아메리카와 교역했습니다. …》

《그렇다?…》 에니스는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종이장을 만지작거렸다. 《그래 캐논기관은 이 문건을 보통인사문건에 끼워 보냈단말이지?…》

아이부스는 몸을 옹송그렸다.

《그렇습니다. 준장님, 그것도 인사국을 통해 발송해왔습니다. 혹시 무슨 불비한 점이라도?…》

《아니요. 문건은 너무 빈틈없이 정확한게 결함이요. 그리고 난 이 인물을 이미 알고있소. 오타와무관시절에 난 정보쎈터사업을 조정했으니까… 그건 그렇고. … 어쨌든 나에겐 새로운 특수부대작전을 앞두고 이런 한국계 미군장교들이 대단히 필요하오.》 에니스는 지친듯한 눈길을 들어 아이부스를 올려다보았다.

《그래 당신은 이 젊은 대위를 우리 지투에 두기로 했소?》

《준장님, 림송대위를 우리 부서의 정보련락장교로 파견한 인사국의 명령도 있었지만 우리 사업에 믿을만한 한국계 장교들을 인입시키라는 펜타곤의 지시에 따라서…》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오. 하지만 내 생각엔 당분간 그를 부

서의 정보련락장교로 소환하지 말고 국군 륙군본부와 8군장교들로 구성된 8군사령부 련락장교단에 배속시키는게 좋을것 같소.
사업을 통해 검열합시다.》
《알았습니다, 준장님.》
아이부스는 지투에 적을 두고있지만 실지로는 조선에 파견된 미중앙정보국의 지역책임자이기도 한 에니스준장의 충고에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
에니스는 대좌가 방에서 나가버리자 원탁우에서 림송의 사진을 집어들고 잠시 상념에 잠겼다.
그는 한때 카나다의 수도 오타와대사관에서 무관으로 있을 때 자주 림메르트의 《정보쎈터》에 출입하군했었다. 그때 그는 림메르트의 특별한 《보호》와 관심 속에 있는 사격술이 높고 두뇌가 발달한 아시아계 애어린 젊은이를 눈여겨보군했었다. 그때로부터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극동을 상대로 정탐모략활동을 벌리던 늙은 정탐배 죠지 림메르트는 심장병으로 죽어버리고 그는 아이젠하워장령의 참모부에 배속되여 다년간 유럽땅에서 동분서주하였다.
소년시절에 자유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림송이라는 인간이 그사이 어떤 경력을 거쳐 이 전선에 얼굴을 내밀게 된것인가? 물론 문건에 있는것처럼 외견상 그에게서 특이한 점은 찾아볼수 없다.
하지만 에니스는 오랜 기간 붉은 세계를 상대로 보이지 않는 결투를 해오는 과정에 인간에게서 중요한것은 문건이 아니라 내면세계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북쪽 태생이며 열여섯살까지 기업인인 아버지를 따라 흑막속에 살아온 그가 무엇때문에 광복직후 어머니가 생존해있는 평양측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서방에 애착을 느꼈을가? 재교육의 응당한 귀결인가? 아니면 명예와 재부와 출세를 바라설가?
에니스는 워드까잔을 들고 찔끔찔끔 마시기 시작했다.
림송이 자기 모국에 대해 관심이 크다는것은 그가 전쟁이 일자 군대에 입대한 사실이 똑똑히 말해주고있었다. 그리고 비록 인사국의 조치이기는 하지만 림송이 국무성 통역으로부터 전선가까운 대구로 옮겨오는 움직임자체가 그의 가슴속에 류다른 지향이 깃들어있음을 말해준다. 그게 무얼가? 흔히 말하는 《조국》에 대한 애착일가? 아니면 명예에 대한 갈망의 연장일가?

에니스는 나토군시절부터 자기에게 심리학자다운 형안이 있다고 생각하고있었다. 어쨌든 그가 《한국》련락사무소를 발판으로 전략첩보전을 수행할 특수부대작전을 준비하고있는것만큼 림송과 같은 《한국》계 장교들을 자기 수하에 두는것은 절실히 필요한 일이였다. 사실 이번 인사조치 역시 그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문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에니스의 부관인 듀페이 스테쎌소좌가 서류철들을 끼고 방에 들어섰다.

《준장님, 방금…》

《소좌, 자네 이 인물을 알고있다고 했었지?》

에니스는 스테쎌의 말을 성급히 막으며 그에게 림송의 사진을 내밀었다.

스테쎌은 사진을 받아들고 의아한듯 그를 마주보았다.

《이 림송대위는 나의 참모학교 동창생입니다.》

《그래 어떤 인물인가?》

《침착하고 완강한 사나입니다. 공부도 잘했지만 의협심도 강했지요. 그는 카나다에서 보내오는 얼마 안되는 돈으로 겨우 살아갔지만(물론 후에는 부자가 됐지만) 친구들에게 꿔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많았겠군.》 에니스는 이상하다는듯 눈길을 들고 스테쎌을 유심히 올려다보았다.

《그래 그가 왜 평양으로 귀국하지 않은것 같나?…》

《글쎄,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친구인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스테쎌은 뜻밖의 질문에 난감한듯 이마를 찌프리더니 잠시후 입을 열었다.

《참, 준장님, 생각나는게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성탄절때 고향생각이 나지 않느냐는 나의 물음에 붉은 세력이 집권한 평양에 돌아갈 생각도 없고 미군정이 수립된 서울에 갈 생각도 없노라고 했지요. 그는 늘 외교관이 될 꿈을 가지고있었지요. 그는 야심이 큰 남자입니다.》

《음, 그렇다면 왜 그가 요즘같은 어려운 시기에 전선으로 진출했나? 요즘 우리 미군은 락동강지역에 압축되여 난관을 겪고있지 않나.》

에니스의 예리한 물음에 스테쎌은 그제야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는 자기 상관의 얼굴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반문했다.
《준장님은 혹시 그를?…》
《오해하지는 말게. 늙으면 로파심이 많아지는 법이네.》
《내 생각엔… 전문교육을 받은 림송이 한갖 통역이나 수행하는 일에 환멸과 모욕을 느꼈으리라 봅니다. 그는 또한 자존심이 강한 사나이이니까요.》
《알겠네. 스테쎌, 자넨 변호사다운 기질을 가지고있구만. 가 보게.》
스테쎌이 자기 방으로 돌아간후 에니스는 림송의 사진을 문건철에 끼워넣고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눈길을 들어 천정을 바라보며 졸음기가 섞인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씨아이씨 과장을 찾아주시오. …아, 중좌요? 나 에니스준장이요. 토의할 문제가 있으니 저녁에 장교식당에서 만납시다.》
입술이 얇고 살이 빠진 얼굴에 검은 수염이 묘하게 붙어있는 8군사령부 련락장교단 단장인 《한국》계 대좌는 차렷자세로 서있는 림송을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예리한 눈길로 쭉 훑어보더니 문건철을 쥔채 책상을 짚으며 랭랭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이 우리 련락장교단에 새로 배치되여온 장교요?》
《그렇습니다, 대좌님! 림송대위입니다.》
일본군 장교출신이며 미국류학생인 대좌는 코수염을 쫑긋거리며 넓은 방 한쪽구석에 말없이 앉아있는 검은색안경을 끼고 작업복비슷한 캬키색옷을 입은 중년의 사나이를 얼핏 바라보았다. 그 사나이는 눈길을 돌리지 않은채 그냥 쏘파에 앉아 웬 문건철을 뒤적이고있었다.
림송은 곁눈으로 그 사나이를 스쳐보았다. 그는 브라운 겐지로 소좌였다.
림송은 대좌가 들고있는 문건철을 내려다보며 한순간 생각을 굴렸다.
(방첩장교가 왜 련락장교단장의 방에 와있는가? 저자는 우리 대구련락선을 파괴한 캐논방첩기관의 중견장교가 아닌가.)
《대위, 난 인사국에서 련락장교를 성실한 사람으로 선정했으

리라고 믿소. 대위는 이걸 8군사령관에게 가져다주고 그가 주는 문건을 받아 정보부에 전하시오.》
대좌는 빠른 어조로 내밸듯 말하며 손에 들고있던 문건철을 내밀었다.
림송이 문건철을 옆에 끼고 문쪽으로 돌아설 때까지도 겐지로는 머리를 들지 않은채 종이장을 들여다보고있었다.
림송이 련락장교단장방을 나서자 자동총을 든 두명의 무장성원이 그의 뒤를 말없이 따랐다.
4층계단을 내려서려는 순간 뒤에서 발자국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잠간만, 대위！》
림송이 돌아보니 겐지로가 길죽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친절히 손을 내밀었다.
《인사가 늦었소, 림송씨！ 브라운 겐지로요.》
림송은 얼굴에 다소 놀란 빛을 띠우며 손을 맞잡았다.
《당신은 나에 대해서 이미 알고있었습니까？》
《다나까 사무엘의 련락을 받았소. 프랑스속담에 친구의 친구는 나의 친구라는 말이 있지 않소.》
하고 겐지로는 누런 잔이를 드러내보이며 웃더니 두 미군병사에게 먼저 차에 내려가있으라고 손짓했다. 두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당신을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싶지 않아 이렇게 따라왔소. 난 당신이 사무엘과 함께 부산과 대구에 경제사무소를 가지고있는줄 알고있소. 당신은 앞으로 나의 협조가 없이는 이 대구에서 한걸음도 움직이지 못할거요.》
겐지로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볼듯이 눈을 사납게 번뜩이였으나 입가에는 잔웃음을 지우지 않고있었다.
《소좌, 그건 무슨 뜻이요？ 위협이요, 아니면 친절이요？》 하고 림송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를 마주보았다.
《한마디로 손을 잡자는거요.》
겐지로는 두팔을 벌려보았다.
《난 당신이 딸라에 궁색해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하고 림송은 이자의 진의도가 무엇이겠는가를 가늠해보며 딴전

을 부렸다.
《미리 말해두지만.》 하고 갑자기 겐지로는 웃음을 거두며 랭랭한 어조로 말했다.
《레이몬드사무소는 내 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걸 알려주오. 난 당신이 한갖 련락장교자리가 탐나서 태평양을 건넜으리라고는 보지 않으니까.》
겐지로는 손을 들어 인사를 표시한후 급히 돌아서서 가버렸다.
림송은 련락장교단을 나와 승용차에 오르자 등받이에 몸을 박고 사색에 잠겼다.
(겐지로가 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려는가? 협력의 손길인가? 그 손에 칼이 숨겨져있는가? 아니면 감람나무가지가 쥐여져있는가? 그러고보면 대구사무소에 대해서도 씨아이씨가 구체적으로 알고있었다. 그것은 크게 생각할바가 못된다. 사무엘자신이 급할땐 씨아이씨를 찾아가 방조를 청할수 있으리라고 했으니까… 중요한건…)
온화하고 바람한점 없는 날씨였다. 승용차는 야전병원앞을 지나 병참기지촌으로 달렸다.
전선은 상대적으로 멀리에 있었지만 아군의 반공격에 파멸의 운명에 직면한 미제침략군의 비참한 몰골이 이곳에서도 력력히 알렸다. 격상된 비행기들과 비명소리가 높은 위생차들이 꼬리를 물고 거리로 끌려가고있었다.
림송은 모자채양을 깊숙이 내리우고 상념에 잠겨 시내의 살풍경을 바라보았다.
(결국 이 모든것은 겐지로가 대구에 나타난 나를 두고 사무엘의 친구로서뿐아니라 방첩장교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것을 의미한다. 혹시 이것이 로출된 우리의 련락선과 관련이 있지 않을가? 로련한 정탐가인 겐지로가 정면으로 나에게 마주왔다는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어떤 예감에 따랐는가?
브라운 겐지로… 상해조계지의 형사… 아버지를 죽인 원쑤… 림메르트의 하수인… 과연 그자가 열여섯살난 소년의 얼굴을 기억하고있을것인가?… 물론 겐지로는 장개석비밀기관의 지령의 조정자가 림메르트였는줄은 모를것이다.)
림송은 상념에서 깨여나 방어축성물공사에 땀을 흘리고있는 한

무리의 흑인병사들을 바라보았다.
　림송은 며칠전에 8군련락장교단에 정식 임명되였다. 련락장교단은 형식상 미군장교증명서를 가진 괴뢰군출신 장교들로 구성되여있었다. 벌써 얼굴을 익힌 문용채대령을 비롯한 영어와 일어를 번질줄 아는 장교들모두는 림송의 출현을 류다른 흥미를 가지고 주시하게 되였다. 장교들은 원칙적으로는 참모부의 지시를 받았지만 사령부의 각 부서들에 림시배속되여 8군사령부와 군단,사단들, 괴뢰륙군본부와의 련락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림송은 문용채대령과 함께 라이리 에니스준장의 정보부와 대구를 담당하게 되였다. 영어와 조선어에 능한것이 은을 내게 되였던것이다.
　림송은 병참기지사령부에서 문건을 받아가지고 8군사령부로 돌아오자 곧 정보부장의 방으로 향했다.
　정보부장은 없고 대리인인 라이리 에니스준장이 혼자 구석쪽 원탁앞에 앉아 술잔을 비우고있었다.
　림송은 문건을 그에게 넘겨주었다. 에니스준장은 문건봉투를 들어 정보부장의 책상우에 훌 던져버렸다. 그는 눈언저리가 불그레해진 졸음기어린 얼굴로 림송을 넌지시 올려다보더니 옆자리를 가리켰다.
　《대위,한잔 하지？… 자넨 아마 이런 워드까에는 신물이 났을테지？》
　《감사합니다. 준장님,제가 이 방에 머물러있다가 혹시 부장님의 눈에라도 띠우면…》
　림송은 에니스의 눈치를 살피며 그냥 서있었다.
　《앉게. 부장은 사령관에게 불려갔으니 인차 돌아오지 못할거네.》
　에니스는 심드렁한 어조로 중얼거리며 잔을 하나 더 꺼내놓았다. 림송은 못이기는체하며 그의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지금 림송은 후방사령관실에서 엿들은 대화들을 생각하고있었다. 분명 그것은 전선과 후방을 련결하는 중요한 군사통신선문제였다. 그 설계문건이 지금 저 정보부장의 책상우에 놓여있는것이였다. 어쩌면 임무수행의 시작점을 마련할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자네같은 인테리장교가 련락장교단의 심부름이나 다니자니 헐치 않겠구만.》 하고 에니스는 림송을 찬찬히 뜯어보며 입을 열었다.
《앞으로 나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나？》

에니스의 돌발적인 물음에 림송은 미소로 대답했다.

《전 정보교육을 얼마 받지 못했는데요?…》

《알고있네, 알고있어. 난 자네가 하버드대학 정치외교과태생이며 림메르트씨의 상속인이라는걸 잊지 않고있지. … 나 역시 하버드출신이야. 우리에겐 자네같은 아시아계장교가 더 많이 필요하거든. 어쨌든 지투의 공작대상은 평양과 도꾜, 베이징이야. 어, 이제는 이미 월로우비의 시대가 지나갔네. 월로우비는 3케이단류의 캐논이나 겐지로 같은 단순한 폭력형을 믿고 지투를 운전해가려 하지만 결국 군첩보란 지성의 힘으로 안받침되여야 하거든. 아브웨르나 체까를 상기해보게! …》

라이리 에니스준장이 하버드대학출신이라는것은 금시초문이였다. 림송으로서는 이것이 중요한 자료였다. 림송은 에니스준장이 나토군정보국과 카나다, 쏘련주재 미국대사관에 있다가 얼마전에 펜타곤의 직접적인 소환으로 이곳에 나타났다는것을 이미 알고있었다.

지투에로의 침투는 조국에서 바라는 공작방안의 한 고리였다.

《준장님이 믿어준다면 저는 생명을 아끼지 않을것입니다.》

《그 말의 진실성은 시간이 증명해주리라 믿네. 난 아담스선생의 부탁으로 자네에 대한 평정서에 수표한 사람이니까.》

에니스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림송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만약 저에게서 조금이라도 배신의 흔적을 찾게 된다면 서슴없이 권총에 탄알을 재워주십시오.》

림송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자세를 취했다.

《앉게. 실질적인 인간은 입이 무거운 법이야!》

에니스 역시 몸을 일으키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준장은 방안을 오락가락하더니 성급하게 말을 이었다.

《지투는 정보세부면에 있어서 사설정탐기관보다 떨어지고있지. 왜? 전쟁에선 군사첩보보다 전략정보가 우위인데 극동군정보국장 월로우비의 고전두뇌는 이걸 리해할수 없었거든. 또 아시아에 와서 정보사업을 하려면 아시아인들을 움직여야지. 월로우비의 이 공간을 극동군 방첩대장 캐논이 겨우 메우고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극동전략을 실행할수 없거든. 그러면 방도는? 요약한다면 앞으로는 지투가 미중앙정보국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그 지레대로는 한국련락사무소가 되여야지!》

림송은 자기 방에 돌아오자 담배를 피워물고 에니스준장의 말들을 분석해보았다. 중요한 정보였고 림송의 차후공작방향에 비껴든 섬광이였다. 사실 에니스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월로우비는 일본으로부터 첩보망들을 넘겨받았다고는 하지만 전략정보조직은 아직 미완성단계에 있었고 그 규모라든가 폭에 있어서 군사정찰에 비해볼 때 새발의 피격이였다. 이것은 결코 월로우비 혼자의 실책도 아니였다. 자기의 군사적,작전적 위력을 믿고있는 맥아더의 독단적인 사고의 필연적산물이였다.

그런 면에서 미중앙정보국 극동분과의 불만은 위험한것이였다. 에니스는 8군사령부 정보부에 자리잡자 캐논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고 《한국련락사무소》와 장도영의 륙군정보국을 손에 걷어쥐기 시작했을것이다.

갑자기 전화종이 울렸다. 림송이 송수화기를 드니 당직장교가 정보부장이 급히 찾는다는것을 알려주었다.

림송은 복장을 정돈하고 8군정보부장의 방으로 갔다.

약간 시들기 시작한 검은 룡설란곁에 서서 담배를 풀썩풀썩 피우고있던 몸집이 비만하고 머리가 훌렁 벗어진 중년의 사나이가 날파람있게 들어서는 림송을 울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소장님, 절 찾았습니까?》

《음, 대위가 8군후방사령부에서 이 문건을 가져왔소?》 하고 정보부장은 시끄러워하는 눈길로 책상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림송이 바라보니 보라빛봉투의 봉인이 뜯어져있고 그속에 들어있는 문건들이 삐죽이 내밀어져있었다. 림송의 눈에는 얼핏 맨 앞장에 씌여있는 영문글자들이 순간적으로 안겨들었다.

《…부대작전을 위한 통신선 배치 및 설계안(B)》

림송은 온몸에 전류가 지나가는것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방금 에니스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누가 지시하던가?》

정보부장은 전혀 표정을 바꾸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물었다.

《〈한국〉련락장교단장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좌에게 당장 이걸 가져가게! 지투가 군사시설물공사까지는 말아하지 않는다고 전하게!》 하고 정보부장은 버럭 어성을 높이며 책상우의 문건을 와락 손으로 밀쳐버렸다. 순간 봉투속의 문건

들이 흩어져 방바닥에 떨어졌다.

《소장, 신경질을 부리지 마시오.》

어느새 나타났는지 림송의 등뒤에서 에니스의 랭랭한 목소리가 들렸다.

《련락장교단에서 지투에 문건을 보낸 일은 응당하다고 보는데요?》

《준장, 당신은 나의 자제력을 시험하자는거요? 난 당신의 지투명예에 대한 무관심성에 놀랄뿐이요.》

《소장님, 당신이 애매한 대위에게 화풀이를 하기때문에 그러는거요.》

에니스는 한풀 자기 말의 모를 죽이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어조에서는 8군사령관의 책망을 받은 자기 상관에 대한 일종의 조소가 풍겼다.

《어쨌든 대위! 당장 이 문건들을 그에게 가져가시오!》

정보부장은 에니스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시퍼래서 웨쳤다.

림송은 두사람의 날카로운 대화를 유심히 들으며 방바닥에 흩어진 종이장들을 주섬주섬 모아서 봉투에 집어넣었다. 오래동안 직업적으로 단련된 림송의 눈과 두뇌는 타자지들을 들어옮기는 이 한찰나에 사진기처럼 움직이고있었다.

특수훈련을 위한 통신선설치와 관련된 기술문건들이였다. 림송은 마지막으로 이 문건의 핵이라고 볼수 있는 군용지도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한옆으로 접혀져있었다.

림송은 문건봉투를 들고 방에서 나오자 주춤거리지 않고 오른쪽 복도로 걸어갔다. 또다시 림송은 귀가에서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게 되였다. 쿵쿵 심장은 터질듯이 가슴의 흉벽을 두드렸다. 그는 복도와 계단을 분주히 오가는 장교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거수경례를 하며 련락장교단장의 방까지 가는 이 짧은 구간에서 결코 군용지도의 비밀을 알아낼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 지도에는 구체적으로 특수송신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련결되는가 하는 통과지점이 밝혀져있을것이였다.

그렇다고 자기 방에 들렸다갈수도 없었다. 림송은 직감적으로 자기 뒤를 감시하는 방첩기관의 눈길을 감촉하고있었다. 그 눈길은 언제나 자기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살피고있을것이다.

(모험해서도 안되며 실수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자그마한 지도우에 앞으로 조국의 운명에 영향을 줄 극비자료가 들어있을지 누가 알랴. 한순간을 놓치는것으로 하여 후날 수많은 동지들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게 될지도 몰라. …)

문득 림송은 련락장교단장인 대좌의 방구조가 생각났다. 출입문을 열면 타자실과 부관실로 갈라지는 크지 않은 전실비슷한 방이 있었다. 대좌의 방은 부관실을 거쳐 들어가게 되여있었다.

(분명 부관실의 문은 늘 닫겨있었지. 내가 오전에 그 방에 들어갈 때도 구리손잡이를 쥐였던 기억이 생생하다. 분명 부관은 타자기소리를 시끄러워할것이다. 타자실은？…)

타자실에 대해서는 전혀 표상이 없었다.

림송은 다만 그옆에 타자실이 있다는것을 기계소리를 듣고 알았을뿐이였다. 림송은 그 전실에 마지막희망을 걸기로 결심하였다.

다만 그곳에 전등불이 켜있을런지, 그것이 우려되였다. 그 방은 창문이 없었던것이다.

림송은 자동총을 든 두명의 미군병사가 버티고 서있는 단장방 출입구에 멈춰서서 증명서를 내밀었다. 보초병은 증명서의 사진과 얼굴을 번갈아보더니 문을 열었다. 림송의 예견대로 두 방의 문은 닫겨있었다. 림송은 등뒤에서 출입문이 소리없이 닫기자 허리를 굽히며 군용지도가 든 봉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기계적으로 손이 열린 봉투면에 다가갔다.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마음의 《손길》이 그 손을 멈추었다.

(림송！ 너는 모험할 권리가 없다！ 보지 말라, 유혹되지 말라！…명령이다！…)

림송은 다음찰나 마음의 그 명령에 복종했다. 순간 타자실의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림송은 심장이 멎는듯한감을 느꼈다. 그는 군용지도가 든 봉투를 그냥 든채 얼굴을 돌렸다. 군복차림의 몸매가 날씬한 한 녀성이 문가에 얼핏 나타났다. 방안에서 흘러나오는 해빛에 등진 갸름한 얼굴에서 한순간 눈이 반짝하고 빛나더니 다시 문이 닫겼다.

림송은 핵 머리를 돌리고 군용지도가 든 봉투를 문건철에 끼워넣은 다음 부관실의 문을 열었다.

그는 륙감으로 문너머에서 자기의 등에 와닿는 그 녀자의 눈길

을 느끼는것 같았다. 그것은 마치도 쏟아지는 비줄기와도 같이 선득하게 그의 잔등을 두드리는것 같았다.

책상우에 팔을 기대고 한가히 전화를 걸던 단장의 부관은 해쓱한 얼굴로 들어서는 림송을 의아한듯이 바라보더니 턱으로 왼쪽 문을 가리켰다.

련락장교단장은 의외에도 아무 군소리없이 문건철을 받아들었다.

림송이 다시 현관방에 나오니 이미 타자실의 문은 닫겨있었다.

림송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자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었다.

(그 녀자는 누구인가? 왜 나를 보고 놀란 빛을 띄웠을가? 어딘지 모르게 인상적인 몸매… 얼굴륜곽…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지를번 했는가?)

림송은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제 3 장

(한순정의 수기집에서)

나는 정든 도시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구름 타래쳐오르는 하늘, 구름도 연기도 불길처럼 타오른다. 아니, 저 화광은 석양노을때문인지도 모른다. 불타는 락조가 장엄하게 비낀 역구내 하늘은 마치 분노한 사람의 얼굴빛갈다고 할가. 미제침략군 비행기들은 오늘도 평양을 폭격했다. 거리들은 불바다로 변해버렸다. 적십자병원과 대동교옆 인민학교건물이 폭격에 무너졌다. 파괴된 병동에서 살아남은 환자들, 아니 새로운 부상자들은 새 병원으로 후송되였다. 구역군사동원부에 대기하고있던 우리는 폭격에 무너진 인민학교로 달려갔었다. 나는 벽체가 한쪽으로 무너져내린 교실안으로 뛰여들어갔다. 구원될수 있은 아이들은 이미 구급병원으로 실려갔고 교실안에는 깨여진 책상과 불탄 의자들이 벽돌조각들속에 나딩굴고 있었다.

나는 한쪽이 떨어져내린 흑판쪽으로 다가갔다. 이상하게도 흑판

은 성성했다. 거기에는 백묵으로 또박또박 박아쓴 《소나무, 오이, 야영》이라는 글발이 있었다. 아마도 얼마전 단발머리 녀선생이 아이들에게 우리 말을 배워주었을것이다.

흑판앞에는 깨여진 풍금이 한옆으로 주저앉아있었다. 손때묻은 흰건반들이 부러져 발에 밟혔다. 아이들에게 노래를 주고 희망을 주던 풍금, 언젠가는 창가에 해바라기 갸웃이 얼굴을 내민 밝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풍금을 치며 사랑의 노래를 배워주리라던 나였다. 그랬다. 전쟁은 나의 희망, 나의 행복을 앗아가버렸다. 이 땅에 깃들었던 평화와 행복을 빼앗았다.… 나는 그것을 머리로가 아니라 눈으로,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군용렬차의 기적소리가 울렸다. 역홈은 각이한 사람들로 술렁거리고있었다. 떠나는 사람, 바래는 사람들… 군용렬차 차량들이 부딪치는 소리, 다급한 호각소리, 대렬을 지어 걸어오는 병사들의 발걸음소리… 저녁빛에 총창들이 번쩍인다.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에게로 녀인들이 달려간다. 처녀들과 안해들이, 누이들이, 어머니들이 그리고 귀여운 딸들이…

나의 눈앞은 뿌잇해진다. 작별과 포옹의 모습들은 나의 마음속에 추억의 노래처럼 아로새겨진다. 그것은 준엄한 시련을 맞이한 내 조국의 모습이였다.

군복을 입어 어딘지 모르게 낯설어보이고 애돼보이는 동급생 성탄금은 군사동원부에서 이 역홈으로 오는사이 한순간도 내 손을 놓을줄 몰랐다. 호송군관인 젊은 소좌와 나이지긋한 중사견장을 단 아바이가 우리 국립음악학교 녀학생들에게 견장이 없는 새 군복을 내주었다. 우리는 무개차에 올라 출발을 기다리고있었다.

《어쩐지 마음이 진정되질 않누나.》 하고 성탄금이 내 어깨에 몸을 가볍게 기대며 속삭였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불덩이 같았다.

《이제 렬차가 떠나면 안정돼. 우리가 너무 꾸물거렸구나. 벌써 우리 군대가 남진의 길에 오른지 얼마나 됐니, 참…》

《순정아, 이제 우릴 서로 갈라놓지 않을가?》

《애두 참, 아까 소좌동진 우리가 같은 사단에 배치될것이라고 하지 않았니.》

《넌 정말, 사단이 얼마나 큰지 아니?…》

성탄금은 눈이 둥그래져서 내 어깨를 흔들었다. 또다시 기적소리가 울린다.

분같이 하얀 얼굴의 한 중발머리처녀가 들꽃묶음을 한아름 안고 무개화차쪽으로 뛰여간다. 나의 눈길은 그 처녀의 발걸음을 따라갔다. 금방 바퀴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무개화차에서 젊은 군관 한명이 뛰여내려 처녀에게로 마주 달려왔다. 두사람은 손을 잡고 오래 있지 못하였다. 붉은 완장을 두른 철도경무관의 성급한 호각소리가 두 젊은이의 작별을 재촉하였다. 젊은 군관은 처녀를 와락 포옹한후 꽃묶음을 들고 달리는 군용렬차의 승강대에 매달렸다.

처녀는 정신없이 반달음을 치며 푸른 손수건을 흔들었다.

하염없는 눈길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성탄금이 가볍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 동무도 며칠전에 떠났어. …》

나는 홱 얼굴을 돌렸다. 성탄금은 그냥 달리는 군용렬차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 동무》란 성탄금이 사모하는 젊은이였다.

《정말? 그런데 왜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니?》

《넌 그날 묘향산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인차 집으로 갔지. …》

성탄금의 목소리는 야릇한 애수에 젖어 가볍게 떨렸다.

그제야 나는 윤성녀어머니를 만났던 금요일이 떠올랐다. 자기세계에 빠져 너무도 동무의 생활에 대하여 무관심했던 자신에게 이 순간 환멸이 갔다.

《그래 바래줬니?》

《응.》

《…》

《…》

《그 동무가 네게 남긴 말은 없었니?》

《아니… 우리 사이에 오간건 정말 평범한 말들이야.》 하고 성탄금은 또 가벼운 한숨을 내쉬였으나 나는 그의 눈길이 이 순간 반짝하고 빛나는것을 보았다.

《애두 참, 그런 결정적인 마당에 제 심정을 귀띔해볼게지.》

내가 웃으며 그를 핀잔하자 성탄금은 방그레 웃었다.

《넌 그 동물 몰라. 아니…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애야. 순정아, 너두 말했지. 사랑이란 그런 평범한 말마디는 아니라고…

그 동문 떠나기전에 내게 이걸 기념으로 주었어.》 하고 성탄금은 군복주머니에서 투박하게 생긴 까만 만년필을 꺼내보였다.
《이 만년필로 자기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했어.》
나는 그에게서 만년필을 받아들고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손때묻은 까만 만년필은 석양노을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무엇인가 뭉클한것이 내 마음을 쳤다. 성탄금은 만년필을 도로 품속에 찔러넣었다. 노을비낀 역구내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눈은 희망으로 가득찼고 가슴은 군복자락밑에서 숨가삐 오르내렸다.
우리 차와 나란히 선 맞은켠 군용렬차에서 손풍금소리에 맞추어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저마끔 제 생각에 잠겨 그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불타는 항구도시 뒤에 남기고
총잡은 젊은이들 전선으로 떠나네
사랑하는 동무야 추억의 거리야
어머니조국 지켜 병사들은 전선으로 가네

저 멀리 전선으로 군용렬차는 달리고
용감한 병사들은 유쾌히 노래부르네
기다리라 고향아 지키리라 조국아
그 누가 부탁해서 총을 메지 않았다
…

다정하고 랑만적인 그 노래소리는 오래도록 우리를 따라왔다. 군용렬차는 구릉지대와 들판을 지나 어둠속을 달렸다. 별이 총총한 밤이였다. 병사들은 쉬임없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지칠줄 몰랐다. 목이 쉴 때까지 부를것 같았다.
어디선가 《조국보위의 노래》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남진의 길에 오를 인민군군인들이 렬차를 타기 위하여 홈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노래를 따라불러보았다. 너무 들어서인지 가사와 곡이 술술 나왔다.
고요한 밤, 렬차바퀴소리, 손풍금소리, 병사들의 석쉼한 노래소리… 나는 장엄한 하늘의 별무리를 올려다보았다. 신비롭고 거대한

우주의 빛발이 준평원을 달리는 군용렬차우에 비쳐내리고있었다. 이따금 적기가 떠서 눈먼 폭탄을 떨구었다. 그러나 병사들의 노래소리는 점점 유쾌하게, 점점 우렁차게 높아지고있었다.
평원에서는 8월의 밤바람이 불어치고있었다. 불빛 하나 없었다. 아직도 전선은 멀리에 있었다. 인민군사단들은 최고사령부의 작전지도우에 표시된 붉은 화살을 따라 남으로 남으로 진격하고있었다. 전진하는 사단들은 군용차우에서 명령서들을 작성하였다. 련락군관들은 달리는 모터찌클우에서 명령서들을 받아안고 최전선의 련대들과 독립대대의 참모부로 떠나가군 하였다. 호송군관인 젊은 소좌는 우리 일행이 서울가까운 교외 신병훈련소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내가 전선으로 떠나기 며칠전부터 여름고뿔에 몸져누워있었다. 어머니는 먼길을 떠나는 나의 머리태를 떨리는 손으로 잘라주었다. 그 머리태는 어머니의 은장식을 한 오래된 농짝속에 깊숙이 간수되여있을것이다. 아마도 중발을 한 딸의 얼굴은 어머니의 머리속에 어릴적의 내 모습에 가깝게 인상박혀졌으리라. 어머니는 모란봉기슭의 큰길까지 따라나와 나의 배낭에 무언가를 자꾸 넣어주었다. …
나는 밤바람에 마구 흩날리는 부드러운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넘기며 군용렬차벽에 배낭을 의지하고 몸을 기댔다. 어느새 성탄금은 나의 무릎을 베고 아기처럼 쌕쌕 잠들어버렸다. 얼마나 순진하고 정깊고 진실한 애람. 아마도 그 남동무가 남기고 간 귀중한 만년필은 생명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성탄금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리라.
《처녀동무, 왜 노래를 그만뒀나?》
담배쌈지를 꺼내 두툼하게 마라초를 말던 나이지숙한 중사가 나에게 시선을 돌리며 넌지시 말을 걸었다.
《아바이두 참, 저 병사동무들이 합창하지 않아요.》
《그래두 체네가 부르는게 더 듣기 좋구만. 꼭 방송에서 배우가 부르는것 같애. 임자들은 음악학원 졸업반학생들이라지?》
《예.》
중사아바이의 마라초가 어둠속에서 빨간 등잔처럼 벙긋거렸다. 그 불빛속에 미소를 지은 인상좋은 얼굴모습이 얼핏 드러났다.
《아까 보니 처녀동문 정말 배우처럼 생겼어. 우리 소좌동무가 뭐

랬는지 아나? 동물 보니 머리가 막 뗑해진대. 허허허.》
《아이참. 아바이두 별 롱담을 다…》
나는 능청을 떠는 중사아바이를 바라보며 얼굴을 붉혔다.
《아닐세. 난 임자를 보며 내 딸애를 생각했어. 그 애가 말을 쨀쨀 한다구 마누라가 편지에 써보냈더군. 눈이 시원한게 내 딸애두 이젠 우리 동네에선 큰 자랑거리라네. 군에서 열린 유치원써클에 나가 춤을 췄는데 1등을 했다질 않나. 원참…》 하고 중사는 싱글거리는데 어둠속이건만 그의 눈에 비낀 따뜻한 추억과 애정의 빛갈이 보이는듯하였다.
《아바인 사단에서 무슨 일을 보시나요?》
《나말인가? 마차두 몰구 자동차두 몰지. 뭐든지 길을 달리는 거라면 짐승이건 기계건 막히는게 없다네. 요즘은 모터찌클운전두 배웠지. 왜정때 일본놈밑에서 택시청소를 해주면서 두루 배워둔거라네.… 내 군대복무를 이태 하면서 이젠 운전기술이 사단에서두 일등이라오. 오죽하면 우리 정찰중대에 왔던 총참모부장령동지가 날 데려가려고까지 했었겠나?》
《야, 아바인 참 대단한데요.》
나는 총참모부장령이라는 말에 문득 묘향산에서 만났던 주한경소장을 생각하며 중사아바이에게로 가까이 다가앉았다.
《을지길동무, 무슨 입이 그리 아낙네처럼 헤프오?》
저쪽에 앉아있던 젊은 소좌가 다시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을지길중사는 소좌의 지적에 흠칫 놀라 목을 움츠리더니 담배불을 빠금거리며 나에게 눈을 끔쩍했다.
《저 소좌동진 우리 사단 후방사업을 맡은분인데 엄격하기가 면도칼 한가지라우.》 하고 을지길중사는 수군거리더니 다시 소좌쪽을 바라보았다.
《사실은 처녀동무처럼 곱게 생긴 녀성이 우리 정찰중대에 배치되면 한몫 단단히 할거우다.》
나는 을지길중사의 말을 들으며 문득 며칠전에 대학에 찾아왔던 윤성녀어머니를 생각했다. 전선으로 떠나는 병사들에게 줄 기념품들과 위문품들을 준비하고있던 나는 누가 찾아왔다는 전달을 받고 대학정문접수실로 나갔다. 나는 처음엔 요즘 하루가 멀다하게 전화를 걸거나 취재차를 타고 나타나군하는 극장지휘자 변주설이가

또 온것으로 단정했다. 접수실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나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인격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도 이 시끄러운 방문객을 쫓아버릴수 있는 랭랭한 말을 고를수 있겠는가 생각했다. 뜻밖에도 천정 낮은 접수실의 딱딱한 나무의자에는 작은 보따리를 들고 류다르게 테가 큰 안경에 흰옷을 단정히 입으신 윤성녀어머니가 앉아계시였다.

《아이, 어머님이 어떻게?…》

나는 반가이 웨치며 달려가 어머니의 마디굵은 손을 잡아쥐였다.

《그새 잘 있었나? 순정이, 촌로친네를 평양바닥에 내다놓으니 어디가 어딘지 갈피를 잡을수가 있어야지.》 하고 윤성녀어머니는 내손을 쓰다듬으며 옆자리에 앉혔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제 편지는 받으셨어요?》

《받았네. 농순이 애비가 군대에 나가는김에 겸사해서 왔댔어. 그 부장어른이 차까지 보냈더구만.》

어머니는 나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며 주름잡힌 눈가에 친근한 미소를 지었다. 어쩐지 어머니의 얼굴에서 나는 이상한, 류다른 기쁨의 흔적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순정이, 난 오늘 기쁜 소식을 들었네. 그래서 별루 순정일 만나고싶은 생각이 들었나보지…》

《아이, 무슨 일인데요?》

나는 무엇인가 미안해하는듯한, 무색해하는듯한, 그러면서도 무등 기뻐하는 어머니의 인자한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내레 전번에 임자앞에서 피치 못할 죄를 짓는것 같은 심정이였어. 내 말 들으라구. 우리 성일인 살아있다네. 살아서 나라를 위해서 장한 일을 하고있다누만.》

어머니의 목소리에서는 아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크낙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그의 말은 나의 작은 가슴에도 강한 충격을 주었다.

《성일오빠가요? 그게 사실이예요?》

《그렇네. 당부가 있어서 실은 누이인 농순이 에미에게도 숨기고있었어. 그러자니 내 마음이 오죽했겠나.》 하고 어머니는 약간 코잔등으로 흘러내린 큰 안경을 바로잡더니 가볍게 숨을 내쉬였다.

《그런데 난 오늘 아들애가 인차 돌아온다는 기별을 받았어. 그

렇게두 소식이 없던 애가… 순정이가 군대에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꼭 제 사람같은 생각이 들어… 힘이라도 될가 해서…》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어째서인지 가슴이 안정되면서 일순간의 부끄러운 생각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성일오빤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나의 가슴속엔 크나큰 환희와 기쁨이 별안간 물결친다.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충격과 명절을 맞을 때와도 같은 일종의 야릇한 행복감이 체내에 깃드는것이였다. 그것을 뭐라고 할가. 동요시절에 대한 다감한 추억이라고 할가. 끝없는 공상이라고 할가. 어쨌든 해바라기가 울바자를 치고 뜰안에 백일홍이며 채송화가 곱게 핀 고향집을 그릴 때 느끼는 그런 향수와 따뜻한 사랑과 우애의 감정이 가슴에 깃들었다.
《그앤 조국을 멀리 떠나있었다네. 거기서 조국광복회 회원이였던 아버지처럼 장군님을 위해 일했다는군. 임자에게는 터놓고 말하네만 내레 이태전에 그앨 평양에서 얼핏 만난 일이 있어… 그때도 그애가 순정이 이야길 했었지. 소식을 몰랐으니… 에미두 잘 알아보지 못하겠더군. …》
윤성녀어머니의 눈에는 따뜻한 사랑과 믿음의 색조가 진하게 비꼈다.
(어마나！ 성일오빠가 살아있다니！… 드디여 돌아오다니！…)
소박한 어머니의 진심과 아들에 대한 변할수 없는 사랑이 이 순간 나의 불타는 심장속으로도 밀물처럼 흘러드는것 같았다. 이날 저녁 나는 웬일인지 어머니곁을 떠나고싶지 않았다.
군용렬차는 전선을 향하여 쉬임없이 달린다.
밤, 별빛, 완충기들이 부딪치는 소리, 어둠속에서 총창들이 번쩍이였다. 어느덧 노래소리도 잠잠해졌다.
저 멀리 구름너머 산야의 하늘이 희끄무레해지기 시작했다.
려명전야의 검푸른 하늘, 별들은 점차 희미해져가고 철길옆의 컴컴한 수림은 소연한 바람에 술렁거린다.
멀리 바다와 이어진곳에서 불빛이 깜박거렸다. 나에게는 그것이 등대불같이 느껴졌다. 렬차는 달리는데 그 불빛은 멀어지는것이 아니라 점점 가까와오는듯싶었다.
불빛！ 저 불빛이 빛나는곳에 그가 있을가？ 어릴적 그 시절부

터 내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된 그 모습, 그 소중한 우정의 모습은 내 인생의 첫 시작과 함께 행복의 속삭임으로, 추억으로, 희망으로 살아있어. 연을 놓쳐버린 들판의 동구길에서 바래준 그가 언젠가는 름름하고 미더운 그 모습으로, 예나 변함없는 빛나는 눈길로 내앞에 나타날테지…

나는 봄날의 등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간직된 가슴을 손바닥으로 꽉 눌렀다.

전선이 가까와오고있었다. 저 멀리서 둔중한 포성이 울렸다.

나는 두눈을 감았다. 평화롭던 시절, 행복했던 시절… 그 모든것은 지금 어디로 가버렸을가. 추억은 제나름의 색조를 가지고있는듯싶다. 밝은것, 다감한것, 어둡고 서글픈것, 인상깊은것…

내가 윤성녀어머니를 처음 만난것은, 그 귀중한 사진을 다시 보게 된것은 지난 봄철, 5월의 묘향산 등산길에서였다. …

…숲에 들어가면 나무는 보여도 숲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틀간의 등산에서는 만폭동과 상원암의 협곡들과 물안개를 날리는 폭포수결을 톺아오르며 명산의 세부들에만 현혹되였었는데 향산천기슭에서 묘향산을 먼발치로 바라보니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한눈에 안겨드는것이였다.

불타는 락조를 배경으로 보금자리를 찾는 산새들이 떼지어 우짖으며 날아갔다. 광막한 하늘을 덮은 붉은 노을빛과 골짜기안의 푸른 저녁빛이 이상한 조화를 이루며 점차 짙어갔다.

《탄금아, 저 노을을 좀 봐！ 온통 불길같구나！》

한순정은 시내가의 조약돌곁에 서서 두손을 봉긋한 가슴앞에 모아쥐고 이렇게 탄성을 질렀다.

그러자 파란 손수건을 물에 적시여 볕에 가무스레 탄 보동보동한 귀여운 얼굴을 문지르던 몸매가 다소 부한 처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넌 저런 노을을 처음 보니？ 우리 고향의 동구길에 나서면 늘 저런걸 볼수 있어.》

성탄금은 이러며 맑은 물을 손으로 떴다가는 쭈르르 흘려쏟군하였다.

《얼마나 아름답니. 막 넋을 잃을것 같애.》

한순정은 방심한듯한 눈길로 그냥 석양노을을 바라보았다.

거대하고 신비로운 자연앞에서 자기라는 존재가 너무도 작게만 느

껴졌다.
《순정아, 이젠 그만 내려가지 않을래? 난 배가 고파 죽겠구나. 려관까진 꽤 멀지 않니. 다른 동무들은 간지 오랜것 같애.》
성탄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수건을 쥐여짜며 얼굴에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순정은 그 말에 흥심이 깨진듯 모아쥐였던 손을 맥없이 내리며 그에게로 돌아섰다.
《참, 넌 한끼만 굶었단 큰일나겠구나. 우리가 언제 여길 다시 와보겠니…》
《흥! 금강산두 식후경이란 말 못들었니?》
성탄금은 한순정의 등산배낭까지 함께 들고 잔디풀이 깔린 모래길에 올라섰다.
정열적인 석양빛이 갑자기 꺼지자 서늘한 바람결에 정향꽃향기가 강하게 풍겨왔다. 다정하고 아늑한 5월의 봄밤이 왔다.
골짜기의 컴컴한 숲이 그림자를 던지여 길은 더욱 어두워보였다. 두 처녀는 손목을 꼭 잡고 나란히 붙어서서 속삭이며 강기슭을 따라 걸었다.
묘향산등산은 음악학교 졸업반학생들의 현지체험의 마지막일정에 들어있었다. 래일이면 정든 모교로, 평양으로 돌아가야 할 그들이였다. 그러면 또다시 규칙적이면서도 저으기 단조로운 기숙사생활, 몸매 풍만한 식당어머니의 음식솜씨에 대한 남학생들의 익살섞인 혹평들이며 교실과 강당안에 울리는 피아노소리며 점심참의 학부별 배구경기들이 그들을 맞이할것이였다. 거기에는 안정, 학습, 론쟁—이른바 생활의 산문이라고 불리우는 모든것들이 좋은 징조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은 이해의 단풍철이 오면 정다운 교정을 떠나 고향으로, 배치지들로 날아갈것이였다.
세갈래의 길이 뻗은 갈림길목앞에서 두 처녀는 문득 멈춰섰다.
《탄금아, 아무래두 이 넓은 길을 따라가야 할것 같아. 자동차바퀴자욱이 있지 않니.》
《아니야. 시골에 있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길을 잃었을 땐 물줄기를 따라 가랬단다. 오른쪽 길로 가야 해.》
성탄금은 주위를 휘둘러보며 곧장 제 주장을 우겼다.

두 처녀는 한참 싱갱이질을 하다가 길옆 야산밑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마을에 들어가 물어가기로 했다.
은백양나무숲너머로 푸른 연기가 몰몰 피여오르는 산기슭의 초가집들에서는 불빛이 비쳐오고있었다. 들길에 나서자 별빛에 싱싱히 아지를 치기 시작한 봄푸성귀밭이 나타났다.
동구길,내물소리,모래땅이 사각사각 발에 밟혔다. 동네개들이 어방대고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밥짓는 연기내며 배꽃향기가 풍겨왔다. 맡은지 오래된 향토적이며 살틀한 향기—고향의 냄새가 한순정의 가슴을 진정시켜주었다. 언젠가 음악학교 입학초기에 문맹퇴치사업때문에 평양주변의 농촌마을들에 갔을 때 느꼈던 그 정서가 되살아나기도 하였다.
《애,탄금아,개짖는 소리가 무서운데 저기 우물가에 가서 물어보자.》 하고 한순정은 성탄금의 팔소매를 잡으며 나직이 말했다.
《원,겁두 많긴. 개는 저렇게 짖다가말아. 너처럼 인물이 고운 녀자앞에선 아예 주눅이 들어버린단다. 난 좀 뚝박새니까 다르지만…》
성탄금은 우스개소리를 하면서도 발길은 우물가로 돌렸다.
웬 녀인이 우물앞에서 드레박으로 물을 푸다가 두 처녀쪽으로 돌아섰다. 어둠때문인지 눈이 어두워선지 녀인은 한참동안 유심히 이쪽을 지켜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오는 처녀들인가?》
목소리를 들으니 나이든 어머니였다.
한순정은 그 어머니곁으로 다가갔다.
《우린 평양에서 온 녀학생들인데 읍려관까지 가는 길을 몰라서 들렸어요. 묘향산 등산을 왔댔어요.》
《그래? 어이구 읍내까진 큰길루 시오린 잘된다네. 체네들은 길을 헛갈렸어. 이제 어떻게 찾아가겠나?…》
어머니는 순정이앞으로 다가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일없어요. 어머니,갈림길 있는데서 어느쪽인지만 대주시면 가겠어요.》
《아니야.… 이젠 날두 저물었는데… 우리 집에 들어가 쉬구 래일아침 내려가라구. 밝을 땐 지름길루 5리남짓해.》
어머니는 이러며 한순정의 어깨에서 배낭을 벗겨들었다.

《아니예요. 어머니, 우린…》
순정이가 황급히 어머니에게서 배낭을 빼앗아들려 하자 곁에 말없이 서있던 성탄금이가 순정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한순정은 주춤 손길을 멈추었다. 성탄금은 벌써 앞장서 걸어가는 어머니의 뒤를 바라보며 한순정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순정아, 정말 이젠 걸을 맥두 없어. 내 배낭엔 아직 쌀이랑 통졸임이랑 남아있으니 저녁이라두 먹구 가야 해.》
《넌 정말! 참…》
한순정은 성탄금을 가볍게 책망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너무 어려워들 말라구. 우리 집엔 남정네들이 없어. 손주녀석만 남구 다들 나들이를 갔다네.》
어머니는 이러며 그들을 나리생울타리너머 초가집마당으로 안내했다. 두 처녀는 아무말없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다. 인심이 후한 어머니였다.
마당가에 서있는 추리나무밑에서 으르렁거리던 털이 북실북실한 개가 불빛에 두 처녀의 모습이 드러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꼬리까지 휘저으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한순정은 성탄금의 롱말이 생각나 웃음이 나오는걸 어쩔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개앞으로 다가가기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어서들 방에 들어가라구. 그 개를 무서워할건 없어. 순한놈이라네. 이번에 암강아지를 다섯놈이나 낳았어. 내 얼른 밥을 지어줄테니 들어가 쉬라구.》
두 처녀는 주춤거리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구름노전을 깐 방안은 아늑하고 밝았다. 놋장식을 한 농짝우에는 흰실로 뜬 뜨개보를 씌운 이부자리가 흙매질을 한 천정까지 솟아있고 그옆에 구식 재봉기며 참나무로 짠 앉은뱅이책상이 놓여있었다.
두 처녀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 마주보다가는 방안을 둘러보군하였다.
미닫이문을 활짝 열어놓은 웃방에 엎디여 종이에 무엇인가를 긁적거리고있던 다섯살쯤된 사내애가 그들을 말똥말똥 쳐다보며 슬금슬금 다가왔다.
《아지미들은 선생님들이나?》
성탄금이가 그 애를 끌어당겨 함께 앉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응, 우린 학생들이란다. 아직 선생님이 못됐어.》
《해해, 무슨 학생이 이렇게 크나?》
그애는 이러며 그냥 서있는 한순정의 치마자락을 잡아당겼다. 한순정은 그애의 총총한 눈매를 내려다보다가 무릎을 꺾고 앉으며 손가락으로 가볍게 볼을 튕겨주었다.
《네 이름이 뭐니?》
《나, 농순이야. 김농순.》
사내애의 대답에 두 처녀는 까르르 웃었다. 어쩐지 명민하고 해사하게 생긴 모습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 같았다.
《그애 아버지가 이곳 리위원장이라네. 땅을 분여받은 날 그앨 낳았다구 나라를 받드는 순박한 농민이 되라구 농순이라 지었다네. 우리 딸애두 질색하드라만 난 외손주이름이 마음에 들더구만.》
《어머니, 이름이 참 뜻이 깊구만요. 친근하구.》
한순정은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녀인쪽을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장지문사이로 눈길이 마주치자 웬일인지 쌀일던 손길을 멈추고 순정이를 유심히 뜯어보았다.
한순정은 점직한 생각이 들어 눈길을 떨구었다.
농순이가 푸성귀를 씻으러 가는 외할머니뒤를 부등부등 우기며 따라나서자 한순정은 부엌으로 내려가 아궁이앞에 앉았다. 부엌바닥 한옆에는 삭정이 한단과 벼짚무지가 쌓여있었다. 아궁이를 들여다보니 벼짚단이 뻘겋게 타들고있었다. 잉걸불 못지 않게 불땀이 셌다.
한순정은 까만 솥뚜껑을 들었다놓으며 기세좋게 타오르는 불아궁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는 짧은 교복치마자락으로 자꾸 드러나는 실팍한 무릎을 가리며 이따금 벼짚을 한웅큼씩 집어서는 아궁이에 쑤셔넣고 거멓게 그슬린 부지깽이로 타드는 짚을 들썩거려 불땀을 돋구군했다.
벼짚이 타는 구수한 냄새가 삭막한 추억의 문을 조심히 두드리며 순정의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마음은 기약도 없이 아득히 흘러가버린 동요시절의 골목골목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그 어느 인상길은 추억의 자욱도 건드리지는 못했다. 수난의 그 시절에 벼짚 타는 냄새는 가난과 굶주림과 추위였다. 거기에는 지금 한순정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이 향토적인 충동과 아늑하고 애틋한

정서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나래를 펴고 흘러가버린 그 시절의 인상들속을 더듬어 찾고있었다.

(웬일일가? 어쩐지 이 집안의 모든게 정들고 친근하게 느껴지는구나. 지어는 주인어머니의 모습까지도 낯익어보이고… 아니야. 친절하고 꾸밈없는 그 마음때문이겠지. 우리 조선의 어머니들이 지닌 그 진실한 인정미랄가… 그 어머니가 왜 아까 날 찬찬히 보았을가?…)

《체넨 집이 어딘가?…》

문득 주인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는바람에 한순정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어머니는 물기가 번들거리는 동이를 머리에서 내리워 부엌 가시대우에 놓았다.

《저의 집은 평양에 있어요. 모란봉밑에…》

《그래? 하긴 말씨를 들으니 평양내기야.》

어머니는 생각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더니 무엇인가를 더 물을듯하다가 흰김을 맹렬히 뿜는 가마쪽으로 돌아섰다.

저녁식사를 마치자 순정이와 성탄금은 농순이를 무릎에 앉히고 사진첩을 들여다보았다.

통례로 사진첩들이란 그 가정의 력사를 수록하듯 그들이 걸어온 인생의 길을 순차별로 배렬해놓기마련이다. 할아버지들의 세대, 아버지들의 세대… 그러나 이 집 사진첩은 광복후의 생활화폭들로부터 시작되여있었다. 정성들여 풀을 먹인 흰옷을 입은 어머니가 젊은 딸내외와 함께 단정히 앉아 밝게 웃으며 찍은 가족사진이 나타났다.

그다음 마치 눈부신 노을빛이 사라지고 갑자기 저녁이 시작된것처럼 사진은 어두운 색조로 넘어갔다. 그것은 수난에 찬 그 시절에도 앞날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자기들의 고달픈 생의 구겨진 모습 일망정 남겨놓으려는 눈물겨운 지향이 낳은 광복전 사진들이였다.

저으기 퇴색해진 누런 사진들에 무심한 눈길을 박으며 사진첩을 번져나가던 한순정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길을 멈추었다. 곁에서 농순이를 무릎우에 앉히고 짧은 목을 빼들어 어깨너머로 이따금씩 사진첩을 함께 들여다보던 성탄금이가 의아해서 한순정을 쳐다보았다.

《너, 왜 그러니?…》

한순정의 얼굴은 흥분으로 확 붉어져있었다. 그는 모서리에 보풀이 인 한장의 조그마한 사진에서 눈길을 뗄줄 몰랐다.
잔디발우에 소년, 소녀가 가지런히 앉아있었다. 눈초리가 빛나는 호리호리한 더벅머리소년과 외태머리를 드리운 살결이 희고 눈망울이 큰 좀더 어린 소녀가 치마폭을 감싸안고 앉아있었다.
그 소녀는 다름아닌 어린 시절의 한순정의 모습이였다.
(이 사진이 어떻게 여기에 붙어있을가? 박성일… 세상에 이런 우연도 있을가? 그럼 이 어머니는?…)
한순정은 얼굴을 들고 류달리 눈에 띄는 은테의 커다란 안경을 끼고 바느질을 하는 주인어머니쪽을 바라보았다.
흥분과 충격에 숨결이 높아진 목소리가 따랐다.
《어머니, 이 소년이 누구나요?》
어머니는 얼굴이 갑자기 빨갛게 익은 한순정을 의아한듯 유심히 바라보며 대꾸했다.
《아들이라네.》
《네?!… 그럼 박성일…》
별안간 어머니도 한순정의 얼굴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보았는지 잔주름잡힌 눈가에 기쁨에 찬 반가움의 파도가 지나갔다.
《아니 그럼 임자, 〈사돈〉댁… 한정흠선생댁 딸이 아닌가?…》
한순정의 커다란 눈에 물기가 어리였다.
《네, 제가 순정이예요. 어릴 땐 아명으로 분이라구 불렀어요.》
《온, 이런 변이라구야. 내레 아까부터 별루 낯이 익다했더니… 그적에두 얼굴이 빼여났더니 정말 곱겐 번졌구나.》
윤성녀는 노상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순정의 부드럽게 흘러내린 실팍한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한순정은 윤성녀의 애무에 몸을 맡긴채 속눈섭이 류별나게 긴 눈을 내리깔고 구름노전우를 살펴보았다.
그때 자그마한 산간마을, 폭우내리는 땅에서 단떼의 《신곡》에 나오는 《남의 집 빵이 더 쓰고 남의 나라 문턱이 더욱 높더라》를 피눈물속에 읊조리며 간난신고속에 고학한 한순정의 아버지는 가족을 이끌고 북간도로 찾아가다가 압록강기슭에 물러앉았다. 이국땅으로 가는것이 죽기보다 더 싫어서였다.
한순정이와 박성일은 한정흠이 세운 야학의 첫 학생이 되였다.

박성일이네를 두고 마을에서는 《묘향산집》이라고들 불렀다. 동요시절, 진달래꽃 핀 마을뒤 강언덕, 동심에 찬 두 아이는 창공에 희망의 연을 날리면서 그 언덕에 오르군했다. 외동딸인 한순정은 자기보다 두살 우인 얼굴이 희고 두눈이 명민하게 반짝이는 더벅머리소년에게 친오빠처럼 정이 들었었다. 박성일이가 부친을 따라 고향땅을 떠나던 날 사춘기를 맞이한 소년과 소녀는 눈덮인 동산에 올랐다. 그들은 《동무야, 잘 가거라》 노래를 부르며 일생 변치않을 우정을 약속하였다.… 그것은 벌써 아득히 흘러간 옛시절이였다.… 그후 박성일은 종적을 감추었다.…

한순정은 추억에서 벗어나 방바닥에 놓여있는 사진첩을 다시 내려다보았다.

《어머니, 성일오빠는 지금 어디 있나요?…》

한순정은 눈길을 들어 윤성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윤성녀의 눈가에 그 어떤 종잡을수 없는 류다른 표정이 떠올랐다. 그리움이라 할가, 자제력이라 할가 일종의 걱정의 빛이 윤성녀의 얼굴전체에 가득찼다.

《우리 앤 지금… 소식을 모른다네. 그애 아버지가 이듬해 성일일 데리구 상해로 떠나갔는데… 애 아버진 성일이를 옛 친구의 손에 맡기구 상해에서 숨이 졌다는데 그때부터 소식을 모르고있어.…》

《그러세요?…》

한순정의 붉게 익었던 밝은 얼굴에는 순식간에 실망과 동정의 그늘이 비껴버렸다.

《광복된지도 다섯해가 됐는데 왜 소식이 없을가요? 저의 어머니도 늘 성일오빠소식을 물어요.… 어머니네는 언제 고향으로 나왔어요?》

웬일인지 윤성녀는 이제는 한순정의 파고드는듯한 시선을 피하며 나직이 대답했다.

《성일이랑 떠난 다음 이태후에 나왔어.… 일없네. 난 이젠 그앨 잊어버렸다네. 살았는지 죽었는지… 살아있다면 그애도 언젠가 이 에미품에 안기겠지.》

윤성녀의 목소리에서는 이런 경우 의례히 따르기마련인 하소와 절망과 일종의 모성다운 아픔과 걱정과 초조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웬일인지 순정이의 가슴에 녀성적인 이상야릇한 감을 자

아냈다.
(세월… 세월이 흘렀다. 어머니의 가슴속에 있던 고통의 샘도 이제는 말라버렸을가?
박성일, 동요시절의 귀중한 벗…)
한순정은 남모르게 속으로 한숨을 내쉬였다.

한순정이 후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윤성녀의 마음은 평온치 않았다. 순정이와의 상봉은 그의 가슴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켰다. 호수에 하나의 돌덩이가 떨어진것처럼 급기야 파문은 마음속을 휘젓고 아들에 대한 뗄래야 뗄수 없는 사랑의 불길을 지피고말았다.
그는 아들의 소식을 묻던 한순정에게 범상한 표정으로 본의아닌 말을 했으나 그 아들은 살아있었고 조국을 떠나 멀리에서 이 땅을 위해 성실히 일해나가고있었다. 그 아들을 어머니는 이태전에 한번 만나본 일이 있었다.
지금 푸릿한 달빛이 비쳐드는 방에 손자녀석을 끼고누워 창문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윤성녀는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때 자기가 아들을 만나본것이 꼭 꿈만 같았다. 얼핏 지나간 그 한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던 윤성녀는 그 순간이 존재했었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때 어머니는 평양의 어느 교외 수림속에 있는 아담한 벽돌집에서 아들과 상봉했었다. 아들은 두팔을 벌리고 어머니에게로 달려와 가슴에 얼굴을 묻은채 눈물을 흘리였다. 어머니는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아들도 이제는 30고개를 바라보는 사나이로 자랐을것이며 자기가 변한 그 아들을 인차 알아보지 못할것이라고 은근히 걱정했었다. 그러나 자기의 품에 안긴 미끈한 몸매에 흰 얼굴에 눈이 명민하게 반짝이는 청년을 척 보는 순간부터 윤성녀는 지나간 세월, 아직 부끄러운 각시시절을 넘어서지 못했던 시기 살이 포동포동한 아기를 불안고 젖을 먹이던 그 귀중하고 정다운 아들임을 조그마한 의혹이나 서먹함도 없이 알아보았던것이다.
모성의 힘앞에서는 결코 세월도 맥을 추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였기때문이였다.
윤성녀와 박성일은 두서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한동안

서있었다. 이제는 살이 빠져 체소한 자기의 가슴에 묻은 아들의 머리칼에서는 이상한 향내, 봄철이면 묘향산집의 울담에 심은 장미가 한창 꽃필적에 나는 그런 상긋한 냄새가 풍겨왔다. 그 냄새는 마치도 남편과 함께 첫걸음마를 떼는 아들을 데리고 상원암에 올라 움트기 시작한 풀밭에 둘러앉아 소박한 점심식사를 하던 그 시절에 풍겨오던 들꽃향기를 련상시키기도 하였다. 바로 그랬다. 윤성녀는 분명 그 시절, 추억의 그 지점, 처음으로 어머니로서의 야릇한 심정을 맛보던 잊을수 없는 지난 생활속으로 생생히 들어설수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아들은 얼마후에 긴 쏘파에 나란히 앉았다.

윤성녀는 한순간도 아들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부여잡은 손을 놓을줄 몰랐다.

《그래, 얘야 어디 말 좀 해보렴. 그렇게두 오랜 세월 떨어져있으며 이 에미 생각이 나지 않더냐?》

아들은 희슥희슥한 어머니의 귀밑머리를 뜨거운 눈길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했다.

《어머니두 참, 왜 보고싶지 않았겠어요. 전 늘 어머니생각이 날 때면 혼자서 자동차를 몰구 강변이나 바다가루 가군했답니다. 멀리 조국의 하늘을 바라보기두 하구 또 때로는 실컷 울어보기두 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어버렸다.

《원, 녀석두. 사내녀석이 눈물은 무슨… 하긴 네래 어릴 때부터 마음이 약했구 동정심이 많았더랬지… 보고싶은 사람들과 그리운 이 땅과 헤여진 너에게야…》

《어머니, 누님이랑 잘 있어요?》

《잘 있지 않구. 과수원에서 일한단다. 성일아, 성숙인 내가 널 만나러 온줄도 모르고있구나. 너의 부서책임자어른이 어찌나 신신당부하던지… 네 하는 일이 그렇게 친누이한테두 비밀을 붙여야 하느냐?…》

이 순간 어머니는 딸에게 동생이 살아있다는것만이라도 전하고싶어한다는 말을 듣고 그것은 아들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심중한 문제라고 하던 주한경장령의 말이 떠올라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었다.

아들은 또다시 빙그레 웃었다. 어머니는 웃는 아들의 입모습에

서 알릴락말락하는 그 인상적인 웃덧이를 알아보았다. 세월은 흘렀어도 그 모양은 종시 변하지 않았다.

《어머니,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할지… 어머니야 백두산기슭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를 도와 조국광복회사업을 하시지 않았나요.》

윤성녀의 잔주름잡힌 눈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녀석두, 내 몰라서 물은줄 아니. 안다, 알어. 네 아버지가 일을 다 못하구 떠나질 않았니. 신문에서 보니 놈들이 요즘 38선에서 되겐 날치구있다더라.》

이렇게 말하며 윤성녀는 다시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이번에는 아들의 입귀에 있는 작은 기미를 발견하였다. 그 기미는 어릴 때보다 조금 커지고 색갈이 연한 밤빛으로 변했을뿐이였다. 어머니는 그 기미를 손으로 조심스레 쓸어보았다.

《어머니말씀을 들으니 저두 힘이 생기누만요. 참, 내 어머니한테 안경을 하나 가져왔어요. 어머니에게 맞겠는지 모르겠어요.》하고 아들은 웃주머니에서 커다란 재빛안경집을 꺼내들었다. 은빛테가 크고 정교한 도수안경이였다.

어머니는 안경을 받아들고 희한한듯 한참 들여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원 녀석두, 이 에민 묘향산 물이 좋아 그런지 아직 돋보기 신세는 안진단다.》

《저두 그 안경을 사놓고는 어머니마음에 들지 않을거라구 생각했어요.》

《일없다. 이 안경을 너보듯 가지고있겠다.》

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은 사정없이 흘러가고 벌써 몇번씩 젊은 군관 하나가 들어왔다가는 딱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군하였다.

《그래 성일아, 아직 혼자몸이라니 어디 봐둔 처녀라도 없느냐?…》

윤성녀의 물음에 아들은 얼굴을 붉혔다.

《어머니두 참, 어머니 승인없이 무슨 처녑니까. 그리고… 어머닌 분이소식을 알고있나요?…》

아들은 힘들게 말꼭지를 뗐다. 윤성녀는 속이 뭉클했다. 때묻지 않은 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기쁨과 대견함으로 가득찼다.

《네가 떠난후 인차 다들 헤여졌으니 여직 소식을 모르누나.…》

《그래요?…》

아들의 목소리에서는 서운함이 느껴졌다.

《네가 여적 그 애를 기억하고있니?…》

《어머니, 달리 생각진 마세요… 곡절많은 인생길에 무슨 일인들 없겠나요. 하지만 어린 시절에 조국을 떠나 낯선 사람들속에 사는 저에겐 어머니와 분이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로 남아있어요. 전 분이가 이 땅 어디에 있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리라 믿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래, 사람이란 그런 믿음이 귀한게다. 알겠다. 내레 어떻게 하든 그 앨 찾아내마. 걱정 말고 일을 하거라!》

《어머니두 참!…》

어머니는 품에 넣고온 광목수건에 싼 얼레빗을 생각하였다. 어쩐지 그것을 꺼내 아들한테 내밀기가 주저되였다. 주한경소장은 집을 나설 때 일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었다. 하지만 윤성녀는 어릴 때 늘 머리를 빗지 않아 온통 머리칼이 풋밤송이같이 푸시시 일어서길 잘하던 아들생각이 나 몰래 그 얼레빗만은 품에 넣어가지고 온것이였다.

얼마후 주한경장령이 들어와 미안한 기색으로 윤성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성일동무가 떠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면 아드님을 집에 보내드릴테니 걱정 말구 잔치준비나 지금부터 해두시우. 군대잔치답게 한번 들썩하게 해봅시다. 허허.》

어머니는 그 웃음속에서 아들과 작별했다. 마지막순간에 광목천에 싼 얼레빗을 슬며시 아들의 군복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인차 온다던 그 아들은 이태가 지난 오늘까지 소식이 없었다.

윤성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방쪽으로 건너갔다. 달빛에 잠든 두 처녀의 모습이 윤성녀의 눈에 밟혀왔다. 벼짚을 세게 때서 그런지 한순정은 이불을 차버리고 흰 팔을 드러낸채 혼곤히 잠들어있었다. 윤성녀는 달빛에 백옥처럼 보이는 처녀의 부드러운 살결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쯧쯧, 어쩜 처녀가 이다지도 고울가. 온통 흰장미꽃 한가지구나.

저 코생김새와 귀를 보지. 그리구 머리는 왜 이리 삼단같을가. 세상에 이렇게 눈에 꼭 드는 처녀도 있을가.)

그 순간 윤성녀는 갑자기 말 못할 허전함과 일종의 죄스러움이 한데 섞여 가슴이 알찌근해왔다. 외태머리를 드리웠던 그 시절부터 제 사람처럼 알고있는 한순정을 아들의 곁에 나란히 세워보는 윤성녀는 마음대로 사연을 이야기할수 없는 안타까움에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러자 어쩐지 속이 좋지 않았다. 이태전 아들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친딸에게조차 사연을 털어 못놓는 안타까움도 참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이 처녀앞에서만은 마음을 진정할수 없었다.

(내가 주책없이 왜 이럴가? 성일이가 이 에미 꼴을 보면 뭐라고 할가. 원… 언젠가는 순정이도 날 알아주겠지!…)

어머니는 약해지는 마음을 달래며 이불을 끌어당겨 한순정의 봉긋한 가슴우에 덮어주었다.

다음날 아침,잎푸른 추리나무가지에서 산까치가 유난스레 깍깍거리고있을 때 두 처녀는 등산배낭을 메고 토방을 내려섰다.

순정이는 인상적인 맑은 눈을 가늘게 쪼프려뜨고 부루며 쑥갓, 마늘 등이 싱싱하게 자라는 터발과 이제 움이 트기 시작한 호박순이며를 정겨운 시선으로 둘러보았다.

윤성녀가 그들을 바래주려고 따라나서자 하얀 운동화에 발을 꿰지르던 성탄금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이러지 마세요. 이젠 길을 알았으니 우리끼리 가요.》

《일없다. 시골길이란 말만 들어선 모른다. 동구밖까지래두 가자꾸나.》

윤성녀는 중둥매끼를 풀어 토방우에 던지며 고무신을 신었다.

한순정은 몹시 주저하는 걸음으로 사립문을 나서다가 주춤 멈춰섰다. 그의 하얀 얼굴에는 이 순간 망설이는 빛이 가득 실렸다. 윤성녀는 따라서서 꼬리를 휘젓는 검둥이를 손으로 말리며 의아해서 처녀를 지켜보았다.

《저,어머니…》

《아니,왜 그러나?》

하루밤사이에 몹시도 정들어버려 마치도 그 어떤 귀중한 보물을 손에서 놔주는듯한 아쉬움과 허전함에 빠져있던 윤성녀는 처녀의

눈빛을 살피며 물었다.

《어머니, 한가지 부탁이 있어요.》 하고 한순정은 힘들게 말꼭지를 뗐다.

《제 에미처럼 여기구 말하라구.》

《저… 저의 사진을… 주실수 없을가요?》

한순정의 얼굴은 순간 붉게 물들었다.

윤성녀는 짜릿한 행복감을 느끼며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섬찍해지였다. 소년, 소녀 시절에 찍은 그 사진?!… 아들의 모습이라고는 유독 그 사진 하나밖에 없었다. 자기가 그것을 내놓고 살아갈수 있을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제 살점을 저미는것처럼. 그러나 그것을 이 처녀에게 주지 않으면 그보다 더 크고 귀중한 그 무엇을 잃을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도 하였다.

윤성녀는 한순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처녀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한순정은 난감해하는, 지어 말 못할 어머니로서의 진실한 아픔의 기색까지 어리는 윤성녀의 눈빛을 일별하고나서 갑자기 얼굴이 발그레해졌다.

《무리한 부탁인줄 알면서도 제가…》

《아닐세, 아니야. 내레 무슨 생각을 하고있나. 그 사진 말이지. 농순이 에미한테 또 한장 있는걸 깜박 잊었댔구만.》

윤성녀는 두서없이 이렇게 중얼거리고나서 황황히 방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서둘러 장안에서 사진첩을 꺼내놓고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모습도 함께 있는 사진을 뜯어들었다.

어쩐지 이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리웠다. 그는 흐려오는 눈길로 아들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어쩌면 매일 한번씩은 딸 몰래 꺼내보던 사진이였다. 이태전부터는 아들이 사다준 그 테가 큰 안경을 쓰고 한참씩이나 바라보며 남몰래 마음속의 사연을 주고받던 색날은 귀중한 사진이였다.

짜릿한 아픔외에도 무엇인가 그것을 남에게 주지 않는다는 야릇하고도 누긋한 안도감이 드는것은 이상한 일이였다. 그렇게도 한순정이라는 처녀는 윤성녀의 마음속에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들었고 무엇인가 운명적인 인연을 맺어주는가싶었다. 이것이 항간에서 말하는 연분이라는걸가…

윤성녀는 서둘러 옷고름으로 눈굽을 찍고 밖으로 나왔다. 날은 화창하여 해는 빛났고 주위의 모든것은 봄철다운 매혹으로 눈부시였다.

세 녀자가 동구길에 들어섰을 때 읍내쪽 큰길로 군용차 한대가 달구지바퀴자국에 몹시 들추며 달려왔다.

윤성녀는 그 차가 어딘지 낯이 익어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머니, 이젠 들어가세요.》

한순정은 또 자기 배낭을 빼앗아 들려 했으나 윤성녀는 막무가내로 그를 가볍게 물리치며 부지런히 앞서 걸었다.

《놔두게, 내레 순정이와 언제 또 이렇게 걸어볼가. 저 갈림길까지라도 같이 가자꾸나.》

방금 내가에서 청소를 한듯 차체가 물기에 번들거리는 군용차는 기세좋게 달려오다가 세 녀자앞에서 문득 멈춰섰다. 승용차문이 벌컥 열리며 강철빛얼굴에 이마가 훤칠한 중년의 사나이가 닁큼 뛰여내렸다. 어깨가 버그러지고 키가 후리후리한 사나이였다. 그는 캡을 들고있는 손을 휘저으며 윤성녀의 앞으로 씨엉씨엉 다가왔다.

《어머님, 그새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게 뉘시우? 부장어른이 아니시우?》

윤성녀는 배낭을 한순정에게 넘겨주고 사나이의 손을 두손으로 덥석 잡았다.

《허허, 이 주변 부대에 나왔다 평양으로 가던길에 들렸습니다. 부서동무들이 어머님에게 보내는것두 있구요.》

사복차림을 해선지 주한경장령은 한결 텁텁하고 나이들어보이기도 하였다.

《원, 사람들두… 뭘 올 때마다 번번이…》 하고 어머니는 눈길을 내리깔았다.

《어머님두 참, 우리 동무들이 다 산에 있을 때 어머님 신세를 진 사람들이랍니다. 지난번 가을엔 어머님이 보내준 대추를 잘 먹었습니다.》

주한경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홱 돌아서서 운전사를 불렀다. 입귀에 커다란 기미가 있는 애젊은 전사견장을 단 젊은이가 인상좋게 웃으며 다가왔다.

《운전사동무, 마침 잘됐소. 여기서 잠간 만나구 가겠으니 제껵 짐을 부리고 오라구.》

그 말에 윤성녀는 주한경의 팔소매를 잡았다.

《아이구, 이러지 마시우. 시간이 없는것 같은데 여기다 내려놓구 갈게지. 집이 코앞인데…》

그러나 벌써 승용차는 바람을 일으키며 그들의 곁을 지나 마을쪽으로 달려갔다.

애젊은 운전사는 그들의 곁을 지날 때 한엽에 몰켜서서 주한경과 윤성녀를 유심히 바라보는 두 처녀에게 씽긋 미소를 보냈다.

《얘 순정아, 저 운전사 정말 귀엽겐 생겼는데…》

성탄금이가 한순정의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한순정은 그 말에 눈을 흘기며 성탄금의 어깨를 가볍게 찔렀다.

《참, 이 처녀들은 누굽니까?》

주한경은 담배를 붙여물며 유별나게 눈에 띄우는 한순정을 슬쩍 건너다보았다.

《묘향산에 등산왔던 평양국립음악학교 학생들이라우. 순정아, 인사해라. 전에 우리 성일이 아버지랑 함께 싸운분이다.》 하고 윤성녀는 다시 주한경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체녠 우리가 압록강에 있을 때 이웃에 살던 야학집 선생 딸이라우.》

《아, 그렇습니까.》

주한경은 처녀들앞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묘향산답사라! 좋은 시절이군. 부럽소. 동무들이 정말 부럽소!》

주한경은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한순정을 미소어린 얼굴로 바라보았다.

인상적인 커다란 검은 눈매에 살색이 희고 목이 상큼한 놀랄만큼 청초하고 아름다운 처녀였다. 푸른색 대학생교복을 입은 부드럽게 흘러내린 날씬하고 탄력있는 몸매며 불그레한 도톰한 입술이며 어딘지 모르게 애틋하면서도 청춘다운 랑만과 열정이 느껴지는 모습이였다.

어느새 승용차가 마을입구에 나타나더니 동구길을 따라 뚱기적거리며 달려왔다. 차가 멎자 아침나절 어디가 딩굴었는지 코물이 졸졸 흐르는 농순이가 냉큼 뛰여내려 주한경의 눈치를 슬슬 살피며 한순정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 애의 바지주머니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불룩했다.

주한경은 손수건으로 농순이의 코밑을 닦아주고 혀를 찼다.

《허허, 그 녀석 이태사이에 퍽 컸는걸. 그런데 아직 인사할줄도 몰라?》

《이 할머니가 너무 응석을 받아줘서 그렇다우. 이녀석! 어서 아저씨에게 인사해야지.》 하고 윤성녀는 눈을 흘기는척하며 그 애의 등을 떠밀었다.

《헹!》

농순이는 말쑥해진 얼굴로 코나발을 불더니 주한경에게 살짝 웃어보였다. 윤성녀는 마디굵은 큰 손으로 손자의 엉덩짝을 가볍게 두드려주었다.

주한경은 처녀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자, 녀학생동무들. 먼저 차에 타우. 내 읍내까지 데려다주지.》

그러자 어느새 입귀에 기미가 있는 애젊은 운전사가 성큼성큼 다가와 처녀들의 등산배낭까지 덥석 빼앗아들었다.

《어마나, 아이 우린…》

한순정은 성탄금이와 눈길을 맞추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주한경은 윤성녀를 이끌고 길옆으로 물러섰다.

《어머님, 아드님이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주한경의 겸양이 비낀 음성에 윤성녀는 문득 가슴을 설레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석이 그래 끼니나 제때에 끓여먹는지…》

《어머니두 참, 성일동무가 살기는 귀공자처럼 살지요. 허허…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묘향산에 단풍이 불타는 이해 가을엔 꼭 고향집에서 잔치를 차립시다.》

윤성녀는 유쾌하게 울리는 주한경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속이 즐거워짐을 느꼈다.

《말만 들어두 고맙수다. 부장, 내 걱정은 조금두 말구 우리 애녀석이 끝까지 장군님을 받들어 아버지뒤를 잘 잇게 해주시우!》

윤성녀의 진정어린 말에 주한경은 웃음을 거두었다.

《어머님마음을 알겠습니다… 참, 어머님. 이제 그 처녀가 어떻습니까. 막 눈이 부시구만요. 저렇게 인상깊은 처녀는 처음 봅니다.》

《허허, 부장두 그렇게 보시우? 어릴 때부터 우리 성일이와 각

별한 사이였다우.》
어머니의 말에서는 인정과 깊은 애착이 느껴졌다. 주한경은 그런 어머니를 한참 지켜보다가 또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차가 떠나려 할 때 농순이가 바지주머니에서 커다란 사과 두알을 내밀었다.
《아짐마, 이거 먹어!》
사과를 받아든 한순정은 갑자기 눈물이 글썽해져서 농순이를 와락 그러안았다. 그리고는 상기된 얼굴로 윤성녀에게 돌아섰다.
《어머니, 가끔 편지하겠어요. 그리고…》
《오냐, 나두 좋은 소식이 오면 네게 전하마. 꼭 기다리라구!…이 시골 로친네를 부디 잊지 말라구!…》
한순정은 물기어린 눈으로 윤성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기다리겠어요!》
승용차는 발동소리를 울리며 동구길을 벗어나 갈림길에 들어섰다. 흰 옷 단정히 입은 어머니는 농순이의 손목을 잡고 오래도록 동구길에 서있었다. 그것은 한순정의 가슴속에 깊이 아로새겨진 어머니의 다정한 모습이였다.…

제 4 장

《벌써 한주일째 캐논방첩기관이 사무소와 장교숙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아담스는 사무소마당에 쌓아놓은 불에 그슬린 지함들을 침울하게 바라보더니 담배물주리를 꺼내들었다.
전선쪽에서 울려오는 둔중한 포성이 사무소의 깨진 유리창을 가볍게 흔들었다.
《너무 걱정하지 마오. 대구에 처음 온 인사를 치르려는거겠지. 한마디로 급이 낮은놈들이더군.》
림송은 사무소창문을 열어놓고 황혼에 물젖은 정원의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레이몬드는 중발머리 녀성서기가 가져다놓은 커피잔을 조심스레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그건 겐지로의 밀정들입니다. 이미 나와는 몇번 맞선 일이 있는 자들이요. 전번에도 말했지만 겐지로는 고등계 형사를 할 때부터 가지고있던 〈검은 무사〉망을 지금 비밀리에 움직이고있습니다. 한때는 이전 서울경시청 기무라대좌에게 속해있던것들인데 음흉한 자들입니다.》

《그자들의 감시목적은?》

《당신의 행동을 수시로 장악해서 겐지로에게 보고하는 일입니다. 뒤를 캐려는것이지요. 홍콩에 개인구좌를 가지고있는 겐지로는 이전부터 우리 사무소에도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림송은 레이몬드의 말을 들으며 상념에 잠겨 그냥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사실 그는 요즘 자기 주위를 맴돌고있는 보이지 않는 눈길과 손길들을 수시로 느끼고있었다. 승용차로 거리를 달릴 때도, 장교식당이나 호텔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지어 련락임무차로 여러명의 자동총수의 호위속에 대구교외의 8군사령부 산하 부대들, 병참기지사령부로 갈 때도 그는 자기를 압박하는 례의 그 눈길과 손길을 감촉하고있었다.

어제 림송이 사령부에 나간 사이 장교숙소에 침입한 《검은 무사》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방들을 수색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레이몬드의 보고대로 막후의 조종자는 겐지로소좌였다.

겐지로의 행동들의 독특한 성격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나타난 모든 사실들은 겐지로가 나에게서 그 어떤 범상치 않은 인상을 받았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인상은 아마도 예감정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을것이다. 그것은 그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정탐심리가 잘 말해주고있다. 그는 자기의 비급정보원들을 풀어 나의 신경을 자극하고 나를 놀래움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협의는 곧 해당 기관의 검토로 넘어갈것이 아니겠는가? 브라운 겐지로…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위험한 원쑤…

림송은 담배를 꺼내물었다. 연기를 빨았으나 조금도 가슴이 시원해지지 않았다. 그는 레이몬드를 돌아보았다.

《아담스, 당신은 당분간 스테쎌부관과의 사업을 진척시켜야겠소. 문제는 가능한 모든 선을 다 리용해서 그를 궁색한 채무자로 만드

는거요.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되면 그가 구원의 손길을 누구에게 내밀것 같소? 나는 그의 상급인 에니스가 만찬회때 무슨 료리를 먹는가 하는것까지 다 알아야겠소. 경제정탐도 군사정탐에 못지 않는 예술이 필요한거요.》

《당신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미 스테쎌 듀페이씨는 우리의 자갈을 물 준비를 했지요.》

레이몬드는 랭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휘저었다.

림송은 창가로 다가갔다. 석양빛에 물들어 벌거우리해진 구름짬으로 장미빛노을이 고요히 불타고있었다. 사무소 웃층 어디선가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가만히 들어보니 기타소리였다. 그 외롭고 애상에 가득찬 음조가 몹시도 림송의 마음을 자극했다. 림송은 잠시 눈을 감고 그 곡조를 들었다.

《레이몬드, 당신은 고향이 어디요?》

문득 림송은 얼굴을 돌리지 않은채 물었다.

그의 물음이 뜻밖인 모양 레이몬드 아담스는 잠시 주저하였다.

《나폴리 주변에 있소. 스탠트이라고… 혹시 가보지 않았소?》

《아니, 못가봤소. 그래 고향엔 누가 있소?》

《어린 딸 벨라가 늙은 할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레이몬드는 푹 가라앉은 음성으로 띠염띠염 대답했다.

《안해는?》

《…처는 파쑈놈들에게 잘못됐습니다.… 불우한 한생을 보낸 녀인이였소. 그 녀자는 아마도 나때문에 짧은 일생을 고통속에서 흘러보냈을겝니다. 상인이였던 그 녀자의 이붓아버지가 우리들의 결혼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때는 벌써 그 녀자의 몸에 생명이 숨쉬고있었소. 나를 항만로동자라고 경멸하던 그 이붓아버지는 딸에게 아이를 떼버릴것을 강박했습니다. 안해는 아름다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 녀자가 수술장으로 끌려가 몸부림을 치며 웨치던 그 목소리를 잊을수 없습니다.

〈아, 당신들은 악마에요! 자연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혜택은 태여날 권리예요!…〉…의사들은 끝내 그 녀자의 몸에 수술칼을 대지 못했지요. 그후 안해는 집을 나왔습니다.…》

레이몬드는 문득 이야기를 끊어버렸다.

림송은 얼굴을 돌려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레이몬드는 림송의

눈길을 피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들었다. 담배를 입에 무는 그의 굵은 손가락은 이 순간 가볍게 떨리는것 같았다. 림송은 눈길을 돌려버렸다. 심장이 바위같은 이 사나이에게도 고향과 처자에 대한 뜨거운 감정의 격류가 맥박치고있음을 림송은 의심치 않았다. 정보일군으로서의 리성은 이 순간 랭담하였으나 인간 림송은 어쩐지 이웃벗을 대했을 때와 같은 두터운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난 당신에게 그런 비극이 있은줄은 몰랐소. 그러나 희망을 잃지는 마시오. 이제 귀여운 딸을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있을거요.》

림송은 동정어린 눈길로 그를 다시 바라보았다.

《림송씨, 난 내 운명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조국에서 쫓겨난 몸입니다. 난 이미 그 땅에 대해 쓰디쓴 환멸을 느낀 사람입니다. 그저 딸애와 어머니에게 하느님의 보호가 있기만 바랄뿐이지요.》

《아니요. 당신은 자기 조국을 잊어서는 안되오.》 하고 림송은 별안간 음성을 높이며 그의 앞으로 걸어갔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혜택이 태여날 권리라면 조국애는 인간의 본능이고 의무요. 그건 매 사람에게 있어서 조국은 어머니이기때문이요. 어머니가 길가에서 무뢰한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 서슴없이 한몸을 내대지 않을 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설사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은 어머니를 보호하려들거요. 레이몬드씨, 당신이 조국을 떠난 사람이기에 이런 말을 하오. 난 당신의 조국이 루네쌍스를 낳은 예술의 모국이라는것을 알고있소. 레오나르드 다 빈치와 단테의 고향이 아니요! 똑똑히 명심하오. 조국을 잊은 사람은 억만금을 가지고있대도 거지에 불과하오. 거지중에서도 상거지에 지나지 않소!》

《?!…》

레이몬드는 불쑥 숙였던 머리를 들고 흥분한 림송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두사람의 눈길이 서로 부딪쳤다.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것이, 섬광과도 같은 예리한것이 두사람의 눈길을 오가는것 같았다. 아니 눈길이 아니라 론리로는 설명할수 없는 그 무엇이 심장에서 심장으로 옮겨진것 같았다.

레이몬드의 눈에는 다음순간 다소 놀란듯한, 의아한듯한, 감동된

듯한 빛이 가득찼다가 별안간 흔적도 없이 꺼져버렸다.
림송은 그자리를 떠나 다시 창문가로 다가섰다.
점차 그의 가슴은 랭정해졌다.
(내가 이게 리성을 잃은게 아닌가! 상대방이 누군지 알고 자기속을 터보였는가? 아직은 이 인물이 누군지 알수 없어. 확실히 내겐 정보일군으로서의 기질이 없어. 조국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인내성과 완강성이, 세련된 정탐가의 웅심깊은 성격이 없어… 조국의 명령이 없이 나는 단 한순간도 《나》로 돌아갈수 없다. 단 한순간도! … 조국이 준 임무를 수행하려면 먼저 어느 고리를 뚫어야 하는가? 에니스에게로 접근하는것이 그 지름길인가? 아니면 문용채? 전번 련락문건에 내가 바라는 중대한 자료가 있지 않았을가?… 어쨌든 현재 정황에서는 스테쎌을 움직여야 한다. 스테쎌을! …)
림송은 이마살을 찌프리고 흐리터분한 밖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이튿날 림송은 늦어서야 장교숙소로 돌아왔다.
금방 목욕을 한듯 얼굴이 발그레하게 익은 안내원이 방문을 두드리고 스테쎌소좌에게서 전화가 왔다는것을 알렸다.
림송은 중앙복도로 나가 수화기를 들었다.
《스테쎌인가? 어디서 전화하나?》
《장교구락부에서 걸지. 난 래일 도꾜로 떠나네.》
스테쎌의 목소리는 어쩐지 유쾌하게 들렸다.
《자넨 채권자들과 빵빵걸들에게서 영원히 해방되려는건 아닐테지?》
《친구를 버릴수야 없지. 난 극동군사령부로 련락임무를 수행하러 가네.》
《그럼 출발에 앞서 송별연에라도 초대하려나?》
《물론… 그리구 자네에게 관심을 가지는 한 사람을 소개하지.》
림송은 스테쎌이 약간 롱조로 말한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수화기를 다른 손에 바꿔쥐며 무심한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가 누군데?》
《만나보면 알걸세.》
《그럼 20분후에 도착하겠네.》
림송은 급히 승용차에 올라 장교구락부로 향했다. 벌써 어둠이

깃들고있었다. 인민군공습이 무서워서인지 거리에는 가로등 하나 켜있지 않았다.
자동차를 쾌속으로 몰면서 두가지 생각을 하는것은 위험한 일이였다. 그것은 운전자체가 하나의 정신로동이고 일종의 예술이기때문이였다.
하지만 다년간 정보활동을 해오는 림송에게 있어서 두세가지 상념과 추리 속에 동시에 묻히는것은 이미 굳어진 습관이였다. 더우기 지금 그의 마음은 몹시 초조하고 불안하였다.
그는 오른발로 가속답판을 지그시 누르면서 줄곧 시창앞을 내다보았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있다! 순간이 생명처럼 귀중한 이때 나는 속수무책으로 앉아있을수 없다. 가정해보자. 전략정보부대조직은 미중앙정보국 성원인 에니스준장의 구상이겠는가? 아니면 8군정보부장이나 작전부장인가? 극동군정보국장 월로우비인가? 혹시 캐논방첩기관이 2중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알렌덜레스에게 추파를 던질수도 있지 않는가?…)
한순간 림송은 머리를 흔들었다. 역전 네거리에서 그는 제동기를 밟았다. 장갑차행렬이 길을 막아버렸다. 림송은 운전대에 몸을 기대고 생각을 이어나갔다.
(아니, 모든것은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확실히 에니스는 이 작전과 긴밀히 련결되여있다. 조국에서도 그걸 확인할것을 지시했다. 문제는 스테쎌 듀페이다. 듀페이에게로 접근하는것이 나의 주타격방향이다. 문건, 사건 확증전에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에니스의 부관인 그가 왜 갑자기 도꾜로 가는것일가?…)
림송은 승용차들이 주런이 서있는 장교식당 정원에 차를 멈춰세웠다.
스테쎌 듀페이는 사복차림을 하고 장교식당의 외진 식탁에 침울한 표정으로 점잖게 앉아있었다.
그는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림송을 보자 억지로 얼굴에 웃음을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조선전선에서 은성훈장을 타기전엔 바다를 넘지 않겠다던 자네가 무슨 바람이 불었나?》 하고 림송은 그와 마주앉으며 물었다.
《말두 말게. 난 지금 생활전선에서 거의 빠져나가지 못할 포위

속에 들었네.》
스테쎌은 접대부를 손짓으로 불러 꼬냐끄를 요구했다.
《왜? 자네의 바람직한 부관생활이 아직 불경기인가?》
《흥! 바람직한 부관생활?》 하고 스테쎌은 다시 말꼬리를 붙잡고 비틀었다.
《봉급이 관하부대 대대장보다도 못한걸! 림송, 나의 채무증서에 점점 수자가 붙는걸 용서해주게. 8군사령부 통신과의 윅캄소좌가 어제 정식으로 우리 고급부관에게 당장 채무를 갚아줄것을 항의해왔네. 난 지금 자살하고싶은 생각뿐이야!》
《아직 도박장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나?》
림송은 그 사이 스테쎌이 레이몬드에게 가서 여러차례에 걸쳐 은행수형을 가져왔다는것을 알고있었으나 시치미를 떼고 놀란체하였다. 스테쎌의 얼굴에는 붉은 반점들이 나타났다. 그는 단숨에 꼬냐끄를 마셔버렸다.
《습관의 힘이란 대단한거라네. 난 지금 백만금을 얻을수 있다면 무슨짓이든지 다할것 같네. 지어는 나자신이나 조국이라도 팔아버리고싶네.》
《?!…》
《사실 난 보좌관 아이부스대좌에게 사정해서 이번 임무를 맡았지… 내가 마지막 생명선으로 희망을 걸고있는 삼촌의 은행이 파산에 직면했다는 전보가 왔네. 이건 나의 운명에 대한 이중타격이지…》
림송은 잠시 절망에 빠진 눈길로 자기를 바라보는 스테쎌을 눈여겨보다가 술잔을 밀어놓으며 담배곽을 집어들었다.
《언제 떠나나?》
《래일.》
《하루 미룰수는 없겠나?》
《안되네.》 스테쎌의 얼굴에는 갑자기 심중한 표정이 깃들었다.
그는 주위를 조심히 휘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에니스준장이 직접 나에게 임무를 주었네. 도꾜를 거쳐 펜타곤의 륙군정보국에 시급히 전달해야 할 극비문건이네. 정보국이 작성한 중요방안에 대한 최종보고서이네. 알겠나?》
《신임이 대단하구만. 이러니저러니해도 자넨 역시 행운아야.》

스테쎌은 림송이 여전히 웃으며 딴전을 부리자 초조한듯 몸을 앞으로 내밀더니 주저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림송, 내가 오늘 자넬 만나자고 한건 긴요하게 토론할 문제때문이였네.》

《말하게.》

《비밀을 지켜주겠나?》

《날 믿지 못하겠나?》

《자신처럼 믿지!》

《그럼 자신에게 하듯 말하게.》

림송은 조용히 미소를 그리며 머리를 한번 끄덕이였다.

《알겠네… 목사앞에서 참회할 때도 진실을 숨겼으나 자네에겐 솔직히 고백하지. 난 며칠전에 미2군단 정보부에 있는 훼이트소좌를 만났었네. 나토군에서부터 동거고락을 같이한 친구지. 그는 은행에 상당한 정도의 개인구좌를 가지고있네. 난 늘 후원자가 없는 그의 수입원천에 의혹을 품었었는데 며칠전에야 그가 나에게 자기의 비밀을 실토하였네.》

《혹시 그가 북방렬도에서 몽떼 끄리스또같은 섬이라도 발견한게 아닌가?》

림송은 스테쎌의 말에 흥미를 느꼈으나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보다 더 유익한걸 발견했지. 그는 부산에 있는 일본의 한 개인회사와 련계를 가지고 보급물자와 군수경제정보를 제공해주었다네. 이젠 내 말뜻을 알겠나?》

《응… 그래 그자를 군법회의에 기소할 생각에 도달했나?》

《물론 나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었지. 그러나 난 달리 결심했네. 나 역시 흥미있는 기업을 할수 있다는 자신심을 가지게 되였지.》

스테쎌은 주저하며 림송의 눈치를 살폈다.

이 순간 림송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자기가 품을 들인것이 드디여 효과를 내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는 최근에 와서 에니스의 부관실을 통한 정보원천을 탐구하기 위하여 그 사이 레이몬드 아담스를 조종하면서 스테쎌의 타락과정을 주시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스테쎌과의 사업은 위험을 동반하고있었다. 그것은 스테쎌의 신념이 하루사이에 명예로부터 재부로 바뀔수 있는것처럼 필요한 경우

에는 친구까지도 서슴없이 팔수 있기때문이였다.
림송은 눈길을 내리깔았다.
《하긴 준장 부관의 손에 쥐여진건 아무 의미 없는 타자지의 페지수까지도 값이 나갈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나?》
스테쎌은 마른침을 꿀꺽 삼켰다.
《물론, 하지만 자넨 그 딸라 한잎한잎을 주머니에 넣을 때 유에쓰에이표식이 있는 총알도 한알씩 받을수 있다는걸 명심하게.》
림송은 의미심장하게 말하며 그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뜻밖에도 스테쎌 듀페이의 얼굴에는 다소 유쾌해하는듯한 안도의 빛이 떠올랐다.
《그건 념려말게. 난 총알이 귀전을 스치는 아슬아슬한 모험을 좋아하네. 림송, 그렇지만 난… 정보가 나의 손을 거쳐 붉은정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하려는 생각은 없네. 그리고 일본인에게도. 그 정보가 나도 포함되여있는 우리 미군에게 명중탄이 되여 날아올수도 있으니까.》
스테쎌의 눈가에는 능청스러운, 교활한 빛이 지나갔다. 《림송, 내가 자네의 비밀을 알고있는걸 용서하게. 난 자네가 고문격으로 있는 경제사무소를 눈치채고있네. 놀라지 말게! 언젠가 미국의 한 친구가 나에게도 그러루한 부탁을 한적이 있어. 물론 그때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림송에게는 그 사실이 놀랄만한것이 못되였다.
왜냐하면 다나까사무엘은 결국 그들의 동창생이였던것이다.
《스테쎌, 자넨 정말 직업을 잘못 골랐어. 런던은행이나 빠리의 어느 흥신소에서 일자리를 구할걸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난 사무엘이 주관하는 그 사무소의 한갖 옵써버에 불과하다네.》
그 말에 스테쎌은 활기있게 웃었다.
《옵써버라고 해두세. 물론 자네도 미국경제가 전쟁이라는 호경기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갈망한다는걸 알테지? 자네들의 조종자인 사무엘의 회사도 그것을 기다릴걸세. 림송, 난 자네가 옵써버로 있는 그 기관의 성실한 정보아따쉐가 되려네. 친구로서 도와주게. 살려주게!》
문득 림송에게는 한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것은 이번에 스테쎌에게 레이몬드의 사무소가 수집한 군수기업체정보를 함께 쥐여서 뉴욕의 사무엘에게 보내자는것이였다. 물론 그 모든 정보들은 미중앙정보국에로 직송될것이며 사무엘에게도 만족을 줄것이다. 만약 스테쎌이 후날 씨아이씨에 걸려든대도 수사와 협의의 범위는 사무엘과 미중앙정보국을 련결하는 선상에서 벗어나지 못할것이다.

(어떻게 하나 궁지에 빠진 스테쎌이 스스로 정보자료를 나에게 들고오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물욕과 자부심이 강한 이자에게 미끼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스칠수 없는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 스테쎌이 정보자료를 가져오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공개적으로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가 모르게 봐야 하는가. 이것도 저것도 위험을 내포하고있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때 조장동지가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좋네.》 림송은 문득 머리속으로 하나의 계획을 재빨리 세우며 그의 등을 두드렸다. 《래일 비행장에 나가기전에 방에 들리게. 사무엘에게 소개신을 쓰지. 그리구 자네의 딱한 형편을 돕도록 레이몬드 아담스씨에게 부탁하겠네.》

《고맙네. 림송, 자넨 나의 구세줄세.》

스테쎌은 얼굴의 근육을 풀며 큰소리로 떠들었다.

《조심하게. 경제정보계에 나서려면 작게 웃을줄도 알아야 해. 조심성은 은페된 높은 형태의 용감성이라네.》

《명심하겠네. 참… 내가 가장 요긴한걸 잊을번했구만.》 하고 스테쎌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림송, 10분후에 역전 국립공원 입구에 가게. 한 묘령의 녀자가 기다릴걸세.》

림송은 그제야 아까 걸어왔던 전화내용이 떠올라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스테쎌은 빙그레 웃었다.

《난 자네에게 질투까지 느끼네. 그 녀자는 겐지로씨의 소개로 들어온 우리 사령부 부원이라네. 자네에게 무척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만나게 해줄걸 부탁했다네.》

별안간 림송의 표정은 긴장해졌다.

그는 문득 련락장교 단장방의 전실에서 얼핏 보았던 녀타자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어떤 이상야릇한 불안감이 체내에 깃드는것

이였다.

《자넨 그 녀자를 잘 아나?》

《알지. 난 겐지로씨로부터 그 녀자의 기사가 될것을 약속했다네. 드물게 보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녀자지. …》

스테쎌과 헤여진 림송은 장교구락부를 나섰다.

그는 승용차에 올라 잠시 번잡한 밤거리를 차창밖으로 내다보았다. 그는 발동을 걸고 운전대를 잡은채 생각에 잠겼다.

(어떤 녀자인가?… 왜 만나려고 하는가? 만약 그 녀자라면 그때 무엇을 보았으며 무엇을 생각했을것인가?…)

림송은 저으기 불안한 마음으로 역전공원 입구까지 차를 몰아갔다.

차에서 내린 림송은 공원입구의 돌기둥옆에 서있는 몸매가 날씬한 처녀를 첫눈에 알아보았다.

림송은 더 주저하지 않고 그 녀자를 향하여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 녀자는 림송이 다가오는줄도 모르고 명상에 잠겨 어둠에 묻힌 공원숲을 바라보고있었다. 림송은 가로등불빛에 드러나는 그 녀자의 옆모습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별안간 인기척에 와뜰 놀라며 녀자가 얼굴을 돌렸다.

《아이, 림송씨, 절 용서하세요.》

그 녀자의 애틋한 눈이 이슬을 머금고 반짝하는 순간 림송은 가슴이 철렁하는것을 느꼈다. 그는 황급히 녀인에게로 다가갔다.

《아니, 이게… 수림이가 아니요.》

강수림은 손을 눈기슭에 가져가며 정답게 웃어보였다.

《전 몇번 림송씨를 찾아뵈려고 용기를 냈다가도…》

《아가씨를 이렇게 만날줄은 정말 몰랐소. 난 아가씨가 부산으로 돌아간줄 알았지. 그러니 이 대구에서 일자리를 구했구만.》

《그렇게… 됐어요.》

두사람은 잎이 무성해진 나무숲사이길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공원안은 밤이 짙어 인적이 뜸했다.

《왜 부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소?》

그 녀자는 림송의 물음에 잠시 속눈섭을 내리깔더니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전쟁판인데 어디 간들 같겠지요. … 전선형편이 나쁜것 같아요. 벌써 부산에서 도꾜로 이주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의

어머니도 서울에서 폭격에 잘못됐대요. … 난 이젠 외토리가 되고 말았어요. …》
《그 사이 고생했구만. …》
림송은 동정의 눈길로 그 녀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해군참모총장 부인 홍은혜 언니의 도움으로 류학을 떠날 때만 해도 어머니가 경영하던 호텔에서 수입이 있었지만…》
《난 수림이가 자기 운명을 꿋꿋이 개척하리라 믿소.》
《하지만 전… 나약한 녀자랍니다. 림송씨가 곁에 있으니 저의 마음이 든든해지는것 같군요.》
이렇게 말하는 강수림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버렸다.
림송은 그 녀자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렇게 생각했소?》
강수림은 조용한 시선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전… 림송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복을 입은 당신을 보는 순간 놀랐어요.》
《진심을 말해주어 고맙소. 그러나 준엄한 현실은 나에게 그걸 명령했소. …》
《당신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걸 바라세요?…》
강수림은 당돌한 자세로 그를 쏘아보며 도전하듯 물었다.
림송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수림이, 우리가 바라는 승리를 위해선 대가를 치르어야 하오.》
《아니예요. 난… 내가 치는 타자문들은… 난 그게 폭탄이 되여 우리 사람들의 가슴에 떨어지는것 같아요. …》
강수림의 목소리에는 그 무엇에 분개한듯한, 호소하는듯한 감정이 깔려있었다.
(타자문건? 타자수?… 그럼 그가?!)
그들은 말없이 공원길을 걸었다.
《…》
《림송씨, 제가 당신을… 도울 일은 없는가요?…》
강수림이 주저하는 눈길로 림송을 올려다보았다.
이 순간 림송의 눈앞에는 군용지도를 든 자기를 발견하고 놀라던 녀타자수의 모습이 다시 명백히 떠올랐다.
림송은 담배를 꺼내물었다.

《타자수인 아가씨는 나를 통해 당신의 보호자로 될걸 약속한 다나까 사무엘씨의 회사일을 도울수 있지. …》
《그럴가요? 도울수 있을가요?》
《물론! 그는 조선으로 기업을 확대하고싶어하니까…》
림송의 말에 강수림은 생각에 잠겨 부나비가 날아드는 가로등을 무심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림송은 이 순간 자기의 대답이 이 녀자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련락장교단 문용채대령은 어제 대구를 떠나 부산으로 돌아왔었다. 지금 그는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며 방안을 오가다가 창가에 멈춰섰다.
뽀얀 운무가 낀 부산시가가 눈에 안겨들었다.
이상하게 흐릿한 대기속에는 매캐한 포연과 재빛가스가 가득차있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불원간 련락장교단을 떠나 다른 직무로 조동되리라는 예감을 가지고있었다.
며칠전 8군인사부장과의 담화가 있었다. 어떤 운명이 자기를 기다리고있을지 모를 일이였다. 이 몇해째는 땀내가 가실새없이 뛰여다니느라고 안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야유회 한번 변변히 다니지 못했다. 도꾜와 대구를 오가며 가끔 집에 들릴 때마다 측은한 눈길로 자기를 조심스레 지켜보는 안해의 얼굴에서 그는 늘 알수 없는 죄의식을 느끼군했다. 그러나 안해 역시 남편의 승진에 따라 서울의 연세대학앞 북아현동의 단칸주택으로부터 부산시 안함동의 이층짜리 고급벽돌집으로 이사하는 그길이 단란한 가정의 목가적인 행복을 즐길새없이 갖은 권모술수와 피어린 고행속에서 얻어지고 이어지는 길임을 모르지 않고있었다.
문용채는 기업인인 아버지의 영향을 입어서인지 다른 사람에 비하여 가정살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였다. 군부의 친구들은 그를 보고 애처가라고 즐겨 말하고있다.
문득 손기척소리가 나더니 문용채의 부관이 방에 들어섰다.
《대령님, 8군 씨아이씨 겐지로소좌님이 오셨습니다.》 하고 부관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겐지로씨가？…》

문용채는 자못 반가와하는 기색을 띠우며 현관으로 나갔다.

겐지로는 코트를 벗고있었다.

《내가 대구에서 온걸 언제 냄새 맡았소？》

《자네 8군 씨아이씨를 어떻게 보구 그러나？ 도꾜의 캐논본부만 사업에 충실하리라 생각하나？…》

브라운 겐지로는 가는 눈에 웃음을 담고 손을 내밀었다. 요즘 8군방첩대 한개 과를 맡으면서 겐지로는 《국군》 대령급들과 스스럼없이 너나들이를 하고있었다.

《소좌가 요즘 우리 대통령관저와 친밀하다는 소문이 돌더군.》

문용채는 야릇한, 중떠보는듯한 미소를 지으며 겐지로의 눈치를 살폈다.

《말두 마우. 요즘은 그 늙은이가 환장을 했는지 미군장교앞에서두 기고만장해하거든. 한잔 없나？…》

《들어가세. 도꾜에서 가져온 마사무네가 있지.》

겐지로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흘끔 문용채를 건너다보며 입귀를 씰룩거렸다.

《아니, 차라리 머리두 아픈데 소풍이나 하지.》

《어디 단골집이라도 있나？》

문용채는 두말없이 군모를 집어쓰며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있지. 우리 대사관 근처에 새로 생긴 다방인데 녀주인이 절색일세.》

겐지로는 차에 오르면서 문용채를 돌아보았다. 누런 잔이가 드러났다.

《방첩장교가 다방출입이 잦은걸. 혹시 급사나 악사도 첩자가 아닌가？》

문용채는 속이 출출하던차라 그의 청에 응하기로 결심하였다.

《왜 악사뿐이겠나. 료리사까지 다 내 사람들일세！》

벌써 밤이 이슥했다. 그들을 태운 군용차는 림시국회청사곁의 장교구락부를 꺾어 들어서자 속도를 늦추었다. 이마를 맞댈듯이 솟은 각양각색의 빠, 나이트클럽, 캬바레, 딴스홀, 비어홀, 카페 등에서 비쳐오는 불빛들과 잠에 취한 쌕스폰소리가 벌써부터 은근한 취기를 불러왔다.

부산은 인민군의 드센 공격에 압축될대로 압축된 락동강지역의 전형적인 축소판이였다. 인총과 밀집된 사회, 산업기관들이 썰물때의 갈게떼처럼 득실거렸고 불비한 하수도시설이 막혀 어디 가나 시취와 오물냄새가 풍겼다.
거리는 물론 교외와 골목에서까지 누런 군복과 썩은 내가 풍기는 꾀죄죄한 옷을 걸친 사람들의 주린 군상이 보였다.
문용채는 환영처럼 얼른거리며 지나가는 거리의 소란스러운 살풍경에 눈이 아픈듯 얼굴을 잔뜩 찌프리고 앉아있었다.
《대령, 사실은 당신의 협력을 받을 일이 있어 그러오.》
겐지로는 피우던 담배를 도로 내던지며 군모를 눌러썼다.
《말하게.》
겐지로는 문용채의 말에 잠간 침묵을 지키더니 품에서 크지 않은 사진 한장을 꺼내들었다.
《보게.》
문용채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문용채는 손을 다시 내밀었다.
《8군사령부 련락장교단 림송씨가 아닌가?》
《알고있구만. 자넨 지금 8군지투에서 그를 인입하려 한다는 사실도 아나?》
《처음 듣네. 다만 에니스준장이 그에게 관심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네.》
《대령.》 하고 겐지로는 약간 싸늘한 미소를 띠우며 얼굴을 찌프렸다.
《난 불원간 자네도 에니스준장의 지시를 받게 되리라 확신하네.》
그의 말에 문용채는 속이 찔리였다.
8군 인사국의 비밀이 이자에게 벌써 알려지다니… 문용채는 괜히 속이 켕기여 의자를 들썩이였다.
《글쎄… 난 자네의 의도를 모르겠네.》
《그럼 듣게. 우린 림송대위를 부산과 대구를 련결하는 선상에서 리용하고싶네. 그 련락선으로는 자네를 후보자로 짚고있지. 알겠나?》
《이건 뭐 씨아이씨의 위협인가?》
《아니, 친구로서의 나의 부탁일세.》

한순간 겐지로의 눈길이 번쩍였다. 《구태여 찍어 말한다면 이건 자네네 리대통령의 의도일세.》

《대통령의 의도라. …》

문용채는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다.

《자넨 생각할걸세. 작전권까지 넘겨준 늙은이가 8군정보계는 왜 넘겨다보는가 하고. 그리고 왜 8군방첩장교가 이 일에 끼였는가고. 그건 더 묻지 말게. 그런 면에서 국군엔 정국을 내다보는 현자들이 더러 있다는걸 의미하지. 전략정보가 없이 전쟁은 승리할수 없고 또 한국정부가 건재하재도 8군의 정보가 필요하지. 난 생각하네. 장차 림송을 쥔다는것은 씨아이에이요원인 라이리 에니스준장에게 접근하는걸 의미하지.》

《림송이… 자네의 그물에 걸릴상싶나?》

《물론.》

《근거는?》

겐지로의 누런 이가 또다시 드러났다. 그는 껄껄 웃더니 문용채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에게 접근하게. 그의 뒤에 누가 서있는지 알아내게. 물론 에니스준장도 포함해서 말이네. 림송 역시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 아닌가. 나에게는 믿음직한 동업자가 필요하네. 물론 목적은 다르지만…》

《…》

문용채는 별안간 류다른 공포심을 느꼈다.

《그리고… 자네 마태복음에 배신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나?》

겐지로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렸다.

《그건 무슨 소린가?》

《난 자네가 에니스준장의 지시로 위암동에서… 벌리고있는 일을 잘 알고있지. 하지만 8군씨아이씨가 모르게 진행되면 재미없어!》

겐지로의 어조에서는 위협기가 느껴졌다.

《무슨 소릴 하나?…》

문용채는 속이 조마조마했다.

(이자가 정말 위암동아지트사건을 눈치채지 않았을가? 만약 그것이 알려지면 에니스준장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어떻게 한다?… 다 실토하고 이자와 극비밀리에 협력할가?…)

문용채는 속이 점점 더 불안해졌다. 이제는 겐지로가 갑자기 부산에 나타난 목적이 명백해졌다.

군용차는 비좁은 길을 느리게 달려 겨우 다방앞에 멎었다.

그들이 식당안에 들어서자 소무대가까이에 앉아있던 륙군정보국의 소령이 검정양복을 입은 한 사나이에게 허리를 굽히고 뭐라고 한마디 하더니 겐지로쪽으로 걸어왔다.

《소좌, 손님은 래일새벽 대구로 돌아가겠다는군요.》

형식상으로 《국군》 방첩대가 8군씨아이씨와 독립해있지만 정보국 소령은 례의를 잊지 않고있었다.

《그래 받아들이던가?》

겐지로는 공순히 곁에 와 선 접대원에게 코트와 군모를 넘겨주며 심상히 물었다.

《일정한 조건부로 응하더군요. 전번에 말씀드린…》

소령은 겐지로의 눈치를 살피며 말끝을 얼버무렸다.

《까다로운걸.》

《어쨌든 씨아이씨가 아닌 에니스준장휘하 첩보장교이니까요.》

겐지로는 문용채를 돌아보며 허구프게 웃더니 소령의 뒤를 따라섰다. 검정양복을 입은 사나이는 다가오는 두사람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참, 내가 부탁한 인물의 신원에 대해서 알아봤소?》 겐지로가 물었다.

《아직은… 다만 그가 북쪽태생이라는것만 확인했습니다. 그는 소년시절에 아메리카에 건너가 동양정보쎈터에서 재교육되였고 그후 정탐기관의 추천으로 고등교육을 받았지요. 북에 있는 나의 검은 신사들은 당신네 캐논방첩기관 문서고에 보관된 그의 개인문건을 곧 자료로 확증할것입니다. …》

사나이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더니 소무대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겐지로는 이마를 찌프렸다.

《일처리가 첩보일군답지 않구만. 우리 씨아이씨는 돈을 물쓰듯하는데가 아니요. 하지만 좋소. 기다리지.》

접대부는 잔에 술을 부었다.

겐지로는 얼굴이 벌개서 상우에 허리를 굽힌 사나이를 한참 쏘아보다가 문용채를 홱 돌아보았다.

《문용채씨, 난 긴 말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요. 위암동아지트를 철저히 봉쇄하시오. 아직은 국군씨아이씨사업에 간참하지 않겠소. 하지만 로획물이 그물에서 샌다면 그땐 용서하지 않겠소! 련락원이 곧 나타날수 있소! 그 결정적인 순간을 놓친다면 당신은 영원한 나의 적수가 될거요!》

문용채의 얼굴은 대번에 컴컴해졌다. 그는 위스키잔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악사들이 다시 연주에 활기를 불어넣기 시작했다. 허벅다리가 드러나는 짧은 치마를 입은 녀인이 소무대우에서 살진 엉덩판을 흔들며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얼굴을 봐요
내 눈을 봐요
사랑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겐지로는 눈을 자극하는 녀인의 드러내놓은 탄력있는 육체미를 정욕에 타는 굶주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가볍게 발장단을 치기 시작했다.

문용채는 겐지로를 보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

(내 눈을 봐요? 흥! 어디, 저 인간의 눈을 보라. 얼마나 잔인하고 살기어린 눈인가. … 미국계 일본인… 그러니 겐지로는 림송에게서 한손으로는 미소를, 다른 손으로는 칼을 얻으려는게 아닌가?… 림송, 림송, 그는 어떤 인간인가?…)

문용채는 잔뜩 얼굴을 찌프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문밖이 컴컴한걸 보니 아직도 새벽이였다.

림송은 군복을 대강 걸치고 응접홀로 나갔다. 안내원처녀가 낡은 중절모를 쓴 키가 호리호리한 청년을 데리고 들어왔다.

색이 바랜 중고품군복저고리를 걸친 젊은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모자를 벗더니 림송에게 꾸벅 인사했다.

《무슨 일이요, 젊은이?》

《대위님, 전 〈알파〉라고 부릅니다. 레이몬드씨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이걸 전하라고 해서…》

청년은 곁에 오도카니 서있다가 문으로 향하는 안내원에게 눈을 찡긋하더니 림송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어딘지 모르게 유쾌하고 순박한 성미가 드러나는 활달한 동작이였다. 림송은 총이 센 젊은이의 상고머리와 근육이 발달한 억센 상체를 유심히 뜯어보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급히 갈겨쓴듯싶은 글자들이 눈에 안겨왔다.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의 부탁대로 어제 스테쎌을 만났습니다.… 그는 특수부대 보급창과 관련한 정보문건을 가지고 워싱톤으로 떠납니다.…》

림송은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레이몬드선생에게 전하게. 내가 그의 신축성있는 일처리에 만족을 표시하더라고. 그래 〈알파〉는 어디 출신인가?》

림송은 《알파》의 인상좋은 얼굴을 다시 스쳐보며 물었다.

《대위님, 전 지난달에 홍콩에서 건너왔습니다.》

《알파》는 스스럼없이 대답하고 중절모를 눌러쓰더니 다시한번 안내원에게 눈웃음을 해보이고 바람같이 사라졌다.

림송은 어제저녁에 있은 스테쎌과의 담화를 생각해보며 천천히 세면칸으로 들어갔다.

림송은 손에 비누를 쥐고 짧은순간 생각에 잠겼다.

(래일은 련락원과의 정기적인 접선날자이다. 련락소가 대구로 이동하지 못한 조건에서 어떻게 하나 부산에 가야 하지 않는가. 련락장교단장은 어제 륙군본부에 련락임무를 갈 일이 생길것 같다고 했지. 나는 기회가 차례진다면 전시지만 부산의 해운대를 보고 싶다고 했지. …)

림송이 련락장교단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하사견장을 단 련락병이 단장실에서 급히 찾는다는것을 알렸다.

림송은 복도 끌방인 련락장교단 단장실로 갔다.

책상에 몸을 굽히고 무엇인가를 쓰고있던 단장은 안경너머로 림송을 건너다보았다.

《대위, 나는 당신의 제의를 류의해보았소. 좋소. 당신은 오늘저녁 부산의 륙군본부로 떠나시오. 어제 대구에 도착한 씨아이씨의 겐지로소좌와 함께 가게 되오. 준비하시오. 련락문건은 비행장에서 주겠소.》

《알았습니다, 대좌님.》

림송은 대좌에게 보고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무엇때문에 겐지로가 동행하게 되는가? 그는 왜 부산에 먼저 다녀왔을가? 씨아이씨장교가 공개적으로 련락장교를 동행한적은 없지 않는가. …)
이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련락병이 스테쎌소좌와 함께 방에 들어섰다.
《림송, 약속대로 떠나기전에 들렸네.》
림송은 자리에서 일어나 군복깃을 바로잡고 흔연한 낯색을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잘 다녀오게. 변덕스러운 도꾜날씬데 감기에 조심하게!》
스테쎌은 얼결에 손을 잡고 주춤거렸다.
《아니, 이건?…》
《스테쎌, 보다싶이 난 지금 바쁘네. 난 오늘 부산으로 가야 하네. 여기서 작별하는걸 용서하게.》
스테쎌은 휘둥그래진 눈길로 림송을 마주보더니 아직 문곁에 서있는 련락병에게로 돌아섰다.
《하사, 전화기앞을 떠나지 말아야지. 난 대위와 개별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소.》
스테쎌의 신경질적인 말에 눈이 파랗고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 애젊은 하사는 명민한 눈초리로 두사람을 얼핏 둘러보더니 조용히 문을 닫고 옆방으로 물러갔다.
하사가 사라지자 스테쎌은 들고있던 서류가방을 책상우에 던졌다.
《림송, 자네 날 정신병자로 만들셈인가? 소개신은 어떻게 됐나?》
스테쎌의 목소리는 불만과 초조가 섞여 거칠게 울렸다.
《미안하네. 스테쎌, 난 자네의 제의를 밤새 심중히 생각해보았네.》
《그래서?》
《난 결국 자네를 이런 일에 끌어들였다가는 친구를 불행에 빠뜨릴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네.》
림송은 자기가 랭랭해지면 질수록 절망에 빠진 스테쎌이 마치 물에 빠진자가 지푸래기에 매달리듯 더욱 열렬하고 검질기게 달라붙으리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이른바 《국제장교》라는 자존심이 누구보다 강한 스테쎌인 경우 그 빛좋은 가면을 벗어던지려고 결심한다면 어떤 저렬한 행동

이라도 할것이였다.
스테쎌의 얼굴빛은 금시 창백해졌다.
《자넨 날 믿지 못하겠나?》
《…》
《림송, 자넨 내 처지를 잘 알지 않나. 난 솔직히 말해서 사무엘에게 빈손으로 찾아가려는게 아닐세.》
스테쎌은 자기 말마디에 그루를 박았다.
《?!…》
림송은 스테쎌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스테쎌의 얼굴에 약간 주저하는 빛이 떠올랐다. 그는 결심한듯 책상우에서 서류가방을 들더니 그것을 열었다. 림송은 얼핏 봉인한 커다란 회색봉투와 함께 그옆에 놓여있는 작은 푸른빛봉투를 알아보았다.
《이 봉투속에는 내가 극동사령부 지투에 전할 문건의 사본이 들어있네. 난 이 정보가 사무엘의 기업체들의 움직임에 신축성있는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하네.》 하고 스테쎌은 엄숙한 어조로 나직이 속삭였다. 《여기에는 8군정보부에서 보내는 새 부대창설을 위한 통신 및 보급창 계획안이 들어있네. 이 말을 자네에게 하는것만으로도 난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네. 보게! 이 정보가 사무엘씨에게 흥미를 줄는지 검토해주게.》
스테쎌의 말은 상품의 값을 가늠해달라는 부탁으로 들렸다. 림송은 그가 내미는 푸른 봉투를 주저없이 한옆으로 밀어놓았다.
《자넨 나를 함께 교수대로 끌고갈 작정인가?》
《진정한 친구라면 난 자네 손이 떨리지 않으리라고 믿네!》
스테쎌은 림송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이 순간 림송의 심정은 복잡하였다.
그는 지금 자기앞에 고심하여 찾던 귀중한 정보가, 얼마전 련락장교단장에게 전했던 그 정보가 놓여있음을 명백히 알았다. 그는 스테쎌의 눈앞에서 그것을 볼 권리가 없음을 깨달았다.
정작 레이몬드를 내세워 이 작전을 준비해왔지만 마지막순간엔 주저되는것이였다.
림송은 천천히 머리를 들어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9시 12분이였다. 레이몬드와 약속한 시간까지는 아직 2분이 남아있었다.
2분! 이 짧은 순간이 모든것을 결정할것이다.

만약 2분동안 림송이 어물거린다면 스테쎌이 결심을 바꿀수도 있고 또 의혹을 품을수도 있었다. 로련한 정탐가인 스테쎌이고보면 림송의 사소한 행동,미세한 얼굴표정에서도 류다른 기미를 눈치챌것이다.

림송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물고뿌에 물을 붓다가 스테쎌을 돌아보며 미소했다.

《보게,소좌. 련락장교의 처지란 말이 아닐세. 고뿌에 바퀴가 빠졌구만.》

《림송,난 시간이 없네. 빨리 결심하게.》

스테쎌은 절망에 빠진 시선으로 그를 애처롭게 올려다보았다.

림송은 두덜거리며 고뿌를 들고 창문가로 다가갔다. 그는 얼핏 손목시계를 보았다. 5초전 14분이였다. 레이몬드와 약속한 시간이였다.

림송은 창문을 열고 고뿌의 물을 밖에 홱 쏟아버렸다.

한순간 림송은 8군사령부 건물 맞은켠 국제전신국청사 3층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레이몬드는 약속한 신호를 보았을것이였다.

림송은 천천히 자기자리로 돌아왔다.

(이제는 시간이 모든것을 결정할것이다！ 만약 레이몬드가 서두르지 않는다면 만사는 틀어진다. 1분을 더 넘기지 말아야 한다！ 시간아,단 몇초라도 멈춰서렴.)

《스테쎌,자네도 이젠 결혼하게. 그러면 군법에 대한 공포도 생길거야！》

《흥！ 만약…》

이때 하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스테쎌부관님,급한 전화입니다.》

스테쎌은 흠칫 놀라더니 책상우에 놓은 문건을 바라보았다. 그는 한순간 주저하다가 급히 옆방으로 나갔다. 련락병이 뒤따라 나가며 문을 닫았다.

림송은 한손에 장갑을 끼고 문건봉투를 집어들었다.… 심장의 박동인가？ 아니면 손목시계의 초침소린가？ 림송은 그 큰소리를 분명 들었다.…

2분후 스테쎌이 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띠우고 방에 들어섰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종이에 무엇인가를 쓰고있는 림송을 흘깃 바라보았다.
《림송, 자네 정말 나를 쓴외보듯할 작정인가?…》
림송은 자리에서 일어나 랭정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소개신을 썼네. 모든건 자네 결심대로 하게. 난 자네를 더 만류하지는 않겠네.》
림송의 말에 스테쎌은 얼굴근육이 다소 풀려버렸다.
《그럼 이 정보자료는?》
림송은 미소를 지었다.
《이보라구, 하버드대학 정치학교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출세하려면 남의 일에 삐치지 말고 필요없는걸 알려 하지 말라고 했네. 나에겐 저 문건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처럼 보이네.》
《흠, 자네도 군복을 입더니 비겁쟁이가 됐구만. 좋네. 더는 자네에게 괴로움을 주지 않겠네.》
소개신을 받은 스테쎌이 만족한 기분으로 방을 나서려 할 때 림송은 지나가는 말로 물었다.
《전화는 왜 왔댔나?》
《레이몬드씨는 신용이 있는 사나이야. 자기의 명의로 해당한 금액을 도꾜은행에서 찾으라고 하더군.》
《그래?…》
림송은 친절하게 스테쎌과 악수를 나누었다.
얼굴에 주근깨가 있는 애젊은 하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섰다. 두사람의 눈길이 얼핏 마주쳤다. 하사는 인차 눈길을 내리깔았다.
《대위님,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차대우에 놓게.》
련락병은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림송에게로 돌아섰다.
《한시간후에 시볼트수석고문의 방에 가시랍니다.》
《알겠소, 수고했소.》
림송은 시계를 들여다본후 다시 책상우의 문건철에 머리를 숙였다.
림송은 어제 평양방송의 에쓰디전문으로 부산의 위암동아지트에서 련락원을 만날데 대한 지시를 받았던것이다.
접선날자는 수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저녁 9시였다.
림송은 소형사진기에서 현미필림을 꺼내 군복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조국이 준 임무의 첫걸음은 밟은셈이다. 어려운 과업은 앞에 있다. 나는 현재 무엇을 알고있는가? 적들이 특수전략부대를 조직하려 한다는것, 문건에서 보다싶이 그 산파역은 라이리 에니스준장이라는것, 보급창신청규모로 보아 두개 련대 무력이며 성격은 초보적으로 항공륙전특공대라는것. 나는 무엇을 모르고있는가? 첫째 부대이름, 둘째 부대의 편제, 구성, 셋째 부대가 설립될 위치, 넷째 부대의 임무. 그렇다. 이 모든 미지수를 풀려면 조국이 준 임무대로 어떻게 하나 이 전략정보부대의 한성원으로 뚫고들어가야 한다. …)

브라운 겐지로소좌는 륙군정보국에서 이틀을 보내고 늦은 저녁에야 대구에 도착하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자기의 형식상 상관인 에니스준장을 찾아 저택으로 떠났다.
과장이 된후 겐지로는 울며 겨자먹기로 에니스준장에게 방첩과 사업을 보고하게 된것이다. 물론 겐지로의 보고는 늘 2중적인 성격을 띠고있었다.
필요한것, 불필요한것, 유리한것, 불리한것… 그 시금석은 겐지로 자신이였다.
에니스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다.
날씨는 몹시 흐려져있었다.
강철빛하늘은 컴컴하게 어두워지고 음산한 대구시내에는 안개가 자욱히 끼여 앞을 분간할수 없었다.
찌프린 하늘처럼 지금 겐지로의 마음도 잔뜩 흐려있었다.
얼마전에 그는 림송의 정체를 알아보려고 북조선에 침투되여있는 륙군정보국의 한개 망에 지투첩자와 련락원을 들여보냈다.
장도영의 방첩선과 8군정보부 2과의 밀로를 통해 침투한 련락원은 즉시에 체포되여버리고 첩자만 겨우 돌아왔다. 결론은 명백하였다. 망은 북조선반탐기관의 수중에 들어가버렸던것이다. 원래 겐지로는 캐논방첩기관으로 넘어오면서 지난 년대에 도꾜경시청의 가와베대좌가 가지고있던 망을 넘겨받았었다. 물론 캐논기관은 일본인들의 정보망을 거의 믿지 않았다. 또 그들은 최근 자기 기관이 방첩일면에만 치중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그러나 겐지로의 립장은 달랐다. 그는 철저한 방첩은 군사정보와

이어져있다고 믿고있었다. 이것은 상해외국인조계지에서 정보사업을 할 때부터 그가 지켜온 신조였다. 그런데 이번에 림송의 일로 자기망을 움직여보려던 그의 계획은 애초에 실패하고말았던것이다. 겨우 망책만 보존한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하여 《국군》 방첩대에서까지 인기를 잃었고 도꾜의 씨아이씨본부의 신랄한 조소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은밀한, 자기의 예감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볼수 있었다.

그것은 평양측 해당 기관의 태도였다. 그들은 련락원이 림송에 대한 자료때문에 침투된것임을 알것이였다. 만약 림송에 대하여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련락원의 처리는 달라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망책은 기본인원을 상실했지만 활동능력은 살아있다고 지급무전을 쳐왔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겐지로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리유는 여기에 있었다.

림송의 신원확인을 위해 겐지로는 그간 대구와 도꾜사이를 비밀리에 오가며 많은 땀을 흘렸으나 얻어들인것은 방첩책임자의 호된 추궁과 정보부로부터의 감봉과 견책이였다. 의외에도 형식상 정보부 부부장인 에니스는 겐지로가 받은 불명예스러운 처분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며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다만 어제 지투본부에 지급전보로 8군사령부의 관계자들에 대한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데 대한 간단한 지시를 주었을뿐이였다.

겐지로는 며칠동안 방첩대의 습기찬 지하실에 앉아 소잃고 외양간고치기로 유관측에 책임협의를 전가시키는 장황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한후 울적한 마음으로 돌아섰던것이다.

만평도 넘는 넓은 수림속의 둔덕에 자리잡고있는 에니스저택은 한낮에도 자동차경적이 들리지 않는 한적한곳이였다.

저택의 둘레에는 중세기 사무라이들의 성새를 련상시키는 돌담이 성벽처럼 쌓여있고 큰 대문이 있었다. 겐지로가 비밀리에 신원조사를 하여 끌어들인 지방주민 두세대가 대문근처에 자리잡고서 이 건물을 관리하고있었다.

겐지로가 두터운 차광막을 통해 해빛이 겨우 스며드는 응접실에 들어서자 실내복을 입은 에니스는 커다란 거울을 들여다보며 워드까를 마시고있었다.

《그래 레이몬드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봤소?》 하고 에니스는 상체가 버그러진 허우대가 큰 몸에 견장이 없는 군복을 대강 걸치며 입을 열었다.

정보사업에서 8군정보부장이나 극동군관리들을 동급으로 간주하고있는 에니스는 준장의 견장이 달린 군복을 입는 일이 드물었다. 8군사령관 역시 그가 주요작전회의에 그런 모양으로 참가해도 탓하는 일이 없었다. 항간에 떠도는 말에는 사령관의 처까지도 미중앙정보국의 손에 장악된 정보원이라는것이였다.

겐지로는 에니스의 물음에 더 흥심이 깨져 원탁우에 놓여있는 려송연곽을 끌어당기며 마뜩지 않게 대답했다.

《아니 나야 국군방첩대에 갔다오지 않습니까?》

에니스는 코웃음을 치며 미간을 찌프렸다.

《당신은 정보계에서 10년가까이 일해오는데 아직 손발이 맞지 않누만. 그 사건은 이젠 그만 덮어버리우. 난 도대체 일본첩보기관이 만들어놓았다는 정보망을 믿지 않아. 그리구 현단계에서 우리 사업의 중점은 군사정보와 방첩이야.》 하고 에니스는 사납게 눈을 번뜩이며 술잔을 끌어당겼다. 《어제 도꾜에서 통보가 왔는데 〈수성〉이라는 대호를 가진 붉은정탐망이 대구에 기여들었다는것이 확증되였소. 그러니 우리가 전번에 들어낸 이 도시의 붉은 아지트 사건과 일치하지 않는가. 그들의 무전문에서는 자주 〈수성〉이라는 이름이 올랐댔으니까. 〈수성〉은 분명 8군사령부를 노리고 기여들었을게고 조선반도에서 포성이 그들의 승리로 멎을 날이 바야흐로 가까와진 조건에서 우리의 가장 위험한 적수는 바로 이 망이거든. 우선 대구에, 특히 8군사령부에 새로 나타난자들을 주시해야 하오!》

《당신도… 림송대위를 의심하는겁니까?》

겐지로는 에니스를 유심히 올려다보며 불쑥 물었다. 그 물음에 에니스는 눈길을 피하며 워드까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림송?…》 하고 준장은 애매한투로 반문하더니 홱 돌아서서 천천히 방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한참만에 그는 자리에 주춤 멈춰서서 눈을 찌프리고 겐지로를 건너다보며 입을 열었다.

《의심?… 림송대위에 대해서 의심할 근거라고는 하나도 없소. 오히려 그에 대한 나의 지나친 관심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를 더 믿

게 하고있지. 그의 개인생활의 어느 구석에서도 아직 이상한 냄새가 풍기지 않아. 그에게서는 지금 서양향수냄새밖에 날게 없어.… 그를 제3국의 우익정탐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르겠지만 붉은정탐으로 볼수는 없을것 같소. 성실한 미국공민이고 워싱톤에 의해 선발된 시민들만이 받을수 있는 최신교육을 받은 사나이가 아닌가. 그리고 그의 후견인은 루즈벨트대통령까지도 존경하던 사람이요. 나는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의 충실한 벗이 될수 있는 약점을 나에게서 발견하고있소. 겐지로소좌, 지금 난 나의 이 믿음이 의심스러운거요.》

《만약》 하고 겐지로는 에니스를 눈여겨보며 말했다. 《그를 붉은정탐으로 가정한대도 일개 련락장교가 뭐 그리 위험한 적수로는 될수 없지요.》

겐지로의 중떠보는듯한 말에 에니스는 또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게 바로 당신들, 반탐장교들의 형안에서의 약점이요. 당신은 람자이소조를 수사하는데 한몫 했다는데 그래 리하르트 조르게가 일본 군부나 정계의 각료자리에라도 있었는가? 현대고급정탐들은 극비자료가 든 금고를 털거나 혀를 잡는 총격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는걸 알아야 해. 그들은 머리로 일하고있소. 추리와 사색 그리고 정보원천에로의 부단한 직무변동, 출세를 노리고있지. 가령 우리주위에 붉은정탐이 나타났다면 그의 생활과 행동은 가장 평범할거요. 한마디로 당신은 그에게서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도 찾을수 없을거요. 그는 가장 성실한 장교일테니까. 정탐이란 하나의 예술과 같은거요. 가령 림송이 붉은정탐이라면 고급인테리련락장교의 눈에 비낀것은 8군사령부 장교식당 치즈 한쪼각의 색갈까지도 스칠수 없는 정보대상으로 되거든. 두뇌가 비상한 정탐가 한명이 때로는 몇개 사단도 장기쪽처럼 움직일수 있다는걸 알아야 하오.

소좌, 당신은 노르망디상륙작전이 신문에서 떠든대로 련합군의 얼빠진 장령들의 작전대우에서 성공한줄 아오? 월계관은 그들이 썼지만 그 영예를 가져온 흑막속의 인물은 숨은 정탐가였소. 미전략사무국 정보부대 특수첩보반장이였던 내 친구 스티보 마아티네지는 도노만장군의 비준을 받아가지고 〈스탬피드작전〉이라는 도이췰란드녀첩역리용작전을 벌려 노르망디상륙작전의 승리를 가져왔던거요. 전쟁이란 정보대전이요! …》

《결국 준장님은 림송씨를 의심하는군요.》

겐지로는 에니스의 론조의 귀결을 가늠해보며 그의 사색의 비틀린 구석을 슬쩍 긁었다.

《아니, 너무 조급하게 속단하지는 마오. 소좌, 무전문사건의 련속과 붉은정탐망의 색출 그리고 〈수성〉의 출현… 여기에 림송이라는 사나이가 아무런 련관이 없을수도 있소. 많은 혐의대상중의 한 인물일수는 있지.》

《그러나 백가지 혐의도 하나의 증거보다는 못하지요.》 하고 겐지로는 담배를 피워물며 또 딴전을 부렸다.

겐지로는 겉으로는 에니스의 론리를 부정하면서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있었지만 첫 인상부터 림송대위에 대한 그 어떤 숙명적인 적의와 강한 의혹을 가지게 되는것이였다.

그것은 하나의 예감, 륙감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는 림송의 개인문건과 관계자들의 보증서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바늘 들어갈 틈도 찾지 못하였다.

했으나 대구의 동촌비행장에서 림송을 본 첫 순간 그의 가슴속에는 이상야릇한 불안감과 일종의 미묘한 적의가 걷잡을새없이 싹트는것이였으며 그것은 에니스까지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자 점점 더 색조가 진해졌다.

한편 겐지로는 대구와 부산으로부터 림송이라는 인간의 존재가 자기 생활속으로 너무도 큰 인상과 충격과 심상치 않은것들을 가지고 나타나는바람에 다소 불안해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였다.…

지금 겐지로는 이런 사고의 연장으로 에니스의 반신반의를 더 날카롭게 받아들이게 되는것이였으며 어떻게 하나 림송이라는 인간의 진면모를 자기앞에 낱낱이 드러내려는 야심으로 불탔다. 그는 이미 방첩과의 토의도 없이 자기의 비밀정보원들로 림송의 하루생활에 순간의 틈도 없이 미행을 붙였고 장교숙소와 레이몬드사무소도 보이지 않는 그물로 봉쇄하였다.

《어쨌든》 하고 에니스가 우울한 얼굴로 상념에 잠겨있는 겐지로를 내려다보며 달갑지 않은 어조로 말했다. 《련락선을 잃은 〈수성〉은 곧 자기의 존재를 나타낼거요. 당신은 앞으로 이 〈수성〉 공작조를 전적으로 맡아야 하겠소. 도꾜본부에서는 전시상태인만큼 이 공작조를 찾아낼데 대한 불같은 독촉이요. 아직은 8군련락장교단이 모르게 해야겠소.… 한마디 진심으로 부언할건 난 당신들의

방첩선이 움직이는 선상에 림송대위가 놓여있지 않기를 바라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겐지로는 의아한듯이 에니스의 랭담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난 그가 내 방조자가 되기를 바라니까.》
《준장님도 결국 그의…》
《그만하오. 난 이미 당신의 속심을 다 알고있소, 소좌!》
에니스는 겐지로의 말을 막더니 홱 돌아섰다.
《그리고 소좌, 당신은 오늘저녁 부산으로 떠나시오.》
《준장님,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난 어제저녁에 도착해서 아직 목욕도 못했는걸요.》
《겐지로, 자네 몸은 태평양물을 다 끓여 씻어도 때가 지워지지 않아. 그건 때가 아니라 피와 죄악이거든!》
에니스는 비양조로 내밷으며 겐지로를 흘끔 돌아보았다.
《절 놀리는겁니까?》
겐지로는 부아가 치밀어 눈을 부릅떴다.
《됐소. 소펜하우엔이 말하다싶이 일어서면서 성을 낸자는 앉으면서 손해를 보는 법이요. 명령을 집행하시오. 이건 도꾜의 방첩기관의 지시요. 가서 국군방첩과장을 만나시오.》
《알겠습니다.》
《위암동붉은아지트를 국군방첩대손에서 빼앗아야 하오!》 하고 에니스는 손가락관절을 꺾더니 방심에 잠겨 계속 중얼거렸다.
《나의 첩자들은 륙군정보국 고문격인 문용채에게서 필요한 자료를 얻을수 있다고 통보했소. 필요하다면 그자를 협박해도 좋아. 이미 그자의 목줄은 내가 쥐고있으니까. 문제는 그 위암동아지트에서 타전한 무전문에 〈수성〉이라는 대호가 섞여있었다는거요! 이건 나의 사업에 큰 그늘을 던지고있거든!》
겐지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수성〉이요?》
《잘하면 붉은정탐들을 잡아낼수 있소. 접선시간을 알아내야 하오.》
《알겠습니다.》
겐지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벽에 걸어놓은 군모를 벗기려하자 에니스가 곁으로 다가왔다.
《참 잊을번했구만. 오늘저녁 림송대위가 련락임무차로 부산에

가오.》

《림송대위가요?》

《난 물론 련락장교의 정상적인 움직임에 큰 의의를 부여하진 않소. 그러나 련락장교단장의 부관은 이번 임무를 림송에게 주는것이 나의 암시때문이라고 했소. 이 사실에 대한 분석은 소좌가 자체로 해도 좋소.》

《?…》

겐지로는 에니스를 올려다보았다.

에니스는 눈을 쪼프리고 잠시 무슨 생각을 톺더니 나직이 중얼거렸다.

《소좌, 명심해 들으시오. 내가 당신에게 위암동아지트사건을 맡기는것은 결코 붉은정탐망때문만이 아니요. 우린 그뒤에 숨어있는것을 알아야 하오!》

《무슨 말씀인지?》

겐지로는 의아한 시선을 들었다.

《당신은 지금 내가, 아니 미중앙정보국이 전선사태를 돌변시킬 주요한 사업을 계획한다는것을 알고있소?》

《저야 륜곽적으로…》

《더 몰라도 좋소. 문제는 중앙정보국의 구상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못하면 당신들, 방첩기관이 한갖 경찰의 처지에 굴러떨어질수 있다는거요. 내 말을 알겠소?》

《그렇다면 우린 사업을…》

《문제는 〈수성〉을 들추어야 해. 누가 전략정보부대창설에 관심을 가지는가? 그 통로는? 만약 정보가 쥐여진다면 어떻게, 어느 급에 전달되는가? 평양측이 그 가상적인 첩자를 얼마나 믿는가? 내 말뜻을 알겠소? 난 당신을 믿소!》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겐지로는 비로소 에니스의 속내가 리해되는듯하여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론 그는 에니스가 자기를 전혀 믿지 않으며 지금은 다만 림송과 문용채 일로 해서 자기를 리용하려 한다는것만 믿고있었다.

《〈수성〉 암.

8군사령부 라이리 에니스준장은 미중앙정보국 제2부에서 파견된

특수정보전문가임. 전번 미국회에 제출한 전략정보부대안은 알렌 덜레스의 요청으로 에니스준장이 작성하였다는것이 확인됨. 에니스가 임무수행에 착수했는지 시급히 알아낼것. 토요일 저녁 9시 위암동 아지트에 련락원이 도착함. 련락원이 최고사령부의 정찰방침과 전략정보부대에 침투할 구체적방안을 가져가는만큼 접선안전에 특별히 주의할것. 련락원이 로출되면 전반적인 사업에 영향이 있음. 구체적인 지시는 상면시 받을것. 모란봉.》

그날저녁 대구의 동촌비행장에는 늦여름 저녁의 짙은 황혼이 깃들어있었다.

련락장교단장은 군용비행기가 발동을 걸기 시작하자 림송에게 문건을 넘겨주었다.

《대사관보도처의 협조를 받게. 림송대위, 난 이게 자네가 나의 명령을 마지막으로 받게 되는것 같은 예감이 드네.》

대좌는 허구픈 미소를 지었다.

《전 대좌님의 말뜻을 전혀 리해 못했습니다.》

《됐네, 림송대위. 어서 오르게.》

단장은 애매하게 손을 휘젓더니 승용차로 가버렸다.

림송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행하게 되였다는 겐지로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이때 두대의 승용차가 활주로를 따라 달려왔다.

지투표식을 한 키큰 중위가 림송에게로 뚜벅뚜벅 걸어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대위님, 잠간 만날수 있겠습니까?》

《중위, 무슨 일이요? 리륙시간이 다 됐는데…》

《차안에서 어떤 분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중위는 목소리를 죽여 나직이 말했다.

림송은 얼굴을 돌려 헌병초소곁에 서있는 승용차를 바라보았다.

림송은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지는것을 느끼며 승용차쪽으로 걸어갔다.

의외에도 승용차 뒤좌석에는 에니스준장이 침착한 태도로 앉아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있었다.

《대위, 놀라지 말고 어서 들어와 앉소. 당신과 할 말이 있소.》

하고 에니스는 한손을 들어 자기의 옆자리를 가리켰다.
《리륙시간이 다 되였습니다, 준장님.》
《대위, 나의 승인이 없이는 군용기가 한메터도 움직이지 못할 거요.》
승용차안에는 에니스준장밖에 없었다. 그는 옆에 와앉는 림송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대위, 당신은 나와의 약속을 잊지 않았겠지?》
《언제나 기억하고있습니다, 준장님.》
《고맙소. 이미 난 본부에 자네에 대한 문건을 제출했네. 난 앞으로 림송대위가 나의 믿음직한 단톤이 되리라고 믿소.》
에니스는 의미심장한 눈초리로 다시 림송을 예리하게 뜯어보았다.
《준장님, 단톤은 쟈꼬벵파의 지도자를 배반했지만 저는 그 비극의 전철을 밟지 않을것입니다.》
《대위가 막시밀리앙 드 로베스삐에르를 옳게 리해하고있는것은 좋은 일이요. 난 아직 당신의 상관이 아니므로 친구로서 한가지 부탁하자고 하오. 이 자그마한 물건을 8군고급련락장교이며 국군륙군방첩본부의 8군대표인 문용채에게 전하시오. … 장도영이나 캐논기관이 알아서는 안되오.》
에니스는 품속에서 편지봉투만한 문건을 꺼내서 내밀었다.
《알았습니다.》
《자, 그럼 건투를!》
림송이 차에서 내리자 승용차는 되돌아서서 시내중심부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가버렸다.
림송이 군용기에로 다가갈 때까지도 브라운 겐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림송은 의혹을 풀지 못한채 군용기안으로 들어섰다.
좌석들에는 미군장교 세명과 철늦은 검은 원피스를 입은 나이를 대중할수 없는 살색이 다소 가무스레한 녀성과 몇명의 펜구락부 기자들이 앉아있을뿐이였다.
《대위님, 실례하겠어요.》
군용비행기가 폭격에 파헤쳐진 활주로를 날아오르자 누군가 림송의 팔굽을 건드리는바람에 그는 얼굴을 돌렸다.
맞은켠에 앉아있던 녀성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 녀자의 뒤

로 두명의 외국기자가 따라섰다.

《아가씨, 무슨 일인가요?》

《림송대위시죠?》

《예.》

《전 아이엔에쓰기자 박사라예요. 저의 이름을 들은적이 있어요?》

녀기자는 애교있는 표정으로 림송과 주변기자들을 둘러보았다.

《난 뉴욕타임스지 구독잔데요.》

《유감이군요. 그럼 동료들을 소개하죠.》 하고 박사라는 마흔쯤 되여보이는 지성적인 이마를 가진 사나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뉴욕타임스 특파원 리챠드 죤스톤씨예요. 그리고 이분은 유피통신사 재크 제임스씨, 이쪽은 에이피통신사 윌리암 무어씨구요.》

림송은 그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대위, 한가지 질문에 대답해주겠습니까?》 하고 죤스톤이 박사라를 밀어제끼였다. 《정치적으로 볼 때 당신은 워커중장이 강문봉작전국장에게 한 일본철수발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린 8군 공보처와 당신이…》

림송이 도중에서 말을 끊어버렸다.

《기자선생, 난 군인이다보니 정치에는 무관심하답니다.》

《대위, 딴전을 부리지 마시오. 당신이 대사관보도처에 간다는것과 방금 에니스준장을 만난 일을 모르는줄 아오?》

《혹시 당신은 봉급을 신문사가 아니라 지투에서 타고있는게 아닙니까?》

《림송씨, 기자는 정보일군보다 때로는 더 눈과 귀가 밝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죤스톤은 흥심이 깨진듯, 그러나 크게 모욕감을 느끼지 않으며 자기자리로 물러갔다.

그러나 림송은 박사라에게 붙들려 얼마간 땀을 빼야 했다.

비행기가 얼마쯤 날았을 때 불쑥 승무원실이 열리며 캬키색 군복을 입은 중키의 암팡진 사나이가 나타나 승객실을 둘러보았다.

떠들던 기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림송은 그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 순간 그는 브라운 겐지로소좌와 눈길이 마주쳤다.

겐지로는 림송과 얼굴을 맞대자 눈에 친절한 웃음을 담고 서슴없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림송대위, 함께 동행하게 된 처지에서 인사가 늦었소.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당신은 승무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졌는가요?》
림송의 조소어린 물음에 겐지로는 금이를 드러내보이며 너그럽게 웃더니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허허, 대위, 난 당신의 말에 그렇게 가시가 돋힐줄 알았소. 미안하오. 대구에 나타난 한 색다른 장교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감시임무를 맡았을거요. 우리 씨아이씨사람들은 언제나 벗을 검토를 통해 얻는 법이요.》
《그러니 이제부터 소좌는 나의 벗이 되겠군요?》
림송은 랭소를 지으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물론.》 겐지로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군복앞섶에서 얇은 위스키병을 꺼냈다. 그는 술잔에 위스키를 붓더니 림송에게 내밀었다.
《자, 림송대위, 우정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잔을 놓자 겐지로는 림송에게로 바투 다가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라이리 에니스준장과 원래부터 아는 사이요?》
림송은 그 물음에 예리한 눈길로 그를 마주보았다.
《소좌, 당신은 원래부터 그렇게 호기심이 많소?》
겐지로의 얼굴에는 갑자기 검붉은 빛이 나타났다.
《림송,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시오. 에니스준장은 형식상 나의 상관이란말이요! 상관의 친구들을 알아두는건 현명한 부하들이 늘 지켜야 할바거든.》
림송은 일보 양보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좌, 그는 나의 후견인이였던 림메르트의 친구요.》
《그렇소?》
겐지로의 얼굴에 약간 당황해하는 표정이 얼핏 떠올랐다.
림송은 얼굴을 돌리고 상념에 잠겼다.
(…조국에서는 련락원을 보낸다고 했지. 이젠 첫 정보를 보낼수 있게 되였다. … 련락원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정찰방침을 가지고온다고 했지! 얼마나 고대하던 일인가? 이젠 나의 임무수행의 앞길이 환히 열릴것이다!
련락선은 안전할것인가? 부산의 위암동아지트… 접선암호… 토

요일 저녁 9시… 시간아, 빨리 가렴 ! …)

림송은 어쩐지 이 순간 가슴속에 막연한 불안감이 깃드는것을 느꼈다.

제 5 장

그것은 이미 우리의 생활을 거쳐 지나가버린 전쟁시기의 례사로운 하루였다. 인민군련합부대들은 보병과 포병의 협동작전을 강화하고 강하천과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을 리용하여 적을 우회포위하며 신속히 남으로 진격하여 락동강방어선을 돌파하고 미제침략군을 조선동남단의 좁은 지역에 몰아넣었다.

김천방향에서 행동하는 아군련합부대들은 김천—대구사이 도로를 따라 계속 공격하였고 일부 련합부대들은 타격방향을 바꾸어 마산과 포항 방향에 타격력을 증대하였다.

례천을 해방한 인민군련합부대는 1950년 8월 3일 밤에 선견대를 도하시켜 교두보를 형성한 다음 주력은 강행도하하여 의성방향으로 성과를 확대하였다. 함창을 해방한 인민군련합부대는 4일저녁 강력한 포병준비사격의 지원밑에 군위방향으로 진출하였으며 상주를 해방한 다른 부대는 동북쪽 괴뢰군 1보병사단관하부대들을 소멸하면서 다부동방면으로 진격하였다.

8월 11일 대구—합천계선에서 여울도하에 성공한 아군련합부대는 현풍을 해방하였고 진주방향에서 행동한 인민군련합부대는 부산방향으로 성과를 확대하기 위하여 진주—진동리(창원군)—마산, 진주—중암리 방향으로 공격을 확대하면서 미제침략군 25보병사단과 29독립련대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진동리의 적을 량익측으로부터 타격하였다.

격전의 나날들이 흐르고있었다.

오늘 부산시 서구에 자리잡고있는 장교구락부 나이트클럽은 여느때없이 흥성거리고있었다.

전선이 불타는 락동강 교두보를 사이에 두고 어느 정도 고착되여 쌍방간의 공방전으로 위기가 수습되자 륙군본부와 정계, 산업계

인사들과 사령부급 장교들이 밤이면 많지 않은 유흥지구를 찾기 시작했다.

레이몬드 아담스는 《해군부인회》회장과 함께 어두운 홀 구석에 앉아 젊은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듣고있었다. 그는 어제 림송을 뒤따라 문용채 부친의 회사일로 부산에 도착했었다.

펜구락부 기자들속에서 장발을 드리운 녀성이 교태를 부리며 레이몬드 아담스에게로 다가왔다.

《아담스선생, 어때요? 곡이 마음에 드세요? 난 부산에 와서 이런 서정적인 음악회에 참가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아담스는 녀기자를 올려다보았다.

《글쎄요. 사라양, 난 음악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만 그 힘에 대해서만은 존경하고있지요. …》 그는 자기 생각에 몰두하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난 나의 일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피아노연주도 오늘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기억하고있지요. … 병사들은 깨여진 집 벽체에 의지하여 시가전을 벌리고있었지요. 그 집에는 낡은 피아노 한대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속에는 모스크바음악대학을 다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다리를 부상당한 그 젊은이가 타는 피아노소리를 들으며 죽음터로 웃으며 달려나가더군요. 난 이때 처음으로 예술이 인간에게 주는 힘에 대하여 리해했습니다. 말하자면 음악이 때로는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지만 어떤 때는 힘으로 된다는걸 알게 된 셈이지요.》

아담스는 박사라의 얼굴을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며 나직이, 회심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박사라는 사뭇 존경어린 시선으로 아담스의 얼굴을 훔쳐보더니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선생님은 정말 류다른분이세요. 인생을 깊이 체험한 고행자의 얼굴이예요. 음악에 대해서도 우리와 전혀 리해가 다르군요. 어제저녁 이 나이트클럽에서 림송씨를 만났는데 그도 그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난 선생이나 림송씨나 다 음악을 모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술에 대한 확고한 견해들을 가지고있다고 인정해요.》

레이몬드는 박사라의 말을 들으며 시무룩이 웃었다.

그는 포성과 음악에 대한 사색에 얼핏 잠겼다. 문득 이태전에 갔던 마닐라만의 저녁노을이 눈에 생생히 떠올랐다.

그때 마닐라만의 불타는 락조를 바라보며 그는 상념에 잠겨 오래도록 성벽의 거리를 떠나지 못했었다.

전쟁이 지나가고 평화가 깃든 땅이였으나 맥아더의 포성은 그 땅에 풀 한포기 제대로 돋게 하지 못했다. 필리핀인민들이 흘린 피를 추모하듯 이 나라 국화인 쟈스민만이 언덕마다 만발하여 력사의 증견자로 설레이고있었다.

자기를 전쟁의 참가자가 아니라 굳이 관조자로 인정하여온 아담스였으나 이 순간 웬일인지 종잡을수 없는 죄의식이 가슴속에 침습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렇다. 필리핀인민들이 겪은 불행이 또다시 조선반도에서 되풀이되고있다. 미군땅크가 지나간곳에는 또다시 저 쟈스민꽃과 같이 불행의 추모화들이 피여날것이다. 과연 이 엄혹한 현실을 목격하고 분석하는 나라는 인간은 인류앞에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가? 나의 인생이 지향한 진정한 목적은 무엇일가? 기록인가? 교훈인가? 경종인가?

아담스는 파식강의 북쪽기슭으로 뻗은 어스콜라번화가를 지나 한때 맥아더가 들어앉아있던 말라카낭궁전앞에 멈춰섰다. 그 궁전은 이 땅 인민들이 겪은 불행과 고통의 기념탑과도 같았다. 에스빠냐 태수도, 일본군사령관도, 미국의 총독도 이 궁전을 사용했었다. 맥아더도 이곳으로 옮겨와 절대군주의 행세를 하였던것이다. 이 궁전에서 바탕가스해수욕장과 타가이타이피서지로 지니와 동부인하고 유람을 떠났으며 격전지인 콜레히돌을 돌아보며 자기의 전승을 회고했었다.

아담스는 도꾜를 떠날 때 불안한 기분이 자기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이 옛 전장에서 말끔히 가셔지고 전쟁과 평화의 피안에 서있는 고결한 증견자로서의 랭철한 론리와 신념을 되찾을것이라고 타산했던 그 희망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것이였는가를 뼈저리게 깨달았던것이다.

조선에서 포성은 무엇때문에 울리며 그것은 누가 울리는가?

공정한 력사의 붓은 이 전쟁이라는 사변들을 후날 어떻게 그릴것인가?…

문득 《해군부인회》 회장 홍은혜가 레이몬드에게 커피잔을 권하는 바람에 그는 추억과 상념에서 깨여났다.

박사라는 흥심이 사라진듯 피아노쪽으로 가버렸다.

홍은혜가 아담스에게로 약간 머리를 기울이며 속삭였다.

《선생님, 난 같은 피아니스트로서 질투를 느껴야 할가봐요. 대구에 남아있는 수림이는 늘 저렇게 사람들을 매혹시켰어요.》

녀인에게서는 이상야릇한 향수내가 가볍게 풍겨왔다.

《부인은 이 고요하고 감상적인 음악소리가 총소리로 바뀔수 있다는것을 생각해보았습니까?》 하고 아담스가 아직도 자기 생각에서 완전히 깨여나지 못한채 조용히 물었다.

홍은혜는 중년녀인답지 않게 애교를 담아 웃었다.

《아이, 선생님. 전 반대로 군사에 대해선 깜깜이랍니다. 우리주인은 요즘 집에 얼굴도 내밀지 않는걸요. 극동해군사령부 장교들과 몇번 집에 와서 술을 마시고는 영… 그 장교들이란 전혀 교양이 없는분들이였어요. 담배만 피우고… 절더러 피아노연주를 부탁하길래 들어주었더니 글쎄 건반우에 담배재를 털며 듣지 않겠어요! 선생님도 담배는 즐겨하시지만…》

아담스는 녀인의 다사스러운 말에 허구픈 미소를 지었다.

《부인, 오늘에 사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담배는 정녕 정신적인 비타민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참 명석한 표현입니다.》 하고 뉴욕타임스지 기자 죤스톤이 검은넥타이를 맨 펜구락부 기자들과 함께 그들의 곁으로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아담스선생, 난 어제 생활정보잡지에서 사무의자에 앉아 긴 대통을 문 바다고래를 그린 펠레톤만화를 본 일이 있습니다. 혹시 담배는 아메리카 원정시 토인들에게서 가져온 콜롬브스의 과오가 아니라 고래들이 인간에게 선물한건 아닐가요?》

《죤스톤이요?… 그래 펜구락부가 요즘 조용하지 않겠구만.》

아담스는 두사람의 손을 잡았다.

《선생의 방조가 없이는 이제 대구시내에서 기자들이 꼼짝못하게 됐습니다. 전선에 대한 종군도 씨아이씨의 승인을 받으라는군요. 그래두 레이몬드선생은 우리 펜구락부에 이름을 걸고있는데 힘을 좀 써주시오. …》

이때 연청색양복을 입은 림송과 문용채가 나이트클럽안에 들어섰다.

문용채가 레이몬드 아담스쪽으로 다가왔다.

《아담스씨, 나의 부친은 당신에게 사의를 표해왔소.》

아담스는 그에게 자리를 권했다.
《모든 일이야 결과를 봐야지요.》
《그렇지만 난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부친의 자본을 도꾜나 뉴욕으로 끌어내준다면 당신을 구세주로 떠받들겠소.》
문용채는 잔을 들며 귀속말로 중얼거렸다.
《대령, 당신은 미국내에서도 전시경제가 기업인들의 올림픽대회와 비슷한줄 모르지 않겠지요?》
《그래서 당신에게 부탁하는거지요.》
문용채의 부관이 림송일행이 앉은 식탁으로 다가갔다.
문용채는 부관이 내미는 서류를 들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림송은 문용채의 낯빛이 대리석처럼 차거워지는것을 대뜸 눈치챘다.
어제밤 림송은 련락장교단의 임무를 마친후 에니스준장의 편지를 문용채에게 전하고 이 나이트클럽에서 장시간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었다.
《림송씨, 내 잠간 자리를 떠야겠소.》
《무슨 일이 생겼소? 대령!》
림송은 오늘 있게 될 련락원과의 상봉을 그려보며 무심한 눈길로 문용채를 올려다보았다.
《아니, 그저 좀…》
문용채는 회색빛 서류철을 움켜쥐더니 옆방으로 나가버렸다.
《대위님, 춤을 추지 않겠어요?》
문득 녀성의 맑은 목소리에 림송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박사라가 상냥한 눈매로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녀자의 앞가슴에서 한송이의 빨간 장미꽃이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문용채의 낯빛이 왜 달라졌는가?… 접선장소는 무사할것인가? 왜 이리 초조해질가?…)
녀기자는 연하게 화장을 한 발그레한 얼굴아래목으로 흘러내리는 부드러운 장발을 어깨로 추스르며 림송을 찬찬히 올려다보았다.
《림송씨,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그렇게 보이오?》
림송은 반문으로 대답하였다.

《당신의 눈이 말해주는군요.》
《…》
(너무 긴장해도, 방심해도 안된다. 침착하게… 인내성있게…)
《당신의 눈길이 지금 이 시각은 빛나지 않으니까요.》
림송은 빙그레 웃었다.
《아가씨는… 지금 행복합니까？》
한참만에 림송이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5시 55분이였다. 시간이… 가고있었다.
《네？ 아니요. 그러나 전 래일을 락관한답니다. 림송씨, 제가 당신의 생각을 맞혀볼가요？》 하고 박사라는 림송에게 몸을 가까이 가져가며 명랑하게 물었다.
《아가씨가 예언자라면 어디 한번！》
《호호, 예언자요？ 당신은 지금 그… 문대령의 서류에 대해 생각하죠？》
림송은 속으로 놀랐으나 그런 내색을 보이지 않고 웃어버렸다.
《왜 그렇게 생각했소？》
《무엇보다도 당신은 정보장교가 아니나요. 그리고 난 기자니까요.》 박사라는 애교를 부리며 웃었다. 《전 어쩐지 두려워요. 림송씨, 모든게 오래갈가요？… 우린 앞날을 생각하며 웃어야 하지 않을가요？…》
《아가씨.》 하고 림송이 그 녀자의 눈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내가 살고있는 오늘의 이 순간과 굳게 이어져있답니다！》
박사라는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어볼듯한 눈길로 다시한번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래, 난 문용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고있다. … 무엇인가를！…)
사교춤은 다시 률동적인 동작으로 넘어갔다. 이때 분을 하얗게 바른 접대원이 림송에게로 다가와 옆방에서 누가 찾는다고 알렸다.
림송은 아쉬워하는 녀기자와 헤여져 객실 다음방으로 건너갔다.
전화기앞에 앉아있던 문용채가 림송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림송은 어쩐지 그의 얼굴표정이 굳어져있는것을 발견하였다. 늘 사교적인 웃음이 떠돌던 눈가에는 그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일종의 긴장이 떠돌고있었고 약간 질린 입가에는 가는 경련이 일고

있었다.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대령!》 하고 림송은 무도장에서 억지로 끌려나온 사람의 아쉬움을 그대로 나타내며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림송씨, 난 에니스준장이 보내온 문건을 두고 당신의 조언을 받고싶소.》
《그건 련락장교인 나의 직무와 어울리지 않는 제의인데요?》
《대위, 딴전을 부리지 마오. 준장님은 나에게 당신과 협력할것을 권고했소.》
(에니스가 권고했다? 그렇다면 이건 일종의 검토가 아닌가?…)
《대령, 그렇더래도 래일 하는게 어떻소? 난 쉬고싶소.》
《림송씨, 방금 우리 국군방첩과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소.》
문용채는 망설이다가 내밸듯 말했다.
림송은 그의 입을 열게 하려면 자기가 더욱 무심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당신은 정말 검질긴 사내구만.》
문용채의 눈이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림송씨, 지금 내 군복안주머니에는 부산의 중심거리인 위암동에 있는 붉은정탐의 비밀아지트자료가 들어있소. 당신은 물론 에니스준장의 편지가 어떤 성격의것이였는지 리해했을거요. 난 대구의 8군지투에 우리의 성과를 이미 보고했었지.》 문용채는 눈을 쪼프리고 주위를 살폈다. 옆방에서는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림송은 한순간 심장이 멎는것 같았다. 그는 문용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우리는 에니스준장의 지시대로 위암동의 이 붉은정탐 아지트를 은폐하는데 성공했소. 아지트의 주인이였던 무선수는 체포당시 죽었소. 방첩대는 그 아지트를 역리용할 공작방안을 만들고 에니스준장의 지시대로 밀봉교육을 준 정보원을 무선수로 박아놓았지요. 무선기는 언제든지 순간에 동작할수 있게 되여있소. 접선자가 나타나 요구하게 되면 무선수는 평양이 아니라 방첩대로 무전을 날리게 되오.》
림송은 평범한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으나 심장은 그의 자제력의 기둥을 쾅쾅 두드리는것 같았다. 위암동련락소—그것은 림송의 비

밀련락선, 유일한 련락선이였다. 림송은 오늘저녁 그 련락소에서 조국의 련락원과 상봉하게 되여있었다.

그는 오늘 련락원에게 스테쎌에게서 입수한 정보를 넘겨주고 금후 공작방향을 받으려 했던것이다. 더우기 그는 오늘 최고사령부의 정찰방침을 받게 된것이였다!

위험은 눈앞에 있었다. 림송은 얼핏 방안의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6시 10분이였다. 이제 시간은 세시간가량 남아있었다. 준엄한 순간이 한초한초 그의 앞으로 육박해오고있었다.

(세시간! 본부의 련락원은 지금 어디선가 떠났을지도 모른다!)

《림송씨, 그런데 문제는 8군씨아이씨가 오늘래일중으로 접선자들이 이 아지트에 도착한다는것을 에쓰디라지오전문을 해독하는 과정에 알아냈다는 사실이요. 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신의 조언을 듣고싶소.》

림송은 금시 심장이 멎는것 같은 느낌이였다. 그는 애써 자제하며 창문턱에 팔을 짚었다.

《그걸 누가 통보해왔소?》

《브라운 겐지로소좌요!》

문용채는 약간 풀이 죽은 어조로 대답했다.

림송은 한순간 생각을 굴리다가 그를 마주보았다.

《겐지로소좌? 그가 어떻게 되여 당신들의 공작내용을 알고있소?》

이것은 에니스의 2중적인 겸토목적을 모르는 문용채에게 있어서 약한 고리였다. 문용채자신이 이 문제때문에 림송을 통하여 에니스앞에 자기를 설명하려 했을것이다.

《나 역시 그 문제는… 대구의 씨아이씨도 맹활약을 하니까요.》

문용채는 속이 켕겨 눈길을 돌리며 당황한듯 중얼거렸다.

《내 생각엔 대령의 일처리에 대해서 에니스준장이 좋아할것 같지 않구만. 요한복음에 두명의 지아비를 섬기는 녀인은 지옥에 간다고 했소.》

림송은 얼굴표정을 허물지 않으며 랭랭하게 말했다.

《어쨌든 겐지로씨는 에니스준장의 부하요. 8군씨아이씨는 준장밑에 형식상 있으니까. 림송씨, 그래서 난… 준장님의 련락장교격인 당신의 의견을 듣고싶었던거요. 당신에게 기대를… 걸어도

되겠소?》

두사람의 눈길이 한점에서 부딪쳤다.

림송은 나이트클럽에서 나오자 나무숲이 우거진 정원의 돌사자옆에 멈춰섰다. 그는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며 돌사자에 몸을 기댄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광막한 공간에서 푸른 별들이 빛나고있었다. 달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으나 눈부신 별빛으로 하여 주위는 훤했다. 그 장엄한 별무리가 그의 가슴속으로도 흘러들고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조국에서 그토록 관심을 가지는 문제가 아닌가? 임무수행의 승패여부와 문건 그리고 동지의 생명이 지금 나의 손에 달려있다.…) 림송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시간은 2시간가량 남아있을뿐이였다. 그는 사색을 이어갔다.

(만약 련락원이 씨아이씨에 체포된다면 그가 생명을 바친다 해도 귀중한 문건과 전략정보부대창설에 침투하려는 본부의 의도가 문건에 의해 드러날것이다. 결국 조국이 관심하는 우리의 임무수행에는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것이 아닌가! 만약 장교구락부곁에 있는 미국대사관의 무전실을 습격한다면?… 혹은 대사관앞에 있는 전신국을 리용한다면?…

마지막총탄 한알은 자신을 위해서 남겨둘수 있다.

그래, 이 길이다!… 이것이 나의 임무수행의 마지막길이고 다른 동지가 그것을 안전하게 대신할수 있는 길이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해지는 법이다. 림송은 비장한 결심을 각오하자 한결 마음이 진정되였다.

그러자 무서운 초조감이 심장을 조였다. 그는 다 타든 담배꽁초를 풀밭에 던지고 승용차앞으로 다가갔다.

림송은 승용차문을 열다가 별안간 온몸이 굳어졌다. 승용차뒤좌석에 웬 사나이가 앉아서 림송을 올려다보고있었다. 어둠속이였지만 림송은 별장의 창문에서 비쳐나오는 불빛에 그 사나이의 날카로운 얼굴모색을 똑똑히 가려볼수 있었다.

《음악회가 끝났습니까? 림송대위, 난 오래전부터 기다렸습니다.》하고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며 빙그레 웃었다.

《아니, 난 먼저 나왔소.》

《어서 차에 오르시죠. 방첩대본부에서 문용채대령과 겐지로소좌가 당신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소?》 하고 림송은 흔연한 낯빛으로 돌아가며 승용차운전석에 앉았다.

《대구에서 긴급련락이 왔습니다. 당신은 래일새벽 겐지로소좌와 함께 8군사령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령은 당신과 긴급히 토론할 문제가 있답니다.》

그는 픗낯이나 아는 문용채의 부관이였다. 승용차는 장교구락부 앞마당을 빠져나와 캄캄한 도로를 한참 달렸다.

《림송씨, 문용채대령의 부탁을 한가지 말해도 일없을가요?》

《말하오.》

림송은 돌아보지 않은채 수긍했다.

《대령님은 겐지로소좌앞에서 이 말을 꺼내는걸 달가와하지 않더군요. 그는 레이몬드씨와 부친의 회사일을 기본적으로 합의했답니다. 그 건의서를 사무엘회사에 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하고 소령은 군복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결국 날 대구와 도꾜를 련결하는 경제련락장교로 추천한셈이구만.》

《대위님, 지금 문용채대령은 겐지로씨와 함께 그 무슨 아지트사건을 놓고 토의하는것만큼 다시 회사일로 당신을 만날새가 없을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순간 섬광과도 같은 생각이 림송의 머리를 때렸다. 그 위암동아지트의 무전기를 리용하자는 생각이 불쑥 들었다. 물론 씨아이씨의 수중에 들어있는 아지트이므로 그것은 생명을 모험하는 길이 아닐수 없었다.

승용차가 방첩대본부앞에 멈춰서자 림송은 발동을 끄지 않은채 주머니에서 려송연곽을 꺼내들었다.

《소령, 피우오.》

《감사합니다.》

《문용채씨에게 전해주시오. 에니스준장에게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부산을 떠나기전에 현지를 확인해보아야겠다고말이요. 나의 이 의도를 문용채씨는 리해할거요. 그리고 대령에게 내가 부탁을 수락했다고 전하오.》

소령은 차에서 내리더니 차렷자세를 취했다.
《알겠습니다, 림송씨!》
《한시간후에는 본부에 도착한다고 알리시오.》
《알겠습니다.》
림송은 남대문로가 끝나고 충훈로가 시작되는 시청입구에서 다시 차를 멈추었다. 그는 중앙우편국에 들어가 대구의 레이몬드사무소에 지급전보를 날렸다. 그의 결심을 알리는 암호문은 하와이비상련락선을 통해 아담스도 모르게 동지들에게 전달될것이였다. 그는 우편국정문을 나서는 순간 급히 계단을 올라오는 한 젊은이와 마주쳤다. 색이 바랜 중고품군복을 입고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쓴 젊은이는 주춤거리더니 우편국안으로 들어가버렸다.
그 어떤 직업적인 예감이 림송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어딘지 모르게 걸음걸이며 몸매가 낯이 익었다.
(아담스사무소의… 《알파》가 아닌가?…)
림송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그냥 승용차로 돌아오고말았다.
승용차는 충훈로 4가, 5가를 지나 골목길로 꺾어들었다.
림송은 위암동에 들어서자 승용차를 세웠다. 이따금 위수사령부의 탐조등이 차안에 비쳐들었다. 그는 장갑을 끼고 바지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낸 다음 장탄하였다.
밖에 나오니 늦여름밤의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들추며 불어왔다. 그는 오래 된 벽돌집들이 들쑹날쑹하게 솟은 좁은 거리를 지나 《대한무역진흥회사》라고 쓴 건물앞에 멈춰섰다. 길건너편 가정법원창문에서 비쳐오는 불빛에 불꺼진 건물모습이 드러났다.
한때는 려관으로도 사용되였고 미제침략군 야전병원으로 리용된적도 있는 오래 된 집이였다.
림송은 현관으로 들어서서 철란간을 두른 계단으로 그냥 2층까지 올라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이슥해서 입귀에 까만 기미가 있는 해반주그레한 젊은 녀자가 속치마바람으로 빠금히 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녀자는 낯선 사나이를 보자 놀라서 도로 문을 닫으려 했다. 림송은 그녀인을 무작정 밀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림송이 아무말없이 응접실이라고 생각되는 방으로 들어서자 급히 옷을 주어입은 이마가 좁고 얼굴빛이 컴컴한 사나이가 험악한 눈

길로 옆방에서 나왔다.

《당신은 누구요? 밤중에 웬일이요?》

약간 공포에 질린 사나이의 더듬는 말소리와 함께 역한 술내가 풍겨왔다.

림송은 주머니에서 증명서를 꺼내보였다. 밀봉교육을 받은 《무선수》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떠올랐다. 속옷바람의 녀인은 그제야 얼굴이 홍당무가 되여 침실로 뛰여들어갔다.

《난 문용채대령의 부탁을 받은 8군사령부 특수련락장교요. 당신은 대령으로부터 밀봉교육을 받을 때 밤이면 술을 마시라는 지시를 받았소?》

《아니, 저… 사실은…》

사나이는 얼굴이 검붉어져가지고 몸둘바를 몰라했다.

《무전기상태를 검열하겠소. 제대로 동작하오?》

《물론입지요. 방금전에도 방첩대와 교신했는데요.》

《봅시다. 전원을 넣소. 우린 방금 접선자가 나타났다는 정보를 받았소.》

《알았습니다.》

《무선수》는 림송을 안방으로 안내하더니 약장을 통채로 열어제꼈다. 무전기는 약장뒤벽에 낸 구멍에 설치되여있었다.

림송은 직업적인 예감으로 속옷바람의 녀인을 경계하며 무전실 출입문에 그냥 꽂혀있는 열쇠를 돌린후 책상우에 던져버렸다. 이 사소한 움직임이 《무선수》의 얼굴에 의혹을 실어왔다.

림송은 담배를 붙여문후 그앞으로 걸어갔다. 사나이는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의 전원을 련결하였다. 림송은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다가 무전기에 허리를 굽힌 사나이의 정수리를 권총으로 타격했다.

밀봉교육을 받은 《무선수》는 신음소리도 못내고 그자리에 쓰러졌다.

림송은 침착한 태도로 숨을 거둔 《무선수》를 옆으로 밀어던지고 무전기앞에 앉았다. 그는 파장을 조절하고 무전기건반에 손을 가져갔다. 림송이 금방 호출신호를 하는 순간 등뒤에서 격침이 격발되는 소리가 났다.

《돌아서지 말아요! 목숨이 아깝거든 손을 드세요!》 하고 약간 갈린듯싶은 녀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림송은 그제야 자기가 실수한것을 깨달았다. 특수교육을 받은 녀인에게 예비열쇠가 있었던것이다. 림송은 시간을 얻기 위하여 천천히 일어나 약간 몸을 돌리려 했다.

《꼼짝말아! 쏘겠어요!》

녀인의 목소리에서는 공포와 함께 또한 잔인성이 느껴졌다.

《아가씨, 당신은 오해하고있소!》

《흥, 오해? 특수련락장교? 해명할게 있으면 기다려! 무전기에 전원을 넣었으니 방첩대에서 금방 이리로 떠났을거야!》

림송은 한순간 모든것이 불리해졌다는것을 깨달았다. 이미 출발한 방첩대장교들속에는 분명 겐지로가 끼우게 될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현장에서 체포된 지금 그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할수 없게 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었다. 죽음을 결심하고 나선 그였으나 그것으로써 임무수행을 대신할수 없는것이였다.

한초한초 숨가쁜 시간이 흘렀다. 등뒤에 가까이 다가온 녀인의 숨결이 그의 귀에까지 들려왔다.

림송이 드디여 최후수단을 결심하고 몸을 뒤로 날리려는 순간 출입문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녀자는 불안과 반가움에 젖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누구예요? 벌써 왔어요?…》

《벌써라니, 좀 늦었지!》

약간 명랑해보이는 목소리와 함께 문닫는 소리가 들렸다. 림송에게는 어쩐지 그 목소리가 귀에 익었다. 림송은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총소리가 났다. 림송은 흠칫 놀라며 뒤로 돌아섰다. 그의 앞에는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쓰러져있는 녀인의 모습이 안겨왔다. 녀인의 드러내놓은 앞가슴사이로 검붉은 선지피가 흘러나와 흰속치마를 물들이고있었다.

색이 바랜 중고품군복을 입은 젊은이가 권총을 든채 문가에 서서 빙그레 웃고있었다. 그의 웃는 낯을 대하는 순간 림송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레이몬드사무소의 《알파》가 아닌가!

《아니 이게 〈알파〉가 아니요?》

림송이 놀라며 그의 앞으로 다가가려 하자 《알파》는 손을 저으며 정색해서 말했다.

《난 며칠째 당신의 뒤를 따르고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방첩대가 정문앞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무전을…》

《알파》는 채 말을 끝맺을수 없었다. 복도에서 계단을 급히 올라오는 군화소리들이 소란스레 들리기 시작했다. 《알파》는 급히 출입문쪽으로 달려가며 사격을 시작했다. 총소리와 신음소리가 삽시에 고요하던 건물안을 뒤흔들었다.

림송은 더 생각할새 없이 무전기에 달라붙었다. 조국에서는 곧 응답신호가 나왔다. 림송은 떨리는 손으로 짧은 무전문을 보냈다. 이 순간 림송은 그것이 자기가 보내는 마지막무전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에서는 곧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대구교외의 도로교차점간이식당에서 련락원을 기다릴데 대한 지시를 보냈다. 림송은 머리수화기를 벗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는 물론 그 련락원을 다시는 보게 되지 못하리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구태여 조국에 보낸 전문에 지금 처한 위기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림송은 권총을 들고 문가로 다가갔다. 《알파》는 량손에 권총을 들고 집을 포위한 방첩대와 힘겨운 전투를 하고있었다. 두사람은 한동안 서로 등을 지고 계단과 창문으로 기여드는 방첩대장교들에게 명중탄을 퍼부었다. 얼마후 계단쪽이 조용해졌다. 이미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낸 적들이 증원을 기다리는 모양이였다.

《〈알파〉, 탄알을 아끼시오!》 하고 림송은 새 탄창을 꺼내며 등뒤에 대고 말했다. 《알파》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림송은 몸을 돌렸다. 그러자 《알파》가 그의 무릎쪽으로 쓰러졌다. 《알파》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였다. 이미 그는 가슴에 두군데나 관통상을 입었었다.

림송은 의식을 잃은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알파〉! 정신차리오!》

그러자 문득 《알파》가 눈을 떴다. 그는 한동안 림송의 얼굴을 유심히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에 미소를 띠웠다. 험악하게 터지고 째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얼굴의 엷은 미소가 순간 림송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자기를 부축하고있는 림송의 군복깃을 잡았다.

《…왜 이렇게 고요합니까?…》

《놈들이 물러갔소. 증원을 기다리는 모양이요.》
림송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갈린 음성으로 말했다.
《알파》는 그냥 마른 입술을 감빨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별안간 그의 눈가에 고통과 함께 따뜻한 색조가 비꼈다. 그것은 운명을 앞두고 후회를 모르는 강의한 사람들만이 짓는 행복의 미소였다.
림송의 가슴은 전류에라도 닿은듯 찌르르해왔다.
《힘을 내오! 〈알파〉… 당신은 누구요?》
《알파》는 림송의 물음에 힘겹게 숨을 톺아쉬였다.
《사람마다… 자기의 초소가 있지요. …》
《?!…》
《손을…》 《알파》는 탄 입술을 겨우 감빨며 다정히 중얼거렸다.
《손을 좀 주십시오. … 정말 동지들이, 조국이 그리웠습니다. 이젠…》
림송은 그의 뜨거운 손을 붙안고 나직이 부르짖었다.
《동무!… 동무의 이름은 뭐요?》
《알파》는 다시 눈을 떴다. 그는 림송을 유심히 올려다보았다.
《용서하십시오. 동지… 본부에… 나의 당원증번호는 279135…》
그는 가까스로 이 말을 남기고 고요히 눈을 감았다.
림송은 모자를 벗어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전우의 부탁을 새기고있었다. 조국에 보내는 긴급한 전파를 위해 꽃나이 청춘을 바친 한 무명전사의 위훈을 두고 생각에 잠겼다. …
계단에서 웨침소리와 군화발소리가 들리더니 자동총을 든 장교들과 문용채대령이 방으로 들어섰다.
문용채는 부상당한 팔을 부여잡고 말없이 서있는 림송과 쓰러진 사람을 한참 번갈아보더니 놀란 빛으로 다가왔다.
《다치지 않았소?…》
《일없소. 무선수에게 가보시오.》
림송은 무뚝뚝한 어조로 말하며 권총을 주머니안에 넣었다.
문용채는 쓰러진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보더니 쓰겁게 웃으며 일어섰다.
이윽고 얼굴이 굳어진 겐지로소좌가 계단을 올라왔다.
문용채가 한걸음 먼저 겐지로에게로 다가가 보고했다.

《무선수와 녀인은 이미 숨을 거두었소. 그리구 저… 접선자로 예상되는 이자도…》
문용채는 왜서인지 주밋거리며 말끝을 맺지 못한채 림송을 건너다보았다.
겐지로가 문용채뒤에서 불쑥 나와 《알파》의 시체를 돌아보았다. 겐지로는 조심스레 흰손수건을 꺼내더니 그의 손에서 권총을 벗겨 싸쥐고 일어섰다. 어쩐지 그의 입가에는 랭소 비슷한것이 떠돌았다.
겐지로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두 시체를 돌아보고나왔다. 림송의 곁에 와서 멈춰섰다.
《림송대위, 당신이 이자를 쐈소?》
림송은 예리한 눈길로 그를 마주보았다.
《부득이한 경우였소.》
《당신은 어떻게 이자리에 나타났소?》
따지는듯한 겐지로의 랭랭한 물음에 림송은 미간을 찌프렸다.
《소좌, 난 지금 캐논방첩장교가 어떻게 되여 여기에 나타났을가하고 생각하는중이요.》
불쾌해하는 림송의 말에 난감한 기색으로 곁에 서있던 문용채가 황급히 겐지로에게 다가가 귀속말로 한참 중얼거렸다.
겐지로는 오만상을 찌프리고 입을 쩝쩝 다시더니 다시 무전실쪽으로 들어가버렸다.
문용채가 림송의 곁으로 어정어정 다가왔다.
《면목이 없소, 림송대위. 난 일이 그렇게 급작스레 벌어지리라고는 생각 못했소. 당신이 무사한것만도 천만다행이요.》
문용채의 어조는 매우 풀이 죽어있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림송에게 권하며 의기소침한 빛을 띠웠다.
《대령, 난 당신이 〈국군〉방첩대와 함께 아지트에 대한 봉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걸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밀봉교육을 주어 무선수로 보내는자를 더 똑똑한놈으로 고르지 못한것은 실책입니다. 죽은자가 접선암호를 알고있었는가요?》
림송의 물음에 문용채의 얼굴은 벌개졌다. 그는 아까부터 말없이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장교들을 얼핏 돌아보았다.
《유감이지만… 〈무선수〉의 〈안해〉는 그걸 모르고있었소.》

《다행히 내가 아까 당신을 통해 당신들의 공작방안의 약점을 간파했기말이지 우리는 접선자를 시체로조차 체포하지 못할번했소.》
문용채의 컴컴한 얼굴에 한줄기 밝은 색조가 지나갔다.
《난 림송씨의 공로에 대하여 보고하겠소… 당신도 이 사건에 대해 에니스준장에게 공정하게 분석해주길 바라오.》
《죽은자는 아무런 증언도 할수 없는 법이요!》
별안간 문가에 나타난 겐지로가 한마디 내밷고 눈을 번쩍였다. 그는 문뒤에서 두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있었던것이다.
문용채의 얼굴에는 모욕을 당한 사람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울분의 빛이 질게 어렸다.
《죽은자는 또한 그 순간부터 아무런 활동도 못하는 법이요.》
불쑥 문용채가 두사람의 눈치를 살피며 반박하듯 말했다.
림송은 얼핏 문용채의 광대뼈가 나오고 눈이 째진 메마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만만치 않은 적수였다.
림송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문대령이 옳게 말했소. 당신이 부언하지 않아도 난 우리의 견해를 지킬것입니다. 나 역시 에니스준장앞에서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이니까!》
림송은 이렇게 말한후 밖으로 나와버렸다. 문용채가 다소 불안해하며 그의 뒤를 따랐다.
브라운 겐지로는 이를 악물고 잠시 그들의 뒤모습을 쏘아보다가 방첩대장교들쪽으로 홱 돌아섰다.
《소령, 즉시 시체들을 8군사령부 씨아이씨감정실로 가져가오. 전화는 내가 걸겠소!》
도수안경을 낀 소령이 차렷자세를 취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구 대위는 이 방을 봉쇄하고 흔적들을 찾아야겠소. 무전기에 나타난 지문들을 뜨시오. 가만! 지문은 내가 뜨겠소!》
겐지로는 방첩장교의 손에서 지문감정가방을 받아가지고 무전기앞으로 다가갔다.

제 6 장

우리 생활에는 성문화되지 않은 법칙들이 있다고 한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체험과 분석과 윤색을 거쳐 속담으로, 성구로, 명언으로 굳어진다.

인생의 길에는 평행선이 없다고 한다. 만났던 사람, 피해야 할 사람은 그 어떤 수학적인 필연성으로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의미일가? 나는 비유크리트 기하학의 일반명제가 이 세계의 주인인 인간들의 삶의 공간에 그 어떤 운명적인 해석을 가하리라고 생각해본적은 없다.

그러나 생활의 교차점들은 가는길마다에서 나에게 차단봉을 드리우고있었다. …

서울에 도착한것은 날이 다 밝아서였다. 나와 성탄금은 을지길중사의 사단에 배치될 행운을 가지지 못한것 같았다. 집결소인 서울대학교 맞은켠 의암동의 한 녀학교에서 우리는 아침식사를 하고 사단에서 올 대렬참모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젊은 소좌는 녀병사들에 대한 신병훈련은 사단군의소에서 진행될것이라는것을 알려주었다. 집결소에는 여러 사단들로 배치될 각이한 병종의 대원들이 있었다.

이따금씩 호송군관들이 교실에 들어와 문건을 펼쳐들고 이름을 불렀다. 호명된 병사들은 학교마당에 도착한 대렬차들로 바삐 달려가군했다. 오래도록 나와 성탄금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다. 을지길중사는 자기네 사단의 전진속도가 너무 빠른데 원인이 있다는것을 설명해주었다. 그랬다. 포소리들은 이미 서울시내에서 들리지 않았다.

오후에는 최고사령부에서 내려온 군관들이 집결소에 나타났다. 나는 우리 녀성신입대원들이 들어있는 교실에 나타난 두명의 중좌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키가 작은 중좌는 문건철을 뒤지며 매 사람들을 사진과 대조하더니 급히 나가버렸다.

《순정아, 이제 그 중좌가 왜 널 찬찬히 봤을가?》 하고 성탄금

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너무 걱정말어. 만약… 우릴 갈라놓으면 난 상관을 만나 제기하겠어.》
나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출입문을 바라보았다. 호송군관 책임자는 승인없이 자리를 뜨지 말것을 강조하고 나갔던것이다. 교실안은 상당히 넓었다. 벽에는 벌써 힘있는 선전화들이 나붙어있었다.
갑자기 복도쪽이 술렁거리더니 장령복을 입은 키가 후리후리한 사람이 대좌와 중좌의 안내를 받으며 방에 들어섰다.
《그래, 참모동무, 29에서 탐내는 그 놀랄만하다는 재목감이 누군가 봅시다. 대학생들속에는 재간둥이들이 많을수 있소.》
《오늘아침에 도착한 대렬입니다.》
아까 들어왔던 중좌가 뒤를 따라서며 대답했다.
《우선 영어전문가들을 더 찾아내야 하오.》 하고 장령은 방안을 둘러보며 들어왔다. 나는 성탄금의 손을 와락 쥐였다. 장령은 뜻밖에도 주한경 소장이였다. 나는 장령에게로 뛰여나가려다가 애써 참았다. 입은 군복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이 나를 자제하게 만들었다.
중좌는 제창 선전화밑에 서있는 우리쪽으로 장령을 안내해왔다.
《이 동무입니다. 음악학교출신인데…》 하고 중좌는 팔에 끼고 있던 두툼한 문건철을 손에 들며 다른 손으로 나를 가리켰다.
주한경소장은 나를 찬찬히 바라보더니 얼굴에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아니 이게 누구요? 순정동무가 아니요? 이거 정말 뜻밖인걸. 그래 언제 입대했나?》 하고 장령은 나의 손을 다정히 잡으며 물었다.
《어제저녁에 평양을 떠났습니다.》
《그래, 군복을 입으니 몰라보겠구만. 응? 이 중좌동무가 탐낼만하거든. 허허허.》
장령은 옆에 선 군관들을 돌아보며 호탕하게 웃었다. 키가 작은 중좌는 영문을 모르겠다는듯 나와 주한경소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장령은 내옆에 서있는 성탄금이도 알아보았다.
《이 동무도 낯이 익구만. 다들 끌끌한 녀장부들같소. 그래 순정동문 윤성녀어머니를 만나봤나?…》

《어머닌 대학에 찾아오셨댔어요.》

《정말 좋은분이요. 근면하고 인정많고… 난 그 어머니를 대할때마다 생각되는바가 많소.》 하고 장령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을 더듬는것 같더니 문득 돌아서며 말했다.

《참, 과장동무가 사람을 잘못봤소. 이 두 동문 전쟁만 아니였다면 평양의 무대에서 우리와 낯을 익힐 미래의 배우들이요. 과장동무, 이 동무들을 대좌동무에게 인계하시오. 전선위문대에는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거든.》

《아니, 장령동지, 벌써 문건을…》

두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나의 마음은 일종의 종잡을수 없는 기대와 희망으로 설레인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오. 그러다간 정말 사단에서 항의하겠소. 지금은 전쟁이 아니요. 우리 병사들에겐 승리의 노래, 진격의 노래가 필요하오. 동문 어제 부민관에서 있은 인민군협주단의 공연소식을 들었겠지? 난 그 동무들이 부르는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소리를 들으며 커다란 힘을 얻었소! 협주단공연은 서울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소. 공연직후 그자리에서 수백명의 청년들이 전선으로 탄원했거든. 예술의 힘이란 대단한거요. 노래는 심장에서 심장으로 옮겨지는 불꽃이란 말이요. 사람들의 심장속에 간직된 노래는 그 누가 불태울수도 빼앗을수도 없거든…》

장령은 열정적으로 손을 흔들며 중좌를 설복했다.

나는 처음 사단으로, 전선으로 못가게 된 서운함에 반박하고싶은 마음이 불같았으나 다음순간 주춤하고말았다.

(불꽃, 심장에서 심장으로!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명백한 예술에 대한 견해인가! 그래, 천만사람의 가슴에 간직된 사랑의 노래는 그 누구도 지워버릴수 없을거야!)

우리는 대좌와 함께 떠나게 되였다. 대좌는 전선위문대를 책임진 문화부일군이였다.

우리가 대좌와 함께 주한경소장의 승용차에 오르려 할 때 학교정문옆 스무나무밑에서 담배를 피우던 을지길아바이가 나에게로 다가왔다.

《내 소좌동무에게서 다 들었네. 난 우리 사단에 보배덩이가 굴러왔다고 생각했는데, 참 섭섭하구만…》

을지길중사는 군모를 주무르며 서운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아바이, 우린 꼭 전선으로 가고싶었어요!》 하고 나는 아바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리구 전… 저에게 능력만 있다면 꼭 정찰병이 되고싶었어요.》
이 순간 나는 어디선가 조국을 위해 싸우고있다는 소중한 벗을 생각하며 얼굴을 붉혔다.
《허허, 동문 훌륭한 녀성정찰병이 될수 있지… 내 동무의 노래를 잊지 않겠소. 전선동무들은 노래를 기다린다는걸 명심하우. 우리 보통병사들은 다 락천적인걸 좋아한다우. 전쟁은 우울해서는 이길수 없거든. 자, 그럼 전선에서 동무들을 기다리겠소. 옛 친구로 다시 만나세!》
을지길중사는 얼굴에 웃음을 담고 나와 성탄금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주한경소장이 중좌와 함께 현관으로 나왔다. 을지길중사가 그에게 경례를 했다. 차가 발동을 걸자 아바이중사는 배낭에서 종이에 싼 꾸레미를 성탄금에게 쥐여주었다.
《자 처녀동무들, 건빵. 병사의 도중식사요!》
《아바이, 고마와요!》 성탄금이 말했다.
《이건 엄격한 우리 소좌동무가 준거요.》
승용차는 학교마당을 빠져나와 큰길에 들어섰다. 한여름의 태양은 눈부시게 밝았다. 시민들의 얼굴도 밝아보였다. 나는 곳곳에서 여름바람에 날리는 공화국기발을 보았다. 기발은 중앙청에서도 힘있게 나붓기고있었다.
주한경장령은 생각에 잠긴 눈길로 차창밖을 내다보다가 뒤좌석에 앉은 나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이제 그 중사동무를 어떻게 아오?》
《우린 어제 그 아바이와 함께 군용렬차를 타고왔습니다.》
《훌륭한 병사요. 사단에서도 이름있는 정찰병이지…》
장령은 무엇인가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니 담배를 꺼냈다.
《저, 장령동지. 한가지 물어봐도 좋습니까?》
한참만에 내가 주저하며 이렇게 묻자 장령은 담배를 입에 문채 머리를 끄덕이였다.
《윤성녀어머닌 그날 저에게 박성일오빠를 인차 만날것 같다고 했

는데… 돌아왔는지요?…》

나의 물음에 장령은 약간 이마살을 찌프리고 라이타를 꺼내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는 긴숨과 함께 담배연기를 내뿜더니 시창을 내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순정동문 그를 알고있소?…》

《예.》

《언제?…》

장령의 눈에는 부드러운 광채가 떠돌았다.

《우린 어릴 때 한마을에서 자랐어요.… 성일동문 저와 함께 아버지의 제자였답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장령은 한참 담배를 피우며 무엇인가 생각에 잠긴듯싶더니 불쑥 얼굴을 돌렸다.

《난 이번에도 그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것 같소. 박성일동문 돌아오지 못했소.》

《네?!》

《그는 조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기로 결심했소. 그러나 난 그와 상봉할 날이 멀지는 않았다고 보오. 그의 고향길은 전승의 광장과 이어져있다고 할가, 간고한 길을 걷고있는 동무요.》

《…》

나는 그에 대해서 묻고싶은것이 많았지만 장령의 얼굴표정을 보고 더 물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장령자신이 그에 대하여 말해줄수 없다는것도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박성일,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가. 어릴적 진달래피는 동산에 함께 올라 희망의 노래를 부르던 애어린 처녀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기다리며 숨쉬고있는줄 알기나 할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조국과 동지들이 관심을 가지고있는 그가 성실하게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 조국에 충실하리라는것을 확신하였다.

8월이였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마저 무덥게 느껴지는 계절이였다. 승용차는 남대문로 3가를 따라 달렸다.

호텔 맞은켠 《평화극장》앞에 멈춰섰다.

련락을 받았는지 몇명의 견장이 없는 군복을 입은 극장일군들이 현관앞에 주런이 나와있었다. 나는 그속에서 왼쪽팔에 붕대를 감은 지휘자 변주설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길은 도시의 교외로 아득하게 뻗어있었다.

늦은저녁 림송은 운전대를 잡은채 줄곧 지평선아근을 바라보았다. 하늘도 땅도 온통 장엄한 노을의 여광속에 잠겨 자기의 본색을 잃어버렸다. 고요하였다. 림송에게는 이 고요가 의심스러웠다. 고요는 거짓이였다. 지금 전선에서는 포성이 울리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줄곧 시창앞을 쏘아보며 차속도를 높였다. 컴컴한 관목숲이 휘휘 옆으로 지나갔다. 대구교외의 검문소들에서는 8군사령부 련락장교단표식이 있는 승용차를 멀리에서도 알아보았다. 차단봉들이 소리없이 올라갔다.

림송은 지금 《수성》조 조장이며 련락원인 리준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였다. 그는 어제밤 평양방송의 에쓰디전문으로 대구교외에서 리준구와 만날데 대한 조국의 지시를 받았었다.

조국에서는 전략정보부대 조직과 관련한 특수보급창정보를 보낸데 대하여 그리고 제때에 위험신호를 해준데 대해 평가하고나서 제기된 자료로 보아 그에게 위험이 조성된만큼 급히 돌아올것을 권고하였다.

조국의 지시, 아니 권고는 림송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었다. 드디여 그가 오매불망 그토록 그리던 어머니의 품, 조국의 품이 손저어 다정히 그를 부르고있는것이였다. 그가 반생을 기다리던 숙망의 시각, 행복의 순간이 닥쳐온것이다. 기다리던 그 순간은 기어이 오고야말았다. 고요한 밤하늘의 별빛처럼, 따뜻한 봄바람처럼 문득 기약도 없이 찾아든것이였다.

온밤 그는 잠들수 없었다. 흥분으로 하여 심장은 진정을 못하고 세차게 고동치였다. 잠들줄 모르는 그의 마음처럼 그밤 창밖에서는 여름밤의 소란한 바람이 불어치고있었다.

오늘아침에 련락장교단 단장은 림송에게 당직근무를 강화할데 대한 임무를 주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림송의 불안은 이 순간부터 시작되였다.

그는 장교숙소로부터 사령부청사가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촌에 들어서자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렸다. 그는 자기가 단순히 즐거운 마음으로 떠날수 없음을 깨달았던것이다.

림송은 장교식당 구석쪽에 앉아 오늘부터 불의에 공급되기 시작한 증가된 야전용 식사와 커피잔을 앞에 놓고 천천히 각사탕을 풀

면서 스테쎌소좌를 찾았다. 소좌는 림송이 부산을 떠난 그날에 도꾜에서 대구로 돌아왔었다.
예상외로 스테쎌은 늦어서야 식당에 나타났다.
《왜 그리 늦었나?》
《개판이야.》 스테쎌 듀페이는 서둘러 커피잔을 들며 이마를 찡그리였다. 《지금 정보국은 벌둥지처럼 되였네.》
《왜 전선형편이 나쁜가?》
《미군은 우리가 예견했던 에이급군대가 아니였네. 북조선군은 락동강지역에서 공방전을 벌리다가 어제부터 예상외의 강력한 공격에로 넘어왔네. 지금 전선은 붕괴직전이네. 정보국에서는 또 맥원수의 상륙작전설이 일정에 올랐네. 해군정보부에서는 인천에 대한 정보자료를 참모부에 제출했지. 상투적인 수법이긴 하나 상륙전은 실현될걸세. 에니스준장도 고집스레 그걸 찬성하고있네.》
극동군사령부의 상륙작전모의는 이미 조국에서 예견한것이였다. 림송은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느꼈다. 놈들의 병력은 최근에 와서 천문학적인 수자로 조선전선에 집중되고있었던것이다.
림송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다.
《제기랄! 림송,위스키를 한잔 하세!》
《오늘부터 사령부식당에서는 술을 구경할수 없게 되였네.》
림송은 그에게 커피잔을 밀어주며 침울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건 왜?》
《극동군후방사령관의 지시라네. 보게! 특별전시공급으로 넘어간결.》
《림송》 하고 스테쎌은 커피잔을 밀어놓으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난 솔직히 말해서 나토군때부터 군공을 기대해왔었네. 그러나 요즘은 가끔 뒤를 돌아보게 되지. 돌아보면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네. 청춘도 명예도 재부도 없거든… 허무뿐이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난 부자가 될걸세. 알겠나?…》
림송은 지금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 엄혹한 시각에 자기가 전선을 떠난다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비록 총소리없는 전선이여도 림송은 자기가 서있는곳이 포성이 울부짖는 준엄한 격전장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자기는 고요한 전선에 파견된것이 아니였다. 조국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인차

림송을 먼저 생각하고있었다. 인간 림송은 자기가 사랑받는 그 조국의 아들임을 눈물겹게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 조국에 필요한것은 전사 림송이였다.… 그는 조국이 준 임무를 끝까지 수행 못했었다.…

멀리 도로교차점이 나타났다. 교차점 왼쪽으로 간이매점들이 있는 교외부락이 보였다. 이 별장지대는 전쟁전 천렵과 수렵구역이 시작되는곳이였고 양마장과 경마장이 있던곳이였다.

림송은 경마장터입구에 승용차를 세웠다. 시계를 들여다보니 아직 얼마간 시간이 있었다. 예상외로 검문소들을 그냥 통과하다나니 시간을 당긴것이였다. 이 몇분간이 림송에게는 귀중하였다. 그것은 그에게 사색할수 있는 시간이 차례졌기때문이였다. 가고싶은 길, 안기고싶은 고향이였으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조국의 권고를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싶었다.

그는 승용차에서 나와 경마장울타리를 따라 천천히 풀밭을 걸었다.

황혼이였다. 피빛 락조는 지평선우에 걸려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숲에서 불어왔다. 피난민들이 줄을 지어 울타리옆을 지나가고 있었다. 경마장을 지나니 가없는 들판이 펼쳐졌다.

그는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섰다. 거무스레한 지평선이 황혼속에 보였다. 그 아근으로 폭탄에 패인 포장도로가 곧추 뻗어있었다. 어딘가 썩 멀리에 황혼의 푸른 빛과 조화를 이루며 흰연기가 서서히 피여오르고있었다. 림송은 그곳 전선지구에 수림이의 친척집이 있다는것을 알았다. 어제 오후에 그는 그 녀자를 그 집에까지 태워다주었던것이다.

고요, 황혼. 림송은 언덕의 잔디밭우에 비스듬히 누워 광야의 한끝을 바라보고있었다. 서서히 어두워지고있었다. 연한 장미빛 하늘은 점차 강철빛으로, 회색빛으로, 검푸른빛으로 조화롭게 변해가고있었다.

보금자리를 찾는 새무리들이 아직도 밝은 색조가 비낀 그 하늘에 떠서 해가 진 서쪽을 향해 부지런히 날아가고있었다. 혹시 포성에 놀란 때이른 철새의 무리인지도 몰랐다. 림송은 오래도록 그 새무리를 올려다보았다. 용암으로 깃을 치는 새의 날개까지 한색으로 드러났다. 그 어떤 향수와도 같은 뭉클한 감정에 림송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북녘을 향해 날아가는 새들아, 말해다오. 너희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렇게 쉬임없이 날아가 내 고향 향산마을까지 가다오! 나의 어머니품으로 그렇게 날아가다오. 날아가서 늙으신 어머니에게 이 아들의 인사를 전해다오. 어머니의 아들은 지금 전선 먼곳에서 어머니를 그리고있다고… 아, 내 조국! 내 고향… 아마 지금쯤 고향의 박우물에는 맑은 물이 찰랑거릴테지. 할아버지가 심으셨다는 잎푸른 구기자나무에는 열매들이 매달렸으리. 이제 가을이 오면 그 열매들은 빨갛게 익어 물우에 아지들을 드리우리… 아마 흰옷 입으신 어머니는 이 시각 조카를 앞세우고 동이를 인채 우물가로 나올지도 몰라. 아니 어머니는 이 저녁도 동구길에 서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계실지 몰라…

행운을 찾아 어디론가 멀리로 떠나간 아들들을 그리며 한평생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 나라의 녀인들… 아들들을 떠나보내고 기다리는 사이에 검은 새각시의 머리는 파뿌리처럼 희여지리… 나의 어머니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밤 국경도시를 떠날 땐 젊으신 모습이였지. 옷고름을 입가에 가져가신채 겨우 손을 들어 바래주었지… 이태전에 본 어머니의 주름잡힌 얼굴, 흰서리 내린 머리, 한오리한오리 그 흰머리에 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이 깃들어있을거야… 조카녀석은 농순이라 했지… 아,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으로 맺어진 그들이, 귀중한 동지들의 모습이 그립구나…)

림송은 아예 팔을 베고 그자리에 누워버렸다. 새들은 그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져가고있었다. 까만 점으로 보이는 그 새무리를 다시 보는 순간 어떤 다정한 충동이 그의 가슴을 흔들었다.

동요시절, 동구길, 소년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흰연을 날리며 그 잔디풀 돋은 동구길을 가로질러 들판으로 달렸었다. 짧은 쌍태머리에 목이 성큼한 그 소녀, 분이(한순정의 아명)가 달래바구니를 옆에 끼고 함께 달렸다. 연은 처음에 땅에 끌렸으나 소년이 빨리 뛸수록 점차 솟아올라 마침내 창공높이 훨훨 날아올랐다.

《성일아, 나 좀!》

곁에서 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며 졸라댔다.

《안돼!》

《약속하지 않았니?》

《언제?》

소년은 새침해진 소녀를 흘겨보았다.

《벌써 잊었니? 산비둘기둥지에 올라갈 때 넌 내 등을 탔지?》

《피—》

하지만 소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연끈을 넘겨주었다.

소녀는 깔깔거리며 연끈을 받아들고 들판을 달려갔다. 달래바구니도 집어던졌다. 연은 창공으로, 창공으로 새처럼 바람을 안고 날았다.

한순간 분이는 샘터근처에서 나무뿌리에 발이 걸채여 넘어졌다. 소녀는 넘어지면서 연끈을 놓아버렸다. 림송은 놓쳐버린 연을 잡으려고 냅다 달려갔다.

림송은 징징 우는 분이옆에서 문득 멈춰서버렸다. 연은 벌써 들판 하늘에 아득히 날아올랐다. 바람을 안고 저 멀리 날아가고있었다.

속이 허전한것 같기도 하고 시원한것 같기도 하였다. 소년과 소녀는 나란히 손잡고 서서 어디론가 가버리는 연을 올려다보았다.

연! 창공을 나는 연, 그것은 소년의 꿈이였다. 희망이였다. 앞날이였다. 림송은 늘 꿈에서도 그 장면을 목격하군하였다.

고요한 저녁, 때로 고국에 대한 향수에 잠길 때면 늘 그의 눈앞에는 창공을 나는 연이 떠오르군했다.

림송은 소스라쳐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앉았다. 이미 그의 가슴속에서는 무엇인가 격렬한것이, 불사를수도 없고 꺾어버릴수도 없는 그 어떤 새롭고 굳센것이 태여나고있었다. 태동하고있었다.

고향과 조국이 귀중할수록 그것을 수호하려는 아들의 맹세는 굳세고 아름다운것이였다.

(그렇다. 이 세상에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를 잊을 아들이 어데 있으랴! 어머니에게 악한들이 달려들어 행패를 하려 할 때 그 어머니를 막아나서지 않을 아들이 어데 있으랴! 만약 조국을 진정 어머니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조국앞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온 이 시각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서슴으랴! …)

림송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흥분된 마음으로 걸음을 옮겼다. 간이식당앞까지 왔을 때는 이미 황혼도 꺼지고 어둠이 깃든 때였다.

림송은 간이식당안에 들어서자 창문곁 칸막이를 한 식탁에 홀로 앉아있는 낯익은 사람을 알아보았다. 조장이며 련락원인 리준구였

다. 한순간 가슴이 충격으로 높뛰였다. 그리운 얼굴이였고 정다운 모습이였다. 몇년 세월이 흐른것처럼 느껴졌다.
림송은 애써 흥분을 자제하며 접대부에게 뜨거운 커피를 부탁한 후 구석진 그의 식탁앞으로 다가갔다. 리준구는 예나 다름없이 침착하였고 평범하였다. 그것이 림송에게는 일종의 진정제가 되였다.
어스름한 간이식당안에는 손님이 없었다. 벌써 청소부들과 접대부들이 상을 치울 준비를 하고있었다.
도로교차점에 있는 헌병초소의 강렬한 조명등과 자동차불빛때문에 이따금씩 식당안에는 밝은 섬광이 탐조등불빛처럼 엇갈려 흘러들군했다.
《오래… 기다렸습니까?》
림송은 그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친근하게 물었다.
리준구는 흰 대문이를 드러내보였다.
《허허,이제 왔소. 자,손을 놓소. 마지막춤을 잘 추랬다구 아직은 자기자신으로 돌아갈 권리가 없소. 그래 림송동문 떠날준비가 다 됐겠지?…》
리준구는 눈가에 잔주름을 잡으며 그를 다정히 바라보았다.
《…》
《조국에서는 동무가 이번에 중요한 극비문건을 지켜낸데 대해 감사를 보내왔소. 그리고 동무가 돌아오는 경우 ×××조에 사업을 넘겨주도록 지시했습니다. 동무가 특수정보부대조직과 관련한 보급창비밀을 알아낸것은 미중앙정보국의 구상의 륜곽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소. …
얼마전 군사평론가 챨스 머피의 연구론문이 미국회상원에 제출되였는데 여기에는 군부가 취할수 있는 5개의 방안과 그에 대한 자기의 견해가 반영되여있소. 요점을 적었는데 보우.》
리준구는 종이장을 내밀었다. 림송은 약간 흘려쓴 큼직큼직한 글자들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로,조선전쟁을 즉시 포기하는것이다.
머피는 이 방안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미국의 패배를 의미하며 《상상도 할수 없는것》이라고 스스로 부정하였다.
둘째로,속히 조선전쟁을 남조선사람들에게 넘겨주고 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이다.

머피는 이에 대하여 《이것은 리승만군대의 확정적인 패배만을 초래할것이다》라고 반대의 뜻을 표시하였다.
셋째로, 조선의 가장 좁은 《허리》에 짧은 방어선을 형성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시도하는것이다.
머피는 이 방안이 최소한 2만～4만의 사상자를 각오해야 한다고 보았다.
넷째로, 해상, 지상, 공중 3면에서 상륙 및 돌파작전을 개시하며 현재의 전선을 압록강까지 올리미는것이다.
머피는 이 방안이 한량없는 희생을 가져올것이며 그 경우 전선이 450마일로 늘어나 보급선이 멀리 연장되기때문에 오래 견지하지 못할것이라고 하였다.
다섯째로, 전쟁을 만주와 중국본토에까지 확대하는것이다.
머피는 이 방안이 최대한의 외교적 및 군사적문제들을 제기할것이며 북대서양동맹의 분렬을 초래할것이기때문에 타당하지 못하다고 하였다.
《지금》 하고 리준구는 림송이 서류에서 눈을 떼자 서둘러 입을 열었다. 《정계와 군부에서는 네번째 방안을 주장하는 맥아더와는 달리 다섯가지 방안중에서 3번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있소. 이것은 결국 중앙정보국이 제기한 전략정보부대에 대한 그자들의 간접적인 태도라고 볼수 있소. 머피의 제안이 발표된 이틀후 미국의 쏘련문제전문가인 죠지 캐넌이 뉴욕의 교외에서 맥아더측근자들에게 특수작전의 륜곽을 가상적으로 설명했다고 하오. 이자의 설명에 의하면 정치군사적으로 특수훈련을 받은 특공대조를 3단계에 꺾어 전선 후방에 침투시켜 작전개시전야에 보급로를 차단한후 몇개 군단무력의 공중지상협동작전을 벌려 전국을 변화시킨다는거요. 이쯤 보면 우리는 에니스의 최종구상이 무엇인지 알수 있소. 다만 지금은 극동군사령부가 이걸 지연시키고있소.》
《만약》 하고 림송은 무거운 눈길로 리준구를 올려다보았다. 《놈들의 작전이 시작되면 전선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될수 있겠군요.》
《그렇소. 하지만 우리가 놈들의 음모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그 작전은 성공할수 없지.… 조국에서는… 그동안 동무가 기초를 닦아놓았기때문에 다른 조가 이 임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보았소. 그래서 본부에서는 그동안 힘겨운 전투를 해온 림송동무를 소환하기

로 결심했소. 이번 사건으로 캐논방첩기관의 의심이 로골화된 조건에서 위험성이 커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밤 지정된 해안에서 만납시다. 해안을 따라 전선을 넘어야겠소. 그때 구체적인걸 알려주겠소. 그사이 동무는 약속된 방안대로 마지막 일처리를 해야겠소.》

리준구는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자리를 일려 했다.

림송은 와락 손을 내밀어 그를 제지시켰다.

《저, 리준구동지.》 하고 림송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난 이미 떠나지 않을것을 결심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리준구의 눈에는 다소 놀란 빛이 떠올랐다.

림송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준구동지, 물론 저는 고향이 그립습니다. 그리운 나머지 그 표상조차 희미해지고있습니다. 동지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싶습니다. 그러나 전 아직 조국이 준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조장동지! 난 조국의 사랑과 권고를 눈물속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난… 나의 고향길이 전승의 광장과 굳게 이어져있는걸 깨달았습니다. 동지! 나의 이 마음을 리해해주십시오!》

자기의 진정을 터놓는 림송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다.

《？!…》

리준구는 림송의 말을 듣더니 한동안 생각에 잠겨 그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림송은 그 눈길을 피하며 담배연기를 빨아들였다. 리준구는 문득 손을 내밀어 림송의 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고맙소. 조국에서도 아마 동무의 결심을 들으면 기뻐할것이라는것을 난 숨기지 않겠소. … 사실 림송동무의 위치는 우리(수성)정찰소조에서 그중 잘 위장한 중요한 정보원천이였소.》 하고 리준구는 다시 림송의 얼굴을 친근하게 바라보더니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동무의 결심을 본부에 알리겠소. 련락선이 회복된만큼 우리도 동무의 안전을 위해서 공작선을 펼치겠소.》

리준구는 친근한 눈길로 그를 마주보았다.

《조국에서는 오늘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정찰방침을 알려왔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전략정찰의 중요대상으로 미극동군사령부와 그 관하 각 병종사령부, 괴뢰정부와 군사고문단, 륙군본부와 군사학교, 예비대, 군사징집기관을 지적해주

시였소.

그이께서는 전략정찰의 임무는 적의 무장 총수와 배치, 작전기도, 작전대형편성, 적예비대력량, 배치구역 및 기동, 새 부대편성과 전선부대보충정형, 새 무장 도입과 부대에 대한 전투기술기재보충상태를 알아내는것이라고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소. 그이께서는 하와이와 대구, 도꾜를 비롯한 적후에서 활동하고있는 동무들과의 사업을 잘할데 대한 간곡한 교시를 주시였소.》

《최고사령관동지께서요?…》

림송은 리준구의 손을 뜨겁게 잡으며 목메여 부르짖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구에서 활동하고있는 림송동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몹시 반가와하시면서 〈그 동무는 내가 상해에 파견했던 한 혁명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유능하고 경험많은 지하공작원이였습니다. 그가 상해로 떠날 때 아들을 데리고 밀영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에게 우리 혁명이 장기성을 띠는 만큼 아들을 혁명의 후계자로 잘 키울데 대한 임무를 주었는데 그 아들이 인민군정찰병으로 성장한걸 보니 정말 기쁩니다. 지금도 귀틀집밖에서 언손을 호호 불며 서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때 섭섭하게 떠나보낸것 같아 지금까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소.》

림송은 묵묵히 듣고있었다. 그는 머리를 숙였다. 어쩐지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던것이다. 추억의 말파리소리, 눈보라, 귀틀집…아, 세월은 흘렀어도 그날의 따뜻한 화로가를 어찌 잊으랴. 그날에 심장에 새겨안던 그 귀중한 가르치심, 친근한 음성, 영원한 태양의 미소를 어이 잊으랴.

《림송동무,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일군들에게 그 동무가 아직 민청원이라는데 빨리 당원으로 키워야 하겠다고 간곡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소. 그이께서는 혁명전사는 삶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 때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빛낼수 있다고 하시며 림송동무의 공작을 잘 뒤받침해주라고 교시하시였소.》

림송은 머리를 들고 리준구를 유심히 올려다보았다.

《조장동지, 전… 세상에 태여나서 오늘보다 더 행복한 날이 없는것 같군요. 잊지 않겠습니다. 장군님의 전사된 영광을 잊지 않겠습니다. 혁명을 보위하고 조국에 기여하는 길에서 순간순간을

헛되이 살지 않겠습니다.》

리준구는 대문이를 드러내며 미소를 지었다.

《림송, 장군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해결 못할 일이란 없소. 조국의 임무를 수행하는 길이 곧 장군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요. … 우린 지금 무엇을 알고있는가? 분명 놈들이 특수부대를 조직하려 한다는것, 보급물자계획을 봐서 그 규모가 사단무력에 가까운 방대한것이라는것, 케이엘오(〈한국〉 련락사무소, 략칭)를 중심으로 인원들이 선발된다는것, 사령부가 대구교외일수 있다는것이요. 물론 동무가 알아낸것은 적지 않소. 하지만 우린 아직 많은 미지수를 가지고있소. 특수부대의 구성은 어떠한가? 누가 지휘하는가?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가? 임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극동군과 8군의 립장은?…》

리준구는 다시 담배를 피워물었다.

《준구동지, 제 생각엔 에니스에게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지투가 에니스의 구상에 의혹을 품고있고 씨아이씨가 저들의 명예와 위치때문에 반기를 들고있지 않습니까!》

림송의 말에 리준구는 온화한 눈길에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뚫고들어가야 할 공간이요. 동문 문건이나 〈혀〉를 노릴것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침투해야 하오. 놈들의 정보기관들의 알륵관계를 잘 리용합시다. 이것이 에니스에게 믿음직하게 침투하는 길이고 또 놈들의 구상을 알아내거나 파탄시킬수 있는 분명한 길이거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문 이제 더 모험해서는 안되겠소. 사소한 실수, 순간의 실책이 만사를 그르칠수 있소.》

《명심하겠습니다.》

리준구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림동무, 캐논기관은 〈알파〉가 레이몬드사무소성원이라는걸 밝혀낼수 있소. 이 경우를 타산해서 우리는 〈알파〉를 홍콩에 지부를 두고있는 케이엘오에서 사무소에 침투시킨것으로 위장할 결심이요. … 참 아까운 동무를 잃었소. 전쟁의 한순간, 승리의 순간을 마련하기 위해 그는 생명을 바쳤소. 사람이 살면 백년을 살겠소. 조국의 순간을 위해 바친 전사의 삶은 영원한거요. 그건 인민이

그리고 우리가 그를 잊지 않기때문이요. 조국은 영원히 그를 기억할거요！…》
두사람은 잠시 귀중한 동지의 최후에 대한 추억에 잠겼다.
림송은 흥분된 심정으로 생각을 톺아갔다.
(그래, 난 이번에 인생에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전호에 서있는 보통병사들과는 달리 적후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있다. 림종의 순간 고요히 행복의 미소를 짓던 《알파》 모습이 생시처럼 떠오른다. 영원한 삶, 영원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건 어머니조국, 장군님의 영원한 기억속에 있는것이다. 어려운 길이지만 보람찬 길인 그 길을 끝까지 가야 한다！…)
간이식당으로 몇명의 장교들이 들어섰다. 리준구는 다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며칠후부터 나도 대구의 치과병원으로 돌아와있겠소. 그렇게 되면 림송동무가 합법적인 나의, 아니 설민기박사의 손님이 될수 있는 방도를 찾아봅시다.》
《저도 조장동지가 곁에 가까이 있어야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림송은 리준구의 얼굴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난 아마 동무의 시끄러운 잔소리군이 될게요.》 하고 리준구는 사람좋게 웃었다. 《어쨌든 림송동문 한순간도 자기로 돌아갈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걸 명심해주. 캐논기관은 지금 〈쟈스민〉망을 움직여 동무를 감시하고있다는걸 명심해야겠소. 조심하시오.》
《알았습니다.》
《참, 수림이라는 녀성에 대해서 알아봤소？》
리준구의 물음에 림송은 얼굴을 들었다.
《아직은… 하지만 정의감이 있는 녀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나를 돕자는것이 의협심인지, 미행인지 아직은 명백치 않습니다. 전 그를 다만 사무엘선에서 움직이고있습니다.》
《명백치 않다？… 어쨌든 경각성을 높여야겠소.》
얼마후 림송은 간이식당에서 나와 승용차발동을 걸었다.
승용차는 캄캄한 어둠속을 달렸다. 림송은 교외부락에 들려 강수림의 이모네 집 창문을 두드렸다. 그 녀자는 그밤 창가에 오도카니 앉아 아마도 림송을 기다리고있은 모양이였다.
수림이는 인차 밖으로 나왔다. 림송은 아무말없이 다시 운전대

를 잡았다.

《잠간 들려 차라도 드시지 않겠어요?》 하고 강수림은 승용차 문을 잡은채 주저하며 물었다.

《시간이 없소, 수림이.》

《?…》

《후에 들리지. 어서 타오!》

그러자 그 녀자는 한숨을 내쉬며 림송의 옆자리에 앉았다. 승용차는 좁은 도로를 빠져나와 한참 어둠속을 달렸다.

림송은 포장을 한 큰도로에 나와서야 전조등을 켰다. 들판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강이 가까이에 있었다. 바람에서는 약간 찝찔한 해감내가 풍겼다. 림송은 교외에서 대구시내로 들어가는 다른 길을 택했던것이다. 승용차는 8군사령부쪽으로 난 동북쪽 도로를 따라 달렸다. 희붓한 하늘을 배경으로 우줄우줄한 키낮은 숲이 펼쳐지더니 곧 강물이 나타났다. 열어놓은 차창으로 강풍이 불어들었다. 심해에서 울려오는듯한 명상적인 음향이 한밤의 고요를 깨뜨렸다.

림송은 담배를 피워물었다.

《림송씨, 저…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한참만에 수림이가 조심히 물었다.

림송은 얼핏 그 녀자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한참만에 대답했다.

《전쟁이 아니요. 전시의 평범한 하루지만 현실은 나로 하여금 순간을 백날처럼 살것을 요구하고있소. 할 일이 많소. 때로는… 자신의 무능에 환멸을 느끼거든. 왜냐하면 난 준엄한 이 시각, 이 순간과 굳게 이어져있으니까.》

《저 역시… 당신을 볼 때마다… 당신은 외견상 늘 생활에 빚을 지고있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수림이는 몸을 움츠리며 손으로 바람에 마구 흩어지는 머리칼을 쓸어넘겼다. 부드러운 머리칼이 그 녀자의 손바닥에서 빠져나와 옆에 앉아 운전하는 림송의 볼을 가볍게 건드렸다.

검푸른 하늘에 장엄한 별무리가 흐르기 시작했다. 《훔벨》은 대구시내에 들어서자 속도를 늦추었다.

《림송씨, 저… 전에부터 하고싶던 말인데 제가 도울 일은 없을가요?》

승용차가 사령부가까운 장교숙소앞에 멎자 수림이가 흥분으로 급하게 오르내리는 높은 가슴우에 손을 얹으며 다소 또렷한 어조로 물었다.

《아가씨는 그 대가로 총살을 당할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소?》

림송은 그 녀자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나직이 물었다.

강수림은 림송의 그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전 제 심장이 가리키는 길이라면 교수대에라도 오를수 있어요.》

강수림은 말을 마치고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장교숙소쪽으로 총총히 걸어갔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인간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마련이다. 사람들의 대이동이 시작되고 뜻하지 않은 상봉들과 리별들이 생겨나며 때로는 불의의 희생을 가져오기도 하는것이 전쟁의 생리인것이다.

휴양소와 교실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한분대원이 되여 전호에 엎디게 되고 서로 먼 고장들에서 드문드문 편지로 안부나 전하던 친척들이 어느 전선길이나 도하장에서 순간의 상봉을 거쳐 헤여지게도 된다. 그런 속에서는 배비변경하는 사단의 군의소에 있던 처녀가 1제대 공병소대장인 애인을 단 1분간 만나는 경우도 있고 협동작전의 길에서 부자간이 함께 고지로 치달아오르게 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 필연적인 력사적운동에서 매 개인, 특히 보통사람들의 운명선은 객관적으로 볼 때 우연성으로 나타나기마련이다.

한순정은 그토록 상면을 피해왔던 변주설이 자기가 속한 순회공연편대의 악단지휘자가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다. 평화시절에는 오히려 수단을 써서 그와의 공교로운 상봉을 늘 피해다닐수 있었던 순정이가 전시인 지금에는 거의 매 순간 코를 맞대다싶이 하고 분망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편대는 시위수사령부와 평양에서 파견되여온 문화부일군의 지도밑에 서울시와 주변의 예비부대들에 나가 순회공연을 하고있었다. 피아니스트인 한순정은 조건이 허락하는데서는 피아노를 탔고 그렇지 못한곳에서는 손풍금으로 독주와 반주를 하였다.

성탄금은 편대의 유일한 독창가수로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되였다. 그는 원래 민요독창가수였으나 필요할 때는 현대의 전투적인

가요도 손색없이 부를줄 아는 민성과 양성을 결합한 독특한 장기를 가지고있었다.

순정이도 이 급히 조직된 소편대에 필요한 만능배우였다.

때로 그는 성탄금과 함께 무대에 나가 2중창으로 《밭갈이노래》를 부르기도 하였다. 동무들은 그가 성악배우로 발전할수 있는 음질을 가지고있다고 진심으로 말하고있었다.

한순정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것은 전선사령부 문화부의 지시를 받는 예술편대이긴 하지만 정식 군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는것이였다. 군복을 입고 전선으로 떠났던 그였기에 이 서운함은 여운이 있었다. 그들 편대성원들의 심정은 동일한것이였다. 그들을 지휘하는 일군들은 사람들의 심리에 민감한, 로숙한 상관들이였다. 어느날 소편대 대원들은 일제히 견장이 없는 군복을 받아입었다.

그 이후로는 단장의 말대로 《전투적인 부대》의 면모가 났으며 어쩌다 길가에서 면목있는 인민군협주단 배우들을 만나도 스스럼없이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게들 되였다.

한순정의 우려는 부질없는것이였다.

평화시기엔 매일아침 동집게를 가지고 눈섭까지 다스린다는 소문이 녀배우들을 거쳐 실습생들에게까지 알려졌던 변주설이 지금은 늘 면도를 제때에 하지 않아 성글고 거뭇거뭇한 턱수염이 더부룩했다. 변주설은 전쟁과 함께 성격마저 달라져버렸다. 그는 그의 말대로 《혁명적인 지성인》으로 성장한것이였다. 그의 걸음걸이는 분망한 사업에 맞게 씩씩했으며 지난날의 로맨틱한 감상적인 어조는 간데없고 약간 함경도사투리에 가까운 억양이 센 격렬한 말투를 번지게 되였다. 그의 손짓은 힘찼으며 행동은 원칙적이였고 언변은 격동적이였다. 한순정은 악수하면서 그의 손아귀힘이 그렇게 셌다는것을 비로소 느꼈다. 전에 자기에게 꽃다발을 가지고 찾아다닐 때의 손길은 녀성의것처럼 부드러웠었다. 그것은 불과 몇달 전의 일이였다.

순정이에 대한 변주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자기가 평화시절 철없는 녀학생에게 마음의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을 쓰겁게 후회하는 점잖은 청년일군의 얼굴을 하고있었다. 그는 공연총화를 지을 때면 꺼리낌없이 순정이를 비판하기도 하고 공연기재운반분담에서도 서슴지 않고 무거운 의상함을 들고가게 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의 태도가 자기의 열정에 랭담했던 한순정에 대한,그와의 지난날에 대한 일종의 유쾌한 복수처럼 느껴지군하였다.

이것으로서 한순정은 그의 태도가 꾸며진것이라는것을 깨달았다. 문화부일군인 대좌며 몸매뚱뚱한 단장인 시당선전부지도원은 변주설을 두고 《재능있고 일을 제낄줄 아는 혁명적인 일군》으로 칭찬했지만 유독 한순정만은 그의 모든 행동과 말뒤에 숨은 자존심과 은밀한 명예심과 일종의 자격지심을 간파하고있었다. 그러나 그 녀자는 그의 이런 가식을 나무라지는 않았다. 전쟁은 사람들을 생동하는 인간으로 재창조하고있었다. 변주설은 자기 식대로,인테리고유의 방법으로 이 재창조되는 새 인간으로 가는것이 아닐가. 그는 그렇게 믿고싶었다.

어느날, 한순정은 충무로에 있는 계림극장 련습실에서 피아노를 마주하고 새로 나온 행진곡을 연주하고있었다. 창밖으로는 번화한 거리가 한눈에 안겨들었다. 각종 간판들이 아빠트창문들을 가리웠는데 아직은 텅빈 창고처럼 인적이 드문 건물들이였다.

시위수사령부는 며칠전부터 각이한 계층을 상대로 시민들을 위한 영업허가를 내고있었지만 대부분의 기업가들이 남하한 형편에서 모든것을 새로 시작하고있었다.

그가 련습하는 곡은 인민군협주단의 이름있는 작곡가의 최근 작품이였다. 그것은 순정이가 군용렬차를 타고올 때 병사들이 부르던 그 노래였다. 랑만과 정서와 시대의 맥박이 담긴 인상깊은 곡이였다. 며칠전 신문에서 그는 종군작곡가의 창작수기를 읽은적이 있었다.

종군작곡가는 썼다.

《…나는 전호속에서 이 곡의 선률을 구상하였다. 사단은 남진의 길에서 지체하지 않았다. 병사들이 전호속에 앉아있는 시간은 길지 않았다. 달리는 군용렬차와 자동차우에서 상은 무르익었다. 가사는 군기를 들고 돌격선을 달리다 쓰러진 한 병사의 수첩에서 발견한것이였다. 이름도 기억할새없이 중상을 입은 병사는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였다. 나는 달리는 군용렬차우에서 오선지를 펴놓았다. 바람에 오선지가 날렸다. 우리는 적기의 공습을 받았다. 오선지의 절반이상이 불에 타버렸다. 령감은 기약도 없이 찾아들었다. 쾅쾅! 심장의 문을 두드렸다. …》

작곡가는 며칠전 전선서부의 어느 한 전호가에서 전사하였다.
사단군악대는 장례식에서 그의 랑만적인 곡을 느리게 연주하였다. 그 곡은 결코 비장하게 울리지 않았다. 장례식은 서울근교에서 있었다. 한순정일행도 참가했었다. 한순정은 종군작곡가가 죽어서도 자기의 곡이 비장하게 울릴것을 바라지 않았다는것을 절감했다. 사단군악대 악사들도, 중좌견장을 단 문화부일군인 지휘자도 이것을 깨달았다.
병사들이 그 곡에 맞추어 합창을 불렀다. 한순정은 결코 그 종군작곡가를 죽은 사람으로 생각할수 없었다.
그의 넋은 살아서 병사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있었고 전선으로, 승리에로, 전승의 광장으로 그들을 부르고있었다. …
잔디풀이 푸른 남산기슭에 령구는 안치되였다.
한순정에게 낯익은 대좌가 영결사를 하였다. 비분강개한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가는 보슬비가 휘뿌리기 시작했다. 조총소리가 흐린 하늘을 터칠듯이 장중하게 울렸다.
병사들은 군모를 벗고 잠시 묵상하였다. 고인의 유가족인듯싶은 한 녀인이 조용히 다가와 묘비곁에 흰 꽃송이를 놓았다. 순결하고도 싱싱한 꽃은 진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멀리 한강기슭을 따라 병사들이 탄 군용차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지은 잊을수 없는 노래였다.
한순정은 그 노래소리를 들었다. 별안간 심장이 쿵쿵 뛰였다.
(인간, 아,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는 숨을 거두었어도 그가 남긴 노래는 저렇게 이 땅우에 울리고있지 않는가! 그의 노래는 병사들과 함께 전선으로, 위훈에로 달려가고있다. 그를 죽은사람이라고 볼수 있겠는가.
영생하는 인간! 그렇다. 사람은 죽었어도 영생할수 있다. 순간에 심장의 고동은 멈추어도 사람들속에, 미래속에, 조국속에 영원히 살아있을수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고 우리 인민이다. 원쑤들은 조선인민을 잘못보았다.
주한경장령이 말했지. 심장에서 심장으로 옮겨지는 불! 영생! …)
보슬비는 강바람에 날려 묘앞에 놓인 백화를 흔들었다. 노래소리는 점차 커졌다.
한순정은 심장의 격동을 느꼈다.

한순정은 건반우에서 힘있게 손을 놀렸다. 오늘저녁 그들은 새로 편성되여 전선으로 떠나는 의용군병사들앞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것이였다.

피아노를 짚는 한순정의 눈앞으로는 전쟁전야의 그 다양한 일요일의 대동강기슭이 생생히 파도쳐왔다. 그는 음악선률과 함께 영원히 되돌아갈수 없는 그 시절, 그 시각으로 추억의 노를 저어갔다.

그들은 대동강물결우로 뽀트를 저어갔다.

6월의 이른아침 해빛은 물결우에 눈부시게 반사되고 기슭의 버드나무숲이 비끼여 강물은 진록색으로 빛났다.

한순정은 류달리 긴 속눈섭을 살풋이 내리깔고 흰손을 배전밑으로 내밀어 푸른 물을 떠올려서는 한참씩 들여다보군하였다.

변주설은 어글어글한 눈에 미소를 띠우고 한참씩 한순정을 바라보다가는 슬며시 눈길을 돌리며 릉라도쪽으로 노를 저어갔다.

어디선가 보금자리에서 나래를 편 산새들이 까맣게 떠서 모란봉쪽으로 날아갔다.

한순정은 가볍게 한숨을 쉬였다. 이제 얼마 안있어 학교를 졸업하게 될 그였다. 눈부실 장미빛안개에 휩싸인 자기의 미래가 놀랍도록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였고 짜릿할 정도로 두려움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그것은 행복한 불안감과도 같은것이였다.

《순정동무, 예술은 심장을 가지고 해야 하오.》 하고 변주설이 문득 마치 끊어진 화제를 잇기라도 하듯 입을 열었다. 《동무처럼 재능있고 아름다운 녀성인 경우엔 더 이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 힘써야 하거든. 피아노연주는 결코 협화음들의 세찬 울림이나 형식상 힘있어보이는 곡조가 아니요. 만약 현대의 시대상을 주려면 거기에 혁명의 씨뚜아찌야가 있어야 하거든. 드보르쟈크의 〈신세계〉나 모짤트의 〈봄의 환희〉를 보우.》

변주설은 노대를 놓고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했다. 노대가 위태롭게 배가녁에서 대롱거렸다. 한순정은 그것을 당겨놓은후 얼핏 릉라도쪽을 바라보았다. 벌써 성탄금이네들이 강변 잔디밭에 모여 야단법석인데 푸르스름한 모닥불연기가 아침대기를 가볍게 휘저으며 수풀우에 피여오르고있었다.

한순정이 변주설을 알게 된것은 극장실습을 시작한 몇주일전부터였다. 인상좋고 열정적인 젊은 지휘자는 한순정의 눈에도 례절바르고 재능있는 인간으로 느껴졌다.

순정이가 변주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약간 진중하지 못한 젊은 선생을 대하는 녀학생의 사심없는 호감과 존경심 같은것이였다.

와세다대학을 나온 변주설의 아버지 변태영은 이름있는 건축가였다. 건축가의 한생은 불우하였고 짧았다. 자기의 리상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로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인 장인의 반연으로 례배당설계를 청탁받아 해오던 그는 땅마지기나 있는 처켠에 붙어살려고 국경도시 신의주로 이동하였으나 한생의 목표를 조금도 실현 못하고 운명하였다. 도꾜에서부터 그의 폐는 이미 자기 사명을 다하고있었던것이다. 그의 인생사에서 또하나의 불행은 아들로 하여금 자기 뒤를 잇게 하지 못한것이였다. 목사의 딸이며 소시민인 어머니를 닮아서인지 아들은 어려서부터 의지가 박약하였으나 대신 총명한 두뇌와 비상한 음감을 타고났었다. 변태영의 넉넉하지 못한 수입과 교회당을 가지고있는 외켠의 도움으로 변주설은 중국의 어느 도시에서 이태동안 ××음악대학 청강생으로 있게 되였다.

광복은 변주설에게도 밝은 앞길을 열어주었다. 처음 그는 《서북청년단》계렬의 청년모임들에 얼굴을 비치다가 인차 대세를 바로 보고 몸을 뺐다. 음악적총명은 시대의 대하와 거품을 가려볼수 있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정체모를 선을 꾸준히 밟아 평양의 중앙극장으로 소환되는데 성공했다. 그는 그가 얼굴을 내밀던 비밀집단의 검은 손길이 자기를 상정시켰음을 어렴풋이 느끼고있었다.

변주설은 모란봉기슭에 있는 한순정의 집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순정이 아버지 한정흠은 학창시절 변태영과 일정한 친교가 있는 사이였다. 변태영은 생존시 평양에 올라올 때마다 의례히 한교수집을 찾군하였다. 한때 그들, 한정흠과 변태영은 폭우쏟아지는 서울의 대학가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던 학우들이였다.

또 한순정은 아버지의 사망후 부친의 친구인 변태영의 주선으로 이태가량 신의주에서 음악을 공부했었다.

…광복과 함께 한순정은 평양으로 돌아왔었다.

한순정의 어머니는 눈썰미있고 재능있는 변주설을 친절하게 맞이하였다. 한순정의 집을 찾을 때 변주설은 빈손으로 나타나는 일

이 없었다. …

음악학교 졸업반학생들은 오늘의 야유회를 위해서 분망한 며칠을 보냈었다. 선발대로 뽑힌 남학생들은 어제저녁에 섬에 도착하여 천막을 전개하고 대동강 잉어들을 낚아냈다.

녀학생들은 일요일새벽 음식물들을 실은 매생이와 뽀트로 도착하였다.

행복을 위해서라면, 사랑과 우정을 위해서라면 천리라도 달려갈 인생의 귀한 시절인 청춘시절을 고스란히 교실과 기숙사와 련습장들에서 보낸 그들은 졸업을 앞두고 모처럼 차례진 일요일을 의의있게 보내기로 결정했었다. 졸업반학생들의 일요일계획은 대학민청위원회의 지지를 받았다. 남대학생들은 주머니를 털고 녀학생들은 상점으로, 식당으로 며칠전부터 돌아쳤다.

그 일요일이 드디여 왔다. 다양한 체육경기, 보물찾기, 요술, 써클공연 그리고 저녁엔 무도회… 사진촬영도 예견되였었다. 능청스러운 체육책임자인 지휘과 꺽다리대학생은 학부의 《사전》들을 동원하여 보물쪽지마다에 서로 은근히 눈치들이 이상하다든가 각별한 호의와 우정관계속에 있는 남녀학생들을 더욱 가깝게 할수 있는 방안들을 설계하였던것이다.

이 미묘하고도 야릇한 흥미가 가는 종목은 특히 성탄금이를 흥분시키고 그의 가슴을 조이게 하고있었다. 그 녀자는 성악과에 있는 혜산출신의 한 남자를 사모하고있었다. 순박하고 어리무던한 청년이였다. 얼굴도 량강도 감자격으로 투박하게 생긴 청년이였으나 자기를 늘 인물이 못났다고 생각하고있는 성탄금에게는 그 남자가 미남자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사람을 세워놓는다면 성탄금의 복스러운 귀여운 얼굴이 대뜸 달덩이처럼 빼여날것이였다. 그들은 어느해 봄 미림의 들판에서 함께 모를 내며 서로를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였다. … 행복한 그들의 모습은 한순정의 가슴에도 선망과 일종의 체험해보지 못한 짜릿한 기쁨의 예감을 주었다. …이 화창한 봄날 릉라도의 버들숲에서 그를 만난다면 얼마나 좋으랴. 한순정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였었다.

한순정은 변주설과 함께 맨 마감으로 뽀트에 올랐다. 극장에서 낯을 익힌 변주설은 졸업반학생들에게 결코 불청객이 아니였다. 그는 이 야유회의 적극적인 조직자중의 한사람이였고 무도회를 예

견하여 자기의 수동식축음기까지 배에 실어보냈다.
한순정은 변주설이 뽀트를 물녘으로 끌어내는사이 천막에 들렸다가 방금 삭정이를 주으러 갔다는 성탄금이네를 찾아떠났다.
무성한 버드나무사이길에 들어서자 씁쓸하고도 상긋한 숲향기가 코를 찔렀다. 이름모를 들꽃들이 축축한 땅우에 조용히 피여 벌떼를 맞아들이고있었다. 한순정은 파란 제비꽃앞에 실팍한 무릎을 치마로 감싸 쪼그리고앉았다. 그 녀자는 작고 아름다운 꽃을 손으로 가볍게 잡고 한참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녀자는 야릇하고도 짜릿한 향수가 가슴속에 깃드는것을 의식하였다. 그것은 아득히 흘러가버린 어린 시절, 봄종다리 우는 고향의 동산우에서 정다운 동무와 함께 진달래를 꺾던 추억을 련상시켰다. 꽃을 봐도 별을 봐도 웃고 울고싶은 다감한 처녀시절의 공상의 세계는 이 순간 한순정을 야릇한 감정에 잠그어버렸다.
파란 제비꽃은 그 녀자의 머리속에 창공, 연이 날리는 산촌, 들판의 가없는 하늘을 펼쳐보였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정다운 그 얼굴이 또다시 떠올랐다. 희고 넓은 이마밑에 빛나는 눈초리를 한 그가, 그리고 동구길 떠나가던 사람, 소년은 한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채 아버지를 따라 동구길을 걸어갔다. 그러다가 강변 굽인돌이길에서 문득 돌아섰다. 그들의 눈길은 부딪쳤다. 그것은 그들의 마지막상봉이였고 첫 작별이였다. …
《뭘 그리 들여다보고있소?》
문득 풀숲을 헤치고 아래도리가 아침이슬에 축축히 젖은 변주설이 그 녀자앞에 나타났다.
《아이, 깜짝이야!》
한순정은 공상과 추억에서 벗어나 방심한 눈길로 낯선 사람을 대하듯 변주설을 올려다보았다.
《다들 기다리는데 가야지, 난 한참 찾았소.》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와요!》 하고 한순정은 그에게 제비꽃을 손짓해보였다.
《뭐 그리 눈에 띄지 않는 들꽃이구만.》
《하지만 얼마나 고와요. 하늘색이 그대로 물든것 같아요.》
변주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저쪽 이름모를 산꽃들이 하얗게 피여있는 섬기슭으로 뛰여갔다. 그는 잠간사이에 물기가 축축한

들꽃을 한아름 뜯어가지고와서 한순정에게 내밀었다.
한순정은 흰 교복 앞섶이 젖는줄도 모르고 그 축축한 들꽃묶음을 봉긋한 가슴에 안은채 빙그레 웃었다.
《고마와요.》
두사람은 물결이 소리없이 굼실대며 흐르는 강변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난》 하고 변주설이 문득 걸음을 멈추며 약간 갈린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순정동무가 졸업후에도 내곁에 함께 있어주리라고 믿소.》
《고마와요. 하지만 난 졸업하면 농촌학교 교원이 되고싶답니다. 아니면…》
한순정은 아침이슬에 푹 젖은 교복치마 아래도리를 내려다보며 얼굴을 붉혔다. 어쩐지 군복을 입으면 먼곳의 옛동무곁에 가까이 가는것으로 생각되였기때문이였다.
《아니, 동문… 내 말을 다 알아듣지 못했소.》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색조가 다른 변주설의 어조에 한순정은 얼핏 눈길을 들었다. 그 녀자는 청년의 눈에서 이상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야릇한 광채가 번뜩이는것을 보았다.
《난… 동무가…》
변주설은 더듬거리며 그 녀자앞으로 바투 다가섰다.
《순정동무, 다감한 녀성인 동무가 그렇게두 내 심정을 몰라주우? 난 동무를 사랑하오!》
《?!…》
별안간 두사람은 숨소리가 끊어져버린것 같았다. 바람결에 버드나무가 소연하게 설레이는 소리만이 두사람의 가슴을 흔들었다.
그러자 한순정의 손에서 들꽃묶음이 소리없이 떨어져 축축한 땅바닥에 딩굴었다.
《아니예요. 그런 말 마세요! 사랑이란 그렇게… 평범한 말은 아닐거예요! 내 가슴엔 이미…》
(그래요! 난 이 순간엔 내 마음에 대고 선포할수 있어요! 성일동무, 동무만이 내 가슴속에 간직돼있어요!)
한순정은 얼굴을 붉히며 홱 돌아서서 총총히 강변길을 따라 걸

어갔다. 땅에 떨어진 들꽃송이들이 그 녀자의 발에 짓밟혔다.
…그날 낮, 성탄금이와 함께 구역군사동원부로 떠나면서 순정이가 자기의 수기집에 쓴 글의 마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남아있었다.

…나는 심장의 론리를 믿는다. 이것은 어머니가 배워준것도 아니였고 학교에서 가르쳐준것도 아니였다. 생활이 나에게 준것이라 할가. 나의 가슴속엔 조국을 멀리 떠나 적후에서 밤길을 걷고있는 한 인간이 별처럼 자리잡고있는것이다.
나는 변동무가 오늘 대동강변에서 그 말을 꺼냈을 때 불현듯 더욱 명료히 깨달았다. 변주설에게는 내가 바라는, 내게는 없는 그 무엇, 의지라 할가, 남성적인 완강성이라 할가, 총체로 녀성의 심장을 뒤흔드는 매혹의 힘이 없는것 같다. 마치 향기가 없는 꽃처럼. 그런 나무엔 아무리 백화가 만발했다 해도 벌과 나비가 찾아가지 않을거야.
…나는 등뒤로 그의 지꿎은 눈길을 느끼며 허둥지둥 천막쪽으로 돌아왔다. 천막결 강변에 동무들이 모여서서 웅성거리고있었다.
키가 후리후리하고 늘 얼굴에 엄숙한 표정을 짓고 다녀서 녀학생들이 《위신스끼》라고 즐겨부르는 대학민청위원장이 동무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있었다.
방금 섬에 도착한듯 그의 발옆에서 매생이가 물결을 따라 흔들거리고있었다.
동무들의 얼굴은 굳어져있었다. 어찌보면 비장해보였다고 할가, 격분의 빛이라고 할가.
성탄금이가 나를 보고 황황히 달려왔다.
《탄금아, 웬일이니？》
성탄금은 와락 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뜨거웠다.
《순정이, 전쟁이 일어났대！》
《뭐？ 전쟁이？！…》
《미국놈들이 끝내 전쟁을 일으켰대. 위원장동무가 그러는데 오늘 새벽에 리승만괴뢰군이 38선 전역에서 침공을 개시했다누나. 벌써 대학에선 남동무들이 군사동원부로 달려갔대！ 그 동무도…》
성탄금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다급히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문득 녀성적인 촉감으로… 그를 생각했다.

그 동무는 어디에 있을가? 이 땅 어디에서 이 준엄한 전쟁의 첫날을 맞고있을가? 아, 나에게 날개라도 있었으면? 만리경이라도 있었으면! 벗에게로 훨훨 날아가 정다운 그 모습을 볼수 있으련만! 성일동무, 부디 몸성히 싸워주세요. 동무를 기다리는 한 평범한 처녀가 이 순간도 그리움에 타는 가슴을 안고 정든 땅에 서있음을 알아주세요. 리별의 시각부터 상봉의 시각이 가까와온다고 전 믿고 있어요! 기다리는 마음 백년이 가도 변함이 없어요! 성일동무, 저도 전선으로 나가겠어요!…

나는 평양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은 행복과 평온이 흐르는 평화로운 그 하늘, 나의 눈앞에는 그 푸른 하늘로 불구름이 타래쳐 오르는것 같았다. …

《아, 순정동무, 여기 있는걸 여태 찾았소.》

변주설의 목소리에 한순정은 추억에서 깨여나 건반우의 손길을 멈추었다. 변주설은 회색양복을 입은 체소한 사나이와 함께 련습장에 들어섰다. 한순정은 자기를 찬찬히 보는 낯선 사나이의 지꿎은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인사하오, 순정동무. 이분은 이름있는 극작가선생인데 내 사촌형이요.》

변주설이가 낯선 사나이를 가리켰다.

한순정이가 가볍게 머리숙여 인사하자 극작가는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친절히 손을 내밀었다.

《내가 변태설이요. 마침 하나의 가극대본을 구상하고있는데 오늘 주설이의 반연으로 주인공감을 만났구만. 반갑습니다. 시인민위원회 문화처에서도 찬성할거요!》

《아이, 전 피아노가 전문인데… 잘못 알고 오셨어요.》 하고 한순정은 그의 손길을 못본체하고 변주설에게 의아한 눈길을 던졌다.

《순정동무, 이분은 며칠전에 동무와 성탄금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셨다오.》

《그건…》

한순정은 얼굴을 확 붉히며 눈길을 내리깔았다.

변태설은 한순정의 얼굴과 몸매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놀랍다는듯 두팔을 벌려보였다.

《놀랍소. 참 놀랍소! 조선에 이런 진선미를 갖춘 미인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소. 처녀동무, 나의 말을 무례하다고 욕하지 마시오. 여보게 주설이.》 하고 변태설은 사촌동생을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난 지난해 미인콩클 선정 최종심사석에 앉아있었네. 오늘 이 자리에 심사원들이 없는건 하나의 비극이요! 매혹적이요. 현혹적이요!》

변태설은 마치 훌륭한 명작품이라도 감상하는 사람처럼 한걸음 뒤로 물러선채 한순정을 찬찬히 뜯어보며 웨쳤다. 한순정은 이 괴벽스러운 신사의 야단스러운 노죽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것인지 방향을 못잡고 서성거리다가 그만 당황해버리고말았다. 성을 내기에는 상대방의 태도가 너무 감동적이였고 외면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치 않았다. 어쩌면 조롱을 받는것 같은 모욕감도 들었으나 상대방의 눈길을 보고는 그에 대한 반응을 도저히 표현할수 없다는것을 느끼게 되였다. 그렇게 변태설은 감동적인 진실한 표정을 짓고있었던것이다.

《원, 형님두, 사람을 앞에 놓고 무슨 말을 그렇게…》

낯이 두꺼워 이른바 《무대심장》이 있다는 평을 듣는 변주설이마저 얼굴이 벌겋게 되여 이 수선스러운 극작가를 흘겨보았다.

《아니요. 레오나르드 다 빈치도 〈모나 리자의 미소〉를 그리면서 이런 모델은 고르지 못했을거요. 이건 발견이요. 발견! 난 한때 수잔나양을 미인으로 보았는데…》

변주설이 한곡 연주하라고 부탁했다.

한순정은 다소 굳어진 자세로 의자에 앉아 그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 전사한 종군작곡가의 《병사들은 전선으로 가네》를 연주하였다.

《힘있소, 혁명적랑만이 있소! 난 방금 음악을 들으며 빠리콤뮨용사들을 생각했소.》 하고 변태설이 서두르며 말했다. 《우리가 아는 고전곡을 탈순 없겠소? 아가씨, 미안하오. 우린 아직 과도적인테리니까. 아직 우리는 고전음악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소.》

한순정은 변태설의 말에서 일종의 야유를 느꼈다. 자기에게서 그 어떤 고전곡도 들을수 없으리라는 확신에 가까운 그런 목소리

였던것이다.
한순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련습곡으로 손풀이 하던 곡을 하나 타기 시작했다.
취한듯이 피아노연주를 듣던 변태설이 감동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확실히 쇼팡은 인간감정의 밑바닥을 리해한 천재요.》
한순정은 방그레 웃었다.
《선생님,이건 슈벨트의 〈들장미〉랍니다.》
변태설과 함께 변주설의 얼굴이 똑같이 수수떡처럼 붉어지였다. 한순정은 이 순간 그들의 얼굴모습이 신통히도 같아보이는데 놀랐다. 그것은 자연적인 우연한 닮음이 아니라 사촌형제들 사이의 혈연적인 닮음새였다.
마침 수녀복과도 같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간호원들이 쓰는 흰 수건으로 머리를 싸맨 인상적인 검은 눈매를 가진 한 녀인이 방에 들어서지 않았다면 변태설의 거북함은 더 오래 갔을것이였다.
수녀복차림의 묘령의 녀인은 조심스레 피아노앞으로 다가오더니 뚫어지게 순정이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전 지나가다가 귀익은 곡조에 끌려들어왔어요.》 하고 그 녀자는 한순정과 변태설을 깔끔한 눈매로 바라보았다.
웬일인지 이 순간 한순정이 보기에는 변주설의 얼굴에 약간 놀란 빛이 떠오르는것 같았다.
《당신은 이 극장에 있는가요?》 하고 한순정은 그 녀자의 매끈한 얼굴이며 매력있는 검고 커다란 눈을 유심히 건너다보며 물었다.
《순정동무,이 녀인은 어제부터 출근하는데 극장관리원이라오.》
변주설이 녀인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소개했다.
《당신은 어디서 피아노를 배웠는가요?》
그 녀자는 변주설에게 쌀쌀한 눈길을 보낸후 다시 물었다. 그 목소리는 호기심이 담긴 따뜻한 음조였다. 한순정은 얼핏 가슴앞에 모아쥔 그 녀자의 희고 가느다란 두손을 쳐다보고 그가 피아노수업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 어떤 야릇한 친밀감이 생겨나는것을 느꼈다.
한순정은 방그레 웃으며 의자에서 일어섰다.
《전 평양에서 음악학교를 다녔답니다. 전쟁으로 채 졸업은 못했지만…》

《그러세요?》 하고 묘령의 녀자는 한순정의 대답을 다정한 미소로 받아들이며 하얀 이를 드러내보였다. 《정말 부럽도록 연주가 생동하군요.》

《당신도 전문교육을 받은것 같은데…》

《아, 아니예요. 그러나 절 제자로 받아준다면 감사히… 그럼 전 이만 실례하겠어요. 참 안됐어요!》

그 녀자는 한순정의 눈길을 피하며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더니 총총히 련습실에서 나가버렸다.

변주설은 양복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마의 땀을 씻었다.

제 7 장

문용채는 8군정보부 원탁회의실에서 참모회의가 끝나자 급히 밖으로 나왔다. 련락장교단에 있는 림송대위에게 부친의 주식회사문제와 관련하여 전화를 걸 시간이 되였던것이다. 최근 부친은 레이몬드 아담스의 경제사무소와 합영하여 군수품다이야판로를 열어 대폭리를 획득하였다. 문용채는 그중 일부를 미국딸라로 전환하여 워커중장과 에니스준장에게 조용히 가져갔다. 그는 속으로 먹은 소가 똥을 눈다는 속담을 상기했다. 그의 경제심리적예감은 적중한것이였다.

문용채는 며칠전 대구교외에 위치를 정한 《한국》련락사무소 소장으로 정식 임명되였던것이다. 이 인사조치는 그에게 눈부신 앞날을 약속하고있었다. 련락사무소는 8군사령부 정보부소속 기관으로서 에니스준장이 구상하는 특수전략부대의 모체였던것이다. 비록 소장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에니스준장은 물론 보좌관 아이부스대좌앞에서도 기를 펴지 못하리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톤의 지지밑에 흑막속의 사령관으로 임명된 라이리 에니스준장이 직접 지휘하는 이 특수부대가 앞으로 전쟁에서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리라는 확신은 문용채로 하여금 인생에 대한 락관을 가지게 하였다. 륙군정보국 대령의 계급장을 달고도 미군 하급장교들앞에서 굽신거려야 했던 정보련락장교단생활은 그에게 있어서 고통스

러운 나날이기도 했던것이다. …

밖에서는 보슬비가 점차 세찬 폭우로 변해가고있었다. 물기에 번들거리는 승용차들이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발동을 걸고있었다.

문용채대령이 몸을 움츠리고 현관을 내려서는 순간 누군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문용채는 흠칫 놀라며 다가선 앙바틈한 사나이의 모가 진 메마른 얼굴을 바라보았다. 브라운 겐지로소좌였다.

《대령,잠간 실례할가?》

겐지로의 어조에는 뜻밖에도 흥분이 비껴있었다.

《난 지금 국군륙군본부로 가야 하오.》

문용채는 벌써 정문을 빠져나가는 승용차들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며 마뜩지 않게 말했다. 문용채는 전번 위암동아지트사건을 놓고 겐지로가 자기를 걸고들며 옴니암니하는바람에 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있었던것이다. 외견상 지난 시기 가졌던 친분관계는 이미 깨여져버렸던것이다.

《대령,당신의 조언이 필요해서 그러오.》

겐지로도 지난날처럼 너나들이를 못했다.

《그럼 가면서 들읍시다.》

승용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겐지로는 품속에서 몇장의 사진을 꺼내 문용채에게 내밀었다. 문용채는 사진을 받아들었으나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겐지로가 손전등을 켰다. 문용채는 방바닥에 쓰러진 젊은이의 시체와 여러 형태의 탄알들과 탄피들을 보았다.

《물론 난 당신네 국군방첩대가 캐논방첩기관과의 협의없이 이번 공작을 조직한데 대한 시비는 더 가르려 하지 않소. 당신들은 응당 반탐사업에서의 독자성도 가지고있으니까. 림송대위의 개입에 대해서도 그가 에니스준장의 비밀련락장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오. 그러나 도꾜의 방첩본부로 떠나기에 앞서 합의볼것이 있소.

우리는 이 정체불명의 접선자의 시체와 그의 총탄을 맞고 희생됐다고 추상되는 네명의 씨아이씨성원들에 대한 부검을 하였소.》 하고 겐지로는 침착한 어조로 사진을 짚어보이며 설명했다. 《보시오. 접선자는 두개의 권총을 사용했소.

하나는 프랑스제이고 하나는 우리가 흔히 쓰는 콜트권총이요. 당신들이 밀봉교육을 준 녀인과 세명의 죽은 씨아이씨장교의 몸에

서 발견된 탄알은 이자의것이 분명하오. 그런데 현관계단에서 사살된 한 장교의 몸에서 나온 총탄을 자세히 보시오. 이것은 사살된 다른 장교들의 몸에서 나온 두가지 형의 총알과 어딘지 모르게 차이가 나오. 이상하지 않소?》

겐지로는 전지불을 껐다. 그의 눈길은 어둠속에서도 번쩍이고있었다. 문용채는 심상한 얼굴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러니 소좌는 한명의 우리 장교를 쏜것은 죽은 접선자가 아니라는거요?》

《부검결과는 그것을 증명하고있소.》

《당신은 한마디로 소위를 명중시킨것은 림송대위의 권총이라는걸 나에게 납득시키려는게 아니요?》

《글쎄… 만약 제3의 붉은 정탐이 없었다면… 어쨌든 그 장교를 사살한 총탄은 대단한 명사수의 솜씨였소. 심장의 중심을 명중했거든.》

겐지로는 쓰거운 랭소를 짓고 사진들을 걷어넣었다. 순간 그의 눈길이 번쩍였다. 인간이란 뜻하지 않은 계기에 섬광과도 같은 령감이 떠오르는법이다.

그것은 남의 말과 행동의 세부에서도 얻지만 때로는 입밖으로 내여보낸 자기 말에서 암시를 받을수도 있는것이다.

지금 문용채는 겐지로의 눈길이 갑자기 번쩍이는것을 의아하게 생각할뿐이였다.

(명사수라…) 하고 겐지로는 이 순간 생각하였다. (림송의 문건에는 그가 하버드대학시절 아마츄어사격경기에 참가하여 은메달을 받았다는것이 기록되여있다. 생활에서 우연이란 있을수 없다. 먼거리에 있는 장교의 심장을 명중한 그가 왜 가까이 있는 《알파》몸을 벌둥지처럼 만들어서야 죽였겠는가?… 이걸 검토해봐야 한다!…)

문용채 역시 문제가 간단치 않다는것을 예감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림송을 의심할만한 타당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 사건에 자기가 직접 개입되여있었고 겐지로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목격자였기때문이였다.

《소좌, 난 당신의 협의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오. 결국 그 장교를 명중한것도 콜트권총탄이였소. 탄알은 거리와 또 열을 받는 정도에 따라 달라지오. 그리고 탄창을 갈아끼울 때도. 또 한가지, 그 접선자가 림송의 총알을 맞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소? 우

리 장교들속에는 그를 명중했다고 자신있게 나서는 사람이 없소.》
겐지로는 이 물음에 대답할수 없었다. 겐지로가 약간 풀이 죽어버리자 문용채는 담배를 피워물며 너그럽게 웃었다.
《겐지로씨, 당신은 지금 우리가 에니스준장의 특수부대준비로 분망하다는걸 잊었소? 시체는 아픔을 모른다지만 난 당신이 이런 비상시국에 죽은 사람의 몸에 칼을 대는것으로 시간을 너무 랑비하지 말기를 바라오.》
문용채의 말에 겐지로는 울기가 치미는듯 갈린 목소리로 어성을 높였다.
《대령, 정보장교인 당신이 그런 말을 하나? 정보전은 이런 비상한 정황에서는 그야말로 분초를 다툰다는걸 잊지 마우! 실례하겠네!》
겐지로는 운전사의 등을 두드려 차를 세우더니 신경질적으로 승용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문용채는 모욕감으로 얼굴이 달아올라 그가 사라진쪽을 한참 쏘아보았다.
(쪽발이같은놈, 유다같은 자식… 네가 더러운 중고품양복을 입고 유곽이나 나들며 형사노릇을 할 때 난 당당한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국군의 창설에도 이 문용채는 피와 땀을 바쳤단말이야! 미군복을 입고있지만 너같은건 정보계에서 안중에도 없어! 소좌인 주제에 감히 누구앞에서…)
《대령님.》 문용채의 기분을 돌려세우려는듯 부관이 뒤를 돌아보며 머뭇거렸다. 《회의도중에 전화가 왔는데 철직된 채병덕참모총장의 행방을 씨아이씨가 밝혔답니다.》
《채병덕의 소식을?》
문용채는 흠칫 놀라며 부관에게 눈길을 주었다.
《예, 그는 자살한것이 아니라 인민군의 저격에 희생되였답니다. 7월 25일 아침 미19련대장 무어대좌와 함께 진주계선의 전선을 시찰하다가 그만…》
문용채는 속이 얼어드는듯하여 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내들었다. 습기때문인지 담배연기가 잘 들어오지 않았다.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알려야겠구만.》
문용채는 넋을 잃은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채소장의 참모인 정래혁소령이 부산으로 떠났답니다.》

채병덕, 같은 사관학교출신이고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가 벼락출세한후 사이가 떠진건 사실이지만 문용채는 정일권 신임《참모총장》과 안면이 없는만큼 채병덕의 락선을 속으로 동정하였었다.

문용채는 두루 속이 좋지 않을 때 채병덕의 희생소식까지 겹쳐들어 울적한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문용채는 겐지로로 하여 상처입은 자존심과 채병덕의 죽음으로 하여 오는 일종의 공포심속에서 피와 땀으로 얼룩진 이 몇해간의 승진의 나날을 돌이켰다.

…미군이 인천과 부산에 상륙한 이후인 1945년 11월 11일 미군정청 운수부장 카스텐소좌의 지시로 손원일과 문용채는 77명의 인원으로 서울 표훈전에서 《해방병단》을 조직하였다.

한편 1946년 1월 군정명령 42호에 의해 이 단체는 《국방사령부 군무국》에 이관되고 곧 《해안경비대》로 개칭되면서 미해군소좌 후끼나의 지휘를 받게 되였다.

1945년 12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전 감리교회학교에 군사영어학교가 발족하였다. 이때 초대명예교장은 브라중좌였고 원용덕이 교장직을 맡아하면서 4개월어간에 200여명의 장교들을 양성하여 《국방경비대》에 배치하였다.

미군정 국방사령부 아고대좌(일명 첸페니대좌)는 일본군, 장개석군, 만군 관계자들인 류동렬, 박승훈, 원용덕, 리형근, 백선엽, 채병덕 등을 중심으로 련대를 편성하였다.

련대입대선서식에는 병사 187명이 참가하였다. 이때 A중대는 채병덕, B중대는 정일권, C중대는 문용채가 맡았다.

태릉은 《국군》의 요람지였다. 1946년 2월 7일 1련대본부 주둔지인 태릉에 《국방경비대사령부》가 설치되였던것이다.

당시 군부의 구성을 보면 일군륙사파의 중심인물들은 리형근, 류재흥, 채병덕, 강문봉, 문용채였고 만군파에는 원용덕, 정일권, 백선엽, 일군학병파에는 리선하, 민기식, 중국파에는 리경일, 유해준, 《국군》준비파에는 라학선, 김병리 등이였다. 이 오합지졸들을 움직인 실제인물은 일군대좌 리응준이였다.

원용덕, 채병덕, 정일권, 리형근 등은 보성전문근처의 리응준사택을 드나들며 《국군》창설문제를 의논하였다. 동년배인 김석원과

신태영도 자세를 낮추어 리응준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미군정청은 이 흑막속의 인물에 대하여 관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느날 리응준은 미군정청 군사국의 초청을 받았다.

미군대위와 함께 이 전달을 가지고간 사람은 다름아닌 채병덕이였다. 사위인 문용채가 리응준을 동행하였다.

몸집이 작고 다부진 가슴에 자세가 꼿꼿한 리응준은 한갖 병기소좌에 불과한 채병덕앞에서 일본군 대좌다운 위엄을 보이려고 무척 노력하였으나 미군정청앞에까지 와서는 서리맞은 배추잎처럼 의기소침해버렸다.

그는 왜정시기 창씨개명을 하여 가야마 다이사라는 일본이름을 가지고있었던 자기의 친일적인 과거를 감추어보려고 어디 가서 퇴색한 조선식두루마기를 걸치고 나왔으나 그것이 오히려 꼴불견이였다.

《아버님은 역시 군복을 입든가 양복을 걸칠걸 그랬습니다.》

보다 못해 문용채가 옆에서 한마디 했다.

그 말에 리응준은 약간 얼굴이 벌거우리해져서 채병덕쪽을 바라보았다.

《왜,이 두루마기가 어울리지 않나?》

《글쎄요. 아마 아고대좌는 군복을 입은 당신을 맞이하길 바랐을것입니다.》

그들은 말없이 옛 《조선총독부》 2층복도를 걸어갔다. 이윽고 203호실 문앞에 멈춰서자 군사국 차장 아고대좌가 정중한 자세로 리응준일행을 맞이했다.

《당신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응접실에 마주앉아 아고대좌는 려송연을 입에 물며 추파를 던졌다.

《나는 몇달전까지도 일본군 대좌였습니다.》

리응준은 소심한 목소리로 많은 의미가 담긴 말을 뱉아놓았다.

아고대좌는 두팔을 벌려보이며 미묘한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당신이 일본 유년학교를 거쳐 륙사를 나왔고 일본 화북파견군사령부에서 부관으로 붉은 세력과 싸웠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하반신이 팽팽하도록 누런 모직군복바지를 입은 미군녀장교가 커피와 위스키잔을 들고 응접실에 들어섰다.

담화는 6시간동안 계속되였다.

그리하여 리응준은 군번 10100을 가진 미군정청 《국방위원회》 고문, 통위부고문으로 《국방경비대》 산파역을 담당하게 되였던것이다. 리응준은 그후 1948년 12월 초대 《륙군참모총장》직에 올랐으나 례의 강태무, 표무원 대대 의거입북으로 사표를 내고 3사단장자리에 옮겨앉았다.

동서양 병법에는 《강을 건느다가 말을 갈아타지 말라.》는 금언이 있다. 1949년 5월 8일 당년 60살였던 리응준소장이 참모총장직에서 물러서자 《국방장관》을 겸하고있던 리범석 《국무총리》는 참모총장 선정의 최종후보자로 로태준, 리종찬, 채병덕을 제기했다. 리승만은 극비밀리에 워싱톤과 련계를 가진후 채병덕의 이름우에 동그라미 표식을 했다.

1948년 7월 30일 《법률 제9호》로 공포된 《국군조직법》 제2장 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참모총장은 국군의 현역최고장교로서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륙해공군을 지휘통괄하며 일체 군정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채병덕은 새 직무에 올라앉자 리응준의 사위자 친구인 문용채를 국일관에 불러 술상을 마주하고 자기는 측근들로 군을 꾸려 련합군 승리의 지레대역할을 한 미륙군참모총장 마샬에게서는 지국과 용인술의 극치를, 프로씨야군참모총장 몰트께장군에게서는 전격전의 전술을 배워 백두산에 기발을 날리겠다고 맹약하였다. …

(하지만 인간이란 자기의 앞날을 한치도 내다보지 못하거든. …) 문용채는 회억에서 깨여나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아리스토 텔레스가 말했던가? 인간은 정치적동물이라고… 채병덕! 너는 인생에서 중용을 지킬줄 몰랐네. 전쟁도 하나의 정치기만극이거든. 어쨌든 난 너의 전철은 밟지 않을테다. 재부와 권력중 그 어느 하나도 양보해서는 안돼! …

그리고 겐지로같은 오작품앞에서도 중용을 지켜야 해! … 그가 저림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것은 무엇때문인가?

흔치 않은 한국계 미국시민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카나다은행에 예금되여있는 막대한 재산때문에? … 어쨌든 나는 에니스와 겐지로 사이에서 진정제역할을 놀면서 림송을 정치, 경제적으로 리용해야 한다! …)

문용채는 어둠질은 대구시가를 망연한 시선으로 내다보았다.

8군사령부 정보부지하실에는 크지 않은 사격장이 자리잡고있었다. 한때는 여기가 악명높은 일본 《무사》들의 훈련장으로 쓰인 일도 있었다 한다. 이미 훈련용기재들은 파괴되거나 사라진지 오래됐지만 사격장만은 겐지로를 비롯한 사격애호가들에 의해 자기의 면모를 보존하고있었다. 사격장은 장교식당 지하에 있었으므로 고급장교들의 식탁에까지 총소리가 들려왔다.

림송은 얼마전에 중좌로 승급한 스테쎌 듀페이와 함께 장교식당을 나오자 규칙적인 총소리가 간간이 울려오는 지하실층계앞에 멈춰섰다.

《림송, 잠간 사격장에 내려가보지 않겠나?》 하고 스테쎌이 회색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림송을 돌아보았다. 《난 오늘저녁 브라운 겐지로씨와 일종의 결투를 하게 되네. 그는 사격에선 지투적으로 자기를 당할 명사수가 없는것처럼 생각하고있더군. 씨아이씨장교만이 목표를 명중할수 있다는 견해를 좀 바로잡아줘야겠네.》

《그러니 나더러 립회인이 돼달라는건가?》

림송은 빙그레 웃으며 그를 마주보았다.

《그렇네. 겐지로씨도 찬성하더군.》

《스테쎌, 겐지로가 질투심이 강한 장교라는걸 모르고있지 않겠지?》

《그래서 난 그에게 내가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장교라는걸 알려주고싶네.》

《스테쎌, 씨아이씨장교의 눈밖에 나는게 두렵지 않나?》

《림송.》 그는 갑자기 음성을 낮추며 회색눈을 가늘게 쪼프렸다. 《자네도 이젠 내가 에니스의 하급부관이 아니라 당당한 보좌관이라는걸 알테지. 난 지금 지난 세기 독립전쟁에서 무훈을 세운 나의 조부 앙드레 듀페이장군도 존엄있는 중좌시절을 거쳤으리라 믿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자넬 듀페이중좌라고 불러야겠구만. 권위있는 성이 아닌가!》

림송은 웃으며 그를 마주보았다.

《그렇게 불러주면 감사하겠네.》

스테쎌 듀페이중좌는 어깨를 으쓱했다.

듀페이는 며칠전 에니스가 《한국》련락사무소 수석책임자로 되는것과 함께 그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였다. 에니스는 프랑스와 카나다에서부터 자기의 충실한 부관으로 일해온 듀페이에게 일정한 믿음을 주었던것이다.

요즘 듀페이는 도꾜에 다녀온 다음부터 사무엘의 리익과 자기의 리해관계를 위한 꾸준한 《경제정보》에 몰두하고있었다. 결국 그는 림송의 주선으로 출세를 위해서는 오른손을 에니스와 잡고 생활을 위해서는 왼손을 사무엘과 잡았던것이다.

림송과 듀페이가 지하사격장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사격훈련을 끝낸 겐지로가 지투장교들과 함께 탄산수를 마시고있었다.

《소좌, 준비가 다됐소?》 하고 듀페이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총신이 약간 긴 사격용권총을 집으며 겐지로에게 물었다.

《난 당신에게 련습해볼 시간을 주겠소. 스테쎌!》

겐지로는 듀페이와 함께 나타난 림송을 의미있는 눈길로 쳐다보며 탄산수가 든 고뿌를 상에 내려놓았다.

듀페이는 권총을 거꾸로 들고 총신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히죽이 웃으며 겐지로에게로 돌아섰다.

《사수는 늘 준비돼있어야 하오. 적수는 련습할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 당신은 뭘 걸고 하겠소?》

듀페이의 말에 겐지로의 얼굴은 험상궂게 이그러졌다. 그는 랭랭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사격좌지로 다가갔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채 중얼거렸다.

《난 당신이 명예보다도 술을 더 즐긴다는걸 알고있소. 저 일곱개의 술잔을 전부 명중한 사람에게 나뽈레옹꼬냐크를 한병 내기로 합시다.》

둘러섰던 장교들이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쳤다. 듀페이중좌의 얼굴은 대뜸 수수떡처럼 붉어졌다. 림송은 사격장 한쪽 구석의자에 앉아 사격대앞에 선 두 장교를 바라보았다.

(겐지로가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사격경기에 열을 올리는가?)

림송은 평범한 순간속에 깃든 의미를 찾아보려고 주의를 집중했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었다.

(위암동아지트사건후 에니스는 왜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가? 추

궁도 칭찬도 없다. 일언반구없는 속에 순간이 흘러가고있다. 그것은 나날이 되고있다. 그 나날속에 사태는 급변하고있다. 에니스가 《한국》련락사무소를 타고앉았으며 문용채가 소환되였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얻어진 자료이다. 그렇다면 전략정보부대는 이 련락사무소를 모체로 하는가? 분명 나에게 겐지로일로 해서 자갈을 물리운 문용채는 에니스앞에서 나에 대한 혹평을 못할것이다！…)

림송은 듀페이의 얼굴을 보고 그가 적지 않게 흥분했다는것을 알아보았다. 흥분은 사격수에게 있어서 금물이였다. 자기 상관인 도꾜 캐논중좌의 습관을 따라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면 권총사격으로 잠을 털어버린다는 겐지로는 만만치 않은 적수였다. 매개인의 사격술은 그의 성격의 발현이라는것을 림송은 잘 알고있었다. 림송은 사령부를 곧 떠나게 될 듀페이중좌가 불행하게도 상대자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되였다.

목표는 30메터가량의 거리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허리가 잘룩한 일곱개의 술잔이였다. 목표물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각각 한조씩 사격수의 정면에 놓여있었다. 화약내를 맡은 일선장교라 해도 그만한 거리에서 한두개 맞힌다면 그것은 대단한 실적일것이였다. 먼저 겐지로가 사격용권총으로 목표를 겨누었다. 총소리는 띠엄띠엄 울렸다. 탄알은 여섯개의 술잔을 명중했다. 목표대우에는 한개의 술잔과 몇개의 술잔꼭지들이 남아있었다. 겐지로의 사격술은 대단한것이였다. 장교들의 얼굴에는 감탄하는 빛이 력력히 떠올랐다. 겐지로자신에게도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였다.

오늘과 같은 성적은 최근 그에게서 찾아볼수 없었던것이다. 지투는 물론 사령부적으로도 세개이상의 술잔을 명중하는 장교가 드물었다. 듀페이중좌의 차례가 되였다. 림송의 우려는 부질없는것이였다. 듀페이중좌는 실천력이 강한 장교라는것이 판명되였다. 림송은 그가 이 몇해사이 사격술이 급격히 늘었음을 알았다. 그는 천천히 매개 목표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 처음 장교들은 일곱개의 술잔이 다 맞은줄 알았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개만은 충격을 받아 넘어졌을뿐이였다. 꼭지는 한개도 남지 않았다. 지투장교들속에서는 꼭지가 남아있을 때 더 사격술이 좋은것으로 평가되였었다. 결국 사격경기는 무승부로 끝나버렸다. 두사람 다 고급꼬냐크생각을 잊어야 했다. 겐지로는 저으기 불쾌해하면서도 다소 놀란 눈빛

으로 듀페이를 건너다보았다. 듀페이중좌는 그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존경할만한 상대였던것이다. 듀페이중좌의 얼굴에는 결코 승리자연한 빛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다. 겐지로는 그와 악수한후 얼핏 무슨 생각을 굴리더니 천천히 림송에게로 걸어왔다.

《림송대위, 난 당신도 오타와의 동양교육쎈터시절부터 명사수로 알고있는데 나와 겨뤄볼 생각이 없소?》

(이자가 드디여 도발을 거는구나. 그런데 그 도발의 성격은 무엇인가? 어쨌든 불은 불로 꺼야 한다. 대담하게 맞받아나가자. …)

림송은 빙그레 웃으며 유심히 그를 올려다보았다.

《겐지로씨, 방금 당신들 두 장교의 사격시간은 얼마였습니까?》

림송의 뜻밖의 물음에 떠들어대던 장교들은 입을 다물고 그에게로 시선을 모았다.

겐지로의 눈은 침착하게 림송의 얼굴표정을 살폈다.

《일곱개의 목표를 쏘는데 나는 21초쯤 걸렸고 듀페이중좌는 36초쯤 걸렸소.》

《난 그렇게 속도가 뜬 사격경기에는 참가해보지 못했는데요.》

림송의 얼굴에는 유감스러워하는 빛이 가득찼다.

겐지로의 옆에 섰던 장교들은 림송의 대답에 서로 마주들 보며 폭소를 터뜨렸다. 림송의 말은 그들에게 하나의 기지있는 익살로 느껴졌던것이다.

겐지로는 무뚝뚝한 얼굴로 림송을 향해 한걸음 다가왔다.

《림송대위, 당신은 나를 놀리는거요?》

그의 얼굴은 다시 사나운 본색으로 돌아갔다. 림송은 미소를 지우지 않은채 그를 마주보았다.

《난 당신의 사격술을 평가한건 아닙니다.》

두사람의 눈길이 예리하게 부딪쳤다. 갑자기 지하사격장안에는 침묵이 깃들었다. 어디선가 물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새삼스럽게 먼지섞인 습한 곰팡내가 목을 자극했다.

겐지로는 자제력을 잃지 않으려는듯 홱 돌아섰다. 그리고는 곁에 서있는 키가 큰 중위를 흘겨보았다.

《중위, 새로운 목표를 준비하시오.》 하고 겐지로는 다시 림송에게로 돌아섰다.

《나는 오늘 듀페이중좌와 같은 명사수를 일생에 처음 알게 되

였소. 림송대위, 당신은 나의 제의를 거부할수도 있소. 당신의 명예는 손상되지 않을거요.》
분명 겐지로는 참모학교를 나왔다고는 하지만 군사복무년한이 짧은 림송에 대해서는 듀페이중좌앞에서 취하던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고싶어하는것 같았다. 림송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소좌님, 술잔 하나에 나뽈레옹꼬냐크 한병씩 걸고 하면 어떨가요? 두차례의 경기를 참을성있게 립회한 장교들에게 꼬냐크 한병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겐지로는 아무 대답없이 눈을 번쩍이더니 사격대앞으로 걸어갔다. 장교들은 숨을 죽이고 그를 주시했다. 곧 총성이 울렸다.
겐지로는 이번에는 다섯개의 술잔을 명중하였다. 사격시간에 대한 림송의 비난이 그에게 심리적인 작용을 한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단축한 시간이란 얼마 되지 않았다. 사격시간은 듀페이중좌와 키큰 중위가 측정하였다.
겐지로는 림송이 유연한 걸음으로 사격대앞으로 다가갈 때도 마음을 조이지는 않았다. 다섯이란 수자는 결코 적은것이 아니였던것이다.
림송은 키큰 중위가 내미는 총신이 긴 사격용권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군복주머니에서 콜트권총을 꺼내들었다. 장교들의 얼굴에는 의아한 빛이 나타났다.
듀페이중좌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림송대위, 당신은 너무 객기를 부리는게 아닌가?》 하고 그는 약간 불안이 깃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의 솜씨를 알지만 사격용권총을 물리치는건 지나친 모험이야.》
림송은 듀페이중좌를 돌아보며 빙그레 웃었다.
《중좌, 사격용권총을 항상 주머니에 넣고다닐수는 없네. 그것으로는 생동하는 적수의 심장을 겨누기가 불편할테니까.》
림송은 홱 돌아서며 권총든 손을 쳐들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한순간 림송은 생각에 잠겼다. (이자가 나를 사격경기에 끌어들인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사격술을 보여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적당히 넘겨야 하는가? 이것이 위암동아지트사건과 이어져있지 않을가? 그때 다른 실수는 없었는가?… 아니다. 적당히 쏴서는 안된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나의 사격술을 알고

있는 듀페이가 지켜보고있다. 오히려 나의 사격술을 최대로 보여줌으로써 브라운 겐지로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8군장교들의 인기를 모을 필요가 있다. 나의 명예는 오늘중으로 8군사령부관내에 알려질것이다.

겐지로! 너는 알아야 한다. 어느때든 나의 총알은 너의 심장을 한치의 편차도 없이 꿰뚫을수 있다!…)

림송은 자세를 가다듬었다. 어딘가 모르게 조형적인 그의 몸에서는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 어떤 강한 열정과 세찬 활력이 넘쳐흘렀다. 겐지로가 보기에 그는 목표를 별로 겨냥하는것 같지도 않았다. 거의 련발에 가까운 사격소리가 울렸다. 화약연기가 사라지자 장교들은 목표대우에 뾰족뾰족한 술잔대들만이 가지런히 남아있는것을 보았다.

한동안 장교들은 넋을 잃고 입을 벌리지 못했다.

《장하오! 림송대위, 당신은 불과 7초동안에 목표를 전부 명중했소!》

문가에 서있던 나이지숙한 대좌가 큰 소리로 말했다. 장교들은 모두 그쪽을 돌아보았다. 림송은 그가 에니스준장의 보좌관이며 대리인인 아이부스대좌임을 알아보았다. 대좌가 사격장에 나타난것은 뜻밖이였다. 림송은 차렷자세로 그에게 례의를 표시하였다.

겐지로가 림송의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림송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약간 석쉼한 목소리로 조소하듯 말했다.

《림송씨, 당신은 나를 매혹시켰소. 난 우리가 앞으로 훌륭한 친구가 되리라는 예감이 드오. 난 권총을 쥔 당신의 손이 전혀 떨리지 않는것을 보고 놀랐소.》

《감사합니다. 소좌님, 난 원쑤의 심장을 겨눈다고 생각하면 손이 떨리지 않는답니다.》 하고 림송은 웃으며 그가 내민 손을 잡았다. 《당신이 유쾌한 시간을 마련해준걸 잊지 않겠습니다. 난 아슬아슬한 결투를 좋아하니까요. 오늘저녁 꼬냐크는 이런 의미에서 내가 내지요. 자, 장교제씨들, 장교식당으로 갑시다!》

림송의 말에 장교들은 저마끔 탄성을 지르며 그의 주변에 모여들었다. 림송은 그속에서도 듀페이중좌곁에 서있는 겐지로의 얼굴을 얼핏 바라볼수 있었다.

겐지로의 얼굴에는 그 무엇인가를 확인한듯한 일종의 만족의 빛

과 랭소가 한데 어울려 이상한 부조화를 이루고있었다.
아이부스대좌가 장교들을 비집고 림송에게로 가까이 갔다.
《대위, 장교식당으로 떠나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요.》 하고 그는 다소 실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지금 에니스준장이 당신을 기다리고있소. 당신은 대좌가 대위를 찾아다니는데 20분이 걸렸다는걸 알아야겠소.》
《미안합니다. 대좌님, 그러면 한시간후엔 친구들을 만날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도 될가요?》
《물론이요. 이 대구땅에서 당신을 체포할수 있는 사람은 이 겐지로소좌뿐이니까.》
림송은 자기 등뒤로 선망과 존경과 질투의 눈길을 느끼며 아이부스대좌를 따라 지하실층계를 올라갔다.
라이리 에니스준장은 커다란 몬스테라화분이 놓여있는 창턱에 우두커니 서있다가 방으로 들어서는 아이부스대좌와 림송을 무표정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림송은 그의 쌀쌀한 눈초리를 보자 저으기 불안스러웠다. 지금까지 림송을 대하던 그의 태도는 부드러우면서도 친근한것이였다.
림송은 그 어떤 심상치 않은 불길한 일이 자기를 기다린다고 생각되였다.
아이부스대좌는 상관의 엄한 눈초리에 기가 질려 슬며시 방에서 나가버렸다.
에니스준장은 그냥 뒤짐을 진채 침착한 자세로 서있는 림송을 찬찬히 눈여겨보더니 그의 앞을 씽 지나 출입문쪽으로 걸어가며 짤막하게 말했다.
《대위, 따라오시오.》
에니스와 림송은 복도로 나왔다. 그는 준장의 뒤를 따라 걸으며 상념을 톺아갔다.
(이 늙은 장령의 괴벽한 성격은 이미 사령부적으로도 많은 일화를 창조하고있다.
그는 옥스포드대학을 다니고있는 자기 딸에 대해서 누가 상기만 한다면 순간에 표표한 낯빛을 부드럽게 바꿀수도 있다고 했지.
칠면조같이 종잡을수 없는 얼굴표정을 한 로회한 정탐가… 라이리 에니스… 그런데 오늘 에니스준장의 류다른 태도는 무엇을 말

해주는가? 혹시 위암동아지트사건때문인가?…)
그러는사이에 에니스준장은 8군정보부장의 방문앞에 멈춰섰다. 자동총을 든 보초병들은 물론 그에게 증명서를 보자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방에 들어섰다. 림송은 이 방에 세번째로 들어서고있었다.
소장은 비만한 몸을 의자에 묻은채 코안경너머로 림송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장교가 바로 극동군사령부 시블트외교국장이 탐내던 림송대위요?》
정보부장은 몸난 사람 특유의 새된 목소리로 물었다.
《소장, 그렇습니다.》
곁에 그냥 선채로 에니스준장이 대답했다.
《이리 오시오, 림송대위.》 하고 정보부장은 시들하게 손짓했다. 림송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책상우에서 증명서를 펼쳐들었다.
《당신은 얼마전에 8군군사정보부의 특수련락장교로 임명되였소. 당신은 오늘부터 8군사령부 〈련락사무소〉 책임자인 에니스준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될거요. 공훈을 세우기 바라오.》
정보부장은 긴말을 안했다. 아마도 그는 이 임명식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모양이였다. 그는 이미 림송이 에니스준장의 추천으로 지투에 배속되였다는것을 모르지 않고있었다. 림송은 뜻밖의 증명서를 받아들고 차렷자세를 취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림송은 얼핏 증명서를 들여다보았다.
《번호 0257. 림송대위. 8군정보부 특수련락장교. …이 증명서를 가진자는 국제련합국군의 군사통제지역의 어디나 출입할수 있으며 야전군 헌병사령부, 방첩대(국군포함)및 군단, 사단 참모부들은 그의 임무수행을 리유없이 보장할것.

미8군사령관

수표》

한순간 림송은 눈앞이 아찔하면서 흥분을 느꼈으나 인차 랭정해졌다.
(아니다. 난 이제 겨우 조국이 준 임무수행의 두번째 발자국을 짚었다.
현실적으로는 에니스의 심장부에로 한걸음 내짚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오늘의 이 임명식은 에니스를 위시한 미중앙정보국이 특수부대창설준비를 다그친다는것을 말해준다.

결국 그 모체로 련락사무소가 되는것이 아닌가？…)

두 사람은 정보부장의 방에서 오래 지체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오자 에니스준장은 림송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또다시 창가로 다가가더니 려송연을 붙여물었다. 림송은 출입문곁에 까딱도 하지 않고 서있었다. 준장은 재를 몬스테라화분턱에 대고 툭툭 털더니 자기 의자로 찾아가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갑자기 다리가 아픈듯 얼굴을 찡그리며 무릎을 손으로 두드렸다.

아픔은 그의 표표하던 낯빛을 슬며시 풀어버렸다.

《나를 리해해주게, 림송.》 하고 그는 누그러진 지난날의 목소리로 돌아갔다.

《난 오늘과 같은 날에 자네앞에 마음좋은 아바이로 남아있고싶지 않았네.

자네가 정식으로 나의 특수련락장교로 임명받은이상 난 우리 정보일군들사이에 존재하는 질서에 대해서 자네에게 상기시키고싶었네… 난 한때 오타와에서 자네의 양부인 림메르트씨의 친구이자 그의 보좌관으로 있은 사람이야. 자넨 아마 모를걸세. 그는 고결한분이였지.》

《난 당신의 친절한 말씀에 감동되였습니다.》 하고 림송은 다시한번 차렷자세를 취했다. 《나는 이 시각부터 준장님이 나의 엄격한 상관이 되여주길 바랍니다.》

에니스는 다리의 아픔이 멎었는지 담배를 입으로 가져갔다.

림송은 제꺽 재털이를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에니스는 담배재를 털더니 눈가에 잔주름을 모으며 시름겹게 입을 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난 사랑하는 딸을 가진 아버질세. 결국 난 자네의 엄격한 상관으로는 될수 없을것 같아. 딸들은 아버지들을 무턱대고 사람좋은 아바이로 만들어버린단말일세.》

《준장님, 샴팡주를 가져올가요？》

림송은 그가 다시 얼굴을 찡그리자 근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일없네. 차라리 저 장에서 워드까나 한잔 주게… 어, 고맙네. 어떤 사람들은 워드까를 로씨야농군술이라고 비난하지만 난 혼자 있을 땐 늘 이걸 마시지.》 하고 에니스는 림송이 가져온 워드까

를 한잔 들더니 다리를 쭉 폈다. 《이 관절염은 아이젠하워를 따라 유럽을 원정하면서 생긴거지. 내 몸엔 지금 훈장보다도 부상자리가 더 많네.
정탐가의 생애란 결국 그런걸세. 난 이미 자네의 눈초리에서 정탐가의 기질을 찾아보았네. 난 앞으로 자네가 나의 보좌역을 훌륭히 수행하리라 믿네.》
《준장님을 조금이라도 배신할 때에는 어느때든지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주십시오.》
《기지있는 대답일세. 좋아… 그래 요즘 듀페이중좌가 어떻든가?》
에니스는 지나가는 말처럼 문득 물었다.
《그는 하버드대학시절부터 아주 침착한 장교였습니다.》
《성실한 사나이지. 난 자네가 동창생인 그의 진가를 리해할수 있으리라 보네… 무엇보다도 자네는 군사정보국 장교복을 입은 미중앙정보국성원이라는걸 잊어서는 안되네. 이미 극동군사령부는 우리의 존재를 무시못하고있네. 난 이번에 진행될 미군의 상륙전에 기대를 걸지만 결코 전선의 운명을 획변시키리라고 믿지는 않아! 이미 우린 공산주의자들과 싸워봤으니까. 그들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거든. 결국 과학적인 정보전쟁만이 종국적인 승리를 가져올걸세… 아직은 때가 안된만큼 우리는 힘을 키워야 해!》
《앞으로 준장님의 명석한 조언을 기대하겠습니다.》
에니스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젖히더니 명상에 잠긴 어조로 중얼거렸다.
《난 앞으로 대구에서 한국련락사무소를 중심으로 대북첩보부대를 만들 작정이야. 아시아인들이 이 부대의 기둥이 될걸세. 자넨 나의 리상의 실현자로 될걸세. 전번 부산아지트습격사건에서 자네는 명석한 판단력을 보여줬고 공훈을 세웠어! 문용채와 국군특무대장은 보고서에 자네가 8군 씨아이씨의 간섭을 포착하고 미연에 아지트봉쇄의 빈구석을 발견했다고 썼더군.
난 이미 사건직후에 전화를 걸어 자네의 용의주도성을 리해했지. 난 자네의 눈과 사고에서 어제날의 나를 보네. 자넨 발전성이 있는 젊은이야. 자넨 앞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사랑하는 딸 안네뜨와도 만나보게 될걸세.》
《장교들은 당신의 딸이 대단한 미인이라고 나에게 설명해주었

습니다.》
에니스의 얼굴에는 미소가 피여올랐다.
《안네뜨는 나의 자랑일세. 루쏘는 교양이란 제2의 천성이라 했지. 자넨 장령의 딸들이 거만하다는 일반평정을 그애앞에서 내리게 되지는 않으리라 보네.》
《그 녀자가 도고하다면 난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안네뜨양과의 상봉은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것입니다.》
《림송대위, 그러나 조심하게. 자네 주위에선 아련한 눈매를 가진 녀성들이 너무 많이 맴돌거든. 이 늙은이를 욕하진 말게. 난 자네가 자동차에 녀타자수를 싣고 교외로 산책한다는걸 다 알고있네. 그러나 탓하지는 않아. 나자신도 자네시절엔 숱한 염문을 뿌리며 다녔으니까.》
《준장님의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이젠 나도 미인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겠다는 지각이 듭니다. 성적인것이 아니라 인생을 발견할 나이가 되였지요.
인생도 그렇지만 사랑도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단련되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네 입에서 정보장교다운 대답을 들으니 기쁘네. 나는 실용주의를 미국의 철학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에 대한 나의 요구로 받아들이고있지. 학창시절에 나를 총애하던 한 도이췰란드인교수는 이런 일화를 말해준적이 있지. 두 친구앞에 두알의 귤이 식탁에 오르자 한 친구가 먼저 큰 알을 집어들었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남은 작은 알을 내려다보며 얼굴을 찌프렸네.
〈자넨 도덕이 없구만. 서슴없이 큰것에 손이 가다니…〉
첫번째 친구가 물었지.
〈그럼 자넨 어떻게 행동했겠나?〉
〈나야 물론 작은것을 먼저 들지.〉
그러자 례의 친구는 웃었지.
〈그렇다면 내게 큰 알이 돌아올것은 명백하지 않나. 나에겐 그런 도덕적인 제스츄어가 걸치레로, 위선으로 느껴지네!〉
림송, 이것이 바로 미국시민의 성격이야. 두 친구는 저마다 상대적인 륜리관을 가지고있지만 우리에게는 과정이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거든. 이것이 공산주의자들과 서방인들의 차이라고도 볼수 있지.

결국은 승리자에게 진리가 있다는걸 명심하게!》
에니스준장은 술잔을 내려놓고 실눈을 지었다.
《준장님,그 어떤 철학가도 저에게 현대철학에 대하여 그처럼 선명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는것을 이 자리에서 확언합니다. 저는 준장님의 철리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것으로 리해했습니다.》
《자네의 그 두뇌는 나를 두렵게 하누만. 스탕달은 자기의 소설을 백년후의 사람들이 리해할것이라고 했지.》
두사람의 눈길이 한점에서 부딪쳤다. 누가 먼저 시선을 떨구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날 저녁 림송은 약속된 시간에 장교식당에 나타났다. 장교들은 겐지로와 겨룬 그의 사격술의 성공과 그가 보여준 신사다운 태도만이 아니라 군사정보부장교로 정식 임명받은것을 축하하여 잔들을 들었다. 축배사는 오늘 사격경기로 하여 더욱 침착해진 듀페이중좌가 하였다.
물론 이날 축하연에는 겐지로중좌가 빠지지 않았다.
이날은 겐지로에게도 행운의 날이였다. 그 역시 소좌의 견장을 중좌로 바꿔달았던것이다.

라이리 에니스준장은 술잔을 침대우에 던지더니 초조히 앉아있는 두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응접실과 나란히 붙어있는 목욕탕으로 들어가버렸다. 얼굴이 해사하게 생긴 젊은 녀자가 커다란 수건과 실내옷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다.
옛 일본인 저택에 처음 온 문용채는 방에 들어선 에니스에게 차렷자세로 례의를 표시하는것을 잊지 않았으나 준장은 그의 앞을 그냥 무심히 지나쳤다. 문용채는 당황해서인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도움을 청하듯 옆에 앉아있는 겐지로에게 시선을 돌렸다.
겐지로는 에니스의 독특한 성격을 리해하고있는 한사람이였다. 에니스는 인상을 강하게 주기 위해서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믿고있었다. 그의 이러한 심리적인 수법은 많은 경우에 성공하였다. 거듭되는 성공은 곧 하나의 관습을 만들어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의 앞에서는 늘 한가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겐지로

는 그가 사람들이 없는데서는 무섭게 뛰여다니는 정열가라는것을 알고있었다.
에니스는 독선주의자였다. 8군참모부의 주의를 끄는 중대한 음모들은 대부분 남들이 보이지 않는데서 꾸며지군했다. 남들이 보지 않는데서 주도세밀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만단의 준비를 갖춘 다음 에니스는 사람들앞에 돌발적으로 나타났으며 명석한 두뇌를 가진 탐정으로 자처하군하였다.
정탐사업에서의 그의 방법은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것이였다. 그것은 의심으로부터 확인에로 가는것이였다. 이 방법론은 심리적인것이 아니라 행동적인것이였다. 왜냐하면 때로는 의심이 곧 그의 견해의 변종으로 나타나는 경우 확인과정은 무자비성으로 일관되기때문이였다.
그는 일단 자기 심장이 가령 빨간색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면 그것이 검든 희든 빨간색으로 만들고야말았다.
겐지로중좌는 에니스의 이 실용주의적인 방법을 내심으로는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행동적인것보다 심리적인 방법을 존중하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정탐사업에서 형사심리적인 수법을 첫자리에 놓고있었다. 그것은 그가 군인출신이 아니라 형사출신이기때문인지도 몰랐다…
불투명한 유리문짬으로 증기가 꾸역꾸역 새여나왔다. 이따금 목욕탕에서는 물 쏟아지는 쭈르륵 소리와 함께 간드러진 녀자의 웃음소리가 뒤따랐다. 문용채는 이상한 눈길로 춘정이 무르녹는것 같은 유리문너머를 오래도록 주시했으나 겐지로는 무표정한 얼굴빛을 바꾸지 않고 상념에 잠긴채 담배만 풀썩풀썩 피웠다.
《중좌, 우리가 시간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소?》 하고 한참만에 문용채가 조바심을 느껴서인지 불안한 어조로 물었다.
《침착성을 잃지 마오. 이젠 부검자료와 기타 문건을 가방에서 꺼내시오. 5분후면 그가 나올거요.》
겐지로의 예견은 정확하다고 볼수 없었다. 에니스의 참을성은 5분을 넘기지 못했던것이다.
준장은 털이 북실북실 돋은 허우대가 큰 알몸에 실내옷을 대강 걸치고 느린 걸음으로 응접실에 나타났다.
《그럼 말해보오. 문용채씨.》 하고 에니스는 가죽쏘파에 몸을

묻으며 졸리는듯한 눈길로 문용채를 주시했다. 《당신의 외모는 새삼스럽게 나를 놀라게 했소. 특히 그 차거운 눈말이요. 자, 이야기하시오. 간단히 요점만…》

문용채는 얼굴색이 컴컴해져가지고 서둘러 문건철을 펼쳐들었다. 그는 자기의 눈에 대한 준장의 평가에 기가 질린것 같았다. 동료들속에서는 그의 눈을 두고 《코브라눈》이라고 불렀던것이다.

문용채는 위암동아지트사건 전말과 부검 및 기타 조사자료에 대한 《국군》 씨아이씨의 보고서를 거의 읽다싶이 하였다.

그는 조사자료만 말했을뿐 그에 대한 결론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조급한 결론이 이 사건때문에 부산에 체류했던 겐지로중좌에게 불쾌한 인상을 줄수 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기때문이였다.

《당신들은 왜 우리가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는지 리해하고있으리라 생각하오.》 하고 에니스가 턱을 손으로 비비며 입을 열었다. 《그 사건장소에 우리 8군사령부 련락장교단성원이 끼워있었다고 해서만이 아니요. 그 무전실습격사건은 우리가 제공한 정보인 접선자들의 출현 전야에 있었소. 그런데 접선자는 생명을 무릅쓰고 짧은 무전문을 날렸소. 물론 국군정보국장 장도영대령은 그 무전문을 해독하지 못했소. 왜냐하면 당신들의 전파탐지수들은 그 순간 졸고있었기때문이요. 다행히 우리 8군사령부 씨아이씨의 일군들이 마지막부분을 잡고 해독하는데 성공했소. 그건 평양에 아지트가 드러났다는것과 특수전략부대 보급창비밀을 알리는 정보라고 추측되오. 그 당시 비밀을 알고있는 사람은 제한되여있었소. 이것은 우리 사업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였소. 도꾜의 극동군방첩기관 책임자인 캐논중좌도 유감을 표시해왔소. 북조선정탐기관의 손길이 우리의 심장속에 깊이 박혀있다는것은 벌써 주지의 사실로 증명되였소. 죽은자의 뒤에는 흑막속의 인물이 숨어있다는걸 알아야 하오. 수사의 총적목표는 이거요！》

침묵이 흘렀다. 문용채는 최근 정보기관장교들과 접촉하면서 그들이 전쟁행정, 즉 전선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하지 않는다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 의혹은 곧 풀려버렸다. 정탐가들의 매혹의 세계는 때로 정치와 아무런 관련이 없이 펼쳐질수 있었던것이다.…

《왜 말들이 없소？ 겐지로중좌！》

《난 지금 나의 추리와 그 출발점이 개인적인 감정의 영향을 받

지 않았는가 하고 의심해보고있습니다.》
겐지로는 사색에 잠긴 어조로 말했다.
《당신은 일정한 결론을 가지고있는게 아니요?》
《그렇습니다.》
에니스는 문용채에게 홱 얼굴을 돌렸다.
《대령, 당신의 견해부터 들어봅시다.》
문용채는 이미 침착성을 회복하였다. 그는 작고 가는 눈을 재게 깜박거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보더니 서두르지 않고 말했다.
《우리 국군방첩대의 견해는 일치하였습니다. …급한 정보를 가지고 아지트에 도착한 접선자는 우리가 대기시켜놓은 무선수에게서 무엇인가 의심을 가지게 되였을것입니다. 무선수는 접선암호를 모르고있었으니까요. 그는 무선수를 타격한후 무전기에 달려들었습니다. 이때 안방에 있던 녀인이 비명소리를 듣고 나타났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림송대위는 급히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대위가 출입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전문을 날린 접선자가 방어자세로 들어간 뒤였지요. 림송대위가 그자와 치렬한 접전을 할 때 자동신호를 받은 우리 방첩대장교들이 도착했던것입니다. 녀인의 몸에서 나온 탄알은 그 접선자의것이라는게 해명되였습니다.》
《대령, 당신이 림송대위를 아지트로 직접 보냈소?》
불쑥 에니스가 돌발적으로 물었다.
《전번 사건직후에도 준장님께 보고했지만 난 림송대위를 준장님의 련락장교로 생각하고 아지트를 돌아보게 했지요.》
문용채는 대답하며 이마의 땀을 훔쳤다. 사실은 그가 보낸것이 아니라 림송이 아지트봉쇄상태를 돌아보겠다고 부관을 통해 제기한것이다. 하지만 문용채는 이 문제를 까밝힐수 없었다. 더우기 그것은 겐지로앞에서 정보장교의 체면과 능력을 손상시킬것이며 아지트봉쇄를 자기에게 맡긴 에니스준장에게 불신임을 조성할것이다. 이 경우 문용채의 존재란 가련한것이였다.
《…》
문용채의 말에 에니스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 그는 사나운 눈초리를 짙은 눈섭밑에 감추며 겐지로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겐지로는 군복 웃주머니에서 여러장의 사진을 꺼내 차대우에 펴놓았다. 문용채는 함께 이 사건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해온 겐지

로였으므로 그가 자기들의 견해와 다른 론거를 끄집어내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어리석은것이였다.

《나는 귀납적인 추리방법으로 하나의 결론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하고 겐지로는 약간 도고한 자세로 운을 뗐다. 《녀인이 접선자의 사격을 받았다는것은 이미 증명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경우 밀봉교육을 받은 무선수 최남수를 타격한 사람은 녀인을 쏜 접선자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권총탄알은 녀인의 등에 박혔으니까요. 나타난 사실은 접선자가 최남수를 타격했을 때 녀인이 그를 발견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녀인의 손에는 권총이 쥐여져있었습니다. 이 경우 녀인은 제3자의 뜻밖의 사격을 받았다고 볼수 있지요.

문대령은 녀인을 쏜 그 제3자가 바로 죽은 접선자라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에니스는 겐지로가 내민 사진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확실히 문용채의 눈에는 당황한 빛이, 무엇인가 배반당한듯한 쓰거운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 당신은 최남수를 죽인것은 다른 미지의 인물이라는거요?》

《예.》

《계속하시오.》

《두번째로, 죽은 접선자는 세개의 총탄을 받았는데 그중 하나는 림송대위의것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것을 증언했으니까요. 자, 이 사진을 보십시오. 림송대위는 이자로부터 5메터 내지 10메터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검자료는 죽은자가 대략 30메터나 40메터의 거리에서 쏜 세개의 총탄을 맞았다는걸 증명해주고있습니다. 총탄의 파렬구를 보십시오. 법의감정은 정확합니다. 그 거리에는 이 문대령을 비롯한 방첩대장교들이 산개해있었지요.》

문용채에게도 점차 겐지로가 검질기게 지향하는 론거의 목표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이 로회한 사나이는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곳으로 수사를 몰아갔던것이다. 문용채는 어느덧 그의 추리가 정당하다는것을 속으로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계속하시오.》

에니스는 길들기 시작한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문

용채는 그의 얼굴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데 우선 놀랐다.
《셋째로, 나는 며칠전 아주 흥미있는 자료를 얻어쥐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죽은 접선자가 림송이 어느 정도 관계하고있는 경제정보기관인 대구의 레이몬드사무소에 얼마간 근무한적이 있다는거지요. 그는 실지로는 여기에서 〈알파〉라는 이름으로 이 사설 경제정탐기관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겐지로의 세번째 론거는 문용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에게는 늘 몸에서 고급담배냄새가 풍기는 그 이마가 번듯하고 영민하게 빛나는 눈초리를 가진 미남자가 붉은정탐 혐의를 받게 된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문용채는 겐지로의 옆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제는 결론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소? 중좌, 지루하구만…》하고 에니스가 형사심리적인 자기 추리에 도취되여 눈을 가늘게 쪼프린 겐지로를 바라보며 비양조로 말했다.
(저 준장은 도대체 어떻게 된자인가? 겉얼굴을 보고는 전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수가 없는걸. 겐지로의 추리가 그에게는 정말 아무런 자극도 동감도 주지 않는단말인가? 동감은커녕 오히려 목소리에 조소가 비끼지 않았는가! …)
문용채는 에니스의 무표정한 얼굴을 뜯어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겐지로의 미간은 찌프려졌다. 그의 목소리는 갑자기 성병환자처럼 거칠어졌다.
《정보를 손에 쥔 림송대위는 비밀아지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문용채씨를 통하여 이 아지트의 무전기가 살아있다는것을 알고있었으니까요. 그는 방첩대가 잘못고른 비겁하고 무능한 최남수를 쉽게 처리하고 무전기앞에 앉았으나 다음순간 그 녀자의 총구앞에 서게 되였지요. 이때 림송대위의 보좌역인 〈알파〉가 나타나 녀인의 등을 쏘았습니다. 접선도중 〈알파〉가 죽은것은 림송이 우리의 눈에서 벗어날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해주었습니다. 림송은 드물게 보는 명사수지요. 난 그걸 얼마전에 확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알파〉는 여러개의 어지러운 관통상을 입었지요.
명사수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정적순간에 더 예민해지는 법이지요. 전문가들은 방첩장교의 심장을 파렬시킨 총알을 놓고 깜짝 놀라더군요. 림송은 콜트권총을 가지고 30메터 거리에서 꼬냐크

잔을 명중하는 무서운 인물입니다. 준장님, 우리는 그의 훌륭히 위장된 배경과 사교술에 매혹된 나머지 그가 자유주의적인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라는것을 잊고있었습니다. …그런자를 정보장교로 임명한 준장님이 리해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가 꼭 평양과 련결된 붉은정탐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동양교육쎈터에서 정보교육을 받은만큼 영국이나 쏘련, 중공의 정탐기관들에 정보를 넘겨줄수 있다는것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겐지로는 말을 마치자 자신만만한 표정을 감추려고 머리를 숙였다.

문용채는 그의 결론이 뜻밖인만큼 사건당시를 하나하나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고보면 자기가 장교들과 함께 방에 뛰여들었을 때의 림송의 얼굴인상은 이상야릇한것으로 회상되였다. 그러나 리해 안되는 점들도 있었다.

문용채는 깊은 상념에 빠져버렸다.

에니스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래 당신의 빈약한 추리는 그게 다요?》

《예?!…》

겐지로는 크게 놀라지는 않았으나 눈에는 의혹이 실렸다.

《당신은 정탐사업에 형사심리적인 추리방법을 적용하고싶은 모양인데 림송대위가 이미 나에게서 이 문용채씨의 공작방안에 대해 륜곽적으로 알고있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소? 드러난 아지트를 놓고 그가 자기의 생명을 모험할만큼 우둔하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하오. 어떻소? 문용채대령!》

《저도 동감입니다. 림송대위는 방첩대본부로 오던 길에 나에게 위암동아지트를 돌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것은 실례지만 그가 위암동으로 먼저 간것은 그 시각 우리 본부에 와있던 겐지로중좌와 얼굴을 맞대고싶지 않았기때문이였지요… 그는 무전기가 동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집을 포위하게 된다는것도 알고있었습니다.》

문용채는 이미 자기가 림송대위를 변호하는것이 아니라 정탐가로서의 자신의 사업능력을 비호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어쩐지 문용채의 말에 겐지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 론의되고있는것이 겐지로가 진행한 추리의 가장 약한 측면이기때문이였다. 인간의 삶에 대한 애착을 놓고 생각할 때 림

송의 행동은 어쨌든 리해되지 않는것이였다. 에니스는 즉석에서 이 약한 고리를 찾아냈던것이다.

《보시오. 또 나에게는 겐지로씨의 세가지 추리를 반박할수 있는 세가지 대답이 있소. 우선 같은 방에 있던 녀인은 최남수가 쓰러지자 놀라서 출입문으로 달아날수도 있소. 〈알파〉는 이때 그의 등에 대고 사격한후 그 녀자의 몸에서 권총을 찾아내여 손에 쥐여줄수도 있소. 〈알파〉는 아주 침착하고 주도세밀한 사나이였기때문이요.

두번째로, 당신은 〈알파〉의 몸에서 나온 총알은 30～40메터의 사거리에서 쏜것이라 하는데 림송의 권총탄이 가구류나 기타 장애물을 뚫고 가닿았으리라는 추측은 해봤소? 난 이미 그 방의 구조를 촬영한 자료를 연구했소. 난 그의 몸에서 나온 총알에 나무쪼각이나 벽지가 묻어있었으리라고는 보지 않소. …또 열을 받은 총탄은 속도가 떠지는 법이요. 림송이 명사수라는건 나도 알고있소. 여기에도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장교의 심장을 명중한것과 〈알파〉는 별개 경우요. 왜냐하면 직업적인 정탐인 〈알파〉는 사격거리가 가깝기때문에 혼전상태에서 더욱 조심스럽게 응전했을거요. 당신은 세번째 문제에 매우 큰 기대를 걸고있는 모양인데 유감이지만 난 그것때문에 제일 실망했소.》

《아니,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몹시 불쾌해하는 어조로 겐지로가 물었다.

겐지로의 얼굴이 어두워지자 반대로 에니스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난 어제 우리 련락사무소의 벤다프대좌에게 련락장교를 보냈댔소. 벤다프는 〈알파〉의 문건을 보더니 자기들이 나에게 배속되기전에 레이몬드사무소일을 조절감시하려고 지난 7월초에 그를 파견했다는것을 확인했소. 그 확인문건이 보고싶다면 가보시오. 내 책상우에 있소. 중좌! 미안하지만 당신의 추리는 단지 추측에 불과했소.》

《?!…》

겐지로의 얼굴은 납덩이처럼 굳어졌다. 그는 자기가 패했다는것을 한순간 깨달았다. 겐지로는 림송이 8군사령부에 침투한 외국의 정탐이라는것을 거의 직감하고있었다. 그가 미국에 체류한 시대로

보아 대체로 쏘련의 게뻬우에서 파견한 전략정보원의 제2세대일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고있었다.

《알파》에 대한 벤다프대좌의 확인내용을 듣는 순간 겐지로는 거의 육체적인 고통을 느꼈다. 림송대위는 확실히 자기보다 한걸음 앞서 나가고있었다. 그는 입술을 악물었다. 그는 이제 더 에니스의 말에 반박해야 씨아이씨장교의 명예나 손상됐지 아무런 소용도 없음을 간파했던것이다.

겐지로는 오늘 에니스준장에게 중요한 수사정보 한가지를 말하지 않았다.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자기의 《재산》으로 남겨놓았던것이다. 그것은 그 시각 전파가 분명 날았던 아지트의 무전기에 대한 지문감정결과였다.

무전기에는 아무런 지문도 없었다. 바로 이것은 겐지로가 지문감정하기전에 예견한것이였다. 지문이 없는데 바로 문제점이 있었다. 가령 《알파》가 무전문을 날렸다면 공개적으로 그가 지문을 지워버릴수 없다. 왜냐하면 《알파》는 생명을 모험한자, 죽음을 각오한자이기때문에.

이것은 분명 림송이 무전기에 손을 댔다는것을 의미한다. 전문을 날리고 손수건이나 군복소매로 지워버렸을것이다.

이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하지만 지금 겐지로에게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말한다면 또다시 에니스에게 신랄한 조소의 미소를 던질수 있는 유쾌한 시간을 제공해줄것이다.

겐지로는 또한 비록 에니스가 실망했다고는 하지만 림송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있으며 또 자기의 추리가 그의 의혹과 한점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는것도 알았다. 그것은 에니스 기분이 지금 몹시 호전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겐지로는 머리를 숙이고 상념에 잠겨 문용채가 언제 방에서 나갔는지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문득 겐지로는 에니스의 성급한 발소리에 얼굴을 들었다.

《너무 실망할건 없소. 중좌.》 하고 에니스는 의자에 앉으며 랭랭한 얼굴에 야릇한 미소를 띠웠다. 《문대령과 같은 제3부류 정탐앞에서 나의 의도를 설명할수는 없었소. 이렇게 하시오. 당신은 곧 캐논본부와 협의하고 림송대위를 검토할 작전을 준비하시오. 난 림송을 나의 수하장교로 둔만큼 그에게서 사소한 의심도 생기지

않기를 바라오. 그건 나의 특수정보부대조직때문이요! 이 부대가 한국 까츄샤병을 기본으로 구성되는만큼 림송은 필요한 인물이요. 알겠소?》

겐지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다시 날카롭게 번쩍이기 시작했다. 문득 그에게는 한가지 묘안이 떠올랐다. 그것은 어제 도꾜의 캐논본부 련락장교가 하던 말이 기억되였기때문이다. 그는 어제 겐지로의 고충을 듣더니 조용히 귀띔했다.

《당신에게 천번중의 한번 기회가 올수 있소. 미중앙정보국이 인차 에니스준장에게 극비문건을 보낼것 같소. 물론 련락장교가 가지고오는 극비문건은 전략정보부대조직안이요. 이건 림송에게도,만약 그를 붉은정탐이라고 가정한다면 천번중의 한번 기회일테지. 당신은 이 경우 의도적으로라도 림송을 이 작전에 끌어들여야 하오. 림송은 이 행운의 순간을 결코 놓치려 하지 않을게요. 캐논본부는 에니스가,즉 미중앙정보국이 전쟁에서 중추적역할을 하게 되는걸 달가와하지 않소. 만약 일이 성공한다면 당신은 에니스와 림송 즉 사냥총 한발에 두마리의 도요새를 잡을수 있소!》

겐지로는 에니스의 응접실에 멍하니 서서 한동안 생각을 굴리였다.

(에니스준장이 모르게 검토를 진행한다?… 이거야말로 나를 사무실에 설치된 도청기처럼 보는 에니스에 대한 드센 강타가 아니겠는가? 기묘한 생각이다. 스테쎌 듀페이나 아이부스대좌를 리용할것인가? 아니면 《쟈스민》을 움직일것인가?

아니,《쟈스민》은 그냥 둬두어야 한다. 그는 지금 림송의 몸에 도꼬마리처럼 붙어다니고있다. 그는 며칠전 림송의 심장속으로 접근할 준비가 되였다고 했지…

그렇다면 검토의 방법은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

겐지로는 다시 울적한 마음으로 상념과 추리를 톺아가기 시작했다.

《극비. 〈수성〉 앞

적들의 심장부로 일정하게 침투한것은 차후임무수행을 위해서 한걸음 전진이라고 본다. 에니스가 〈한국〉련락사무소를 모체로 전략정보기지를 꾸리려 하는만큼 스테쎌과 륙군정보국계렬의 문용채와의 사업을 중시할것.

통보에 의하면 에니스의 특수정보부대계획 초안이 미극동군사령부 및 미국방성에 제출되였다. 얼마전 군사평론가 머피가 방청으로 참가한 가운데 뉴욕에서 미합동참모회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다른 문제들과 함께 에니스의 계획이 론의되였다고 한다. 아지트사건이후 방첩기관의 시선이 동무에게 집중된만큼 만사에 주의할것.

조성된 군사정세에 대처하여 사업을 더욱 안전하고 치밀하게 전개할것.

모란봉.》

《극비. 8군사령부 련락사무소 방첩과 앞.

금요일 미합동참모본부회의에서 채택한 극비문건을 가진 특수련락장교가 도꾜를 떠나 대구비행장에 도착함. 미국방성 륙군정보국 소좌 로렌스 미첼,중키에 밤색머리,련락장교는 에니스에게 문건을 전한 후 워싱톤으로 돌아갈 계획이다.

극동군사령부 방첩대장 캐논중좌.》

《극비. 8군사령부 련락사무소 방첩과 앞.

에니스준장은 금요일 오전 8군사령관 집무실에서 진행되는 상륙작전회의에 참가함. 8군사령관의 부관은 그를 저녁만찬회에 초청할것을 약속함. 아이부스대좌와의 사업은 끝났음. 〈쟈스민〉.》

제 8 장

오늘은 전쟁시기의 례사롭지 않은 나날들중의 하루였다.

인민군련합부대들의 강력한 진출에 의하여 《최종방어선》이 급속히 무너지기 시작하자 미제침략군은 8군관하 25사단에 29독립련대의 2개 대대와 87중땅크 《엠4》대대를 배속시키고 5독립련대,림시1해병려단을 증강하여 《킨》 지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8군사령관 워커는 8월 6일 25보병사단장 킨에게 8월 7일부터 진주로 지향하여 남강남안지구를 공격하며 이후 부산교두보의 남쪽

날개로서 남강남안—진주고개—사천계선을 확보할 명령을 내렸다. 그리하여 공군의 지상타격과 중포의 포격,반땅크무기의 탄우와 탄막을 방패로 삼고 전진하는 대물동작전인 《킨》작전이 시작되였다.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최고사령부의 명령에 따라 미제침략군의 반타격작전을 격퇴하였다. 아군은 모터찌클부대와 함께 차지한 계선에서 일체 화력을 집중하여 적을 소멸하는 한편 봉암리—천정리지역의 미제침략군 5련대를 야간습격으로 격멸하였으며 12일에는 발산고개에서 미 555야포대대와 90야포대대를 완전히 소멸하였다.

1950년 8월 18일 인민군최고사령부 저녁보도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남해방면에서 진격중이던 인민군부대들은 유력한 땅크부대와 해병대의 지원하에 완강한 반격을 계속하던 미제침략군 제25사단주력에 결정적타격을 가하여 막대한 손실을 주었다.

아군은 이 기간 적군 5,000여명을 살상하고 1,000여명을 포로하였으며 중땅크 29대,155미리곡사포 15문,105미리곡사포 24문, 76미리포 7문,60미리박격포 40문,로케트포 32문,자동총 400여정, 보총 2,000여정,자동차 400여대,그밖에 수많은 각종 포탄과 탄환을 로획하였다.…》

1950년 8월 19일 미륙군성 보도처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킨〉지대는 당면한 북조선군을 격파 못했을뿐아니라 서북산으로부터 구축하는것도,방어선을 진주고개—사천계선으로 내다 설치하는것도 하지 못했다.

북조선군은 대구정면으로부터 단 한명의 병사도 돌리지 않았다. 이것은 이 작전의 주요목적의 하나였다.

7,500명으로 판단된 북조선 제6사단에 대하여 제공권을 쥔 조건에서 2만 4천명의 대병력을 모아 진행한 〈킨〉 작전도 지형과 북조선군의 전법의 특이성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이룩할수 없었다.》

금요일 아침,림송과 듀페이는 아이부스대좌의 호출을 받았다. 그들은 대구의 서북쪽에 있는 8군정보부 청사로 갔다.

아이부스대좌는 자기 상관의 총애를 받는 림송에게 각별한 친절을 베푸는것을 의무로 여기고있었다.

그는 두 장교에게 친절히 자리를 권한후 담배곽을 펼쳐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장령각하는 8군사령부에 갈 준비로 몹시 바쁘기때문에 당신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전달할것을 나에게 위임했소.》 하고 대좌는 얼굴표정을 바꾸지는 않았으나 다소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오늘 당신들은 전선의 운명과 긴밀히 련관된 우리 련락사무소의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되오.
오늘저녁 극비문건을 가진 련락장교가 워싱톤에서 도꾜를 거쳐 대구비행장에 도착하게 되오. 당신들이 련락장교를 영접해와야겠소.
만약 이 문건이 평양측에 넘어가면 8군사령부는 물론 극동군이 전쟁에서 큰 전략상 손실을 입게 됨을 명심하시오.》
두 장교는 차렷자세를 취했다.
《그럼 문건이 워싱톤에서 비준되였는가요?》
듀페이의 물음에 아이부스는 눈살이 꼿꼿해졌다.
《중좌, 난 자기 임무의 령역을 넘어서는걸 좋아하지 않소.》
《정확히 련락장교가 몇시에 도착합니까?》
듀페이는 대좌의 핀잔에는 아랑곳없이 펼쳐진 담배곽에 손을 가져가며 깐깐스레 물었다.
《저녁 일곱시요.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북조선정탐기관이 이 대구거리에서 낮잠을 자고 있지 않다는걸 기억하시오.》
아이부스의 말에 잠자코있던 림송이 불쑥 입을 열었다.
《대좌님, 그 문제와 관련하여 나의 의견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말하시오.》
《내 생각엔… 련락장교의 도착을 우리 8군정보부가 주관하는만큼 극비문건을 노리는 위험성은 우리의 예상을 뒤집고 전혀 다른데서부터 오지 않을가요?》
림송의 의미심장한 어조에 듀페이는 의아한듯이 그를 돌아보았다.
반대로 아이부스대좌의 얼굴에는 아량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난 림송대위의 명석한 추리에 놀랄밖에 없소. 당신을 발견한것은 장령각하의 공로라고 할수 있소. 방금 나도 그것을 강조하려던 참이요. 당신들은 무엇보다도 이 비밀이 캐논방첩기관에 새나가지 않도록 해야겠소. 이 작전은 미중앙정보국이 구상한것이요. 물론 난 미중앙정보국 극동처장격인 에니스준장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요. 군사첩보일면을 주장하는 도꾜파와 함께 캐논기관은 우리의 사업을 달가와하지 않고있소. 그들은 얼마전에 대북첩보기

관을 자체로 설치하려는 제안을 극동군사령관에게 내놓았다가 보류당했소. 특수부대작전은 결국 그들과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도 하오.》

《사령부내에서는 련락장교의 도착을 누가 알고있습니까?》 하고 림송이 다시 물었다.

《8군사령부 련락장교단장과 일부 장령들이 알고있을뿐이요. 그들도 지투의 정기적인 련락문건으로 리해할거요.》

《대좌님.》 하고 림송은 여유있는 미소를 띠우며 천천히 말했다. 《정보장교들이 생각하는 비밀한계와 참모부성원들의 견해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것을 당신도 아시겠지요?》

《림송대위, 당신은 자동총소대의 호위를 받고싶어 그러는건 아니요? 그건 상대기관들의 눈을 더 끌게 될거요.》

《뿐만아니라 훌륭한 목표로도 될것입니다.》 하고 듀페이가 대좌의 말을 긍정해나섰다.

《그러나 안전성은 담보될것입니다.》

림송은 자기의 견해를 주장했다. 그는 자기가 서서히 그리고 완강히 자신의 주장을 강조할수록 두사람은 반대로 그것을 더욱 검질기게 부정할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렇게 되는 경우 그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빚어진다 해도 지투의 지도자들은 세사람의 마지막대화를 상기하게 될것이다.

대좌는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빙그레 웃었다.

《대위, 당신은 내 보기에 정탐가적인 두뇌를 가지고있지만 정보사업이 하나의 예술이라는걸 모르고있소. 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술일뿐아니라 하나의 심리학이라고도 볼수 있지. 당신은 공개된 비밀이 가장 안정하다는 명언을 알고있소?》

《난 공개된 비밀은 그 순간부터 비밀이 아니라는것만 알고있습니다.》

듀페이중좌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어쩐지 류다른 기분으로 딴 생각을 하고있는것 같았다.

두사람은 말없이 정보부 사무실을 나섰다. 림송은 듀페이와 함께 복도를 걸어가며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리용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겠는가 하는 방도를 생각하였다. 우선 시간이 필요하였다. 림송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대좌의 방에 있

을 때부터 듀페이가 무엇인가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으며 정신이 딴 곳에 가있다는것을 느꼈던것이다.
이런 경우 림송은 그런 상대자에게서 쉽게 벗어져나오는 단순한 심리적방법을 알고있었다.
《중좌, 오후 5시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보낼수 있겠나?》
《글쎄…》
듀페이의 눈에는 벌써부터 침착성이 사라져가고있었다.
《다른 계획이 없다면 난 오늘 자네에게 훌륭한 사격장을 보여주고싶구만. 문용채씨의 부친이 경영하는 양마장이 대구교외에 있네. 물론 훌륭한 사격장으로 리용할수 있지. 암말인 〈클레오파뜨라〉를 타고 목표물을 사격하기란 유쾌한 일이라네. 암말은 대단한 검은 〈미인〉이라네.》
《자네의 〈미인〉을 구경하는데 몇시간이나 걸릴상싶나?》
듀페이는 무심하게 묻는것 같았으나 일종의 조급성과 초조감이 느껴졌다.
림송은 현관문을 나서서 자기의 승용차로 다가가며 말했다.
《비행장에 나갈 시간까지면 충분하리라고 생각하네.》
림송의 흔연한 태도에 듀페이의 얼굴은 굳어져버렸다. 그는 애써 태연한 인상을 유지하며 승용차의 창유리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다.
《림송, 난 당신의 〈클레오파뜨라〉를 구경할 행운을 못가진것 같네. 난 오늘 오전에 어느 한곳에 가서 친구를 만나야 하니까. 약속은 사나이들의 인격과 관련된 문제이지.》
《혹시 그 친구라는게 눈동자 검은 젊은 부인이 아닌가?》
림송이 유연한 미소를 띄우고 그를 마주 보자 듀페이는 어깨를 으쓱했다.
《난 아까부터 자네의 추리에 두손을 들었네. 자넨 아직 나의 혈관속의 피가 뜨거울수 있다는걸 인정한 첫 사람이네. 그렇네, 난 인생의 순간들이 정열의 상대를 만남이 없이 헛되이 흘러가는걸 용서할수 없네.》
듀페이의 눈은 이 순간 교활하게 번쩍였다.
림송은 긍정하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 순간 림송은 사람이 속지 않으면서 속는체한다는것은 하나의 훌륭한 기교에 속한다는것

을 알았다.

《중좌, 그러나 자넨 한가지만은 나를 난처하게 만들고있네. 비밀을 알고있는 두 장교가 방을 나와서 따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이 일부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겠나?》

듀페이중좌는 림송의 어조에 숨은 진의도를 눈치 못챌 둔감한 장교가 아니였다. 그는 자못 너그러운 태도로 림송의 어깨를 툭툭 쳤다.

《친구, 난 자네를 까다로운 사람으로 여기고싶진 않네. 생활은 수학이 아니고 인간은 기계가 아니지. 우리야 동창생이 아닌가. 그럼 비행장에서 만나세.》

스테쎌 듀페이는 한손을 친근하게 내젓더니 급히 사라졌다.

림송은 승용차를 몰고 장교구락부로 향했다. 그는 지금 불의에 제기된 련락장교의 도착과 관련하여 생각이 복잡하였다.

그것이 전략부대창설과 관련된 극비문건이라면 자기앞에 놓인 이 순간이야말로 조국이 준 임무를 수행할수 있는, 그를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책임적인 시각이 아닌가.

그러나 림송은 자기가 바라던 행운의 시각이 너무도 쉽사리, 빨리 찾아온것이 의심스러웠다. 얼마전에 아이부스대좌는 아직 전략부대안이 극동사령부 일부 장령들의 동감을 얻지 못하고있는만큼 에니스자신이 골머리를 앓고있다고 했었다. 또 중대한 임무라고 볼수 있는 이번 련락장교영접을 부임한지 얼마 안되는 자기에게 맡기는것이 의심스러웠고 에니스준장이 직접 나타나지 않은것이 이상하였다. 여기에는 분명 그 어떤 흑막속의 음모가 숨어있는것이 아닐가? 혹시 이것이 나에 대한 검열이 아닐가?

(아니,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나는 이것을 나에 대한 캐논기관의 검토라고 가정해야 한다. 캐논기관은 또 실지 극비문건을 가지고 오는 련락장교의 도착을 통해서도 음모를 꾸밀수 있는것이다.

이 모든 정황은 서뿔리 극비문건에 접근하지 말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어쨌든 정황에 따라 행동하자! 심사숙고하자.

문제는 전략부대창설이 시작단계에 있는만큼 에니스에게 접근하는것이다.…) 하고 림송은 생각을 몰아갔다. (만약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테쎌 듀페이에게 자갈을 물린다면?… 그가 련락장교 영접에 불성실했다는 사실이 에니스준장에게 알려진다면?… 이것은 장차 에니스를 곤경에 빠뜨릴수 있는 전제로 된다. 그 결과는 또

한 에니스에게로, 전략부대로 침투할수 있는 가능성을 준다! …)
림송은 짧은 순간에 하나의 구상을 무르익히고 승용차핸들을 장교구락부가 아니라 호텔 방향으로 꺾었다. 레이몬드 아담스를 급히 만나야 했다. 이런 경우 림송은 사무엘의 명의로 그의 방조를 받을수 있는것이였다.
림송은 승용차를 대구륙군병원앞 공중전화소앞에 멈춰세웠다. 공개적으로 레이몬드와 만난다면 씨아이씨는 물론 에니스에게 즉시 보고될것이다. 전화를 리용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림송은 먼저 문용채에게 전화를 걸어 양마장에서 만날것을 약속했다. 인차 번호판을 다시 돌렸다. 이제부터는 시간을 쟁취해야 한다. 사무소에서 레이몬드의 목소리가 제꺽 울려나왔다.
《레이몬드입니다, 대위님.》
《당신은 오늘 저녁 나와 식사하기로 약속했는데 어디 있겠소?》
《8군보급창 장교와 함께 호텔 고급식당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지시가 없다면…》
레이몬드의 목소리는 침착하였다. 그는 림송의 의도를 대뜸 알아챈것이였다.
《꼬냐끄를 마시겠소?》
《아니요. 위스키를… 함께 마시게 되겠지요?》
《난 시간이 없소. 참… 요즘 자기를 사무엘의 〈정보아따쉐〉라고 자칭하는 그 친구가 몹시 클클해하더구만.》
《그럼 초청하지요.》
《7시 5분에 전화를 걸면 그가 있을거요.》
《그 시간에 어디에 있을가요?》
《그건 모르겠소. 당신이 알아보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한가지》 하고 림송은 약간 마음이 놓이지 않는 점이 있어 부언했다. 《난 그가 그 시각에 근무중인 경우 당신의 초청에 응하지 않을가봐 걱정되오.》
(은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실수가 아닐가?…) 한순간 림송은 주저되였다.
《그건 념려마십시오. 그는 나와 동석식사하게 된 보급창장교에게 급한 빚을 지고있으니까요. 응하지 않는다면 그를 군법회의에

제기할수도 있거든요.》
《좋소. 나는 만찬회가 40분이면 끝나리라고 보오.》
《적당한 시간입니다.》
림송은 수화기를 놓았다. 그는 얼핏 공중전화소 유리문을 내다보았다. 회색 《링컨》 한대가 왼쪽에 서있었다. 림송은 자기 승용차로 다가갔다. 어쩐지 불안했다. 림송의 차가 움직이자 회색승용차가 조용히 뒤따랐다. 공개적인 미행이였다.

《어떻게 됐나? 중위.》
《중좌님, 모든 일은 중좌님의 계획대로 되고있습니다. 다만 듀페이부관님이 임무를 받은후 급히 8군보급창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내용은 알아봤소?》
《아직 명확히는…》
겐지로는 중위의 흰자위가 많은 노랑눈을 마뜩지 않게 바라보다가 얼굴을 홱 돌렸다.
《좋아, 문제는 련락장교를 태운 승용차가 어느 코스를 따라 움직이는가 하는거요. 매복은 빈틈이 없겠지?》
《물론입니다. 중좌님의 지시대로 각 코스마다 저격수들을 배치했습니다.》
중위는 침착한 낯빛으로 대답했다.
겐지로는 지피초소창문으로 보이는 비행장건물을 주시하다가 의자에 앉았다.
《림송대위의 움직임에서는 변화가 없던가?》
《그는 8군사령부를 나오는 즉시 문용채대령에게 전화를 건후 함께 교외의 양마장에서 만나 사격훈련에 열을 올리고있었습니다.》
중위는 떠듬거리며 대답했다. 겐지로는 다소 안심치 않아 여윈 손가락으로 책상모서리를 다독이다가 홱 얼굴을 들었다.
《그외에 누구를 만났거나 전화를 건데가 없단말이지?》
《방향성 도청기를 설치한 〈링컨〉 차가 중좌님의 지시대로 그를 공개적으로 미행했는데요.》
《그렇다?》
(내가 너무 넘겨짚은게 아닐가? 림송은 참새에 굴레를 씌울 인

간이다. 하지만 어딘가에 약한 고리가 있었을텐데？…)
《참》 중위가 갑자기 눈을 껌벅였다. 《림송대위는 전화뒤끝에 레이몬드에게 약속한 저녁식사를 미룬다고 알렸습니다.》
겐지로는 그 말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왜 이제야 말하는가? 전화록음을 후에 내 방에 가져오게. 그리고… 저격수들에게 전하시오. 련락장교를 중상만 입히라고. 죽여선 안돼！ 그리고 운전사는 없애버리오！》
《알았습니다.》
갑자기 중위의 목에 걸려있는 대공전화기에서 신호가 울렸다. 겐지로는 얼른 대공전화기를 받아들었다.
《중좌님, 듀페이중좌가 나타났습니다. 몹시 침울한 기색입니다.》
《알겠다. 림송대위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문용채와 함께 장교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신후 혼자 이쪽으로 차를 몰아오고있습니다.》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라. 순간도 그자를 감시에서 잃으면 안돼！》
《알았습니다！》
겐지로는 대공전화기를 중위에게 던져주고 담배곽을 꺼내들었다. 그는 군복깃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음… 그러니 레이몬드와 전화했다? 중요한 정보다！… 문제는 에니스에게 사소한 증거도 남기지 않는것이다. 아직은 그와의 대결을 피해야 한다. 에니스는 이 습격을 씨아이씨와 관련시켜 생각지는 않을거야. 만약 탄로되면 상서롭지 못한 일이 벌어질거야！
림송！… 필요하다면 난 오늘 너를 죽여버릴수도 있다. 내 기억과 예감을 믿는다면 너의 정체를 밝히지 못한다 해도 어쨌든 너는 나에게 불안의 씨앗을 던져주는만큼 죽여버릴테다. 인생에서 행운의 순간이란 쉽게 차례지지 않아！…)
겐지로는 담배를 꺼내물었다.
문득 겐지로는 소학교시절 례배당에서 들은 목사의 말이 떠올랐다.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인 아버지의 압력때문에 겐지로는 늘 일요일이면 교회당에서 참배하군했다. 어느날 겐지로는 교회당에 있는 스무나무밑에 숨어 저녁미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엄엄하기로 소문난 주교가 스무나무앞에 멈춰섰다. 그의 손에는 요한복음이

쥐여져있었다. 백살을 산것 같은 주교는 주름살투성이의 얼굴을 책우에 푹 수그리고 웅얼거렸다.

한알의 보리알 땅에 떨어져
살면 하나가 되고
죽으면 무한이 되리라

겐지로는 의혹을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아들의 물음에 왈칵 성을 냈다. 겐지로는 그후 중학시절 신학선생에게서도 그 의문을 풀지 못했다.

(왜 살면 하나가 되고 죽으면 무한인가? 이게 거꾸로 된 리치가 아닌가? 가령 생각해보자. 저 림송대위를 살려둔다면 나를 위협하는 림송 하나뿐이고 죽인다면 무수한 림송이 나에게 덤벼들텐가? 아니다!… 하느님,그대의 종복인 이 아들을 도와주소서. 나의 소원은 작은것이올시다. 저 림송대위가 나의 올가미에 걸려들게 해주소서. 아니,저자의 정체를 내앞에 드러내주소서…)

겐지로는 십자를 그었다. 그리고 속으로 랭소를 지었다. 그는 어느때든 하느님을 믿은적이 없었기때문이다.

《중좌님,비행장대기실에 림송대위가 도착했습니다!》

밖에 나갔던 중위가 뛰여들어와 보고했다.

겐지로는 현실로 돌아왔다.

림송은 동촌비행장에 들어서자 곧 스테쎌 듀페이중좌를 알아보았다. 그는 비행장대기실 한쪽 구석에 앉아 상념에 잠겨 활주로를 내다보고있었다.

크고작은 군용비행기들이 리륙하고있었다. 불시 착륙한 폭격기 한대가 활주로를 벗어나 철조망에 머리를 박자 위생차가 쏜살같이 그리로 달려갔다. 전선에서 돌아온 운수가 좋은 폭격기일것이였다. 림송은 장의자로 다가가 묵묵히 앉았다. 듀페이는 상념에서 깨여나 홱 돌아보았다. 중좌의 회색눈에는 우울한 빛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구태여 림송앞에서 자기 기분을 숨기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 일이 잘됐나?》

림송은 그의 일이 공교롭게 꼬였다는것을 잘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물었다. 듀페이중좌는 본부사무실을 떠날 때부터 레이몬드의 시야속에 있었으므로 림송은 그가 봉덕동에 있는 8군후방사령부에서 어떤 인물들과 무엇때문에 만났는가 하는것을 짐작하고있었다. 듀페이중좌는 대담하게 8군후방사령관의 배경을 끼고 도쿄와 대구를 무대로 되거리장사와 밀수업을 벌리고있었던것이다. 물론 그것을 실제적으로 조종하고있는것은 사무엘부자였다. …오늘 듀페이는 만나기로 약속한 보급장교에게서 해당한 수형을 받지 못했을것이였다.

《친구, 오늘 오찬회는 사뭇 기분좋은것이였네. 난 대단히 만족했네. 우리는 나폴리의 저녁노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그 부인의 남편은 한때 로마에 외교관으로 가있었으니까. 그 녀자는 부산에 와서 위장병이 도진것 같다고 걱정했네. 림송, 어디 유명한 의사를 아는게 없나?…》

로련한 첩보장교답게 거짓말을 하는데 이골이 난 듀페이의 눈에는 어느덧 추억과 동정의 빛 같은것이 나타났다. 놀랄만한 연기술을 가진 《배우》였다. 림송은 빙그레 웃었다.

《중좌, 자넨 나에게 자기의 정부를 소개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네. 왜냐하면 난 친구를 잃고싶지 않기때문이네.》

두 장교는 마주 보며 유쾌하게 웃었다. 그 웃음의 색갈은 물론 달랐다.

비행기는 정시에 도착하였다. 워싱톤의 련락장교는 목이 길고 몸이 마른 40대의 사나이였다. 그는 사복을 하고있었다. 그러나 림송은 그의 걸음걸이를 보고 즉시 그가 사복을 입은 륙군정보장교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손에 철테를 두른 밤색가죽가방을 들고있었다. 듀페이가 그를 안내하여 비행장앞 광장으로 나왔다. 림송은 말없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듀페이는 련락장교를 데리고 자기가 타고온 《포드》승용차로 다가갔다. 3급준위 견장을 단 젊은 운전사가 뛰여나와 련락장교에게 친절히 승용차뒤문을 열어주었다. 림송은 자기 승용차에 올라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 순간 시창으로 동촌비행장검문소의 헌병중위가 차에 오르려는 듀페이중좌에게 다가가는것이 보였다. 듀페이는 림송에게 손을 들어보이더니 헌병중위를 따라

헌병초소로 들어갔다. 잠시후 방에서 나온 듀페이는 약간 서두르는듯한 걸음으로 곧장 림송의 승용차로 다가왔다. 그는 승용차문을 열고 림송의 옆자리에 들어와앉았다.

《림송대위, 이젠 숨박곡질을 피하세. 난 자네가 사무엘의 동창생이라는걸 상기시키고싶네. 그는 자네가 날 도와주리라고 했네.》 하고 듀페이는 약간 흥분한 눈길로 친근하게 말했으나 림송은 그 어조에서 일종의 위협기를 느꼈다.

《나도 자네가 진심을 터놓을 때가 왔다고 생각했네.》 하고 림송은 스스럼없는 태도로 넘어갔다. 그러자 듀페이는 잠시 림송의 눈을 들여다보더니 불쑥 물었다.

《자넨 나를 믿나?》

《난 친구를 배반해본적이 없지.》

《그럼 말하지. 난 8군후방사령부를 상대로 큼직한 일을 시작했네. 자네도 짐작할테지만 한마디로 사무엘회사의 주권시장을 넓히는 일이지… 난 방금 그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전화를 받았네. 생사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야! 속도가 빠른 자네 차를 빌려주게. 여기서 멀지 않은곳, 봉덕동에 8군보급창이 있네. 만약 내가 늦어지는 경우 자네가 아이부스대좌에게 잘 설명할수 있으리라고 보네.》

《만약 에니스준장이 기다린다면?…》

림송의 말에 듀페이는 코웃음을 쳤다.

《림송, 준장은 오늘밤에야 도착할걸세. 그는 8군사령부 장령들과 함께 상륙작전문제를 토의하고있지. 우리가 상륙지점정보를 받았으니까. 그는 지금 여간 바쁜 몸이 아니거든.》

《?!…》

《자 그럼 약속했네?》

《난 어쩐지 불안한 생각이 드네.》 하고 림송은 자동차열쇠를 그에게 넘겨주며 말했다.

《가지 않는다면 난 명예손상죄로 군법회의에 나설수 있네.

난 자네가 심장이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듀페이는 중떠보는듯한 시선으로 림송을 넘겨다보았다.

《총알은 심장의 크기를 가리지 않는다네. 다시 한번 결심하게.》 하고 림송은 짤막하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듀페이는 림송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운전대를 잡더니 부리나케 달

아나버렸다.
물론 림송은 레이몬드의 조종하에 8군후방사령부의 제3국 보급장교가 동촌비행장에 전화를 건 사실과 방금전 그들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승용차에 설치한 록음기테프에 록음되였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림송이 《포드》에 오르자 3급준위는 발동을 걸더니 차를 천천히 교외도로로 몰아갔다. 대도로에는 꼬리를 물고 승용차들과 군용차들이 달리고있었다. 3급준위는 퍽 조심스럽고 기술이 높은 운전사였다. 침묵속에서 승용차는 한동안 달렸다.
도로교차점이 나타나자 3급준위는 큰 도로를 버리고 왼쪽도로로 들어섰다. 이 길은 아이부스대좌가 지적해준 코스였다.
《대위, 아직 멀었소?》
《약 40분후엔 당신이 장교숙소의 목욕실에 들어설거요.》
림송이 대답했다.
어슬어슬해지기 시작했다. 지평선에 락조가 비껴왔다. 바람이 불었다. 승용차는 고요한 도로를 쾌속으로 달렸다.
별안간 등뒤에서 전조등불빛이 비쳐왔다. 림송은 홱 몸을 돌렸다. 두개의 센 승용차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여 눈을 시울게 했다.
《준위, 무슨 차요?》
림송의 물음에 운전사는 얼핏 반사경을 들여다보았다.
《글쎄요, 잘 보이지 않는군요.》
그 순간 뒤따르던 회색승용차가 속력을 내며 옆으로 지나치더니 얼마 안가서 길을 가로막고 서버렸다. 3급준위는 몸을 앞으로 꺾으며 겨우 제동기를 밟았다.
《씨아이씨입니다.》
3급준위는 불쾌한듯 중얼거렸다.
《어떻게 아오?》
《방금 운전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캐논기관에서 겐지로중좌의 운전사를 하던 파울이더군요. …》
앞승용차에서 두사람이 내리더니 림송이 탄 승용차를 향해 전지불을 비쳤다.
《기다리시오. 내 알아보겠소.》 하고 림송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짤막하게 말했다.

림송이 승용차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민 순간 갑자기 기관총소리가 울렸다. 림송은 옆으로 몸을 날리며 어둠속에 대고 대응사격을 시작했다. 총소리는 한순간 계속되였다. 이윽고 앞선 승용차는 정체모를 사나이들을 싣고 사라져버렸다. 림송은 총탄에 맞은 승용차문을 열었다. 피비린내가 확 풍겨왔다. 3급준위는 시창을 뚫은 총탄에 얼굴과 가슴을 맞고 즉사했었다. 림송은 황급히 뒤좌석에 앉았던 련락장교를 바라보았다. 그는 뒤좌석에 모로 쓰러져있었다. 신음소리가 들렸다. 림송은 그의 몸을 안아일으켰다. 왼쪽어깨와 복부가 붉게 젖어있었다.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있었다. 림송은 첫눈에도 련락장교가 오랜 정보장교라는것을 느꼈다. 어느새 뽑아들었는지 그의 오른손에는 권총이 쥐여져있었고 왼손은 서류가방을 꽉 껴안고있었다. 림송은 간단히 응급처치를 한후 죽은 운전사를 밀어놓고 운전석에 앉았다. 그는 고속으로 차를 몰았다. 깨여진 창문으로 여름 저녁의 서늘한 바람이 훅훅 밀려들었다. 이제는 련락장교에게서 신음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몇시간이 걸린것 같은데 불과 8분,8분이 흘렀구나.…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검문소가 있다. 어떻게 하나 련락장교를 살려야 한다.… 지금 이 순간도 캐논기관의 눈과 귀가 촬영기와 록음기가 되여 나를 따르고있음을 알아야 한다.…

련락장교가 에니스준장에게 도착할 때까지 숨이 붙어있어야겠는데… 시간이 없다! 시간! 시간!…)

련락장교는 불쑥 신음소리를 냈다. 차가 들추어 상처를 자극하는것 같았다.

림송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쳤다. 그는 승용차속도를 죽이고 정적이 깃든 도로를 약간 천천히 달렸다. 그때 어둠을 찢는 강한 불빛과 함께 숨가쁜 승용차기관소리가 들렸다.

림송은 홱 얼굴을 돌렸다. 그는 긴장해진 눈길로 그쪽을 주시했다. 림송은 문득 차를 멈추었다. 림송은 그 차가 듀페이에게 준 자기의 승용차 《훔벨》이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듀페이는 승용차가 멎자마자 숨을 씨근거리며 달려왔다. 그는 승용차문을 열고 한동안 얼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린채 살고 죽고 상한 세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차체에 몸을 기댔다.

《무서운 일이네… 난 방금 자네가 습격당한 사건현장을 지나온 길이네. 전조등에 비친 깨여진 유리와 피자욱을 보는 순간 난 심장이 섬찍했네.》
림송은 가까스로 자제력을 회복했다. 듀페이의 때이른 출현은 뜻밖이였고 계획에 없은것이였다. 레이몬드는 그를 늦어도 8시까지는 잡아두게 되여있었다.
림송은 한순간 생각을 톺다가 침착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스테쎌… 만약 운명의 신이 나를 배반했다면 난 자넬 원망할수도 없었을걸세. 습격자들의 탄알은 무자비했으니까. 저걸 보게. 겨우 생명이 붙어있네.》
《련락장교의 문건은 어떻게 됐나?》
듀페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림송은 랭소를 지었다.
《보는바와 같네. 내가 살아있는 한 문건이야 어디 가겠나!》
《다행일세… 정말 다행이야.》
《…》
《예감이란 가혹한거야… 난…오면서…》
림송은 흘깃 듀페이중좌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벌어진 사태에 대한 불안과 일종의 공포의 빛이 질게 어려있었다. 그는 열린 승용차문을 짚고 근심어린 어조로 다시 맥없이 중얼거렸다.
《림송, 난 오늘 행운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불행을 피할수 없었군그래… 내가 련락장교의 호송을 자네에게만 위임한것이 알려지면 난 철직될걸세. 준장은 사정이 없으니까.》
《앞일을 예견할수는 없다네. 그러나 피할수는 있지.》
《?…》
《!…》
한순간 듀페이의 눈에 일종의 광기에 가까운 류다른, 사나운 빛이 번쩍이였다. 그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림송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듀페이, 자넨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네.》 하고 림송이 침착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저 햇내기 림송대위를 쏴죽이고 대신 에니스준장앞에 나타나 호

송도중 습격받았다고 하면 어떨가 하고말일세. 그러면 자넨 죽은 림송대위와 함께 훈장을 타게 될걸세.》

림송의 말은 듀페이중좌의 얼굴에 놀람과 활기를 동시에 가져왔다. 그는 주머니에서 권총이 아니라 담배곽을 꺼내들었다.

《자넨 심리학자구만. 하지만 림송, 난 유감스럽게도 다른 방도를 생각했네. 만약 자네를 죽이게 된다면 난 저 련락장교도 죽여야 하네. 그렇게 되면 살아있는 한사람을 죽은 세사람이 보증할수는 없게 되네. 내 말을 알겠나? 죽은자는 영원히 침묵을 지키니까.》

《자네의 생각은 차겁지만 목소리는 열정적이구만.》

림송은 약간 비양조로 말하며 담배연기를 가슴깊이 빨아들였다.

《자넨 내가 행동은 경솔하게 하지만 판단은 무게있게 한다고 말하는게 좋을걸세.》 하고 듀페이는 한순간 쌀쌀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가 그 어떤 기발한 생각을 착상해냈다는것을 의미하였다.

《림송, 자네 역시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것이 알려지면 재미없을걸세. 내 말이 리해되나?…》

《자네… 결국 불행을 나누자는게 아닌가?》

어둠속에서 두사람의 눈빛이 부딪쳤다.

달없는 밤이였다. 그러나 번뜩이는 눈빛은 감출수 없었다.

그 순간 듀페이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더니 홱 돌아서서 신음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련락장교의 심장을 겨누었다. 림송이 어쩔새없이 총성이 울렸다. 총성뒤끝의 숨막힐듯한 정적이 뒤따랐다.

《자네 리성을 잃지 않았나? 듀페이.》

림송은 천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듀페이는 한참만에 나직이 중얼거렸다.

《죽은자만이 증언할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일단 습격을 받은 이상 준장님앞에서 우린 목소리를 합쳐야지. 문제는 문건이 남아있는거네. 결국 우리는 자기의 명예를 지킨셈이네. 아니, 위기에서 구원된셈이지.》

《자넨 서슴없이 그의 가슴에 총탄을 박았네만 듀페이, 저 련락장교는 내가 응급처치를 했기때문에 래일아침엔 의식을 회복했을걸세.》

림송으로서는 련락장교의 죽음이 바라지 않던것이였다. 이것은

어쩌면 새로운 난관을 조성할수 있을것이였다. …
듀페이는 어둠속에서 흰이를 드러내며 소리없이 웃었다.
《림송, 목적을 위해 틀어쥔 군인의 총구는 절대로 떨리는 법이 없어야 하네.》 하고 듀페이는 약간 음산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별안간 손에 든 권총을 자기 허벅다리에 가져다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흠칫 몸을 떨었으나 넘어지지는 않았다.
《듀페이, 어쩌자는건가？！》
림송은 뜻밖의 일에 놀라며 그의 몸을 부축했다. 듀페이는 신음소리도 없이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림송에게 내밀었다. 자기보신을 위한 그의 검질긴 노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것이였다. 필요하다면 그가 이자리에서 림송의 가슴에도 서슴없이 탄알을 박을수 있는 무서운 인간이라는것을 그는 더욱 똑똑히 깨달았다.
듀페이는 차안으로 들어오며 어설프게 중얼거렸다.
《림송, 난 총알 한발로 친우의 믿음과 그리고 나의 명예를 되찾았다고 생각하네. 뼈는 다치지 않았으니 한주일가량 휴식할수 있을걸세. … 오늘은 갔던 일도 제대로 된셈이고… 난 될수록 빨리 서둘렀네. … 난 자네가 날 고발하지는 않으리라 믿네. 그렇게 생각해도 좋겠나？…》
듀페이는 눈을 부릅뜨고 림송을 쏘아보았다.
(이것은 결국 나의 실패가 아닌가？ 검토는 이겨냈지만 듀페이를 함정에 넣으려다가 함께 그 함정에 빠진셈이 아닌가？ 스테쩰 듀페이… 그러나 언젠가는 이 모든것을 계산할 때가 있을것이다. …)
《좋도록 생각하게. 그러나 습격자들은 자네가 없었다는것을 알고있을거네.》
《물론, 하지만 이 습격을 조직한 붉은정탐들이 8군정보부에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을걸세.》
듀페이는 흰이를 드러내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
(에니스준장 역시 이 사건을 붉은정탐들의 행동으로 여길것인가？ 캐논기관은 무엇때문에 이 사건을 조작했는가？) 림송은 승용차를 몰면서 추리를 계속했다. (우선 습격의 혼란을 통해 내가 문건에 관심을 가지도록 공간을 조성하려고 했을수도 있다. 아니, 그들은 문건을 탈취하여 에니스준장의 뺨을 갈기려 했을수도 있다. 검토

인가, 도발인가?…결국 《성공한 실패》인가?…)
한편 듀페이는 이 순간 자기가 뜻밖에 부닥친 불우한 정황에서 쉽게 벗어났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한 말들과 두번의 총성이 고스란히, 서로 다른 목적으로 자동차에 설치된 두개의 록음테프들에 기록되고있은줄은 꿈에도 생각할수 없었다.
멀리 대구시가의 불빛이 언뜻언뜻 비쳐오기 시작했다.

제 9 장

주한경장령은 직일관으로부터 한 처녀가 정문에 찾아왔다는 전갈을 받고도 오래동안 깊은 사색에서 깨여날줄 몰랐다.
군집단지휘부에서 방금 도착한 부대정찰조가 전선사령부를 향해 출발했다는 소식이 있은 때부터 벌써 근 한시간이 지났다. 장령의 사색은 깊어갔다. 각 정찰소조들과 산하사단정찰과들에서 보내온 자료를 종합해보면 미제침략군 제8군사령부와 도꾜의 움직임에서 심상치 않은 기미가 엿보이고있었다.
적들은 205키로메터의 전선에 6개 사단을 배치하여 종심이 얕고 공병방어설비가 불충분하고 중간지가 조성되여 익측이 많이 드러났던 공격위주로 한 서전참패의 교훈으로부터 락동강계선의 크지 않은 작전지역에 엄청난 병력을 집중하고 전술적방어진을 펼쳐놓고있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락동강지역에 압축된 적을 일격에 소멸하고 전조선을 해방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작전을 준비하고있었다.
적의 전술적방어지대를 돌파하기 위한 기동적이며 집중적이며 련속적인 공격을 완성하기 위해 전선사령부 정찰부에 나가있는 주한경소장은 요즘 거의 밤을 새다싶이 하고있었다.
작전을 앞두고 전선사령관이 옳은 결심을 하기 위해서는 임무 료해와 함께 정황판단에 심중한 고려를 돌려야 했다. 그것은 결국 정찰일군들의 정력적인 노력을 의미하였다.

우선 적에 대하여 적이 어떤 집단을 편성하고있으며 그 배치는 어떠한가, 적의 작전적예비대의 반작용과 기타 지휘소의 배치는 어떠한가, 적의 방어체계와 차단물의 성격은 어떠하며 공군과 해군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적방어의 견고성을 와해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멸하여야 할 적과 점령하여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도로망, 기동조건, 자연장애물, 적방어종심지형 등 지형정찰의 임무까지도 포함하여 정찰이 전선사령부의 새 작전의 결정적승리를 위하여 담보하여야 할 임무의 범위는 무겁고도 포괄적인것이였다.

주한경장령은 적 집단편성, 력량배치, 부대번호 및 기도, 적 방어형태, 방어지대편성과 그 강화정도, 전술적작전예비대의 력량과 배치, 위치, 항공기도, 적의 지휘소, 전파탐지기, 무선중계소, 장애기, 후방공급기지, 비행장, 급항시설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자료를 이미 전선사령부에 제출한 뒤였다.

활발히 움직이고있는 적 정보기관들과 륙군정보국, 미중앙정보국을 상대로 하는 작전적위장도 원만히 진행되여 포성이 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선에는 공격과 승리를 기다리는 일종의 엄숙한 고요가 깃들어있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사단 정찰조가 무심히 스쳐버릴수 없는 중요한 긴급정찰자료를 입수하였던것이다. 그것은 전선서부에 예비대로 배치되여있던 8군관하 일부 련대가 밤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였다. 이것은 정찰일군인 주한경장령에게 있어서도 커다란 의혹을 자아내는 뜻밖의 사태였다. 요컨대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맥아더나 워커로서는 근 30만명이 집결한 전선이지만 단 한명의 병사라도 더 파견하지 못해 안달이 날 지경이였기때문이였다.

(비밀리에 진행된 놈들의 이 배비변경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특수련대는 한때 나토군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하다가 전선에 갓 투입된 부대로서 아직까지는 전투능력을 상실할만큼 지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놈들이 전면방어의 뒤에서 우리가 예견했던 제2전선을 획책하는 전략부대창설을 꾸미고있는것이 아닌가? 아니면 놈들이 전선의 어느 지점에 력량을 집중하려는것인가?… 이미 포기한 《푸른화살작전》, 즉 인천상륙작전을 앞당기려는것인가?…)

주한경은 뒤짐을 진채 창문옆을 뚜벅뚜벅 걸었다. 어쨌든 적후 정찰을 나갔던 정찰병들을 한시바삐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싶었다. 추리와 분석 그리고 판단과 결론은 현실자료의 안받침에 의해서만 효력을 나타낼것이였다.

문소리가 들렸다. 작달막한 키에 빛나는 눈초리를 가진 중좌가 서류철을 들고 방에 들어섰다. 그는 사색에 잠겨 방안을 천천히 거니는 장령에게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장령동지, 해외출장소에서 레이몬드 아담스에 대한 자료를 통보해왔습니다. 믿을수 있는 반파쑈투사였습니다.》

《반가운 일이요. 봅시다.》 주한경은 문건철을 뒤적였다. 《이젠 리준구동무에게 성실한 방조자를 붙일수 있겠구만.

그래 과장동무, ××사단 정찰조동무들이 도착했소?》

주한경은 피곤이 실린 눈으로 김선형과장을 바라보았다.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을지길동무가 운전대를 잡았다니까 30분후면 군용차가 전선사령부에 나타날것 같습니다.》

《그 친구라면 마음이 놓이오. 그 동무도 정찰에 나갔댔소?》

《그렇습니다.》

중좌는 대답하고나서 주한경의 표정을 조심스레 살펴보며 약간 머밋거렸다.

《왜 무슨 일이 있소?》 하고 주한경은 부드러운 눈길로 그를 지켜보았다.

《저 장령동지, 아직 시간이 있는데 그 처녀동무를 만나보시지 않겠습니까?》

《처녀라니? 웬 처녀요?》

주한경은 금시초문이라는듯 눈을 크게 떴다. 집요한 사색의 세계에 사는 정찰일군에게는 금물인 일종의 건망증이 이 순간 그에게 작용한것이였다.

《아니 아까 직일관동무가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아, 생각나오. 생각이 나. 내 깜박 잊었댔소. 그 동무가 지금 어디 있소?》

《우리 방에서 기다리고있습니다. 적구에 파견될 홍선화동무가 말동무를 해주고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전에 신병훈련소에서 만났던 음악학원 학생말입니다. 그 동문 우리 부서에 쓸모있는 동

문데…》
김선형은 서류철을 만지작거리며 장령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자 금시 주한경의 얼굴에 반가와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순정이가?… 아니, 그 처녀가 어떻게… 어서 데려오시오. 아니, 함께 그 방으로 갑시다. 홍선화동무도 오래 기다렸을거요.》 하고 주한경은 활기를 띠며 급히 방을 나서서 성큼성큼 복도로 걸어갔다.
이때 한순정은 창턱에 기대앉아 참새들이 재잘거리는 정원의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한 녀인(홍선화)과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친절하고 침착한 녀인이였다. 녀인은 입대를 갈망하는 처녀의 심정을 아량있게 리해하여주었다. 얼굴이 둥실하고 눈에 쌍까풀이 진 진중한 성격의 녀인이였다.
두 녀인은 주한경일행이 방에 들어선줄도 모르고있었다.
《아니, 이거 전선배우동무가 어떻게 날아왔소?》
주한경은 눈에 웃음을 담으며 우선우선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순정은 봉긋한 가슴밑에 두손을 모아쥐고 자리에서 발딱 일어섰다. 그 녀자의 맑은 얼굴이 기쁨으로 발그레하게 물들었다.
《아이, 아저씨, 안녕하십니까? 전 너무 바쁘신 때에 찾아온것만 같아 그만 돌아갈가 하고 생각했더랬어요. 하지만 꼭 부탁하고싶은게 있어서…》
한순정은 말끝을 얼버무리며 또 화락 얼굴을 붉히더니 녀인쪽을 바라보았다.
녀인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여주었다.
주한경은 창곁의 의자에 앉으며 순정이에게도 자리를 권했다.
《자, 앉으라구. 모처럼 왔다가 그냥 돌아갔더라면 이 아저씨가 섭섭해서 노했을거야. 전번에 전화로 만나군 처음이구만. 그래 어떻게 왔댔나?》
《우린 전선순회공연을 가던 길인데 오늘밤 전선사령부에서 공연하게 됐어요.》
《참, 동무들의 노래를 들은지 오랬소. 병사들은 투쟁과 랑만의 노래를 기다리고있소. 다들 기뻐할거요. 그래 딱친구도 왔겠지? 이름이 탄금이드라?…》
주한경의 말에 한순정의 발그레한 얼굴이 금시 해쓱해졌다. 그 녀자는 수심에 잠긴 아름다운 큰 눈을 들어 얼핏 곁에 앉은 녀인을 바

라보더니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그 동문… 지금 부상당해서 병원에 누워있어요.》
《부상당하다니?… 전선에 나갔댔소?》
주한경은 미간을 모으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한순정을 마주보았다.
한순정은 의미없이 손톱여물을 썰며 애써 마음을 눅잦히는것 같았다.
《아니예요. 극장앞에서 놈들에게… 얼마전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였어요. 성탄금이는 애인이 있는 사단에서 온 련락군관을 공연에 초대했어요. 그에게 편지를 전하고싶었거든요. 그런데 공연도중에 놈들의 폭격으로 극장에 화재가 일었어요. 공연을 보러 왔던 서울시민들과 군관들은 모두 불을 끄러 나섰어요. 그런데 이때 성탄금이는 폭격을 리용해서 그 련락군관동무가 타고온 자동차에 달려드는 정체불명의 놈들을 발견했어요.…
총소리를 듣고 우리가 달려갔을 때 련락군관동무가 중상입은 탄금이를 붙안고있더군요.…》
주한경의 얼굴빛은 금시 어두워졌다.
《음… 정말 용감한 처녀구만. 그 애리애리한 탄금이에게 그런 용기가 있으리라고는… 그래 지금은 어떻소?》
《중상을 입었는데 군의선생님은 꼭 살아날거라고 했어요. 전선공연을 떠나오면서 그앨 찾아갔더니 아직 의식을 못차리더군요. 간호원이 그러는데 그앤 수녀복을 입은 녀자를 잡으라고 헛소리를 쳤대요.》
한순정은 눈을 슴벅이며 주한경을 올려다보았다.
《수녀복이라… 그게 누구요?》
《제 생각엔 극장에 잠간 얼굴을 내민 일이 있는 녀자관리원 같애요. 피아노도 곧잘 치는 녀자인데 분명 간첩일거예요. 그 사건이 있은후 종적을 감추었으니까요.… 아저씨, 제발 부탁이예요. 저를 군대에 입대시켜주세요. 전 이 이상 더 참을수 없어요. 전선에서 싸우고싶어요. 우리 모교동무가 벌써 세명이나 희생됐습니다. 아저씨밖에는 우리 책임자동지를 설복시킬분이 없어요. 어머니도 편지에서 저의 결심을 찬성했어요.》
한순정은 열렬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한경은 그 녀자의 흥분한 얼굴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주머니에

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순정이, 꼭 손에 총을 잡아야 싸우는게 아니요. 때로는 심장으로 부르는 노래가 포성을 대신할 때도 있거든. 우리에게는 어디서 무얼 하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받드는 삶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빛내는 사람만이 필요하오. 하지만 정 군복을 입겠다면 우리 정찰부문에 오는게 어때? 우리 과장동문 언제부터 동무를 욕심내고있소.》

주한경이 분위기를 바꾸려는듯 이렇게 웃으며 말하자 한순정은 또다시 얼굴이 발그레 물들며 커다란 눈을 놀랍게 깜박거렸다.

《어마나, 못합니다. 아저씨, 난 무척… 겁쟁이랍니다. 하지만… 저에게 만약 기질이 있다면 전… 민청원답게 해내겠어요.》

한순정은 류다른 희망의 불꽃이 튕기는 눈으로 주한경을 바라보았다.

《허허, 겁쟁이라. 하긴 묘향산에서도 길을 잃고 윤성녀어머니 신세를 졌지. 어떻소? 선화동무, 처녀동문 겁이 많지만 정찰병은 자신있어하누만.》

주한경의 말에 한순정은 얼굴이 익은 도마도처럼 빨갛게 되고 녀인의 눈에는 가벼운 미소가 떠올랐다.

《겁이 많은 녀성동문 아마 군의소에서도 환영하지 않을겁니다.》 하고 녀인이 웃으며 롱조로 한마디 끼여들었다.

《보라구, 순정이, 아무래도 동무는 군복이 어울리지 않을것 같아.》

《어마나, 사람은 태여날 때부터 병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단장동지를 꼭 설복해주세요. 그리구 성탄금이가 퇴원하면 그애도 정찰부대에 받아주십시오. 그앤 무척 용감하답니다. …》

한순정도 맑은 눈에 미소를 담고 쾌활한 얼굴로 두사람을 번갈아보았다.

《좋아, 이번 순회공연이 끝난 다음 내 한번 찾아가겠소. 그러나 아예 약속은 하지 않겠소. 동무네 단장은 여간 고집쟁이가 아니거든.》

《장령동지, 이 처녀동문 우리 부대에 와서 무선수를 해도 좋을거예요.》

작별에 앞서 녀인이 은근히 비치였다.

《허허, 선화동문 벌써 순정이한테 반했구만. 그럴것 없이 동무

네 공작조에 받으면 어떻소?》

주한경은 입가에 미소를 그렸다.

홍선화의 눈에는 부드러운 광채가 얼른거렸다.

주한경과 홍선화는 한순정과 함께 정문밖까지 나와 다정히 바래주었다. 주한경은 처녀가 줄장미 우거진 정원을 벗어나 멀리 들판길로 걸어갈 때까지 오래도록 잔디밭에 서있었다. 어쩐지 사랑스러운 딸과 작별하는 기분이였다. 상큼한 목을 쳐들고 탄력있는 다리로 총총히 걸어가는 처녀의 날씬한 모습은 이윽고 위장망을 친 군용차대렬에 가리워졌다. 주한경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돌아섰다. 어쩐지 그 처녀는 무거웠던 그의 가슴에 봄날과도 같은, 명절과도 같은 따뜻한 감정과 활기를 가져다준것 같았다. 삶과 젊음이, 우정과 의무가, 통털어 조국애라는 순결하고 열렬한 감정이 가슴에 넘쳐나는 젊은 세대의 생기발랄한 모습은 로병에게 무엇인가 이름할수 없는 행복감과 일종의 특이한 기쁨을 안겨준것이였다. 그는 자신의 리성과는 반대로 자기가 예술단 단장을 만나게 될것이며 그 녀자를 위해서 애써 그를 설복하게 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 순간 주한경은 자기가 이 처녀를 다시 보기까지는 몇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가야 한다는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있었다. 그들이 다시 상봉하기까지 그 처녀가 체험해야 할 시련과 곡절많은 인생행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던것이다.

그리고 홍선화와 한순정이 이 순간으로부터 52일의 나날이 흐른 후 엄혹한 정황속에서 운명적인 상봉을 하게 되리라는것을 몰랐다.

주한경이 방에 들어서자 김선형과장이 ××사단정찰병인 젊은 중위와 을지길을 데리고 나타났다.

주한경은 온통 땀으로 물참봉이 된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고 지도앞으로 다가갔다.

《난 동무들에게 긴 설명을 하지 않겠소. 동무들이 가져온 정찰보고는 극히 중대한 의미를 담고있다는것을 알아야겠소. 지도에서 정찰조의 이동로정을 짚어보시오.》

철색얼굴에 입술이 두터운 조장인 중위가 군용지도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찰조는 언제 전선을 넘었소?》

《어제 저녁 8시경이였습니다.》

《그러니 미××특수련대가 차지했던 계선에 지금은 미××사단의 포련대가 들어앉았단말이지?》
《예. 그리구 직속화학대대의 B중대도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B중대의 3급준위를 〈혀〉로 잡았는데 그놈은 자기들이 ××련대무력이 비밀리에 철수한 다음에 도착했기때문에 전혀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젊은 중위는 몹시 침착한 성격이였다. 그는 군용가방에서 《혀》를 심문한 문건을 조심스레 꺼내 장령에게 내밀었다.
주한경은 그 문건을 찬찬히 들여다본후 곁에 서있는 중좌에게 넘겨주었다.
《어떻소. 조장동무, 동무들은 무엇인가 생각되는게 없소? 아니,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도 좋소. 직접 적구를 밟은 동무들이기에 묻는거요. 사소한것이라도 말해보우.》
주한경은 두 정찰병에게 담배를 권하며 다정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때까지 아무 말 없이 차렷자세로 서있던 을지길은 지휘관의 눈길을 받자 넌지시 장령의 눈치를 살폈다.
주한경은 호기심어린 눈길로 면도자리가 푸릿한 을지길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그렸다.
《을지길동무, 수확물이 있는것 같은데 보따리를 풀지.》
《아닙니다. 장령동지, 이건 아직 제 추측에 불과한것인데… 저는 ××련대가 대구교외로 이동했다는 견해를…》
을지길이 우물거리자 주한경은 그의 어깨를 짚어 의자에 앉히며 눈을 끔적거렸다.
《그래 얘기해보우. 로병의 추리를 들어보기요.》
《장령동지, 저… 저는 조장동무와 함께 지도에 표시된 합수목까지 갔다가 물을 뜨러 도로교차점에 접근했댔습니다. 그곳에서 대구와 부산 그리고 포항쪽으로 뻗은 도로들을 좀 조사했는데 대구방면으로 달린 몇개의 특수한 견인차바퀴자욱과 전파탐지기가 설치된 무선차가 지나간 바퀴자욱을 발견했습니다.》
차츰 을지길의 얼굴에는 자신만만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주한경은 호기심어린 눈길로 정찰병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그 바퀴자욱이 ××련대의것이라는걸 확증했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하고 을지길은 활기있게 대답했다. 《저는 지

난주에 정찰나갔을 때 밤새 ××련대의 견인차밑에 누워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전파탐지기가 설치된 무선차의 바퀴 한짝을 그 견인차에 단걸 확인했습니다. 포탄파편에 맞은 자리가 있어 뚜렷한 흔적을 남기는 바퀴였습니다. 그리고 무선차 발디디개가 고장나서 달릴 때는 땅우로 약간 끌린다는것도 알아냈습니다.》

을지길의 추리는 정확하고 세심한 관찰에 기초한것이였다. 주한경은 중사의 이 놀랄만한 관찰력과 예리한 판단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몸을 돌려 서류철을 옆에 낀채 꼿꼿이 서있는 중좌를 바라보며 손을 흔들었다.

《보오, 과장동무. 우리 정찰병동무들이 어떤 재간둥이들인가를! 을지길동무, 동문 진짜배기정찰병이요.》 하고 주한경은 손으로 을지길의 어깨를 활기있게 두드렸다. 《걸작이요. 대단한 걸작이요. 난 동무가 냄새를 맡고도 무슨 자동차인지 알아낸다구 해서 허풍인줄 알았소. 그러나 이젠 믿겠소. 동무는 아주 중요한걸 추리해냈소. 음… 그러니 대구방면이란 말이지. …》

주한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뒤짐을 진채 방안을 천천히 거닐기 시작했다. 뜻밖에 장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을지길은 얼굴이 벌겋게 되여 게면쩍은 시선으로 꼿꼿이 서있는 중좌와 만족한듯 눈을 끔적거리는 조장을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중사의 얼굴에는 한순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 얼핏 떠올랐다.

전화종소리가 울렸다. 김선형이 급히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긴장한 얼굴로 눈을 반짝이며 귀를 강구더니 이윽고 주한경에게로 돌아섰다.

《장령동지, 전선사령부에서 정찰부장이 급히 와달랍니다. 총참모부에서 련락군관이 도착했답니다.》

《알겠소. 과장동문 이 동무들을 숙소로 안내해서 푹 쉬게 하시오.》

8월말의 서늘한 바람에서는 어느덧 가을의 향기가 풍기고있었다.

승용차가 은행나무숲이 무성한 옛 정원길을 빠져 전선사령부로 향하자 주한경은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다시 사색에 잠겼다.

(대구교외라… 그러니 그 특수련대도 《련락사무소》지휘부로 기여드는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련락사무소》가 전략부대의 모체일수 있다는 《수성》

조의 보고는 류의할만하다. 어쨌든 그 을지길동무가 괜찮아. …
놈들은 상륙작전모의와 함께 주도세밀하게 특수정보부대조직을 다그치고있다. 이것은 이 부대가 단순한 첩보모략전에 쓸 부대가 아님을 확증해주고있다. 아군의 종심에 강력한 2전선을 펴려는것이다. …
림송동무가 《한국》련락사무소 라이리 에니스준장의 련락장교로 침투해들어간것은 중요한 성과로 된다. 문제는 지금 창설중에 있는 전략정보부대의 모체가 바로 《련락사무소》라는데 있는것이다.
림송의 침투— 그것은 전략부대의 전모를 알아내는 기초로 될것이다. 그리고 이번 씨아이씨의 검토를 이겨내고 그것을 역전시켜 에니스의 부관을 함정에 몰아넣은것은 장차 에니스의 신임을 깊이 얻을수 있는 전망을 연셈이다. …)
주한경은 전선사령부에 도착하자 곧 참모부로 향했다. 포연서린 천리길을 급히 달려온 총참모부의 젊은 련락군관은 땀에 젖은 군복을 그냥 입은채 응접실의 쏘파에 기대여 쪽잠에 들어있었다.
주한경이 방에 들어서자 젊은 대좌가 들고있던 커다란 봉투를 그에게 내밀었다.
《장령동지, 최근에 놈들이 시도하고있는 전략정보부대 정보자료입니다.》
주한경은 천천히 문건철을 펼쳤다.
그는 한동안 문건에서 시선을 뗄줄 몰랐다.
(캐논방첩기관이 림송을 검질기게 추적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고 주한경은 문득 생각했다. (림송의 주위에서 누가 맴돌고있는가? 《쟈스민》은 누구인가?… 스테쎌인가 문용채인가? 강수림인가?… 그가 어디에서 실수했는가? … 이번 련락장교의 죽음은 한편으로 그에게 새로운 난관을 조성하고있다. …
림송의 안전을 위해서는 레이몬드와의 본부련락선을 리준구만이 맡아야 한다. 림송은 여전히 사무엘사무소선에서 레이몬드와 사업하는것이 공작상 유리하다. 다음번 에쓰디전문에는 이걸 밝혀야 한다. …)
이날저녁 주한경은 《수성》정찰조사업을 토의하기 위한 해당일군들과의 긴급협의회를 가지였다.
… 그날밤, 적후로 날아가는 많은 전파들속에는 대구의 《수성》정찰조에 보내는 조국의 지시문도 들어있었다.

림송은 서울을 향해 북으로 가는 미제침략군 해병대의 련락장교단과 함께 전선에 나와있었다. 미극동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취재하기 위해 종군하는 펜구락부기자들이 또한 일행에 섞여있었다.

림송은 에니스준장으로부터 8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는 사단들에서 특수부대에 편입시킬 인원들을 선발할데 대한 임무를 받았었다. 에니스의 목적은 실전에서 죽음과 맞서본, 전투경험이 풍부한 로병들을 선발하려는것이였다. …

펜구락부기자들은 3일만에 서울을 탈환하겠다고 성명한 극동군사령관의 호언장담을 믿고 종군길에 올랐으나 해상에서 폭풍에 시달리며 인민군해안포중대의 방어에 부딪쳐 며칠을 부대끼고는 아예 실망하고말았다. 벌써 전투는 열흘째 진행되고있지만 미군은 겨우 인천시내를 벗어나 로상에서 인민군의 강력한 방어에 부딪치고있었다.

림송은 펜구락부기자들과 동행하여온 레이몬드 아담스와 함께 전방에 나와있었다.

미제침략군 두개 기갑련대는 어제밤 인천교외를 벗어나 ××구역을 온종일 공격하였으나 예상외로 다리목을 방어하는 인민군 한개 소대의 화력에 걸려 전진을 못하고있었다.

70분이면 다리목의 인민군지탱점을 점령하겠다고 기자들앞에서 흰소리를 친 해병대참모장은 사태가 불리해지자 전방사령부에 항공증원을 요구하는 전보를 연방 띄웠다.

깨여진 장갑차뒤에 서서 망원경으로 인민군지탱점쪽을 살피던 아담스가 해쓱하게 질린 얼굴을 부르르 떨며 림송에게로 돌아섰다.

《림송대위, 과연 저 진지에 인민군 한개 보병소대밖에 없다는게 사실이요?》

《당신에게는 불을 뿜는 세정의 기판총이 보이지 않소?》

림송은 가슴속에 넘쳐나는 커다란 자부심과 충격을 억제하지 못하며 나직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니요, 난 똑똑히 보았소. 다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을뿐이요! 저 불굴의 인간들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요? 증강된 두개 기갑련대를 한개 보병소대로 맞서다니… 그것도 70분이 아니라 근 이틀을 말이요! 림송씨, 대답해보우. 당신도 같은 조선사람이 아니요?…》

아담스는 불타는 진지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며 림송의 한쪽팔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림송은 웬일인지 목이 콱 메여올라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다.

(고맙소. 동무들! 용감한 《기관총》동지! 이게 내 조국이고 우리 인민의 힘이였구나.… 난 요즘 준엄한 조국의 시련앞에서 정신적중압감을 느끼고있었다. 아니다!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은 영원히 우리 인민군병사들의 심장속에 살아있다. 난 이걸 내 눈으로 보고있다. 온몸으로 느끼고있다!…)

아담스의 격정도 아직은 이른것이였다.

전투는 다음날 새벽에 가서야 끝났다.

인민군전투원들은 아군이 ○○구역에 강력한 방어축성물을 형성할 때까지 다리목을 철벽으로 지켜내였다.…

아담스는 화광이 충천하고 포연이 날리는 전호로 다가가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그래, 맥아더장령은 3일만에 서울을 점령하지 못하면 작전은 실패한것이라고 때이르게 말해버렸다. 그러나 증강된 두개 군단무력인 5만의 상륙원정군은 인민군 한개 포병중대와 맞서 바다에서 3일을 잃고말았다. 또 오늘은 사단무력이 보병소대에게 옹근 이틀을 빼앗겼다! 과연 세계전쟁력사에 이런 기적이 있었던가?…

불굴의 인민이다. 불사신들이다. 거인들이다! 과연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육탄이 되여 결사전에 나서는 저 인간들의 심장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저 병사들의 가슴속에서는 무엇이 불타고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자기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만으로는 설명할수 없는 그 무엇이 저들에게는 있다. 조국애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간직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겠는가.

조국은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하지만 저들에게는 조국보다 더 귀중한 그 무엇이 있는것인가?…)

아담스는 불에 끄슬린 파편쪼각을 밟으며 기관총이 불을 뿜던 사격좌지쪽으로 저벅저벅 걸어갔다.

장갑차에서 내린 펜구락부기자들이 기관총좌지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있었다.

아담스는 림송과 함께 그쪽으로 다가갔다.

죤스톤과 박사라가 불에 그슬린 탄약상자를 둘러싼 기자들속에

서 목을 빼들고 두사람에게 손짓하고있었다.
《림송씨, 이걸 좀 봐주시오. 박사라양의 말은 조선어지식으로써는 이걸 해득할수가 없습니다.》 하고 죤스톤이 마치 고대유물을 발견한 고고학자와도 같은 의기양양한 빛을 띠우고 떠들어댔다.
《우린 이 불탄 상자를 저 엄폐호안에서 끄집어냈소. 땅에 묻혀있던것이 포격에 드러난 모양이요. 탄약이 떨어져 결사전에 나선 병사들이 성한 상자를 묻어둔것이 이상해서 뜯어보았는데 이런게 나졌소.》
죤스톤은 기름종이에 싼 서류를 림송에게 내밀었다.
림송은 그것을 받아 천천히 펼쳤다. 한순간 림송의 눈길이 굳어지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입을 꾹 다물고 그 불에 그슬린 문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전호가에는 별안간 엄숙한 고요가 깃들었다.
《림송대위, 그건 뭡니까?》
아담스가 림송의 변한 낯색을 살피며 나직한 어조로 물었다.
《이건… 맹세문입니다.》
《맹세문이라니?!…》
펜구락부기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기색을 지었다.
《이 다리목을 지켜싸운 병사들이 결사전을 준비하면서 조국과 수령에게 다진 선서입니다.》
아담스는 림송의 손에서 한쪽모서리가 불타버린 그 종이장을 조심히 받아들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장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림송씨, 난 당신이 이걸 읽어주었으면 합니다.》
호기심어린 기자들의 눈길이 림송에게 와서 멎었다.
림송은 소용돌이치는 마음의 충격을 자제하려는듯 한순간 생각에 잠겼다가 맹세문에로 시선을 돌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이시여!
… 우리 방위자들은 마지막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어머니조국의 귀중한 땅을 사수할것입니다.
장군님께서 계시는 한 조국은 영원히 우리의 심장속에 있습니다.…
조국이여 번영하라!
김일성장군 만세!》

한순간 강기슭에는 장엄한 정적이 깃들었다. 불멸의 방위자들이 남긴 글발은 기자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참 놀라운 사람들이요! 용감하고 정의로운 민족이요. 난 도무지 리해할수 없소. 결국 이들도 생명이 귀중한줄 아는 인간들일텐데… 그다음의 짤막한 구절들은 뭡니까?…》

아담스가 도리질을 하며 다시 물었다.

《그것은 병사들의 서명입니다.》

《서명?… 그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동당원들과 민청원들 그리고 소속을 밝히지 않은 병사들의 명단들이군요. … 그다음은 불에 타서 알수 없습니다. …》

림송은 조용히 불탄 맹세문을 아담스에게 넘겨주고 천천히 그자리를 떠났다. 아담스는 그것을 받아든채 포연이 날리는 강기슭을 따라 걸어가는 림송의 뒤모습을 이윽토록 바라보았다.

림송은 검푸른 물결이 밀려와 발목을 적시는줄도 모르고 준엄한 격전이 지나간 그 기슭을 저벅저벅 걸어갔다.

그 맹세문은 림송의 가슴에 격동의 소용돌이를 일으켜놓았다. 그 어떤 이름할수 없는 죄의식과 일종의 자책감속에서 림송은 생각했다. 인민군방위자들이 다리목을 지켜낸 시간은 전쟁에서 한순간에 불과하다. 하지만 조국의 귀중한 한순간을 위해 그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다. 그 생명, 그것은 그들이 누려왔던 삶, 누려야 할 삶, 아름다운 희망, 간직한 사랑, 피끓는 청춘의 총체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지켜낸 그 순간들이 모여 조국을 위한 승리의 나날로 되는것이다! 림송은 이것을 명백히 깨달았다. 어쩐지 자기는 북상하는 미제침략군을 따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가슴속에 크낙한것이 바위처럼 들어앉았다. 영원한 삶의 길로 분연히 걸어간 전우들, 로동당원들의 불멸의 모습은 림송의 등허리에 채찍질을 했다. 그렇다. 나는 이 엄혹한 정황속에서 조국이 준 임무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엎어놓아도 뒤집어놓아도 전사가 받은 임무를 수행 못한다면 조국앞에 영원한 수치를 느껴야 한다. 놈들은 이 순간에도 전략부대음모를 다그치고있다. 그 음모자들속으로 돌진해야 한다.

림송은 장갑차곁에 다가가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곁에서는 부상당한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났다.

(지금 이 순간도 에니스는 정보부대조직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다. 현재 나의 처지는 어떤가? 《련락사무소》소속 정보련락장교로 임명되였지만 나는 여전히 에니스를 둘러싼 가상적인 동심원의 맨 마지막원에서 맴돌이치고있다. 그 원은 동심원의 다섯번째 원일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네번째원》으로 들어서겠는가? 아니,《첫번째원》안의 중심부로 뚫고 들어가겠는가?…

모든것은 축적된 우에 보충된다. 탑을 쌓을 때 벽돌을 한장 쌓아야 두번째 장을 놓을수 있다. 이미 진행한 일,이미 벌어진 사건에 기초해서 이 《원》의 중심으로 침투할 방도를 생각해보자. 에니스는 왜 남조선계 장교들을 필요로 하면서 나를 믿지 못하는가? 왜 동심원밖을 맴돌게 하는가? 그의 약한 고리는 어딘가? 그의 《신임》을 얻을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로련하고 경험이 풍부한 정탐가,의혹이 많은 성격,자부심이 강한 독선가… 가만,만약 워싱톤의 련락장교사건에서 그의 약점을 쥔다면?…)

섬광과도 같은 령감이 한순간 림송의 뇌리를 쳤다.

림송은 흥분을 느끼며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대구의 역전공원은 시내에서 그중 수목이 무성하고 안침한곳이였다.

림송은 장갑차들이 지나가면서 무너뜨린 담장옆에 승용차를 세우고 공원입구를 바라보았다. 가까이에 있는 야전병원에서 상병자들이 기여나와 주변을 어슬렁거리고있었다. 림송은 담배를 피워물고 공원안으로 들어갔다. 전쟁전에 꾸린 역전공원은 가을철을 맞아 조락하는 단풍잎들이 어지럽게 널려있었다. 림송은 푸른 뼁끼칠을 한 공원의자에 앉아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1분후에 이곳에서 리준구와 만나게 되여있었다.

림송은 어제 아담스와 함께 미제침략군이 점령한 서울을 출발하였다. 에니스준장으로부터 급히 대구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가지고 세종호텔로 림송을 찾아온것은 다름아닌 듀페이중좌였다.

림송은 에니스가 《련락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특수정보부대에 괴뢰정보국을 인입시키려고 서둔다는것을 대뜸 직감했다.

3일간이면 충분하다고 하던 맥아더가 보름이 지난 9월말경에야 겨우 서울에 들어서는데 환멸을 느낀 아담스는 종군에 지친 몸으

로 림송을 따라 대구행비행기에 올랐다.
《림송.》 하고 듀페이는 비행기가 서울상공을 날아오르자 신문지로 얼굴을 덮고 상념에 잠긴 아담스쪽을 흘깃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도꾜로 급히 불리워간 에니스준장은 지금 워싱톤으로부터 특수정보부대조직때문에 불같은 독촉을 받고있네. 아마 자네도 대구에 돌아가면 새 과업을 받게 될걸세. 여차하면 우리는 함께 며칠후 다시 전선지역으로 떠날지도 모르겠네.
지금 8군사령부 정보부에서는 에니스의 대리인 벤다프대좌가 륙군정보국장 장도영대령과 함께 인원선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거든. 이젠 워싱톤이 8군정보부를 독촉하게도 됐지.
맥아더원수의 인천상륙작전은 완전히 실패한셈이니까.
전쟁에서는 한시간이, 아니 한순간이 승패를 좌우하는데 3일간으로 계획했던 작전이 14일로 늘어났으니 이젠 맥장군의 명예도 쇠퇴기에 들어선셈이야. 정보전을 무시한 현대장군의 비참한 운명이지. … 림송, 난 앞으로 이 전쟁의 마지막테프는 우리 정보장교들에 의해 끊어지리라는것을 확신하네.》
《남부전선의 형편은 어떤가?》 하고 림송은 극동군의 패전에 오히려 의기양양해하는 빛을 보이는 듀페이에게 넌지시 물었다.
듀페이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난 워커장군의 8군을 놓고 자네에게 아시아속담을 하나 상기시키고싶네. 닭 쫓던 개 지붕 올려다본다더라?…》
듀페이는 누런 이를 드러내보이며 제풀에 껄껄 웃었다.
불쑥 아담스가 아무 말없이 얼굴을 덮고있던 신문을 림송에게 내밀었다.
《워싱톤포스트》지에 실린 죤스톤의 9월 27일부 《에이피통신》 기사였다.
림송은 아담스가 내민 신문을 받아들고 거기에 눈길을 가져갔다.
《남부전선의 북조선군이 어떻게 유엔군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는가 하는것은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거의 하루밤사이에 자취를 감추어 정찰기로 도로상에서 후퇴중의 북조선군의 대부대를 발견하지 못하고있다.
그리고 서울—인천지구에 이동하고있는 징후도 없다. 문제는 장

비를 갖춘 북조선군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데 있다. …》
림송은 신문을 읽으며 그 불탄 맹세문을 상기했다.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시련에 찬 북행길에 오른 전우들의 모습이 그의 눈앞에 우렷이 떠올랐다. …
《오래 기다렸소?》
옆에 와앉은 리준구의 나직한 목소리에 림송은 상념에서 깨여났다.
림송이 얼핏 돌아보려는 순간 그가 말을 이었다.
《돌아보지 마오. 난 신문을 읽을테니까. 비상상면신호를 받고 조심했지만 혹시 미행이 붙었을지도 모르겠소. 며칠전부터 병원앞에 번호를 바꾸는 승용차 한대가 늘 서있군하오. 씨아이씨가 무엇인가 낌새를 채고 나에게 그것으로 심리적인 작용을 하려는것 같소.
캐논방첩기관의 상투적인 수법이요.》
림송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의자옆에 서있는 늙은 상록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코트깃을 세우며 돌아선채로 나직이 말했다.
《그럼 기억해두십시오. 전 이번에 인원선발로 전선에 갔었습니다. 9월 30일 8군정보부가 정식비준한 극비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미××련대와 괴뢰2군단의 ××사단이 대구 서북쪽의 〈련락사무소〉에 집결했습니다. 벤다프대좌가 수석고문으로 〈사무소〉에 나가고있습니다. … 그리고 문용채가 특수부대의 괴뢰측 부사령관격으로 될것 같습니다. …》
바람이 불자 누렇게 황이 든 나무잎새들이 와스스 떨어져내렸다.
리준구는 신문우에 떨어진 나무잎을 손에 들고 유심히 살폈다.
《대단히 중요한 정보요. 이젠 놈들의 전략정보부대의 륜곽을 기본적으로 파악했소. 이번에 수고가 많았소. 조국에서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준엄한 정황속에서도 우리 적후전사들의 신변을 걱정해왔소. 아무튼 매사에 더 심중해야겠소. 임무가 무거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침착하게 행동해야겠소. 문제는 〈련락사무소〉의 심장부로 접근하는거요.》
《…》
림송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래… 조국이 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려면 바로 이 부대의 조직자이고 책임자인 라이리 에니스준장의 철의 장벽을 뚫고들어가야 한다! …

에니스는 자기를 위기에서 구원할 때에라야만 손을 내밀수 있다. 그는 자기의 명예와 생명을 위해서라면 한개 사단 병력이라도 희생시킬수 있는 야심가가 아닌가. 이 측면을 노려야 한다! …)

두사람은 상록수앞을 떠나 공원중심에 있는 옛 경마장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흐름속에 끼여들었다.

한가한 장교들과 시민들이 옛 경마장에 펼쳐진 장마당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있었다.

림송과 리준구는 역전공원의 북쪽 빠찡고집뒤로 걸어갔다. 황이 든 락엽들이 수북이 깔려 발에 밟혔다.

리준구는 공습에 넘어진 돌의자를 발로 밀어놓고 앉았다.

림송은 사색에 잠긴 눈길로 리준구를 마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다.

《제게 한가지 안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까?》

《이야기하우.》

《조장동지, 요즘 에니스가 몹시 불안해하고있는데 이걸 리용할수는 없을가요?…》

림송은 담배곽을 꺼내들었다.

《들어보기요.》

《전번에 련락문건을 가지고오다가 사살된 워싱톤의 련락장교 말입니다. 문건은 도착했지만 련락장교가 죽은바람에 도꾜에서는 여러가지로 의혹과 불신의 문건을 보내왔습니다. 게다가 련락장교의 시체를 야전병원시체실에 가져갔었는데 부검직전에 도적맞혔거든요.》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는거요?》

《레이몬드의 말에 의하면 브라운 겐지로수하장교들의 작간이랍니다. 듀페이의 보고를 듣고 인민군의 습격으로 간주하고있는 에니스에게 있어서 씨아이씨의 이런 움직임들은 커다란 심리적자극으로 되고있습니다. 저는 습격과정에 대하여, 련락장교영접문제에 대하여 도꾜의 극동사령부 정보국에 간접적으로 통보하자는겁니다. 그렇게 되면 윌로우비국장이 에니스의 약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꼭 움직일것입니다.》

림송의 말에 리준구는 넘어진 돌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고 생각에 잠긴 시선으로 림송을 마주보았다.

《만약 에니스가 도꾜의 화살에 심장을 맞는다면?》

《아닙니다. 저에게는 에니스를 〈보호〉할 믿음직한 방패가 있습니다. 월로우비는 련락장교의 파견을 행정적으로만 관계했지요. 련락장교는 정보국 장교복을 입었지만 사실은 미중앙정보국에서 파견한자였습니다.》

리준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생각엔》 하고 그는 한참만에 입을 열었다. 《동무가 직접 나서지 말고 레이몬드 아담스를 내세우면 좋겠소. 그는 기자면서 사무소대표니까. 월로우비가 대구에 나타나면 캐논방첩기관이나 에니스에게서 분명 반응이 있을거요! 아주 주도세밀한 좋은 착안이요.》

《그럼 래일 대구를 떠나기전에 아담스에게 귀띔하겠습니다.》

《아담스는 내가 만나겠소. 그와의 사업에 착수할 때가 되였소.

조국에서 이미 우리의 제의에 결론이 있었소. 본부에서 하와이선을 통해 알아본데 의하면 그는 2차대전시기 프랑스 빨찌산부대 후방사업을 적극 도운 반파쑈전사요. 우리가 혁명적영향을 잘 준다면 훌륭한 국제주의전사가 될수 있는 인물이요.》

《저 역시 그의 성실성을 두고 생각되는것이 많습니다.》

림송은 레이몬드의 진중한 눈길을 상기하며 조용히 말했다.

《조국의 지시가 있었지만 동무는 공작상 여전히 사무엘의 동업자로 그를 대하는것이 유리할것 같소. 림동무, 주한경동지는 동무의 신변을 놓고 조국에서 걱정하고있음을 알려왔소. 절대로 모험하지 말아야겠소. 그리고 어려운 때일수록 순간의 동요도 없이 신념있게 행동하길 바라오.》

《알았습니다, 준구동지.》

림송은 아우성이 터져오르는 장마당쪽으로 얼핏 시선을 주었다가 다시 내리깔았다.

그는 생각에 젖은 목소리로 띠염띠염 말을 이었다.

《난 이번에 많은걸 느꼈습니다.… 전번주에 나는 한 인민군소대가 차지했던 전호에서 맹세문을 읽었습니다.

그 맹세문은 나의 심장속에 영원히 아로새겨졌습니다. 그 불멸의 병사들에게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을 보았다고 할가요. 경애하는 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새롭게 간직하게 되였습니다. 로동당원들은 앞장에 서서 최후의 결사

전에로 병사들을 불렀습니다. 가장 용감한 병사도 참된 인간도 다름아닌 로동당원들이라는걸 깨달았습니다.》

림송의 흥분한 말에 리준구는 눈을 슴벅이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난 림송동무가 귀중한것을 체험했다고 생각하오. 그렇소. 장군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만이 매개 인간에게 죽어서도 변치않는 영원한 삶을 주고 정의의 전쟁을 승리에로 령도하고있소. 난 동무가 조국이 시련을 겪는 준엄한 시기에 그것을 깨달은걸 기쁘게 생각하오. 당—그것은 장군님의 사상이며 장군님의 품이요.》

리준구의 말은 림송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조장동지！》

별안간 림송은 얼굴을 홱 돌리고 리준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길은 열망과 맹세로 불타오르고있었다.

《나의 아버지는 공산당원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산당원이라는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장군님께 충성다하였습니다.

난 이 준엄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오직 당만이 나의 삶과 운명, 미래를 말아주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기수라는것을 심장으로 체험했습니다.

장군님께서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이 있는 한 나의 조국은 영원하고 정의의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리준구동지, 저의 입당청원을 조직에 전해주십시오.》

림송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하여 가볍게 떨렸다.

리준구는 뜨거운 눈길로 림송을 마주보았다. 만약 할수만 있었다면 그는 이 순간 림송을 와락 포옹하고싶었다. 그는 애써 자신을 자제하며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알겠소！ 림송동무, 내 동무의 제의를 꼭 조직에 보고하겠소. 조국에서는 아버지의 아들답게 이렇게 성장한 동무를 두고 대단히 기뻐할거요. 난 동무를 믿소. 동무의 입당보증은 내가 서겠소！》

《고맙습니다, 리준구동지.》

림송의 눈가에는 맑은 이슬이 맺혔다.

리준구는 림송을 알게 된 짧지 않은 나날속에 그에게서 처음으

로 눈물을 보았다. 시련앞에서도 전우의 죽음앞에서도 기약할수 없는 작별의 순간에도 결코 눈물을 보인 일이 없는 그였기에 오늘의 그 눈물은 그렇듯 진실하고 순결한것이였다.

그것은 새 인간의 탄생을 알리는 전사의 눈물이였다.

리준구는 가슴이 찌르르해옴을 느꼈다.

그래, 저 눈물을 탓하지 말라. 저런 눈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아도 좋을것이다. …

제 10 장

정열의 계절은 찾아올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물러가버렸다. 아니, 서둘러 덤비면서 자기의 뜨거움과 진한 푸른 색조와 열풍을 걷어안고, 동시에 권태와 보라빛 운무에 싸인 나른한 여름철의 몽상을 휘감아가지고 사라져버렸다.

그러자 뜻밖에도 불시에 가을이 왔다. 서늘하고 메마르고 생기로운 흐름이 대기를 가득채우고 익는 계절의 신비로운 매혹이 자연을 지배하였다. 모든것이 갑자기 황금색을 띠기 시작하고 태양은 자연의 이 조화를 섬세히 부감하려는듯 멀찌감치 물러섰다. 하지만 이 가을의 황금색조속에는 여전히 여름녀신이 남겨놓은 고집스러운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마지막 향기를 풍기는 산꽃들, 푸르무레한 들, 열기를 풍기는 대지… 아니, 그것은 여름이 아니라 전쟁이 만들어내는 열기인지도 모른다. …

림송은 《훔벨》을 몰고 장교호텔을 나섰다. 그에게는 숙소에서부터 사무실로 가는 이 15키로메터의 구간이 때로는 사색의 시간으로 때로는 휴식으로 되는것이였다. 그는 차창밖을 무심히 바라보다가 문득 놀라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대지가, 풍만한 가을의 정서로 단장한 들판이 마치 태양의 밝음처럼 갑자기 그의 눈에 안겨든것이다.

정다우면서도 낯선, 오래동안 꿈과 추억속에서만 그려보던 누런빛의 풍요한 대지가 눈물겨운 아름다움으로 그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것이였다. 이것이 그의 고국이였다. 밟고싶고 안아보고싶던 어머

니조국이였다. 항시 마음을 겹싸던 고독이 이 순간 비누거품처럼 흩어지고 무엇인가 부드러운것이, 따뜻한것이, 명절날같은 다채로움이 충만되는것이였다.

림송은 이 짧은 출근길에서 잠기게 되는 소중한 감상의 세계에 오래도록, 아니 영원히 잠기고싶었다.

하지만 승용차가 사령부정문을 가까이 하고 묵중한 차단봉이 시창을 막아서자 격양된 세계는 가뭇 사라져버렸다.

림송이 8군사령부 정보부본부에 들어서자 아이부스대좌가 몹시 초조한 눈길로 그를 맞이했다.

《림송대위, 난 아까부터 당신이 오길 기다리고있었소.》

《혹시 대좌님의 새로운 심리학강의를 듣게 되는건 아닐가요？》

림송은 불안한 기색이 엿보이는 아이부스의 얼굴빛을 살피며 유쾌한 어조로 물었다.

《대위, 난 당신이 성실하고 또 기억력이 대단히 좋은것으로 알고있는데？…》 하고 아이부스는 일종의 기대가 어린 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필요한것은 기억하고있습니다.》

《당신은 듀페이중좌와 함께 비행장에 나가 련락장교를 영접해오던 날을 기억하고있소？》

《물론입니다.》

《림송대위, 내가 그날 에니스준장의 명령을 전달했을뿐이라는것을 잊지 말아주오. 난 대위가 자신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공정한 위치에 서주기를 바라오. 나는 당신의 성실성을 믿고 대위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더라도 힘껏 돕겠소. 지금 에니스준장의 방에는 련락장교의 사살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극동군사령부 월로우비 정보국장님이 검열성원들과 함께 와있소. 듀페이중좌도 부산에서 떠났을테지만 당신은 아마 오늘 그들의 호출을 받게 될거요. 내 말을 알겠소？ 난 이 사건에서…》

아이부스는 말을 채 끝맺을수 없었다. 캐논기관의 한 장교가 방에 나타나 림송과 아이부스에게 월로우비소장이 기다린다는것을 알렸기때문이였다.

방을 나서는 림송의 심정은 이 순간 평온하지 않았다.

리준구와 토의한후 림송은 레이몬드 아담스를 통하여 워싱톤의 련

락장교가 정체모를자들의 습격에 의해 사살된 사실을 도꾜정보국에 통보했었다.

림송으로서는 이 통보가 극동군사령부 정보국장 윌로우비로 하여금 그렇듯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었다.

련락장교사건을 조작한 캐논방첩기관은 그의 죽음을 계기로 사실 에니스준장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확대하고있었다. 아담스를 통한 림송의 통보는 때를 맞춰 진행한것이였다. 통보는 겐지로자신이 도꾜의 자기 본부에 할수 있는것이였다. 림송은 야전병원의 사체실에서 련락장교의 시체를 은밀히 가져간 겐지로의 행동뒤에 숨은 음모의 륜곽을 제때에 포착했었다.

물론 그들은 시체에서 림송자신은 물론 듀페이의 지문도 발견할수 없었을것이다. 그러니 그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지금당장 그 누구도 할수 없을것이였다. 한편 당시 캐논방첩기관의 눈이 뒤를 따른 조건에서 림송에게 의혹이 집중될수 있었다.

(그러나) 하고 림송은 아이부스와 함께 층계를 오르면서 번개같은 순간의 사색을 이어갔다. (캐논방첩기관으로서는 그것이 아직은 가설이나 협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의혹으로만 남아있을것이다.… 왜？ 그것은 그들의 나에 대한 검토는 결국 실패했기때문이다.

물론 그때 나에게는 련락장교의 죽음이 뜻밖이였다.… 윌로우비앞에서 나는 시종일관 조장동지와 토의한대로 행동해야 한다. 듀페이의 행동은 마지막미끼로 남겨두어야 한다.…

그런데 윌로우비소장이 직접 나타난것은 무엇때문인가？ 이것은 놈들이 무엇인가 더 큰것을 노리고있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어쨌든 한순간의 실수가 모든것을 망칠수 있다. 림송, 침착하라！한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라.…)

정보부장의 방에는 뜻밖에도 사복을 입은 다나까 사무엘도 앉아있었다. 예견하지 않은 일이였으므로 림송은 한순간 당황했다. 그가 미중앙정보국 요원이라는것은 주지의 사실이였지만 이처럼 공개적인 석상에 나타날줄은 몰랐었다.

사무엘은 방에 들어선 림송을 무표정한 눈길로 슬쩍 바라보았다. 림송은 그가 이 공식적인 석상에서 자기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려 한다는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림송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

였다. 림송은 방안을 둘러보았다. 작전대앞에 얼마간 사이를 두고 월로우비와 라이리 에니스준장이 표표한 낯빛으로 앉아있었다. 방에 들어선 다음순간 림송은 에니스준장의 얼굴을 살폈다. 에니스는 지꿎은 눈길로 림송과 아이부스를 예리하게 바라보고있었다.
림송은 이 순간 에니스준장 역시 지금 몹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가 늘 애용하던 파이프대신 담배를 그냥 물고있기때문이였다. 림송은 에니스의 눈빛에 깃든 일종의 불만기를 재빨리 엿볼수 있었다. 림송은 막뒤에서 캐논기관이 월로우비를 내세운것은 이 씨아이에이의 거물에게 타격을 가하기 위한것이라는것을 대뜸 간파하였다. 이것을 생각하자 림송은 여유있는 시선으로 방안의 사람들을 둘러볼수 있었다.
《대위, 어제부터 당신은 자신이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군법회의에 나설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다는것을 알아야 하오.》 하고 월로우비가 째지는듯한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어떤 질문에도 답변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림송은 차렷자세를 취하고 명백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 순간 림송은 응접탁 저켠 룡설란화분뒤에 앉은 네번째 인물을 발견했다. 안락의자에 깊이 몸을 잠근 사나이는 다름아닌 브라운 겐지로중좌였다.
《당신은 워싱톤에서 오는 련락장교를 영접해올데 대한 임무를 에니스준장에게서 받았소?》 하고 사무엘이 다소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다.
한순간 림송은 대답을 망설였다. 이 방에 겐지로중좌가 앉아있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짧은 순간이나마 사태를 새롭게 추리해볼것을 요구하였다.
(겐지로의 출현은 결국 아담스의 통보가 월로우비 및 사무엘과 캐논방첩기관에로 동시에 가닿았다는것을 말한다. 물론 아담스의 통보를 캐논방첩기관이 도중에서 도청했을것이다. 이번 대구행각이 공식성을 띠는 경우 월로우비는 방첩기관의 참가를 허락하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겐지로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위, 어서 대답하게!》
월로우비가 옆에서 독촉했다.
림송은 얼핏 에니스를 바라보았다. 에니스는 험악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고있었다.
《장령각하, 나는 여기에 착오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듀페이중좌를 이자리에 참가시켜주십시오.》
《대위, 우린 당신의 책임적인 발언에 기대를 걸고있소.》 하고 사무엘이 용기를 주듯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대답하겠습니다. 나와 듀페이중좌는 준장님의 대리인인 아이부스대좌에게서 임무를 받았습니다. 련락장교의 도착에 대해서 준장님은 알수 없지요. 난 이 사건과 준장과는 아무런 련관도 없다는것을 보증할수 있습니다. 준장은 그때 8군사령부에 가있었습니다. 총격사건후 지투본부에 도착했을 때도 준장은 방에 없었습니다.》
림송의 말에 에니스준장의 얼굴근육은 풀려버리고 아이부스의 낯빛은 금시 먹색이 되여버렸다.
《대좌, 어떻게 된거요? 당신은 에니스준장이 지시했다고 하지 않았소?》
월로우비가 이마살을 찌프리고 가련한 대좌를 넘겨다보았다.
《소장님, 난 준장의 지시를 두 장교에게 전달했을뿐입니다. 그때 준장님은…》
《장령각하.》 하고 림송이 우들우들 떨며 변명하는 아이부스의 말을 가로챘다. 《아이부스대좌는 에니스준장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준장님이라면 기관총소대의 호위를 받고싶어한 나의 제의를 무시하지 않았을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이 대위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요?》
림송의 말에 사무엘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아이부스에게 따지고 들었다.
《아니, 그건… 비밀보장을 위해서…》
별안간 궁지에 몰린 아이부스는 낯빛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우물거렸다.
《대좌는 그뿐만아니라 공개된 비밀이 가장 안정하다는 심리학학설로 그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 사실은 듀페이중좌가 증언할것입니다.》
림송은 랭랭한 어조로 말하며 아이부스를 돌아보았다.
《대좌, 당신이 이 장교들앞에서 심리학강의를 한게 사실이요?》

월로우비의 물음에 아이부스는 대답을 피할수 없었다. 잠시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월로우비가 눈을 지그시 감고있는 겐지로쪽으로 얼굴을 돌리자 기다렸다는듯이 그가 한손을 들었다. 그러자 캐논방첩기관의 두 장교가 들어와 아이부스를 량옆에서 팔을 끼고 방에서 나가버렸다. 아이부스는 허둥지둥한 눈길로 에니스준장과 림송을 둘러보더니 뭐라고 의미없이 중얼거리며 끌려나갔다.

《림송대위, 그러니 당신은 습격이 있을것을 예견했댔소?》 하고 불쑥 겐지로가 자못 친근한 어조로 물었다.

《나는 이런 불쾌한 장소에 자신이 서게 될수도 있다는것을 예견했을뿐입니다.》 하고 림송은 랭담한 어조로 대답했다.

월로우비가 응접탁우에 놓인 커피잔을 끌어당기며 에니스를 흘끔 바라보았다.

《에니스준장, 당신은 훌륭한 장교를 두고있소. 난 이 대위가 조금도 당황하지 않는데 탄복했소. 만약 이 장교의 요구대로 호위소대를 달고 떠났다면 련락장교는 죽지 않았을거요.》

월로우비가 말을 하는 사이 림송과 겐지로의 눈길이 다시 허공에서 부딪쳤다.

림송은 겐지로가 자기의 증언을 한마디도 믿지 않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겐지로는 림송을 향해 미소를 보내고있었다. 림송은 어쩐지 가슴이 서늘해옴을 느꼈다.

에니스는 방으로 돌아오자 림송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못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림송, 당신은 오늘 이 로병의 명예를 지켜주었네. 그래 불행한 아이부스가 끌려나갈 때 자네의 심장속엔 동정심이 싹트지 않던가?》

에니스의 눈길은 야릇한 광채로 빛났다.

《준장님에 대한 존경심은 그런 값싼 동정심보다 큰것이였습니다.》

림송의 대답에 에니스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툭 쳤다.

《훌륭하오. 자네는 내 마음에 들어. 난 앞으로 자네가 친구들의 불신임을 받는 난처한 처지에 빠지더라도 세번은 구원해줄 용의가 있소. 난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니까.》

늙은 승냥이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은 림송은 자기가 실수하지 않

았다는것을 느꼈다.
《고맙습니다. 준장님, 그러나 난 결코 준장님의 립장을 따분하게 만들 처지에는 빠지지 않을것입니다.》
《림송대위, 너무 그러지 말게. 지나치게 결함이 없는 인간은 오히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법이야. 아마 캐논기관도 그런 인간에게서 냄새를 맡으려 할결세. 자, 내 침실로 가자구. 함께 안네뜨가 보내온 포도주를 마시자구.》
에니스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림송자신도 아직은 자기에게 이 늙은 정탐배의 말을 상기하지 않으면 안될 준엄한 시각이 오리라는것을 몰랐다.

직업적인 정탐가의 두뇌는 창조적이여야 했다. 관찰과 분석과 추리는 전략정치정보일군의 생명이였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촬영기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림송은 잘 알고있었다. 그것은 천성의 힘이 아니라 숙련의 결과로 나타나는것이였다. 조국애, 의지, 사색과 추리, 순간의 기억, 역을 담당해야 할 새 인간 모습에로의 재창조능력—이것은 림송이 일찌기 지향해왔고 또 희망하는 정치정탐가의 기질이였다.
림송은 아담스가 불러주는 자료들을 머리에 기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사무소 현관으로 나왔다. 벌써 저녁이 가까와오고 있었다.
레이몬드 아담스는 잠시 주저하는 눈길로 림송을 흘끔 바라보더니 다소 침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혹시… 내가 련락을 보냈던 〈알파〉를 기억하는지요?…》
림송은 승용차문을 열려다가 홱 얼굴을 돌렸다.
《기억합니다.》
레이몬드는 이상하게 갈린듯싶은 목소리에 의아해진 눈을 껌벅거렸다.
《그는 부산으로 간 다음 슬며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캐논기관의 두 장교가 우리 사무소에 와서 그의 행처를 묻더군요. 언제 어떻게 입직했으며 누구의 주선으로 들어왔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졌습니다.》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난 그를 성실한 젊은이로 여기고있었습니다. … 의협심이 있고 인정도 있는… 그는 나의 사업을 여러모로 방조했지요. 만약 그가 좋지 않은 인간이라면 벌써 나를 한국경찰에라도 밀고했을것입니다.》

레이몬드의 말에서는 그에 대한 깊은 동정심이 느껴졌다.

림송은 승용차안에 들어가앉았다. 그러나 발동을 걸지는 않았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소?》

《그가 미국에 체류하고있은 일이 있는가를 알고싶어하더군요. 그리고 당신과 아는 사이인가를 캐려고 했습니다. 물론 난 〈알파〉는 아시아대륙을 벗어나보지 못했으며 사무소에 취직한지 얼마 안되는만큼 아직 상종할 기회가 없었다는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증언에 부언이 없으리라 믿소.》

《알겠습니다.》

림송은 어슬녘에야 장교숙소에 들어섰다. 림송은 응접홀에 들어서다가 쏘파에 쓰러져있는 안내원을 보았다. 그 녀자는 겁에 질린 눈길로 림송을 올려다보더니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어린 안내원의 하얀 볼에는 시퍼런 멍이 두군데나 생겨있었다.

《웬일이요?》

림송은 부들부들 떠는 안내원을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갔다. 그 녀자는 림송이 주는 물을 한모금 마시고서야 제 정신이 들었다.

《그 장교들은… 장교님의 방을 뒤지더니 다짜고짜로 저를 위협했어요. 웬 젊은이의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 왔다간 일이 없는가고 하면서… 내가 모른다고 하니 그들은 막 때리더군요.》

순박한 안내원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였다. 림송은 캐논기관에서 겐지로의 방첩장교들이 왔다간것을 알았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고 물끄러미 그 녀자를 내려다보았다. 그 녀자는 좀 진정되였는지 머리수건으로 눈물자욱들을 훔쳤다.

림송은 자기방으로 돌아와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며칠밤을 밝혔더니 저으기 피곤했다. 그는 손으로 수척해진 얼굴을 쓰다듬다가 라지오스위치를 돌렸다.

평양방송에서는 랑만적인 군가가 흘러나오고있었다.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남성중창이였다. 림송은 침대로 다가가 옷을 입은채로 그냥 누워버렸다. 깍지낀 두팔에 머리를 베고 그 노래소리를 들었

다. 그것은 조국의 목소리였다. 다정한 고향의 메아리, 전우들의 노래소리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불연기 타번지는 전선길, 병사들은 달리는 군용차우에서 노래를 부른다. 노래소리는 점점 멀어진다. …

문득 초인종소리가 울렸다. 림송은 자리에서 일어난후 출입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여니 뜻밖에도 가쁜숨을 몰아쉬며 강수림이가 서있었다.

《아니, 아가씨가 이밤에 어떻게 된 일이요?》

《…》

수림은 말을 못하고 주밋거렸다. 어쩐지 그 녀자의 눈에는 긴장함과 함께 일종의 경계심이 도사리고있었다.

림송은 더 묻지 않고 그 녀자를 방으로 안내하였다. 그 어떤 불길한 생각이 림송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다. 오늘은 마치도 녀성들이 재난을 당하는 날인가싶었다. 림송은 강수림의 눈에서 다소 겁에 질린듯한 불안감을 엿보았던것이다.

그 녀자는 방안에 들어와앉자 잠시 높다란 가슴을 들먹이며 잔잔한 눈매로 림송을 유심히 올려다보았다. 문득 그 녀자는 타든 입술을 감빨며 조용히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인차 굳어져버렸다.

《림송씨, 제가 너무 늦게 찾아온건 아니예요?》

강수림은 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가씨, 걱정마오. 위스키를 한잔 들겠소?…》

림송의 물음에 그 녀자는 어린애처럼 머리를 끄덕였다. 그 녀자는 림송이 주는 잔을 받아 한모금 마셨다. 곧 그 녀자의 흰 볼에는 불그레한 기운이 나타났다.

《자, 그럼 진정하고 사연을 말해보오. …》

강수림은 견장이 없는 군복을 입고있었다. 군복은 탄력있고 날씬한 그 녀자의 몸을 팽팽하게 잡아당기고있었다. 그 녀자는 잠시 주저하는 눈빛으로 또다시 림송을 올려다보더니 가슴우의 단추 하나를 열고 품에서 얇은 종이장들을 끄집어냈다. 그것은 복사한 타자지들이였다.

《난 당신에게 혹시 필요하지 않을가 해서 이걸…》 하고 강수림은 조심스레 타자지들을 내밀었다. 《무슨… 군수품목록이예요.》

림송은 타자지를 받아든채 그 녀자의 눈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그래 무섭지 않았소?》
그 녀자는 눈길을 내리깔았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돕는다고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더군요.》
그 녀자는 량볼을 붉히며 도톰한 입술을 감빨았다.
림송은 마음의 충격을 느끼며 타자지들을 번졌다. 그것은 련락사무소 병참보급과에서 사령부 타자실에 의뢰한 문건들이였다. 아직 에니스는 문건복사실기구를 받지 못한것이였다. 중요한 자료였다.
림송은 타자지를 접어서 책상우에 놓았다.
《고맙소, 수림이. 레이몬드선생이 기뻐할것 같소. 만약 아가씨가 이 자료를 캐논기관에 가져갔다면 그들은 환성을 지르며 도꾜의 아사쿠사구역에 은행구좌를 당신의 이름으로 만들었을거요!》
림송의 말에 눈언저리가 다소 푸르스레한 강수림의 커다란 눈에는 새침한 빛이 지나갔다.
《림송씬… 절 그런 녀성으로밖에…》
《아니요. 아가씨, 하지만 모든 일에는 보수가 따르기마련이지. 서방교육은 날 그렇게 만들었소. 어쨌든 나의 사무엘회사는 경제리윤을 첫자리에 놓으니까. …》
림송은 어쩌면 이 녀성앞에서 이런 말이 필요없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매사에 심중해야 하며 순간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정탐가의 생존방식이다.
강수림은 다소 실망한 눈길로 그를 올려다보았으나 내색하지는 않았다.
《좋아요. 난 림송씨가 지금보다 더 큰 자산가가 된다면 기쁘겠어요.》
그 녀자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다음날 저녁 림송은 중앙거리의 설민기치과병원을 찾아갔다.
대기실에서 림송은 문용채대령과 만났다. 그는 퉁퉁 부은 아래턱을 손수건으로 싸쥐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방에 들어서는 림송을 발견하자 눈으로 옆자리를 가리켰다.
《대령은 또 시작되였나보군요.》

《말두 마오. 나는 봄철과 가을엔 늘 이 고생이요. 설민기박사 같은 명의를 알지 못했다면 난 벌써 고통때문에 미쳤을거요.》
대령은 턱을 손수건으로 받쳐든채 이새로 중얼거렸다.
《나 역시 대령님이 아니였다면 부득불 도꾜로 떠났을것입니다.》
《그래 당신은 또 이가 쏘오?》
《아니요. 박사선생은 치과의일뿐만아니라 유능한 안마사이기도 하니까요.》
중년의 기업계 신사가 처치실에서 나오자 문용채대령이 얼굴이 해사한 간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방안으로 들어갔다. 림송은 이 문용채와 최근 일종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 림송을 설민기박사와 《대면》시켜준 사람이 다름아닌 문용채대령이였던것이다.
한달전 리준구가 문용채를 비롯한 8군사령부의 고급장교들을 병원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한 며칠뒤, 림송은 입에 솜을 잔뜩 물고 륙군정보국담당 수석련락장교인 문용채대령의 방에 들어섰다.
에니스준장의 측근자인 젊은 특수련락장교와의 친교를 두터이 하려고 은근히 왼심을 쓰던 문용채는 이때 친절하게 림송을 자동차에 태워 설민기치과병원으로 데려다주었던것이다. 그때 림송과 리준구는 이 대령앞에서 처음 상봉하는 환자와 의사의 역을 훌륭히 수행했었다.
림송은 문용채가 나올 때를 기다리며 대기실안을 살펴보았다.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패인 로인 한명과 금이가 번쩍거리는 골프장 안내양풍의 젊은 녀인이 차례를 기다리고있었다.
문용채가 나온 다음 림송은 처치실로 들어섰다. 림송은 곧 군복을 벗고 침대우에 엎디였다. 간호원이 나가자 리준구는 림송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다.
소독수가 든 물통을 들고 다시 나타난 간호원은 근육이 두드러진 젊은 장교의 웃몸을 홀린듯이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문을 닫고 나갔다.
림송은 수림이가 가져온 타자지사본들을 리준구에게 넘겨주었다.
리준구는 타자지에 적혀있는 《케이엘오》라는 글자와 그아래 적혀있는 8군관하 부대들의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림송은 그의 사색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처치실과 잇달린 출입문 왼쪽벽에는 크지

않은 원형창문이 있었다. 이 창문으로는 뽀얀 운무가 낀 도시가 내다보였다. 멀리 크고작은 배들이 웅거해있는 강물이 눈에 안겨들었다.

약간 열어놓은 창문으로는 비릿하고 메슥한 고기썩은 내와 탁한 중유내가 바람에 실려들어왔다.

림송은 창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 녀자가 어제 이걸 가져왔소?》

《예.》

《…》

《조장동지는 이 자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물론 이 자료를 제공한 녀타자수를 의심하자는건 아니요. 모든 경우 그 녀자는 이 자료가 아담스를 거쳐 사무엘회사로 전달된다고 생각할테니까. 하지만 그 녀자가 왜 우리가 유독 관심하고있는 전략정보부대문건을 가져왔겠는가 하는거요. 우연일가?》

리준구의 말에 림송은 생각이 깊어지였다. 물론 미국에서 류학한 강수림은 일문과 영문에 능하므로 8군참모부 타자실에서 필요한 존재였고 도꾜와 워싱톤으로 발송되는 많은 문건들이 그 녀자의 손을 거칠것이였다.

(사실 산더미같은 문건중에서 이 타자지를 품에 넣을 때 그 녀자는 무엇을 생각했겠는가? 련락장교단장방앞에서 문건철을 보려할 때도 나는 수림이의 시야속에 있었다.

이게 우연인가? 우연이란 필연의 특수한 현상이고 결과가 아닌가? 아니면 그 일을 계기로 수림이가 사무엘의 립장에서 나를 도우려는 결심을 했을수도 있지 않을가?

이 녀인을 상대적으로 믿어야 하는가?

혹시 이게 수림이도 모르게 던진 캐논방첩기관의 미끼가 아닌가?…)

리준구는 치과용 핀세트로 원탁우에 놓인 타자지를 집어들고 다시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물론 그 녀자는 이 문건에 보급물자량이 적혀있기에 가져왔을수 있소. 하지만 또 한가지 의혹되는 점은 그 녀자가 동무에게서 그 어떤 보수를 바라지 않는거요. 외국 류학까지 갈수 있었던 소부르죠아녀성에게서 이건 이상하지 않소?》

《그 녀자는… 나를 돕고싶어하지요.》
림송은 약간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나도 그건 리해되오. 하지만 동무는 자기가 적후에 홀로 있다는것을 잊고있소. 매개 행동뒤에는 반드시 목적이 숨어있다고 봐야 하오. 씨아이씨는 큰것을 위해서 작은것을 희생할수도 있소.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오. 이건 우리 사업의 원칙이요.》
《…》
《놈들은 자기들의 상륙작전이 결국 실패했다는것을 깨달은만큼 특수부대작전을 다그치고있소. 이런 면에서 이 타자지는 많은 문제를 시사해주고있소. 탐구합시다. 조국에서는 우리의 보고를 기다리고있소. 정보는 쉽게 얻어지지 않을거요. 난 요즘 밤잠이 오지 않소. …》
림송은 얼굴을 들고 리준구의 지친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조장동지, 이 타자지가 그 녀자도 모르게 진행된 캐논방첩기관의 검토가 아닐가요?…》
리준구는 대답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림송은 이 짧은 순간의 침묵이 자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머리를 팔굽에 기댄채 원탁앞에 앉아 손바닥으로 턱을 싸쥐였다.
팔목에 낀 시계에서 숨가쁘게 초침소리가 들려왔다. 초침소리는 점점 더 빨라지는것처럼 림송에게 느껴졌다. 그 소리와 함께 순간이 흘러가고 준엄한 시간이 그들의 옆을 지나가고있었다. 괴로왔다. 고통스러웠다. 그 소리는 자기의 무능을 비웃는것처럼 느껴졌다. 그 소리는 지향하는것에로 암중모색할 때만, 앞길에 심연이 가로놓일 때만 들렸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린다. 시간이 촉박함을 느낄 때는 벌써 안개속을 걷는 때였다.
지금 림송은 그 초침소리를 듣고있었다. 무엇인가 경고하는듯한, 다그치는듯한, 하소하는듯한 소리였다.
림송은 초침소리를 들으며 사색에 잠겼다.
이번에는 리준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그는 방안을 오래동안 서성거리지는 않았다. 그는 사색하는것보다 행동하는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였다. 그는 대구의 중앙거리에 크지 않은 치과병

원을 차려놓고있었다. 그는 얼마전부터 여기에 간판을 내걸고 이 치과병원을 운영하고있었다. 병원에는 두명의 민간인 간호부가 일하고있었다. 간호부들과 주변사람들에게 그는 하와이에서 온 설민기박사로 알려져있었다. 간호부와 그리고 이 병원을 찾는 단골손님들은 설민기박사를 반년동안 불과 몇번밖에 볼수 없었다. 대체로 박사가 없는 사이에는 그의 조수인 젊은 부교수가 손님들을 맞이하군하였다. 설민기박사는 학술연구차로 늘 미국과 프랑스,영국의 의학계로 돌아다녔던것이다. 설민기박사가 정식으로 일을 시작한것은 8월중순이였다.

그의 치료방법은 독특한것이였다. 단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속에는 이발이 나쁜 사람들이 많았다. 박사는 조형적치료와 동의학적치료를 결합시키고있었다. 설민기박사는 곧 대구시내에 명의로 알려지게 되였다. 학계의 저명한 인테리들과 정부의 차관보급 인물들,유한마담들이 박사의 치료를 받으러 찾아오군했다. 그는 8군후방사령부소속 륙군병원 군의들과도 친교가 깊었다.… 사실 리준구는 광복전에 의학을 공부하면서 치과를 전문했던것이다. 1930년대에 프랑스로 의학공부를 떠났던 실지 설민기청년의 묘는 지금 하와이의 이름없는 공동묘지에 있었다.… 그는 귀국도중 중병으로 이곳에서 사망하였던것이다.… 리준구는 이때부터 설민기의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창밖은 벌써 어둠이 덮이기 시작하였다.

자동차경적소리도 뜸해지고 바람소리만이 고요한 중앙거리와 강변에 울리고있었다. 림송은 팔에 머리를 고인채 그 불안스러운 하조음소리를 들었다.

《오늘저녁 난 조국과 무선결속을 할 작정이요. 안전상 요즘은 대구교외로 나가 본부와 교신하고있소. 동무는 계속 조국의 지시를 라지오를 통한 에쓰디전문으로 받으시오. 림송동무도 이제는 이 치과병원에 나타나면 안되겠소. 요즘 이 병원에도 씨아이씨요원이라고 추측되는 인물이 자주 출입하고있소. 급한 정보는 정상루트를 통해 비밀아지트로 가져오시오. 대구에서 무전을 날리는것도 당분간 중지하려오. 씨아이씨가 냄새를 맡았소. 비상상면으로 서울비밀련락소에 갈 필요가 있을 때는 꼭 안전신호를 살펴보는걸 잊지 마오. 흔히 쓰는 안전신호로 창턱에 수선화화분을 놓겠소. 순간도

경각성을 늦추지 말아야겠소.》
리준구의 말에 림송은 문득 대기실에 앉아있는 녀인을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림송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가 의자에 걸쳐놓은 군복상의를 드는 순간 웃주머니에서 자그마한 물건이 방바닥에 떨어졌다. 리준구가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리준구는 그것을 눈가까이 가져가며 놀란 빛을 감추지 못했다.
《아니 여보, 이게 얼레빗이 아니요?》
《그건 저의 어머니가 주신겁니다.…》
림송은 가볍게 얼굴을 붉히며 군복을 마저 입었다.
《정말 놀랍소.… 훌륭하오. 동무에게 이걸 준 어머님의 다심한 마음이 뜨겁게 느껴지누만.》
리준구 역시 오래간만에 보는 얼레빗이여서 그런지 희한한듯 눈을 슴벅이며 이슥토록 그것을 놓지 못했다.
《난 어렸을 때 몹시 장난이 세찼답니다. 그래서 늘 까시시한 머리가 풋밤송이같아 어머니의 꾸중을 듣군했지요. 어머니에게는 저의 어릴 때의 그 표상이 오래도록 남아있었을것입니다. 참!… 우리는 너무나도 오래동안 떨어져있었으니까요.》
림송의 말에 리준구는 생각깊은 시선을 들었다. 그리고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아니요.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그 모습이 더 귀중했을거요.
자식은 아무리 성장해서 귀밑머리가 희슥희슥해져도 어머니에게는 늘 귀여운 철부지로 느껴지거든.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시오.》
리준구의 가늘게 쪼프린 눈에는 회심의 그림자가 얼른거렸다. 그는 얼레빗을 림송에게 내밀며 말을 이었다.
《얼레빗을 잘 간수하오. 어머니의 축복이 담긴 그 얼레빗을 지닌 아들은 그만큼 고향과 조국과 가까이 이어져있거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준구동지, 전쟁이 끝나면 고향집이 있는 우리 묘향산에 꼭 한번 오십시오. 우리 어머니랑 누님이랑 정말 반가와할겝니다.》
림송의 눈에는 추억과 그리움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동경의 빛이 가득 실렸다. 리준구는 림송의 손을 뜨겁게 잡고 다소 갈린 목소리로 곱씹어 말했다.

《내 가겠소. 꼭 가겠소!》

문용채는 치과병원을 나오는 즉시 승용차를 8군캐논방첩기관청사로 몰아갔다.
마침 브라운 겐지로는 부관과 함께 식사를 하는중이였다.
《대령, 구강과환자에게 싼도위치를 권하지는 않겠소.》 겐지로는 옆자리를 가리키며 수건으로 입귀를 닦았다. 《대신 붉은 포도주를 한잔 하지. 나의 류다른 친구 림송씨가 보내온거요.》
《치과의사는 술은 이발에 해롭다고 했소.》
문용채는 우울한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렇다면 대령, 당신은 기어이 마셔야겠소. 치과의사의 정체를 밝히려면 아직도 당신이 치료실 문턱을 자주 넘어야 하니까.》
(건방진녀석, 중좌의 계급장을 달고도 제법 이젠 내앞에서 장령인체하거든. …)
문용채는 화김에 붉은 포도주가 아니라 겐지로앞에 놓인 브란디를 당겨 쭉 마셔버렸다.
《아직 직업군인의 결기가 있는걸. 좋소! 그래 설민기박사가 어떻소?》
겐지로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물었다. 문용채는 싼도위치를 집어 앞이발로 우물우물 씹었다.
《내 보기에 그는 의술이 높은 사람이요. 다른 눈치는 모르겠소.》
《그러니 그가 진짜 의학을 전문했을수도 있소. 문대령, 당신은 우리 씨아이씨가 고급장교인 당신에게 이런 불쾌한 임무를 준다고 고깝게 생각지 말아야겠소. 의사의 집구역에서 정체모를 무선통신이 난다는걸 잊지 마시오. 우린 설민기박사에게 출입하는 장교들의 명단을 만들어야겠소.》
《조사한데 의하면…》 겐지로의 부관이 수첩을 꺼내들었다. 《8군작전부 윅캄소좌가 두번, 정보부 벤다프대좌가 세번, 8군부사령관인 국군 륙군본부 강문봉소장이 한번, 병참기지사령부 훼이트대위가 여섯번, 〈련락사무소〉 림송대위가 세번이였습니다.》
《림송대위도?…》
겐지로는 흥미있는듯 머리를 끄덕이며 부관을 돌아보았다.
문용채는 쓰거운듯 이마를 찌프렸다.

《당신들은 괜히 저녁식사기분을 스스로 흐리게 하고있소. 림송대위는 내가 박사한테 소개했단말이요! 그도 구강과신세를 져야할 사람이였소.》
그 말에 두사람은 다소 당황한 눈길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겐지로는 브란디잔을 들며 문용채를 돌아보았다.
《프랑스의 백작처럼 쌀롱의 고급식사에 습관되자니 이가 좋을리 없지. 어쨌든 국군 씨아이씨가 그자를 맡았으면 결말이 있어야겠소. 부관, 그 치과병원에 우리 사람을 박아넣어야겠소.》
《그들은 이미》 하고 부관이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 병원에서 우리 사람이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는 박사와 함께 왕진도 다닙니다. 중좌님, 이쯤하면 때를 기다리는것이 좋지 않을가요?》
《아니요, 대위! 우리에게는 지금 순간이 귀하오! 그자의 일거일동을 살피시오. 그자는 이미 하와이와 워싱톤에도 발자취를 남겼소. 나에게 바로 설민기박사에게 주의를 돌리라고 권한건 도꾜의 캐논중좌란말이요! 벌써 치과병원근처에서 정체모를 무전문이 일곱번이나 날았소. 전문가들은 그 무전문의 마지막대호에서 〈수성〉이라는 암호를 어렴풋이 해독했단말이요. 이걸 림송과도 련결시키시오. 무조건! 난 예감을 믿어! 그리고 반탐사업에선 큰걸 위해 작은것을 희생하는 원칙을 지키시오. 진짜정보도 제공해주란말이요. 〈쟈스민〉도 이걸 느끼게 하시오. 물샐틈없는 미행조직을 하시오! 씨아이씨의 조명등으로 그자들을 비치시오.》
겐지로는 열이 올라 부르짖었다.

제 11 장

황야에서 불어오는 메마른 하늬바람에 모닥불은 파란 연기를 내뿜다가 어느새 사그라들군하였다. 그 녀자는 매캐한 연기를 피하여 눈을 쪼프리고 허리를 약간 굽힌채 입김을 불어댔다. 그때마다 상큼한 목을 가리웠던 숱많은 검은 머리칼이 녀인의 매끈한 얼굴로 흘러내리고 짧은 치마밑으로 실팍하고 탄력있는 종아리가 드러

나군하였다.

음산한 바람을 등지고 배낭에서 감자 몇알을 꺼내던, 목에 갈색 목도리를 두른 사나이가 녀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흘끔흘끔 훔쳐보며 감기에 걸린것 같은 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제기랄, 이런 땐 따뜻한 해빛이 비쳐드는 커다란 창가에 앉아 따끈한 차를 마시며 음악을 감상한다든가 친구들과 더불어 술이라도 한잔 한다면 얼마나 좋겠소. 사람이란 불행을 겪어보구 굶주림을 맛봐야 평온과 안정이 무엇인지, 집과 가정이 얼마나 아늑하고 그리운것인지 리해할수 있거든. 이게 바로 인생의 행복이지.

아, 아, 행복이란 그렇게도 작고 단순한것이였는가. 그 평범하고 례사롭던것들은 이제 다 사라지고 남은것이란 그저 고독과 추위뿐이구려. 순정동무만 봐도 그렇지. 거울이 없는게 천만다행이요. 매일 이런 산중에서 감자 몇알로 끼니를 굼때면서 헤매다간 미인도 볼꼴없는 할머니로 될거요. 자, 이젠 집어넣소.》

변주설은 문득 말을 끊고 올망졸망한 감자알들을 겨우 불이 일기 시작한 모닥불속으로 집어던졌다.

《동무는 점점 말이 많아지는군요.》 하고 한순정은 변주설의 장황한 사설에 진저리가 난듯 눈을 다소곳이 내리깔았다.

《화가 나서 그러오. 그래 지금 우린 어디로 무엇때문에 정처없이 가는거요? 벌써 1집결장소도 2집결장소도 지나왔소. 전선은 어디 있고 우리 사람들은 대체 어디에 있소?》

《아직 제3집결장소가 남아있지 않아요. 책임자동지는 그곳에서 정치공작대동무들과 함께 기다릴거예요.》

《흥!》

아니나다를가 변주설은 또 코방귀부터 뀌였다.

《동무는 그래 그 소릴 믿는단말이요? 이미 전선은 북으로 옮겨졌고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평양방면으로 진격했소. 그래 우리가 포성이나 한방의 총소리라도 듣고있는가말이요. 아니, 이미 전선이란 존재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소.

이미 모든건 끝장났소. 산산이 부서져버렸단말이요. 지성인인 동무가 이 엄혹한 현실을 리해못한다는것이 난 괴롭구 안타깝소.》

《아니예요. 결코 모든건 끝장난게 아니예요. 대장동지가 말했지요. 인민군대는 전략상 잠시 후퇴했을뿐예요. 설사 동무말이 사

실이라 해도 이 땅에 조선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조국은 존재하는 거예요.》
한순정은 변주설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다소 엄한 어조로 말하고 나서 군용밥통을 들고 물소리가 겨우 나는 개울가로 걸어갔다.
변주설은 수북이 쌓인 락엽을 밟으며 총총히 걸어가는 그 녀자의 날씬한 뒤모습을 홀린듯이 물끄러미 바라보며 또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리고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조국이라… 그게 누구의 조국인가가 문제지. …》
그들은 열흘전에 전선가까운 어느 도시에서 후퇴명령을 받았다. 북행렬차가 미제침략군의 공습을 받기전 전선위문단과 정치공작대 대렬을 림시로 책임진 나이지숙한 어느 군인민위원회 지도원은 만약의 경우를 예상하여 조별로 행동할것과 예비집결장소를 알려주었었다.
공습의 피해는 큰것이였다. 파괴된 북행렬차에서 뛰여내린 한순정과 변주설은 수림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대오에서 떨어지게 되였다. 며칠동안 산발을 타고넘다가 그들이 어느 한 마을주변에 도착했을 때 대도로를 따라 꼬리를 물고 달리는것은 미제침략군의 땅크들과 군용차들이였다. 무한궤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먼지가 자욱히 떠돌고있었다. 그들의 발길은 다시 산길로 향했다. …
한순정은 군용밥통에 샘물을 떠들고 모닥불로 돌아왔다.
어둠이 깃들자 그들은 다시 북행길에 올랐다. 검푸른 하늘에 차거운 별들만이 깜박이는 밤길, 향방없는 길이였다. 전선과 동무들이 모두 북으로 옮겨간 지금 그들이 걷는 땅은 과연 어딘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활력과 기쁨이 넘쳐나던 정다운 땅, 그러나 지금은 숲도 강도 마을도 경계심을 품고 바라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런 밤길이면 한순정은 늘 유난히 반짝이는 북극성을 목표로 걷군했다.
그 별은 희망의 등대처럼 어머니의 눈빛처럼 그 녀자를 다정히 불러주는것 같았다.
그 별빛아래 조국이, 그리운 사람들이, 공민의 의무가 그들을 기다리고있을것이였다. 그것을 생각하면 컴컴한 숲도 짐승의 울음소리도 살을 허비는 가시덤불길도 두렵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다.
(언젠가 교정에서 설맞이준비를 할 때 우리 학원의 민청위원장

동무가 말했지. 만드는것보다 마스는것은 쉬운 일이라고…그래, 간직하기보다 버리기는 쉬운 일이야. 아니, 조국이란 일단 간직하기만 하면 버릴수 없는거야. 그건 생명과 같은거니까. 중요한건 신념이야. 신념이 없는 인간은 길가에 딩구는 먼지와도 같을거야. 바람에 따라 움직이니까. …)

한순정은 문득 뒤에서 가쁜숨을 내쉬며 아무말없이 뒤따라오는 변주설을 생각했다. 그 녀자에게는 이렇게 힘겹지만 그래도 걷는것이 좋았다. 행군길에 오르면 의례히 변주설은 돌부처가 된것처럼 입을 다물었기때문이였다.

그는 마치도 낡은 벽시계와 같았다. 걸을 때면 태엽을 감았다가 앉으면 풀리면서 중얼거리는.

한순정은 그 비유가 어쩐지 우스워서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저 동문 회의때는 곧잘 격렬한 언사도 쓰던 인기있는 사람이 아니였던가. 그 열정, 그 활기, 그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을가?

지금 그에게서는 나약하고 까다로운 소시민의 냄새만 풍기고있어. 정세가 변한다고 사람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수 있을가?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있어. …

아, 언젠가는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용감한 사나이의 진모습이란 저런것이였던가? 그래, 이 전쟁과 이 시련은 사람들의 진가를 날날이 드러내고있어. …)

어디선가 개짖는 소리와 함께 가까운곳에서 이상한, 증기를 내뿜는듯한 쏴쏴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결에 매캐한 석탄타는 냄새도 풍겨왔다.

두사람은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귀를 기울였다.

《가만! 이게 뭐요? 마을이 가까이에 있을것 같소.》

변주설은 관목숲을 와삭와삭 헤치며 허둥지둥 앞질러 어둠속을 뚫고 산릉선쪽으로 달음쳐나갔다. 관목숲너머 언덕우 하늘에 벌거우리한 화광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순정이가 그자리에 멈춰선채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쪽을 주시하는데 변주설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다.

《순정이, 불빛이요! 철길옆에 역이 있고 기관차가 서있소! 드디여 우리의 고행의 길도 끝장이 났소!》

한순정에게도 불빛과 사람들과 석탄냄새 등 오래동안 떨어졌던 생

활적인 향취들은 그리운것이였고 반가운것이였다. 그 녀자가 가까이 다가가자 변주설은 밤색목도리를 추켜올려 턱까지 감싸며 웅글은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내려가서 형편을 알아봐야겠소. 날자를 봐서 지금쯤 우린 제3집결장소에 도착했어야 했소. 지도가 없는게 유감이거든.》

《혹시 적들이 점령한 지역이 아닐가요?》

한순정은 주저하는 눈길로 서두르는 변주설을 올려다보았다.

《철교들이 파괴됐는데 어디서 저런 기관차가 나타났겠소. 게다가 이렇게 고요하지 않소.…우리 사람들이 틀림없는것 같아. 동무는 여기서 기다리오. 내 제꺽 가서 알아보고 오지.》

변주설은 말을 마치기 바쁘게 언덕을 내려갔다. 적막을 깨뜨리며 가까운곳에서 기적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한순정에게 몹시도 불안스럽고 초조하게 안겨왔다. 그 녀자는 축축한 밤이슬에 함초롬히 젖은 치마자락을 끄당겨 무릎을 가리우고 락엽우에 오도카니 앉아있었다. 별안간 또다시 정적이 깃들었다. 그러자 그 정적과 함께 고독과 무서움이 동시에 그 녀자를 휩싸는것이였다.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그 녀자는 생각에 잠겼다. 평화로운 나날에 대한 추억은 그 녀자로 하여금 고독과 무서움을 잠시나마 잊게 하였다.

추억은 많았고 다양하였다. 울타리너머로 해바라기가 갸웃이 얼굴을 내민 묘향산의 정든 집, 윤성녀어머니, 그곳, 포석을 깔아놓은 마당결 화단에는 지금 들국화가 마지막 향기를 풍기고있을것이였다. 이런 가을철이면 어머니는 늘 빨갛게 익은 구기자열매를 들여다보며 마당가로 들어서리라. 먼곳의 아들을 그리며 안경을 만져보시리, 나처럼 그 동무를 기다리며!…그리고 교정, 학우들과 나란히 걷던 대동강 기슭, 룡악산에로의 등산, 릉라도 야유회… 아, 가슴조이며 안경낀 로교수가 엄한 얼굴로 기다리는 시험장에 들어서던 일, 그날엔 불쾌하게조차 느껴지던 남동무들과의 사사로운 다툼까지도 이밤엔 정다운 추억으로 느껴지는것은 무엇때문일가. 그러자 다시 배꽃향기가 가볍게 풍겨오던 묘향산 기슭의 밤길이 떠올랐다. 귀여운 농순이, 벼짚타는 냄새, 탄금이…탄금이는 지금 어디 있을가? 몸성히 있는지. 그 앤 아마 이런 밤길을 걸어온 나를 보면 깜짝 놀랄거야. 그때 난 떳떳이 말할수 있을거야. 《캄캄한 밤, 수림속, 원

쑤들이 언제 달려들지 모르는 준엄한 후퇴길이였단다. 시련에 찬 북행길에 먹을것은 떨어지고 운동화엔 구멍이 뚫어졌어. 대오에는 동요하는 사람도 생겼단다. 난 그때…》

잎마른 개암나무가 흔들리는 소리에 한순정은 와뜰 놀라 상념에서 깨여났다. 가쁜숨을 헉헉 몰아쉬며 변주설이 언덕을 올라왔다. 한순정에게는 어쩐지 그에게서 낯설은 찬 기운이 확 풍기는것 같았다. 별빛에 흰자위가 많은 사나이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이였다.

《어떻게 되였어요? 우리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행한 일이였소. 우리는… 적의 방어선을 드디여…돌파했소.》

변주설은 철뚝쪽을 돌아보며 다소 짓눌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

《북행렬차는 곧 출발하게 된다오. …자, 가면서 이야기합시다.》

변주설은 서두르며 또다시 뒤를 돌아보더니 성큼성큼 앞서서 걸었다.

한순정은 반가운 생각과 함께 어쩐지 의아한 느낌이 들어 한순간 주춤했으나 이내 배낭을 지고 따라섰다. 언덕밑을 내려서니 역청사앞에 서있는 희미한 외등과 불을 죽인 렬차가 길게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밤이 깊어서인지 고요했다. 그들은 렬차의 마감차량이 있는곳까지 다가갔다. 별안간 한순정은 이상한 예감에 가슴이 섬찍하여 침목우에 우뚝 멈춰섰다.

그 녀자는 역청사에서 나오는 철갑모를 쓰고 자동총을 둘러멘 키가 큰 낯선 병사들을 발견하였던것이다.

한순정은 다급히 변주설의 팔소매를 잡았다.

《주설동무！ 적이예요. 렬차로 가고있어요！》

그순간 변주설이 그 녀자의 팔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순정이, 그렇소. 이곳은 이미 유엔군이 점령한곳이요. 잠간만！ 내 말을 들어보오. 이미 이 땅에는 그들의 무한궤도가 가닿지 않은곳이 없소. 난 동무에게 이 모든걸 한순간에 다 설명할순 없소. 그러나 한가지만은 명백하오. 그것은 지금 순정이가 생명의 위험이 사라진 땅에 서있다는것이며 행복과 자유가 기다리고있다는거요. 인생이란 결국 영원한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불과한거요. 청춘은 더 짧은거요.》

변주설의 열에 뜬 커다란 눈이 번뜩거리고 입술이 푸들푸들 떨렸다. 뜻밖의 정황에 아연해진 한순정은 몸서리를 치며 두눈을 감았다. 그는 이미 뒤로 물러서기에는 때가 늦었다는것을 깨달았다. 몇걸음앞에 서있는 렬차승강대에 군복을 입은 장교 하나가 나타나 담배를 피우며 그들의 모습을 살피고있었던것이다.

《？！…》

(아, 내가 지금 어디까지 따라왔는가？

어떤 함정에 빠진것인가？ 배반자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구나. …)

《순정이, 생명을 모험할 필요는 없소.》 하고 변주설은 잠잠한 한순정의 태도에 다시 힘이 생겼는지 한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미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할 조국은 이 땅에 없소. 아니, 조국이란 개념을 우리는 지성인답게 생각합시다. 정치를 떠난 민족의 립장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리념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세계의 조국을…》

《닥치세요！ 변주설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너절한 인간인줄 몰랐군요. 반역자에게는 조국이란 신성한 이름을 부를 자격마저 없어요！ 비겁한 당신의 진모를 좀더 일찌기 깨닫지 못한게 유감이군요. … 그러나 똑똑히 들어두세요. 청춘시절은 한순간이여도 조국은 영원한거예요. 만약 그 청춘을 조국을 위해서 바친다면 그 삶은 영생할거예요！》

한순정은 엄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한후 침착한 눈길로 그를 쏘아보다가 홱 돌아섰다.

변주설의 얼굴은 창백하게 이그러지였다.

그는 와락 달려들어 두팔을 벌리고 한순정의 앞길을 막아나섰다. 흥분한 사나이의 더운 체취가 가까이에서 느껴지자 그 녀자는 몸서리를 치며 한걸음 물러섰다.

《비키세요！》

《안되오. 난 당신의 모욕은 참을수 있어도 당신을 놔줄수는 없소. 어쨌든 나를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니까. 제발 내 말을 들어주오. 난 순정의 의지를 한순간에 돌려세울수 없다는걸 알고있소. 그러나 모든것은 이미 늦었소. 아니, 이제 시작이요.

난 당신에게 이젠 모든걸 고백할수 있소. 난 이미 전쟁전부터 이쪽과… 련계를 가지고있소. 전번에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서북청년단〉을 지도한 8군 씨아이씨의 련락원과 만나 순정이 이야기도 했소.

솔직히 말해 난 순정이가 음악학원을 대표해서 우리 일을 도와준다고까지 했소. 8군사령부는 순정이에게도 낯선데가 아니요. 당신은 그들에게 귀중한 손님으로 될거요.》

《변절자! 그러니 놈들의 개가 되였군요! 정말 가소롭고… 불쌍하군요. 난 원쑤들의 귀한 손님이 되기보다 우리 사람들속에 평범한 녀인으로 남아있을거예요!》

한순정은 이렇게 똑똑히 말한후 배낭을 추슬러올리고 한걸음 내디뎠다.

그러자 별안간 변주설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의 눈길은 험악하게 번들거렸다.

《못간다! 나에게 있어서 너는 큰 존재가 아니야. 자유세계에 가면 너같은 미인이 저녁마다 차례질수 있어. 나의 임무는 너를 8군 방첩대에 데려가는거야! 하지만 내가 필요하다면 처녀의 가슴에도 서슴없이 총탄을 박을수 있다는걸 알아야 해! 미군이 준 이 권총으로 말이야!》

두 사람의 눈길이 어둠속에서 예리하게 부딪쳤다.

《?!…》

《?!…》

그 순간 고요를 깨뜨리며 총소리가 울렸다. 한순정은 두손을 가슴우에 모아쥐며 두눈을 감았다. 그 녀자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뜻밖에도 앞에는 변주설의 시체가 쓰러져있었다. 놀라서 가볍게 몸을 떠는 그 녀자앞으로 승강대에 서있던 낯선 장교가 성큼성큼 걸어왔다. 《유엔》군복장의 젊은 장교는 쓰러진 변주설의 손에서 권총을 집어들더니 천천히 한순정에게로 돌아섰다.

《아가씨는 동행자를 잘못 고른것 같구만. 당신의 신념은 나를 감동시켰소. 이 권총으로 자기의 리념을 지키시오!》

젊은 장교의 침착한 말은 짧은것이였고 어조는 부드러웠다.

한순정은 얼결에 권총을 받아들고 당황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가볍게 부르짖었다.

《당신은… 누구세요?》

어둠속이였으나 한순정은 역전의 불빛을 등진 그의 기름한 얼굴에 가벼운 미소가 피여오르는것을 보았다.

《아가씨, 너무 많이 알면 일찍 늙는다오. 내 결심이 달라지기전에 빨리 여기서 사라지오. 북행길은 산속으로 나있다는걸 잊지 마시오.》

총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렬차안은 조용하였다.

기관차쪽에서 순찰병들이 철갑모를 번쩍이며 그들쪽으로 뛰여오고있었다. 낯선 장교는 얼핏 그쪽을 바라보더니 억센 손길로 그 녀자의 등을 가볍게 떠밀었다.

한순정은 더 생각할새 없이 철뚝을 따라 한참 달리다가 깊은 수림속으로 들어섰다. 우중충한 숲과 어둠이 그 녀자의 모습을 감싸버렸다.

듀페이중좌는 렬차가 갑자기 멎은후에도 눈을 지그시 감고있었으나 결코 잠을 청하고있는것은 아니였다. 그는 그 어떤 숙명적인 힘이 자기를 휩싸고있는 일종의 불안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져다줄것을 고대하고있었다.

련락장교사건으로 대구에 급히 불리워갔을 때 그는 자기가 림송대위의 림기응변으로 위험에서 벗어났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처음 그는 사살사건의 희생자가 아이부스대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연해지였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싶었다. 그러나 위험이 가져다준 불안이 사라진 다음순간 그는 자기에게 새로운 일종의 초조감이 싹트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것은 자기를 구원해준 림송대위에 대한 막연하고도 이상야릇한 의혹과 불안이였다. 이 불안은 치명적이였고 현실적이였으며 그의 손발을 꽉 묶은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것이였다. 그는 자기가 이 침착하고 의지가 강한 젊은 장교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과도 같은 약점을 잡힌채 살아간다는것이 결국은 정보일군으로서는 하나의 죽음이라는것을 별안간 깨달았다. 그 약점을 없애버린다는것은 곧 림송대위를 제거해버리는것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사색의 귀결 또한 그의 마음을 안정시킬수 없었다. 그것은 림송대위를 흔적없이 제거하는 일자체가 어려운 일이였을뿐만아니라 흑막속의 젊은 장교가 어쩌면 시체

로 변한후에도 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그는 운명의 갈림길에서 며칠동안 모색하였다. 어느 길을 선택할것인가? 벗으로 되느냐 원쑤가 되느냐 하는 결정적순간이였다. 벗으로 되는 길은 굴종을 의미하였고 원쑤로 되는 길은 위험을 동반하였다. 천평우에 놓인 두 마음의 짐은 어느것이나 다 무거운것이였다. 그의 망설임은 뜻밖의 일로 하여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오늘 대구를 떠나기 직전에 겐지로중좌가 장교숙소로 듀페이를 찾아왔었다. 듀페이는 평소부터 이 악마같은 사나이를 좋아하지 않았고 일종의 두려움까지 느끼고있는터였으나 억지로 웃음을 지어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중좌, 당신은 오늘 떠나게 되오?》

뜻밖에도 겐지로의 어조는 부드러운것이였다.

《그렇소.》

겐지로는 침대우에 걸터앉더니 겨드랑이에 끼고있던 서류철에서 두장의 사진을 꺼내 원탁우에 엎어놓았다. 이 별치 않은 행동은 듀페이에게 이상한 심리적긴장성을 가져다주었다. 뒤집어놓은 저 사진뒤에는 무엇이 찍혀있을것이며 그것은 자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것인가? 이자의 목적은 무엇이며 나는 어떤 대답을 준비해야 하는가?

듀페이의 초조해하는 얼굴빛을 넌지시 살피며 겐지로는 빙그레 웃었다.

《당신들은 아이부스대좌가 철직된것으로 련락장교사건의 수사가 끝났다고 보는것 같은데 내 추측이 옳소?》

《난 검열관이 이미 워싱톤에 도착했으리라고 보는데요?》

듀페이는 약간 랭정하게 질문으로 대답하였다.

《중좌, 딴전을 부리는건 피차 좋지 않소. 난 당신을 심문하러온것이 아니라 협력을 바라고 온것이요. 왜냐하면 당신을 의심한다면 친구를 찾아오듯하지 않으니까. 난 당신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고싶지는 않소.

난 당신을 정보장교로서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진에는 운전대에서 얻은 두개의 지문이 찍혀있소. 두말할것없이 하나는 당신의 지문이고 또 하나는 림송대위의것이요. 난 당신이 어떻게 되여 련락장교를 영접해오면서 자동차를 바꾸어타지 않으면 안되였는가

를 확인해주리라고 믿소.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겠소.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나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할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여있지 않기때문이요.》
이것은 듀페이중좌에게 위험이 치명적으로 다가오고있음을 현실적으로 알리는 경종이였다. 천평은 한쪽으로 기울어져버렸다.
차거운 권총이 림송의 심장을 겨누게 되리라는것은 자기로서도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지금 듀페이는 두눈을 감고 운명이 자기에게 가져다줄 그 기회를 기다리고있었다. 그 기회는 여러가지 형태로 찾아올수 있었다. 가령 그들이 타고가는 이 렬차가 인민군비행기의 공습을 받는다면 림송대위의 사망통지서를 만들기가 한결 쉬울것이였다.
그러나 지금 렬차가 도시에서 가까운 이 도중역에 멎은것은 공습이 아니라 인민군소부대에 의해 철교가 끊어진때문이였다. 렬차안은 고요하였다. 8군사령부 기본부서들이 전선을 따라 청천강의 안주로 옮겨간만큼 군용렬차는 분주히 오가는 련락장교들과 병참기지 사령부장교들의 고정침실로 리용되고있었다. 여기저기에서 코고는 소리가 들리였다.
듀페이는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앞에 앉은 림송대위를 얼핏 건너다보았다.
림송은 사색에 잠긴 눈길로 차창에 드리운 차광막짬으로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림송, 지금 군용렬차가 멎은곳이 어딘가?》
듀페이는 짐짓 잠에 취한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아직 대구교외를 50마일도 벗어나지 못한것 같네.》
림송이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기랄.》 듀페이는 다시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전선이 압록강가까이에 이르렀다는데 렬차는 이 남쪽에서조차 습격을 피할수 없으니… 오늘밤은 또 이 더러운 렬차안에서 새울것 같네. 지금쯤 준장은 문용채와 함께 나이트클럽에서 브란디를 마시며 녀인들의 육체미를 구경하고있을걸세!》
《자넨 우리 련락장교들의 고달픔을 요즘 리해하기 시작한것 같네.》
그들은 지금 청천강변의 안주로 림시 옮겨간 8군사령부로 가고있었다. 8군사령부는 전선가까이로 이동하면서 에니스준장에게 사

무실을 제공했던것이다. 에니스준장은 맥아더의 북상을 반신반의하였으므로 사무실을 평양이북으로 옮기는 문제를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 전선사태를 현지에서 분석할수 있는 보조사무소라도 설치할 필요성을 느낀 준장은 듀페이와 림송에게 그 과업을 주었던것이다. 듀페이는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림송대위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더니 승강대쪽으로 나가버렸다.

(겐지로중좌가 추격하고있는것은 저 림송대위가 아니겠는가? 림송대위…

에니스준장의 신임을 받는 아시아계 장교… 그는 하버드대학시절에도 비상한 두뇌와 완강한 의지를 가진것으로 두각을 나타냈었다. 그리고 졸업말기엔 림메르트씨의 재산을 상속받았지. … 겐지로가 림송에게서 본것은 무엇일가? 혹시 그를 제3국정탐으로 추정하는것이 아닐가?…

아니다. 겐지로는 저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수 없을것이다. 나의 예감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나는 림송을 너무나 잘 알고있다. 만약 그런 경우라도 폭로할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한다. …)

문득 렬차밖에서 총소리가 울렸다.

듀페이는 흠칫 놀라 눈을 번쩍 떴다.

다음순간 고요가 깃들었다. 렬차안의 장교들은 점령지역에서 흔히 들리는 평범한 총성에 잠을 깰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이미 총성은 그들에게 습관된 자장가처럼 되여버린것이다.

듀페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승강대쪽으로 걸어갔다. 렬차에서 얼마쯤 떨어진곳에 림송대위가 서있었다. 그는 멀어져가는 한 녀인의 뒤모습을 살피고있었다. 듀페이가 승강대계단을 내려설때 자동총을 든 두명의 병사가 다급히 림송에게로 달려갔다. 순찰병들은 침목우에 쓰러진 시체를 살펴보더니 림송에게 무엇인가를 물었다.

듀페이는 그들쪽으로 다가가 목에 밤색목도리를 두른 정체모를 사나이의 시체를 내려다보았다.

《림송, 이자는 누구인가?》

림송은 아무말없이 피에 젖은 증명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거기에는 ××인민위원회 공인이 찍혀있었다.

《어떻게 이자가 여기에 나타났을가?》
《난 철교를 폭파한 이자들이 고급장교들이 탄 군용렬차를 노렸을것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니 아직도 인민군부대들이 활동하는것이 아닌가?…》
두 미제침략군병사가 시체를 맞들고 조그마한 간이역쪽으로 가버렸다. 마른 바람이 불어와 철뚝옆의 수림을 소연하게 흔들었다.
《난 요즘 몹시 신경이 예민해졌네. 총소리에 잠을 깬건 나혼자였거든. 좀 걷지 않겠나?》
듀페이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림송에게 내밀며 다정한 어조로 물었다.
《걷지.》
두사람은 철길을 따라 한참 어둠속을 걸었다. 침묵사이가 짧아 걷기가 불편하였고 자연히 걸음발이 떠지였다. 나란히 걷던 듀페이는 문득 라이타를 켜는척하며 멈춰섰다.
림송은 사색에 잠겨 멀리 푸릿하게 밝아오는 들판쪽을 바라보며 천천히 앞서 걸었다.
《이제 수림속으로 사라진 녀자는 누군가?》
듀페이의 물음에 림송은 얼굴을 돌렸다.
《내가 사나이를 사격하자 녀자는 인차 내빼더군.》
《명사수인 자네앞에서?…》
듀페이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띠우며 넌지시 물었다.
《스테셀, 자네의 관찰력은 나를 놀래웠네. 하지만 난 녀자의 등에 탄알을 박을만큼 심장이 차지는 못하다네.》
《자네야 동정심이 강한 사나이니까.》
듀페이는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띠웠다.
(난 필요하다면 자기의 다리는 물론 친어머니의 심장에도 칼을 박을테다! …)
림송은 다시 돌아서서 소연한 바람에 설레이는 철길옆의 우중충한 수림을 바라보며 앞질러나갔다.
그 순간 듀페이는 바지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아직 어두웠지만 듀페이는 목표를 겨냥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친구, 용서하게. 난 자네에게 하느님께 기도드릴 시간도 줄수없네. 왜냐하면 인간에게 행운의 순간이란 쉽게 차례지는것이 아

니기때문이거든.
나에겐 재부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하지만 그건 생명이 담보하네! 이 세상에 영원한 삶이란 없지 않나! 내가 대신 기도를 드려주지. 그대 인간이여, 언제나 너자신에게 충실하라!…)
듀페이는 주저없이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 어떤 예감이 들었는지 림송은 그 순간 주춤했다. 탄알은 림송의 어깨에 맞았다.
불의의 사격을 받은 림송은 비칠거리며 돌아서려 했다. 한찰나 듀페이는 명사수인 자기가 그의 심장을 명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다.
듀페이가 미소를 지으며 쓰러지려는 림송을 향해 다시 사격하려는 순간 누군가의 억센 손길이 그의 권총쥔 팔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듀페이는 흠칫 놀라 홱 얼굴을 돌렸다. 중절모를 눌러쓴 키가 후리후리한 사나이가 무서운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있었다. 푸릿한 려명의 빛발속에 사나이의 눈길이 사납게 번쩍이였다.
《듀페이중좌, 당신은 지금 그 권총으로 저 림송대위의 심장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을 겨누고있소!》
사나이의 음성은 조용했으나 가슴이 서늘해지도록 위압감을 풍기고있었다.
《그건 대체 무슨 소리요?》
듀페이는 소리없이 자기뒤에 나타난 이 정체모를 사나이에게서 두려움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련락장교를 죽인 그 순간에 저 림송대위에게 탄알을 마저 날렸어야 했소.
그러나 때는 늦었소. 나에게는 그때 당신들이 나눈 대화가 록음된 소형테프가 간직되여있으니까. …》
《?!…》
듀페이는 전률이라도 느낀듯 깜짝 놀라 한순간 온몸을 떨었다.
《명심하시오! 림송대위가 죽는 순간을 당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각으로 리해해도 좋소. 그러면 당신은 대위의 친구들이 겐지로보다 얼마나 더 무서운 인간들인가 하는것을 알게 될거요!》
중절모를 쓴 사나이는 듀페이의 팔을 슬며시 놓았다. 듀페이는 서둘러 권총을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불안과 공포와 의혹이 실린 눈길로 그를 마주보았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사나이는 듀페이의 귀에 입을 가져다대고 무어라고 한마디 중얼거렸다.
그러자 듀페이는 당황한 눈길로 그를 올려다본후 아무말없이 쓰러진채 신음소리를 내는 림송에게로 다가갔다. 두사람은 림송대위를 부축하고 렬차앞켠에 있는 위생차량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군의에게는 물론 에니스준장에게도 림송대위가 인민군의 습격을 받았다고 하시오.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이요. 철교폭파와 순찰병들이 날라간 시체가 그것을 증명해줄거요. 난 가봐야겠소.》
위생차량앞에서 사나이는 이렇게 명령한후 중절모를 푹 눌러쓰고 렬차칸쪽으로 가버렸다. 듀페이는 한동안 멍청한 시선으로 그의 뒤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는 다름아닌 레이몬드 아담스였다.

감방안에는 나외에도 정치공작대 녀성 두명과 조그마한 사내아이를 데리고 끌려온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중년의 녀인이 갇혀있었다.
우리는 한밤중에 미제침략군 병참기지사령부 기동순찰대본부에서 이곳 헌병사령부 감방으로 끌려왔었다. 얼마전까지만도 어느 주식회사 창고로 쓰이던 곰팡내와 썩은내가 풍기는 음침한 지하실이였다.
나는 찬 공기가 스며드는 손바닥만한 뙤창가밑에 앉아 내앞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녀인을 지켜보고있었다. 온통 피가 터지고 퍼렇게 멍이 든 그녀인은 실팍한 무릎우에 잠든 사내애를 고통과 애무에 찬 시선으로 내려다보고있었다. 자세히 뜯어보니 륜곽이 선명하고 눈매가 부드러운 녀인의 얼굴표정은 의젓하고도 숭엄했다. 비록 그 얼굴에는 고문과 고통이 가져다주는 상처와 피로움이 실려있었으나 절망과 불안의 빛은 찾아볼수 없었다. 어딘가 낯이 익어보였다.
(누굴가?…어디서 보았을가?…)
한쪽 팔에 부상을 입고 색바랜 보위색옷을 입은 정치공작대 처녀는 자기 동무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내고있었다. 얼핏보기에 성탄금이처럼 순진하고 동실하게 생긴 그의

녀동무는 가끔 두려움이 가득 실린 경계하는 눈빛으로 희미한 전등불빛이 흘러드는 철망을 댄 출입문을 흘금흘금 바라보더니 어느새 혼곤히 잠들어버렸다.

고요, 어둠, 바람소리, 군화발자국소리.

문득 녀인은 나의 시선을 감촉했는지 조용히 얼굴을 돌렸다.

《동문 어떻게 붙잡혔어요?》

녀인의 목소리는 낮고 은근하였다. 어쩐지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구면처럼 느껴진다.

나는 이마에 드리운 머리칼을 손으로 쓸어넘겼다.

《인민군습격조를 만나려고 도로에 나갔다가 그만…》

《참, 전선위문대에 있었지요?》

녀인은 한결 밝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물었다.

《?!…》

《난 첫눈에 알아봤는걸요. 순정이라고 했더라? 동문 우리 부대에 와서 장령동지에게 입대청원을 했지요? 그때…》

《어마나, 홍선화동지! 어쩌면! 저도…》

나는 그제야 녀인을 알아보았다. 전선가까운 소도시, 검소한 방안, 주한경장령, 녀성정찰병…짧은 시간이였으나 우린 녀성들의 세계를 속삭였지. 생활과 전쟁에 대하여, 인간과 사랑에 대하여…

녀인은 나의 손을 꼭 잡고 말없이 쓰다듬었다. 나는 녀인의 애무에 손을 맡겼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 녀인의 상처를 조심스레 닦아주었다.

창밖에서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양철지붕을 때리는 가느다란 비소리와 땅에 떨어지는 락수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다. 퇴창이 낡아서 이따금 비물이 튀여들어와 나의 이마에 떨어졌다.

우리는 한동안 상념에 잠겨 그 소란한 비소리에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신심을 잃어서는 안돼요.》 하고 녀인은 침착한 눈빛으로 나를 건너다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우리 군대는 곧 돌아올거예요. 그리구 지금 우리 제2전선부대들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전선은 북으로 이동했지만 놈들은 이미 뒤통수를 얻어맞고있어요. …》

나는 미제침략군의 군용차를 습격하고 사라진 인민군 소부대를 생각했다.

녀인의 의지적인 목소리에 신음소리를 내던 정치공작대 처녀는 이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나는 갑자기 음산한 광야에서 따뜻한 봄날의 들판으로 옮겨온것처럼 마음이 밝아지고 안정되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이상한 감정이였다. 나는 결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나는 동무들속에 있는것이였다.

《아침에 놈들이 심문할거예요. 동문 후퇴대렬에서 떨어졌다고 하세요. 길에서 잡혔으니 빠져나갈수 있을거예요.》

녀인의 말에 나는 가볍게 도리머리를 했다.

《놈들은 날 가만두지 않을거예요. 순찰대들은 나에게서 류다른 권총을 발견했거든요.》

《어떤 권총이예요?》

《〈케이엘오〉라고 쓴 권총인데 그 임자는 놈들의 정보원이였던것 같아요.》

나의 말에 녀인은 놀라와하는 눈길로 새삼스럽게 나를 뜯어보았다.

나는 간단히 사연을 이야기했다. 홍선화는 나에게 몇가지 조언을 주었다.… 그리고나서 녀인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눈길로 보슬비가 내리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날이 밝자 창밖에서 어지러운 자동차소리들이 들리고 출입문 저쪽에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웨침소리가 커져갔다.

그다음 나로서도 전혀 예상치 않았던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우리 옆방에는 녀인과 함께 이 도시에서 체포된 사람들과 북행길에서 걸려든 남자들이 들어있었다. 문득 옆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감방을 돌아보는듯 우는 소리를 하며 빌붙는 한 사나이의 목소리가 우리 귀에도 미쳐왔다.

《중좌님, 난 부산고무회사 전무입니다. 여기 부산시장의 수표가 있는 증명서도 있습지요. 제발 절 내보내주십시오.》

《이자는 뭔가?》

귀에 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 낯선 목소리에 나의 마음은 갑자기 불안으로 옥죄여들었다.

다음순간 나는 나직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의 임자가 전형적인 일

본식 말투를 쓰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이 늙다리는 8군보급창결에서 우물거리는것을 체포했지요.》

매독환자와도 같은 목소리가 느리게 대답했다.

《아니, 그건 저… 보급창에 있는 황중위와 약속한게 있어서…》

당황해하는 사나이의 겁에 질린 목소리.

《소령, 헌병들이 수색해서 체포한 녀인은 어디 있어?》

장교의 일본식 조선말은 귀찮은듯 당사자의 말을 가로챘다.

《옆방에 있습니다. 그 〈케이엘오〉의 번호가 있는 권총을 소유했던 녀자와 함께 가두었습니다.》

《내가 만나자고 한건 바로 그 권총의 임자요!》

철문이 닫기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군화소리들이 우리 감방쪽으로 옮겨져왔다.

어설픈 철망뒤에 군복입은 사나이들의 거친 얼굴들이 얼른거렸다. 출입문이 열리는것과 함께 축축한 비기운을 들쓴 찬바람이 감방안에 몰려들어왔다.

우리는 덤덤한 눈길로 방안에 들어선 앙바틈한 키에 안색이 희고 다소 날카로운 인상을 주는 아시아계 미군중좌와 그뒤를 따라선 몇명의 장교들을 올려다보았다. 안경을 낀 뚱뚱한 소령이 군화발로 벽에 기대앉아있는 정치공작대녀성의 허리를 걸어차며 쐑소리로 짤막하게 부르짖었다.

《일어서라! 이것들이 감히 뉘앞이라고…》

볼에 흠집자리가 있는 중좌는 방안을 한번 휘둘러보고나서 그 중년의 녀인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날카로운 눈길로 녀인의 침착한 얼굴을 쏘아보았다.

《이년을 체포하는 수색전에서 우리 장교 세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소령, 이 녀자를 심문실에 가있는 문용채대령에게 데려가시오.》

녀인은 말없이 나에게 뜻있는 미소를 보내더니 안경낀 소령과 함께 감방에서 나가버렸다. 체소하게 생긴 중령이 중좌의 곁에 다가가더니 뭐라고 귀속말을 하며 턱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나는 가슴이 섬찍해지는것을 느꼈다.

중좌는 코트주머니에 손을 찌른채 내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나는 주저없이 그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한순간 사나이의 입술에 경련 비슷한것이 지나갔다. 그는 눈을 가볍게 찌프리고 나를 살피다가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무엇인가 그 사나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이상한 예감을 느끼면서 눈을 내리깔았다.
사나이는 뚜벅뚜벅 내앞으로 다가왔다.
《당신이 한순정양이요？！…》
별안간 중좌는 손을 코트주머니에서 뽑으며 방심한듯한 목소리로 나직이 중얼거렸다.
《？！…》
《당신의 미모는 나를 당황하게 만드는군.》 그의 말소리는 다시 랭정해졌다.
《난 나의 련락원에게서 아가씨의 사진을 보았소. 변주설이와 함께 우리 일을 하느라 수고했소. 당신들이 협력하여 보낸 정보문건은 내가 늘 받았소. 도쿄의 산화은행 우에노지점에는 변주설과 아가씨의 개인구좌가 아직 있을거요. 난 〈케이엘오〉의 권총이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은 때부터 이런 비상한 상봉이 있으리라는 예감을 가졌댔소.》
나는 애써 자제력을 잃지 않으리라 결심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겐지로의 눈가에는 자못 만족해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는 어느새 다시 나타난 뚱뚱한 《매독환자》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프렸다. 겐지로는 무슨 생각에 잠겨 방안을 오가더니 중령앞에 멈춰섰다.
《가만 중령, 이 아가씨를 내 차에 안내하오. 이 녀자가 어떤 곡절을 거쳐 자유세계를 찾아왔는지 당신들은 상상도 할수 없을거요！…》
체소한 중령이 친절한 얼굴로 나에게 다가섰다.
그러자 《매독환자》가 여유있는 웃음을 띄우며 겐지로의 앞을 막아나섰다.
《중좌님, 헌병사령관각하의 승인이 없이는 이 녀인을 데려갈수 없습니다.》
소령의 말에 겐지로는 눈살이 꿋꿋해졌다.
《소령, 자네 캐논기관장교앞에서 무슨 태도인가？ 이 아가씬 내가 책임질수 있어！》
겐지로의 높은 어조에 비해 《매독환자》의 목소리는 배포유한

것이였다.

《중좌님, 전 다만 명령을 집행하고있을뿐입니다.》

《뭐라구?…》

《그리고 우리 헌병사령부는 8군사령부의 지시를 받고있습죠.》

《좋아. 네가 아직 8군씨아이씨맛을 덜 봤구나!》 겐지로는 험악한 눈길로 그를 쏘아보더니 나에게로 돌아섰다.

《순정씨, 당신을 고생시켜서 안됐소. 전시인만큼 아무래도 내 헌병사령관 송요찬이를 만나고 와야겠소. 그 〈케이엘오〉의 권총이 나를 당신에게로 이끌어왔지만 또 이런 골치거리를 만들어내는군. …》

겐지로는 코트자락으로 바람을 일구며 감방안을 나가버렸다.

출입문이 닫기자 나는 한쪽 구석에 서로 의지한채 서있던 두 정치공작대 처녀들이 증오와 멸시를 담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는것을 느꼈다.

그들쪽으로 주춤 걸음을 옮기려던 나는 그만 단념하고말았다. 나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설명할수 없음을 깨달았던것이다. 실로 우연이 빚어낸 이 운명적인 사연을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것인가.

나는 그들의 눈에서 준엄한 조국의 눈빛을, 분노한 성탄금의 눈길을 보았다. 아니, 배신자를 대하는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의 그 가식 없고 타협 없는 랭혹성을 느꼈다. 나는 천천히 창문쪽으로 다가가 축축한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나는 방금 벌어진 일을 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잠에서 깨여난 녀인의 아들애가 다가와 나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말똥말똥한 시선으로 올려다보았다.

《엄마…엄마…》

그 애는 울먹이는 시선으로 엄마를 찾았다.

나는 사내애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티없이 맑고 순진한 초롱초롱한 눈매, 그 눈은 묘향산집에서 만났던 농순이를 련상케 했다. 이상한 감정이, 북받치는 뜨거운 격정이 나의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앉아 사내애의 보동보동한 얼굴을 두손으로 쓸어안았다. 나는 두눈을 감았다.

《어머닌 인차 오신단다. 무서워 말거라.》

《얘, 이리 오너라! 그 아지민 나쁜 녀자다!》

차거운 목소리와 함께 이악스러운 손길이 내 품에서 그 아이를 빼앗아갔다.
순간 나는 모닥불이라도 뒤집어쓰는듯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꼈다.
내가 눈을 뜨자 사내애는 정치공작대녀자의 손에서 빠져나가려고 몸을 비틀었다.
《그럼 못써! 엄마가 욕해!》
이때 출입문이 열렸다. 반주검이 된 사내애의 어머니가 차거운 감방에 돌덩이처럼 내던져졌다. 내 품에 다시 안겼던 사내아이는 총알처럼 쓰러진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 문가에 서있던 헌병소령은 녀인을 부축하려는 두 정치공작대 처녀를 데리고나갔다.
나는 무릎에 녀인의 머리를 베이고 손수건으로 얼굴의 피자욱을 씻어주었다.
녀인의 얼굴은 이미 자기의 모습을 잃고있었다. 온통 찢어지고 터진 상처에 부드러운 머리칼이 엉켜붙은 처참한 얼굴은 하얗게 질려있었다. 나는 퇴창으로 손을 내밀어 손수건을 가을비에 적신 다음 그 녀자의 이마에 가져갔다. 그 순간 녀인이 눈을 떴다. 그 녀자의 부드러운 눈길이 말없이 내 얼굴을 살피고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아들애의 머리를 쓰다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방금 심문실에서…중좌가 지껄이는 동무의 경력을 다 확인했어요. 걱정마세요.》
녀인의 맑은 눈에는 동정과 믿음과 기대가 실려있었다. 나는 그만 그 녀인의 가슴우에 얼굴을 묻어버렸다. 슬픔때문인지 고마움때문인지 나의 두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내려 그 녀자의 피묻은 옷자락을 적셨다.
《진정하세요. 그렇게 나약해서는 이 전쟁을 이겨내지 못해요.…듣고보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군요. 내가 만약 동무를 알지 못했더면 난 어쩔번했을가요?》
그 녀인은 나의 말을 듣더니 짧게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속삭였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다. 나는 녀인의 얼굴을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녀인은 아들의 손을 꼭 잡은채 고요히 두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었다. 창밖에서는 굵어진 비줄기가 후둑후둑 메마른 대지를 두드리고있었다. 서늘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감방안은

저으기 추웠다.
《순정동무.》
문득 녀인이 눈을 떴다. 그의 눈길에는 친근감과 함께 일종의 엄숙함이 깃들어있었다.
《난 동무를 믿어요. 어쩐지 동무의 그 티없는 눈매를 믿고싶군요. 5년간 장군님의 품에서 자란 동무를… 장령동지앞에서 본 동무의 마음을！… 얼마후 놈들은 나를 총살할거예요.
이 시각 나는 후회되는것은 없어요. 비록 짧은 생이지만 난 행복했어요. 다만 부대에서 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떠나는것이 죄스럽고 안타깝군요.… 부대에서는 전략적후퇴가 시작되자 나를 아들애와 함께 이 도시로 파견했어요. 위장을 위해서요. 민청원인 동무가 나의 마지막부탁을 들어주리라고 믿어요.》
《선화언니！ 말씀하세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나는 홍선화의 두손을 잡으며 간절한 눈길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녀자는 나의 손을 다정하게 쓸어만지며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웠다.
《난 체포되기전 대구에 있는 장교구락부식당에 다녔어요. 매주 목요일 오후 5시에 부대의 련락원을 만나기로 되여있었어요. 그는 장교구락부앞 두번째 가로등밑에 푸른 케스의 수첩을 왼손에 쥐고 서있을거예요. 난 동무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겠어요. 다만 련락원에게 지하조직에 변절자가 생겼다는것과 나의 체포에 대해서 전해주세요. 그다음은 그가 동무를 적후부대에 안내할거예요.…》
《언니！…》
《순정동무, 길지 않은 인생을 후회없이 떳떳이 산다는건 쉬운 일이 아니예요. 그렇지만 그건 빛나구 값있는 삶이예요. 나도 장군님의 품에 안겨서야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한생을 옳게 살다가두 단 며칠을, 단 한순간을 탈선해도 그 인생은 총체로 너절해지는거예요. 이걸 명심해주세요. 그리구 이앨 부탁해요.…》
《알겠어요, 선화언니！》
나는 홍선화의 두손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녀인은 짧은 순간이나마 적후공작에 필요한것들을 알려주었다.
그 귀중한 충고는 나의 심장속에 아로새겨졌다. 마치 가문 땅에 떨어지는 비물처럼.

(이런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가. 내가 그처럼 두려워하면서 바라던 적후공작이 이렇게 준비도 없이 불쑥 찾아오다니… 그렇지만 시련을 겪고있는 조국을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을 주저하랴. 홍선화언니의 뒤를 이어 성탄금의 복수를 위해 내 생명을 내댈테야. …아, 이 햇내기전사에게 조국은 얼마나 큰짐을 얹어주는것인가! 난 이 짐을 지고갈테다!…)

나는 사색에 잠겨 녀인을 바라보았다.

녀인의 얼굴에는 고결하고 의지적인 표정이 굳어져있었다. 그녀자는 방심한 눈길로 그 어떤 추억에 잠겨있는것 같았다.

나 역시 생각에 잠겼다.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원한 삶이란 어떤것일가? 최후를 앞두고 이 녀자는 지금 무엇을 생각할가?

사랑과 애무와 모성애를 지닌 이런 평범한 녀성들이 례사로운 평화시절에는 귀여운 아기의 손목을 이끌고 상점과 학교로 가고 부엌에서 설겆이를 할테지만 일단 조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주저없이 불속에 뛰여드는것이며 험난한 적후에서 사선을 헤치는것이 아닐가?

이것이 정의로운 조선사람들이며 새 조선의 우리 녀성들의 참모습이 아닐가.

이 녀인의 부탁을 조국의 명령으로 받아안자. 만약 이 녀자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간다면 난 제2의 홍선화가 되여야 한다. 내 량심과 심장이 가리키는 길을 주저없이 가야 한다.

나는 엄마의 모습을 닮은 국철의 손을 꽉 잡고 추억에 잠긴 홍선화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영원히 살아있는 군상, 내가 본 이 땅의 평범하고도 영웅적인 수많은 인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그래, 전쟁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굳세지고 아름다와지는것이 진정한 삶을 자각한 우리 시대 인간이다. 이 녀인의 말이 옳다. 인생이란 결국 제한된것이고 생의 종착점은 가까이에 있을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삶은 또 한순간한순간 값있게 바칠 때 조국의 품에서 영원해질수도 있다. 사람들의 가슴속에, 조국의 기억속에, 국철이와 같은 미래의 눈동자속에! 마치 노래처럼, 사람들의 심장속에 살아있는 그 종군작곡가의 노래처럼. 그 노래는 누구도 빼앗지 못할거

야. 지워버릴수도 없고 불태워버릴수도 없고!

그리고 노을처럼, 사라졌다가는 다시 타오르는 아침노을처럼…

창밖에서는 가을비가 억수로 쏟아지고있었다. 메마른 나무가지들이 비바람에 설레이는 소연한 소리가 그칠새없이 들려오고있었다.

제 12 장

1951년 1월, 미제침략군8군은 주타격방향인 전선서부에 1군단과 9군단을 배치하고 이른바 《제한공세》를 시작하였다.

1월 27일, 미제침략군 1군단관하 미25사와 영29려단, 뛰르끼예려단은 수원—서울사이의 지역으로 공격을 개시하고 미3보병사단은 수원동쪽 10키로메터지점에서 공격해왔다.

1기병사단을 주력으로 하는 미제침략군 9군단은 리천—양평방향으로 공격해왔다. 한편 전선동부에서는 미제침략군 10군단과 괴뢰군 1, 3군단이 원주—횡성방향, 녕월—평창방향, 삼척—강릉방향으로 공격해왔다.

전선서부의 해안익측에서 행동하던 조선인민군 련합부대들은 강력한 반타격전을 진행하여 수리산일대를 점령하고 수원 서북쪽 20키로메터지점일대에서 완강한 방어로 적의 공격을 좌절시켰으며 주력의 차후전투행동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한편 아군련합부대는 주동적으로 한강계선으로 방어선을 옮겨 적에게 타격을 주었고 문형산, 578고지일대에서 방어하던 아군부대들은 미제침략군 3, 24보병사단과 괴뢰군 6사의 공격을 물리치고 주력의 익측을 믿음직하게 보장하였다.

11일저녁, 전선 중부와 서부의 아군련합부대들은 전반적계선에서 반타격으로 넘어갔다.

스테쎌 듀페이는 에니스준장의 명령을 받고 전선에 나와있었다. 그는 우드코크사단지역에서 《련락사무소》분견지대들이 전선을 넘을수 있는 밀로를 탐구하라는 임무를 받았었다. 그는 전방사령부에서 돌아온후 성탄절마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또다시 8군관하 사단들을 돌아다녔었다. 준장이 그를 전선으로 내보낸데는 또 다른

리유도 있었다. …그는 부대에서 대구시내에로 나오기만 하면 장교구락부 당구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었다. 물론 그를 장교구락부로 유혹한것은 당구나 도박의 정열만이 아니였다. 새로 장교구락부 주인으로 나타난 이채를 띠는 젊은 미인의 모습은 듀페이중좌의 넋을 현혹시켰던것이다.

듀페이는 ××사단 정보과 장교들과 함께 지휘부막사에 앉아 트럼프를 놀면서 음산한 창밖을 흘끔흘끔 내다보고있었다. 전선이 다시 38선계선에 고착되면서 극동군은 추위와 인민군의 반공격에 곤난을 겪고있었다.

스테쎌 듀페이는 아이부스소좌를 건너다보며 군용외투깃을 여미였다. 추웠다.

사십대를 갓 벗어난 나이에 벌써 뒤머리가 훌렁 벗어진 아이부스소좌는 어떤 장소에서나 야전모를 벗는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사단으로 조동된후 지키는 습성이였다. 그는 하사관들과 장교들 속에서 규정을 통달한 절도있는 상관으로 알려져있었다. 그의 군복에서는 다른 장교들과는 달리 쩌든 술내가 풍기지 않았으며 대체로 장교식당에서의 지정된 식사외에 극력 돈을 절약하고있었다.

련락장교사건이후 체포되였다가 소좌로 강직되여 사단정보과장으로 조동된 아이부스는 한때 자기의 하급이였던 스테쎌 듀페이앞에서 호의에 가득찬 추파를 던지기 일쑤였다. 물론 스테쎌이 비록 중좌의 견장을 달고있었지만 에니스준장의 보좌관이였으므로 그에게 잘 보이는것이 결코 불리할수는 없을것이였다. 한편 에니스준장이 자기가 사단정보과장으로 있는 지대를 밀로개척구역으로 선정했다는것이 아이부스에게는 희망을 주었다. 준장은 다년간 함께 일한 자기를 잊지 않고있는것이였다.

《중좌님, 또 내가 이겼습니다.》

아이부스는 탄성을 지르며 주패장을 내보이였다.

《아이부스소좌, 당신은 이젠 심리학강의를 다 잊은게 아니요? 트럼프기술만 늘었구려…》

듀페이는 싫증을 느끼며 그를 건너다보았다.

《엘리자베스녀왕이 만든것중에서 주패와 서양장기는 완성된 오락이라고 볼수 있지요. 난 지난해말 장진호반에서 인민군의 포위에

들었을 때도 트럼프로 내 운명을 점쳤지요. 다행히 난 하느님의 덕분으로 살아났습니다.》

《소좌.》 하고 듀페이는 비꼬는듯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은 아직도 나와 림송대위에게 앙심을 품고있는게 아니요?》

아이부스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중좌님, 난 숙명론자요. 강자앞에선 불만도 의혹도 없어야지요.》

《진심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림송대위가 중상을 입고 부산의 야전병원에 후송되였다는게 사실인가요?…》

《어디서 들었소?》

듀페이는 흠칫 놀라며 아이부스를 마주보았다. 이 몇달동안 그는 림송대위의 이름이 나오면 자주 놀라군하였다.

《오늘아침 겐지로중좌가 그러더군요. 그는 …》

듀페이는 의혹이 비낀 눈으로 소좌를 건너다보았다.

《겐지로가?… 그가 사단에 나타났소? … 왜?》

《아침에 사단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 그는 나에게 림송에 대해서 묻더군요. …》

《그래 대답했소?》

《글쎄… 할 말이 있어야지요. 난 또 원쑤를 만들 생각이 없지요. 소좌에서 더 내려가고싶은 생각은 나지 않으니까요. 난 전쟁에서 살아남아 고향인 네바다주에 포도주공장을 세울 희망만 안고 살고 있습니다. …》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있었다. 듀페이는 겐지로가 나타났다는바람에 속이 켕기고 쓰거워서 트럼프를 놀 생각이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포소리가 웅글게 들리고있었다. 래일 새벽엔 전투가 있을것이였다. 사단은 예비대로 있다가 얼마전에 전선에 투입되였던 것이다. 사단장은 오늘아침 듀페이에게 래일 자기들이 전선을 몇키로메터 전진시킬것이라고 장담했었다.

듀페이는 지휘부창문결으로 지나가는 사복입은 무리들을 보았다.

《소좌, 웬 사민들이요?》

《펜구락부 기자들이지요. 사단장이 래일 전투를 앞두고 8군공보처에 부탁했지요. …》

군용외투를 걸치고 대형사진기를 든 죤스톤과 장발을 드리운 박

사라가 듀페이의 앞을 지나갔다.

(제길, 사단장이 특공대의 밀로를 그래 전방 몇키로메터앞에서 선정하겠는가?… 빨리 일을 끝내고 대구로 가야 한다.… 어쩐지 불길한걸…)

스테쎌 듀페이는 어두워오는 창밖을 한참 내다보다가 원탁으로 돌아왔다.

《소좌, 한잔 하지. 춥구만.》

듀페이는 가방에서 꼬냐크병을 꺼내놓았다. 아이부스는 손을 비비며 원탁에 붙어앉았다.

화려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은 박사라가 애교를 부리며 방에 들어섰다.

《스테쎌씨, 안녕하세요?》

《사라양, 어서 오시오. 반갑소.》 하고 듀페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좌님, 우리 녀성들은 용감한 장교를 대뜸 알아본답니다. 오늘 밤 당신곁에 앉아있어도 되겠어요? 그럼 덜 무서울거예요.》 하고 박사라는 듀페이에게 미소를 보내며 원탁앞으로 걸어왔다.

《아가씨, 내 보기엔 인민군의 포성보다 이 듀페이씨가 당신에겐 더 무서운 존재로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고 아이부스소좌가 히죽거리며 말했다.

《아가씨, 안심하십시오. 난 녀성들에게 정중한 장교로 알려져있답니다.》 하고 듀페이는 웃으며 그 녀자의 손을 잡아 옆자리에 앉혔다. 《그래 아가씨는 전선으로 오기가 두렵지 않았소?》

《만약 미군만 아니였다면 두려웠을거예요. 우린 래일 톱뉴스를 얻으리라 기대해요.》

《톱뉴스라…》

듀페이중좌는 부연 전등밑에 드러난 그 녀자의 매력있는 육체미에 일종의 현혹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마치 마술에라도 걸린것처럼 별안간 어두운 혈관속에서 피가 끓어올랐다. 스테쎌은 이 순간 오늘 밤 이 녀자를 기어이 자기 침대로 안내하게 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유쾌하면서도 불안한 놀음이였다. 함정은 어디에나 준비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스테쎌의 눈길에서 무엇인가를 느꼈음인지 박사라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가씨, 꼬냐크를 들지 않겠소?》
《아니요, 대신 뜨거운 커피를 가져오겠어요. 날씨가 음산하군요. 소좌님, 날 좀 도와주세요.》
아이부스는 박사라에게 외투를 씌워주었다.
그 녀자가 나가버리자 듀페이는 술을 들이킨후 아이부스를 바라보았다.
《그래 소좌, 그 캐논장교가 당신에게 다른 말은 더 한게 없소?…》
《…》
《다른 말이야 내가 무엇때문에 수난자에게 하겠소!… 스테쎌씨, 안녕하오?》
듀페이는 낮익은 목소리에 흠칠 놀라 얼굴을 돌렸다. 문가에는 담배를 꼬나문 겐지로중좌가 랭소를 지으며 서있었다. 문열리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두 사람은 당황해서 서로 눈길을 맞추었다.
겐지로는 천천히 원탁으로 다가왔다. 듀페이는 그냥 자리에 앉아있고 아이부스소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급히 야전모를 눌러쓰더니 황황히 밖으로 나가버렸다.
겐지로는 의자를 당겨놓고 걸터앉았다. 그는 눈에 웃음을 담고 천천히 담배를 피웠다.
《또 당신을 찾아왔다고 나무람마시오. 중좌, 난 정말 우연히 들렸소. 들리고보니 당신을 이렇게 조용히 만나게 된게 다행이요!》
《당신은 또 나를 위협하려는거요? 아니면 빚을 받으러 온거요?》
《중좌가 내게 빚진 일은 없는것 같은데… 다 잊었구만. 난 자신을 당신의 친구로 여기고있소. 한잔 마셔도 되겠소?…》 하고 겐지로는 아이부스소좌가 채 마시지 못한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당신은 그사이 생각했겠지.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으니까 모든 일을 곰곰히 따져보았으리라고 나는 믿소. 물론 난 련락장교사살사건에 대해선 더 묻지 않겠소.》
《?!…》
겐지로는 듀페이의 눈치를 살피며 싸늘하게 웃었다.
듀페이는 술잔에 손을 가져갔다. 겐지로가 그 손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가만. 중좌, 흥분하지 마오. … 당신은 지금 이 찬 심장을 가진 씨아이씨장교가 왜 격전전야의 한밤중에 찾아왔을가 하고 추리하

고있겠지요? 당신은 지금 몇달전 비밀문건사본이 든 봉투를 가지고 도꾜의 어느 한 주식회사방에 들어갔던 일을 이 장교가 알고있을가 하고 불안하게 생각할테지요? 그 방안에는 앞이마가 벗어진 사나이가 회색양복을 입고 앉아있었지요?》

《중좌, 당신이 범죄심리학을 연구한다면 대상을 잘못 골랐습니다.》

듀페이는 더 참을수 없어 이발을 악물며 소리쳤다. 겐지로가 이미 모든것을 다 알고있다는 확신이 가자 그는 더는 불안해할 근거를 잃었던것이다. 아직 새로운 불안은 배태기에 있다고 말할수 있었다. 새로운 불안이 자기의 체모를 형성하기전까지 그는 그것의 시달림속에서 번민과 고통을 당하지 않을것이였다.

지금까지의 불안은 씨아이씨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눈치챘을가 하는 은근하고도 미묘한 심리적인것이였다면 새로운 불안의 내용은 이제 꼬리를 밟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하는 절망적이고도 현실적인것이였다. 극동군에 널리 알려진것이지만 캐논기관의 지하실은 어두웠고 그 어둠속에서는 벙어리도 입을 연다고 하였다.

《성을 내지 마오. 중좌, 난 론리학을 더 좋아하오. 하지만 난 극동군사령부의 기밀문건들이 미중앙정보국수중으로 넘어가는데 대해서는 방관할 결심이요. 그것때문에 사형을 받게 되지는 않을만큼 중앙정보국의 권위가 높아졌으니까. 그러나 만약 그 문건이 국방성보다 먼저 련방수사국의 문서고에 들어갔다면 난 당신과 이렇게 친구로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거요. 우리는 장차 캐논기관도 미중앙정보국에 이관되리라는것을 내다보고있소. 그러나 미래의 상관들에게 지금부터 추파를 던질 필요는 없지. 왜냐하면 군인, 특히 정보원이 두개의 명령을 수행할 때는 이미 죽음을 각오해야 하니까. 내 말이 리해되오? 듀페이중좌.》

《…》

《난 당신의 침묵을 긍정하는것으로 생각하겠소. 중좌, 두려워할건 하나도 없소. 어쩌면 당신이 원쑤처럼 여기는 내가 당신의 믿음직한 친구가 될수도 있거든. 생활이란 그런것이니까. 또 당신이 친구로 믿던 사람이 갑자기 적이 되여 나타날수도 있소. 아직은 리해가 안될거요. 시간이 그걸 증명하게 합시다.》

겐지로는 배포유하게 말하며 또 잔에 술을 부었다.
《당신은 내게서 무엇을 요구하는거요? 난 숨박곡질은 질색입니다.》
《좋소, 나도 돌아갈 시간이 됐소. 당신은 림송과 언제부터 알고 있소?》
그의 물음은 이미 스테쎌이 짐작한것이였다. 겐지로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는 그를 하버드대학시절부터 친구로 여겨왔습니다.》
《그는 사격을 이전부터 좋아했소?》
《소년기부터 명사수입니다. 그에게는 뉴욕아마츄어사격 회원증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권총을 즐겨 썼소?》
《콜트권총이지요.》
《당신은 워싱톤으로 떠날 때 림송을 그의 방에서 만났지요?》
《예, 잠간.》
《문건사본을… 그가 보았소?》
《아니요. …그는 내가 봐달라고 권고했으나 거절했습니다.》
《그건 왜?》
듀페이는 겐지로의 물음에 벌써 일종의 실망기가 어리는것을 눈치챘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는 보신주의자니까요. 그는 총알을 선사받기는 싫다고 했습니다.》
《음… 당신이 그때 잠간 자리를 뜬적은 없소?》
듀페이는 이 순간 속이 찔렸으나 그의 리성은 림송에 대한 의심이 곧 자기에 대한 의심으로 전환될것이라는것을 분별할수 있었다. 아담스의 얼굴도 떠올랐다.
《아니요. 림송과의 작별은 5분정도의 짧은 시간이였습니다.》
《?…》
《!…》
두 장교의 눈길이 얼핏 서로 부딪쳤다.
듀페이는 인차 눈길을 떨구었다. 겐지로의 눈은 깊어보였다. 듀페이는 무엇인가를 지꿎게 떠보려는 검질긴 의욕을 그 눈속에서 찾아보았으며 한편 그 눈길의 어느 구석에선가 일종의 공포심도

엿볼수 있었다.
천성이 비겁한 사람들은 대체로 랭담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또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잔인하게 구는것으로써 자기를 무서워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 책략이 성공하게 되면 그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고만다.
《당신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소?》
《물론입니다.》
《그럼 좋소. 또 한가지 우리의 담화내용이 딴데로 흘러나가서는 안된다는거요. 만약 조금이라도 흘러나갈 때는 정말 총알을 선사받게 될거요. 나의 말의 진실성은 믿어도 좋소. 그럼 실례하겠소. 앞으로는 좀더 친절하게 대해주기 바라오.》
겐지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듀페이도 저으기 안정된 마음으로 일어섰다.
두사람은 또다시 뚫어지게 마주보았다. 스테쎌 듀페이는 그의 눈길을 외면하지 않았다. 겐지로는 얼굴을 찌프렸다.
그는 자기의 눈을 아무런 주저도 없이 빤히 쳐다볼수 있는 사람들을 싫어했던것이다.
《자, 중좌, 난 당신이 래일전투에서 생명을 잃지 않길 바라오. 인민군의 탄알은 무자비하니까.》
《당신은 이번 〈제한공세〉에서 미군예비대가 그들의 진격을 저지시키리란걸 믿지 않습니까?》
《난 아무것도 믿지 않소!》
겐지로는 차겁게 한마디 내밷더니 홱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버렸다.
…이튿날 아침 듀페이는 악몽에서 깨여났다.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하늘은 푸릿했다. 문득 정열과 애무와 쾌락의 세계에 깊이 빠졌던 지난밤의 일들이 어지럽게 떠올랐다. 박사라는 이미 타락한 녀성이였던지 아니면 젊은 지투사령부 장교에게 매혹되였는지 술잔이 놓인 원탁으로부터 침대까지의 거리를 극복하는데 많은 시간을 랑비하게 하지는 않았다. 듀페이에게는 그것이 장애물극복경기로까지는 여겨지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잠든 녀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새벽잠에 묻힌 녀인의 모든것은 지나치게 아름다와보였다.
… 전투는 날이 밝으면서 시작되였다.

스테쎌은 막사를 나와 참호속을 달리며 아이부스를 찾았다. 그는 다음순간 린접전호에서 소좌의 모습을 찾아보았다. 소좌는 인민군 땅크서렬에 겁을 먹고 기관총과 포를 내버린채 철수하기 시작한 병사들을 돌려세우느라 권총을 내쏘며 갈린 목소리로 소리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죽음을 목격한 하사관들은 이미 로병이 아니였다. 여기는 프랑스나 필리핀땅이 아니였다. 공포는 의무보다 강하였다. 삶에 대한 애착은 명령에 대한 복종정신보다 검질겼다. 동뚝은 이미 터져버렸다. 흘러내리기 시작한 물을 막을 힘은 벌써 없었던것이다.

아이부스소좌가 지휘소로 돌아오자 스테쎌은 급히 그에게로 다가갔다.

아이부스는 어리둥절해서 듀페이를 쳐다보았다.

《중좌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 아이부스씨, 당신은 아직 여기 있었소? 장하오. 내 에니스준장에게 훈장내신서를 쓰겠소. 참, 당신의 차는 준비돼있겠지?》

《당신의 명령대로 대기시켰지요.》

아이부스는 창황중에도 훈장내신서 말이 나오자 얼굴의 근육을 풀었다.

이때 한쪽팔을 부상당한 겐지로가 급히 그들에게로 뛰여왔다.

아무런 명령도 토의도 없이 세사람은 대기시켜놓은 아이부스의 자동차로 달려갔다. 공포심과 조급증은 뒤늦게야 듀페이에게 엄습한것 같았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은 떨렸다. 곁에서 포탄이 터졌다. 파편이 귀밑을 날아지나가는 금속파렬음이 공기를 찢었다. 발동이 걸리지 않았다. 겐지로중좌는 짜증이 섞인 어조로 독촉했다. 고장이였다. 파편이 기관에 박혔던것이다. 이 비극적인 최악의 사태는 세사람을 절망에 빠지게 했다. 스테쎌 듀페이는 후날에도 이날에 보았던 겐지로중좌의 인상을 잊을수가 없었다.

《로병》은 이 순간부터 완전히 침착성을 잃어버렸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두리번거렸다. 일종의 영웅심리와 모험심이 강한 듀페이가 그래도 리성을 잃지 않고있었다. 그의 심장은 이 순간 자기자신에게 살라고 명령했던것이다. 사는 길은 이 철과 불의 격전장을 벗어나는것이였다. 생명에 대한 남다른 애착은 때로 인간의 두뇌를 령리하게 만들기도 하는것이다. 그는 두사람을 데리고

개활지대를 가로질러 논밭으로 뛰여들었다. 철길연선과 도로주변을 벗어나는것이 사는 길이였다. 그들은 미군장교와 하사관들의 시체를 밟지 않고서는 성성한 땅을 짚을수 없었다. 스테쎌 듀페이에게 매여달려 뛰여가는 겐지로중좌는 이미 넋을 잃고있었다.

벌써 듀페이는 인민군의 포사격권에서 벗어났다는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눈덮인 논판을 벗어나 활엽수림속에 들어선 듀페이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자리에 퍼더앉았다. 이곳에서는 그들이 떠나온 전장이 바라보였다.

듀페이는 자기옆에 겐지로중좌만이 남아있는것을 보았다. 아이부스는 혼잡속에 어디로 갔는지 알수 없었다.

겐지로중좌는 메마른 숲에 들어서자 비로소 의식을 회복한 간질병환자의 얼굴모색이 되였다. 겐지로는 인민군땅크들이 큰길을 따라 전진했으리라는 추측을 내놓고 울퉁불퉁 패인 달구지길을 택하여 아군지역으로 철수할데 대한 자기의 결심을 표명했다. 다행히 듀페이중좌의 가방에는 군용지도가 남아있었고 겐지로의 웃주머니에는 푸른 연필이 들어있었다. 중좌는 지도우에 철수할 경로를 따라 푸른 화살표를 그려넣었다.

두 장교는 헐벗은 수림속을 뚫고 간고한 행군을 시작했다. 숲속은 결코 조용한곳이 아니였다. 사방에서 총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전선지대였던것이다. 안성으로 빠지는 소로길을 얼마 앞두고 앞서 걷던 스테쎌 듀페이가 무엇인가에 걸쳐 넘어졌다. 뒤따르던 겐지로는 땅에 납작 엎드렸다. 한순간 숨막힐듯한 정적이 깃들었다.

《중좌, 일어나게. 나야.》

귀에 익은 목소리가 스테쎌 듀페이의 코앞에서 들려왔다. 그러자 듀페이중좌는 벌떡 일어나 풀숲에 넘어져있는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중좌님, 아이부스씨입니다.》 하고 듀페이는 겁에 질린, 그러면서도 반가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겐지로도 땅에서 몸을 일으켰다.

다리가 파편에 맞아 너덜너덜해진 아이부스는 피를 많이 흘려서인지 일어설념을 못했다. 상처는 끔찍스러웠다. 듀페이는 묵묵히 그를 내려다보며 무거운 생각에 잠겼다.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전장을 그 다리로 빠져나왔다는것이 기적같았다. 중상은 아니였으므로 야전병원으로 후송할수만 있다면 아이부스소좌는 그가 그처럼

바라는 생명의 언덕으로, 포도주공장으로 갈수도 있었다.
듀페이는 부상자에게로 허리를 굽혔다.
《여보게 스테쎌, 나를 부축해주게. 불쌍히 여겨주게.》
《…》
《난 늘 자넬 친절히 대했지. 이대로 놔두면 난 죽네. 난 벌써 피가 많이 빠졌어… 겐지로중좌님에게 이야기해주오. 난 마지막까지 싸웠소.》
그 순간 스테쎌 듀페이의 등뒤에서 권총사격소리가 들렸다. 목을 겨우 추켜들고 구원을 호소하던 아이부스는 한순간 몸을 흠칫 떨더니 맥없이 머리를 떨구었다. 총탄은 심장을 명중하였다. 가슴에서 마지막피가 세차게 솟구치다가 갑자기 잦아들었다.
듀페이는 몸을 부르르 떨며 홱 돌아섰다.
《이게 무슨짓이요? 중좌!》
겐지로는 차거운 눈길로 듀페이를 흘끔 바라보더니 아이부스의 시체로 다가가 권총과 증명서, 돈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의 손가락에 피를 묻혀 흰종이우에 지장을 눌렀다.
(저자가 왜 피지장을 찍는가? 무슨 꿍꿍인가? 교활한 유다같은놈!)
듀페이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부관, 당신은 아직도 리해 못하겠소? 그래 당신은 이 소좌가 운명의 마지막시각을 고통속에서 기다리도록 더 괴로움을 주자는거요? 아니면 산채로 인민군정찰기관에 고스란히 넘겨줄 작정이요? …아이부스는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자요.… 만약 내가 부상을 입어 걸을수 없게 된다면 당신이 나를 쏘시오. 손이 떨려서는 안되오. 이것이 장교의 우정이요!》
중좌의 말은 섬찍하게 울렸다. 스테쎌 듀페이는 그의 말에 더 반박할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실 그자신도 비대한 늙은 소좌를 이끌고 갈만한 힘과 용기와 아량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두 장교는 다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흰눈이 내리고있었다. 듀페이는 소로에 들어서자 우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마른 풀숲에 가리워 아이부스의 시체는 더 보이지 않았다.
(아 죽음, 죽음이란 저런것인가? 퇴역후 새로운 포도주공장을 세우겠다던 늙은 소좌의 희망은 하나의 부질없는 공상이였단말인

가. 그래, 죽음은 모든것을 삼켜버린다. 나에게서도 나의 명예도 나의 행복도 삶자체도… 죽음은 영원한 지옥이다.
삶이 순간이라면 죽음은 영원하다. 그 짧은 삶의 순간마저 인간은 서로를 괴롭히면서 단축해야 한단말인가… 단축하기 위해서 서로 피를 흘려야 한단말인가！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무서운 인간들이다. 짐승들이다！)
듀페이는 자기의 심장을 짓누르는 그 어떤 염세적인 고통과 환멸의 어두운 목소리를 들었다. 듀페이는 갑자기 무서워졌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현실적이였다.

야전병원은 부산의 교외, 어느 한 부유한 은행가의 별장에 자리잡고있었다.
림송은 며칠전부터 간호부인 해사한 민간녀자의 부축을 받지 않고서도 저녁녘이면 별장정원의 향나무숲을 산책할수 있었다. 아직 몸이 완쾌되지는 않았으나 걷거나 사색하는데 상처가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다만 왼쪽팔을 움직일 때마다 상처부위가 지그시 저려나고 다소 불편할뿐이였다.
림송은 숲이 우거진 정원의 소로에 들어서자 장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들어 눈덮인 향나무를 올려다보았다. 가벼운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가지에 실려있던 가벼운 눈송이들이 백화처럼 흩날려내렸다. 눈송이는 그의 얼굴에 떨어져서는 사르르 녹아버리군하였다.
림송은 겨울눈의 상긋하고도 찬 감각에 얼굴을 맡긴채 두눈을 감았다.
삶은 결코 그를 배반한것이 아니였다. 젊음은 죽음을 타승한것이였다. 근 달포에 걸치는 상처와의 싸움에서 강한 정신적의지는 그리고 삶과 청춘은 결국 검질긴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낸것이였다. 명사수인 듀페이의 권총은 비록 심장을 뚫지는 못하였지만 페를 관통하였고 생명을 위협하였었다. 만약 제때에 응급처치를 받을수 없었다면 림송은 이미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수 없었을것이다. 의식을 잃은 림송은 에니스준장의 지시에 의해 8군사령부직속병원으로부터 부산의 야전병원으로 옮겨왔었다. 물론 정보부에 제출한 듀페이중좌의 보고서에는 림송대위가 인민군 제2전선부대의

습격을 받아 부상당했다는 내용이 엄숙하고도 진지한 필체로 씌여져있었다. 군용렬차의 앞길을 막았던 파괴된 철교는 회색머리중좌의 보고서를 믿음직하게 확증해주고있었다.

정탐가의 생활에서 때로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화를 복으로 만드는 례외도 있는듯싶었다. 듀페이의 보고서는 에니스준장의 말없는 찬동을 받아 8군사령부 인사부를 거쳐 극동군사령부에 표창내신서와 함께 발송되였다. 며칠전 림송이 의식을 회복하자 에니스준장이 직접 인사국장교와 함께 야전병원에 나타나 림송에게 은성훈장을 수여하였다. 그리고 림송이 자동적으로 《련락사무소》 특수련락장교로 임명된 소식을 알려주었다.

에니스는 바로 듀페이의 총알이 지나간 가슴가까이에 훈장을 달아주었다.

결국 총알과 훈장을 바꾼셈이다. 하지만 림송에게 있어서 그 《훈장》은 필요한것이였고 《귀중한》것이였다. 왜냐하면 그 훈장은 곧 조국이 준 임무수행의 성실성을 표현하기때문이였다.

림송이 부산의 야전병원으로 옮겨온후에도 듀페이는 하루가 멀다하게 장교병동을 찾아왔다. 아이젠하워장령의 담당군의로 유럽원정에도 참가했다는 부산의 《유엔군》 야전병원의 머리벗어진 외과군의인 원장은 이 회색머리중좌의 까다로운 요구와 로골적인 위협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메스를 들고 젊은 아시아계 미군대위의 수술장에 들어서지 않을수 없었다. 원장은 마지막 세번째 수술때까지도 이 회색머리중좌의 감시와 립회하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림송의 생명을 부활시키려는 듀페이중좌의 노력은 검질긴것이였다. 그것은 이 중좌에게 있어서 운명의 얄궂은 희롱으로 림송의 죽음이 곧 자기의 죽음으로 될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이 어쩔수 없는 미묘하고도 숙명적인 그물에서 빠져나갈 힘이 그에게는 없었다. 한편 듀페이의 노력속에는 후날 완쾌된 림송대위앞에서 사죄와 변명을 늘어놓을 자기의 난처한 처지에 다소나마 분칠을 해보려는 류다른 희망도 포함되여있었다.

눈내린 뒤의 강철빛 하늘은 투명하고도 차거워보였다. 갈가마귀떼들이 향나무숲가지우에서 소란스럽게 우짖는 소리에 림송은 눈을 뜨고 머리를 들었다.

병실현관앞에 흰 위생복을 입은 호리호리한 녀성간호부와 군용

잠바를 걸친 웬 사나이가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있었다. 잠시후 사나이는 간호부의 손짓에 따라 림송이 앉아있는 향나무숲쪽으로 부지런히 걸어왔다.

림송은 약간 어깨를 들썩거리며 걷는 조급한 걸음걸이를 보고 그 사나이가 다름아닌 듀페이중좌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옆구리에 두툼한 서류가방을 끼고있었다.

림송은 쓰거운 미소를 지은채 다가오는 중좌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림송, 은성훈장수훈자인 자네에게 찾아오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겠나?》 하고 듀페이는 의자곁으로 가까이 오며 자못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걸었다.

《혹시 친구의 심장을 정확히 조준하려면 몇메터 거리가 적당한가 하는걸 생각하지나 않았나?》

림송의 대답에 듀페이는 얼굴에 억지로 웃음을 띄우며 그의 곁에 털썩 주저앉았다.

《만약 자네가 요즘 나와 벤다프대좌가 에니스준장의 밑에서 겪는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오히려 나에게 감사를 보냈을걸세. 〈련락사무소〉의 정보부대때문에 요즘은 위스키 한잔 입에 대지 못한다네. 난 전선에서 포위되였다가 겨우 살아왔네. 오늘 병원으로 오면서 난 이 아름답고 평온한 옛 별장에서 전쟁의 포화를 피해 단 한주일이라도 자네처럼 조용히 누워있을수 있다면 몸에 탄알을 둬개 선물받더라도 좋겠다는 공상에 잠겼댔네.》

림송은 이 뻔뻔스러운 사나이의 말에서 그가 몹시 자기를 두려워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적수는 벌써 위험한 인물이 아니였다.

《자네 내가 혹시 복수할가봐 걱정하는게 아닌가? 그러나 마음놓게. 난 등뒤에서 권총을 겨누는 놀음은 하지 않을테니까.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나 정면에서 자네에게 결투를 신청할걸세. 난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림송, 자네의 말은 나를 완전히 감동시켰네. 자넨 그 불행한 역홈에서의 총격사건을 자가당착에 빠져 모대긴 한 사나이의 헛된 몸부림으로 리해해주게. 난 그때 죽음의 신의 유혹을 받은것 같아. 난 악몽에서 빠져나온 사람일세. 림송, 내가 자네의 생명을 구원하

려고, 때늦게나마 훈장을 내신하려고 동분서주한 사실을 전혀 모르진 않겠지?》

듀페이중좌의 회색눈에는 간절한 빛이 떠올랐다.

《듀페이, 난 그 행동을 두고서 병주고 약준다는 우리 선조들의 속담을 생각했네. 걱정말게. 난 자네가 보내온 성탄절 꼬냐크속에 독약이 들어있을가봐 마시는걸 주저하지는 않았으니까.》

《믿어주니 고맙네. 우리는 이제부터 또다시 코를 맞대고 운명에 도전하게 됐거든. 에니스준장은 자네가 며칠내로 퇴원하면 곧 새로운 일감을 맡길걸세. 자네와 난 정보부대의 훈련으로부터 작전수립과 파견에 이르기까지 준장의 대리인 벤다프대좌의 보좌관역을 수행하게 될것 같네.》

《그래 현재 형편은 어떤가?》

림송은 듀페이가 들고있는 두툼한 서류가방을 흘깃 넘겨다보며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듀페이는 이마를 찌프리며 머리를 저었다.

《말두 말게. 전선에서 참패한 맥아더는 아마 아시아정보전문가들에게 희망을 건것 같아. 성탄절전으로 전쟁을 결속하겠다던 장군의 총공세성명은 서방신문들의 인기있는 만화소재로 되고말았으니까. 이번 총퇴각의 시기에 미군은 수십만명의 병사들을 잃고 겨우 이럭저럭 38도선에 주저앉았거든. 자넨 아늑한 침대에 누워있었으니 다는 모를걸세. 장진호반에서 해병1사는 1만명이 포로되는 기록을 세웠다네. 백악관과 펜타곤의 질책과 압력때문에 곤경에 빠진 맥아더는 비로소 우리 전략정보의 존재를 깨달은것 같아. 이건 극비지만 이번에 개편된 〈련락사무소〉의 방대한 규모는 우리 정보장교들을 놀라게 하고있네. 거의…》

듀페이는 문득 실수를 깨달은듯 능청스러운 미소를 짓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리고 이번에 저격무기와 직승기로 장비한 〈레인드레르쓰〉정찰 및 파괴중대가 시범적으로 여섯개 조직되여 사단들에 배속되였네. 유타주 프로본에 있는 19특수전단에서 급히 파견되여왔는데 특수핵지뢰까지 보유하고있네. 특수부대훈련소에서 단련된 인원들이니까 전선너머 배후타격작전에서 한몫 단단히 할걸세. 락하전문가인 훈련고문 스케몬소좌는 이 특공대때문에 전선사단들에 가있었지. 나도 그때문에 전선사단에 갔었지만…》

듀페이의 말은 림송에게 있어서 뜻밖의것이였다. 우선 극동군사령부가 관심을 가지고있는 《련락사무소》(정보부대)가 큰 규모로 개편되였다는것도 심상치 않은 일이였지만 그 분견대들인 정찰 및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정탐파괴중대가 조직되여 사단들에 배속되였다는것은 정보의 역할을 무시했던 극동군사령부의 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림송은 자기가 더는 침대우에 누워있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래 듀페이,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의 성격을 모르겠나? 난 에니스준장앞에서 곤경에 빠지고싶지 않아서 그러네.》

림송은 환자복우에 걸쳤던 군용외투에서 담배곽을 꺼내며 듀페이를 돌아보았다.

듀페이는 급히 주머니에서 라이타를 꺼냈다.

《글쎄 알다싶이 나야 한갖 보좌관에 불과하지 않나.》

듀페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슬쩍 올려다보았다.

(이자가 나를 경계하는구나, 듀페이! 너는 한때 나와 같은 강의실에도 앉았고 성탄절이면 샴팡주도 함께 마셨다. 하지만 너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선 서슴없이 나의 가슴에 탄알을 박았지.)

림송은 실지 심장의 한구석이 이 순간 지그시 아파나는것을 느꼈다.

그자리에서 듀페이를 쏴죽이고싶었다. 하지만 이미 듀페이의 생명은 그의 손아귀에 들어있지 않는가. 비싼 대가를 치르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일이였다. 림송은 어제 리준구의 문안을 안고 찾아왔던 레이몬드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자제력을 회복하였다. 림송은 에니스의 보좌관인 듀페이를 리용하여 정보를 확인할 마지막 공작방안을 리준구에게 전달한것이였다.

향나무숲이 설레이면서 또다시 눈꽃들이 벗꽃처럼 흩날렸다. 메새 두마리가 흔들거리는 향솔가지에 앉아 작은 눈을 되록거리며 두사람을 내려다보았다. 림송은 향나무가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것은 언젠가 리준구에게서 들은 그 랑만적인 곡조였다. 인상깊은 그 선률은 한번 들었지만 그의 기억속에 깊이 아로새겨졌던것이다. 그만큼 림송에게는 조국이, 전우들이 그리고 동경하는 사람들속에서의 생활이 못견디게 그리웠던것이였다.

(그러니 도꾜와 서울은 포성이 우는 전선만으로는 명예를 회복할수 없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은것이 아닌가. 결코 간과할수 없는 심중한 문제이다. 제2전선을 위한 정보전의 선행에로의 방향전환, 이것은 무한궤도가 지나간곳에서 정의와 명예를 찾으려는 맥아더의 〈철혈정책〉의 파탄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능한 한명의 첩자가 몇개의 사단의 운명에 영향을 줄수 있는 위험의 시작점을 시사하는것이 아닐가? 배후타격… 이것은 서방군사전문가들이 늘 외우는 고전전법이다. 대량적인 정보부대의 조직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공작방향을 세운 조국의 진의도는 여기에 있었구나… 놈들은 결국 머피의 세번째 방안에 매달리고있다! 정황을 종합해보면 결국 륙군정보국이 제2전선작전을 위해 미중앙정보국과 합동한셈이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가장 위험한 결탁이 아닐수 없다. …)

림송은 조용히 휘파람을 불며 추리를 이어갔다.

듀페이는 공상에 잠긴것 같은 그의 모습을 불안에 싸여 흘끔흘끔 곁눈질하더니 별안간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림송, 미안하네. 난 떠날 시간이 됐네. 오늘 저녁 대구로 가야하거든. 난 며칠후엔 자네를 대구교외의 우리 〈련락사무소〉 사령부장교숙소에서 볼수 있으리라 기대하네.》

림송은 듀페이의 찬 손을 잡았다.

《이렇게 찾아주어 고맙네. 난 한순간의 실수를 배반으로 보지 않았기때문에 살아있네. 결국 난 친구를 잃지 않았으니까. 내 말의 뜻을 알겠나?》

《알겠네, 림송.》

《현명한 사나이는 한번 넘어졌던 둔덕을 늘 에돌아가는 법이라는 말이 있지.》

《난 자네의 자비와 관용을 고맙게 생각하겠네.》

듀페이는 아첨기가 흐르는 눈으로 림송을 친근하게 바라보았다.

《참, 한가지 부탁을 들어주겠나?》

림송은 손을 내미는 듀페이에게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말하게. 자네 부탁이라면 휴가를 신청해서 하와이에라도 다녀오지.》

《고맙네. 하지만 나의 부탁이란 극히 사소한 생활적인것이라네.

래일 저녁 8시경에 장교구락부앞에서 레이몬드선생이 기다릴걸세. 그와 함께 가서 도꾜에서 보내오는 돈과 물건을 좀 가져다주게.》
《생명을 내거는 부탁도 들어주겠는데 그만한걸 못해주겠나. 래일중으로 자네에게 가져오지.》
《아무래도 에니스준장의 눈에 들려면 뭘 좀 준비해가지고 가야할것 같아 그러네.》
림송의 말에 듀페이는 히죽이 웃었다.
《알겠네, 알겠어!》
듀페이는 림송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마주보더니 홱 돌아서서 눈길을 걸어갔다.
림송은 순결한 흰눈길우에 움직이는 검은 덩어리를 한동안 지켜보았다. 그는 듀페이라는 사나이가 어느때든지 기회와 조건만 허락된다면 자기의 목을 소리없이 조일수 있는 잔인한 성격이라는것을 이 순간 다시한번 뼈저리게 느끼였다. 승냥이는 사슬을 푼 순간이면 주저없이 달려들것이였다. 다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사슬때문에 상대방을 물어뜯는 순간이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한다는것을 알고있을뿐이였다. 림송에게 있어서 이 승냥이를 제거해버리는것은 힘든 일이 아니였으나 반면에 승냥이를 앞세우고 승냥이무리속에서 살아가기는 한결 유리한것이였다.
별장의 동쪽방에서는 뜻밖의 손님들이 림송을 기다리고있었다.
《림송씨! 그래 몸은 어떻소? 당신이 불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제야 찾아온 나를 용서하오. 어쨌든 때늦지만 수훈을 축하하오. 수림양이 아니였다면 난 이 별장을 찾을념도 못했을거요.》
장성군복을 가뜬히 입은 문용채는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철철 흘리며 다가와 림송을 붙안았다. 림송은 문용채의 요란스러운 거동에 몸을 맡기고 그 사나이의 어깨너머로 침대곁 의자에 소심하게 앉아있는 강수림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보냈다.
《뜻밖이군요. 이렇게 찾아오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소. 장성복이 당신에게는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이번에 8군사령부의 영향력때문에 장성을 박았소. 나로서도 뜻밖이요.》
문용채는 견장우의 별을 슬쩍 내려다보며 만족한듯 미소를 지었다.
림송은 문용채를 이끌고 침대에 걸터앉으며 강수림에게로 얼굴

을 돌렸다.

《림송씨의 완쾌된 모습은 저를 기쁘게 하는군요.》 하고 강수림은 인상적인 검은 눈을 깜박이며 애교있는 미소를 지었다. 그 녀자는 몸이 약간 수척해진것 같았다. 그것이 오히려 그 녀자의 연연하고 애틋한 미모를 돋구고있었다.

《전 림송씨가 대구를 떠난 다음 무척 고독했어요. 그래서 서울이 탈환되였을 때 타자수를 그만뒀어요.》

수림이는 얼굴을 붉히며 나직이 속삭였다.

《하긴 미인에게는 국경이 없으니까.》 하고 림송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두분이 동행하여 부산에 나타났나?…》

《이번에 륙군정보국담당 수석련락장교자리를 형식적으로 내놓고 지금 에니스준장밑에서… 일하오. 아마 앞으로 림송대위와 함께 땀을 뺄것 같소.》

문용채는 대답을 피하며 더 무슨 말을 하려고 주먹코를 벌름거리다가 얼핏 강수림쪽을 돌아보았다.

《난 땀이 아니라 피를 흘릴가봐 걱정이군요.》

림송의 말에 문용채는 가볍게 이마를 찌프리였다.

《하지만 요즘도 우리 륙군본부출입이 잦소… 수림아가씬 내가 개인서기격으로 데리고 왔소. 현지에서 문건을 만들 일이 있었거든. 하긴 이 아가씨가 아니였다면 림송씨를 만날수 없었을거요.》

《레이몬드 아담스씨가 주소를 알려주더군요. 기자선생은 요즘 부산에 계신답니다.》

림송과 문용채의 눈길이 부딪쳤다. 문용채는 눈길을 돌렸다. 림송은 아담스가 문용채 부친때문에 부산에 체류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들은 얼마후 밖으로 나왔다.

《림송씨, 인차 퇴원하겠지요?》 하고 수림이가 차에 먼저 다가가면서 애틋한 시선으로 림송을 올려다보았다.

《아가씨와 늘 만나기 위해서도 빨리 대구로 돌아가고싶소.》

《기다리겠어요.》

수림이는 얼굴을 발그레 물들이며 눈을 반짝였다.

림송은 문용채에게로 다가갔다. 수림이가 승용차에 먼저 오르자 문용채는 우정 늦장을 부리다가 림송을 이끌고 몇걸음 뒤로 물러

셨다.
《림송씨.》 하고 문용채는 갑자기 웃음을 거두고 주변을 살펴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사실 난 준장님의 신임으로 이번에 개편된 정보부대의 국군측 책임자로 임명되였네. 륙군정보국장은 내가 대구를 떠나기전 자네가 이 부대의 8군정보부대표의 한사람으로 일하게 된다는것을 알려주었네. 벤다프대좌가 우리 륙군정보국의 새 국장과 일정한 친교를 가지고있는것 같아. 국장은 자네가 우리를 도와주리라는걸 믿고있었네… 난 자네와 사심없는 친구가 되고싶네！…》
문용채는 림송의 눈치를 보며 너나들이를 하더니 입을 다물었다. 림송은 빙그레 미소했다.
《그러니 당신들은 에니스준장의 령토에 자기들의 소왕국을 꾸리려는셈이구만. 그게 그리 쉽사리 성공하리라고 보오？ 그리고 그게 발견될 때 우리는 함께 캐논방첩기관에 압송될것입니다.》
림송은 그가 내미는 담배곽을 밀어버리며 이마를 찌프렸다.
《림송, 난 자네의 심장속에도 민족의 피가 뛰고있음을 의심치 않고있네. 물론 미군은 우리 전쟁의 기둥인것이 기정사실이네. 그러나 서울도 이제는 자기의 귀와 눈을 가질만큼 개명할 때가 왔다고 보네. 안전성, 공훈, 이것은 나나 자네에게 있어서 리해의 일치를 가져오리라고 믿네. 정보부대의 기본성원들이 우리 사람들인것만큼 그 리상적인 소왕국을 형성하는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걸세. 미국인들은 인원선발과 배치에서 나와 자네를 거칠수 있는 확률이 많을게거든.》
《어쨌든 소장님이야 이젠 나의 상관격이 아니요.》
문용채는 림송의 말에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하긴 브라운 겐지로씨도 우리 기관의 방첩과장으로 임명되니까 나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져보이더군.》
《겐지로중좌가？》
겐지로가 특수부대 방첩과장으로 되였다는것은 뜻밖이였다. 무엇때문에 에니스는 위험한 시한탄과도 같은자를 신임하는가？ 겐지로의 직접적인 출현은 림송의 사업에도 하나의 커다란 장애물로 될것이다. 물론 림송은 이러한 인사조치가 에니스의 독선적인 활동을 조절하려는 극동군사령부의 진정제라는것을 대뜸 간파했다.

승용차의 발동소리가 부르릉거리기 시작했다.
림송은 문용채의 말에서 서울측이 특수부대를 통해 자기들의 정보원천을 넓히고 도꾜와 서울의 지령을 동시에 받아 움직이는 조직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직감하였다. 림송은 분명 막후의 고위인물이 조정하는 이들의 제의를 서서히 접수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이 순간 생각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이 정보부대에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파악하고 조종할수 있는 필요한 성원들을 발견할수 있게 된다는것과 또 둘째로, 위험이 조성되고 최악의 경우 이 제의를 방패로 리용할수 있는 전망이 있었기때문이였다.
림송은 눈길을 들고 초조한 얼굴로 자기를 지켜보는 문용채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소장, 당신의 제의를 생각해보겠소. 그대신 날 리승만의 하수인으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라고 상부에 전해주시오. 난 단지 친구로서 협력했으면 할뿐입니다. 당신들의 협력이 때로는 에니스준장앞에서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줄수도 있으니까. 난 당신에게 한가지만은 진심으로 충고하고싶소.
지나치게 말려들지 마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국군〉륙군본부나 방첩대에서가 아니라 8군사령부에서 봉급을 받으니까. 당신이 늘 외우지만 고대그리스철학가 플라톤은 인생에서 중용을 지키라고 설교했소! …》

리준구는 대구교외의 남쪽 비슬산 기슭의 금호강가에 차를 멈춰세우고 눈길을 헤치며 숲속으로 들어갔다. 무전기를 은페장소에서 찾아내자 그는 곧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교신시간까지는 아직도 5분가량 남아있었다. 그는 담배를 피우고싶은것을 억지로 참았다. 깊은 산속이지만 순간도 마음의 탕개를 풀지 말아야 한다. 본부에 임무수행을 보고할 순간이지만 그는 어쩐지 마음이 불안했다.
리준구는 해묵은 스무나무결의 안침진 바위곁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디선가 이상야릇하고 가느다란 금속성에 가까운 소리가 찡찡 귀가에 미쳐왔다. 그 음향이 그의 심혼속에 아득히 흘러가버린 시절의 추억을 불러왔다. 아니 일종의 단편적인 생활의 사말사들이 불련속적으로 그의 머리속을 지나가는것이였다. 그는 문득 어느한 회억의 그림자를 지꿎게 거머쥐였다.

사랑의 시절 정신도 육체도 주위도 태동하는 시대였다. 그는 서울에서 고학할 때 같은 의전의 한 하급생 처녀에게 어느날 문득 눈길이 갔었다. 가냘프고 목이 빠지고 어딘가 겁먹은듯한 오목눈이 초점없이 방황하는 연약해보이는 녀학생이였다. 그를 보는 순간 리준구는 떠나온 고향 함주땅의 메마른 들판과 초가삼간의 저녁녘 흰연기를 생각했으며 서글프고 절절해지는 애수를 느끼였다. 동정, 그것은 완강한 사나이가 섬약한 녀성에게 느끼는 동정심이였다. 처녀는 지꿎은 사나이의 눈길에 두려움이 생겼는지 줄곧 그를 피해 다녔다. 그 녀자가 피할수록 젊은이에게는 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자기가 곁에 없으면 무슨 불길한 일이 그에게 일어날것 같은 위구심과 초조감이 커가는것이였다. 어쩌다 교내에서나 길에서 마주치면 처녀는 례의 겁먹은 오목눈으로 그를 애처롭게 바라보았으며 리준구는 입이 얼어붙어 갈팡질팡하는 눈길로 그를 마주보기만 하였다.

이렇게 나날이 흘러갔다. 근 반년사이 그들은 수백번 마주보았으나 단 한마디의 말조차 건넨 일이 없었다.

어느날 그들은 우연히 교문을 나서다가 마주치게 되였다. 말없이 시선을 피했으나 함께 걷게 되였다. 함께 걸을수밖에 없었다. 시내로 나가는 길은 한길이였던것이다. 이것이 뗄래야 뗄수 없는 인연을 맺아주는 운명적인 길로 될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강변으로 향했다. 겨울이였다. 강은 두텁게 얼어붙었고 그우에 흰눈이 덮여있었다. 강복판에 들어서자 처녀가 넘어질듯 위태롭게 기우뚱거렸다. 리준구는 얼결에 그 녀자의 팔을 잡았다. 그러자 무엇인가 따뜻한것이, 즐거운것이, 말로는 표현할수 없는 진실하고 참된것이 오간듯 그들은 서로가 남이 아니라는것을 불현듯 깨달았고 또 그러한 감정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것을 느꼈다. 그들은 숫눈길우를 걸어갔다.… 리준구는 늘 그 강변에서 그 녀자를 기다렸다.… 그는 얼음판우에 누워있었다. 황혼이였다. 그는 추위를 감득하지 못하고있었다. 사랑으로 활성화된 그의 심장은 열을 토하고있었다. 리준구는 얼음판에 귀를 가져다댔다. 그러자 어디선가 멀리, 썩 멀리에서 그 무엇이 터지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어쩌면 얼음장이 터지는, 겨울이 물러가는 소리인지도 모른다. 리준구는 자기의 암담한 생활에 희망의 그림자가 비껴들었다는것을 의식

했다. 희망이, 공상이, 행복이 그 소리에 깃들어있는듯… 리준구의 억지로 처녀도 얼음판에 귀를 가져갔다. 그는 자기의 애인도 그 숙망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게 하고싶었다.

《들리오? 들리오?》

그 소리는 금시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릴듯 조급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들려요.》

《그래? 뭐가 들리오?》

《얼음밑으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별빛이 처녀의 얼굴에 떠오른 가냘픈 미소를 비쳤다.

리준구는 어리둥절하여 다시 얼음판에 귀를 가져갔다. 그러자 어렴풋한, 공상적인것이 아니라 억세고 현실적이고 그 어떤 정신적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물소리가 촬촬 귀가에 미쳐왔다. …

리준구는 상념에서 깨여났다. 추억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켜버렸다.

그는 담배를 쥐였던 손으로 무전기우에 묻은 눈을 털어냈다. 시계를 보았다.

(결국 우리 《수성》조는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한것인가?…)

그는 자기의 마음에 반문했다.

어제 그는 림송의 제안과 지략에 의해 레이몬드와 함께 거친 남해기슭에서 듀페이중좌를 《심문》하였다. 다나까 사무엘의 명의로 진행되는 심문이라는것을 알자 듀페이는 피심자의 처지가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위치에서 응해왔다. 자기의 생명선을 쥐고있는 레이몬드가 곁에 있는것이 그에게는 진정제였고 촉진제였다. 듀페이의 진술은 림송이 제공한 자료들과 거의 일치하였다.

《난》 하고 듀페이는 검은 파도가 굼니는 해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 〈사무소〉의 비밀이 사무엘회사의 경제리익과 함께 미중앙정보국에 직송된다는걸 알고있는 한사람이요. 했기에 림송의 부탁을 맡아나섰소.》

《좋소. 회사에는 정보제공자인 당신의 이름을 밝히겠소.》

레이몬드가 담배곽을 내밀며 말했다.

구체적인 《련락사무소》 정보전달이 끝나자 듀페이는 도꾜에서 보내왔다는 큰 지함 두개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데 아담스씨, 당신은 왜 장소를 여기로 정했소? 당신의 숙소가 나았을텐데…》

듀페이는 복면한것 같은 리준구의 얼굴쪽을 흘끔흘끔 바라보았다.

레이몬드는 담배꽁초를 바다물에 던졌다.

《당신은 기업신경이 어느정도 있어보이더니 그런 말을 하오? 정상적인 통로로 이런 귀중품과 현금을 가져오려면 위약금의 절반은 뺏길거요. 난 일본과 남조선을 오가는 밀선들을 잘 알고있소.》

듀페이는 히죽이 웃었다.

《어쨌든 나에겐 래일의 만딸라보다 오늘의 천딸라가 중하니 먼저 나에게 써비스를 내시오.》

레이몬드는 아무말없이 품에서 돈지갑을 꺼냈다.…

1분전… 리준구는 장갑을 벗고 얼어든 손을 꺼냈다. 그리고 서서히 머리속에서 암호문을 정리하며 무전기에 손을 가져갔다.

《극비. 모란봉앞.

특수전략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부대로서 〈련락사무소〉 전략정보부대가 대구교외에 조직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수성〉공작조는 그동안 림송이 진행한 임무수행정형을 총화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보고한다.

1. 〈한국〉 련락사무소 전략정보부대 대호; 8240부대
2. 부대위치; 대구교외 동촌—금호역사이
   좌표××—○○
3. 부대무력;
   미제침략군 ××항공특전특공대, 괴뢰륙군정보국소속 특수전단 7개 분견대 도합 9,870명. 앞으로 〈련락사무소〉는 대북첩보력량을 5만명까지 늘일 계획임.
4. 부대구성 및 편제;
   사령관, 라이리 에니스준장 (8군정보부장 겸임)
   대리인, 벤다프대좌, 알렉산더대좌
   보좌관, 스테쎌 듀페이중좌 (분견대장 겸임)
   미첼 스케몬소좌 (〃)
   방첩과장, 브라운 겐지로중좌 (8군씨아이씨성원)
   참모장, 문용채소장 (남조선측 부사령관)

분견대장…

5. 훈련강령 및 부대임무;

(별지 포함)…

6. 조국의 지시대로 림송은 8240부대 특수련락장교로 임명됨.

기타;…

이상 〈수성〉조 림송이 받은 임무수행을 보고하면서 다음 지시를 기다린다.

〈수성〉 1951년 1월 ×일》

《극비 〈수성〉앞.

조국이 준 중요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한 〈수성〉공작조의 성과를 축하한다. 림송동무가 8240부대에 침투한것은 대단한 성과이다. 8240부대정보는 군사정치적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통보한다. 림송동무의 추리대로 미군부와 정계는 최근 군사평론가 머피의 3방안을 지지하였다. 조선전쟁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제는 최근인 1950년 12월 유엔총회 제5차총화에서 조선정전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강압통과시켜 〈조선정전 3인위원회〉를 조작하고 우리의 동향을 알려 하고있다. 또한 무작정 군사적공세만 주장하는 〈매파〉의 반대가 있었으나 미국회상원에서는 트루맨과 애치슨의 정전제의를 수락하였다. 얼마전 애치슨은 쏘련문제전문가 죠지 캐논에게 유엔주재 쏘련대사 말리크와 극비밀에 만나 정전담판에 대한 우리의 립장을 타진해보라고 지시하였다. 놈들은 군사적참패를 당하면서도 교활하게 우리가 먼저 정전제의를 하도록 시도하고있다.

이로부터 놈들은 정전담판제안이 필수적이므로 그전에 무모한 군사적모험을 준비할수 있다. 정보에 의하면 미제가 머피의 3방안에 기초한 8240부대의 특수작전이라는걸 제기하고 여기에 모든 기대를 걸고있다는것이 확인되였다. 놈들은 8240부대의 특수작전이 성공하면 우리가 먼저 흰기를 들리라고 타산하고있다.

〈수성〉정찰조는 8240부대의 특수작전비밀을 알아낼것. 새로 제기하는 이 임무가 조국의 명예를 지키는 중요한 과업이라는것을 명심하라. 성과를 바람!

1951년 1월 ×일

모란봉》

제 13 장

그 녀자는 곧장 림송의 앞으로 다가갔다.

림송은 커피잔을 든채 세심한 눈길로 녀인을 지켜보았다. 함치르르한 검은 머리, 륜곽이 선명한 흰 얼굴, 상큼한 목, 인상적이고도 단아한 조형적인 몸매… 눈에 안겨오는 녀인의 아름다움은 림송에게 한순간 이름할수 없는 추억과 매혹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도 림송의 심장을 현혹시킨것은 그 녀자의 눈이였다. 그 눈은 차겁고 쌀쌀하게 빛나고있었지만 리지와 일종의 희망과 향수를 띤 그윽하고 애틋한것이였다. 그 눈길과 도톰하고 불그레한 입술은 낯익어 보였다. 림송은 그 녀자의 아름다움이 너무도 강한 인상을 주는바람에 스스로 자기의 의혹을 부정해버렸다. 그러나 녀인은 림송으로 하여금 준엄한 이 생활을 떠나 봄풀이 돋아나고 노란 나리꽃이 만발한 고향의 동구길과 해토무렵의 싱그러운 땅냄새가 풍겨오는 시내가로 은연중 마음을 달리게 하는 추억의 힘과 매혹의 열정과 리지의 견인력을 느끼게 했다.

(어디서 보았을가? 어디서, 어디서?… 아니, 내가 저 녀자를 어디선가 본것 같은 느낌은 분명 착각같아. 국외에서 흘러간 나의 인생은 저렇게 아름다운 녀자와 상봉할만한 생활의 굴절들을 가지지 못했다. 저 순결하고 굳세보이는 입매, 리지적인 성격과 조화와 안정과 차거움을 내뿜는 눈매, 률동적인 걸음걸이…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리도 불안할가? 왜 저 녀인이 이리도 낯익어보일가? 불안하면서도 진정할수 없는 이 마음의 급작스러운 충격은 무엇때문일가?…)

림송은 그 어떤 야릇하고도 미묘한, 불안한 행복감을 동시에 느끼며 자기앞에 다가온 녀인을 지켜보았다.

《저… 림송대위시죠?》

녀인은 쌀쌀한 눈길로 림송을 내려다보며 상냥하게 물었다. 림송은 약간 당황한 얼굴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렇습니다.》

한순간 녀인의 얼굴에도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다.

《에니스준장님이 아까부터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녀인은 고급장교 몇명이 앉아있는 레스토랑안을 슬쩍 휘둘러보더니 홱 돌아서서 카운다 왼쪽 복도로 걸어갔다. 림송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녀인의 뒤를 따라갔다.

레스를 단 푸른 야회복을 입은 녀자의 미끈한 두다리가 치마폭사이로 언뜻언뜻 눈에 안겨왔다. 녀인은 림송을 장교구락부 2층에 있는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해갔다. 붉은 벽돌집인 이 장교구락부의 아래층은 레스토랑으로 리용되고있었고 웃층에는 고급장교들을 위한 소연회장과 몇개의 침실들이 있었다. 림송은 얼마전 부산을 떠나 8240부대 본부에 도착하였을 때 에니스준장이 이 장교구락부에 숙소를 정하는것이 좋겠다고 하던 말이 얼핏 떠올랐다. 한때 일본《총독부》의 한 관리와 합작회사를 운영하던 도이췰란드인 은행가가 품을 들여 지은 이 집은 8군사령부와 괴뢰륙본이 자리잡고있는 이 도시에서 그중 이채를 띠는 서양식건축물로 알려져있었다. 장교구락부의 맞은켠에 자리잡은 오래된 교회당도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였던 도이췰란드인의 기증으로 건설된것이였다고 한다.

림송이 소연회장에 들어서자 몸이 비만하고 눈시울이 부은것처럼 축 내려앉은, 이 몇달사이 갑자기 늙어버린듯싶은 에니스준장이 문용채와 밀담을 하다가 얼굴을 돌렸다.

《아, 림송대위. 어서 와 앉게. 우린 아까부터 자넬 기다리던참이였네.》

에니스는 잠에 취한것 같은 흐린 눈길로 림송을 올려다보더니 문곁에 서있는 녀인에게 말머리를 돌렸다. 《아가씨, 꼬냐크를 부탁합시다. 이 젊은 장교는 앞으로 장교구락부에서 페를 끼치게 됐소. 정보국과 합의했으니 방을 준비해주시오.》

그 녀자가 가볍게 목례하고 방에서 나가자 림송은 문용채의 곁에 가서 앉았다.

《준장님, 저 녀자는 처음보는것 같은데요?》 하고 림송은 식탁우의 위생수건에 손을 가져가며 에니스에게 물었다.

《대위, 저 녀자를 조심하는게 좋소. 까딱하다간 심장에 상처를 입을수 있거든. 자네가 미인의 함정에 빠졌다는 소문이 날 때 난 장교들앞에서 곤경에 빠질걸세.》

에니스준장은 술잔을 들여다보며 시무룩이 웃었다.

《매혹적인 녀자입니다. 특히 눈이.》 하고 림송이 이번에는 문용채를 돌아보며 말했다.

《림송씨, 저 한순정아가씨는 요즘 사교계에서 상당한 인기를 독점했네. 이 장교구락부의 주인으로 부임하기전부터 륙군본부 장성급들과 고급장교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지.》

《겐지로중좌가 후견인인가요?》

림송은 흥미를 느끼며 문용채를 마주보았다.

《서뿔리 행동했다간 자네가 다시 야전병원신세를 질수 있네.》

《사랑의 결투에서 난 신의 보호를 받으리라 믿소.》

《자네 스케몬소좌가 저 녀자앞에서 자총할 결심까지 했었다는걸 잊지 말게.》 하고 문용채는 에니스를 돌아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준장님은 저 녀자곁에서 떠날줄 모르는 소좌를 전선으로 출장보내기까지 했으니까.》

에니스는 술잔을 들어 쭉 들이키더니 의자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하품을 하였다.

《전쟁과 사랑! 이건 너무 랑만적이거든. 어쨌든 난 미인을 좋아하지 않소. 그건 파멸이거든. 스케몬소좌는 듀페이중좌와 함께 오늘아침 돌아왔소. 전선사단들에서 무섭게 일처리를 끝냈단 말이요. 소장, 저 녀인이 평양에서 교육받았다는게 사실이요?》

《사실입니다. 음악학교를 다녔지요. 당신도 그의 피아노연주를 듣지 않았습니까?》

《좋지 않소, 아주 좋지 않소. …》

에니스는 동문서답하듯 이렇게 중얼거리며 상념에 잠겨 머리를 흔들었다. 이때 몸이 호리호리한 접대부와 함께 한순정이 다시 방에 들어섰다.

녀인은 술상을 차려놓고 식탁에서 물러서는 순간 얼핏 림송을 바라보았다. 두사람의 눈길이 부딪쳤다. 그의 눈에는 또다시 무엇인가 의아해하는듯한, 당황해하는듯한 이상한 빛이 떠올랐다. 이 순간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강한 충격이 림송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림송은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그 녀자가 방에서 나가버린 뒤였다. 림송은 불안한 심정으로 멀어져가는 그 녀자의 발자국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의 기억과 예감은 결코 나를 배반한것이 아니였다! 분명 저 녀자는 그 녀자다. 그 의아해하는듯한 눈길, 그 목소리, 그 몸매… 바로 그 녀자다. 배반자의 총구앞에 서있던, 역홈에서 만났던 그 녀자다. 달라진것은 옷차림과 머리단장뿐이다.) 하고 림송은 불안과 기쁨이 뒤엉킨 종잡을수 없는 착잡한 심리상태에서 상념을 톺아갔다. (이 얼마나 운명적인 상봉인가? 낯익어보이는 리유는 과연 이것뿐인가? 대체 어떤 녀인이며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을가? 총구앞에서의 그 녀자의 모습은 굳세고 순진하고 진실한 공민의 자세였다. 그렇다면 얼마전에 〈련락사무소〉 방첩과장이 된 겐지로와의 관계는? 정보계의 거물인 그가 그 녀자의 신원을 모를리 없으며 헛볼리 없지 않는가? 저 녀자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정황이 생긴다면?… 아니다.… 원쑤라면 총구앞에서, 죽음앞에서 그토록 아름답고 굳세고 도고할수 있을가? 그 녀자의 북행길은 어떻게 되여 이곳에 와서 머물렀을가?…)

림송은 그 녀자에게 분명 피치 못할 사연이 깃들어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애써 불안해지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두사람의 잔에 친절히 꼬냐크를 부었다.

《소장, 어제 난 국군정보국장의 보고를 받았소. 그의 말에 의하면 륙군본부가 우리 부대에 선정된 인원들에 대한 인사문건사본을 보유하고있다 하던데 그게 사실이요?》 하고 에니스가 눈을 찌프리며 문용채에게 물었다.

《정보국과 인사국에서 관계한 일이여서 나에게 책임은 없지만 준장님, 우린 그걸 필요한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문용채는 약간 이마살을 찌프리며 불안한 어조로 반문하였다.

에니스는 유들유들한 볼편을 실룩거리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좋지 않소. 아주 좋지 않소. 난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한 극동군사령부의 지시를 성실히 집행하지 않는데 놀랐소.》

《우리 국군도 일정한 정도의 독자성은… 준장님, 그 인사문건들은 만약 우리 륙군본부가 선발한 인원들에게 특별한 사고가 생길 때 필요한 증빙자료로 될것입니다.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매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질수 없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련락사무소〉에 넘어간 성원들은 정보국직속 부대들도 있지만 대부

분 전선사단출신 장병들입니다.》

《문용채씨, 난 당신에게 그 인원들의 이름을 국군명단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라고 한 극동군정보국장 윌로우비소장의 명령서를 상기시키고싶을뿐이요. 그 성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기타 여건은 우리가 책임지겠소. 그들은 우리 사무소에서 새로운 인간들로 부활될거요. 그들은 당신들의 문서고에서 죽어버려야 하오. 난 당신들이 그 인사문건사본을 전부 우리에게 넘겨주고 대신 사망통지서를 작성할것을 부탁하오!》

림송에게는 에니스준장이 《부탁하오!》라는 말이 어쩐지 《명령하오!》라는 말로 들렸다.

문용채는 그냥 이마를 찡그린채 꼬냐크잔을 들어 단숨에 쭉 들이켰다. 분명 그는 이 비만한 준장앞에서 심한 모욕감을 느낀 모양이였다. 명색이 특수부대 부사령관인 그로서는 자기의 처지가 에니스준장앞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는것을 비로소 절감하게 되는것이였다.

《준장님, 당신의 지시를 우리 정보국에 통보하겠습니다.》

문용채는 풀기없이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소.》 하고 에니스는 그를 올려다보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난 당신들이 이번 우리 8군정보부가 구상하는 작전에서 〈련락사무소〉가 담당한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리라 믿소. 당신들에게는 집행할 의무만 남아있다는걸 명심하시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미군은 전선에서 너무 피를 흘렸소. 오늘저녁 7시에는 이 림송대위가 문건사본을 가지러 륙군본부에 도착하게 되오. 당신이 동행하시오.》

《알았습니다.》

문용채는 차렷자세를 취한후 방에서 나가버렸다.

에니스는 그가 나간쪽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원탁우에서 담배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림송을 얼핏 일별하더니 다시 하품을 하며 기지개를 켰다.

《불행한 인간들이야. 저런 3류급 군대를 이끌고 공산주의자들과 맞설수 있겠는가.》 하고 그는 실망한듯 중얼거렸다.

《화약내도 변변히 맡아보지 못한것들이 하는짓이 가소롭거든. 아무런 작전권도 없이 미군의 한개 야전군사령관의 조정업무나 수

행하는 주제에 자존심은 살아있거든. 국군의 강문봉이나 정일권은 판에 찍은 인물들이야.》

《준장님, 그런 난처한 처지에서 정보부대에나마 기대를 거는 그들의 지향은 동정할만한것이 아닐가요?》

《림송, 난 미군정보장교인 자네에게 그런 동정이 생기는걸 허용하지 않을테야. 전쟁은 결국 우리가 하는거니까. 그들은 극장을 빌려준데 불과하오. 무대에 오른 연극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없거든.》

《준장님, 그 무대우에 오른 배우들이 누구라는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능한 연출가는 또한 로숙한 심리학자가 되여야 하니까요.》

《대위, 배우란 주역이든 단역이든 하나의 로보트에 불과하오. 그들에게는 자기의 사색과 창조가 필요없소. 시키는대로 움직이면 되니까. 그러나 보수는 많지. 명성을 얻으니까.》

《그렇지만 사색과 창조가 없는 첩자를 양성한다는것은 따분한 일이 아닐가요?》

림송은 점차 화제를 자기가 목적한곳으로 이끌어갔다.

에니스는 꼬냐크잔을 밀어놓고 워드까에 손을 가져가더니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림송, 8군정보부의 특수임무장교인 자네에게 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작전의 륜곽과 성격에 대해서 형상적으로 설명해주는데 구속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오. 우리 사무소는 오직 각본, 즉 명령서대로 움직이는 실천성있고 책임적인 〈배우〉 집단들을 양성하면 되오.

그들은 캠프페리아 비밀훈련소의 훈련강령대로 락하, 침투방법과 전화, 전파 도청방법, 각종 시설물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방법과 그 위치선택 및 위장방법, 속기법, 무선전파의 도청과 해독법, 정보수집의 여러가지 전술들을 배우게 될거요. 이를테면 망원의 모집방법과 그 운영전술, 제3자를 통한 망원들의 평가방법, 련락장소선택법, 각종 사진기촬영법, 운전법, 각종 우편물 개봉과 봉인방법, 격술 등을 교육하게 되지. 그러나 그들은 전선깊이에서 집단적인 신속타격집단의 형성을 헝클지 않고 전투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아군의 공격작전때 특수임무를 수행하게 될거요. 난 우리의 특공분견대들이

국군사단들보다 전략적인 영향력이 클것이라는걸 믿어의심치 않소.》
림송은 준장의 말을 서서히 머리속에 기억했다.
(이것이 이른바 전략정보부대 훈련강령의 요점이고 임무의 일반적성격인가?
정전담판제의를 앞두고 벌리려는 미중앙정보국과 8군사령부의 합동작전은? 물론 에니스는 자기의 한생의 총화라고 볼수 있는 이 작전비밀을 목숨처럼 귀중히 여길것이다.
어떤 무력으로,어디에서,언제 진행되는가? 요약하면 나의 임무는 이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작전의 비밀속으로 뚫고들어갈수 있는가?)
림송의 마음은 무거웠다.
잠시후 그들은 한순정을 따라 림송에게 차례진 침실을 돌아보았다. 크지 않은 방이였으나 차광막을 친 창문때문인지 다소 컴컴한 인상을 주었다. 방은 낡은 그랜드피아노가 놓여있는 넓은 응접홀과 마주해있었다.
에니스준장은 그 녀자가 조심히 물러가자 색날은 회색쏘파에 주저앉아 졸음기 어린 시선으로 림송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난 자네에게 응접실이 달린 고급호텔방을 줄수 없는걸 유감으로 생각하오. 물론 우리 사령부기본성원들은 〈사무소〉숙소에 자리잡게 될거요. 련락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장교인 당신의 숙소를 여기에 정한건 국군련락장교단 성원들의 숙소를 〈사무소〉가 아니라 여기에 정해야 하기때문이요. 내 말의 뜻을 알겠소?》
《이미 부산을 떠날 때 정보국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림송은 련락장교단 성원들을 일명 《사무소》라고 부르는 8240부대 사령부성원으로 인정하면서도 위수구역밖에 주둔시키려는 에니스의 의도를 모르는바 아니였다. 일반문건을 다루는 임무와 함께 그들과의 사업을 조정하고 감시하는 임무가 특수임무장교인 림송에게 맡겨진것이였다. 이것은 외부세계와의 항시적인 접촉을 꿈꾸는 듀페이나 기타 장교들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구속되지 않는 직무였다. 한편 림송에게는 이것이 《사무소》의 심장부에서 소외될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참모부는 에니스준장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영어와 조선어에 능수인 림송을 듀페이나 분견대장 스케몬소좌와 차별을 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다. 림송은 이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러니 《사무소》좌석에는 당당한 자기의 《의석》이 남아있었던것이다. 사실 조선말을 모르는 에니스준장에게 있어서는 림송을 보좌역으로 데리고있는것이 필요한것이였고 합리적인 일이였다.

《오늘저녁에 륙본에 가서 그 인사문건을 가져와야겠소. 문용채소장과 함께 문건을 연구하시오. 기본훈련에 들어가기전에 조장으로 쓸수 있는 필요한 인물들을 선정하면 되오. 〈서북청년단〉출신들속에서 완강하고 지혜로운자들을 선택하는것이 좋겠소.》

에니스는 목이 타는듯 차잔을 들어 한모금 마시며 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에니스는 폭신한 쏘파에서 일어나기 싫은듯 한동안 눈을 감고있더니 움쭉 몸을 일으켰다.

그는 출입문쪽으로 다가가다가 문득 돌아서며 무심한듯한 어조로 불쑥 물었다.

《참, 대위, 당신은 그 불행한 아이부스씨를 기억하고있소?》

《물론입니다. 전선으로 조동되였다는것도 알고있습니다.》

《난 겐지로중좌가 아직까지 그를 잊지 않고있다는것을 자네에게 상기시키고싶네.》

림송은 에니스가 아직도 련락장교사건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우려를 품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지만 준장님의 지시를 받고있는 아이부스소좌가 방첩장교앞에서 새로운 증언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건 물론이요. 그는… 죽었으니까.》

《예?!…》

그것은 림송에게 뜻밖의 소식이였다.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

에니스는 이마살을 찌프렸다.

《듀페이중좌가 소식을 가져왔지…》

《그렇다면 겐지로중좌가 그의 죽음을 계기로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가요?》

림송은 이 사건으로부터 벌어질 사태를 추리해보며 에니스를 마주보았다.

《유감이지만 당신의 분석은 나를 실망하게 하네. 아이부스는 부상당한채 바로 겐지로의 총에 목숨을 잃었소.》

《?!…》

림송은 그자리에 굳어진채 한순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에니스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문득 입을 열었다.

《준장님, 전 바로 아이부스를 겐지로중좌가 제거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불안으로 되고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니스는 림송의 말에 얼굴을 찌프리며 눈을 가늘게 쪼프렸다.

《말해보게.》

《죽은자의 진술서는 자유롭게 꾸밀수 있기때문입니다.》

《?…》

《!…》

두사람은 각이한 시선으로 마주 쏘아보았다. 림송은 한순간 에니스의 눈에서 초조함과 불안기를 엿보았다.

《대위, 난 겐지로중좌를 우리 방첩과장으로 임명한 사령부의 의도에 대해서는 의혹을 느끼지 않았소.》 하고 그는 문득 상념에 잠겨 중얼거렸다. 《아직 우리는 씨아이씨의 출입에 간섭할 필요가 없소. 하지만 난 그가 우리 사무실에 설치된 캐논기관의 도청기라는것만은 기억하고있소.

요즘 우리 미중앙정보국의 지위가 극동에서 인정된후 그들의 눈초리는 날카로와졌소. 길들지 않은 승냥이는 언제 목덜미를 물지 모르거든. 그들은 특수작전을 앞두고 이 늙은 로병을 물어메칠 준비를 하는것 같아.

림송, 난 자네가 끝까지 단톤의 처지를 지켜주리라 보네. 아이부스가 가엾거든. 이따금 난 그 친구생각이 나거든. 좋은 친구였댔는데… 아무튼 난 대위가 씨아이씨와의 사이에 선린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주기 바라오.》

《준장님도 씨아이씨를 두려워하십니까?》 하고 림송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림송의 물음에 에니스는 축 처진 눈시울을 애써 올리며 이마를 찌프렸다.

《대위, 자네도 이제 정보계에서 늙어가게 되면 그걸 리해하게 될거요. 나폴레옹이 군대에 방첩기관을 내올 때는 아마 그것이 우리 정보장교들의 뒤다리를 잡아당기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을거요. 할수 없지. 그들도 살아가야 하니까…》

《에니스준장님은 〈사무소〉에 대한 방첩기관의 출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어찌겠소. 이미 극동방첩대장 캐논중좌는 맥아더원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났소. 앞으로는 그들이 작전탁에도 우리와 마주앉게 될것 같소. 마치 미국회의 〈매파〉와 〈비둘기파〉처럼… 불행한 일이요. 좋지 않소. 아주 좋지 않소.》

림송은 에니스가 나가버린 다음 한동안 침대모서리에 앉아있었다.

브라운 겐지로의 출현은 림송에게 이상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쑤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를 뒤따르고 있었다. 림송은 대구를 상시적으로 떠나있게 되면 그와의 상봉을 피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였다.

겐지로는 지칠줄 모르는 번견처럼 그의 눈에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불안과 위험을 예고하면서 뒤따르고있었다.

림송은 창문으로 다가가 차광막을 걷어올렸다. 눈이 시울도록 밝고 차거운 해빛이 방안으로 스며들고있었다. 창밖, 헐벗은 가로수사이로 길건너편의 음침한 교회당건물과 그와 잇닿아 연줄연줄 일어선 조잡한 집들의 거무스레한 지붕들이 한눈에 안겨들었다. 전선 먼 도시의 검푸른 겨울하늘은 구름 한점없이 투명하였다.

림송은 창턱에 팔굽을 짚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가느다란 음악소리가 들려왔다. 림송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그 애상에 찬 곡조를 들었다. 호소하는듯, 구슬퍼하는듯, 아니면 그 누군가를 찾고있는듯한 선률이 바람을 타고 옆창문에서 들려오고있었다.

림송은 어쩐지 마음이 서글퍼지였다. 무엇인가 가슴이 절절히 젖어들면서 그리워지고 외로운감이 들고 그런가 하면 따뜻하고 희망에 타는 열렬한 속삭임소리를 듣는것 같기도 하였다.

바람에 나무가지들이 손에 잡힐듯이 흔들거렸다. 흔들리는 그 나무가지와 함께 그의 마음도 진정하지 못하고있었다.

(왜 이리 마음을 달랠길이 없을가? 이 마음의 불안감을 무엇이라 말해야 할가? 그 눈매 아름다운 녀성에 대한 종잡을수 없는 의혹과 이상한 현혹때문인가? 아니면 겐지로의 출현에 대한 긴장감때문일가? 저 애상에 찬 서글픈 곡조때문일가?…)

림송은 천천히 창가에서 물러나 복도로 나왔다. 음악소리는 더 크

게 들려왔다.

그는 매염제를 바른 육중한 문이 비스듬히 열린 응접홀로 다가가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한순간 림송의 눈길이 굳어졌다. 피아노앞에는 그 녀자가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건반을 짚고있었다. 녀인은 제 생각에 잠겨 림송이 바라보고있는것도, 자기가 타는 그 서글픈 곡조도 의식하지 못하는것 같았다.

림송은 그 녀자의 눈빛을 보고 또다시 놀랐다. 이미 그 크고 그윽하고 아름다운 눈동자속에는 례의 차거운 빛도, 의아해하는듯한 경계의 빛도, 굳세고 강인하게 느껴지던 도고한 빛도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 녀자의 눈에는 부드럽고 서글프고 고요한 향수와 추억의 빛이, 희망과 지향의 감정이 담겨있었다. 부드럽게 흘러내린 그 녀자의 어깨는 봉긋한 가슴과 함께 조용히 오르내리고있었다.

(분명 저 녀자에게는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숨어있다. 저 리지적이고 아름다운 녀성이 그 밤 보여주었던 굳세고 진실한 모습은 결코 거짓이 아니였다. 인간은 죽음앞에서는 거짓을 꾸밀줄 모른다. 그때 난 저 녀자의 눈빛에서 죽음을 초월한 그 무엇, 성실한 공민이 조국앞에서만 취할수 있는 숭고하고 고결한 그 무엇을 보았다. 론리로는 설명할수 없는, 오직 심장으로만 그것을 느낄수 있는 크낙하고 아름다운 정신을 보았다. …)

애상에 찬 선률은 림송의 마음을 점점 세차게 흔들기 시작했다.

겨울눈은 해빛에 반사되여 차겁게 빛났다. 장교구락부앞 정원에 서있는 메마른 나무들은 흰눈을 뒤집어써서인지 고요하고 풍만하고 마치 묵상에라도 잠긴것처럼 나에겐 느껴졌다. 나는 가끔 창결에 다가서서 밖을 바라본다. 방안은 늘 추웠다.

나는 성에가 하얗게 불린 유리창에 대고 입김을 불어 조그마한 투명한 동그라미를 얻어내군했다. 그 조그마한 구멍으로 얼어붙은 밖의 세계가 눈에 안겨든다. 나에게는 마치도 자신이 그 작은 구멍으로만 귀중하고 그리운 생활과 이어져있는듯이 생각된다. 뒤로 돌아서면 낯선 세계와 낯선 사람들, 적의와 의혹이 비낀 눈으로 쏘아보고 살펴보는 무수한 얼굴들과 마주치게 된다. 창밖, 계절의 유혹과 성격을 고스란히 간직한 겨울의 세계, 자연의 모습은 적구의 생

활에 부대끼는 나의 마음을 다정히 쓰다듬어주는듯싶다. 마치 살뜰하고 다정한 손길처럼…

나는 국철이의 손목을 잡고 도시의 중심부에 있는 8군병참기지사령부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장교구락부에 숙소를 정한 림송대위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오늘 아침 식사가 끝난후 나에게 들려 영문타자기를 가져다줄것을 부탁하였다. 병참기지사령부 공보처에는 이미 련락해놓았다는것이였다.

나는 그의 말에 선선히 대답하였다. 어떻게 되여 이 젊은 지투정보장교의 부탁을 아무런 주저도 없이 즉석에서 선뜻 받아들이게 되였는지 나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분별할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이마가 희고 빛나는 눈초리와 지성인다운 리지적이고 사색적이고 친절한 성격을 가진 이 사나이에게 이상한 동정심과 호감을 품게 되는것이였다.

그것이 무엇때문일가? 어딘가 모르게 낯익어보이기때문인가? 그 잊을수 없는 역홈에서 그가 나의 생명을 구원해주었기때문일가? 아마도 그 순간 그 장교는 자기가 구원해주었던 젊은 처녀가 몇달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기앞에 다시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것이였다. 나 역시 그 대위와 운명적인 상봉을 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고보면 생활의 길이란 참으로 미묘하고도 숙명적인것이 아닐수 없다. 이것도 복잡하게 얽힌 전쟁과 인간의 운명의 필연적인 운동의 결과라고 할지. 나는 림송대위가 장교구락부숙소에 든 다음날에야 비로소 그를 알아보았다. 첫 상면시에는 그저 어딘지 모르게 낯익다는 인상만 받았을뿐이였는데 밤새 그 장교의 말투와 인상을 더듬다가 다음날 아침 식당 카운다앞에서 만나는 순간 문득 그를 알아본것이였다.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였다. 하긴 아무리 그가 정보장교라 하더라도 밤중에 얼핏 한 간이역에서 만났던 처녀가 전선 먼 도시의 장교구락부 녀주인으로 나타나리라고는 상상할수 없을것이다. 나자신에게도 뜻밖인 이 변화가 생면부지였던 그 사나이에게 어떤 류다른 인상을 남기기에는 그밤 간이역의 상봉이 너무 짧았고 주변이 어두웠었다. 그때 역청사앞 외등의 불빛은 희미한것이였다. 정찰소조에서는 림송대위의 출현으로 하여 나에게 조성될 위험성에 대하여 처음 우려를 표시

했으나 그때의 정황과 오늘의 처지를 심중히 분석해보고 당분간 그의 행동을 살펴볼것을 권고하였다.
방첩장교인 브라운 겐지로중좌는 륙군본부 인사국과 토의한후 나의 요구대로 장교구락부 직원으로 알선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지나친 노력은 뜻밖에도 나를 난감한 처지에 몰아넣고야말았다. 나는 처음 그가 나를 녀급이나 안내원으로 취직시켜주는줄 알았는데 그의 뒤를 따라 륙군본부 인사국에 들렸을 때 얼굴이 마른 중년의 대좌가 대뜸 나를 알아보고 희한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장교구락부 주인으로 추천하는것이였다. 사회생활경력이나 적후생활경험이 없는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고급장교들의 숙박과 유흥장소에 불과한 장교구락부를 그들의 취미와 요구에 맞게 운영해나간다는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혐오스러운 일이였고 그보다 앞서 어려운 일이였다. 그러나 련락원과 만나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이겨내야 했다.
련락원과의 상봉은 세번째 목요일에 가서야 이루어질수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장교구락부앞, 폭격에 유리가 깨여진 세번째 가로등밑에 서있는 나이지숙한 사나이를 보았다. 그는 손에 례의 그 푸른색표지의 낡은 수첩을 들고있었다. 나는 응접홀 창문에서 거리를 내려다보다가 재빨리 밖으로 나왔다. 저녁 어둠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한순간 나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전선행 군용렬차에서 낯을 익혔던 사단정찰중대의 을지길중사였던것이다.
《순정동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나?》
을지길은 나의 손을 뜨겁게 잡아쥐였다.
우리에게는 이미 상면암호도 필요없었다. 턱수염이 더부룩한 을지길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나는 눈에 물기가 핑 도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아바이였군요. 난 어쩐지 련락원이 제가 잘 알고있는 친근한 사람일것이라고 생각했댔어요. 철없는 저의 기대가 맞았군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거라우. 만약 내가 아닌 다른 동무가 련락원으로 왔대두 순정동무는 그에게서 고향사람을 만난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거우다.》
《정말 그랬을거예요.》

한순간 나를 휩싸고있던 불안과 고독은 씻은듯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길건너편의 조용한 교회당입구로 들어갔다. 을지길은 변모된 나의 옷차림을 유심히 뜯어보더니 너그러운 미소를 띄웠다.

《영 딴사람이 된것 같구만… 내 부대에서 이미 다 사연을 듣고 찾아왔수다. 홍선화동무는 최후의 순간에 조직에 련락을 보냈소.… 과장동무는 다 알고있수다. 우리 정찰조를 책임진 과장동무가 정말 기뻐했수다. 과장동무는 동무가 캐논기관 방첩장교의 보증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책상을 쳤수다. 참, 순정이두 그 김선형과장동무를 잘 알텐데？…장령동지와 함께 신병훈련소를 찾아왔던분이우다. 순정동무를 정찰부대에 데려가고싶어한…》

《알겠어요. 전번에 전선사령부에 들렸을 때도 만났답니다.》

왜 그런지 나는 얼굴에 미소가 피여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정찰병이 되라는 그들의 권고를 듣고 은근히 기뻐하며 놀라하던 그때가 어제런듯 눈에 선했다. 키가 작달막하고 늘 겨드랑이에 문건철을 끼고다니던 중좌의 엄한 얼굴도 다정한 중학시절의 담임교원의 모습처럼 가깝게 련상된다. 상록수 푸른 전선사령부의 숲길을 떠나온것이 어제같은데 그 사이 나의 생활의 길에는 얼마나 곡절많고 굴곡많은 사건들과 사연들이 깃들어있는것인가. 그날의 나와 오늘의 나의 처지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순정동무.》 하고 문득 을지길은 웃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내 들여다보더니 심중한 눈길을 들었다. 《시간이 없어서 먼저 사업얘기부터 해야겠소. 부대에서는 홍선화동무의 련락을 받고 동무가 이 도시에서 적후공작을 맡아할것을 바라고있수다. 홍선화동무는 최후를 마치면서 동무에 대해 통보해왔소. 적후에서 제2전선을 펼치고 미국놈들과 싸우고있는 우리 동무들에게는 부대의 눈과 귀가 되여야 할 믿음직한 동지들이 필요하거든. 난 순정동무가 조국의 이 믿음을 저바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우다.》

《아바이, 전 사형수감방에서 선화언니와 마지막까지 남아있은 사람이예요. 이미 전 그때 조국이 부르는 길에서 선화언니의 몫까지 싸울것을 결심했어요. 언니는 조국이 준 임무와 함께 아들애를 저에게 맡기고 갔어요. 아바이랑 도와주신다면 제 힘껏 놈들과 싸우겠어요.》

나는 을지길을 올려다보며 주저없이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했다.

을지길의 농민형의 순박한 얼굴에는 믿음과 기쁨의 빛이 가득 실렸다.
며칠후 나는 우리 장교구락부에 숙소를 정하고있는 《련락사무소》 문용채소장에게 나의 가까운 친척 한사람을 장교구락부에 취직시켜줄것을 부탁하였다. 눈이 세모진 듀페이중좌와 함께 늘 내곁에서 돌아치며 치근거리는 문용채는 나의 부탁을 받자 다음날로 인사국에 들려왔다. 그는 폭격에 없어져버린 서울의 세종호텔 운전사로 있던 나의 삼촌벌이 되는 먼 친척이 북에 있던 조카딸이 《출세》하여 장교구락부의 주인이 된걸 알고 찾아온데 대하여 아무런 의심도 가지지 않았다. 을지길아바이는 이튿날부터 우리 장교구락부에 식료품을 운반하는 화물차운전사로 들어오게 되였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장교구락부에 체류하거나 들리는 고급장교들에게서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하여 정찰과에 보내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전선사단들과 군단들,보급기지들의 기동과 편성,기도들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군하였다.
《엄마！ 저것 봐！ 하얀 꽃！》
내옆에서 입에 문 사탕알을 빨며 탈싹탈싹 걸음을 옮기던 국철이가 문득 손짓을 하며 소리쳤다. 전쟁이 일던 달에 두돌이 지난 그애는 요즘에 와서 말을 번지기 시작하였다. 어머니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바람사나운 늦은 가을밤부터 내 품에 안긴 그애는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데 처음부터 주저하지 않았다. 천진한 어린 넋은 세상을 받아들이는데 복잡한 심리적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나는 처음 국철이로부터 《엄마》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이상야릇한 녀성적인 감동과 충동을 느꼈다. 밤마다 그애의 조그마한 손이 나의 가슴을 더듬으며 찾을 때 나는 일종의 따뜻한 사랑과 동정을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그것이 무슨 감정이였을가？ 그것을 모성애라고 하는것일가？…
나는 국철이가 쳐든 손길을 따라 길옆의 메마른 나무가지를 올려다보았다. 잎떨어진 은행나무가지에는 하얀 서리꽃이 피여있었다. 나는 그자리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그애의 볼을 가슴에 꽉 껴안으며 속삭였다.
《국철아,저건 눈꽃이란다.》
《엄마,나 저 꽃 따달라！》

국철이는 초롱초롱한 눈을 빛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저 꽃은 딸수 없는거란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엄마가 고운 꽃을 꺾어줄게.》

《정말?》

《정말.》

국철이는 사탕알을 문 볼을 실룩거리더니 내옆에서 살짝 빠져나가 눈길우를 쪼르르 달려갔다. 나는 그애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따라걸었다. 뛰노는 아이를 바라보는 나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였다. 어머니의 마음이란 무엇일가? 낳아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주는것일가? 이 준엄한 시절에 저애의 참된 어머니가 된다는것은 단순히 키워주고 믿어주는것만은 아닐것이다. 사랑에 타는 저 가슴에 인정을 주고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는것일가? 론리로는 어쩔수 없는 어머니의 넋을 부어주는것일가?

병참기지사령부에 들려 림송대위가 부탁한 타자기를 가지고 장교구락부로 돌아온것은 겨울의 짧은 해가 지기 시작한 석양녘이였다. 나는 매대뒤에 있는 방에 들려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 장교식당홀로 나갔다. 저녁식사때라 홀에는 장교들로 분주하였다. 륙군본부 공보처의 승인을 얻은 《아마죤》연예단의 흥행악사들이 소무대우에 올라 케케 묵은 남아메리카의 당고와 람바다를 연주하기 시작하자 흥이 오른 장교들은 어깨를 드러낸 녀인들을 상대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나는 매대안으로 들어가 장교식당홀을 둘러보았다. 륙군본부 타자수로 있다가 갓 장교구락부 접대원으로 들어온 서정화가 이쁘장한 얼굴에 애교있는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나에게로 다가왔다.

《언닌 인제 오세요?》

《그래요. 손님들이 많구만요.》

《귀찮아 죽을 지경이예요. 다 언니 매력때문인가봐요. 다들 언니가 어디 갔나 찾죠뭐. 이젠 우리 레지들까지 붙잡구 춤을 추겠다고 야단이죠.》

서정화는 장발을 흔들며 눈을 할기죽거렸다.

《왜? 그럼 춤이라도 추지.》

《아유, 그럼 접대는 누가 하고. 참 언니, 저기 바른쪽 식탁에 지투장교복을 입은 중좌와 앉은 녀자말이죠. 놀랄만큼 화려하게

생긴 녀잔데 문용채씨 말에 의하면 재작년 미인콩클에 입선한 녀자래요. 아까부터 언닐 찾았어요.》

서정화는 연지바른 입술을 나의 귀에 바투 대고 재잘거렸다. 붙임성이 좋고 활발한 서정화는 련락장교단시절부터 문용채소장과 가까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있었다. 나는 그 녀자의 눈길을 따라 바른쪽 식탁을 건너다보았다. 검정도레스를 입고 진하게 화장을 한 녀인이 우리 매대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 녀인과 나의 눈길이 부딪쳤다. 한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것 같이 가슴이 섬찍했다. 숱많은 장발의 부드러운 머리칼, 인상적인 검은 눈, 약간 랭소가 흐르는 아련한 입매… 그 녀인은 다름아닌, 극장이 폭격에 맞던 비바람 사나운 그밤 성탄금이에게 권총을 쐈던 그 수녀복을 입은 녀자였다.

나는 황급히 눈길을 내리깔고 접대일지를 펼쳐들었다. 이윽고 내앞에서 진한 정향꽃향수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검은 도레스를 입은 그 녀자가 야릇한 미소를 띄운채 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뜻밖이군요. 아가씨, 이제는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가요?》

그 녀자의 눈길은 다소 차겁게 빛났으나 목소리는 오히려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나는 그 눈길, 그 목소리뒤에 숨은 짙은 의혹과 질투에 가까운 고통과 힐난을 느꼈다.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말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

《때에 알맞는 침묵은 순금과 같다고 한 루드위흐 베토벤의 말이 떠오르는군요. 그러니 부인을 그저 한순정씨라고 부를가요?》

《힘들지 않다면 그냥 한순정이라고 불러주세요.》

《내가 변주설씨에게 준 권총이 당신에게 있다는것이 사실이예요?》

녀인은 매대우에 팔굽을 짚고 그우에 놓인 술잔을 손으로 빙빙 돌리며 물었다.

《〈카이엘오〉 번호가 달린 그 권총이 없었다면 난 구원을 받지 못했을거예요. 북행길에 오른 첫순간에 변주설씨는 함께 〈유엔군〉을 찾아갈 결심을 했어요.》

《그러고보면 그 권총엔 행운이 따라다니는 모양이군요. 나 역시 그 권총이 아니였다면 당신을 의심할번했어요. 우린 앞으로 좋

은 친구가 될수 있을것 같아요.》
녀인은 술잔을 내려놓더니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한순간 그녀자의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지나갔다. 그 녀자는 인상적인 검은 눈을 쪼프리고 녀인들을 일별하더니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당신은… 씨아이씨 겐지로중좌를 아시죠?》
《아가씬 내가 그의 후원으로 이 도시에 온걸 알고있는것 같은데요?》
《호호, 우리 서로 까박을 붙이진 말자요.》 하고 녀인은 목소리를 죽이며 매대가까이로 얼굴을 기울였다. 《난 그저 중좌님의 부탁을 전하려 했을뿐이예요.》
《난 오늘아침에도 중좌님을 만났었는데요?…》
나의 말에 녀인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오늘 나와 처음으로 만났다고 생각하세요. 서울에서 만났던 일은 영영 잊어주세요!》
그 녀자의 말에서는 은연중 위협기가 느껴졌다. 나는 이 녀자가 겐지로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정보원이라는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건 명령인가요?…》
《부탁이예요. 만약 그걸 상기한다면 순정아가씨에게 불쾌한 일이 있을수 있거든요.》
《?…》
《그럼 약속했죠?》
《겐지로씨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우리는 서로 눈길이 마주쳤다. 그 녀자는 담배불을 끄더니 다시 술잔을 집어들었다.
《요즘도 피아노를 타세요?》
《네, 가끔.》
《난 순정씨가 부러워요. 음악의 세계란 얼마나 황홀할가요. …》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나는 대답해야 할 의무감에서 입을 열었다. 그 녀자는 흰이를 드러내며 상긋이 웃었다.
《살아가자니 근무하죠. 륙군본부에서 일해요. 우린…자주 만날수 있을거예요. 음악엔 국경이 없으니까. 우린 서로 만나 녀성들의 세계를 속삭일수도 있을거예요. 난… 그때 아가씨의 연주솜씨에

매혹됐던것 같아요. …》
그 녀인은 한손을 들어보이더니 식탁으로 물러갔다.
나는 그 녀자의 뒤모습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겼다.
(서울에 잠입했던 녀정보원! 그러니 저 녀자도 씨아이씨첩자인가? 그런데 왜 자기의 정체는 숨기려 안하면서 서울일을 감추려할가? 여기엔 분명 무슨 곡절이 있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성탄금을 쓴 원쑤! …)
최근에 대구에 다시 나타난 브라운 겐지로는 짬만 있으면 내결에 나타나 돌아갔다. 나는 그의 출현이 두려웠다. 분명 그는 나를 녀성으로 대하기전에 평양생활을 거친 사람으로 의심부터 했을것이며 뒤를 조사하려 했을것이다.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홍선화의 아들이 걱정되였다. 나는 그에게 그애가 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정치공작대녀성들이 끌려간 뒤여서 나는 그때 무사히 그애를 데리고 겐지로의 승용차에 오를수 있었다. 홍선화를 끌어왔던 헌병사령부 소령은 인차 겐지로에게 고분거리지 않은 리유로 씨아이씨감방으로 안내되였다.
처음 겐지로는 아이에 대하여 무심한 태도를 취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묘령의 녀성의 《부탁》까지 받고보니 모든것이 불안하게 느껴졌다. …
손님들이 돌아간 다음 나는 영문타자기를 들고 웃층의 림송대위방으로 찾아갔다. 련락원 을지길아바이는 이 조선인미군정보장교를 공작대상으로 삼고 《련락사무소》정보들을 입수할데 대하여 나와 합의했었다. 나는 그가 비록 《유엔군》대위의 견장을 달고있지만 에니스준장의 신임을 받고있는 정보장교이며 괴뢰군대령급들까지도 존중하고있음을 느꼈었다. 그는 8군정보부에 소속된 장교이지만 늘 대구교외와 부산으로 나다니군했다.
보매 영어에 능한 그는 에니스준장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것 같았다. 한편 방에 들어박혀 문용채와 함께 문건을 연구하기도 했다. 가끔 무뚝뚝한 외국인풍의 한 사나이가 그를 찾아오군하였다. 겐지로중좌는 그가 대구에 주재하는 펜구락부 기자 레이몬드 아담스라고 알려주었다.
마침 림송대위는 방에 있었다. 그는 탁상등앞에 마주앉아 회색표지의 문건철을 들여다보고있다가 나를 보자 약간 당황해하며 자

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지 않아도 기다리던참입니다. 래일저녁 부산으로 떠나야겠는데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 하고 그는 스스럼없이 나를 책상가까이 쏘파로 안내하였다.

한순간 나는 주춤거렸다. 극비문건들이 쌓여있는 책상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탄처럼 느껴지는것이였다.

《공보처에서는 영문타자기를 쉽게 내주더군요.》

나는 쏘파우에 타자기를 내려놓으며 그를 마주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좀 앉으시지요.》

《아니 전 가야겠어요. 애가 기다리니까요.》

《아들인가요?》

이렇게 묻는 림송의 얼굴에는 이상야릇한 미소가 얼핏 떠올랐다.

《그래요…그앤 밤이면 잠투정을 한답니다.》

《세돌이 갓 지났으니까 그런 나이지요.》 하고 림송은 흔연한 얼굴로 말하며 책상우에서 담배곽을 집어들었다.

나는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의 입에서는 그애는 얼마전에 두돌이 지났다는 말이 나오려 하였다. 그 순간 무엇인가 불안속에 뒤섞인 이상한 예감이,자제력이 섬광처럼 머리를 스쳐지나갔다.

림송은 약간 어색하게 웃으며 눈길을 돌려 탁상등뒤를 바라보더니 나직이 중얼거렸다.

《내가 그 아이의 출생일을 알고있는걸 달리 생각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지투는 당신의 형식적인 남편인 엄두균씨가 46년도말에 월남한 사실을 알고있으니까요. 나의 친구인 방첩장교 겐지로중좌는 지어 아이들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관찰하는 기질을 가지고있지요. 그는 엄두균씨가 월남후 정보국에 있었지만 서울을 떠난 일이 없다고 하더군요.》

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몽둥이에 호되게 얻어맞은 기분이였다. 나는 을지길의 지시를 받고 전쟁초기 죽은 한 정보장교를 《남편》으로 내세웠었다. 갓을 씌운 탁상등이 아니였다면 나는 이 정체를 알수 없는 정보장교앞에서 자기의 진모습을 드러냈을지도 모를 일이였다. 탁상등불빛이 만든 명암에 의해 우리 두사람은 얼굴에 나타나는 섬세한 변화를 호상 가리울수 있었다.

(그러니 적후공작이란 얼마나 어렵고 복잡한 일인가?… 오늘이 장교의 말을 듣지 못했다면 나는 또 얼마나 큰 실수를 할번했는가? 한순간의 이 실수는 영원한 파멸을 가져올것이다. …)

《보름가까이 지내다가 월남한 그의 경력을 당신에게서 듣는건 참 뜻밖이군요.》

나는 한참만에 겨우 이 한마디를 할수 있었다.

《참, 난 당신에게 흥미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는걸 잊을번했습니다.》 하고 림송은 돌아서더니 책상우에 쌓여있는 서류사이에서 얄팍한 문건을 꺼내들었다. 《며칠전에 륙본 인사국에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개인문건들을 인수해왔는데 난 거기에서 엄두균씨의 인사문건을 찾을수 있었습니다. 그가 련대장으로 출전하기전에 정보국에 있었으니 이젠 이런 공교로운 일도 생겼나봅니다. 그 사이 오래 떨어져 산 부인에게는 서울이 남편의 공적을 어떻게 평가하고있었는가 하는걸 아는것이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얼결에 그가 내미는 문건철을 받아들었다. 이 순간 나는 림송대위의 류다른 말과 행동의 성격을 랭정히 분석해볼 정신적여유가 없었다. 이것이 만약 그를 통한 배후기관의 검토라 해도 결코 나자신이 도발에 걸릴 우려는 없을것이였다.

나는 서둘러 문건철을 펼쳐들었다. 본부에서는 홍선화의 아들을 위해서 엄두균이라는 장교의 신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었다. 그는 신의주에서 동중학교 교원이였던 장도영일파와 함께 모략활동을 벌리던 흑색테로단의 한 성원이였다. 그는 월남후 인차 륙군본부 정보국에서 근무했었다. 나는 신의주에서 본 그의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있었다. 엄두균은 대전해방시 포위속에서 접전하다가 죽었었다. …나는 림송이 준 문건철을 들여다보면서 그가 신의주에서 체류한 자세한 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였다.

《실례지만.》 하고 문득 림송이 입을 여는바람에 나는 문건철에서 얼굴을 들었다. 《난 아까 방으로 올라오다가 매대옆에서 웬 녀인과 이야기하고있는 아가씨를 보았습니다. 아는 사이인가요?》

나는 그를 마주보았다. 림송의 눈은 예리하게 나의 얼굴을 주시하고있었다. 나는 문득 그 녀인의 《위협》이 떠올랐다. 나는 이 순간 이 장교앞에서 진실을 말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예요. 우린 처음 만났어요. 그는…륙군본부에 있더군요.

피아노에 관심이 많았어요.》
나는 눈길을 떨구었다.
림송은 유심히 나의 얼굴을 살피더니 책상쪽으로 돌아섰다.
《생활이란…》
림송은 무슨 말을 하려는듯싶더니 담배곽을 집어들고 입을 다물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어둡질은 창문쪽을 바라보았다.
《이제…무슨 말을 하려 했어요?》
《아닙니다.》 그는 서둘러 입을 열었다. 《난 생활에서는 때로… 본의아니게 친구의 뺨도 때리고 원쑤와 술잔을 나눌 때도 있다는 걸 말하려 했지요. 당신에게는 리해가 안될겁니다.》
《?…》
《난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곡절많은 운명을 거쳐 이 도시에… 나타났더군요.》
나는 문득 그 가을바람 세차던 역두가 떠오르면서 가슴이 조여들었다. 림송의 말에서는 그 어떤 암시가 느껴졌다.
나는 마음속이 불안해지였다. 나는 서둘러 화제를 바꾸었다.
《대위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나의 물음에 림송은 팔짱을 낀채로 얼핏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길은 부드럽게 빛났다.
《나도 고향을… 북쪽에 두고있습니다. 어릴 때 조국을 떠났지만 기억에 생생합니다. 찔레꽃이 하얗게 핀 시내가 그리고 동구길,집앞에는 구기자나무가 뒤엉킨 박우물이 있었습니다. 조국에 대한 나의 표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난 오래동안 해외에서 살았거든요. …》
(그렇다면?!…)
나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별안간 그의 얼굴은 딴사람같이 보였다. 그 어떤 회한과 야릇한 감정이 눈가에 비껴있었다.
《어쩐지… 대위님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같아요.》 나는 애써 자기 감정을 숨기며 나직이 그 어떤 영문모를 동정심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전쟁이 아니였다면 당신은 이렇게 군복을… 입지 않았을것 같아요.》
《아가씬 전쟁이 아니였다면 뭘 하려고 했소?》
림송의 목소리는 어쩐지 이상하게,다소 랭랭하게 울렸다.

《전… 시골음악교원이 되고싶었어요.》
《…》
림송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약간 흥분한채 초조한 눈길로 나를 살펴보더니 별안간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그는 문득 내결에 멈춰서더니 나의 팔을 잡았다. 나는 그의 유별난 행동에 당황하여 몸을 일으켰다.
《전쟁이 아니였다면…난 이 도시에 나타나지도 않았을거요. 아마 그 어디에서 아가씨와 같은 아름다운 녀성과 사랑을 속삭였을지도 모르오！…》
《이러지 마세요！… 전 당신이…》
《내가 문용채나 듀페이와는 다른 인격을 가진 장교라는 말이지요？…》 하고 림송은 격하게 부르짖더니 문득 내 팔을 놓아버렸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담배를 피워물었다. 갑자기 그는 침묵에 빠져버렸다. 나는 그의 행동이 비로소 자기의 진심을 숨기기 위한 꾸며진것이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어쩐지 울고싶도록 가슴이 젖어왔다. 그 감정은 나로서도 도저히 종잡을수 없었다.
《실례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의 말이 옳았습니다. 난…》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오래동안 창밖을 내다보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을지길아바이를 만나 간밤에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자동차 기관실덮개를 열어놓고 안을 들여다보던 을지길은 담배를 문 이새로 중얼거렸다.
《참, 그 대위가 이상하단말이우다. 벌써 순정동무를 두차례나 도와주지 않았소. 그의 경력을 보면 결코 우리와 뜻을 같이할 사람이 아니거든.》
《혹시 다른 부대에서 파견한 정찰병이 아닐가요？ 어쩐지 전 그가… 우리 사람같아요！》
나는 무엇인가 그의 행동을 변호하고싶은 야릇한 충동을 느끼며 이렇게 물었다.
그러자 을지길은 생각에 잠긴 눈길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순정동무, 적후에서는 사람을 함부로 믿어서는 안되오. 이건

하나의 엄격한 규률이라오. 설사 그가 우리 사람이라고 해도말이요. 미국에서 대학까지 나온 그 장교가 우리 동지일수는 없지 않소. 난 분명 그 장교가 처음부터 순정동무의 미모에 반해 선의를 베푸는것 같구만. 우리 과장동지는 원쑤의 미소뒤에는 칼이 숨겨져있다고 했소.》

그의 말에 나는 붉어진 얼굴을 정원쪽으로 돌렸다. 우리들의 앞 장교구락부 뒤마당에서는 어린 국철이가 림송대위와 함께 눈우를 뛰여가고있었다. 자세히 보니 림송이 국철이에게 연을 만들어준 모양이였다. 국철이는 림송이 시키는대로 연줄을 들고 메마른 장미덩굴짬으로 뛰여갔다. 크지 않은 연은 국철이가 달리는데 따라 점차 창공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림송은 눈우에 멈춰서서 국철이가 끄는 연을 올려다보고있었다. 나는 눈을 가느스름히 찌프리고 창공을 나는 연을 올려다보는 림송대위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림송대위는 한손을 허리에 짚고 머리를 든채 넋을 잃은 사람처럼 질푸른 겨울하늘을 올려다보고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 순간 순진한 어린아이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그런 랑만과 희열과 공상의 밝은 색조가 력력히 어려있었다.

희망의 밝은 그 미소를 지켜보는 나의 마음은 그 어떤 영문모를 감동으로 절절히 젖어왔다. 야릇한 추억의 그림자가 봄잔디밭우를 기여가는 그림자처럼 나의 심장속에 서서히 불현듯 깃들며 무엇인가를 안타깝게 호소하고 찾는것 같았다.

(아, 저 얼굴에 깃든 미소와 공상의 빛갈이 왜 이리도 내 가슴을 흔드는것일가? 저 창공을 나는 연과 그것을 바라보는 저 사나이의 모습이 왜 이리도 낯익고 정겹고 뭉클하게 안겨오는걸가?…내가 이게 미치지 않았을가? 리성은 적의 편에 서있는 저 인간을 멀리 하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은 걷잡을새없이 그를 동정하게 되고 끌리게 되고 알고싶어하는 이 마음의 소용돌이는 무엇때문일가?…)

나는 애써 그에게서 눈길을 돌려버렸다. 나는 나자신도 똑똑히 설명할수 없는 불안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끼며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문을 안으로 걸고 쓰러질듯 침대에 걸터앉았다. 어쩐지 울고싶도록 마음이 서글퍼지고 쓸쓸해지고 그런가 하면 갑자기 눈속을 걷다가 잔디푸른 봄날의 들판에 나선것처럼 가슴이 후련해지고 울렁거리기도 하였다. 문득 구석에 놓인 배낭이 눈에 띄웠다. 간

고한 북행길에서 나의 길동무가 되였던, 지난날의 영예로운 시절을 추억하게 하는 색바랜 보위색 배낭이였다. 누군가 급히 뒤져보다가 나가버린 모양 배낭안의 옷가지들이 삐죽이 나와있었다. 그리고 배낭곁에는 네모난 종이장 같은것이 떨어져있었다. 나는 섬찍한 생각이 들어 황급히 그리로 다가갔다. 그것은 배낭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내가 행복했던 시절의 한순정이라는것을 상기시키는 색날은 사진이였다. 나는 모든것을 없애면서도 그 소중한 사진만은 버릴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도 윤성녀 어머니의 마음을 저버리는 죄악처럼 느껴졌기때문이라 할가.

나는 따뜻한 감정에 휩싸여 그 색날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지나간 동요시절, 잔디밭우에 두 소년, 소녀가 가지런히 앉아 찍은 추억의 화폭이였다. 그 동요시절의 모습들을 더듬는 순간 나는 또다시 나의 심장의 세찬 고동소리를 들었다.

리지와 정열이 느껴지는 희고 높은 이마, 빛나는 눈매, 완강한 의지가 느껴지는 턱… 그것은 아버지가 만들어준 연을 날리며 동구길로, 시내가로 뛰여가던 잊을수 없는 한 소년의 모습이였다. 나는 사진속의 소년의 얼굴에서 방금 정원에 서있던 림송에게서 본 그 랑만과 공상의 빛갈을 다시 찾아보았다.

나는 사진을 움켜쥐였다.

(아, 결국 그였구나! 기다리던 사람, 떠나간 사람, 사랑하는 벗, 그였구나! 그런데 어떻게?…)

제 14 장

브라운 겐지로는 청춘시절부터 자기에게 비상한 탐정가적기질이 있다고 굳게 믿고있었다. 지어 그는 아르쎄르 루빵이나 샬로크 홈스에 대해서조차 비판적인 립장을 취했다. 사색과 추리, 현실자료에 기초한 수사와 가설, 립증과 판단, 여기에서 그는 정탐가의 기질이 인내력과 정신적강인성에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는 형사시절부터 사건수사에서 단 하나의 미결건도 남긴 일이 없었다.

검사들과 변호사들, 예심원들은 그가 제기한 형사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고 도꾜는 물론 빠리나 뉴욕에서도 주요사건수사를 그에게 청탁해왔었다.

전쟁은 그의 명성을 어느정도 저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씨아이씨사업이 범죄수사가 아니라 일종의 정치외교, 군사적활동이였기때문이였다.

오늘도 겐지로는 종일 불쾌한 기분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는 8군사령부 방첩과에 갔다온후 《수성》정찰조에 대한 에니스의 호된 추궁때문에 신경이 칼날처럼 곤두서있었다.

그는 자기가 일단 에니스준장이 이끄는 《련락사무소》 즉 특수전략부대의 방첩책임자로 온 이상 《수성》에 대한 수사에서도 손을 뗀것으로 여겨왔었다.

물론 겐지로는 《수성》과는 별도로 그동안 림송에 대한 추적을 잠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그와 가까운 인물들은 물론 상해와 오타와, 워싱톤까지 요원들을 파견하여 신원보고서를 작성하고있었다.

오늘 그는 《국군》방첩대와 련결되여있는 문용채와 함께 최근 정보자료들을 놓고 신경전을 하다가 장교구락부로 갔었다. 그 사이 문용채를 통해 륙군본부 씨아이씨에 부탁했던 림송에 대한 자료는 겐지로에게 불만만을 야기시켰다. 이즈음 《련락사무소》의 특수한 사명이 알려지면서 《정부》와 군부의 실력자들에게 새로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한 문용채는 겐지로의 요구에 대하여 겉으로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으나 돌아앉아서는 모든것을 물감장사처럼 잿다. 기실 림송에 대한 협의는 에니스준장의 비위를 건드릴수 있었다.

문용채는 이것을 잘 알고있었다. 겐지로의 요구들은 그에게 개인적감정에 기초한 비과학적인것으로 느껴졌다.

문용채는 위스키잔을 앞에 놓고 겐지로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술에 잔뜩 취한 겐지로는 일본군가를 웅얼거리다가 료리트집을 잡아 료리사를 불러냈다. 겐지로는 장교들과 사람들이 보는앞에서 대뜸 늙은 료리사의 면상을 후려갈겼다. 선지피가 식탁에 튀여 위스키잔을 더 붉게 물들였다. 피를 보자 겐지로는 약간 술에서 깨여난듯싶었다.

문용채는 증오의 눈길이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속에 겐지로를 이끌고 나와버렸다.

문용채는 8군정보부 장교숙소앞에서 차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

다. 겐지로는 술이 깼는지 우울한 시선으로 검문소쪽을 바라보았다.
《중좌, 오늘은 어떻게 된 일이요? 난 당신이 사람들앞에서 만용을 부리리라고는 생각 못했소.》
《소장님, 나 역시… 자기의 분노를 새길수 없을 때가 있는… 인간이요.》
겐지로는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일이 잘 안되는가?》
《소장, 당신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 우리 방첩과를 협력할데 대한 도꾜의 명령서를 상기하는게 좋겠소.》
겐지로의 말에 문용채는 미간을 찌프렸다.
《난 우리 특무대가 〈련락사무소〉사업을 늘 중시하고있다고 보우. 이에 대해선 에니스준장이나 특수련락장교 림송대위도 만족하게 여기는것 같던데? 우리는 선발된 인원들을 륙본 방첩기관에서 인수해왔소.》
림송의 이름이 나오자 겐지로는 이발을 악물었다.
《당신은… 왜 림송에 대한 미행을 부탁한 나의 요구를 중단했소?》
《그건 중좌도 알거요. 난 에니스준장의 비위를 건드리고싶지 않았소. 그리고 그는 〈사무소〉위수구역밖에 있소.》
《그만두오. 림송은 역시 〈사무소〉사람이요. 이걸 모르는 당신이 한심하거든!…》
《?!…》
《내 당신에게 한가지만은 귀띔하겠소.》 하고 겐지로는 술이 완전히 깬 말똥말똥한 눈길로 문용채를 마주보았다.
《난 물론 단순하게 림송을 〈수성〉과 련결시키는 비과학적인 판단을 내리지는 않겠소. 하지만 현시점에서 우리가 〈수성〉을 밝혀내여 수중에 장악하지 못한다면 당신이나 내나 정객들의 더러운 발때를 씻어주는 하녀신세를 면치 못할거요!》
《그건 무슨 소리요?》
겐지로의 악설에 문용채는 불쾌한듯 이마살을 찌프렸다. 겐지로는 랭소를 지었다.
《그렇게도 정세를 분별하지 못하겠소? 지금 당신네 국군특무대가 정보국에서 분리되여 독자성을 띠게 된것도 결국은 우리 극

동군방첩기관의 활약때문이였소. 한마디로 이 극동전선에서는 우리 씨아이씨가 지금까지 방첩과 특수첩보사업을 주관해왔소. 그 연장으로 우리는 국군씨아이씨도 독립시킨거요. 그런데 요즘 맥아더의 크리스마스총공세가 실패한후 미중앙정보국이 특수정보전을 도맡을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소. 당신은 물론 미중앙정보국극동책임자인 에니스준장의 작전구상을 알테지? 만약 그것이 성공한다면 워싱톤은 인천상륙작전보다 더 화려한 월계관을 그들에게 던져줄거요. 그렇게 되면 미중앙정보국은 극동륙군정보국을 자기 팔에 안을거구. 자동적으로 우린 그들의 팔다리가 되고말거든. 내 말을 알겠소?》

《에니스준장의 작전이 성공한대도 기껏해야 전선이 몇마일 더 전진할테지…》

문용채는 겐지로가 《레인보작전》에 지나친 의의를 부여하는것 같아 좀 떠보는듯한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당신은 정보사업을 계속하려면 정치와 외교를 더 배워야겠소.》 겐지로는 자기에게도 바로 그것이 결여되여있다는것을 속으로 자인하면서 비양조로 말했다. 《바로 〈레인보작전〉의 승패여부에 전쟁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요!》

《?!…》

문용채는 겐지로의 성격을 잘 알고있었다. 이 사나이는 실언을 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긴장해진 눈길을 들었다.

《당신네 리대통령이 알면 펄찍 뛰겠지만 지금 워싱톤은 군사적 손실과 동맹국들의 압력때문에 이미 정전담판제안을 결정했소. 이젠 당신도 알아야 하오. 오늘의 시점에서는 〈레인보작전〉이 성공하면 부득불 평양측이 먼저 담판을 제기해올수 있소. 실패하면 국제련합국군측이 무조건 흰기를 들것은 자명한 일이요.…》

《정전담판이라…》

문용채는 얼이 나간 사람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그 월계관을 우리가 에니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는가?》 하고 겐지로는 송곳이로 아래입술을 악물었다. 《현재로서 그 작전은 진행되여야 하오. 누가 해야 하는가? 대답은 당신이 찾으시오.》

《여기에 〈수성〉정찰조는 왜 필요하오?》

이미 자제력을 회복한 문용채는 비로소 겐지로의 최근 심리상태

가 리해되는것 같았다.

《당신도 알다싶이 〈수성〉은 자기 무전문에 자주 〈레인보〉를 올리고있소. 우린 어떻게 하나 이 망을 들추어 에니스와 평양을 상대로 특수작전속의 특수작전을 벌려야 하오!》

《그래서 당신은 8240부대에 우리 사람들을 넣으려는거요?》

문용채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어깨를 으쓱했다.

겐지로의 속심을 안것이 그에게는 중요한 성과였다. 만약 자기가 림송을 통하여 륙군본부방첩기관의 2중지령을 받는 특수인물들을 《사무소》에 침투시키는것이 드러나는 경우 겐지로와의 《협력》이 든든한 방패가 될것이다. 물론 문용채는 자기를 《국제정탐》이라고 자처하는 겐지로가 비밀리에 리승만의 봉급도 타먹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이제는 속지 않으면서 속는체하는 연극을 시작할 때가 되였다. 이자의 신경을 건드릴 필요는 전혀 없다.

《거듭 말하지만 우선 〈수성〉을 찾아야 하오. 그리고 당신은 자기 직무를 리용해서 우리의 패쪽을 가진 유능한 정보원들이 북으로 파견될 조의 중심인물이 되게 하시오.》

《알겠소. 만약 림송씨를 이 일에…》

《또 림송이요?… 그가 속에 무엇을 품고있는지 당신은 알기나 하오? 그걸 모르는 당신이 한심하거든!…》

겐지로는 다시 역증을 내며 승용차에서 내려섰다. 문용채는 불쾌했으나 울며 겨자먹기로 뒤따라 그를 부축했다. 겐지로는 비칠거리며 숙소의 계단을 짚었다.

겐지로의 우울증은 저녁에도 계속되였다. 그는 장교구락부에서 저녁식사를 할 때도 광기를 부리며 술을 마셨다. 최근 8군사령부는 장교들의 술량을 제한하고있었다. 그러나 이 규칙을 지키는 고급장교는 별반 없었다. 지난 기간 겐지로는 이 드문 장교들중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술을 마셔도 몇잔을 넘기지 않았다. 그러나 일단 울적해지기 시작하면 밑빠진 독이 되였다. 이때면 그는 끝없이 마실수 있었다. 그러나 결코 술이 사람을 마시는 일은 없었다.

겐지로는 장교구락부 식당의 가운데식탁을 차지하고 또 몇잔을 들이켰다. 문용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는 얼굴을 찾았으나 오늘따라 련락장교단 장교들도 보이지 않았다.

견장을 달지 않은 캬키색군복을 입은 장발의 녀자타자수들이 그들의 식탁결,중앙통로로 걸어오고있었다. 얼굴이 가무스레한 녀자는 옆동무의 손을 잡고 몸을 흔들며 걸어왔다.
두 녀자가 겐지로의 옆을 지나려 할 때였다. 별안간 겐지로는 팔을 뻗쳐 앞선 녀자의 팔목을 틀어쥐였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식탁에 끌어당겼다. 뜻밖에 봉변을 당한 녀자타자수는 겐지로의 얼굴을 알아보자 몸을 떨며 어쩔줄을 몰라했다. 겐지로는 음탕한 눈길로 녀자타자수를 올려다보더니 브란디가 담긴 술잔을 손으로 거머쥐고 그 녀자의 입가에 가져갔다.
《자,빵빵걸! 마셔! 넌 처녀가 아니지? 그 살찐 엉덩판만 봐도 알수 있어!》
주변 장교들은 구경거리라도 만난듯 바라보기만 했다. 그들은 이 감때사나운 씨아이씨장교를 누구나 다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녀자는 애처로운 눈길로 겐지로와 문용채를 번갈아보며 오돌오돌 떨기만 했다. 브란디가 쏟아져 그 녀자의 불룩한 가슴을 적셨다.
이때 날씬한 몸매에 흰 얼굴이 유표하게 드러나는 녀성이 조용히 겐지로앞으로 다가왔다. 한순정이였다.
《겐지로씨,이게 무슨짓이예요? 지금까지 전 당신을 단정한 장교로 알았군요.》
녀인의 목소리는 당돌하게 울렸다.
문용채는 이 눈매가 애틋하게 생긴 녀주인의 흰 얼굴을 새삼스럽게 유심히 올려다보았다.
자세히 볼수록 아름다운 녀인이다.
한순정의 출현과 꾸짖는듯한 말투는 겐지로에게 있어서 하나의 진정제였다. 중좌는 홱 얼굴을 돌렸다. 그는 자기를 내려다보는 녀성의 준절한 눈길과 부딪치자 장발을 한 녀인의 팔을 슬그머니 놓아버렸다.
《순정씨! 실례했소.… 미안하오. 아가씨!》
겐지로는 머리를 내리떨구고 술잔을 손으로 움켜쥐였다.
한순정은 봉변을 당한 녀자타자수를 데리고 식탁에서 물러갔다.
겐지로는 충혈된 눈을 부릅뜨고 한순정의 뒤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은 갑자기 서늘해졌다. 어두운 혈관속으로는 뜨거운

피줄기가 거세찬 격랑을 일으켰다.

그는 술에서 말끔히 깨여버렸다.

(저 팽팽한 육체속에 들어있는것은 도대체 무엇일가? 선녀일가, 마녀일가.

저 녀자는 도대체 무슨 마력으로 나의 심장을 이리도 진정 못하게 하는걸가? 저 날씬한 몸매, 높은 가슴, 흔들리는 저 육체조차 미와 삶의 상징으로 나의 가슴을 끓는 죽가마처럼 만드누나. 저 녀자를 쟁취하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실패작으로 되고말것이다. 그렇다! 너는 나의것이 될수 없다면 남의것도 될수 없다! 난 너의 가슴속에 누가 들어앉기 시작했는지 알고있다. 더러운년!…)

겐지로는 이발을 악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볼편의 흠집이 전등불밑에 검푸르딩딩하게 두드러지여 나타났다.

지금 그는 생생한 정신으로 한순정과 그리고 림송을 두고 심장을 끓였다. 이 순간 그는 림송을 저주했다. 자기앞에 가는곳마다 나타나 마음을 자극하는 그를 증오했다. 더우기 그가 림송에 대해서 거의 본능에 가까운 육체적인 혐오감이 체내에 담배진처럼 배이기 시작한것은 며칠전 장교구락부식당에서 우연히 목격한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때문이였다.

그날 저녁 겐지로는 자기의 해외정보망들에 에쓰디비밀전문을 날리고 뒤늦게야 식당으로 내려갔었다. 그는 고정좌석인 카운다결 외진 식탁에 마주앉아 식사안내표를 뒤적이다가 문득 매대안의 창문쪽에 홀로 앉아있는 한 녀성에게 눈길이 멎었다. 자기가 구원했고 또 장교구락부에 알선한 한순정이였다. 그 녀자를 보는 순간 겐지로는 불현듯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애수와도 같은 야릇한 감정이 솟아오르는것이였다. 한순정의 얼굴은 련련하게 아름다우면서도 사나이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있었다. 희고 매끈한 이마며 정교하게 흘러내린 코날, 꼭 다문 도톰하고 발그레한 입술, 그 인상적인 애틋한 눈매…

녀인은 그가 중학시절 짝사랑했던 한 일본처녀와 너무도 방불하게 생겼다.

겐지로의 어머니는 외교관이였던 한 미국인과 결혼하기전에 일본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자랐었다. 외할아버지는 토호였다. 해적출신인 조부와 외교관인 부친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다분히 물려받

은 겐지로는 당시 그 눈매 아름다운 처녀에게 매혹되였었다.
지난해 마가을 한순정이가 운명의 희롱으로 자기 눈앞에 나타났을 때 그는 방첩장교라는 본연자세마저 잃은채 그 녀자를 통해 옛사랑을 다시 그리게 되였다. 물론 그는 정보통로를 거쳐 평양에서의 그 녀자의 5년간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그는 강점된 평양에서 한순정을 알고있는 몇명의 련루자들을 찾아냈다. 한순정은 다른 색갈이 없었다. 통보자료들은 그 녀자의 경력이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다는것을 증명하였다.
한순정의 매력은 이 도시안에서 대단한것이였다. 8군사령부 장교들은 물론 륙군본부의 머리가 희슥희슥한 대령계렬까지도 유력한 후원자를 가진 이 눈매 애틋하고 몸매 날씬한 미모의 녀성에게 무심치 않은 눈길을 보내게 되였다.
십년전 단발머리소녀를 따라다니며 식지 않은 피를 끓이던 겐지로의 가슴속에는 또다시 열정의 폭풍이 일어났다. 40대를 바라보는 오늘까지 평범하지 않은 인생행로에서 여직 독신으로 있으면서 무수한 녀성편답의 길을 걸어온 겐지로는 이 아름다운 녀자의 모습에서 때늦게나마 자기가 닻을 내릴 희망과 안정의 항구를 찾아보았다고 할가. 한순정에게 느끼는 련민의 감정은 지금까지 겐지로가 정열의 시장인 공창이나 생활의 밑바닥을 탁류처럼 흘러간 녀성들에게서는 전혀 체험하지 못한 따뜻하고 공상적인것이였다. 이를테면 그것은 철을 놓친 남아의 사랑과 가정에 대한 리상향이라 할가.
겐지로는 동료들이 늘 말하는 자기의 잔인한 성격의 모까지 죽여 그 녀자앞에 나타나군했다. 물론 상해조계지에서 입은 얼굴의 흠집은 겐지로의 홍안시절의 기사도적인 무훈의 례물로 시적인 윤색과정을 거쳐 그 녀자에게 설명되였다. 그러나 한순정의 심장은 돌처럼 찼다. 회유도 위협도 완력도 그 녀자에게는 소용이 없었다. 그 녀자에 대한 겐지로의 열중은 지금까지 아무런 소득도 없었고 오히려 동료들의 놀림감으로 되였다. 그는 그 녀자를 따라다니는 사이에 또 한명의 시끄러운 녀성보호자와 불쾌한 충돌까지 하게 되였다. 그 보호자란 다름아닌 그의 영원한 적수인 그 인간이였다.…
그때 겐지로는 식탁에 팔굽을 기대고 명상에 잠겨 중앙식탁쪽을 유심히 살피는 한순정을 훔쳐보고있었다. 겐지로의 눈은 자연히 그 녀자의 눈길을 따라갔다. 순간 겐지로의 얼굴은 눈에 띄게 이

그러지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그 녀자가 따뜻한 색조와 다감한 미소를 짓고 바라보는곳에는 림송대위가 앉아있었던것이다. 림송은 그 녀자의 눈길을 전혀 느끼지 못한채 스테쎌 듀페이와 함께 유쾌하게 한담을 하며 맥주를 마시고있었다.

한순간 질투에 가까운 분노의 파도가 지나가자 겐지로는 두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눈여겨보며 랭랭하게 리성을 가다듬었다.

(저 녀자의 눈길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 대구땅에 몇달만에 다시 나타난 사나이에게 순정이가 언제 추파를 던지게 되였으며 그 리유는 무엇일가? 저 사나이의 용모일가? 인격인가? 아니면 재산인가?… 아니면 혹시 저 녀자와 사나이사이에 내가 모르는 색다른 인연이라도 있었는가?…)

겐지로는 결국 림송에게 향해진 그 녀자의 다정한 눈길은 그 어떤 수학적인 론리로써도 해명할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한순정이가 아닌 사령부내의 많은 녀성들과 젊은 장교들까지도 이 매력있는 에니스의 정보장교와의 교제를 갈망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쟈스민까지도 말끝마다 림송의 소리를 해서 그를 불쾌하게 만들군했었다. 질투는 사랑보다 무서운것이였다. 파괴가 창조보다 쉬운것처럼 질투의 감정에다 그 어떤 류다른 적의에 기초한 의혹까지 겹치고보니 그는 속이 죽가마처럼 끓었다.

별안간 겐지로는 이발을 악물었다. 그는 어제아침 림송과 나란히 장교구락부앞 공원길을 걸어가던 그 녀자의 모습을 회상했던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자 그의 가슴은 또다시 서리가 낀것처럼 차거웠다.

사랑의 정열보다 질투와 증오의 격정은 더 큰것이였다. 그것은 나아가서 복수의 감정을 낳는 법이다. 겐지로는 그 녀자의 심장을 사지 못할 때 자기는 그 원쑤보다 무서운 인간이 되여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가시에 찔리더라도 그 순결한 꽃을 억센 손아귀에 움켜쥐고 그 향기를 맡을것이였다. 가능하다면 가차없이 꺾어 진이 뚝뚝 돋는 그 꽃송이를 순간이라도 품에 안을것이였다. 물론 꽃은 그자리에서 생기를 잃어버릴것이다. 그렇다, 인간에게서는 진이 아니라 피가 흐를것이다. 그런데 겐지로는 피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나이였다. …

《저 녀자의 래력을 잘 아오?》

문득 문용채가 호기심이 어린 목소리로 나직이 물었다.
겐지로는 그에게로 홱 얼굴을 돌렸다. 그의 얼굴은 험악하게 이그러져있었다. 그의 이상한 얼굴표정이 문용채를 놀라게 했다. 다음 순간 거친 숨소리와 함께 황황 불타던 그의 눈이 점차 재처럼 꺼져버렸다.
《그래 정말 알고싶소?… 그 녀자는 악마요. 마녀요!…》
…그날밤 겐지로는 문용채와 헤여져 곧장 사령부 장교구락부로 향했다. 그는 《련락사무소》 참모부장교들의 숙소 맞은켠 현관끝에 있는 한순정의 침실쪽으로 걸어갔다.
겐지로가 방으로 들어섰을 때 한순정은 야회복을 갈아입으려고 실내옷을 벗겨드는 참이였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유령처럼 소리없이 나타난 겐지로를 발견하자 와뜰 놀라며 풀어놓았던 야회복 상의 웃단추를 서둘러 꼭꼭 채웠다.
《놀랄건 없소. 우리야 이젠 옛친구가 아니요. 난 오늘 적적해서 아가씨를 찾아왔소. 아까는 실례했소.》
겐지로는 술내를 풍기며 그 녀자앞으로 다가갔다. 한순정에게서는 연한 화장내가 났다. 겐지로는 일종의 현훈증을 느끼며 방가운데 놓인 원탁에 몸을 기댔다. 그리고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순정은 한옆으로 물러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녀자의 팽팽한 가슴은 놀란 새처럼 오르내렸다.
《정말 당신은… 무례하더군요. 만약 중좌님이 취하지만 않았대도 이런 말은 안할거예요.》
《울분을 참는 다른 길을 나는 모르오.》
《부탁이예요. 돌아가주세요!》
한순정의 목소리는 섬찍할 정도로 조용했다. 겐지로는 두눈을 감고 차거운 손바닥으로 이마를 싸쥐였다. 땀이 질벅한 그의 이마는 뜨거웠다. 그는 눈을 뜨고 손가락짬으로 한순정을 올려다보았다. 공포와 경계심이 어렸건만 흑진주처럼 빛나는 애틋한 눈매와 애무를 기다리는듯한 불타는 입술이 눈에 확 안겨왔다.
겐지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녀인앞으로 한걸음한걸음 다가갔다.
《아가씨는… 나의 진정을 그렇게도 몰라주겠소?…》
겐지로는 벽쪽으로 쫓겨가는 한순정이에게 와락 달려들었다. 그

리고는 억센 두팔로 그 녀자의 허리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는 그 녀자를 부여안고 벽쪽으로 움직이려 하였다. 그 녀자는 경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반항하였다. 겐지로는 오른팔을 뻗쳐 그 녀자의 야회복섶을 잡아당겼다. 한순정은 몸부림을 치며 연약한 두팔로 사나이의 가슴을 떠밀었다.

그 순간 겐지로는 무엇인가 흰종이장이 방바닥에 떨어지는것을 느꼈다. 본것이 아니라 직업적인 예감으로 느꼈던것이다. 그의 체내에서 무섭게 끓어오르던 뜨거운 피는 별안간 얼음처럼 차거워졌다. 겐지로는 그 녀자의 몸을 와락 밀쳐버리며 눈길을 방바닥에 가져갔다.

퇴색해진 사진이였다. 두 소년 소녀가 풀밭에 앉아 웃는 모습이 얼핏 눈에 안겨들었다. 어쩐지 더벅머리사내애의 눈길이 범상치 않게 겐지로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눈길을 돌렸다.

그 순간 한순정이 사진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한순정은 분노에 찬 증오의 눈길로 그를 쏘아보았다. 흩어진 머리칼을 손으로 매만지는 그 녀자의 손길은 떨렸다.

순간의 이상한 환영은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상한걸! 소년의 눈길이 왜 섬찍할가?…)

겐지로는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것처럼 태연히 원탁으로 다가가 군모를 집어들었다. 그는 천천히 출입문쪽으로 걸어가다가 홱 돌아섰다.

《아가씨, 실례했소. … 난 당신의 심장을 어떤 사나이가 틀어쥐고있는지 알고있소.》 겐지로는 잠시 말을 끊었다가 불쑥 다시 험악한 낯빛이 되여가지고 웅글게 부르짖었다. 《난 그를 죽여버리겠소!》

한순정은 겐지로의 눈길을 피하지 않았다.

겐지로에게는 벌써 그 눈이 애틋한 녀성적인 눈매로만 보이지 않았다. 그 눈에는 증오와 분노가 엉켜있었다.

별안간 한순정은 나이든 녀자의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예요!》

《무서운 사람이라! 하하하! 옳아, 난 적수보다 무서운 인간이 되려오! 무서운 인간!…》

겐지로는 소리를 지르듯 웨쳐대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밖으

로 나와버렸다.
　그는 장교구락부 정원에 서있는 외등밑에 이르자 군복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다시한번 그 사진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강한 의혹이 한순간 그의 머리를 되게 쳤다. 그는 대뜸 술이 깨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게 숲에 들어가 버섯을 찾다가 진귀한 보석을 얻은셈이 아닌가！ 비록 눈에 띄지 않는 바늘끝만한 보석이라도 내 사업에는 류다른 빛갈이 전혀 새로운곳에서 비쳐들어온셈이야.) 겐지로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의 예감은 나를 배반한적이 없어！ 그 사진을 분석해보아야 한다. 나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이어진 그 무엇인가가 있다.
　화인지 복인지 인간은 우선 그걸 알아야 해！…)

　만약 생활속에서 한순간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운명이 자기를 기다리고있을지 예견할수 있다면 구태여 정보일군은 사색과 추리, 위험의 세계를 헤매지 않아도 될것이다.
　그러나 정치정탐가는 예언자가 아니며 모든 정보활동의 결과는 벽돌을 쌓듯이 한걸음한걸음 목표에로 전진해나갈 때 얻어지는 법이다. 참된 정보일군은 조성된 정세와 현실의 제관계를 랭철하게 분석평가하고 능동적으로 리용처리함으로써만 자기가 걸어갈 앞길을 개척해나가게 된다.
　림송은 며칠전에 몇개의 특공조가 훈련을 끝마치고 대기상태에 들어갔다는것을 알았다. 그 조들은 듀페이중좌와 미첼 스케몬소좌가 책임진 분견대들이였다. 림송은 듀페이가 한주일째 장교구락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을 놓고 첫 의혹을 품었었다.
　(듀페이가 한주일째 장교구락부에 나타나지 않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분견대의 훈련이 마감단계에서 진행된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작전이 가까왔다는것을 말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알아낼수 있을가？…)
　림송은 팔짱을 끼고 방안을 오가며 사색에 잠겼다.
　(듀페이를 만날수 있는 길이 없을가？ 부대병영안에서는 도저히 만날수 없다. 그렇다면 전화를 걸가？ 그러자면 건덕지가 있어야 한다. 건덕지가…)
　림송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번호판을 돌렸다. 반응이 없다. 림

송은 저으기 속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그냥 송수화기를 들고있었다.
림송은 그 사이 문건을 가지고 에니스준장에게 갈 때마다 듀페이를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경계가 삼엄하여 목적을 이루지 못하군하였다. 듀페이는 늘 보좌관실에 붙어있지 않고 분견대병영에 나가있었다. 림송이 《련락사무소》 검문소에 도착하면 의례히 두명의 자동총수가 그를 에니스준장이 있는 사령부 2층으로 말없이 안내하군하였다.
(이자가 방에 없는가? 지금쯤은 있을텐데…)
그 순간 듀페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듀페이, 잘 있나?》
《아, 림송, 자네가? 요즘은 면도할새도 없네. 미인은 무사한가?…》
듀페이의 목소리는 침착하게 울렸다. 림송은 그가 자기 방에서 방금 저녁식사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네 덕분에 잘 있지. 왜 요즘은 나이트클럽에서 자넬 볼수 없구만. …》
림송은 분명 자기들의 통화내용을 겐지로의 방첩과에서 도청하고있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격전전야가 아닌가! 난 식사때마다 위스키를 마시며 아름다운 녀인의 추파를 받는 자네가 부럽네. 아마 이틀후엔 나도 자기 침실로 돌아갈수 있을것 같네.》
《난 자넬 이틀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만나야 할것 같네. 8군보급창의 친구가 인사를 전해왔네. 내 말을 알겠나?…》
반응은 즉시에 나타났다. 듀페이는 문득 침묵에 빠진듯 잠잠했다. 그는 코소리를 킁킁 내며 대답할 말을 찾는것 같았다. 8군보급창의 친구란 듀페이가 이전부터 거래하는 보급장교였다. 듀페이는 《사무소》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보급장교를 끼고 《특수작전》과 관련있는 군수물자통계들을 도꾜의 군수업체들에 넘겨주어 막대한 리득금을 얻고있었다. 레이몬드는 이 보급장교가 사무엘회사에 낯을 돌리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 레이몬드는 그를 통하여 듀페이가 최근에 도박장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도꾜의 어느 한 회사로부터 군수정보를 약속하고 적지 않은 선불금을 받아낸 사실을 알려왔었다.
림송은 지금 어떻게 하면 도청기앞에 앉아있는 겐지로에게 큰 자

극을 주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해서 듀페이가 눈치채도록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생각하고있었다.

듀페이는 뜻밖에도 림송의 이 수고를 덜어주었다.

《가만, 림송… 더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 난 이미 그를 만났었지. 난 지금 단 일분도 시간이 없네. 자네와 이렇게 전화로 만난 일만 가지고도 난 방첩과의 추궁을 받을것 같네. 미안하네, 잘 자게！…》

듀페이는 성급히 말을 맺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림송은 수화기를 손에 든채 잠시 책상앞에 서있었다. 듀페이가 예상외로 크게 놀라지 않는것이 림송에게는 이상하였다. 적어도 그는 림송이 그 보급장교를 알고있으며 그의 부탁으로 금지된 전화까지 건 사실에 대하여 강한 반응을 보여야 할것이였다.

(어떻게 된 일인가？ 듀페이의 밀수공작이 에니스나 겐지로를 끼고 시작된것일가？ 아니면 이 비행이 알려지는 경우도 듀페이가 무사할만큼 공식적인 정보를 회사에 넘겨주었는가？… 아니다. 큰 목표를 안고있는 에니스가 극동방첩의 덫에 걸릴수 있는 사사로운 일에 끼여들수 없으며 겐지로는 듀페이 말고도 얼마든지 수입원천을 늘일수 있을것이다.

그렇다면 듀페이의 돌발적인 태도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 그는 적어도 당황하거나 의혹에 찬 질문을 나에게 퍼부었어야 했다. …)

림송은 벽쪽에 놓인 쏘파에 다가가 담배를 피워물었다. 추웠다. 그는 불이 꺼진 벽난로를 응시하다가 군용외투를 뒤집어썼다. 아래층에서는 어지로운 탕고소리와 취객들의 발장단소리, 녀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림송은 손바닥에 볼을 고이고 상념에 잠겼다. 놈들의 《특수작전》은 순간을 다투며 다가오는데 그는 지금 작전의 륜곽도 가늠하지 못한채 방황하고있지 않는가. 림송은 이번 작전에 부사령관인 문용채까지도 제외되고있음을 알았다. 에니스는 해를 넘기며 면밀히 준비해온 전략정보부대의 첫 작전에 큰 기대를 걸고있는만큼 비밀엄수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있었다.

림송은 듀페이를 리용하려던 방안이 실패하자 저으기 마음이 괴로왔다.

(조국에서는 이 순간도 전사들의 보고를 기다리며 작전지도앞을 떠나지 못할것이다. … 아, 괴롭구나. 순간은 거침없이 흐르고있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있으며 무엇을 할수 있는가?…)
림송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며 방안을 오가기 시작했다.
이때 복도쪽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림송은 그자리에 우뚝 멈춰서서 귀를 강구었다. 발자국소리가 림송의 방앞에 와서 멎더니 소리없이 문이 열리였다. 뜻밖에도 털외투를 뒤집어쓴 듀페이중좌가 찬 기운을 풍기며 방에 들어섰다.
《?!…》
림송은 불의의 일에 놀라서 그의 시퍼렇게 언 얼굴을 바라보았다.
《림송, 꼬냐크가 없나? 보다싶이 난 지금 꽁꽁 얼었네.》
림송은 말없이 그에게 《엑스오》 꼬냐크잔을 내밀었다. 듀페이는 연거퍼 두잔을 마시더니 비로소 화기가 도는 눈길을 그에게로 돌렸다.
《난 지금 군복저고리도 입지 못한채 슬며시 나왔네. 마침 검문소에 나의 하급장교가 당직을 서기에 자네에게로 올수 있었네. 시간은 몇분밖에 없네.》
듀페이의 눈에는 비로소 일종의 불안기와 조급성이 나타났다. 림송은 세번째로 그의 잔에 꼬냐크를 부으며 빙그레 웃었다.
《난 아까 친구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를 걸었지만 인차 마음을 놓았었지. 왜냐하면 자네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일엔 에니스준장의 후원이 있는것처럼 느껴지더군.》
《말두 말게.》 하고 듀페이는 서둘러 잔을 비우더니 림송을 올려다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자네가 그 일을 알고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네. 그 일이 에니스나 그보다도 겐지로의 귀에 들어가면 난 불쾌한 처지에 빠질수 있네. 그래 그 친구가 뭐라던가?…》
《듀페이, 난 친구를 위해서는 명예까지도 희생할 준비가 되여있네. 그는 어제 나를 찾아와 죄다 실토했네. 자네가 선불금을 타먹고도 지금까지 아닌보살하는바람에 그는 난감한 처지에 빠져있네. 회사측에서는 래일 정오까지 자네에게서 대답이 없는 경우 당장 지불한 금액을 부산은행에 반환하라는 독촉이 왔네.》
《그건 최후통첩이 아닌가!…》
듀페이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몸을 움츠렸다. 외투밑으로 땀에 젖은 더러운 내의가 엿보였다. 림송은 직감적으

로 그가 요즘 훈련강도를 높이고있다는것을 느꼈다.
림송은 자기의 방안대로 그를 만날수 있게 되자 다시금 침착성을 회복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최후통첩의 내용은 그게 다가 아닐세. 회사측은 만약 자네가 래일 은행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 부득불 극동군사령부나 8군후방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자네를 기소할것이라고 했다더군…》
《…》
《난 솔직한 말로 고락을 함께 한 동창의 의리때문에 수화기에 손을 가져갔었네. 자네도 알다싶이 난 이런 일에 끼우는걸 제일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않나.》
《고맙네, 림송. 자넨 제때에 나를 구원해주었네. 난 언제나 자넬 자신처럼 믿어왔네. 그리고 또 자넬 믿고 모험을 해야겠네.》
듀페이는 진중한 눈빛으로 림송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외투섶을 펼쳤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자그마한 종이장을 펴들고 꼼꼼히 훑어보더니 그냥 손에 쥔채 림송을 다시 건너다보았다.
《난 이틀후까지 정말 몸뺄 짬이 없네. 이걸 보급장교인 훼이트소좌에게 가져다주게. 사실 이건… 자네에게도 비밀이지만… 이번 〈리퍼작전〉과 관련한 보급품목록이네. 시기성으로 보아 내가 받은 선불금의 열배값은 나갈걸세. 난 회사측이 만족하리라고 믿네. 이 자료를 줄 때 내가 보수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전하게！…》
《듀페이, 자넨 날 자기의 개인련락장교로 생각하는게 아닌가？ 난 자네에게 위험의 경종을 울리는것으로 내 임무는 끝났다고 보네.》
림송은 한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를 랭랭하게 마주보았다. 듀페이는 조급한듯 불안스레 눈을 번득이더니 림송의 팔을 덥석 잡았다.
《림송, 이왕 친구를 살려줄바엔 끝까지 책임져주게. 자넨 내가 군법회의에 나서길 원하나？ 지난 가을 우리사이에 있은 모든 일은 제발 다 잊어주게！ 부탁이네！》
《좋네, 듀페이. 내가 자네 부탁을 안들어주면 자넨 내가 복수심이 있다고 생각할걸세.》 하고 림송은 그가 내미는 종이장을 받아 대충 읽어보았다. 《이거야 사단정보과에나 발송되는 보급품목록이 아닌가？… 듀페이, 자넨 보급장교앞에서 날 따분하게 하려는건 아닐테지？…》
림송의 말에 듀페이는 활기를 띠며 얼른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

다. 지금 이 순간 림송이 알고싶은것은 그가 방금 말한 《리퍼작전》 정보였다.

《림송, 그옆의 수자를 보게. 보급장교들은 그 수자가 무엇인지 알고있지. 그 레숀통과 특수락하산을 주문받게 되는 군수업체는 이번 기회에 대폭리를 얻을걸세.》 하고 듀페이는 서둘러 말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죽였다. 《이번 〈리퍼작전〉은 에니스준장이 워싱톤과 도꾜의 장령들에게 앞으로 있게 될 〈레인보작전〉을 설명하려는 교향악의 서곡같은것이네. 즉 〈리퍼작전〉은 〈레인보작전〉의 1단계란 말이네. 내 말을 알겠나? 자네와 문용채씨가 선발한 국군장병들은 이미 특수훈련을 끝냈네.》

《그러니 작전은 곧 시작되나?》

림송은 담배곽을 열며 무심한 어조로 물었다.

한순간 듀페이의 눈길에 경계하는 빛이 얼핏 떠올랐다. 그는 무엇인가를 후회하는듯 입술을 깨물더니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림송, 미안하네. 난 너무 많이 지껄인것 같네. 정보사업의 규률은 자네도 알테지?… 그리고 난 그외것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네.》

림송은 자기가 실수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림송은 천천히 성냥불을 켜들었다.

《자네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리라고는 생각 못했네. 도대체 난 그 정보의 계선을 모르겠구만. 이 군수품목록이 붉은정탐의 손에 들어간다면 그건 정보자료가 되지 않을가?…》

림송의 말은 듀페이의 얼굴에 문득 의혹과 불안을 실어왔다. 그는 짧은 순간 림송을 치떠보더니 별안간 회색눈에 미소를 지었다.

《림송… 자네의 말은, 아니 충고는 나를 놀라게 했네. 알겠네. 난 방금 한 자네의 말을 놓고 겐지로중좌를 생각했네. 고백하네만… 그는 자네를… 오래전부터 붉은정탐, 아니 제3국정탐으로 여기고있네. 그러나 난 자네가 믿을수 있는 장교라는걸 이젠 확신할수 있네!…》

듀페이의 말은 림송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으나 그는 인차 폭소를 터뜨릴수 있었다.

《3국정탐이라… 겐지로씨의 환상은 나를 기쁘게 하는구만. 솔직히 말해서 난 정보련락장교로 전임한후에도 나에게 과연 정탐가의 기질이 있을가 하고 은근히 걱정했었네!… 하하하.》

듀페이는 외투를 다시 뒤집어쓰고 림송에게 손을 내밀었다.

《림송, 그럼 부탁하네. 난 밖에 세워둔 승용차의 발동도 끄지 않은채 올라왔었네.》

이튿날 아침 림송은 수림이와 함께 대구서북쪽교외에 있는 다방으로 갔다. 보급장교와는 그곳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여있었다. 림송은 처음 혼자 가려고 생각했으나 장교구락부 현관에서 수림이를 만나자 결심을 바꾸었다. 그는 분명 듀페이가 밤에 《사무소》를 나와 자기를 만났던 일을 겐지로네들이 알고있으리라고 생각했다. 만약 방첩과가 이것을 놓친다면 《사무소》헌병대의 눈이 대신했을것이였다. 그리고 림송의 전화는 겐지로의 잠을 깨웠을것이고 그가 보급품목록일을 파고들것은 분명하였다. 이 경우 림송이나 듀페이에게는 하나의 보호책이 있었다. 그것은 에니스의 보좌관인 듀페이가 지금까지 《사무소》의 보급물자건을 8군병참기지사령부에 문건으로 제출하게 되여있기때문이였다. 듀페이도 이 연막속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하경제》를 운영해왔던것이다.

림송은 수림이와 함께 가는것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는 자기의 위치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늦겨울의 진눈까비가 내리는 음산한 아침이였다.

길옆의 헐벗은 숲에서는 갈가마귀떼가 무리지어 기여다니며 소란스레 울었다. 차거운 눈바람이 군용찌프의 차창을 맞받아 불어올때마다 수림이는 몸을 움츠리고 운전대를 잡은 림송의 어깨뒤로 얼굴을 피하군하였다.

《수림이, 추우면 내 비옷을 걸치지.》

《일없어요. 난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판길을 달리길 좋아했어요. 지금도 날씨만 좋다면 즐거울거예요.》

그 녀자는 퍼렇게 언 입술을 겨우 놀리여 방그레 웃었다.

《난 이런 흐린 날씨가 좋소. 남성적이거든.》

《어쩐지 이렇게… 림송씨와 산책하는것이 별나군요. 그렇게도 유흥이나 개인생활을 위한 시간을 내기가 힘드세요?》

그 녀자의 말에서는 일종의 서글픔과 호소가 풍겼다.

림송은 시무룩이 웃었다.

《난… 순간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오늘도 친구의 부탁이 아니였다면 떠나지 않았을거요.》

그러자 수림이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였다.

《림송씨,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나무람 말아주세요.》 하고 문득 강수림은 약간 수심에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전 어쩐지 요즘 한순간 한순간이 두려워요. 막 몸서리를 칠것처럼… 타자지들을 품에 넣고 다니기때문이라고 생각지는 말아주세요. 이상한 일이지만 그걸 간직했다가 당신에게 전해주는건 오히려 저의 큰 행복이랍니다. … 전 그 사람이 무서워요.》

《겐지로말이요?》

림송은 그 녀자의 창백해진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알고있군요. 난 벌써부터 당신에게 이 말을 하려 했어요. 그는 제가 대구에 나타난 첫날부터 치근거리며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걸 남자의 정열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절 자기의 첩자로 만들려 하더군요. 그는 제가 림송씨를 사모하는걸… 알자 더욱 자주 절 찾아왔어요. 난 당신이 사무엘씨를 돕기 위해 경제정보를 입수한다고, 그래서 나도 도와준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붉은정탐이라고 했겠지.》

림송은 그 녀자를 돌아보지 않은채 웃으며 중얼거렸다.

《아이, 어쩌면… 당신은 그 말을 하기가 두렵지 않으세요? 난 처음 놀랐어요. 만약 림송씨가… 3국정탐이라고 해도 난 소스라치게 놀랐을거예요. 하지만…》

《아가씬 그래 나와 알게 된게 겁나지 않소?…》

림송의 말에 강수림은 세차게 도리머리를 했다.

《아니예요! 아니예요… 난 당신이 평양을 위해 일하든 런던이나 모스크바선이든 그런건 알고싶지도 않아요. 도대체 전쟁이란 뭘가요? 결국 우린 조선사람이 아니나요? 누가 승리하든 난 림송씨와 함께 태평양너머 먼 해변가에 가서 일생을 안식속에 지낼수만 있다면… 제가 너무… 세태적인 녀자라고 비웃지는 마세요. 전 당신에게 위험이 닥쳐오면 함께 죽어버리겠어요. …》

약간 흥분한듯싶은 녀인의 목소리는 다소 떨리였다.

림송은 차속도를 늦추었다.

《진심을 말해주어 고맙소. 왜 죽겠소? 살아서, 승리해서 행복해야 하오. 겐지로중좌의 앞에 가서도 그렇게 말하시오. 림송은

운명에 순종하는것이 아니라 견결히 도전하려는 인간이라고! 난…적수를 대할 때 그보다 더 강한 인간이 되여야 한다고 늘 생각하오. 전쟁과 인간! 그중에서 누가 이기는가 두고봅시다. 구태여 말한다면 나의 인생관은 이렇소! 아가씨, 난 보수를 바라고 이 도시에 나타난게 아니요! 그때 뉴욕공항에서 사무엘씨가 뭐라고 말했던가요?…》
림송은 웃으며 수림이를 돌아보았다.
그 녀자는 맥이 풀린듯 목을 움츠리며 나직이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녀자는 길쌈을 삼고 남자는 검을 쥐여야 한다고 했어요.》
《참, 그렇게 말했지… 생각나오.》
멀리 레스토랑건물이 보였다. 8군보급장교들을 위한 유흥시설을 갖춘 철야식당이였다. …
림송은 이날 오후 에니스준장의 호출을 받았다. 림송이 《사무소》 집무실에 들어서자 에니스는 충혈된 눈을 슴벅이며 기지개를 켜더니 자리를 권했다.
《앉게, 대위. 요즘도 장교구락부에선 탕고음악이 계속되나?》
《준장님, 전호속으로 나가는 장교들에겐 활기가 필요합니다.》
림송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전쟁과 음악! 너무 경박하거든. 우린 하루종일 서류더미속에 묻혀 먼지를 마시고있는데 그들은 술과 음악과 녀자에 빠져있단말이요! 너무 진부하거든! 대위, 자네도 조심하게. 요즘 자네의 주위를 그 눈매 아름다운 녀성이 싸고돈다는 여론이 있네. 난 질투심이 비낀 나의 장교들의 입씨름을 탓하고싶진 않네. 왜냐하면 나 역시 나이찬 딸을 가진 아버지기때문이네.》
《준장님의 충고를 명심하겠습니다.》
《됐네, 됐어. 그래 말해보게. 물론 대위는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테지? 이 로병이 자넬 따돌리고 이 승냥이굴에 박혀 무슨 음모를 꾸미고있을가 하고 생각할테지?…》
에니스는 워드까잔을 자기앞으로 당겨오며 중떠보는 시선으로 림송의 안색을 살폈다.
《준장님, 난 정보사업에는 비밀한계가 있다는데 대해서 리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답은 나를 만족시켰네. 난 그래서 어제밤 규률을 어기고

전화로 듀페이를 만난 일과 또 중좌가 병영을 탈주한 일도 상기시키고싶지 않네.》
에니스는 의자에 몸을 묻고 술을 찔금찔금 마시기 시작했다.
《준장님, 난 그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추궁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이 늙은 승냥이가 다 알고있구나. 하지만 눈빛을 보아선 의혹을 품거나 추궁하려는 기색이 아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전화를 걸었기때문에 오히려 안심할수 있을것이다. 이건 앞으로 참고할만한 일이다. …)
에니스는 졸음기가 실린 눈으로 림송을 유심히 건너다보았다.
《됐네, 됐어. 나역시 우정을 귀중히 여기던 시절이 있었네… 림송, 난 이번에 작전준비를 결속하면서 자네가 국군사단들에서 인원선발을 옳게 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네. 역시 자넨 자기 민족의 성격과 특징을 알고있었네. 그래 자넨 우리가 선발대를 파견한다면 어느쪽을 택하는게 좋을것 같나? 듀페이조와 스케몬소좌중에 말일세.》
한순간 림송은 대답을 주저하였다. 분명 에니스의 물음은 그 《리퍼작전》과 관련된것이였다. 모든 일에 주도세밀한 에니스는 이 문제를 결심하면서 심사숙고했을것이며 림송과 함께 인원선발에 참가한 문용채에게도 물었을것이다. 문득 림송은 문용채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륙군정보국출신이 아니라 전선사단성원들이 기본인 스케몬조에 관심을 가지고있었다. 림송은 그속에 문용채가 선발한 특수인원들이 들어있음을 느꼈었다. 아직 듀페이는 이곳에서 쓸모가 있었다.
림송은 에니스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명료하게 대답했다.
《준장님, 전 스케몬조를 추천하고싶습니다. 듀페이조는 정보국출신이긴 하지만 대부분 화약냄새를 맡지 못한 성원들입니다. 난 전선에서 죽음과 피를 본 ××사단출신들을 추천합니다.》
림송의 대답은 문건상에 기초한것이였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전선사단출신들은 총 한방 변변히 쏴보지 못한 군인들이였고 반면에 정보국성원들은 후방에서 근무했지만 반공정신이 강한 《서북청년단》출신들이였다. 림송은 승냥이처럼 위험한자들을 선참으로 아군의 후방에 들여놓고싶은 생각이 없었다.

에니스는 한참 말없이 무슨 생각을 하더니 쓰거운듯 입맛을 다셨다.

《알겠네. 자네의 실용적인 두뇌가 마음에 드네. 하긴 국군정보국이라는게 한개 사설정탐기관만도 못한곳이였으니까. 림송대위, 자넬 부른건 내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네.》

《전 언제든지 준비되여있습니다.》

림송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차렷자세를 취했다.

에니스는 책상우에 쌓여있는 문서들을 림송에게 내밀었다.

《자네가 이전에 하던대로 이 정보문건들을 분석하고 처리하여 해당부서에 넘겨주게. 보잘것없는 일이라 생각지 말고 성실하게 일해주게. 난 지금 눈코뜰새없이 바쁘네.》

림송은 문건철을 받아들었다. 그가 돌아서서 나가려는 순간 대리인인 벤다프대좌가 들어섰다. 대좌는 림송을 일별하고 서둘러 에니스에게로 다가갔다.

《준장님, 이번 〈리퍼작전〉회의에서 겐지로방첩과장을 그어버린 일로 도꾜에서 비난이 있었…》

《대좌, 당신은 타인이 있는데서는 작전과 관련한 그 어떤 말도 엄금할데 대한 나의 지시를 잊었소?》

별안간 에니스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좌를 질책했다.

대좌는 얼굴이 해쓱해진채 림송을 돌아보았다.

《준장님, 난 림송대위를…》

《물론》 하고 에니스는 다소 누그러진 목소리로 주석을 달듯 말했다. 《림송대위는 내가 누구보다도 믿는 나의 특수련락장교요. 하지만 우리 사업의 규률에 대해선 나나 당신이나 다 책임져야 하오. 알겠소? 대좌.》

《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대좌는 얼어든 목소리로 나직이 대답했다.

등치고 배만지는듯한 에니스의 경계심어린 교활한 감언리설을 무심히 듣고있던 림송은 문득 눈길이 벽에 가서 굳어졌다.

림송은 늘 자기의 관찰력을 믿어왔고 또 그것을 단련시켜왔다. 며칠전에 이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에니스의 모자와 방한복이 출입문이 있는 동쪽벽에 걸려있는것을 보았었다. 그런데 창문 맞은켠의 벽에 그의 군모가 걸려있었다. 《모나리자의 초상》모사품곁의

이 옷걸개는 새로 생긴것이였다.
 한순간 림송의 두뇌는 예민하게 움직였다.
 (도이췰란드인 사무원 같은 기질을 가지고있는 이 늙은 정탐배가 왜 갑자기 방구조를 바꾸었을가? 아니… 방구조를 바꾼것이 아니라 단순히 새로 모자걸개를 만들었을뿐이다… 하지만 내가 알건대 에니스는 이런 변동을 좋아하지 않을만큼 실무적이고 완고하다. 그의 침실의 원탁우에는 늘 워드까병과 술잔과 커피주전자가 고정된 자리에 놓여있다. 지어 그는 식사를 할 때 듀페이가 실수하여 왼쪽에 앉으면 즉시 엄하게 추궁했었지. 듀페이는 늘 오른쪽 첫번째 의자에 앉아야 했다.… 모자걸개… 새로 생긴 모자걸개… 저것이 에니스의 변덕인가?… 아니면…)
 에니스는 자리에서 움쭉 몸을 일으키더니 짧은 사색에 잠겨있는 림송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는 림송의 창백해진 얼굴을 유심히 내려다보았다.
 《나의 말을 오해하지는 말게… 8군부사령관이 이 방에 서있대도 난 그렇게 말했을걸세. 자넨 이번 작전회의에 방첩과장까지 제외시키는걸 보면 그 중요성을 리해했으리라고 보네!》
 《준장님, 난 그 말씀을 저에 대한 신임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네, 가보게!》
 림송은 비록 그가 눈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띠우고있지만 그속에 심상치 않은 살기가 뻗치고있음을 직감했다.
 림송은 문건철을 들고 지정된 장소인 문건복사실로 들어갔다.
 그는 책상우에 문건철을 내려놓고 담배를 꺼내물었다. 옆방에서는 녀성타자수들이 재잘거리며 타자기단추를 누르는 규칙적인 소리가 소란하게 들려왔다. 림송은 원형창문으로 다가갔다. 이곳에서는 사령부 뒤마당이 내다보였다. 8240부대의 기본병영이 있는 눈덮인 수림기슭이 멀리 눈에 안겨들었다. 림송은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사색에 잠겼다.
 (그러니… 《리퍼작전》은 오늘래일로 박두했다.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알아낼것인가? 《레인보작전》을 위한 선발대인것만큼 인원은 스케몬조성원을 넘어서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최신형 파괴수단과 정보특수교육을 받은 이천오백명은 적군사단무력보다 효과를 낼수 있다. 놈들이 투하될 작전지대는 어딜것인가?… 분견대

장들도 출발직전에야 그걸 알것이다.

그런데 에니스의 규칙적인 생활에 생긴 빈 구석을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새로 나타난 옷걸개, 보좌관 듀페이의 창발성인가? 아니면?…)

림송은 상념에 잠긴채 무의미하게 중얼거리며 문건철을 손에 들었다. 그는 지투에 소속된 첫 시기에도 사무실에 박혀 이런 문건연구에 시간을 보낸적이 있었다.

야전병원에서 돌아온후에 림송은 에니스의 명령으로 8군정보부문서과 사업을 방조했었다. 물론 이것은 정보부사업내용을 인식시키려는 준장의 의도에서였다. 림송은 그의 지시로 괴뢰군장병들의 인원선발과 그 신원문건조사에 동원되기전까지 타자지들을 주물러야 했다. 그것은 정보원천을 넓히는데서는 의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사단정보과들이 상관들의 추궁을 받을가봐 고심하여 짜낸 일일전선정찰보고들과 극동군사령부가 발송한 기타 일반문건들이였다. 극비문건들은 례외없이 직접 련락장교들이 준장의 방으로 가져갔고 그것은 대리인들이나 보좌관의 눈에도 띄지 않은채 그의 금고속에 보관되였다.

림송은 오늘 에니스로부터 최근 정보문건들을 분석하고 처리하여 지투의 5부인 행정부 자료수집발송과에 넘겨줄데 대한 임무를 받았었다. 그 정보문건들은 특수문건 이외의 산하 정보기관들과 부대정보과들에서 보내온 일일보고문건들이였다. 림송은 손때묻은 정보자료등록일지, 정황지도, 사업일지, 정보문건철 등을 펴놓고 계속 사색을 이어갔다. 지투의 정보자료의 평가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다섯가지 기준이 있었다. 우선 정보자료가 실제적으로 가능한가? 모순되지 않는가? 다른 자료들과 일치하는가? 현재 보유하는 자료와 어느정도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느 자료가 정확한가? 그로부터 다음과 같은 평가가 내려지게 된다.

A—완전히 믿음직한것 (확증)
B—믿음직한것 (정확)
C—어느정도 믿음직한것 (보유)
D—믿음성정도가 상시적이 못되는것 (의문)
E—믿음직하지 못한것 (반신반의)
F—믿을수 없는것 (보류)

정보자료의 처리과정은 1. 정황, 2. 상대측 자료, 3. 정보자료의 선택, 4. 정보자료의 체계화, 5. 예견, 6. 결론의 형식을 띠게 되며 해당과에서 상급, 관하 및 린접 참모부로 발송하게 된다.

림송은 지투에 들어온 첫날부터 정보국의 모든 부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아는것은 곧 힘으로 될것이였다. 미제침략군 제8군사령부 정보부(지투)는 정보부장과 보좌관, 대리인들외에 5개의 기본부서를 가지고있었다. 즉 일반정보부(제1부), 방첩부(제2부), 특수정보부(제3부), 사진지도작성부(제4부), 행정부(제5부)였다. 제1부에는 전략전술정보과, 상대측 전투편성등록과, 획득문건처리과, 심문과, 작전실, 목표분석과로 되여있고 제2부(씨아이씨)는 부대안전보장과, 주민방첩보장과, 항구검열과, 특수방첩대책과, 제3부에는 상대측 후방정보과, 통신수단정보과, 포로전문교육과, 과학기술과가 있으며 제4부에는 작전과, 지도과, 도표과, 지형 및 수문과, 항공사진촬영과, 기상과가 있고 제5부에는 자료수집발송과, 도서, 문건처리실, 문건복사과, 인사과, 재정 및 보급과, 통신장교과가 있었다. 림송은 지투의 구조를 파악한데 기초하여 라이리 에니스준장이 장악한 부서와 과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 정보수집에 유리한 국면들을 찾아낼수 있었다. 우선 획득문건처리과는 에니스준장이 파견되여오면서 새로 생긴 과로서 전적으로 그에게 복종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중요 정보자료들은 에니스준장의 손을 거쳐 도꾜의 윌로우비에게 전달되게 되여있었다.

림송은 담배를 피워물고 정보문건들을 뒤적이기 시작했다.

문득 림송은 한장의 공중정찰요청서를 보았다. 흔히 보는 요청서 사본이였다. 그것을 뒤집어놓으려던 림송은 별안간 요청서의 날자와 수표를 보고 흠칫 놀랐다. 그것은 어제 작성한 문건이였다. 요청자는 다름아닌 스테쎌 듀페이중좌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공중정찰요청서에 듀페이의 서명이 있다니? 그러면 《리퍼작전》은 단순한 항공정찰에 불과한것이란 말인가? 아니다. 그럴수 없다. 공중정찰은 사단이나 군단계선에서도 자의로 조직하는 일반정찰수법이다. 그렇다면 이 문건은 어떤 지점에 대한 락하산투하를 은폐할 목적으로 꾸며진것이 아니겠는가?…)

요청서에는 요청자와 임무수행절차, 정찰구역과 도로 및 대상물,

정찰시간, 획득해야 할 정보자료의 륜곽 등이 씌여있고 정찰구역에 배치된 아군지상화력기재와 그 좌표, 항공사진촬영에 필요되는 항공사진종류 (평면, 전경, 기타), 축척, 필요시간, 부수 등이 지적되여있었다. 림송은 문건을 연구하는 과정에 또하나의 중요한 실머리를 발견하였다. 그것은 제시된 정찰필요시간과 표시된 정찰구역좌표사이에 커다란 불일치가 생기는것이였다. 요청서는 하나의 형식적인 위장문건에 불과하였다. 림송은 정찰기의 제원과 필요시간을 놓고 지도우에서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러자 림송은 정찰기가 리륙지점으로부터 전선근방이 아니라 전선서부의 종심깊이까지 비행하게 된다는것을 깨달았다. 림송은 수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것은 듀페이의 필적이 아니였다. 림송은 참모학교시절부터 듀페이가 기자나 은행가들이 쓰는 멋진 수표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에니스는 물론 《리퍼작전》을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운만큼 특공대투하에 관한 준비도 빈틈없이 했을것이다. 그러나 8240부대에는 항공기가 없다. 부득불 8군사령관에게 요청서를 냈을것이다. 《레인보작전》이 일부 장령들의 반대를 받고있는만큼 그는 요청서에 작전내용을 밝힐수 없었던것이다. 그는 《리퍼작전》의 성공을 통해 8군장령들과 나아가서 도꾜의 작전가들을 깜짝 놀래우려 하고있다. 《레인보작전》을 앞두고 지지파를 얻으려 하고있다.

…그가 요청서에 듀페이의 가짜수표를 새겨넣고 이렇게 일반문건속에 사본을 넣은것을 보면 한편 캐논방첩기관에 비밀이 새여나가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 … 아까 보지 않았는가. … 겐지로를 경계하고있다. …) 림송은 사색을 이어나갔다. (그러니 문제는 작전지대, 특공대의 투하지점이다. 작전지도… 단 한순간, 일초라도 그것을 볼수 있다면! … 아 한순간, 일초라도…)

림송은 다시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네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대답해야 한다는것을 절감하고있었다.

적들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파괴 및 정탐훈련을 받은 락하산특공대로 특수작전을 하려고 한다.) 적은 언제 시작하려고 하는가? (가까운 시일내에… 날자는 모르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적어도 한주일내로 봐야 한다.) 적은 어디서 시작하려 하는가? (아군 후방에서. 구체적인 지역은 전혀 모른다. 이것이 기본

이다！…) 적의 력량은 어떠한가？ (한개 혹은 많아서 두개 분견대이다. 그것은 특공대조장들중 두명, 즉 듀페이중좌와 스케몬소좌만이 병영에 《연금》되여있기때문이며 오늘 에니스의 질문이 확증해준다. …)

날이 어두워지자 림송은 문건복사실을 나섰다. 그는 8240부대 사령부청사를 나와 검문소옆의 승용차로 다가갔다. 밤이 되자 다시 땅은 꾸득꾸득해졌다. 림송은 승용차문을 열었다. 뜻밖에도 운전석에는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쓴 사나이가 앉아있었다.

림송은 승용차문을 잡은채 어둠속을 들여다보았다.

《누구요？》

《레이몬드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기다리고있는중입니다.》

레이몬드는 불빛이 환한 사령부청사쪽을 올려다보며 나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림송은 아무말없이 승용차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방첩기관장교들이 강수림아가씨가 든 장교숙소를 포위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체포령장에 수표를 받으려고 8군사령부 정보부에 찾아간 겐지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나의 친구가 방금전에 기자단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겐지로가 도착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있을것 같소？》

긴급한 정황이였으나 림송의 목소리는 침착하게 울렸다.

《글쎄요. 8군사령부장령들이 매일 함께 식사후에 차를 마시러 장교식당에 들리군하니까 30분이상은 걸리지 않을것입니다.》

림송은 한순간 생각에 잠겼다. 캐논기관이 벌써 집을 포위한 조건에서 직접 그 녀자를 구원하는것은 하나의 모험이였고 시간적으로도 늦은 일이였다.

림송은 에니스준장을 만나 지투명의로 된 체포장을 받으려는 생각도 해보았으나 그사이면 능히 겐지로가 그 녀자를 체포할것이였다.

림송은 문득 아침에 레스토랑으로 가면서 그 녀자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또 그 녀자가 보급장교를 상대로 춤을 추다가 저으기 지친 표정으로 자기옆에 다가오던 일이 생각났다. 그때 림송은 식탁우에 놓인 커피잔을 마시면서 《리퍼작전》에 대한 모색에 잠겨있었다.

강수림은 림송의 옆의자에 조심스레 걸터앉아 례의 그 서글픈 한

숨을 내쉬였다.

《왜, 더 춤출 생각이 없소?》

《어쩐지 속이 울적하군요. … 인생의 종말이라도 온것처럼… 당신이 걱정되고… 림송씨는 아까 웃으며 말했지만 전 두렵군요. 전 며칠전에 몇장의 타자복사지를 잃었어요… 분명 방첩기관이 저의 가방을 수색한것 같아요. …》

그때 림송은 그 녀자의 눈길을 바라보았었다. 그 녀자의 눈에는 진심으로 피로와하고 두려워하는 녀성적인 나약성이 드러나있었다.

(수림의 그 눈빛이 지금 내 가슴을 짓누르는것은 무엇때문일가? 아니다… 더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 녀자는 그때에도 두려워하고 피로워하고 의기소침해있었다. … 순진하고 단순한 그 녀자의 인생이, 때로는 경망하고 리기적이기도 한 그 녀자의 운명이 지금 위협당하고있다. 구원해야 한다… 겐지로는 결국 나때문에 그를 체포하려는것이다. …)

《아담스씨, 지체없이 장교숙소로 차를 모시오.》 하고 림송은 단호한 어조로 짤막하게 부르짖었다.

승용차는 늦겨울의 찬바람이 몰아치는 교외도로를 따라 쏜살같이 달렸다. 질척하게 녹아흐르던 길가의 물웅뎅이들이 다시 꽛꽛하게 얼어붙어 승용차바퀴를 물어뜯었다.

승용차가 장교숙소가까이에 이르자 림송은 한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내가 너무 서두르는것이 아닐가? 그 녀자는 사무엘회사의 일을 도왔다. … 필요한 경우 미중앙정보국에, 그보다도 에니스에게 부탁하는것이 옳지 않을가?…)

문득 강수림이를 두고 주의를 주던 리준구의 말도 생각났다.

림송은 이마를 가볍게 찌프리며 차에서 내려섰다.

장교숙소주변에는 사복을 입은 겐지로의 방첩장교들이 어슬렁거리고있었다.

《겐지로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군요, 림송씨.》

아담스가 그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림송은 아무말없이 모자를 눌러썼다.

그들은 수군거리는 방첩장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장교숙소정문으로 뚜벅뚜벅 걸어들어갔다. 이상한 불안감이 대리석층계를 밟

는 림송의 가슴을 엄습하였다.

강수림의 방문은 걸려있지 않았다. 림송은 무작정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기의 손으로 그 녀자를 체포하여 에니스준장앞으로 데려갈 작정이였다. 그 녀자를 구원할수 있는 방도는 이 길밖에 없었다.

그의 머리속에는 벌써 하나의 빈틈없는 방안이 형성되여있었다.

방에 들어선 순간 림송은 가슴이 섬찍하였다. 군복저고리를 벗은 수림이가 갈색와이샤쯔바람으로 침대에 쓰러져있었다. 부드러운 장발의 검은 머리가 그 녀자의 해쓱한 얼굴에 흩어져있었다.

림송은 황급히 달려가 그 녀자의 몸을 안아일으켰다. 눈을 감은 그 녀자는 겨우 신음소리를 낼뿐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수림이, 무슨 일이요? 정신차리시오!》

림송은 그 녀자의 어깨를 흔들며 부르짖었다. 뒤따라 들어선 레이몬드가 급히 물고뿌를 가지고왔다. 림송은 물고뿌를 받아들고 그 녀자의 마른 입술에 가져갔다. 그순간 수림이가 눈을 떴다. 그 녀자는 그 애틋한 눈매를 치켜들고 한참동안 림송을 올려다보더니 이윽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어쩐지 이 순간 그 녀자의 얼굴에는 평온한 기색이 떠올랐다.

《림송씨, 끝내 오셨군요. … 전 기다렸어요. … 이젠 필요없어요. … 난 놈들이 체포하러 온다는걸 알자 모든것이 끝났다는걸 깨달았어요. … 난 놈들의 고문에 못견디여 당신에게 위험이… 그게 두려웠어요. …》

강수림은 목이 타는듯 겨우 속삭이였다.

《아가씨, 왜 그런 나약한 소릴 하오. 우린 당신을 구원하러 왔소. 마음을 놓소.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오.》

림송은 예리한 눈길로 그 녀자를 내려다보며 격려하듯 말했다.

레이몬드는 침대옆 탁상우에 딩굴고있는 독약병을 발견하자 천천히 그 녀자의 얼굴을 외면하였다. 그리고는 독약병을 손에 들더니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림송씨… 절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고 나무람 말아주세요. … 뉴욕시절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 이제는 이 말을 하기가 어렵지 않군요. 인생은 짧고 청춘은 아쉽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묻고싶은게… 있어요. … 림송씨, 당신은

누구세요?…》
창백하던 강수림의 해맑은 얼굴에 발그레한 기운이 한순간 비꼈다.
그것은 마치도 스러져가는 저녁노을빛과도 같았다.
그 어떤 호소와 희망과 절절한 바람의 빛갈이 그 녀자의 커다란 맑은 눈가에 실렸다.
림송은 이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하는것 같은 종잡을수 없는 감정을 체험하였다.
림송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레이몬드가 독약병을 들고 위생실로 들어갔다.
림송은 이 숨져가는 녀인앞에서까지 자기가 왜 자신을 억제해야 하는지 가늠할수 없었다. 이 녀자는 진실을 바라고있다.
《림송씨, 전… 타자지를 복사할 때마다… 그게 이 전쟁을 반대하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가닿기를… 기원했어요. 제가… 마음놓고 눈을 감게 해주세요. 네? 당신은…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은 저 겐지로같은 더러운 인간들과는… 다른분이지요? 네?…》
수림이의 숨결은 겨우 이어지는듯 호흡이 빨랐다.
림송은 억센 손길로 수림의 연약한 손목을 으스러지게 틀어쥐였다.
《수림이…》
림송은 대답을 하려고 그 녀자에게로 머리를 숙였다.

장교숙소앞의 헐벗은 아카시아숲속에 차를 세워놓은 브라운 겐지로 중좌는 얼어들기 시작하는 손가락으로 군복소매를 들추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다간 동태귀신이 되겠는걸!…)
그는 오만상을 잔뜩 찌프리고 방한복을 뒤집어쓴 키가 껑충한 장교를 손짓으로 불렀다.
《레이몬드가 림송대위를 어디서 만났소?》
《사령부검문소앞의 승용차안에서 기다리더군요.》
방한복을 입은 장교는 추운지 굳은 혀로 우둘우둘 떨며 대답했다.
《림송대위가 곧장 장교숙소로 왔나?》
《그렇습니다. 어찌 빨리 달리는지 겨우 따라왔습니다.》
《무슨 다른 눈치를 챈것 같진 않나?》
《우린 모든걸 계획대로 빈틈없이 했습니다. 기자단사무소의 우

리 첩자의 말을 레이몬드는 신용하고있지요.》
《빈틈이 없었다?》 하고 겐지로는 별안간 이를 드러내며 눈을 찌프렸다. 《빈틈이 없다는것들이 왜 도청장치는 안했어? 지금쯤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나말이요!》
《중좌님… 그건 쟈스민의 요구때문에… 우린 도청장치대신 방열기밑에 록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걱정할건 없습니다.》
장교는 히죽이 웃으며 제법 딴전을 피웠다.
겐지로는 쓰거운듯 입맛을 다시며 군복안주머니에서 위스키병을 꺼내들었다.
(제길! 이번엔 성공해야겠는데…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했지… 가면을 쓴 배우는 언제든지 실수할 때가 있는 법이다.)
브라운 겐지로는 평소에 자기를 늘 행운아라고 여겨왔다. 정치적성격을 띤 아슬아슬한 사건에도 많이 관계해왔고 살인을 업으로 하는 강도나 테로단의 총구앞에 적수공권으로 뛰여든적도 있었다. 조계지에서 활약할 때는 차집에서, 침실에서, 승용차안에서 불의의 저격도 받았었다. 하지만 그는 그 숙명의 외나무다리들에서 떨어진적이 없었고 귀중한 생명을 보존하였다. 그러한 행운이 어디서부터 온것일가? 일생 남편의 사랑밖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립신양명을 위해 정과 피와 노력을 바쳐온 어머니의 손길, 그 녀자가 성장한 아들의 목에 걸어준 호신부때문인가? 아니면 태고적 혹가이도의 이누이족들을 다스리며 야마도국가를 창설하는데 무사도의 심장을 바친 창국공신인 외켠선조들의 혼령이 마치 장미빛 안개마냥 그의 주위를 맴돌면서 늘 구원의 기슭으로 떠밀어주는것일가? 겐지로의 정열도 민첩성도 비상한 탐정적후각도 책략도 결국은 그러한 선천적뿌리에서 비롯되였기에 경험으로 탁마되고 륙감으로 체질화되고 확고부동한 결단성으로 굳어진것일가?
오늘 우주인과도 같이 정체불명한 한 사나이에 대한 그물을 준비하면서 그는 낚시군이 물고기를 낚는 마지막 순간에 체험하는 그 자신만만하면서도 짜릿한 불안감을 주는 독특한 조급증을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무엇인가 론리를 떠난 허전감이, 안정을 잃은 성급함이 온몸을 짓누르는것이였다. 하지만 렬차는 떠나면 굴러가는 법이다. 그 렬차는 다름아닌 행운의 렬차였다. 그 렬차에는 행운아인 브라운 겐지로가 타고있는것이다. 멎은적은 있었어도 탈선된

적은 없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이 순간, 발이 얼어들고 속이 얼어드는 이 시각 그는 기다림속에서 뜻밖의 성공의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부르던 십여년전의 상해 조계지생각이 났다. 상해에서 활동하고있는 공산당지하조직 인물 세명이 겐지로의 오랜 추적끝에 한 프랑스인의 저택에 찾아들게 되였다. 이 작전의 성공은 겐지로에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눈부신 전망을 약속하고있었다. 어쩌면 장개석은 그를 개인특별보좌관으로 삼을지도 모를 일이였다.

겐지로는 사흘밤을 말린 소고기를 씹으면서 프랑스인 저택 창문밑의 메마른 장미덩굴속에 엎디여있었다. 오줌과 그보다 더 구린내가 나는 걸죽한것이 범벅이 되여 그의 하반신을 적셨다. 그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였다. 그 의지는 참을성으로 나타났다. 사흘만에 작전이 시작될무렵 동업자인 중국인 형사가 공산당원들에게 배신적으로 정보를 넘겨주었다. 겐지로는 닭 쫓던 개모양으로 나앉게 되였고 《람의사》지부장의 호된 추궁을 받고 자포자기에 빠져버렸다. 하지만 행운은 그를 버린것이 아니였다. 그에게로 호리호리한 몸에 비해 류달리 엉뎅이가 큰 녀자가 다가왔다. 술과 청춘과 동시에 량심까지 팔며 생계를 유지하는 홍콩아가씨였다. 겐지로는 그 녀자의 치마꼬리를 붙잡고 또 이틀을 헤맸다. 그는 드디여 그 세 공산당원중의 한사람을 발견하였고 주저없이 권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가져갔다.… 어쩌면 그 사나이는 중국인이 아닌지도 몰랐다. 그는 기업인의 탈을 쓰고 상해림시정부에도 드나들던 인물이였다.… 이 테로작전은 고급호텔들과 외국인상점들의 곁을 개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지나다니던 브라운 겐지로를 《쌀롱》의 신사로 되게 하였고 사창거리의 얼굴이 누런 창녀들의 눅거리 사랑이나 받던 그의 곁에 허리가 잘룩하고 살결이 우유빛처럼 하얀 려염집아가씨들과 유한 마담들을 주런이 세워주었다.…

(그래 정탐가에게 있어서, 아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것은 기다림을 포기하는것이다.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며 최선을 다해 기다려야 한다. 적수보다 지혜로워야 하되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실패에서 락심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말했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제길 림송대위, 어쨌든 나와 겨루어보자. 이것은 나와 너의 마지막 결투로 될것이다. 행운은 나를 배반한적이 없고 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지…)

그는 속으로 쓰겁게 중얼거리며 병마개를 언손으로 비틀었다.
겐지로는 병채로 위스키를 한모금 마신후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중좌님, 숙소정문에서 신호합니다.》
방한복을 입은 장교가 급히 겐지로에게 다가왔다.
자동차는 즉시 발동을 걸었다. 겐지로는 군모를 내려쓰며 짤막하게 소리쳤다.
《중위, 급히 장교숙소로 모시오!》
군용찌프는 얼음버캐를 뽀얗게 일으키며 아카시아숲을 빠져나와 장교숙소쪽으로 달렸다.

《림송씨… 어서… 대답해주세요!》
강수림은 마른 입술을 감빨며 꺼져가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했다.
림송은 그 녀자의 눈을 뚫어지게 내려다보았다. 한순간 림송은 마음속에 봄날의 아지랑이같은것이 고요히 피여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래, 인간이란 진실앞에서는, 순결한 심장앞에서는 성실해야 한다! …)
그 순간 랭정한 리성의 목소리가 불시에 나약해지려는 감정을 눌러버렸다.
(아니, 난 한순간도 한초도 조국의 명령이 없이 박성일로 되돌아갈수 없다! 용서해다오, 녀인이여! …)
《수림이! 난… 아가씨와 같이 조국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사람일뿐이요. …》
림송은 자기에게 더 다른 말을 할 권리가 없다는것을 의식했다.
그러자 강수림의 축축한 눈기슭에 실망의 이슬이 맺혀 파들거리더니 방울져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눈물이 거짓일수야 없지 않는가! …)
림송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그 눈물을 훔쳐주었다. 강수림의 입가에 한찰나 엷은 미소가 떠올랐다.
《난… 당신이 반드시 내가 동경한 그런분인줄 믿었어요. … 어쩌면…》
고요한 미소와 함께 그 녀자의 눈속에서 타오르던 초불과도 같은 생명의 불꽃이 금방 꺼질것 같았다.

수림이는 이윽고 머리를 떨구어버렸다.
…창밖에서는 거리를 휩쓰는 겨울바람이 태동하고있었다. 그것은 안깐힘을 쓰는 몸부림처럼, 고통스러운 통곡소리처럼 림송에게 느껴졌다.
림송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옆방에 들어갔던 아담스가 급히 나타나 예리한 눈길로 림송을 바라보았다.
《림송씨, 난 한가지 당신에게 경고하고싶은게 있소!》
《뭐요?…》
아담스는 비웃는듯한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더니 주머니에서 독약병과 그 녀자가 마신 물고뿌를 내밀었다. 림송은 창황중에 의아한 눈길로 그를 마주보았다.
아담스는 수림이를 등지고 돌아서서 고뿌에 남은 독약을 기울여 쏟더니 단숨에 마셔버렸다.
순간 림송의 눈길이 굳어졌다.
레이몬드 아담스는 그저 빙그레 웃을뿐이였다. 이 순간 림송은…모든것을 깨달았다.
그 어떤 전률과도 같은 예리한 감정이 격하게 그의 마음속을 휘저었다.
복도에서 어지러운 군화자욱소리들이 들리더니 겐지로와 자동총을 든 방첩장교들이 뛰여들어왔다.
림송은 돌아보지 않았다. 겐지로가 침대곁에 꿇어앉아 그 녀자의 가슴우에 귀를 가져갔다. 그의 왼손에는 금방 잉크자욱이 마른 체포령장이 쥐여져있었다.
문득 겐지로가 얼굴을 들었다. 림송과 그의 눈길이 부딪쳤다.
《림송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겐지로는 약간 얼떠름한듯 물었다.
림송은 랭소를 지으며 외투주머니에 손을 찔렀다.
《중좌, 혹시 당신은 젊은 시절에 배우수업을 받은 일이 없소?》
《당신은… 나를 놀리는거요?》
《성낼 필요는 없소. 난 연극을 지휘하는 연출가가 때로는 배우연기에 진정으로 매혹될수도 있다는걸 강조하려 했을뿐이요!… 참, 관람료는 후에 내겠소!…》
림송은 겐지로에게 경례를 붙이고 급히 밖으로 나와버렸다.

제 15 장

림송은 방에 들어서자 차광막을 내리려고 창문가로 다가갔다.

밖은 벌써 캄캄하게 어두웠다. 장교구락부의 창문들에서 새여나오는 희미한 전등불빛에 눈내리는 어두운 거리풍경이 어슴푸레 내다보였다. 림송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도시교외의 《련락사무소》로 떠날 시간까지는 아직도 몇분이 남아있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벽난로앞으로 다가가 장갑을 벗었다. 난방시설이 불비한 8군공보처에서 시간을 지체해서인지 손이 싸늘했다. 그는 곱아든 손가락을 벽난로아궁이에 가져다댔다. 잘게 팬 장작들은 파란 연기와 진을 뿜어올리며 기세좋게 타오르고있었다.

이 며칠새는 《리퍼작전》을 위한 분견대성원들의 문건때문에 분망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만약 림송이 듀페이를 통하여 《리퍼작전》진행에 관한 륜곽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그는 자기가 다루는 문건들의 내막과 진의도를 전혀 모르고 일반 성원들의 상시적인 신원보고서 정도로 리해했을것이였다. 그러나 림송은 그 문건들을 정리하여 타자실로 가져가면서 그것이 언젠가 에니스가 묻던 전선사단출신 스케몬소좌조 성원들의 문건이라는것을 알았다.

《리퍼작전》은 《레인보작전》을 도꾜의 장령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시작한것이였다. 림송에게는 이 특공분견대가 투하될 작전지대를 알아내는것이 급선무였다. 이 분견대는 전선가까운 아군종심에 투하되여 8군의 주요무력과 합세하여 련합작전을 벌림으로써 우리 전선에 돌파구를 형성할것을 목적으로 하고있었다. 특공대는 첩보모략공작과 함께 지휘부습격,교량 및 군사시설물 파괴를 기본목적으로 오래동안 훈련받았었다. 또 실지 에니스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히틀러군대를 상대로 이러한 작전을 진행하여 일정한 경험을 가지고있었다.

《레인보작전》은 방대한 지역에서 제2전선을 펴는 이런 특공대들과 8군사령부관하군단들의 협동작전을 전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전반적전선에서 전환을 이룩하자는것이였다.…

림송은 곁에 놓여있는 나무토막을 집어 아궁이에 던져넣었다. 장작개비는 불티를 탁탁 튕기며 활활 타올랐다. 방안은 어두웠으나 난로불빛이 언듯언듯 비쳐 림송의 얼굴이 드러나군했다.

오늘은 설명절이였다. 림송은 방금전에야 그것을 상기했다.

지나간 그 시절,이날이 오면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도 콩보숭이가 다문다문 묻은 찰기장떡을 쳐서 아들의 마음을 무등 기쁘게 해주었었다. 언젠가 박달나무가 쩡쩡 얼어터지는 설밑에는 겨우내 움속에 파묻었던 우무기마다 연한 싹이 트기 시작한 보라빛 묵은 감자를 이런 장작불에 구워준 일도 있었다. 림송은 그날 행주치마자락에 군감자를 싸안고 야학방까지 찾아왔던 어머니의 그 모습을 잊을수가 없었다. 아직 온기를 잃지 않은 감자는 껍질을 벗기자 더운 김을 내며 노란 가루가 포실포실 일었다. 림송은 분이를 비롯한 동무들과 함께 입귀에 검댕이칠을 하며 그 감자를 먹다가 얼핏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광솔불빛에 드러난 어머니의 그 눈빛,또 한해의 년륜이 아로새겨진 어머니의 그 주름진 눈가에서 아들은 그때 무엇을 보았던가. 고생속에 키워온 아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설날마저 시름속에 보내야 했던 어머니는 군감자를 치마폭에 싸안고 눈길을 헤쳐오면서 무엇을 생각했던가.…

지금 림송은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고향집과 어머니의 그 얼굴을 생각했다. 다시 추억속의 그 구운 감자알을 손에 쥐여보는 림송의 마음은 이 순간 어쩐 일인지 외로왔고 쓸쓸해졌다. 그는 두눈을 감고 자기 심장에서 한순간도 뗄래야 뗄수 없는 그 모든것, 귀중한것에 대한 상념에 잠겼다. 어머니의 눈빛,달구지,바퀴자욱이 패인 동구길,눈냄새 그리고 구운 감자… 그것이 조국이였던가…

《방에 계셨군요.… 불을 켜드릴가요?》

림송은 조용하면서도 주저하는듯한 녀자의 목소리에 추억에서 깨여났다. 그는 벽난로앞에 앉은채 뒤를 돌아보았다. 열려진 출입문에 차관을 손에 든 한순정이 서있었다. 복도불의 후광에 용암된 그 녀자의 부드러운 몸매가 림송의 눈에 안겨들었다.

두사람의 눈길이 희뿌연 허공의 한점에서 부딪쳤다.

한순간 림송은 가슴이 섬찍해지는것 같은 이상하고 짜릿한 행복감을 동시에 느꼈다. 얼굴이 그늘져서인지 녀자의 얼굴은 어린 시절의 분이의 모습과 너무도 같아보였다. 뜨거운 사랑의 격류와 기쁨

이 림송의 온 심장을 가득 채웠다.

림송의 류다른 행동과 침묵에 한순정 역시 몸이 얼어든듯 주춤거렸다.

(순정이, 아니 분이… 우린 이렇게 또 만났구려…)

(그래, 성일오빤 제가 놓쳐버린 연을 찾았는가요?…)

(찾았소. 그것이 바로 내 조국이였고 보람찬 내 삶, 내 희망이였고 또 당신이였소.)

이것이 누구의 물음이고 누구의 대답일가? 림송은 그것을 캐고 싶지 않았다.

다만 명백한것은 그 녀자의 눈이 말보다도 더 진실하게, 정확하게 모든것을 묻고 설명하고 표현하고있었다.

(그럼… 어쩜 우리의 상봉은 이렇게도 서먹서먹할가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으세요? 제가 반생을 기다린 사람, 사랑과 우정을 약속한 당신이 아닌가요?…)

(아니… 분이, 그보다도 당신은 적의 군복을 입은 나를 반신반의할수밖에 없을거요. 그리고 나는 조국의 명령이 없이는 한순간도 박성일로 돌아갈수 없는 사람이요. 량해하여주시오.)

(좋아요. 저 역시 우리의 상봉은 승리한 그날에 있으리라 믿고 있어요!)

(고맙소, 분이!…)

과연 그들의 눈맞춤은 이런 의미를 담고있을가? 분명 림송은 그것을 확신했다. 그는 자기의 침묵이 너무 길었다는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현실로 돌아왔다.

《아니, 켜지 마십시오. 어쩐지… 이대로 있고싶군요.》

림송은 한순정이 나타나자 외롭고 쓸쓸한 감정이 불현듯 봄날의 눈송이처럼 사라지는것을 느끼며 입가에 어설픈 미소를 지었다.

한순정은 조심스레 림송의 앞으로 다가왔다.

《방이 춥군요. 이걸 드세요. 따끈한 차예요.》

《고맙습니다.》

림송은 차관을 받아들고 한순정을 올려다보다가 그냥 원탁우에 내려놓았다.

《제가… 림송씨의 사색을 방해한건 아니세요?》

한순정은 림송이 권하는 자리에 가볍게 걸터앉으며 조용히 물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난 순정씨가 찾아온게 기쁩니다. 홀로 지난날을 추억했습니다. 오늘은 설명절이 아닙니까. 어쩐지 한살을 더 먹고보니 생각이 깊어지는군요.》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요. 나의 이 심정은 무엇인가 해놓은게 없기때문이겠지요.》 하고 림송은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으로 다가갔다. 《아가씨, 미안합니다. 설손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함께 새해축배잔이라도 들가요?》
림송이 술잔을 들고 돌아서자 한순정은 기겁을 한듯 몸을 일으켰다.
《아이, 전 술을 한모금도 입에 못댄답니다.》
《일없습니다. …벗들사이에야 뭐랍니까?…》
《전 정말 못해요.》
림송은 한순정의 얼굴을 유심히 건너다보았다.
《그럼 우리의 심장속에 간직된 모든 귀중한것을 위해 들겠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이 순간 림송은 한순정의 얼굴에 야릇하고 다감한 미소가 얼핏 지나가는것을 보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방안의 정적을 깨뜨렸다. 두사람은 동시에 출입문쪽을 돌아보았다. 털모자를 쓴 사나이가 크지 않은 꾸레미를 안고 방안에 들어섰다.
《아바이군요.》 하고 한순정이 림송의 눈치를 살피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가씨, 부탁대루 이걸 가져왔수다.》
을지길은 성에가 불린 털모자를 벗어들며 한순정에게 꾸레미를 내밀더니 다소 의아한듯한 눈길로 벽난로쪽에 앉아있는 림송을 바라보았다.
림송은 농민형의 그 평범한 얼굴과 진중한 눈길에서 피뜩 어색해하는 종잡을수 없는 빛과 일종의 경계심을 느꼈다.
《우리 식료차운전사예요. 객지에서 홀로 설을 맞는 림송씨에게 저도… 우리 음식을 권하고싶더군요…》 하고 한순정은 을지길이 나가버리자 림송을 돌아보며 말했다. 《아바이가 우정 교외의 시장에 다녀왔군요.》
《?…》

림송은 보꾸레미를 펼치는 한순정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다. 크지 않은 병과 흰 초지에 싼 송편과 보쌈김치 그리고 토장과 닭구이가 난로불빛에 드러났다.

한순정은 보시기에 청자기 상감무늬병을 조심스레 기울이더니 림송을 올려다보았다.

《아바인… 이게 집에서 담근 곡주라더군요.》

《고맙습니다.》 림송은 곡주잔을 받아들고 뚫어지게 한순정을 바라보았다. 《뜻밖에 설을 쇠는군요. 난 이런 곡주를 난생처음 먹어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림송에게는 그것이 단순한 술로 생각되지 않았다. 뜨겁고 후더운, 그가 바랐고 그려온 인정이, 친근한 마음의 격류가 그의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림송은 잔을 내려놓고 토장그릇을 열었다. 그의 눈길이 굳어졌다. 토장우에 놓인 연하고 파릇파릇한 세개의 풋고추가 눈에 띄였다.

《아니, 이게 풋고추가 아닌가요?》

림송은 떨리는 손으로 그 애어린 풋고추를 손에 집어들었다. 무엇인가 아득히 흘러가버린 시절의 옛 추억이 떠오르면서 따뜻하고 소중한 감정이 체내에 밀물처럼 흘러넘쳤다. 순간 그리웠던것, 잊혀졌던것, 가깝고 낯익은 향취가 그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졌다.

한순정은 방그레 웃었다.

《제가 화분에다 키운건데 아직 풀내가 날거예요.》

《이 풋고추를 보니 고향… 생각이 납니다. 나의 어머니도 터밭에 이런 풋고추며 부루, 갓 등을 키우군했지요. 아가씬 도시생활을 했다는데 언제 이런걸 다 배웠습니까?…》

《아이, 저의 어머니도 시골녀인이랍니다. …》

한순간 두사람의 눈길이 다시 부딪쳤다. 두사람은 서로의 마음의 세계를 들여다보려는듯 지꿎게 마주보았다.

한순정의 도톰한 입술이 가볍게 떨렸다.

(당신은… 묘향산의 시내물과 동구길을 잊지 않으셨겠지요?…)

(순정이, 고맙소! 동무는 지금 외로와하고 나약해지던 내 가슴속에 귀중한것을, 조국의 향기를 심어주고있소!…)

림송은 얼핏 눈길을 내리깔고 다시 나무토막을 들어 난로불우에 올려놓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창밖에는 눈이 멎고 싸늘한 바

람이 일고있었다. 헐벗은 나무가지들이 바람에 시달리는 고달픈 한숨소리가 들려와 방안의 고요를 깨뜨렸다.

림송은 시계를 보았다. 떠날 시간까지는 이제 1분 40초가 남아있었다. 림송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장갑을 끼였다.

《더 드시지 않고 왜 일어나세요?》

한순정은 두손을 가슴앞에 모여잡으며 걱정스레 그를 올려다보았다.

《난 또 교외로 가야 합니다.》

《그렇게도…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으세요? 오늘은 명절인데…》

《나 역시 당신과 이 저녁을 보내고싶군요. 하지만 나에게는 지금 순간이 천년맞잡이입니다. 리해해주십시오.》

림송은 군용외투를 입고 장교구락부건물을 나섰다. 그는 현관앞까지 따라나와 군용찦차에 오르는 자기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한순정의 눈길을 느꼈다. 가슴이 찌르르해왔다. 그 어떤 녀성다운 륙감으로 그날의 자기를,진실을 찾으며 애타게 그 무엇인가를 확인하려는 한순정의 마음이,눈길이 림송의 심장을 아프게 하는것이였다. 림송은 순정이가 심장으로는 벌써 자기의 진면모를 알아차렸다는것을 절감했다.

림송은 눈덮인 도시의 교외길로 차를 몰아갔다. 이제 15분후에는 에니스의 방에서 《리퍼작전》을 위한 《사무소》 지휘성원들의 마지막회의가 벌어질것이였다. 림송은 이 순간을 놓칠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허위항공정찰요청서를 본후 에니스의 첫 특공대의 투하지역을 알아내려고 이 며칠동안 신경전을 벌렸었다. 그러나 작전비밀을 엄수하려는 에니스의 노력은 검질긴것이였고 빈틈없는것이였다. 캐논방첩기관의 대표인 과장 겐지로까지도 작전토의에서 제외된것은 에니스의 이러한 집요한 심리의 결과였다. 림송의 오늘 행동방안은 이러한 심리와 중요작전모임에서 제거된 겐지로의 처지에 기초한것이였다. 캐논방첩기관은 군사첩보위주의 정보장벽설을 지향하는,에니스준장 반대파의 중요세력이였다. 이 반대파를 이끄는것은 극동군사령관이하 완고한 장령들이였고 이들은 오래동안 8240부대 《련락사무소》창설을 방해해왔었다. 그들은 조선전쟁에서의 련속되는 참패의 원인의 하나를 정보전의 소극성과 경질설에서 찾는 에니스파와 의견을 달리하고있었다. 이것은 하나의 치렬

한 싸움으로, 알륵으로 되고있었다. …림송은 그 하수인인 겐지로가 이번 작전회의비밀을 탐지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뛴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어제저녁 림송은 훈련을 끌내고 숙소로 돌아온 스테쎌 듀페이를 찾아 그의 방으로 갔었다. 림송이 방에 들어서자 책상앞에 마주앉아있던 듀페이는 흠칫 놀라며 황급히 신문으로 무엇인가를 가리웠다.

림송은 얼핏 신문지짬으로 그리 크지 않는 철로 된 옷걸개를 보았다. 한찰나 그 어떤 예감이 그의 머리를 쳤다.

(옷걸개… 어디서 보았던가?… 옷걸개…)

림송은 생각을 되짚으며 미소를 지었다.

《듀페이, 추워서 잠을 들수가 없구만. 한잔 하지 않겠나?》

림송은 그의 곁에 앉으며 술병을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신문지를 밀어버리고 술잔을 내려놓았다. 신문지짬에 있던 그 쇠걸개가 방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림송은 그 쇠옷걸개아래부분이 나사로 채워져있는것을 발견했다. 림송은 문득 모든것을 직감할수 있었다. 그것은…

《난 지금 바쁘네.》 하고 듀페이는 슬며시 옷걸개를 발로 밟으며 림송의 눈치를 살폈다. 《이제 곧 겐지로중좌가 이 방에 찾아오네. 난 그날 자네를 만나러 왔던 일을 두고 겐지로방첩과장한테 경을 쳤네. 자네도 그자를 알지 않나. 솔직히 말해서 이번 리익금의 반은 몇군데 찔러주어야 일이 무사할것 같네. 그는 자네가 보급장교를 만나러 갔던 일도 다 알고있었네.》

듀페이의 얼굴에는 쓰거운 실망의 빛이 가득찼다.

《결국 자넨 그에게 덜미를 잡히운셈이 됐나?》

림송은 빙그레 웃으며 그를 마주보았다.

《그렇게까지야 뭘… 하여튼 생활전선에서의 성공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 난… 이번 작전에 꼭 참가하고싶네. 특공대는 성공하는 경우 장령봉급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상금을 받게 되지.》

《난 오래전부터 자네가 수입원천을 그 방향에서 넓힐것을 권고해온 사람이네.》

림송의 말에 듀페이는 침울한 낯색으로 이마를 찌프리더니 성급히 위스키잔을 들어 마시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림송, 한시간후에는 자네 방에 가겠네.》

듀페이의 말은 거짓이 아니였다. 림송이 그의 방을 나설 때 가죽잠바주머니에 두손을 찌른 겐지로가 추위에 목을 움츠리고 복도를 따라 걸어오고있었다. 림송의 눈앞에는 그 류다른 쇠옷걸개가 확대되여 떠올랐다. …림송은 오늘아침 8군공보처로 떠나기전 《사무소》의 에니스방밖에 있는 정원의자에서 오래동안 그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준장은 식사시간이면 소창문을 열어놓군하였다. 림송의 예감과 추리는 적중하였다.…

림송은 지금 한초도 어김없이 필요한 시각에 《사무소》에 도착해야 한다는것을 생각하고있었다.

그가 만일 이르게 도착하거나 늦게 도착하면 모든 일은 실패할수 있었다. 그는 반드시 작전회의가 시작되는 순간에 에니스방에 들어서야 성공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했다.

림송은 검문소를 통과하자 즉시 사령부 2층의 에니스준장방앞으로 다가갔다. 두명의 자동총수와 함께 에니스의 전속부관인 하관이 빠른 중위가 출입문결에서 림송을 멈춰세웠다.

《대위님,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중위는 눈살이 꿋꿋해져서 림송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사실 림송이 오늘 정문을 쉽게 통과할수 있은것은 에니스의 교활성을 리용한때문이였다. 림송은 오늘아침 그에게서 일반보고문건을 8군공보처에 가져갈데 대한 임무를 받았었다. 늘 하던대로 그는 일일출입증을 가지고있었고 저녁에는 준장에게 사업을 보고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에니스는 자기 사무실에서 극비회의가 있다는것을 은페할 목적으로 위수인원을 늘이지 않았다. 만약 청사경비인원을 갑자기 늘인다면 겐지로가 대뜸 눈치챌것이였다. 당직장교와 헌병조장은 림송의 출입을 례사롭게 보았고 다만 규률대로 두명의 자동총수를 따라보냈었다.

림송은 부관을 바라보며 성급히 말했다.

《난 중요한 보고를 가지고왔소. 한초가 급하오!》

《대위님,그 누구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준장님의 지시입니다.》

《이건 작전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요. 알겠소? 중위!》

《전 명령을 집행하고있습니다.》

중위의 태도는 침착하였고 랭정하였다.

《당신은 내가 특수련락장교라는걸 잊었소? 난 지금 작전회의

중이라는걸 알고있소! 그 작전이 파탄되는 경우 중위가 책임질수 있는가!》
한순간 중위의 얼굴에 당황한 공포의 빛이 지나갔다.
림송은 그의 어깨를 잡아제끼며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갔다. 첫 방은 에니스의 방과 잇달린 보좌관실이였다. 림송은 서슴없이 보좌관실을 가로질러 준장의 사무실문을 열어제꼈다. 림송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얼핏 방안을 둘러보았다.
휘장을 연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지도앞에 서서 정황을 설명하려던 에니스와 작전탁앞에 앉아있던 문용채 그리고 지휘부장교들이 일제히 그를 돌아보았다.
림송의 뜻밖의 출현에 에니스는 얼굴이 험악하게 이그러진채 작전봉을 쥔 손을 떨었다.
《림송대위! 어떻게 된 일이요? 당신은 승인없이 자기가 이 방에 들어설수 없다는걸 모르고있소?》
《준장님…》
《당장 나가시오! 중대한 비밀회의장소에 나타난 당신은 총살당할수도 있소!》
에니스의 목소리는 자못 엄엄하게 울렸다.
림송은 침착한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길은 에니스의 어깨너머로 확대되는 작전지도우를 예리하게 훑고있었다.
《준장님.》 하고 림송은 작전지도우의 특공대투하지역좌표를 기억하며 침착하게 랭소를 짓고 말했다. 《난 지금 당신들이 비밀모임장소가 아니라 나이트클럽의 만찬회장에 있다고 알려드리는것을 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뭣이?!…》
에니스의 눈에는 당황함과 의혹과 경계의 빛이 가득찼다. 장교들은 어리둥절해서 서로들 마주보았다.
림송은 방안을 가로질러 작전지도옆의 벽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림송은 륙감으로 에니스가 바지주머니에 손을 집어넣는것을 느꼈다. 그속에는 써본지 오랜 소형브로닝권총이 들어있을것이였다. 림송은 침착하게 다가가 벽에 걸려있는 에니스준장의 모자를 벗겼다. 그리고 그 벽에 박혀있는 옷걸개를 장갑낀 손으로 조심스레 잡아당겼다. 그것은 힘을 주자 슬며시 뽑혔다. 림송은 말없이 에

니스의 앞으로 다가가 아래부분을 비틀어 푼후 그의 책상우 작전문건이 펼쳐져있는 타자지장들우에 놓았다. 옷걸개안에서는 가는 전자장치들이 흘러나왔다.

에니스는 아연해진 시선으로 림송과 그 물건을 번갈아보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대위, 이건… 도청장치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준장님, 최근 일본의 어느 회사가 한 정보기관의 청탁을 받고 개발한 극소형도청기입니다. 저는 그 회사를 캐논방첩기관이 후원하고있다는것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얼굴이 온통 메주먹은 소처럼 붉어진 에니스의 이마에 깊은 주름살이 패여 전등불빛에 드러났다.

《그러니 우린 광장 한복판에서 작전회의를 하려던셈이군요.》 하고 문용채가 랭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에니스가 홱 머리를 돌리며 문용채를 쏘아보았다.

《아니요, 소장! 우린 시한탄우에 서있었소!… 림송대위, 고맙네. 자넨 또한번 나를 구원해준셈이네.》

《준장님, 제가 당신의 사업을 보좌하는 특수련락장교라는걸 상기해주십시오.》

짧은 순간 침묵이 흘렀다. 에니스는 문득 충격의 여운에서 해방되자 짙은 의혹이 담긴 시선으로 림송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림송, 자넨 이 방에 도청기가 설치되였다는것을 어떻게 알았나?》

《준장님, 난 준장님의 정탐심리를 동경한 사람입니다. 어제 나는 듀페이중좌와 함께 저 창밑의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우연히 이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열린 소창문과 거의 직선으로 벽에 박힌 이 옷걸개가 보이더군요. 준장님은 모자를 걸 때 새로 생긴 이 물건을 주시해보았어야 했습니다.… 이 옷걸개를 어제 확인한후 저는 밤새 신경을 썼습니다. 결국은 제가 뒤늦게야…》

림송의 설명에 에니스의 얼굴에는 놀라와하는 표정이 나타났다. 그는 림송의 어깨우에 손을 얹었다.

《대위, 자네의 명석한 분석은 나를 감동시켰네. 나는 캐논방첩기관의 귀가 내 방에까지 기여들줄 몰랐네. 자넨 이것이 그들의 비행이라는걸 확인할수 있나?…》

림송은 장갑 낀 손을 마주잡으며 빙그레 미소했다.

《여기에 생생히 찍혀있는 지문과 ××회사 계렬수자는 준장님의 의혹을 풀어줄것입니다.》
《벤다프대좌, 보좌관 듀페이에게 곧 이 도청기를 확인하라고 하시오. 만약 확인되는 경우 난 극동군사령관에게 정식으로 들고가겠소!》
에니스의 대리인이 도청기를 싸들고 급히 방에서 나가버렸다.
에니스는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으며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씻으며 잠시 무슨 생각을 하더니 림송을 향해 말했다.
《난 우리에게 경종을 제때에 울려준 림송대위를 작전회의에 참가시켜도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였소. 회의를 계속합시다!》
그러자 림송이 그를 향해 돌아섰다.
《준장님, 난 정보사업에서의 규률과 비밀한계를 언급한 준장님의 훈계를 잊지 않고있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림송은 차렷자세로 에니스에게 목례한후 홱 돌아서서 출입문을 향해 걸었다.
그는 이 순간 에니스준장의 예리한 눈길이 자기의 등에 비수처럼 와 박히는것을 느꼈다.
《가만!》
에니스준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림송의 발걸음을 멈춰세웠다.
《?!…》
림송이 돌아서자 에니스는 다소 누그러진 시선으로 방안을 둘러보더니 다리를 약간 절룩거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림송대위, 당신은 이 방으로 들어오기도 힘들었지만 나가기도 힘든 법이요. 작전회의는 당신이 알아야 할 비밀한계를 대폭 넘어서고있지만 방금 대위가 보여준 고결한 행동은 그 계선을 넓혀주었소.》 에니스는 마치 림시국회연단에라도 나선것처럼 말을 골랐다. 《하지만 림송대위, 당신은 이 시각부터 극동전선의 운명과 관련되는 극비작전에 직접 참가하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겠소. 〈리퍼작전〉은 지어 8군사령관각하외의 장령들이나 극동군사령부 정보국장에게도 비밀이라는것을 모두 알아야겠소!》
《준장님의 신임에 생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림송은 뜻밖의 일에 금시 심장이 터지는듯하였으나 침착성을 잃

지는 않았다.
림송이 문용채의 곁에 앉자 에니스는 다시 작전지도앞으로 다가갔다.
《나는 오늘새벽 8군사령관 매슈 벙커 릿지웨이의 확실한 동의를 얻었소. 군사정보부가 조직한 〈킬러작전〉(살인작전)의 실패는 사령관으로 하여금 미중앙정보국의 계획에 희망을 품게 했소. 우리의 〈리퍼작전〉은 즉 절단작전은 우리 〈사무소〉의 항공륙전특공대를 전선서부의 후방에 떨구어 전선과 후방을 절단하고 미 10군단과 국군 1,3군단의 력량으로 전선동서부의 인민군주력을 공격하여 전선을 아이다호선 (문산—춘천계선)으로 전진시키자는거요.
작전이 개시되면 미1군단산하 3,25보병사단은 주타격을 의정부—련천방향에 지향하고 2개 제대의 작전대형으로 포천방향으로 공격하며 북조선군 방어지대종심인 문산지역에 스케몬소좌의 미××항공륙전특공대와 〈케이엘오〉두개 분견대가 투하되여 림진강교차점을 차단하게 되오.
이 지역이 점령되면 앞으로 봄철대공세인 〈레인보작전〉이 시작되오. 결국 〈리퍼작전〉은 〈레인보작전〉의 서막이요. 스케몬소좌는 이 전선 중서부가 〈레인보작전〉시 8군과 우리 8240부대의 주타격방향이 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작전후 배후타격을 가할 게릴라특수전을 벌려야 하오. 특수임무는 훈련제강 07에 있는대로 하시오. 〈리퍼작전〉개시날자는 3월 7일이요!》
에니스는 작전봉을 내리였다.
《8군사령부작전부에도 작전개시날자는 하루전에 통보해야겠소. 비밀을 엄수해야겠소. 나는 〈리퍼작전〉이 성공하면 바로 〈레인보작전〉계획을 도쿄에 제출할 결심이요. 〈리퍼작전〉이 진행되고 이어 〈레인보작전〉이 성공하면 전선이 나의 리상대로 해주—원산선상에 놓이게 되며 평양측은 중요한 정치적문제를 워싱톤에 제기할수 있소. 이것이 현시점에서 우리 미중앙정보국이 노리는 목적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레인보작전〉은 트루맨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고있소! 〈레인보작전〉을 위해서는 이번 〈리퍼작전〉이 잘되여야 하오!》
림송은 에니스의 설명을 들으며 주먹을 부르쥐였다.
(결국 놈들이 노리는것은 군사적공세를 통하여 우리가 먼저 정

전담판을 제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려는것이다. 놈들의 두단계 작전을 파탄시키는것은 단순히 군사적목적만이 아닌 위대한 나의 조국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니겠는가!…)

림송은 조국에서 이번에 에니스의 특수작전에 주의를 돌리도록 임무를 준것이 얼마나 정당한 일이였는가를 온몸으로 절감했다.

그러고보면 미중앙정보국이 오랜기간 품을 들여 8240부대를 조직한것은 정세가 급변하는 경우 이런 군사정치적목적을 달성하려고 꾀했다는것이 지금은 명백해졌다.

림송은 결국 하나를 노리다가 열,백을 얻은셈이였다. (이제는 어떻게 하나 빠른 시간내에 《레인보작전》의 첫단계인 《리퍼작전》비밀을 조국에 알려야 한다. 리준구동지와의 비상상면을 요구해야 한다. 그는 지금 서울련락소에 가있지. 서울 충무로구역의 비상련락소… 아침 9시… 모레저녁엔 내가 서울 룡산동으로 옮겨간 8군사령부에 련락문건을 가지고가는 날이다. …정보를 받으면 련락원동지도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작전회의는 밤늦도록 계속되였다.

겐지로중좌는 다급한 초인종소리에 어설픈 잠에서 깨여났다. 그는 비몽사몽한 가운데 다시 초인종소리를 기다렸으나 불현듯 고요가 귀를 멍하게 만들었다.

호텔창문밖으로 보이는 서울상공은 어쩐지 흐리터분하게 보였다. 그는 눈을 비볐다. 의식이 들자 일종의 초조감과 불안감이 기다렸다는듯이 그를 엄습하였다. 그는 이 정신적중압감이 어디에서 오는것인지 종시 가늠할수 없었다.

《리퍼작전》과 관련한 작전회의에서 제외된후 듀페이를 위협하여 설치한 도청기가 림송에 의해 로출되였을 때 그가 체험한 실패와 격분의 감정은 무겁고도 큰것이였다. 그는 이 사실을 보고받자 수잔나를 통한 검토가 실패한 순간보다 더 고통스러운감을 느끼였다. 그것은 덫에 걸렸던 살진 사슴이 사냥군의 눈앞에서 빠져나갔을 때의 아쉬움과 비교도 되지 않았다. 에니스에 대한 격분과 림송에 대한 혐오는 겐지로에게 더욱 모진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는 그사이 자기가 림송을 비롯한 일부 《련락사무소》의 정보장교들을 상대로 종합하고 수정한 자료들을 주저없이 도꾜의 방첩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에니스로 하여금 겐지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하고싶었다. 겐지로는 대구를 떠나기에 앞서 에니스준장을 찾아갔었다. 에니스는 식탁에 마주앉아 간소한 음식을 들고 있는 참이였다.

《중좌, 앉게. 요즘은 당신을 볼수 없구만.》

《난… 준장님의 눈에 자주 뜨이는것을 당신이 불쾌하게 여기리라고 생각했지요.》

가시돋힌 겐지로의 말에 에니스는 쏘쎄지를 들려다 말고 흘끔 그를 바라보았다.

《중좌, 너무 신경질을 부리지 마오. 나역시 최근에는 캐논방첩기관의 비위를 건드리는것을 삼가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소.》

《그럼 대단히 감사한 그 말씀을 도꾜와 서울의 방첩기관에 전할수 있겠군요.》

겐지로는 랭소를 지으며 쓰겁게 중얼거렸다. 에니스는 그를 유심히 올려다보았다.

《8군방첩본부의 호출을 받았소?》

《난 오늘저녁 떠나겠습니다.》

《그러니 림송대위보다 한걸음 먼저 서울에 가겠군…》

에니스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미심쩍은듯 겐지로를 눈여겨보았다.

림송이 서울로 간다는 말에 겐지로는 바싹 긴장해졌다.

《준장님, 난 〈사무소〉의 련락장교가 출발한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요?…》

겐지로의 말에 에니스의 얼굴에는 가벼운 비난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중좌, 난 나의 특수련락장교의 행동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방첩과에 통보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소.》

《하지만 그건 당신이 제정했고 극동군사령관의 비준을 받은 〈사무소〉의 규률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겐지로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에니스를 쏘아보았다.

에니스는 살진 볼이 불그레해지며 이를 쑤시던 손길을 멈추었다.

《중좌, 때로는 상관이 자기에게 배속된 방첩과의 사업을 검열할수도 있는거요. 우린… 며칠전에 중요한 비밀서류가 보관된 방에

서 최신형 도청장치를 발견했소. 내 말을 알겠소? 난 그걸 나의 상부에 보고할 의무를 지녔소.》

도청기말이 나오자 겐지로는 속이 뜨끔하였다. 물론 그는 그것이 림송에 의해서 발견되였다는것도, 에니스가 자기를 의심하고있다는 것도 잘 알고있었다.

겐지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애써 태연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준장님, 만약 그 도청기를 붉은 정탐이 설치했다면 우리 방첩이…》

《그만하오, 과장. 당신은 어리석구만!… 난 이 문제를 당신앞에서 론의하고싶지 않소. 어떤 경우나 당신의 임무는 외부의 눈과 귀가 나의 방에 들어오는걸 막는것이란말이요!…》

《…》

《그리고 붉은 정탐들이 캐논방첩기관의 후원을 받고있는 회사에 도청기를 개발해달라고 청탁하지는 않았을거요!》

겐지로는 에니스가 결김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는것을 느꼈다. 그는 자제력을 회복하며 싸늘하게 웃었다.

《알만합니다.… 난 당신이 이 사건에 우리 본부를 련결시키려는것과 관련하여 얻어지는 후과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다는것을 미리 경고합니다.》

에니스는 그제야 자기의 실언을 느낀 모양 차잔을 밀어놓으며 눈을 찌프렸다.

《중좌, 걱정마오… 림송대위는 나타난 사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가지고가니까. 그가 도꾜의 ××회사까지는 찾아가지 않을거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련락장교들의 움직임에 대해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오. 그들은 선발된 인물들이니까.》

겐지로자신도 이 순간 련락임무를 떠나는 림송을 두고 자기가 지나치게 흥분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림송의 직무에서는 례사로운 일이였다. 하지만 에니스가 도청기를 발견한 그를 련락장교로 선정했다는것이 비위에 거슬렸다.

한편 에니스도 역시 캐논방첩기관의 기분을 될수록 건드리지 않기로 최근 생각하고있는 사람이였다.

그는 지금 정탐가로서의 운명을 자기가 구상한 두단계 작전에 전적으로 걸고있었던것이다.

《난 중좌가 곧 돌아서리라 믿네.》 하고 에니스는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다. 《사실 난 이번 작전을 앞두고 자네들, 방첩장교들의 임무와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있으니까…》
《그 말씀 역시 기억해두지요.》 겐지로는 불쾌한 어조로 대답하며 옆에 끼고있던 서류철에서 회색봉투를 꺼내들었다.
《난 캐논중좌에게 제출할 과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준장님에게도 한부 드리는것을 당신에게 배속된 하급장교로서의 의무로 간주하였습니다.》
에니스는 봉투를 집어 식탁옆 책상우에 훌 던져버렸다. 겐지로는 그가 지금 무심한듯 그것을 던지지만 자기가 방을 나서기 무섭게 끄당겨서 읽으리라는것을 알았다. 그속에는 겐지로가 지난 반년가까이 도꾜와 대구, 오타와를 상대로 수집한 림송에 대한 색다른 자료들이 들어있었다. 물론 그 모든 정보자료들은 에니스의 말을 빈다면 일종의 《협의》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이 《협의》들이 림송을 신임하고있던 에니스에게는 하나의 시한탄이 될수 있었다. 에니스는 그러한 시한탄을 씨아이씨장교가 가져온데 더욱 놀랄것이였다. 작전개시를 앞두고 이것은 에니스에게 효과적인 진정제로 될것이였다. 겐지로가 노린 점은 바로 이것이였다. 좋던 싫던 에니스는 그 문건을 보는 순간부터 림송을 새로운 눈으로 대하게 될것이며 재인식기간이 필요할것이다. …
겐지로는 어제밤 군용기로 서울에 도착하자 룡산동에 옮겨온 본부에 간단히 전화를 건후 자기의 정보원이 경영하는 이 호텔에 들었다. 그는 강수잔나를 데리고 이번 길을 떠났었다. (강수림의 본명은 수잔나, 대호는 《쟈스민》이였다.) 물론 그것은 수잔나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수잔나는 림송에 대한 마지막검토가 실패하자 대구에 있기가 어쩐지 멋적어졌던것이다. 그 녀자는 《쟈스민》조의 사업을 장교구락부에 있는 자기의 첩자에게 인계한후 서둘러 겐지로를 따라 군용기에 올랐었다. 이번 검토는 수잔나의 발기로 시작되였었다. 겐지로는 처음 그 녀자의 빤한 수를 찬성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도꾜와 워싱톤에서 교육을 받은 수잔나로서는 자기의 사랑의 《드라마》가 이제는 마감장에 이르렀다고 확신하였었다. 기실이 연극의 연출가는 겐지로가 아니라 주역인 수잔나였던것이다.
《겐지로씨, 결국 림송도 인간일게고 또 남자예요. 난 그가 녀자

의 세계에도 섬세한 리해를 가진 인간이라는것을 촉감했어요. 죽음앞에서 그는… 자기 심장의 문을 열수 있죠…》

그날 수잔나는 독약병을 준비하면서 교태있게 몸을 꽜다. 겐지로는 침대모서리에 앉아 비웃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었다.

《수잔나, 난 당신의 그 천진성에 우울해지누만. 림송은… 그런 얕은 함정에 빠질 위인이 아니요. 난 그를 잘 알고있소…》

《하지만》 하고 수잔나는 성가신듯 눈살을 찌프리며 종알거렸다. 《이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로서는 그와 마주서기가 끔찍해요. 그는 내 심장속을 꿰뚫어보는것만 같거든요. 어떤 땐 무섭더군요. 그걸 인격의 힘이라 할지…》

결국 겐지로의 예상대로 수잔나의 《드라마》는 희극적으로 끝나버렸다.

마지막 순간에 림송이 한 조소어린 말은 겐지로의 마음속 상처에 진한 소금물을 뿌리는듯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였다. 하지만 그는 참았었다. 사냥군에게는 검질긴 인내성이 필요한것이였다. …

겐지로는 지금 에니스와의 신경전을 하고 군용기에서 시달리고 또 지난밤사이에 정열적인 녀인을 애무한 뒤여서 몸을 일으키기가 싫었다. 그러자 수잔나가 잠옷바람으로 자리에서 푸시시 일어나더니 출입문쪽으로 걸어갔다.

겐지로는 그냥 눈을 감은채 다시 잠에 묻히려 하였으나 정신은 점차 맑아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결 차대우에 놓인 위스키를 병채로 덥석 잡고 꿀꺽꿀꺽 들이켰다.

개인생활의 견지에서 놓고본다면 요즘 겐지로중좌에게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때늦게나마 행운의 시기가 닥쳐왔다고 말할수 있었다. 그는 상류사교계의 《진선미》를 갖춘 미인이라고 떠드는 수잔나를 유혹하는데 성공한것이였다. 서방신문들이나 서울의 리상적인 《쌀롱》들에서도 섬세하고 정열적이고 자극적인 육체미때문에 류행에 밝은 신사들과 중류층 관리들의 시선과 인기를 독점하던 그 녀자가 평범한 캐논기관 방첩장교의 유혹에 넘어갔다는것은 비정상적인 사실이 아닐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유혹작전성공의 배경에는 겐지로중좌의 검질기고도 인내성있는 노력과 잔인한 성격과 명석한 두뇌가 빚어낸 림기응변

이 깔려있었다. 본부로부터 《수성》정찰조출현과 함께 캐논방첩기관의 휘하로 넘어온 《쟈스민》조를 조종할 임무가 겐지로에게 맡겨졌을 때 주로 방첩일면만 주관하던 그로서는 그닥 시답지 않게 여겼었다. 그러나 《쟈스민》조가 특수방첩사업에서 차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자 곧 지투는 겐지로중좌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였고 한편 겐지로자신은 자기가 우연히 손에 쥔것이 행운의 낚시대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인민군대의 성난 파도와 같은 재진공과 함께 미제침략군이 총퇴각의 길에 올랐을 때 겐지로는 대구의 어느 한 호텔의 작은 방에서 공작보고를 하러 온 수잔나와 단둘이 만날수 있었다. 한순정이가 이제는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갈수 없다고 생각했던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의 뺨을 쳤을 때의 2중적인 실망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시기였으나 겐지로의 심장속에서는 아직도 욕망의 검은 피가 들말처럼 날뛰고있었다. 그는 얇은 도레스자락밑으로 느껴오는 수잔나의 풍만한 육체에서 풍기는 향취를 가볍게 들이마시며 그동안 서울에서 그 녀자가 수행한 활동보고를 청취하였다. 한편 수잔나는 뉴욕에서 음악대학 청강생으로 있을 때 동방의 루이자와 같은 녀탐으로 만들려고 인내성있는 특수정보교육을 준,자기의 부책을 가지고 있는 미륙군정보국의 고위관리들이 다름아닌 이 눈이 세모지고 얼굴이 강마르고 험상궂게 생긴 캐논방첩기관의 평범한 중좌의 보고서를 놓고 그자신을 평가하리라고 생각할 때 가소로왔고 억울하였다. 이 경우 역경을 순경으로 만들고 외국은행의 개인구좌를 넓힐수 있는 확신성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있는 그 녀자였다.

이미 그 녀자의 정조관념은 륙군정보국의 담당고관들에 의하여 실용적으로 수정되고 자유화된것이였다. 겐지로를 위한 함정은 깊었고 한번 빠지면 다시 헤여나올수 없으리만큼 어두웠고 유혹적인것이였다. 습관은 제2천성으로 되는것이며 이 경우 그것은 굴욕적인것이였다. 그날밤 캐논방첩기관을 거쳐 도꾜—워싱톤으로 발송될 《쟈스민》조의 공작보고서는 때늦은 춘정이 무르녹는속에 화려하고도 장황한 필치로 작성되였다.

이날부터 수잔나는 겐지로의 정부로 전락되였고 한편 겐지로는 수잔나의 하수인으로 자리를 바꾸었다. 정보를 교환하는데서도 두 사람사이에는 비밀한계가 상대적으로 사라지게 되였다.…

출입문이 다시 닫기는 소리가 들리더니 실내화를 끄는 수잔나의 발걸음소리가 탈싹탈싹 들려왔다.
겐지로는 그냥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워물고 다가오는 녀인을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래 수잔나, 새벽부터 무슨 일이라오?》
《국군 씨아이씨에서 련락장교를 보내왔군요. 충무로구역으로 급히 와달래요. 무슨 아지트를 장악했대요.》 하고 수잔나는 드러내놓은 가슴우로 넘어온 장발을 흔들며 종이쪽지를 겐지로에게 주고서 옷장으로 다가갔다.
겐지로는 이마를 찌프리며 종이쪽지를 펼쳤다. 한순간 그의 눈길이 굳어졌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수잔나가 서있는 옷장으로 걸어가 그녀자를 밀치며 군복을 입기 시작했다. 그바람에 수잔나의 옷이 땅에 떨어졌다. 수잔나는 짜증을 내며 옷을 주어들더니 도레스의 안주머니에서 갓 현상한 커다란 사진을 꺼내들었다. 사진은 겐지로의 발에 밟혀 한쪽이 꺾이였다.
《그건 무슨 사진이요?》
겐지로는 얼핏 눈에 안겨드는 사진을 걷어채려 하며 바삐 물었다.
《뭘 그리 덤비세요. 당신이 얼마전에 과업을 주지 않았나요. 대구의 장교구락부에 있는 정보원에게서 입수했어요. 나 역시 그 한순정이라는 매혹적인 녀자의 정체를 알고싶었거든요. 그 녀자의 배낭에서 나온 낡은 사진을 복사한거예요.》
《잊을번했구만. 잘했소. 좀 보기요!》
겐지로는 얼른 그 사진을 받아들었다. 잔디밭우에 애어린 두 소년, 소녀가 나란히 앉아있었다. 이제 보니 평범했다. 겐지로는 한순정의 방에서 그날 자기가 지나치게 신경이 예민해졌었다는것을 느끼며 사진을 도로 내밀려다가 불현듯 눈앞으로 다시 가져갔다. 한순간 겐지로는 사진을 든 두손이 가볍게 떨리는것 같았다. 그는 옷을 입다 말고 창문쪽으로 다가가 그 복사한 사진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명민한 눈초리를 가진 귀염성스럽고 지혜로와보이는 그 소년이 자기를 향하여 가벼운 미소를 던지고있었다.
겐지로는 두눈을 감았다. 그러자 아득히 흘러가버린 시절, 구룡의 선창가가 눈앞에 떠올랐다. 《람의사》의 옷을 입고 상해서부터

뒤따르던 조선인기업가… 그가 구룡의 동상공원에서 그에게 권총을 발사했을 때 경악을 지르며 앞을 막아서던 소년의 얼굴… 그것은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속죄될수 없는 죄의식으로, 말없는 공포의 인상으로 그의 뇌리속에 찍혀진 잊을수 없는 얼굴이였다. 범죄심리학을 전문해온 겐지로로서 충격을 주었던 그 얼굴모색을 헛갈릴수는 없었다. 소년의 얼굴은 또한 그가 오래동안 추적한 그 아버지의 모습의 축소판이기도 하였던것이다.

겐지로는 이상한 불안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끼며 초조한 눈길을 수잔나에게 돌렸다.

《모를 일이야, 모를 일이야… 도무지, 이건 가혹한 운명인걸!》

겐지로는 쓰겁게 중얼거리며 한동안 멍하니 서있었다.

《뭘 그러세요? 사진을 보고 왜 놀라세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 어쨌든 당신은 그 녀자의 뒤를 계속 파야 하오. 이 소녀가 그 녀자라면 의심스러운 인간이 틀림없소. 그건 내가 장담하오.》

겐지로는 사진을 그냥 쥔채 급히 군복을 마저 입고 호텔을 나섰다. 검은 승용차는 충무로를 향하여 새벽거리를 달려갔다. 겐지로는 아침전이여서 그런지 매캐한 가스냄새가 몹시 메스꺼웠다. 그는 속이 잔뜩 뒤틀린채 푹신한 의자에 몸을 박고 차창너머로 푸릿한 새벽하늘을 내다보며 상념에 잠겼다.

(이게 불길한 징조인가, 아니면 길조인가? 어제날의 적수의 아들… 그게 어떻게 한순정이에게서 나왔을가? 조국광복회를 돕던 박산집의 아들이 그 녀자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내다니… 그 아들은 분명 이 땅에 살아있을것이 아닌가?

그는 누구인가?…)

겐지로에게는 상해와 홍콩에서 흘러간 피의 나날을 추억하는것이 언제나 지긋지긋하였다. 그가 과부의 운명을 지어준 녀인들과 아버지를 잃은 많은 아들들은 오늘도 복수의 기회를 노릴것이였다. 정탐신경이 굵어진 겐지로였지만 죽음과 복수에 대한 공포심은 더욱 현실적이고 감각적이였다.

한편 겐지로는 그 불길한 사진을 가지고있는 한순정에 대하여 생각해볼 때 무엇인가 자기가 지금껏 중요한 공작대상으로 삼고있는 문제에 한가닥의 희미하나 명료한 빛이 스며드는것 같은 환각을

다시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그것은 례의 그 소년이 분명 그 녀자의 생활과 깊은 인연으로 맺어져있고 지금도 어딘가 가까운곳에서 맴돌수 있다는 예감이였다. 그러자 문득 낯익은 사진속의 모습이 조소를 띤 얼굴로 자기를 내려다보는 림송대위의 모습으로 바뀌는것 같았다. 아마도 그것은 림송을 대구에서 처음 보았을 때 느낀 그 불안감과 공포심의 연장일수도 있었다. 그는 자기가 톺는 추리의 엄청난 시공간적모순과 불련속적인 관계에 저으기 환멸을 느끼면서도 내심으로는 이 추리를 그냥 이어갔다.

(어쨌든 내가 림송을 대구에서 처음 보았을 때 느낀 감정이나 오늘 그 소년의 모습을 대했을 때의 충격은 동질의것이다. 이것만은 부정할수 없어！…)

겐지로는 세종호텔앞에서 제동기를 밟았다. 그의 옆으로 낡은 영국산 승용차가 거의 닿을듯이 선행하는것이였다. 그는 속으로 욕을 하며 얼핏 앞서는 승용차의 운전석을 들여다보았다. 뜻밖에도 운전석에는 장발을 틀어올린 강수잔나가 긴장한 자세로 앉아있었다. 수잔나는 겐지로의 앞을 지나 세종호텔앞 주차장에 차를 세우더니 몸을 흔들며 날쌔게 접수구쪽으로 달려갔다.

(저년은 왜 저리 똥마려운년 무우썰듯 덤벼치나？ 화냥년같으니…) 겐지로는 속으로 걸죽한 욕설을 퍼붓다가 생각이 굳어졌다. (가만！ 우리 국군 씨아이씨가 충무로구역에서 붉은 아지트를 점거했다고 했지？ 씨아이씨본부가 서울의 룡산동으로 다시 옮겨온 후 내가 너무 많은 사업에서 유리된게 아닌가？ 이자들은 또 무슨 수로 나를 메치려 하는지…)

겐지로는 도청기사건때문에 본부상관들을 만나기가 께름하였다.

한편 붉은아지트를 발견했다는것은 자기의 앞길에 그 어떤 길조의 빛을 비쳐줄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제 16 장

브라운 겐지로중좌는 빠고다공원을 지나 충무로구역에 들어서자 현대기념품점들옆에서 승용차속도를 늦추었다.

좁은 거리는 군용차들과 아침벌이에 나선 사람들로 몹시 붐비였다.

그는 부각을 한 철대문을 가진 오래된 건물앞에서 차를 멈추었다. 2층으로 된 목조건물주변거리를 직업적인 습관으로 얼핏 살피고나서 다시 층계에 올라섰다.

겐지로가 2층의 중앙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 피투성이가 된 사나이앞에 서있던 두명의 8군방첩기관 장교들이 그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소장은 어디 갔소?》

겐지로는 쓰러져있는 사나이를 내려다보며 하관이 긴 아마빛머리 2급준위에게 물었다.

《문용채소장은 옆방에서 국군 씨아이씨장교들과 함께 무선수년을 족치고있습니다.》

(제길! 이젠 내 처지가 이렇게 되다니… 저 무능한 인간인 문용채앞에서 소인을 개올려야 하니…)

겐지로는 자기의 방첩과가 《사무소》에 직속된후부터 부사령관인 문용채소장의 지시를 형식적으로라도 받아야 했다.

더우기 오늘은 아지트를 륙군본부 씨아이씨가 먼저 장악한만큼 방첩대의 고문격인 문용채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겐지로는 잔뜩 얼굴을 찌프리고 체포된 사나이를 내려다보았다. 장교들이 그를 일으켜세워 의자우에 앉혔다. 겐지로는 군용코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반백의 사나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지금 겐지로의 마음은 몹시 불쾌한 편이였다. 문용채네가 한때 자기가 수사대상으로 삼고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던 이 치과의사를 먼저 체포한것이였다. 대구의 치과병원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송신되는 전파를 분석하는 과정에 하나의 붉은정탐망의 존재를 확인하기까지의 겐지로의 고심은 힘겨운것이였다. 전파탐지기가 아지트의 구역을 일정하게 확인하고있던 찰나에 겐지로는 이 사건수사를 륙군방첩대에 넘겨주고 《쟈스민》조를 맡게 되였던것이다. 지난해 초가을부터 대구에서 새롭게 개업한 이 치과의사를 몇백키로메터 떨어진 서울의 비밀아지트에서 체포한것은 확실히 겐지로자신에게 있어서 하나의 타격이였으며 륙군방첩대의 엄연한 성과였다. 아니 문용채의 성과라고 볼수 있었다. 문용채는 치과의사건을 륙군방첩대가

맡게 되자 부지런히 씨아이씨본부에 드나들며 수사를 지도협조하였다. 물론 문용채는 《수성》조를 들어냄으로써 에니스의 신임을 받으며 한편 자기를 어깨아래로 보는 겐지로의 뺨을 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결국 겐지로는 문용채에게 선손을 빼앗김으로써 두개의 로획물을 동시에 잃었다.

겐지로는 쓰거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힘겹게 앉아있는 치과의사를 쳐다보았다.

옆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장성복에 어울리게 검은 가죽잠바를 걸친 문용채가 성급히 걸어나왔다.

《중좌, 난 당신이 이렇게 바쁜 때 고급호텔에서 계집이나 끼고 재미를 볼줄은 몰랐소.》

문용채는 자못 엄한 눈길로 겐지로를 내려다보았다.

《소장님, 요즘 난 단 하루도 편한 잠에 들어보지 못했소.》

겐지로는 우울한 어조로 대답하며 그의 눈길을 피해버렸다.

《당신은 그래 서울에 오면 이 문용채도 유흥장에만 들어박혀있었다고 생각하오?》 하고 문용채는 어깨를 으쓱하며 체포된 사나이를 돌아보았다.

《우리 방첩대일군들은 이 설민기박사가 련락원과 접선하기 위해서 어제밤 서울에 나타났다는것을 확인했소. 그 미지의 련락원과의 상봉을 난 당신의 립회하에 조직하기로 결심했소. 왜냐하면 중좌가 처음부터 이 작전에 관심을 가지고있었기때문이요. 8군씨아이씨본부에서 련락이 있었소. 접선시간은 오늘 오전을 넘지 않을거요. 치과의사가 드나든 구역에서 〈수성〉대호가 나왔다는걸 잊지 마시오.》

《그렇다면 상면하러 오는자가?…》

겐지로는 속이 섬찍해지는것을 느끼며 조용히 물었다.

문용채는 쓰거운 표정을 지었다. 8군의 지시로 결국은 마지막 열매만은 겐지로에게 넘겨주는것이 기분나빴던것이다.

《난 서둘러 축배잔을 드는걸 좋아하지 않소. 하지만 이 치과의사와 접선자를 우리 수중에서 조절한다면 에니스준장님의 얼굴에서 주름살을 몇개 덜어줄수 있다고 생각하오.》

《알겠소. 그런데 이자를 재교육할수 있을가?》

《재교육이 아니라 강제교육이고 강제리용이요. 역리용작전이란 늘 그런것이니까. 이 순간부터는 에니스준장의 명의로 중좌의 실수를 허용하지 않겠소. 정황이 발생하면 급히 알리시오. 난 륙군방첩대에 가있겠소. 급히 대구의 〈련락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야겠소!》

문용채는 머리가 풀어지고 실신한듯한 가냘픈 녀인을 끌고나가는 장교들의 뒤를 따라 방에서 급히 사라졌다.

겐지로는 창가로 다가가 한동안 거리풍경을 내려다보다가 홱 돌아섰다.

그는 의자에 앉아있는 사나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크지 않은 방안의 세부들을 깐깐히 살피기 시작했다. 그는 창턱에 손을 짚다가 문득 시선을 떨어뜨렸다. 창턱에 놓여있는 잎이 싱싱한 수선화화분이 그의 눈에 띄였다. 이런 겨울날에 해빛이 드는 창가에 화분을 옮겨놓은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였다. 겐지로는 무심히 그 청초하고 연한 꽃송이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예리한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았다. 겐지로의 눈에 벽쪽에 놓인 원탁이 안겨들었다. 그는 원탁으로 다가가 은빛신선어가 유유히 꼬리치는 둥근 어항을 조심스레 옆으로 옮겨놓았다. 한순간 겐지로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는 곁에 앉아있는 치과의사가 지금 속을 두근거리며 자기의 행동을 살피고있다는것을 륙감으로 느꼈다. 어항이 놓여있던 자리는 약간 축축하였고 보드라운 흙부스레기가 알릴락말락 떨어져있었다.

겐지로는 창턱의 화분을 넝큼 쳐들었다. 자동총을 들고 석상처럼 서있던 두 장교는 중좌를 물끄러미 쳐다볼뿐이였다. 겐지로는 화분을 가져다가 어항이 놓여있던 자리에 옮겨놓았다. 젖은 자리는 화분의 밑바닥과 일치되였다. 수선화는 이 늙은 치과의사가 체포되기직전에 창턱으로 옮긴 위험신호였다는것이 명백해졌다. 겐지로는 접선자가 나타나리라는 문용채의 정보가 정확한것이였다는것을 깨달았다. 겐지로는 저으기 기분이 풀어져서 원탁옆의 의자에 주저앉아 담배를 꺼내물었다. 그는 파르스름한 연기사이로 체포된 사나이를 슬쩍 건너다보았다.

(결국 저 사나이는 자기의 마지막신호수단을 나에게 빼앗긴셈이지. 이상한 일인걸, 저 치과의사는 정보공작으로 늙은것이 분명한데

상대자에게 경고하는 위험신호로 이따위 상투적인 화분을 리용하다니… 아마 이 겐지로와 맞다들리라고는 생각 못했을것이다. 기다리자. 운명의 마지막시각을 기다리는 저 사나이와 함께 나도 새로운 로획물을 기다리자. 접선자는 어떤자일것인가?…)

겐지로는 군복안주머니에서 례의 수잔나가 입수한 사진을 꺼내들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문득 그는 자기를 찬찬히 바라보는 치과의사의 눈길을 느끼고 얼굴을 들었다.

《설민기박사, 그래 이젠 정신이 들었소?… 이젠 더 뻗쳐봐야 소용없소. 난 당신을 방첩기관의 지하실로 끌고갈 생각은 없소.》 하고 겐지로는 랭소를 지으며 치과의사에게 말했다. 《당신의 눈앞에서 접선자는 고스란히 내 손에 들어올테니까. 난 이미 그가 누구라는걸 짐작하고있소. 당신은 지금 속으로 몹시 불안할테지? 대구보다는 서울이 안전하리라 여겼겠지? 그럴거야. 심정이 리해되거든.》

《…》

치과의사 설민기박사, 아니 리준구는 뚫어지게 그를 바라볼뿐이였다. 겐지로는 자리에서 움쭉 몸을 일으켰다. 그는 리준구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난 이미 오래전부터 대구에서 당신의 치과병원을 주목하고있었소. 당신은 교묘하게도 8군사령부 장교들을 단골손님으로 만들어버렸더군. 그들속에는 나의 흥미를 끄는 몇 인물들이 규칙적으로 당신의 처치실문턱을 넘어서군했소… 이봐, 자네두 이젠 귀밑머리가 센것 같은데 정탐가의 생애란 그런거야. 자네에게 이젠 뭐가 남았나? 결국 공작은 실패했지, 죽음은 가까와오고. 운명이란 가혹한것이야. …》

겐지로의 말에 리준구는 두눈을 감았다. 겐지로에게는 그가 자기의 말에 절망적인 자신의 처지를 두고 회한에 빠진듯이 보였다. 한순간 겐지로는 그가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나 자기나 인생을 모험하고있는 정탐가가 아닌가. 정탐가의 불행이란 동질의 것이 아닐가.

별안간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겐지로는 홱 돌아서서 귀를 강구었다.

한 장교가 발소리를 죽이며 출입문쪽으로 다가갔다. 한순간 숨

가쁜 침묵이 흘렀다. 이때 다시 문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림송은 라이리 에니스준장의 지시대로 서울의 8군정보부장에게 도청기사건과 관련한 공작보고서를 제출하고 세종호텔에 들려 아침식사를 한 다음 승용차에 올랐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본후 천천히 충무로쪽으로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다. 어제밤 지급전화를 걸었으니 지금쯤 리준구와 무선수가 비밀련락장소에서 자기를 기다리고있을것이였다. 림송은 《리퍼작전》이 시간을 다투는만큼 정상적인 접선날자를 벗어나 비상상면을 요구했던것이다.

접선시간인 오전 9시까지는 아직도 37분이 남아있었다.

지금 림송의 품에는 시급히 조국에 보내야 할 그 귀중한 정보자료가 들어있었다. 《레인보작전》의 첫 단계인 《리퍼작전》의 전모는 지금 림송에게 명백해졌다.

어제 에니스준장은 림송을 처음으로 《련락사무소》병영앞의 훈련장으로 호출하였다. 에니스는 림송과 문용채가 선발한 분견대원들의 최종훈련모습을 그들에게 보이기로 결심한것이였다.

에니스준장이 직접 곧 적후에 파견될 8240부대 성원들의 최종훈련을 판정하였다. 정보부대는 주로 미중앙정보국의 월터 베 스미스가 작성하고 그후 공군대좌 바이 트론에 의해 보충된 오.에쓰.에쓰(전략정보국)의 훈련강령에 기초하여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기초훈련과정안으로 격술,무기법,모르스전신부호암기와 무선교신법,폭발물의 사용법과 락하산투하훈련,비밀전술과 위장법 즉 미행법,감시법,아지트를 찾는 법,주소바꾸는 법,순간적인 위장과 변장술을 익혔다. 한편 암호의 리용과 해독법,우리측 반탐기관의 기구체계와 활동방법을 연구하였다. 림송이 듀페이중좌가 지휘하는 륙군정보국출신 성원들이 아니라 정보공작에 처음 인입된 스케몬소좌의 항공륙전부대를 추천한것은 물론 문용채를 대표로 하는 서울정보국의 요구를 고려한것이지만 그와 함께 그 조가 단기훈련을 마쳤으므로 비교적 위험성이 적었기때문이였다. 문용채는 자기들의 지시를 받는 성원들로 구성된 스케몬조의 추천을 위해 림송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스케몬과 듀페이중좌를 상대로 한 림송의 책략은 곧 심리적결과를 가져왔다. 에니스준장에게 자기 조를 추천한 사실을 안 스케몬소좌는 림송에게 한결 곰살궂은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듀페이는 불만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작전회의가 있은 날 저녁 듀페이는 잔뜩 취해서 장교구락부 웃층의 림송의 방으로 찾아왔었다.
《여보게, 림송. 난 자네가 나에 대한 복수를 그렇게 교묘하게 할줄은 몰랐네.》 하고 듀페이는 침대우에 쓰러질듯 걸터앉으며 울기에 차서 부르짖었다. 《자네가 스케몬에게 추파를 던지리라고는 생각 못했네. 그자야 한갖 락하산전문가가 아닌가. 그의 훈련강령은 이미 낡아버린 오.에쓰.에쓰의 고전형이거든. 자넨 날 무시하였지만 자네가 요즘 눈독을 들이고있는 한 녀인이 그 스케몬소좌때문에 얼마나 시달림을 받고있는지 모를걸세. 지금 정보부대 사령부에서는 자네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아! 자네는 혹시 사랑의 적수에게 자선을 베풀려거나 혹은 스케몬의 부친이 국방성의 고급관리라는데 생각이 멎은게 아닌가?》
림송은 듀페이가 취한것처럼 행동하고있지만 속은 멀쩡하다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장에서 차잔을 집어들고 그에게로 다가왔다.
《듀페이, 너무 취한체하지 말게. 단톤은 여론같은데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고 했네. 그는 여론은 창녀와 같은것이고 무의미한것이라고 했지. 자넨 강인한 성격이지만 참을성이 없구만. 열매는 큰 나무에 열리는 법이야. 난 자네가 〈리퍼작전〉이 아니라 〈레인보작전〉때 나를 찾아왔다면 달리 말했을거네.》
림송의 말에 듀페이의 눈은 번쩍하고 빛났다. 그는 차잔을 들어 단숨에 마셔버렸다.
《림송, 그게 진정인가?》
《난 그리스도교를 믿지.》
《그럼 자넬 믿겠네. 에니스준장은 한국인인 자네들의 의견을 존중하네. 사실 〈리퍼작전〉은 〈레인보작전〉을 극동사령부 장령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에니스준장의 안내서같은거니까. 이제야 알겠네. 자넨 결국 스케몬소좌가 전선너머에서 돌아오지 않길 바라는거겠지? 그가 지휘하는 특공대는 한주일후에 떠나네. 이미 지역은 결정되지 않았나. 그것은 우드코크사단포들의 사격권에서 멀지 않을만큼 전선에서 가까운곳이니까 위험한 구역이지.》
림송은 무심한듯한 눈길로 그를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난 스케몬소좌가 에니스준장앞에서 참나무잎훈장을 받을 때 질투

의 감정은 느끼지 않을걸세.》

《난 자네 말처럼 때를 기다리겠네.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심장이 크고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으로 기여나갈만한 인내성이 있어야지.》

듀페이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더니 얼핏 림송을 넘겨다보았다.

《참, 자네 인차 서울로 떠난다지?》

《그걸 어떻게 알고있나?》

림송은 그가 자기를 찾아온 진목적을 이제야 드러내고있다는것을 간파했다.

《준장의 보좌관인 내가 왜 모르겠나. 난 자네가 특수련락장교래서가 아니네. 자넨 그… 도청기사건으로 준장의 신임을 크게 얻었으니까.》

《부럽나?》

《아니, 난 진심으로 기뻐할뿐이네. 참, 림송, 준장은 도청기건을 8군정보부장에게 보고하려는걸가?…》

듀페이는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물었다. 림송은 빙그레 웃었다.

《글쎄, 하지만 난 그 도청기에서 자네의 지문이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데? 그걸 자네가 확인했다고 해서 하는 말은 아니네.》

림송의 말에 듀페이는 펄쩍 뛰였다.

《림송, 롱담이라도 그런 말은 말게. 가뜩이나 준장은 나를 색다른 눈으로 보고있어. 이번에 내가 〈리퍼작전〉에서 빠진걸 보게!…》

《난 자네가 그렇게 놀랄줄은 몰랐네. 준장은 이번 사건을 두고 사령부의 장령들이 캐논방첩기관에 대한 태도를 바꾸리라 기대하더군…》

듀페이의 불안은 다소 진정이 되는것 같았다. 물론 림송은 그가 이미 도청기에서 자기의 지문을 말끔히 지웠으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요는 림송이 리준구와 비상상면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것이였다. 에니스는 도청기사건으로 림송을 서울에 파견할 결심을 한것이였다.…

승용차는 명동거리를 에돌아 충무로구역으로 들어섰다. 늦은 아침이였으나 거리에 빼곡이 들어찬 형형색색의 빠와 레스토랑, 카페들에서는 사창굴 창녀풍의 녀인들이 장교들과 신사들의 팔을 끼고 들락날락하였고 상점들은 초라한 간판들과 마네킹으로 길가는 사

람들에게 추파를 던지고있었다.

겨울치고는 퍽 온화하고 선명한 날씨였다.

림송은 서울에 체류하는 펜구락부 기자들이 자주 출입하는 《춘희》다방에 승용차를 멈춰세우고 후사경을 들여다보았다. 후사경속으로 다방 맞은켠 멀리에 있는 목조건물이 보였다. 주변은 행인들이 분주히 오갈뿐 별다른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림송은 차에서 내려 다방안으로 들어섰다. 다방안에서는 늦잠을 잔 서울과 도꾜의 문필가들이 아침식사를 하고있었다.

림송이 아지트가 바라보이는 창문가의 식탁에 자리잡자 분내를 풍기는 녀급이 장발을 흔들며 다가왔다. 림송은 음식안내표를 번졌다.

주로 일본료리였다. 수이죠스, 젠죠스, 짜장면, 뽀즈 등 중국료리가 기름료리라면 일본은 물의 료리였다. 식사안내표에는 가마보꼬, 우메보시, 꾸돔부리, 노리마끼즈시, 세끼항스끼야끼 등과 청량음료들이 적혀있었다. 림송은 우메보시(매화열매절임)와 코카콜라를 청한 다음 군복주머니에서 《동아일보》조간지를 꺼내들었다.

《아, 림송씨, 오셨군요. 기다리던참입니다. 세종호텔에 전화를 거니 이 음식점으로 떠났다기에 제창 왔지요. 별실로 가십시다.》 하고 림송에게 다가선것은 사치한 청회색양복을 입은 펜구락부 기자 죤스톤과 은테안경을 낀 중년의 신사였다.

림송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25분전이였다. 아담스의 친구인 이 펜구락부 기자와의 뜻밖의 상봉은 그에게서 귀중한 시간을 빼앗을수 있었다.

《기자선생, 거리풍경을 내다볼수 있는 이 식탁이 좋군요. 난 지금 시간이 없는데요. 무엇때문에 나에게 전화까지 걸었는가요?》

림송은 호텔에 들렸을 때 관리인이 얼핏 무슨 전화소리를 하던 일이 떠올랐다.

두 사나이는 림송의 맞은켠에 앉았다.

《지금 교회를 경영하는 이 극작가 변태설씨는 당신에게 부탁하여 신앙심이 없는 서울시민들을 깨우치는 일종의 종교옵써버 같은 신문을 발간하고싶어하지요.》 하고 죤스톤은 녀급이 날라온 마사무네를 잔에 부으며 말했다. 《아담스씨는 당신이 지투와 8군민사국에서 발간요청서에 비준을 허가하도록 협력해줄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옵써버라… 난 우리 신문들이 보도적기능과 유도적기능,

오락적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데 아주 새롭습니다. 힘써보겠습니다. 물론 지투 행정부를 납득시키려면 일정한 써비스가 든다는건 알고 있겠지요?》

림송의 말에 영어를 모르는 변태설은 죤스톤에게 멍청한 낯을 돌렸다.

죤스톤은 그에게 림송의 말을 통역하기 시작했다. 림송은 술잔을 들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지트인 목조건물 2층의 창턱에는 위험신호인 수선화 화분이 놓여있지 않았다.

《변태설씨는 당신에게 자금문제는 걱정말라고 합니다. 그는 자기신문이 정치문제와는 별도로 그리스도교, 유교, 불교의 진실한 교리를 설교하게 될거라고 합니다.》

《그래 극작가선생, 당신은 결국 아시아와 서방의 종교들을 통일시킬 작정입니까? 보매 당신은 신자는 아닌것 같군요.》 하고 림송은 슬며시 시계를 보며 그에게 물었다. 15분전 9시였다. 시간, 순간, 초… 가 흐르고있었다.

림송의 물음에 다소 어안이 벙벙해진 변태설은 합장하듯 가슴우에 손을 가져가며 머리를 갑삭거렸다.

《장교님은 정말 예민하십니다. 물론 전 신자가 아니지요. 한때 서울대학교에서 륜리학과 문학과 종교를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만… 헤브라이어로 아멘이란 〈참으로, 확실히〉라는 뜻이지만 결국 그리스도교나 유교는 인간에게 선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자는것이지요. 불교 즉 불타란 말도 진리를 깨달은자라는 뜻이지요. 저는 불교의 8전도와 5계 즉 정의, 결의, 언사, 행위, 생활, 노력, 사고, 명상과 생을 죽이지 않는것, 도적질과 음탕과 거짓과 술을 즐기지 않는것을 설교하려는것이지요. 그리고 유교의 삼강오륜과 삼종지의, 칠거지악을 현대의 인간들에게 인식시켜야 하지요. …》

림송은 변태설의 말을 지루하게 들으면서 이번엔 두사람이 느끼도록 로골적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접선시간까지는 불과 7분이 남아있었다. 눈치가 빠른 은테안경은 얼른 입을 다물었다.

《림송씨, 변태설씨는 이 종교합동신문의 발간으로 1609년에 첫 인쇄주간신문인 〈렐라티온〉을 발간한 도이췰란드인의 영예를 얻어보려는 야심을 품고있답니다. 영국의 〈위클리 뉴스〉나 프랑스의 〈가제뜨〉도 그 신문의 영향하에 출현하였거든요.》 하고 죤

스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죤스톤씨, 〈렐라티온〉은 결코 첫 신문이 아니였소. 조선에서는 이미 1577년에 관보인 〈기별지〉를 인쇄했거든요. 그리고 신문의 력사를 본다면 어쨌든 기원전 로마제국에서 출현한 〈원로원통보〉로부터 시작해야지요. 자, 그럼 난 그만 실례하겠소. 당신들의 부탁은 아담스선생을 통해 전하지요.》

림송은 죤스톤과 악수하고 다방문을 나섰다. 약간 쌀쌀한 바람이 군용외투섶으로 스며들었다. 림송은 현관계단을 내려서서 승용차곁에 이르자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파르스름한 담배연기가 차거운 겨울대기속으로 흩어져 날렸다. 림송은 목조건물의 맞은켠 인도에 올라서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번화한 충무로구역은 벌써 유흥장과 상점가를 찾는 사람들로 인총이 끓기 시작했다. 부윳한 도시상공의 회색빛 하늘에서는 찬 해빛이 조을듯이 내려비치고있었다.

림송은 담배를 입에 문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목조건물은 점점 가까와왔다. 이제는 룡의 모습을 새긴 철울타리의 부각의 세부들까지 똑똑히 눈에 안겨들었다. 림송은 길을 건너가려고 약간 걸음을 주춤하였다. 한순간 이상한 불안감이 림송의 뇌리를 때렸다. 그것은 언제나 닫겨있던 철문의 고리쇠가 빠져나간것이 보였기때문이였다.

리준구는 서울에 올 때면 늘 부각상을 새긴 큰 철문옆의 작은 문을 리용하군하였다. 철문은 자동차가 출입할 때만 열게 되여있었다. 림송은 잠시 그자리에 멈춰서서 한순간 생각에 잠겼다. 목조건물마당에는 아무런 차도 보이지 않았다. 리준구가 택시를 리용했다하더라도 그것이 철문을 넘어설리는 없었다. 불안한 예감은 그의 발목을 잡고 놓지 않았다. 림송은 다시한번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턱에는 분명 화분이 없었다.

림송은 군복주머니에서 손을 뽑고 목조건물의 출입문과 신문매대사이를 향해 거리를 횡단하기 시작했다. 그가 인도에 멈춰서있은 시간은 불과 몇초도 되지 않았다.

리준구는 문두드리는 소리에 두눈을 떴다. 가물가물 흐려오는 의식속에 그의 눈에는 커다란 창문과 강철빛으로 푸릿하게 밝아오

는 하늘이 안겨들었다.
그 하늘을 배경으로 자기앞에 버티고 서있는 캐논장교의 군복이 용암으로 드러나고있었다. 리준구는 몸을 움직여보려 하였으나 그의 허리와 다리는 철근으로 된듯 까딱도 하지 않았다. 처음 리준구에게는 그 문두드리는 소리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들려왔다. 다음순간 눈길이 빈 창턱에 가닿자 리준구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그는 방금전 겐지로가 창가의 화분을 원탁으로 옮겨놓던 일이 떠올랐다. 그는 신음소리를 내며 온몸을 비틀었다. 그러자 우악스러운 손길이 그의 어깨를 부여잡았다.
(지금 몇시나 되였을가?… 이게 운명의 마지막순간인가?) 하고 리준구는 다시 눈을 감고 괴롭게 숨을 몰아쉬였다. (만약 림송이 위험신호를 보지 못하고 이 방에 들어선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아니 그는 이제 위험신호를 확인할수 없을것이다. 좀더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아직 창밖이 푸릿푸릿한것으로 보아 약속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수도 있지 않는가?… 내가 문용채의 발길에 채워 의식을 잃었던것은 려명이 시작되기전이였다. 그땐 방안에 전등이 켜져있었지. 지금은 전등불이 없다. 그러니 아침은 분명하다.…)
또다시 문소리가 들렸다. 한 장교가 발소리를 죽이며 출입문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방안에 들어서는것 같았다.
리준구는 가슴이 섬찍하였다.
《아니, 수잔나, 당신이 어떻게 된 일이요?》
그쪽에서 겐지로의 불만이 섞인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짜증을 낼 필요는 없어요. 당신을 오래 방해하지는 않을테니까요. 난 오늘중으로 대구에 돌아가겠어요. 방금 문용채에게 들려오는 길이예요. 여기에 있다간 내가 당신에게 타락한 녀자로 보일것 같군요.》
녀자의 맑은 목소리는 몹시 태연하고 세련되여보였다.
《문용채? 당신이 그 친구와 그렇게 빨리 친교가 맺어질줄은 몰랐구만…》
《왜 질투심이라도 생기는가요?》
《아니, 난 이미 모든 녀성과 남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했소!》
《그것 참 고마운 일이군요.》

해죽거리는 녀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수잔나, 난 당신이 전번 실패에서 자극을 받았으리라 믿어왔소. 그런데…》
《흥!》 녀인이 독살스럽게 코방귀를 뀌였다.
《내 일엔 간참 말아요! 내가 서울로 왔다고 해서 당신의 뒤꽁무니나 따라다니려는건 아니니까요. 난 방금도 림송대위를 따라왔어요!…》
《림송? 그가 어디에 있기에?…》
《후에 알려주죠. 우선 그 사진이나 내놓으세요. 그건 내게 필요한거니까요.》
《가만!… 림송을 어디서 보았소?…》
림송의 말이 나오자 리준구도 바싹 긴장해졌다.
《한… 다방에 있더군요. 그는 펜구락부 기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있어요. 어서 사진을 주세요! 나도 이젠 당신이 딱 질색이예요!》
녀자는 신경질을 부리며 어성을 높였다.
《술을 마시고있다?…》 방심에 잠긴듯한 겐지로의 목소리.
《신경질을 부리지 마오. 당신은 아직까진 내 지시를 받아야 해!…》
수잔나는 그 말에 랭소를 짓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겐지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살이 꿋꿋해서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다.
《림송대위가 이 구역에 나타났다?… 이게 우연한 일치인가?》 하고 겐지로는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리준구를 흘끔 바라보았다.
이 순간 리준구는 마음속이 더 불안해지는것을 느끼며 사색을 이어갔다.
(드디여 그 동무가 왔구나. 어떻게 하면 림송에게 위험신호를 보낼수 있을것인가? 어제밤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그는 분명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고 이 건물의 철문으로 들어설것이다. 그를 구원할수 있는 방도는 없단 말인가?…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를 구원할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나, 얼마나 행복할것인가. 림송, 용서하게. 결국 이 모든건 나의 실책때문일세…)
대구아지트에 씨아이씨의 시선이 집중되자 리준구는 점차 본부

와의 교신에서 위험을 느끼게 되였다. 대구교외에서 날리는 전문도 에니스《련락사무소》무선탐지기가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리준구는 안전대책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간 《수성》조의 비상련락선을 리용하기로 결심했다. 한달 가까이 서울아지트는 위험이 없었다. 실수는 한주일전에 있었다. 적구경험이 비교적 어린 무선수가 중고품상점에 축전지를 사러 갔다가 륙군방첩대의 꼬리가 달린것을 몰랐던것이다.
리준구는 불안과 고뇌 속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오늘 이 방에서 지난날처럼 례사로운 상봉이 벌어졌다면 리준구는 림송에게 한생을 두고 잊지 못할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었을것이였다. 리준구는 체포되기직전 림송의 입당이 결정되였다는 조국의 무전을 받았다. 그는 림송의 입당을 축하하여 아침식사때 축배를 들려고 무선수의 장안에서 크지 않은 청주병을 꺼내 식탁우에 놓아두었다.
그러나 생활은 전우의 생명이 새롭게 태여나는 날을 죽음과 삶이 교차되는 가장 엄혹한 순간으로 만들어버렸다. 따뜻한 상봉과 축하의 격려를 그려봤던 리준구에게 있어서 지금의 이 순간은 그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것이였다.
《준위, 건물밖 감시는 조직됐겠지?》
아마빛머리의 장교에게 묻는 겐지로의 말소리에 리준구는 다시 눈을 떴다.
《륙군방첩대는 이 집을 포위할 때부터 그걸 잊지 않았습니다. 그 감시조의 철수명령은 당신이 내릴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자에게 무기는 없었소?》
《기차표와 약이 든 왕진가방이 있었을뿐입니다. 무전기옆에서 문건을 소각한 흔적도 발견하였습니다.》
아마빛머리는 상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을 부언하며 차렷자세를 취했다.
《접선자가 들어오면 총소리를 내지 말아야 해.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붉은정탐이 필요하니까.》
겐지로는 무뚝뚝하게 중얼거린후 다시 원탁옆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갑자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 성급한 동작은 리준구에게 또다시 준엄한 시간의 흐름을 상기시켰다. 자기의 생명과 전우의 신변을 위협하는 순간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있었다.

무엇인가를 경고하며 재촉하며 불안을 느끼게 하며 그 순간이 다가오고있었다. 그 순간이 지나가고있었다. 마치 산악같은 파도처럼 리준구를 향하여 육박해오고있었다.

그 순간은 리준구의 생명을 갉으며 그의 넋과 정신을 비수처럼 찌르며 지나가고 멀어지고 다시 이어지면서 위험과 압박과 고통을 가져오고있었다.

(내 일생에서 시간의 무자비성과 순간의 준엄성을 이 시각처럼 느껴본적이 있었던가. 젊은 시절에는 시간의 흐름이 느리다고 생각했고 반백이 된 오늘에는 세월이 속절없이 흐른다고 자신을 채찍질했지.… 사랑하는 전우를 위해서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을 한생에 부끄럼없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좌님,담배를 피워도 되겠습니까?》

《피우게.》

아마빛머리는 주머니를 부스럭거리더니 담배곽을 꺼내들었다. 그의 동료가 마주 걸어와서 라이타를 꺼내들었다.

《중좌님,지금 몇시나 되였습니까?》

《8시 53분이구만. 왜,속이 출출해?》

《밤새 밖에서 떨다가 또 늙다리를 족치다나니… 제길할 레숀통이라도 가지고올걸 그랬습니다.》

《준위,이 집 부엌을 한번 뒤져보게.》

2급준위는 겐지로의 말에 코를 벌름거리며 나는듯이 부엌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니… 나는 이 짧은 한순간에 나의 인생을 총화지어야 하고 조국앞에 떳떳한 당원의 구실을 해야 한다. 오늘 당대렬에 들어서는 신입당원에게 나는 무엇을 안겨주어야 하는가? 이제는 그에게 작별의 악수마저도 나눌수 없는 이 환경에서… 고작 담배 한대를 태울수 있는 시간에… 저 2급준위가 담배꽁초를 내던지는 순간이 마지막운명의 시각이다. 아니 그 운명에 도전할 내 인생의 마지막투쟁의 시각이다!…

겐지로,너는 나에게 남은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 너는 나의 머리에 흰오리가 섞인것만을 볼수 있었어.… 내 인생에는 고난에 찬 시절도 있었고 운명에 굴종했던 절망과 고독의 시기도 있었다. 그것은 나의 반생이 흘러간 어두운 나날이였지. 혁명을 인식하고

조국을 알았던, 자기 삶이 영원하다는것을 자각하고 걸어온것은 불과 다섯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 다섯해속에서 자기를 찾았고 인간이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을 알았다. 당은 폭우쏟아지는 이국의 거리에서 학우들과 더불어 언밥을 얻어먹으며 고뇌에 찬 배움의 길을 걸어온 나를 혁명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는 새 인간으로 변모시켜주었다. 당은 나를 조국에 필요한 인간으로, 자기 위업을 자각한 로동계급의 전위로 키워주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인상깊은 추억은 무엇일가?… 아마 그건 첫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던 그날과 당원증을 품고 신록푸른 대동강 기슭을 걷던 그밤일테지. 그래 잊을수 없는 추억은 얼마나 많은가. 언젠가는 당세포총회에서 과장동무의 호된 비판을 받고 밤새 잠들지 못하고 새날을 맞은적도 있었다. 적후로 떠나오던 날 저녁 주한경장령은 뜻깊은 이야기를 해주었지. 그것은 지하공작의 간고한 길을 헤쳐간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내가 어깨에 소좌의 별을 달게 되고 첫 군공메달이 수여되였다는 소식을 들은것은 하와이련락소의 아늑한 방이였지.

과장동무는 만경대혁명학원을 나온 아들애가 전선에서 기관총소대장을 한다고 전해주었었지. 전선원호사업에 나섰던 안해가 팔에 부상을 입고도 구역병원일을 돕는다고 했지. …

그래, 내 생애는 보람있는것이였고 조국앞에 떳떳한것이였다.

겐지로, 너는 운명에 순종하는 인간 리준구가 아니라 그 가혹한 운명앞에 도전하는 당원 리준구를 보게 될것이다. 너는 그 운명의 주인이 7분이라는 순간을 영원한 삶으로 이을수 있다는것을 모를뿐이다!… 림송, 미안하네. 용서하게! 입당보증인인 나는 동무에게 입당을 축하하는 다정한 말 한마디도 할수 없구만!)

리준구는 마음속으로 림송과 작별하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부엌쪽에서 2급준위가 찬장을 뒤지는 부스럭소리가 들려왔다.

《중좌님, 여기 빵과 돼지비계가 있습니다. 식탁우에는 청주도 한병 있습니다. 가져오랍니까?》

2급준위의 흐뭇해하는 목소리가 들리자 겐지로는 움쭉 몸을 일으켰다. 그는 얼핏 리준구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니 그냥 부엌으로 걸어갔다. 거의 실신상태에 이른 이 늙은 치과의사에게 아직도 기력이 남아있으리라고는 믿을수 없는 모양이다.

겐지로가 부엌으로 사라지자 리준구의 곁에 남아있던 캐논방첩기관 장교는 불만에 가득찬 얼굴을 찌프리고 그쪽을 바라보았다.

리준구가 앉아있는 의자로부터 화분이 놓인 원탁까지는 불과 세걸음도 되지 않았다. 그는 처음 자기에게 그 거리를 돌파할수 있는 힘이 있으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는 다만 자기를 지키고있는 장교의 자동총에서 불이 토하기만을 간절히 바랄뿐이였다.

그는 장교가 헛눈을 팔고있는 짧은 순간 마지막의지를 모아 몸을 일으켰다. 그는 비틀거리며 원탁으로 다가가 수선화화분을 손에 들자 창문쪽으로 홱 몸을 돌렸다. 그가 한걸음 내짚으며 화분을 창문에 던지는 순간 기관총련발사격소리가 들렸다. 총소리에 눌리여 창문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물론 한명도 없었다.

총소리를 듣고 겐지로와 2급준위가 황급히 방안으로 달려왔다.

2급준위가 총에 맞아 쓰러진 리준구의 몸을 발로 걷어찼다. 겐지로는 방금전까지만 해도 두눈을 감고 운명에 순종하듯 의자에 기대있던 머리가 희끗희끗한 그 사나이의 잔주름 많은 얼굴에 고요한 미소가 굳어져있는것을 공포속에 바라보았다.

제 17 장

진눈까비가 가볍게 흩날리고있었다. 태동하는 자연의 횡포앞에서도 바야흐로 계절은 변함없는 자기의 절기를 맞이하고있었다. 물기에 축축해진 진눈까비는 땅우에 내려앉자마자 가뭇없이 녹아버리군했다. 겨우내 잠자던 대지는 열기를 내뿜으며 인내성있게 마지막 추위와 싸우고있었다. 정원에 서있는 메마른 나무가지들은 거무스레한 빛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고 마른 장미덩굴이 우거진 담장쪽 물기에 질펀해진 땅우에서는 김이 문문 피여오르고있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깃들기 시작한 정원을 하염없이 내다보다가 문득 눈길이 굳어졌다. 진눈까비를 뒤집어쓴 승용차가 소리없이 달려오다가 정문앞에서 멈춰섰던것이다. 한참후에 문이 열리고 림송대위가 내려섰다. 그는 한동안 침울한 눈길로 장교구락부청사를 올려다보더니 현관으로 들어섰다. 나는 그를 만나려고 창

가에서 물러섰다. 이틀전에 나는 그에게 도시교외로 나갈수 있는 화물자동차통행증을 부탁하였었다.

최근 도시주변에는 8군사령부와 륙군본부 헌병사령부에서 관할하는 차단소들과 검문소들이 곳곳에 세워져 사람들과 자동차들의 운행을 단속하고있었다. 장교구락부에서 소비하는 대부분의 보급물자들은 8군병참기지사령부에서 공급하므로 을지길아바이가 정찰소조련락지점까지 움직이는데 적지 않은 곤난을 겪고있었다. 8군사령부정보부와 《련락사무소》 방첩과는 도시 위수구역을 벗어나는 자동차들과 특히 전선쪽으로 난 도로를 엄격하게 통제하고있었다.

나는 방을 나서서 웃층으로 나있는 계단에 올라섰다. 림송의 방으로 찾아가는 나의 마음은 어쩐지 개운치 못했다. 서울에서 돌아온 다음날부터 웬일인지 그의 낯빛은 어두웠고 수척해진 얼굴에는 고뇌의 흔적이 질게 어려있었다. 그 어떤 정신적인 충격과 번민이 그의 성격마저 우울하게 만든듯싶었다. 그는 식당에 들어서서도 나의 눈길을 피하며 간단히 차를 마시고는 급히 승용차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지군하였다. 국철이에게 연을 만들어준 그날부터,그 인상적인 설명절이 지난 다음부터 나는 림송에 대하여 어느정도 리해하게 되는것 같았고 그가 바로 내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그 인간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품어왔었다. 언젠가 대학기숙사에 찾아왔던 윤성녀어머니는 아들이 조국을 멀리 떠나 아버지가 걷던 투쟁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고있다 하지 않았던가. 나는 나의 심장의 론리를 믿고싶었다. 세월은 흘렀어도 순결한 동요시절의 추억속에 깊이 아로새겨진 우정의 흔적만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수 없는것이였다. 그 인간에게서 풍겨오는 친근감과 정신적미는 을지길중사가 충고한 세계를 넘어선 몸시도 낯익고 부드럽고 섬세한것이였다. 이것이 과연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준 사나이에게 끌리는 단순한 녀성의 인정과 고마움과 일종의 매혹의 결과일가? 아니다. 만약 그가 미군장교복만 입지 않았다면 나는 서슴없이 그에게 달려가 나의 이 마음을 고백하고 그가 누구라는것을 알았을것이다. 그는 확실히 나의 주위에서 범람하며 흘러가는 뭇장교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같았다. 그것은 지성도와 수양에서 오는 차이도 아니였고 성격에서 오는것도 아니였다. 세상에는 얼굴인상이 류사한 사람도 있을것이다. 그리고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어제날의

박성일의 모습은 변할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도 녀자의 눈, 애인의 눈만은 속일수 없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머리를 싸쥐고 책상앞에 마주앉아있던 림송은 흠칫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혹시 제가 방해되는건 아니세요?》

나는 문가에 주춤 멈춰서며 림송의 어두운 얼굴빛을 살펴보았다.

《아닙니다. 오히려 난 요즘 당신의 방문을 기다리고있었는데요.》 하고 림송은 억지로 입가에 미소를 지어보이며 나에게 자리를 권했다.

《날씨가 침울하니 마음도 울적해지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긋지긋한 전쟁이 아닙니까.》

《혹시… 림송씨는 무슨 불행이라도 당하신게 아니세요?》

나는 의자모서리를 손으로 만지며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림송은 내쪽으로 의자를 돌려앉으며 짧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렇게 보입니까?》

《전… 녀자가 아니나요.》

《옳습니다. 녀성들앞에서는… 자기를 감추기가 퍽 힘듭니다. 그것도… 겸양있고 진실한 녀성앞에서는 말입니다.》 하고 림송은 약간 흥분한 어조로 부르짖으며 자리에서 또 일어나더니 방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당신의 물음을 받으니 문득… 어머니 생각이 떠오릅니다. 어머니는 늘 나의 얼굴빛만 보고서도 내가 뭘 생각하는지 알아맞히군했지요. 그게 아마 어머니, 조선녀성들의 섬세한 륙감인가보지요. 당신이 바로 봤습니다. … 난 얼마전에 나의 가장 귀중한 벗을 한사람… 잃었습니다. 당신이 상상도 못할 그렇게… 훌륭하고 성실하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였습니다. 아니 난 그가 죽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땅을 위해서 값있는 생애를 빛내였거든요!》

문득 림송은 말을 끊더니 홱 몸을 돌리고 예리한 시선으로 나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눈은 황황 불타오르는것 같았다. 우리 두사람의 눈길이 부딪쳤다. 서로의 마음을 읽으려는 그 눈길을 외면하기는 힘든 일이였다.

림송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먼저 눈길을 돌리며 또다시 진

정할줄 모르고 방안을 거닐었다.

《난 언젠가 죽음의 총구앞에 선 한 녀성이 하던 말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그 녀자는… 조국을 위해 바친 삶은 영생할거라고 하더군요! 옳습니다! 나의 벗이 바친 성실한 삶을 사람들은 잊지 않을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는 법이니까요.》

《?!…》

림송의 말에 나는 그만 눈앞이 캄캄해지는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어둠속에서 갑자기 부닥친 깊은 절벽앞에 나섰을 때의 감정이 아니였다. 나는 해쓱하게 질린 자기의 낯색을 그앞에서 감출수도 없었다. 오늘밤은 이 방에 탁상등만 켜있는것이 아니였다. 나는 림송이 나라는 녀성에 대하여 처음부터 모든것을 다 알고있었다는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했으나 모든것이 명백해진 이 시각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운것은 결코 불안감도 의혹도 아니였다. 나는 내리깐 눈길을 다시 들수 없었다. 예리한 이 사나이의 눈길앞에서 자기의 모든것이 너무도 송두리채 드러난듯싶어졌다.

림송은 나의 얼굴표정에는 아랑곳없이 그냥 방안을 서성거리더니 창가에 멈춰섰다. 그는 담배를 피워물고 사색에 잠겨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어둠이 깃들자 진눈까비는 점차 설펴지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물기에 번들거리는 정원의 숲 우듬지들이 늦겨울바람에 설레이는 소리가 불안하게 들려왔다.

《참, 내가 너무 자기 세계에 빠져있었습니다.》 문득 림송의 나직한 음성이 들렸다.

《당신은 나에게 검문소를 통과할수 있는 자동차통행증을 부탁했지요. 통행증을… 승용차안에 두고 왔군요. 차고까지 갔다오려면 5분밖에 안걸릴터이니 잠간 방에서 기다려주십시오.》

림송은 온화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며 벽에서 코트를 벗겨들었다.

《그럼 전 나가서 기다리겠어요.》

나는 주저하며 의자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섰다.

《아니, 그럴것 없이 방을 지켜주십시오. 책상우에… 문건들이 있는만큼 잠간 방을 비우재도 봉인을 해야 하니까요. 이젠 그게 막 싫어졌습니다.》 하고 림송은 책상우에서 모자를 집어쓰며 크지 않은 회색봉투를 한옆으로 밀어놓았다. 나는 한순간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를 똑똑히 듣는것 같았다. 림송은 무심한 눈길로 책상우를 정돈하고나서 나에게로 돌아섰다.

《아마 이 문건이 인민군정찰기관에 넘어가면 한주일후에… 전선서부에서 두개 사단이 전멸될수 있지요. 시간을 다투는 작전인만큼 아마 그들의 정찰기관도 지금 맹활동을 시작했을것입니다.》

림송은 야릇한 미소를 지어보이더니 급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동안 방안에는 숨막힐듯한 정적이 깃들었다. 첫 순간 나는 림송의 책상앞으로 다가갈수 없었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심장이 가슴에서 튀여나올듯이 쿵쿵 뛰였기때문이였다.…

찬눈이 단볼을 적시였다. 림송은 현관앞에서 담배를 피워문후 차고쪽으로 걸어갔다. 밤이 되여서인지 발밑이 꾸득꾸득하였다.

(한순정이가 혹시 나의 의도를 눈치채지나 않았을가? 그래, 난 그 녀자가 눈치채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것은 뜻밖의 사태를 빚어낼수 있어. 그 문건을 지투의 검토나 역정보로 리해할수도 있거든. 검토라고 생각한다면 그 녀자가 문건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을수 있다. 그러면 나의 마지막기대는 허물어진다.…)

림송은 이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기실 화물차통행증은 그의 군복주머니에 있었다. 그는 다시 현관쪽으로 돌아섰다.

(가만, 좀더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내가 그 녀자를 믿을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그가 부대정찰소조와 이어져있다는 가정은 어디에 기초하고있는가?… 난 조국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못하지 않았는가? 역홈에서 보여준 그 녀자의 진심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본부와의 련락루트로 되는가?…)

또다시 의혹과 불안감이 가슴속으로 흘러들었다. 진눈까비는 달아오른 얼굴에 부딪쳐 순간에 녹아흘러내렸다. 림송은 손으로 얼굴의 물기를 훔치였다.

(내가 그 녀자에게 희망을 거는 유일한 담보는 레이몬드로부터 얻은 정보이다. 순정이는 사형수감방에서 한 녀성정찰병과 함께 있었다. 아니, 그보다도 순정이는 내 마음속의 영원한 애인인 분이이기때문이다. 내 심장은 이것을 굳게 믿는다!…)

론리는 부족하였지만 이 막다른 골목에서 림송은 심장의 속삭임

에 모든것을 맡기고싶었다. 다른 길은 없었다.

림송이 현관가까이 다가서는데 검은 승용차가 소리없이 다가왔다. 차안에서는 밤색 가죽잠바를 입은 브라운 겐지로가 목을 움츠리고 내렸다. 그는 습관적으로 뒤를 돌아보더니 성급히 장교구락부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오래 생각할 시간적여유가 없다는것을 직감했다. 순간을 놓치면 후회가 따를것이다. 나는 회색봉투를 들고 급히 림송의 방을 나섰다.

푸른 주단이 깔린 복도, 수없이 오간 그 복도가 이 순간처럼 길어보이기는 처음이다. 걸음걸음에 불안과 초조감이, 공포가 뒤따랐다. 아래층계단을 내려서던 나는 흠칫 놀라 그자리에 굳어졌다. 응접홀에 놓인 식탁에 브라운 겐지로가 앉아 식사안내표를 뒤적이고있었다. 이제 돌아서서 웃층의 다른 계단으로 돌아가든가 아니면 겐지로앞을 지나야 을지길아바이의 방으로 갈수 있었다.

짧은 순간 내가 망설이다가 회색봉투를 옆주머니에 넣을 때 겐지로가 얼굴을 들었다. 그는 계단에 주춤거리며 서있는 나를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아가씨, 늦은 밤에 안됐소.》 그는 저으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속이 클클해서 들렀소. 위스키라도 한잔 주지…》

《네.》

나는 얼결에 대답하고 카운다쪽으로 황황히 걸어갔다.

잔과 위스키병을 식탁우에 놓자 겐지로는 우울한 눈길로 나를 올려다보더니 옆자리를 가리켰다.

《오래간만인데 좀 앉으면 안되겠소? 전번엔 내가 취했댔소. 지루한 겨울밤인데 함께 즐거운 이야기라도 할가요? 나역시 음악을 좋아하오.》

나는 부정하면 그가 더 의심할것 같아 의자모서리에 불안스레 앉았다. 나는 눈길을 내리깔았다.

《한잔 붓소.》

《겐지로씨는 몹시 기분이 무거워보이는군요.》

나의 말에 그는 랭소를 지었다.

《난 지금까지 생활에서 자신을 불운한 사나이로 여겨왔소. 전쟁의

신은 나에게 등을 돌려댔나보오.…》 그는 위스키를 찔끔 마시더니 눈을 쪼프렸다.

《난 그렇고… 아가씨는 왜 그리 불안해하오? 얼굴에 초조감과 긴장감이 력력하구려!》

세련된 정탐배의 눈은 예리한것이였다. 나는 얼결에 옆주머니에 눈이 갔다. 긴 봉투는 열린채로 웃부분이 밖으로 삐죽이 내밀려있었다.

나는 겐지로를 마주보았다. 그는 실눈을 하고 나의 옆주머니를 내려다보고있었다. 나는 속이 바질바질 타는것을 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왜, 좀더 앉아있지.》

《오늘 금액결산을 해야지요. 이젠 밤도 깊었구요.》

《그… 봉투에는 딸라가 들어있소?… 필요하다면 내가 그걸 열배로 더 넣어주지!》

《?!…》

나는 문득 나의 주변을 포위한 고요, 숨막힐듯한 정적을 의식했다. 아무런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문득 내 심장의 고동소리가 먼곳에서 들려오는 둔중한 메아리처럼 고막을 흔든다. 점점 커진다.…

나는 아래입술을 잘그시 깨물었다.

《왜 보수를 바랄가봐? 아니, 난 성실한 장교니까. 아가씨는 사나이들로부터 응당 그 신선한 미의 대가를 받아야지!》

겐지로는 별안간 손을 내밀었다. 순간 나는 뒤로 물러서며 위스키병을 다쳤다. 병이 넘어지면서 술이 식탁보를 적셨다. 겐지로는 벌떡 일어나 나의 팔목을 휘여잡았다.…

《중좌, 이게 무슨짓이요?》

겐지로는 등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리는바람에 한순정의 손을 놓아버렸다. 그는 군복에 묻은 위스키를 툭툭 털며 천천히 돌아섰다. 현관문에는 림송대위가 우뚝 서있었다. 그의 눈은 의미심장하게, 랭랭하게 번쩍였다.

《?!…》

겐지로는 갑자기 속이 서늘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는 마치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다가 들킨 기분이였다.

《겐지로씨, 당신은 녀성의 인격을 모욕했소. 아이젠하워장령은

장교는 국제신사라고 했소! 당장 사죄하시오!》
겐지로는 이발을 악물고 복도쪽으로 달려가는 한순정의 뒤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시 식탁에 마주앉으며 쓰겁게 입을 열었다.
《이건 뭐 명령하는거요?》
《아니, 충고요!》
겐지로는 위스키잔을 쳐들고 가까이 다가온 림송을 흘끔 올려다보았다.
(흥! 국제신사? 아이젠하워가 지나간곳엔 늘 사생아들이 생겨났었지… 음, 나의 예감은 틀린것이 아니였다. 이자는 그림자처럼 저 묘령의 아가씨를 따라다니고있다. 단순한 애정인가? 보호인가? 너절한놈!… 에니스준장은 왜 련락장교의 침실을 여기에 정했는가?… 쌍놈의 두상태기!…)
《그래, 당신은.》 하고 겐지로는 속생각을 거두며 쓰겁게 중얼거렸다. 《언제부터 저 아가씨의 보호자가 됐소?》
《중좌가 후원자의 역할을 집어던진 다음부터요!》
두사람의 눈길이 서로 부딪쳤다.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려는 섬광같은 눈길이였다. 겐지로는 절대로 상대방이 먼저 눈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을것이라는것을 한순간 깨달았다. 그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얼굴을 돌렸다.
《좋소, 후원자제씨. 기사도다운 당신을 위해서 한잔 듭시다. 술맛은 싸움뒤끝에 더 나는 법이니까.》
《나 역시 중좌님을 계속 괴롭힐 의사는 없습니다.》
림송은 문득 얼굴근육을 풀며 그와 마주앉았다. 그는 겐지로가 새 병을 터뜨려 부어놓은 술을 단숨에 쭉 들이켰다.

5분후에 돌아오겠다던 림송은 거의 반시간이 지나서야 방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약간 눅눅해진 자동차통행증이 쥐여져있었다.
방금전에 있은 불쾌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는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저으기 옹색한 기분이였다.…
림송은 내가 도로 가져다놓은 회색봉투를 얼핏 일별하고나서 한옆으로 밀어놓았다. 나는 조용히 속숨을 내쉬였다. 을지길은 그 문건을 복사하는데 단 일분도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는 손동작이 빠른 사람이였다.…

나는 통행증을 받아들고 비라도 맞은것처럼 진눈까비에 축축히 젖은 림송의 군복을 바라보며 근심스레 물었다.

《저… 몸을 녹이게 따끈한 커피라도 가져올가요?》

그러자 림송은 머리를 저으며 얼굴에 미소를 그려보였다.

《아니, 필요없습니다. 방금 겐지로중좌와 함께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혹시 실례되지 않는다면 난 당신에게 잠간만이라도 음악을 부탁할가 합니다.》

어쩐지 이 순간 그의 얼굴에 불그레한 홍조가 비끼는것이였다. 나는 갑자기 마음속이 밝아지고 가슴속에 따뜻한 감정이 젖어오는것을 느꼈다.

《음악을 좋아하세요?》

《글쎄요. 마음이 괴로울 때는 음악이 진정제처럼 느껴집니다. 모짤드는 음악을 모르는 인간은 잔인하다고 했지요.》

우리는 방을 나서서 옆방인 응접홀로 들어갔다. 나는 피아노앞으로 다가갔다. 나 역시 가끔 장교들과의 교제에서 오는 울분과 괴로움에 가슴이 아플 때면 이 피아노앞에 앉군하였다. 오래된 피아노였으나 그래도 아직은 음정이 정확하고 소리도 맑았다.

나는 피아노앞에 마주앉아 건반우에 손을 올려놓았다. 림송은 피아노옆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나를 내려다보고있었다.

한동안 나는 어수선한 생각에 잠겨 선뜻 건반을 짚을수 없었다. 하많은 곡들중에서 무슨 곡을 타야 할가? 그가 방금 말한 모짤드의 쏘나타를 고를것인가? 아니면 베토벤의 세레나데나 슈벨트의 《들장미》를 타는게 좋을가? 문득 나의 머리속에 섬광처럼 번쩍 떠오르는 선률이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야학방에서 아버지의 풍금소리에 맞추어 부르던 《동무야, 잘 가거라》였다. 무슨 충동과 심리가 나로 하여금 림송대위앞에서 그 추억의 선률을 타게 하였는지 나자신도 찍을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건반을 짚기 시작했다. 석별의 정이 흐르는, 희망과 우정이 넘치는 애상에 찬 선률이 마치 놀란 새무리마냥 건반우에서 튕겨나와 방안에 가득찼다. 나의 눈앞으로는 얗떼흐르는 동구길, 창공높이 떠오르는 연을 날리며 달려가는 한 소년의 모습이 생동한 화폭으로 떠오른다. 소년의 뒤로는 가냘픈 쌍태머리처녀애가 달래바구니를 들고 숨가삐 뒤쫓아간다. 맑은 봄하늘, 은빛 시내물, 지저귀는 종달새… 그리고 진달래피는 동산

의 푸른 풀밭이 언뜻언뜻 내 눈앞에 펼쳐진다. 두 소년 소녀가 풀밭에 나란히 앉아 노래를 부른다. 처녀애는 가끔가다 그의 음정이 틀린다고 핀잔을 주기도 한다. 문득 나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건반우에서 얼굴을 들었다.

나는 조용한 시선으로 어둠짙은 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이 순간 그는 전혀 딴 사람처럼 나에게 느껴졌다. 어쩌면 그 딴 사람이란 나에게 친근한 사람의 모습이였는지도 모른다. 그 얼굴에 비낀 색조는 부단히 엇바뀌고있었다. 동심에 타는 희망과 추억의 빛이 흐르는가 하면 일종의 괴로움과 고통에 가까운 고뇌의 빛으로도 변하고 그것은 다시 열망과 지향의 감정으로 돌아가군하였다. …

나는 불현듯 울고싶을만큼 마음속이 서글퍼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오래동안 기다리던 행복의 순간이 갑작스레 찾아온듯 가슴이 울렁거리기도 하였다. 행복한 불안감, 이 모순된 감정을 나는 비로소 리해하게 되는것 같았다. 그것은 추억, 인생에 한번밖에 없는 동요시절에 대한 따뜻한 추억이 가져다준 아름다운 충동때문이였을가? 아니면 기억속에 간직했던 귀중한 모습을 현실속의 인간에게서 느끼면서도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데서 오는 괴로움때문이였을가?

건반을 짚어가던 나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굳어졌다.

음악이 멎어버리자 그의 얼굴은 다시 평소의 그 완강하고 사색적인 표정으로 돌아갔다. 했으나 그의 얼굴에서 흥분을 감추려는 자제력을 똑바로 느낄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의 놀라운 음조는》 하고 림송은 약간 말을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마치… 부드러운 붕대로 나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는것 같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글쎄요. … 뭐라고 할지… 지나간 시절을 추억했고 래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소 성급히 거칠게 대답했다.

나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드디여 결심하고 품속에서 보풀일고 색날은 그 사진을 꺼내들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로 조용히 다가갔다. 그의 눈길이 내 손우에 멎어섰다.
《림송씨, 혹시… 이 사진이 낯익지 않으세요?》
림송은 주저없이 손을 내밀어 사진을 받아들었다. 한순간 그의 눈길이 사진우에서 굳어졌다.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까딱도 하지 않고 그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방안에는 숨가쁜 정적이 깃들었다. 진눈까비가 녹아 처마를 흘러내리는 락수소리가 간간이 고요를 깨뜨릴뿐이였다.
림송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불꽃은 점차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이 귀여운 소녀는 분명… 아가씨의 옛모습이군요. 대뜸 알립니다. … 어린 시절로 돌아갈수 있다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린… 추억속에서만 그 시절로 가볼수 있지요…》
림송의 목소리는 몹시 거북하고 딱딱하게 들렸다.
그는 사진을 피아노우에 놓더니 천천히 창문가로 다가갔다.
락수소리가 점차 소란스럽게 방안의 고요를 깨치기 시작했다.
나는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침대우에 쓰러져 얼굴을 베개우에 묻어버렸다. 어쩐지 마음이 괴롭고 그 무엇인가에 배반당한듯 가슴이 쓰렸다. 랭랭하고 딱딱하게 울리던 림송의 마지막 말이 다시 생각났다. 아, 그러니 내가 잘못봤어. 잘못 생각했어. … 그렇다면 음악을 들을 때의 그 눈빛은, 그 얼굴빛은 무엇일가?… 그리고 그 밤 역홈에서의 그의 행동은?…
문소리가 나는바람에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몹시 흥분한듯싶은 을지길아바이가 방에 들어섰다.
《순정동무, 통행증이 어떻게 됐나?》
나는 눈언저리를 옷고름으로 훔쳤다.
《…가져왔어요.》
《잘됐네. 순정동무, 방금 문건을 현상했는데 그게 간단한 정보가 아니요. 우리 조장동지가 늘 강조하던 놈들의 특수작전과 관련된 극비문건이란 말이우. 이게 심상치 않거든…》
을지길은 이마에 깊은 주름을 지으며 초조한 낯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럼… 그 장교가 의심스럽다는거죠?…》
《글쎄》 하고 을지길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였다. 《너무 쉽게

큰 정보가 굴러들어온것 같아 그러우. 이게 혹시 덫이 아닌지 모르겠소…》
을지길의 우려는 나의 가슴에도 불안의 씨앗을 뿌렸다. 하지만 나는 이 순간 그를, 인간으로서의 림송을 믿고싶었다.
《아바이, 이런 말을 한다고… 용서하세요. 난 정보사업이 뭔지 모르는 평범한 녀자예요. 하지만 난… 림송대위의 행동을 류다르게 보고싶진 않군요. 그가 직접 우리에게 문건을 넘겨준것도 아니고… 또 그가 우리를 의심했다면 그때 역홈에서 저를 체포했을거예요.》
《그 말도 일리는 있소. 하지만 그가 동무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랬을수 있지 않을가?…》
나는 도리머리를 했다.
《아바이의 생각은 맞지 않는것 같군요. 그때 그는 저를 다시 만나리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을거예요.》
《하긴.》 하고 을지길은 무엇인가를 결심한듯 의자에서 일어섰다. 《순정동무 말이 옳소. 정보는 대단히 긴급한거요. 시간을 다투거든. 내 생각은 이렇소. 우선 이 정보를 정찰소조에 가져다주기요. 그대신 이 문건을 정보장교인 림송이라는 사나이에게서 입수했다는것을 명백히 밝혀 본부에 보고하자는거요. 만약 그가 우리사람이라면 본부에서는 알고있을게구 이 정보를 믿을거요…》
《그게 좋은 생각같군요. 어쨌든 림송씨는 이 문건이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문건이라고 한것 같아요.》
을지길은 방을 나서려다 말고 주춤 나를 돌아보았다.
《순정이, 조심해야겠소. 그 겐지로란놈을 경계해야겠소. 우리 사업에서는 한순간의 실수가 만사를 그르칠수 있소. 선형과장동무는 전번에 림송대위와의 사업을 하면서 자기를 로출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소. 난 순정동무에게서… 이게 걱정되오. 그는… 적의 군복을 입었단 말이네…》
을지길의 목소리는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나는 얼굴을 붉히며 나직이 대답했다.
《알겠어요, 아바이. 전 개인적감정에… 빠져서는 이 문제를 옳게 식별할수 없다는걸 깨달았어요.》
《순정동무가 옳게 리해했다니 기쁘오. 우린 한순간도 이 도시

를 포성이 없는 고요한 전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오! 그럼 다녀오겠소!》

《조심하세요!》

《참, 순정동무.》 을지길은 문을 나서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전번에 선형과장동무가 물어보던데 묘향산어머니에게서 받은 사진을 아직 가지고있나?》

을지길의 눈가에는 의아해하는 표정이 비껴있었다.

《사진이요?… 늘 가지고있어요.》

《그래?… 나두 웬 영문인지 모르겠소. 본부에서 알아보라고 했다는군.》

을지길은 눈을 끔벅이며 빙그레 웃더니 서둘러 문을 나섰다.

바람이 태질을 하고있었다. 나는 을지길아바이를 따라 현관앞까지 나갔다. 아바이는 차고에서 화물차를 끌어냈다. 나는 자동차가 장교구락부정문을 빠져나가자 현관문으로 들어섰다. 응접홀로 들어서니 겐지로가 앉아있던 식탁이 눈에 띄였다. 불쑥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나는 황급히 현관문으로 뛰여나갔다. 그 순간 씨아이씨번호가 달린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정문을 나서고있었다.…

처음 라이리 에니스준장은 듀페이가 련락장교사건진상을 고백했을 때 아연해지는 마음을 걷잡을수 없었다. 그는 얼마전에 찾아왔던 방첩과장 겐지로중좌의 증언들을 거의 믿지 않았었다.

림송에 대한 그의 의혹과 수사자료들은 불충분한것이였고 결국 그것은 자기 임무에 충실한 특수련락장교에 대한 하나의 모해처럼 느껴졌었다. 또한 그것은 캐논방첩기관이 8군정보부의 면전에서 림송을 붉은정탐으로 인정시킴으로써 자기의 새 작전과 나아가서 미중앙정보국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음흉한 책략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최근 극동군의 성탄절공세의 실패와 전선에서의 련속적인 참패로 인해 군사정찰 일면에만 치우친 군사정보의 경질설이 워싱톤의 정객들속에서까지 구구해지는 형편에서 캐논방첩기관이 전선의 운명이 달린 새 작전을 구상하는 자기를 난감한 처지에 몰아넣으려고 노력하고있다는것을 에니스는 잘 알고있었다. 더우기 림송대위는 에니스자신이 8군련락장교단으로부터 《련락사무소》로 선발해온

인물이였다. 림송대위에게 내려지는 몽둥이는 곧 에니스준장의 사등뼈를 분지를수 있었다.

겐지로중좌는 어제 다시 림송을 고발한후 마지막으로 련락장교사건에 대한 캐논방첩기관의 견해를 부언하면서 듀페이중좌를 심문하도록 승인해줄것을 요청하였다. 에니스는 이 요청을 단호히 거절하였다. 캐논방첩기관이 미중앙정보국성원들을 함부로 련행하고 실종연극을 꾸미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던것이다. 그것은 에니스준장자신이 캐논방첩기관에 지시를 줄수 있는 8군정보부장의 일대리인의 자격도 가지고있었기때문이였다. 물론 겐지로중좌는 앞을 내다보는 사나이였으므로 언젠가는 8군정보부의 주인공이 즉 나아가서는 극동군정보국장이 될수도 있는 미중앙정보국의 거물앞에서 순종하지 않을수 없었다. 에니스는 이 눈길이 사납고 잔인한 모색을 한 미국계 일본인이 림송대위가 미중앙정보국의 지시를 받는 정보장교만 아니였다면 벌써 방첩기관의 지하실로 끌고가 다른 방법으로 자기에게 접근해왔을것이라는것을 모르지 않았다.

에니스는 겐지로의 증인들과 수사자료들을 믿지 않았으나 유럽주둔시절부터 자기의 부관으로 일해온 듀페이중좌만은 진실을 말하리라는것을 믿고있었다.

오늘 에니스는 《레인보작전》과 관련하여 도꾜로부터 대구로 건너온 정보계 실무성원들과의 면담을 끝낸후 듀페이중좌를 사무실로 불렀었다. 듀페이는 처음 사건현장을 촬영한 캐논방첩기관의 사진자료들과 련락장교의 부검문건들앞에서 결백한 사나이들이 보여줄수 있는 온갖 연기술을 깡그리 동원하였으나 차츰 에니스의 랭정한 눈길앞에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에니스자신은 오래동안 함께 일해온 그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실책도 없었다는것을 증명하였으면 하였다. 그것은 이미 월로우비소장과 겐지로중좌 앞에서 보여준 림송대위의 림기응변으로 하여 아이부스대좌를 체포하는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였기때문이였다.

이 사건의 종결문건은 에니스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줌이 없이 문서고에 보관되였었다. 그것을 다시 끄집어낸다는것은 불쾌한 일이였다.

그러나 다년간 모든것을 꿰뚫어보는 에니스의 랭정한 눈길앞에

서 일하는데 습관되여온 듀페이의 굴욕적인 두뇌는 자기 상관의 이런 이중적인 심리를 꿰뚫어볼만큼 명민하지 못하였다.
사진자료들과 부검문건들은 가뜩이나 질려있던 중좌의 공포심에 부채질을 해버렸다.
듀페이는 그때 련락장교에 대한 영접을 림송에게 맡기고 자기는 8군후방사령부 보급창에 다녀온 사실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에니스는 분노가 치미는것을 가까스로 참고 겐지로가 가져온 그 수사자료들을 책상옆으로 밀어놓았다.
《그러니 자네는 지금까지 나의 참을성을 시험하느라고 그토록 오래동안 침묵을 지켰단 말인가?》 하고 에니스는 무서운 눈길로 듀페이의 수그린 회색빛머리를 쏘아보며 부르짖었다.
《난 자네가 나와 함께 유럽원정군을 따라다니면서 정탐가의 명예보다 어두운 도박장과 주권시장을 꿈꾸고있은 속물이라는걸 몰랐구만. 그러니 그리스에서 자네를 대구로 데려온 내가 오산을 했네. 나는 자네가 나를 배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 임무집행을 태공한 자네를 나는 어디로 보내야 하겠나?》
듀페이를 질책하는 에니스의 목소리는 높았으나 어쩐지 풀기가 없어보였다.
듀페이는 회색눈을 쪼프리고 흘끔 상관을 올려다보았다.
《준장님, 소크라테스는 숙명론에서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도 이젠 자기를 돌볼 때가 되지 않았을가요? 정탐가의 인생도 결국은 순간에 지나가고말것입니다. 생애의 종착점에 서게 될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것입니까?》
《걷어치우게! 내앞에서 그런 인생철학을 풀 생각을 말게. 배신은 구약성서에도 엄죄로 락인했지. 남자는 두번째 처를 두려워하고 녀자는 두번째 사내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법이야. 자넨 군인선서를 한 미군정보장교야. 자유세계를 위해 자기생애를 희생할 견실한 그리스도교정신을 잃은 사나이는 이 전쟁에 참가할 자격이 없어.》
에니스는 마음속으로는 듀페이가 한 말을 인정하면서도 겉으로는 그것을 열렬히 부정하였다.
《듀페이, 생각해보게. 공산주의자들은 심장과 신념을 가지고 우리와 맞서는데 우린 대체 무엇을 가지고 그들과 대결하겠나? 명석한 판단과 추리, 투철한 철학이 없이는 그것을 실현할 완강성을

잃는 법이거든. 오늘의 세계는 정보의 시대야. 전략정보를 선행한 립체전만이 랭전의 시대를 아메리카의 의사대로 전진시킬수 있거든. 난 지난해 알렌 덜레스씨와 함께 특수전략예비대창설을 구상하면서 물론 이 전쟁이 도달한 오늘의 특별한 상황을 예견 못한것이 아니였네. 보좌관인 자네앞에서 마지막으로 툭 털어놓네만 지금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미중앙정보국의 새 작전에 모든 군사정치적, 외교적 희망을 걸고있어.

국제련합군은 조선전쟁에서 벌써 500억딸라분의 전투기술기재의 손실을 보았어. 이건 제2차 세계대전때의 절반을 훨씬 초과했네. 이런 무거운 부담을 안고 트루맨대통령이 극동전선이라는 마차에 그냥 채찍질을 할수 있는가? 우리 국회 상원의원 스티븐슨,노랜드는 말할것도 없고 영국수상 처칠이나 레이버당 지도자 애틀리까지 전쟁의 앞날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네. 결국 우리 미국지도자들은 휴전협정체결에서 마지막출로를 찾고있어.》

《그건 우리 미합중국 성조기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묵묵히 에니스의 참회비슷한 장광설을 듣고있던 듀페이가 진심으로 놀란 빛을 띠웠다.

에니스는 랭소를 짓고 눈을 찌프렸다.

《꼬리가 몸을 흔들수는 없는 법이야. 우린 조선사람들의 성격을 리해 못했거든. 그렇다고 그 합법적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우리가 먼저 정식으로 휴전담판제의를 할수 있는가? 그건 결국 평양을 우리가 세계의 면전에서 인정하는것이고 미국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수치로 될것이네. 그렇게 되면 위신스끼는 유엔연단에서 더 기승을 부릴거야! 평양은 오직 우리의 강력한 군사적 타격과 압력 밑에서만 먼저 휴전제의를 해올수 있네. 이 중요한 군사외교적지레대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우리 미중앙정보국의 〈레인보작전〉이란 말이야! 이미 〈리퍼작전〉이 비준되여 기초가 마련된만큼 〈레인보작전〉이 실현되면 전선은 우리가 예견한 38선 이북의 유리한 지역에 고착될것이거든. 〈레인보작전〉은 곧 미8군의 최대의 봄철대공세를 의미하네. 이런 엄숙한 정황에서 미중앙정보국의 강력한 진출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캐논방첩기관에 자네가 그런 약점을 쥐여주다니! 자네의 배반은

결국 내가 반생을 지켜온 정탐신조에 대한 무시였네! 나를 쇠몽둥이로 되게 후려쳤단 말이야! 캐논이나 웰로우비가 이제 무슨 상서롭지 못한 음모를 꾸밀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에니스자신에게도 자기가 그토록 반생을 지켜왔다는 정탐신조가 무엇이였던지 이순간 명확히 가늠할수가 없었다. 그가 일찌기 노스캐롤라이주 포트브래그정보학교를 다닐 때 머리 흰 스승들은 《모르스》부호와 타건법(1분에 18조이상)을 익히자마자 정탐가에게는 용감성, 희생성, 결단성과 함께 자기자신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랭혹성을 간직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었다. 그후 이스땀불과 카나다의 오타와에서 무관으로 있을 때도 유럽원정군 정보참모로 활약할 때도 이러한 정탐심리가 가져다준 완강성과 행운은 그를 무시하지 않았었다. 물론 알렌 덜레스밑에서 일할 때 그는 듀페이와는 달리 귀여운 딸 안네뜨에게 썩 화려하지는 못했어도 매달 훌륭한 선물과 귀중품들을 수화물로 보내군하였었다. 머리가 희슥희슥해진 오늘의 시점에서 명예와 함께 황금을 바라는 듀페이의 심정은 에니스에게도 현실적으로 리해되는것이였다.

에니스의 반생은 어떤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그 무엇엔가 줄곧 속으면서, 기다리면서 걸어온 인생행로였다고도 할수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는 운명의 신이 그에게 반생을 노력하고 아끼고 뛰여온 능력있고 야심만만한 사나이에게 행복의 월계관을 씌워주리라는 공상이였다. 아니, 행동적인 인간인 에니스에게 있어서 그것은 공상이 아니라 목표였으며 동시에 실천이였다.

그는 마치 명절날 하루를 잘 먹기 위하여 열흘을 굶는 사람처럼 살아왔다. 래일을 위해 오늘을 바쳤다. 그런데 그 래일이라는것이, 그 행운의 상아탑이라는것이 과연 있기는 있었는가!

운명의 실련과 생활의 조소에 고달피 시달림을 받으면서 점차 인식의 랭혹성이 그의 인생의 지반을 허무는것이였다. 북부주에서 광산을 경영하던 그의 부모는 파산직전에 운명하면서 에니스를 빈털터리로 생활의 광야에 내던졌다. 주의회 의원이였던 외삼촌이 그의 학비를 대주었으나 군복을 입히는것으로 외면하여버렸다. 교원들과 상관들은 그의 두뇌가 발달되였다는것을 귀띔하였으며 그것을 확산시킬수 있는 경제적토대가 허약한것을 우려하였다. 한때 좌익서적이 류행될 때 에니스는 엥겔스를 숭배하였다. 학우들은

즐겨 그를 에니스가 아니라 엥겔스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엥겔스의 학설은 곧 러쎌의 실용철학에 자리를 양보했으나 에니스는 생활에서 한가지만은 그의 론리를 따랐다. 즉 결혼은 정치행위라는 그의 명제에 따라 안해를 엄선하였다. 장인은 미재무성관리였고 민주당출신 하원의원이였다. 카나다에는 작지 않은 농장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이번에도 에니스에게 참을성을 시험하였다. 장인은 정치적알륵으로 마피아에 저격당하고 재산은 술주정뱅이 처남의 술잔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기다리라! 이것이 최후의 선고였다. 그러면 라이리 에니스는 무엇을 바랐는가? 하와이나 필리핀 총독자리인가? 아니면 미중앙정보국 장관자리인가? 아니다, 그는 지성인으로서 서방의 상징적인 정보권력의 자리에 오르고 말년에는 아름다운 뉴니지의 해안도시에 별장을 사놓고 저술사업에 생애를 바치는것이라 할가?… 그러자면 과연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그러자 에니스는 이 생활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듀페이는 머리를 푹 수그리고 자가당착에 빠진듯 말이 없었다. 에니스는 그를 잠시 침울하게 내려다보았다.

(듀페이… 나 역시 실용주의자야. 인간이란 본래의 의미에서 리기주의자라는 러쎌의 학설은 나에게도 증명됐어. 딸라는 나에게도 필요하다! 너보다 더 많이, 엄청날 정도로 많이!…)

에니스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다시 불련속적인 상념에 잠겼다.

(결국 그때 림송대위는 윌로우비와 겐지로 앞에서 저 듀페이중좌와 나를 동시에 구원한셈이 아닌가? 그가 왜 이런 모험을 했을가?…

극비문건을 가지고오는 승용차가 습격당한후 남은 사람은 림송대위밖에 없었다. 아니… 그 습격이라는것도 결국은 림송대위의 증언이 아닌가?… 여기서 듀페이는 위장물에 불과하다.…

림송… 림송대위, 이제야 겨우 30대에 이른, 정탐심리로 보면 햇내기에 불과한 애숭이가 로병인 나를 상대로 결투를 벌릴수 있을가?

그래. 두뇌도 총명하고 성격도 강인한 청년이다. 명민한 눈초리, 성실한 인격, 임무수행에서의 근면성과 책임성… 이런 장교는 후에 아이젠하워나 맥아더다운 명성을 떨칠수도 있다.

그는 재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녀성에 대해서도 무관심하지 않다.

그에게서는 외견상 붉은냄새가 전혀 풍기지 않는다. 그가 가령 붉은정탐이라면 평양이나 모스크바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는것이 있어야 한다. 돈도 명예도 녀자도 그에게는 바랄것이 없다. 필요하다면 그는 장차 자기 조국인 《한국》의 외교고위관리나 정보국장이 될수도 있다. 인간이란 론리적인 감성의 산물이다. 그런데 왜 이리 불안할가?…

림송대위, 그 총명하고 성실하고 지성적인 장교, 당신은 누구인가? 붉은정탐인가? 아니면 제3국의 전략정보원인가?)

에니스는 불안한 마음으로 듀페이앞을 오가며 상념에 잠겼다. 생각이 뒤바뀌자 하나의 의혹은 꼬리를 물고 곧 백가지 혐의를 불러왔다.

에니스는 다시한번 겐지로의 보고서내용을 머리속으로 더듬어 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부산의 위암동련락소 습격사건당시도 그는 마지막 증인으로 현장에 남아있었다. 또한 캐논기관은 듀페이중좌가 도꾜를 거쳐 워싱톤으로 가져간 극비문서철의 봉투에서 림송대위의 지문을 발견하였다. 겐지로는 자기의 정보원이 련락장교단장의 현관에서 문건을 보려는 림송을 적발했다는것도 잊지 않고 보고서에 적어넣었었다. 그러자 에니스는 겐지로의 소형도청기를 발견한 림송의 행동과 발언들을 하나하나 돌이켜보았다. 결국 림송은 이번 《리퍼작전》의 내막을 다 알고있는 사람이였다. 정탐가라면 군용작전지도에 1초동안 눈길이 가도 곧 그것이 촬영기렌즈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것을 에니스는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있었다.

(하물며… 나는 그를 작전회의에 고스란히 참가시켰다. …)

에니스는 생각하였다.

왜 림송을 작전회의에 참가시켰는가?

씨아이씨가 비밀리에 설치한 도청기를 발견해서인가? 아니면 림송의 견실한 행동에서 일종의 《믿음》과 경탄을 받아서인가? 아니면 일단 비밀의 극한점을 주저없이 넘어온 사나이에 대한 매력이였는가? 그 비밀의 극한점을 넘어온 이상 더는 반신반의할 필요성이 없이 그 보이지 않는 비밀의 그물로 그를 얽어매놓는 공개적인 《검토》로 되여야 하였기때문인가?

에니스는 알수 없었다. 자기가 무엇을 믿었으며 무엇을 타산했

는지, 무엇을 실수했으며 무엇을 잘못 보았는지. 아니였다. 자기는 그 시각, 그 순간 반생을 정탐사업에 종사한 로병답게, 정당하게, 로숙하게 행동하였다. 하건만 지금 이 순간 에니스는 이번 《리퍼작전》에서 8군부대들이 소멸된 사실과 스케몬소좌의 항공륙전분견대가 활동을 계속하고있는것이 께름하게 생각되기 시작했다.

림송이 겐지로의 말대로 붉은정탐이라면 항공륙전분견대의 전보문은 인민군정찰기관의 무전소에서 날리는것일수도 있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에니스는 자기의 앞날이 황혼빛에 물든 장례식장처럼 느껴졌다.

(아니, 나의 운명을 하느님이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희롱할수는 없다. 림송은 소년시절부터 림메르트에 의해 재교육된 총명한 인간이다. 림메르트는 정탐가의 화신이였다. 림송에 대한 의심은 곧 그에 대한 의심이다. …)

그러나 다음순간 그에게 불길하게 느껴진것은 모든 론리적인 협의가 수사학적형안이 발달했다는 방첩과장 겐지로에게까지도 아무런 뚜렷한 증거도 주지 못했다는 그것이였다. 겐지로의 방문후 림송에 대한 상술한 협의를 면밀히 조사한 8군정보부는 어제저녁 랭정한 문구로 타자친 조회문건을 에니스에게 제출했었다.

조회문건에는 듀페이중좌가 극비문건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거절한 림송의 말이 기록된 8군사령부 청사방첩과의 록음테프가 들어있었고 부산의 위암동아지트사건에 관한 륙군방첩대의 수사자료가 기록되여있었다.

증빙문건들이 정확할수록 지금 이 순간 에니스는 림송대위가 의심스러워졌다.

이 모든 심상치 않은 사건들의 과정속에 그가 만약 우연히 끼여들게 되였다면 조사보고서에는 응당 다소라도 의심스러운 점들이 일정하게 남아있어야 정상일것이였다. 그러나 림송대위의 행동은 너무도 빈틈이 없었고 정확하였다. 이 정확성은 그가 자기의 행동을 계획적으로 하고있으며 아무런 사소한 흔적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었다. 이것은 에니스가 다년간 정탐분야에 종사하면서 맞다든바 있는 경험있는 로련한 정탐가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었던 하나의 특징이였다.

(결국 그에게서 아무런 증거도 찾을수 없었다는것은 곧 그가 의

심스러운 사나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아마 그는 자기앞에서 다리에 총알을 박은 저 듀페이의 총소리마저 록음해두었을지 모른다. 이미 진행한 《리퍼작전》을 알고있은 장교들중에도 림송은 끼워있었다. 명백한것은 그가 지투에 침투된 평양이나 제3국의 전략정보원일수 있다는것이다! 나는 이것을 론리로써가 아니라 륙감으로써 느끼고있다. 이 륙감은 결코 나를 배반해본적이 없지 않은가!)

에니스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채 사색에 빠져버린 자기를 의아한 시선으로 흘끔흘끔 쳐다보는 듀페이중좌앞을 불안스레 오가기 시작했다.

《듀페이, 내 물음에 솔직히 대답해주게. 나의 명예를 훼손시키긴 했어도 어쨌든 나는 자넬 믿네. 우린 오랜 나날을 함께 고생해왔지.》 하고 에니스는 온화해진 눈길로 중좌를 내려다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그래 자넨 림송대위를 어떻게 생각하나?》

에니스의 뜻밖의 질문에 듀페이는 한동안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더니 의자를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글쎄요. 난 준장님의 질문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의지가 강하고 성실한 장교가 아닙니까. 친구들은 누구나 그와 교제하기를 희망하고있습니다. 녀성들은 물론이지만 젊은 장교들까지도… 그는 꿔주는 돈의 액수를 따지거나 채무를 독촉하는 일이 없는 사나이입니다.》

《그가 붉은정탐이라는 생각은 간혹 든적이 없나?》

에니스의 목소리가 이번에는 다소 거칠게 울렸다. 듀페이는 흠칫 놀라며 자리를 고쳐앉았다.

《아니, 전혀 없습니다.… 언젠가 겐지로씨와 만난후 그에 대해서 생각해본 일이 있기는 하지만 준장님, 오타와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있는 그가 무엇때문에 그런 모험을 하겠습니까.》

정보기관에 복무하는 목적에 대한 듀페이의 생각은 단순한것이였다. 에니스는 쓰거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서 물러났다.

《듀페이, 자넨 아직 그들을 몰라.》 하고 에니스는 그들이라는 말에 력점을 찍으며 생각깊은 눈길을 돌렸다.

《그들에게는 조국이라는 개념이 우리와 다르거든. 나도 반생을 공산주의와 싸우면서야 이걸 깨닫기 시작했지만…》

듀페이가 림송을 옹호할수록 에니스의 의혹심은 깊어갔다. 에니스는 이미 림송에 대한 검토가 필요없음을 깨달았다. 사실 정보사업에서 검토란 거의 불가능한것이고 필요없는것이라고 그는 늘 생각하고있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의혹은 제거를 의미하였고 해외에 파견된 자기 첩자들의 경우에도 사소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환하거나 부책명단에서 지워버리군하였다.

의심을 받는다는것은 곧 실패를 의미하는것이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혹을 느낀다면 제거해버려야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지금 에니스는 자기가 지난 기간 견지해온 이 원칙을 림송에게는 도저히 적용할수 없다는것을 또한 인정하게 되는것이였다. 그것은 림송의 제거가 곧 자기자신의 제거로 될수도 있었기때문이였다. 더우기 요즘 맥아더의 경질설과 함께 따르는 윌로우비소장에 대한 미륙군정보국의 태도가 랭정해진 조건에서 특수련락장교에 대한 체포와 예심소동은 곧 자기에 대한 도꾜와 워싱톤의 인상을 대번에 흐리게 할수 있는것이였다.

결국 그자신이나 캐논방첩기관이 림송의 가면을 벗기지 못한 조건에서 현사태를 유지하거나 필요한 경우 조용히 그를 처리해버리는것이 어느 모로 보나 유리한것이였다.

에니스는 자기의 분석과 추리가 정확했다는것을 느끼는 순간 비로소 마음속이 개운해지는것 같았다.

(그렇다. 지금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극동군정보국이나 캐논방첩기관에 자그마한 약점도 주지 않는것이 급선무다. 이것은 곧 극동군사령부에 대한 미중앙정보국의 권위를 높이는 길이며 개인적으로 볼 때 라이리 에니스를 이성장군으로 떳떳한 장령대렬에 세우는것이다. 안네뜨는 이런 아버지를 자랑하게 될것이다.

난 딸에게 아버지의 권위있는 명예로써 교양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레인보작전》을 위해선 최선을 다해야 한다. 림송이 여기에 그늘을 던져서는 안된다.…)

에니스는 듀페이가 돌아간 다음에도 안절부절을 못하고 방안을 오갔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책상앞으로 다가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인차 당직장교가 나왔다. 에니스는 이마살을 찌프리고 내밸듯 말했다.

《당직장교, 곧 방첩과장 겐지로중좌를 내 방에 보내주오.》
《지금 륙군방첩대 대령과 담화중입니다.》
한순간 에니스는 생각을 톺다가 다시 명령했다.
《그럼 함께 오도록 하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준장님, 한가지… 〈사무소〉의 인사장교와 헌병장교가 시설물공사에 동원됐던 민간조선인들 처리문제를 방금 문의해왔습니다.》
에니스는 당직장교의 말에 또 이마살을 찌프리였다.
《벤다프대좌, 당신은 나의 군인성격을 모르고있소? 당신이 그런 문제때문에 나의 신경을 건드릴줄은 몰랐소. 그 조선인들은 이미 한국경찰이 행방불명자들로 세상에 공포했단 말이요.》
《준장님, 그럼 래일새벽 〈사무소〉 헌병소대를 동원하겠습니다.》
에니스는 한순간 보병학교시절 애독하던 프로씨아공국 재상 비스마르크의 연설문이 떠올랐다.
《…도이췰란드가 착안해야 할 점은 프로씨아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그의 군비입니다.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는 현하의 큰 문제가 해결될수 없습니다. 철과 피에 의해서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올리브의 작은 가지는 내가 아비뇽에서 꺾어온것인데 그것은 민중을 대표하는 정당들에 화목의 표식으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
에니스는 송수화기를 든 자기의 손에 또한 조선인 200명의 생명도 쥐여져있다고 생각하니 이상하게도 기분이 저으기 안정되는것을 느꼈다.
《대좌, 탄알은 아끼는게 좋아, 아직 쓸모가 있으니까. 래일 새벽 폐갱에 몰아넣고 입구를 폭파시키시오. 대지의 품에서 나온 인생들이니 또 그 대지가 조용히 품어줄거요.》
에니스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집행하겠습니다.》
에니스는 송수화기를 놓고 불쾌한듯 워드까잔을 들었다. 그는 겐지로를 기다리며 자기의 구상을 다시한번 곰곰히 따져보았다.
림송대위를 체포할것인가? 아니면 8군정보부의 특수정보과에 조용히 죽여버리라고 지령을 줄가? 혹은 담화형식을 취할것인가?… 아니다. 체포도 총살도 일단 씨아이씨가 기소한만큼 그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의혹을 자아낼것이다. 씨아이씨의 립회하에 림송대위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게 하자! 이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에니스는 입가에 음산한 미소를 지었다.

제 18 장

오늘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전선서부에서 미제침략군 1군단의 공격을 완전히 좌절시키고 림진강—의정부—포천 방향에서 불패의 철의 방어선을 형성하였다. 한편 전선동부지역의 련합부대들도 매계선에서 적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38선일대에서 차후 반공격준비를 끝마쳤다.

8군사령관 리치웨이장령은 《리퍼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민군대의 강력한 타격과 신속한 기동,새로운 계선에서의 방어에 대하여 타산하지 못했다는것을 늦게야 깨달았다. 그는 한강계선에서 방어하던 인민군주력집단이 문산계선에 있으리라 타산하고 미제침략군 1군단을 공격에 진입시키는 한편 에니스의 8240부대 선발부대를 문산지역에 락하시켜 상대측 후방을 차단하고 정면공격과 배후타격을 결합한 립체적인 협동작전계획을 세웠었다.

리치웨이와 에니스의 계획에 따라 미제침략군 1군단관하 괴뢰군 1보병사단이 포천—문산 방향으로 공격했고 미 3,25보병사단이 의정부—포천계선으로 진격을 개시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100여대의 수송기에 실려온 8240부대관하 ××항공륙전대와 《련락사무소》 선발특공대들이 문산일대에 락하하였다. 8군사령부는 에니스의 특수부대를 위해 락하시키기 한시간반전에 문산지역 20키로메터 지점들에 대대적인 항공준비폭격을 하였다.

미제침략군의 항공특수륙전대를 포위소멸할 특수작전을 준비하고있던 인민군부대들은 아군이 지상공격작전을 좌절시킨것과 때를 같이하여 총참모부의 의도에 맞게 전투를 결속하였다.

이 전투에서 공화국영웅 최순악은 중대를 이끌어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항공륙전대와 지상의 적병 350여명을 살상하는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수훈자내신서를 받은 사단련락군관이 총참모부일군과 함께 최고사령부로 출발하고있을 때 전선 먼 부산항의 방파제우로 한 젊은 장교가 걸어가고있었다. …

방파제결의 바다물은 군함들이 흘린 중유와 오물로 하여 거무스레했다. 비좁은 부두들에는 순양함, 구축함, 구잠함과 프리케트함, 소해정들이 렬지어 빼곡이 웅거하고있어 심해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서조차 해감내를 맡을수 없었다.

림송은 도꾜에서 정기련락선으로 도착하는 문용채소장을 마중하려고 오늘 부산항으로 나왔다.

련락선은 한시간가량 늦어 제1부두에 닻을 내렸다.

림송은 문용채와 함께 항헌병대본부에 들려 증명서에 검인을 받은후 항구를 빠져나왔다.

먼지를 인 늦겨울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코트깃을 들추었다.

승용차앞에서 두사람은 잠시 멈춰선채 담배를 피워물었다.

《참, 림송. 함께 우리 방첩대에 들려가지 않겠나?》

문용채는 묵직한 트렁크를 승용차에 실으며 림송에게 물었다.

《난 벌써 시간을 너무 지체했습니다. 에니스준장은 시간관념이 정확하지요. 그의 신임을 잃고싶진 않소.》

《여보게, 인간은 기계가 아니고 생활은 책이 아닐세. 이번에 리승만대통령은 자네가 우리의 제안대로 국군까츄샤가 많이 들어있는 스케몬의 제2분견대를 작전에 참가하도록 지지표를 낸데 대해서 감사를 표해왔네.》

《소장님, 난 그 나의 지지표가 이번 인사사업에서 은을 냈으리라고 믿지 않소.》

림송은 그가 내민 려송연곽에 손을 내밀며 딴전을 부렸다.

《무슨 소릴… 결국 에니스는 인원선발에서 우리 한국계 장교들을 무시하지 못할걸세. 물론 자네도 알겠지만 이번 작전이 크게 성공한건 못되지만…》

《작전이라니?…》

림송은 별안간 우울해진 문용채를 바라보며 넌지시 물었다.

《전선소식을 못들었나?》

《난 어제저녁에 대구를 떠나 해안호텔에 들어있었소. 준장님이 〈대통령〉 비서실에 보내는 문건을 전달했소. …》

《그러니》 하고 문용채는 야릇한 미소를 지은채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자넨 대구에 앉아서 도꾜에 다녀온 나보다 소식통이 뜬셈이구만.》

《말해주시오.》

《오늘새벽 전선중서부에서 우리 국군 일부 사단들과 미1군단의 두개 사단이 큰 참패를 당했네. 에니스준장의 권고에 따라 그 지점에서 전선을 돌파하려던 8군사령부의 이번 작전은 인민군에게 13키로메터를 내주는 결과로 끝났지.》

《그게 사실이요?》

림송은 숨을 죽인채 나직이 되물었다.

이 순간 그의 마음속으로는 크나큰 행복감이 밀물처럼 흘러들었다. 그는 자기의 흥분과 기쁨을 감추기 위하여 눈길을 내리깔아야했다.

《오늘아침 요꼬하마항을 떠나기전에 극동사령부 련락장교단의 오덕준대령에게서 들었네. 알겠나? 그 공격작전이 바로 스케몬특공대의 특수작전을 위장하기 위한것이였네.》

《그럼… 〈리퍼작전〉이 실현되였단 말이요?》

림송은 뜻밖의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 심중한 표정을 지었다.

《두말해서 뭘하겠나. 8군사령부는 참패했지만… 내 보기에 에니스준장의 의도는 철저히 관철된셈이네.》

《그건 무슨 소리요?》

《스케몬의 항공륙전특공대의 활동은 계속되고있으니까. 도꾜의 지투는 오늘아침 스케몬소좌의 무전문을 해독하고있었네. 아마 작전은 전략정보상으로는 성공했다고 볼수 있네. 극동사령부에서는 이번 8군무력의 참패가 전선중서부지대에 대한 군사정찰의 오인에 있다고 보고있지. 내가 도꾜를 떠나기전 작전국장 위트니중장은 나에게 전선사단을 지휘해볼 의향이 없는가 묻더군. 전선에 실력가가 없다는거지.》

문용채는 자못 유쾌한듯 실눈을 지었다.

림송은 그를 마주보며 웃었다.

《소장에겐 그편이 좋지 않을가요? 전선에서의 공훈은 정보전에서보다 눈에 띄게 나타난다오.》

《림송, 자넨 정보장교니까 전선전반을 리해할수 없을걸세. 이번〈리퍼작전〉도 보게. 8군관하 사단들은 실패했지만 에니스는 미소를 짓게 됐거든. 아니 미소보다는 8군지휘관들을 질책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됐단 말일세. 전선… 미군보총을 든 국군사병들은 지금 아프리카고용병들보다 죽음을 더 겁내고있네. 만약 그들이 군사행동중지후 포로들을 즉시 송환한다는 헤그협정 20조와 제네바협정 118조를 안다면 대번에 총을 던지고 손을 들거요.》

림송은 문용채의 염세적이고도 허무적인 대답을 들으며 《리퍼작전》의 진행에 대해서 생각하고있었다. 결국 한순정을 통해 보낸 정보는 정찰소조를 거쳐 본부에 도착한것이 아닌가. 림송이 막다른 골목에서 한순정에게 기대를 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였다. 죽음앞에서도 굳센 인간의 의지를 보여줄수 있었던 그 녀자를 믿을수 있은 힘은 론리의 귀결이 아니라 심장의 호소였다. 심장은 때로 리성보다 먼저 적아를 구별할수 있는 분별력과 눈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한순정, 그 이름은 옛시절부터 림송의 심장속에 고이 간직되여 있는 귀중한 이름이였다.… 그는 그날밤 한순정의 피아노소리를 들으며 아득히 흘러가버린 시절의 소중한 벗의 모습을 재삼 확인하였다. 그때 그 소녀의 아명은 분이였다.…

《참, 림송. 아무래도 자네와 헤여져 가야겠네. 난 방첩대에 잠간 들려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오. 난 소장이 에니스준장과 륙군방첩대장 두사람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걸 리해하는 한사람이니까요.》

림송의 말에 문용채는 다소 비굴하게 웃었다.

《고맙네, 그런 대답을 방첩대장에게서 들었으면 기쁘겠네. 부친의 회사일로 또 아담스씨의 신세를 져야겠구만.》

《그래, 그 일은 잘 돼가는가요?》

《아담스씨의 신세를 지지. 그러나 일대일이지. 자네에게만 실토하지. 사실 난 그의 요구대로 그가 제기하는 인원들을 사무소에 추천했거든.》

물론 이 사실은 이미 림송이 알고있는 문제였다. 아담스가 추천한 인물들은 리준구가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였다.

《소장님, 그러다 당신은 두개의 총탄이 아니라 세개의 총탄을

등에 맞을수 있소.》
《충고해주어 고맙네. 하지만 난 자네의 친구 듀페이처럼 정보자료를 가지구 장사하지는 않지！…》
문용채는 한손을 들어보이더니 승용차에 올라앉아 운전대를 잡았다.
림송은 한동안 그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다. 결국 조국에서는 그의 방안대로 스케몬소좌의 2분견대를 역리용할 작전을 시작한것이였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였다.
림송은 천천히 자기의 승용차쪽으로 다가갔다.
스케몬소좌의 조가 움직인다는것은 곧 에니스에게 《레인보작전》을 다그칠 전망을 열어준셈이다. 림송은 놈들이 오래동안 품을 들여 준비한 대규모의 제2전선특수부대작전이 박두했다는것을 절감했다.
준엄한 시각이 다가오고있었다. 그가 오래동안 기다려온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있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았다.
림송은 승용차를 몰고 대구쪽으로 뻗은 좁은 도로에 들어섰다.
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길옆의 나무들은 물기가 올라 거무스레한 빛으로 점차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부풀어오른 대지에서는 흙의 훈향이 세차게 풍겨왔다. 얼어붙었던 시내물이 풀려 강철색으로 번쩍거리고 눈석임물이 곳곳에 즐펀하게 흘러내렸다.
먼 산발들은 보라빛 운무속에 잠기고 들판에서는 아지랑이가 피여오르고있었다.
(봄이 오고있구나！ 봄이！ 전쟁의 첫 봄이 오고있다. 간고한 겨울은 드디여 후퇴를 시작했다！ 이 땅에 정을 둔 계절조의 무리들이 찾아오고 노란 나리꽃들이 피여날것이다. 이 봄과 함께 승리가 다가오고있다. 전우들이 피로써 이룩해가고있는 우리의 승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림송의 머리속에 문득 리준구의 얼굴이 떠올랐다.
못견디게 그리운 사랑하는 전우의 모습을 생각하자 그의 마음은 미여질듯이 아팠고 뜨거운 격정과 충동이 가슴속에 가득차올랐다.
전쟁이 끝난 다음 묘향산고향집에 꼭 찾아가겠다던 그의 친근한 목소리가 귀에 쟁쟁히 되살아났다. 험난한 적후의 하늘아래서 그의 동지였고 힘이였고 조국의 한 부분이였던 그 철의 의지와 봄날같은 인정을 가지고있던 그는 가버리였다. 그는 전우의 안전을 자

기의 생명과 서슴없이 바꾸었다.

림송은 지금도 자기가 도로를 횡단할 때 창문유리를 바수며 날아떨어지던 수선화화분과 그 운명적인 자동총소리를 생생히 기억하고있었다. 그것은 리준구가 생의 마지막시각에 림송에게 보내는 격려였고 당부였고 인사였다. 그러나 림송은 그를 죽은 사람으로 여길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자기를 이끄는 정찰조장으로, 당원으로 불타는 심장속에 간직되여있었던것이다.

브라운 겐지로중좌가 급한 전화를 받고 8군사령부 련락장교단으로 떠나자 에니스준장은 쏘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채 담배를 입에 물었다.

그는 손을 뻗쳐 겐지로가 가져온 록음기의 스위치를 꺼버렸다.

그 록음테프에는 련락장교영접시 벌어진 림송과 듀페이의 대화가 록음되여있었다. 어쩔수 없는 사실자료였다.

오랜 기간 정탐사업에 종사해온 자기의 경험과 예감에 의하면 림송대위가 붉은정탐이라는것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의 첫 인상에 들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어떤 일종의 인간적인 매혹을 느끼게 하는 그 《아시아인답지 않은》 명민하고 지성적인 사나이, 만약 그가 림메르트씨의 상속인이 아니였다 하더라도 자기는 조선을 무대로 《련락사무소》를 움직여야 할 공작의 특수성으로 하여 림송에게 추파를 던지고야말았을것이였다.

하지만 지금 에니스의 마음을 괴롭히는것은 림송이라는 인간의 진면모를 어느 정도 간파하게 되는데로부터 오는 위구도 환멸도 당황도 아니였다. 그것은 자기와 극동군정보국 그리고 캐논방첩기관사이의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자신이 어쩔수없이 림송의 보호자로 되여야 하며 될수록, 가깝게는 자기 사무실에 박힌 도청기같은 겐지로중좌앞에서 그를 변호해야 하였기때문이였다.

에니스는 자기가 겐지로앞에서 림송에 대한 그의 혐의를 가리우면 가리울수록 그 잔인한 사나이가 더욱 검질긴, 돌발적인 수사와 추적의 그물을 조이리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불은 불로 꺼야 하는 법이다. 에니스는 이러한 사색의 귀결로 림송에 대한 혐의가 아직은 빈 공간이 있는 조건에서 겐지로는 물론 《국군》방첩대까지 끌어들여 그들스스로가 결론을 얻도록 하려

하였던것이다. 겐지로가 에니스자신의 이 믿음의 외피를 쓴 교활성을 리해하리라고는 볼수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것 같은 하나의 모험이 아닐수 없다.) 하고 에니스는 상념을 이어갔다. (과연 림송대위가 나의 이 고급한 실험대우에서 그들을 상대로 웃음을 지을수 있겠는가. 아니, 이런 우려는 부질없는것일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 나는 림송을 조용히 없애버리면 그만일것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가 붉은정탐인가 아닌가 하는것을 겐지로나 그 누가 아닌 내가 빨리 확인해야 할뿐이다!…)

에니스의 종잡을수 없는 상념은 문용채가 급히 방에 들어서는바람에 깨여지고말았다.

《준장님, 뜻밖의 소식입니다. 방금 제가 도착해서 부산에 있는 우리 방첩기관에 알아보니 나와 헤여진후 림송대위가 종적을 감추었답니다.》

《그게 사실이요?!…》

에니스는 타드는 담배를 손에 든채 그자리에 굳어져버렸다.

《그가 대통령관저에 들렸댔는지 알아봤소?…》

《림송대위가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난건 어제 저녁이였습니다.》

에니스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전혀 놀란빛을 띠우지 않는 문용채를 의아한듯 흘끔 바라보고나서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껐다.

《그러니 당신은 림송대위가 불리한 사태를 예감하고 사라졌다는거요?》

《검문소들과 차단소들에서는 그를 본 일이 없답니다.》

에니스는 담배곽을 꺼내며 문용채를 유심히 건너다보았다.

《소장, 당신네 국군방첩대에서는 림송대위를 어떻게 생각하오?》

《준장님, 리승만대통령은 유엔군장교를 자기의 수사대상으로 삼는데 대해서는 국군방첩대가 무척 조심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하고 문용채는 딴전을 부리며 두손을 벌렸다. 《더우기 림송대위는 당신의 신임장교가 아닙니까?》

《듣기 좋구만. 하지만 정탐가는 진실을 말하는데 습관되여야 하오.》

문용채는 미간을 찌프렸다.

《사실… 림송대위에 대한 나와 겐지로중좌의 견해는 일치한적이 없습니다. 준장님도 아시지만 위암동아지트사건때도 림송에 대한 두 기관의 관점은 상반되였거든요. … 며칠전 우리는 겐지로씨의 부탁으로 장교구락부 식료차운전사에 대한 미행을 조직했습니다. 그는 8군 제네랄데포에 가서 보급물자를 접수해오지요. 그날 그는 대구교외를 벗어나 전선도로를 따라 30마일가량 달렸습니다. 우리는 그를 경주 불국사근처에서 잃었댔습니다. 그가 사라진곳, 반경 5키로메터 근경에서 정체불명의 무전이 날았으나 아직 확증하지는 못했지요.》

《그 운전사에게 누가 통행증을 발급해주었는지 알아봤어야지?…》

에니스는 문용채의 의도가 대뜸 가늠되지 않아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문용채는 별안간 입가에 당황한듯한 미소를 지었다.

《통행증은 바로 림송대위가 가져다주었더군요.》

《림송대위가?》

《림송은 장교구락부 한순정아가씨와 각별한 사이죠. 운전사는 아가씨의 친척이구요. 그런데 그 아가씨가 고급장교들과 교제가 잦은데 그게 우연일가요?…》

《음…》

문용채의 정보자료는 에니스에게 필요한것이였다. 림송대위의 생활의 다른 구석을 그에게 조명해주는것이였다.

《그리고 문제는》 문용채는 잠시 주저하다가 내뱉았다. 《그 불국사주변에서 난 무전문에서 우리 륙군방첩대는 〈리퍼작전〉이라는 문구를 해독한것입니다. …》

《그걸 확인할수 있소?》

에니스는 얼굴색이 변했다.

《물론입니다. 륙군방첩대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준장님앞에 책임질수 있습니다.》

에니스는 이 순간이야말로 자기에게 결단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림송의 도주는 그로 하여금 바지를 벗고 적수들앞에 나서게 할수도 있는것이였다.

그는 전화기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덤비지는 않는가?… 아니다. 림송을 산채로 놔둔다면 그

건 나의 적수들에게 목조르기할 기회를 주는것으로 된다!…)
《벤다프대좌요? 당장 행방불명된 림송대위를 찾으시오! 헌병사령부와 협력해도 좋소. 도주가 확실하면 체포하시오. 체포할 때… 극히 조심해야 하오. 반항하는 경우엔 죽여버리시오!…》
에니스는 송수화기를 탕 소리가 나게 책상우에 내려놓은후 워드까잔을 손에 들었다.

봄이 가까와오고있었다. 길옆의 나무들은 물기가 올라 거무스레한 빛으로 점차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부풀어오른 대지에서는 흙의 훈향이 세차게 풍겨왔다. 림송은 승용차를 멈춰세웠다. 그는 길옆, 파아란 잔디가 움트기 시작한 시내가에 다가가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봄날의 부드러운 대기가 가슴속으로 스며들었다.
림송은 시내물에 듬성듬성 놓인 이끼오른 징검다리를 건너 숲가에 들어섰다.
숲, 아직은 우거지지 못한 메마른 숲이였다. 하지만 물기오른 줄기에, 햇잎이 돋으려는 아지에, 미풍에 흔들리는 우듬지에 생명이, 봄이 닥쳐오고있었다. 느껴오고있었다. 림송은 축축한 땅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선명한 푸른 색조의 하늘, 계절조의 무리가 날아가고있다.
이 봄, 이 봄날의 숲길로 정다운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얼마나 좋으랴. 아니, 이 숲길이 아니라 고향 묘향산의 정든 길로, 진달래 핀 언덕으로 마음껏 달음친다면! 림송은 그자리에 멈춰서서 얼핏 공상에 잠겼다. 자기의 심장속에 조국과 함께 어느덧 굳세게 자리잡은 그 처녀, 한순정을 생각했다. 승리한 그날 어머니 계시는 묘향산의 동구길에 나란히 들어설 그 행복의 순간을 그렸다. 그 순간은 그의 마음속에서 줄달음쳐오고있었다.
그는 군복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하지만 생활은 아직 그에게 쉬엿구령을 내리지 않았다. 보라빛운무에 휩싸인 저쪽 소로길의 굽인돌이를 지나 군용찝차 한대가 살같이 달려왔다. 림송은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유심히 그쪽을 바라보았다. 군용찝차는 림송의 승용차곁에 불쑥 멈춰섰다. 림송은 한순간 가슴이 섬찍하였다. 뜻밖에도 군용찝차에서는 이마에 땀발이 내돋은 레이몬드 아담스가 가쁜숨을 내쉬며 뛰여내렸다.

《림송대위, 마침 만났구만!》
레이몬드는 평소의 그답지 않게 다소 불안해하며 조급한 걸음걸이로 징검다리를 건너왔다.
《무슨 일이요? 레이몬드.》
림송은 그냥 담배를 입에 문채 흔연한 낯빛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일이… 생겼소.》 레이몬드는 림송이 내미는 담배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당신에 대한 체포령이 내렸소!》
《?!…》
《방금 8군방첩과와 헌병대사령부에 지령이 떨어졌소. 듀페이중좌가 체포되였는데 그가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것 같소.》
《스테쎌 듀페이가?》
림송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피우던 담배를 개울에 내던졌다.
《아무래두 에니스준장과 겐지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소. 당신은 빨리 몸을… 피해야겠소!》
레이몬드는 그제야 자제력을 회복한듯 림송이 손에 들고있는 담배곽에서 한가치를 꺼내물었다. 그는 성냥을 켜려다가 얼핏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듀페이가 체포되였다면 모든것을 불었을것이다!) 한순간 림송은 상념에 잠겼다. (나에 대한 체포령을 내렸다는것은 에니스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쥐여져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시간이 없다. 아지트건일가? 아니면 련락장교단건? 아니면 《리퍼작전》과 관련되였을가?… 여기에는 분명 브라운 겐지로의 음모가 숨어있을것이다. 어쨌든 사태는 결정적으로 불리하다. 씨아이씨의 감방에서는 필요하다면 허위가 진실로 꾸며질수도 있는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부에 알리고 후퇴해야 하는가? 그런 부득이한 경우인가?…)
림송은 군복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개울가를 스적스적 걸었다. 레이몬드는 그의 뒤를 따르려다 말고 주춤 멈춰섰다. 사색을 방해하고싶지 않은 모양이였다.
(조국에 《리퍼작전》비밀이 전달되고 스케몬분견대가 역리용되고있는만큼 에니스의 《레인보작전》은 이미 그 승패가 결정된셈이다. 그리고 나는 이미 《리퍼작전》문건을 넘길 때 조국에 《레

인보작전》 즉 8240부대와 8군의 봄철대공세의 기본작전 규모와 지역을 보고하였다. 결국 이것은 나의 임무가 기본적으로 결속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물러서야 하는가? 이것으로 나의 적후공작을 결속해야 하는가?…)

림송은 또 담배를 꺼내들었다. 한순간 그의 가슴속에 격렬하고 뜨거운것이 날카롭게 솟아올랐다. 그는 담배가치를 손으로 부스러뜨렸다.

(아니다! 나는 아직 조국앞에 떳떳하게 자기의 본분을 다했다고 말할수 없다. 내가 그 누구에게 인정이나 받으려고, 보수나 평가를 받으려고 이 길에 나섰던가? 장군님을 목숨으로 받든 나의 아버지가 자기 일의 경중을 따지며 이 길을 걸었던가? 리준구동지가 생명을 바칠 때 자기 일신을 생각했던가? 한순정이가 이 길에 들어설 때 자기의 청춘, 리상을 앞세웠던가? 아니, 나 역시 나의 생명을, 조국을 위해서라면 이 한순간에 바칠 각오가 되여있다. 조국의 귀중한 순간을 위해서라면 나의 청춘, 나의 사랑 그리고 재부, 나의 생명을 기꺼이 바칠수 있다. 아니, 바치는 그것만으로 전사는 조국앞에 성실한 아들로 나설수 없다. 승리의 순간, 결전의 순간을 위해 전사는, 특히 조선인민군 전략정찰병은 이바지하고 기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장군님의 품속에서 조국과 함께 영원히 남는 길이다. …)

레이몬드가 가까이에 다가갔다.

《림송, 시간이 없소! 지금 모든 검문소들과 차단소들엔 헌병과 씨아이씨가 장사진을 쳤을거요.》

림송은 레이몬드의 얼굴을 바라보며 입가에 굳센 미소를 지어보였다.

《레이몬드, 당신은 빨리 이자리를 뜨시오. 난 이 길로 8군사령부에 돌아가야겠소.》

림송의 말에 레이몬드는 이마를 찌프리고 한참 그를 마주보다가 와락 손을 틀어잡았다.

《림송? 정신이 있소? 당신은 우정 함정에 빠지려는거요? 안되오! 당장 피해야 하오!》

《레이몬드, 난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소.》

《안되오. 설박사를… 생각해주오. 더 말하지 마시오. 내가 나

머지일을 결속하겠소!》
두사람의 눈길이 뜨겁게 부딪쳤다.
《난 이미… 결심했소. 만약 내게 의지력이 있다면 난 이 역경을 뚫고나가리라 확신하오. 레이몬드, 내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설박사의 친구들에게 전달해주시오. 나의 부탁은 이것뿐이요!》
레이몬드는 눈길을 내리깔았다. 그는 슬며시 틀어쥐였던 손목을 놓았다.
《림송, 그건… 최종결심이요?》
《난 달리 결심할수가 없소.》
《당신은…》 레이몬드는 입술을 감빨았다.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이요. 자신의 귀중한 생명에 대하여 생각해야 하오.》
이번에는 림송이 그의 손을 다정히 잡았다.
《레이몬드선생, 당신은 나의 그 귀중한 생명을 구원해준분이요. 우리 일을 진심으로 도와준데 대해 난 영원히 기억하겠소. 우린 생명보다 귀중한것을 위해 이 길을 걷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순간의 드팀없이 계속 걸을겁니다!》
림송은 레이몬드의 손을 뜨겁게 잡은후 홱 돌아서서 승용차쪽으로 걸어갔다.
레이몬드는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에니스는 벽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시간이 더디게, 아니 급속도로 그의 앞을 지나가고있었다. 에니스는 문용채의 예리한 눈길이 자기의 목덜미를 더듬고있는것을 느꼈다.
(그래, 한순간을 놓치면 난 영원히 파멸할수 있어! 림송을 체포할데 대한 나의 결심이 옳았는가?
옳았다. 이르지도 늦지도 않았다.
이건 나의 적수들의 정수리를 치는것으로 된다! 만약 내가 배신자를 품에 안았다면 내 손으로 그 배신자의 목을 눌러야 한다!…)
에니스는 괴롭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 순간 당직장교실과 련결된 군용전화기에서 급한 신호가 울려나왔다.
에니스는 워드까잔을 손에 든채 귀찮은듯 이마를 찌프렸다.
곁에 서있던 문용채가 제꺽 송수화기를 들었다. 에니스는 전화를

받는 문용채의 얼굴이 해쓱해지며 메마른 볼편이 실룩거리는것을 보았다.

《준장님, 방금… 림송대위가 정문을 통과하여 당신의 방으로 오고있답니다.》

문용채는 난처한듯 미간을 쪼프리며 두팔을 벌려보였다.

에니스의 술잔은 또다시 입가에서 굳어져버렸다.

《이건 대체 뭐요?… 당신은 나를 놀리는거요?…》

《아니, 그거야 사실… 모든 정황이…》

《닥치시오!…》

에니스는 한순간 아연해지는 마음과 함께 자신이 로병답지 않게 경솔했다는것을 문득 깨달았다. 만약 자기의 예감대로 림송이 붉은 정탐이라면 그는 결코 백주에 도주하는것과 같은 경망한 행동은 하지 않을것이였다. 에니스는 스스로 자기의 뺨을 친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어 더는 문용채를 탓하고싶은 생각도 없어졌다.

그는 림송대위가 방에 들어설 때까지 애써 자신을 자제하고 얼굴에 평온한 표정을 지을수 있었다.

림송은 방에 들어서자 차렷자세로 에니스에게 보고했다.

《림송대위, 어서 앉게. 그래 왜 문용채씨와 함께 오지 않았나?》

《저는 호텔상점에 들려왔지요. 워싱톤에 있는 준장님의 딸에게 선물을 보내고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림송은 문용채에게 목례를 한후 의자에 앉았다.

에니스의 마음은 착잡했다. 어떻게 할것인가? 계획대로 이자를 체포할것인가? 체포하여 심문할것인가? 그러면 씨아이씨와 문용채가 사태를 마지막까지 관찰하게 될것이며 위조진술서라도 받아낼수 있다. 물론 그 진술서는 나의 뺨을 치는것일수 있다. 아니다. 에니스, 너는 이런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저자의 얼굴을 보라. 알프스산맥을 등산한 유람객처럼 활기에 넘쳐있지 않는가? 저 목소리는 또 얼마나 태연한가?

자기를 기다리고있는 함정에 대해서 이 젊은이가 상상이나 하고 있겠는가?

문제는 저 랑만적인 젊은 신사에게 믿음이 가는것이다. 림송, 너는 나의 2중적인 실험대우에서도 그 랑만과 침착성과 용의주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는 흔히 말하는대로 좋은 적수보다 나쁜

벗이 더 필요하다. …

에니스는 눈에 미소를 그렸다.

《난 늘 당신을 사교성있는 장교라고 생각해왔소.》

에니스는 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술을 찔금찔금 마시기 시작했다.

림송은 앉은자리에서 자세를 바로했다.

《난 준장님의 딸이 그런 존경을 받을만한 녀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고맙네. 자넨 오늘 혈색이 좋구만.》

《봄이 가까와오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들길을 돌아 질주했습니다.》

에니스와 문용채의 눈길이 얼핏 한점에서 부딪쳤다.

에니스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장령모자를 눌러썼다.

《참, 대위. 난 자네에게 불쾌한 소식을 전해야겠소. 난 오늘 자네의 동창생인 스테쎌 듀페이중좌를 살인협의죄로 체포했소. 그를 심문하려면 증인이 있어야겠기에 지금껏 림송대위를 기다렸소. 함께 가세!》

에니스는 앞장서서 방을 나섰다. 림송과 문용채가 그의 뒤를 따라서자 두명의 자동총수가 기다렸다는듯 량옆에 붙어서서 걸었다.

8240부대 감방은 청사 지하실에 있었다. 그들 세사람은 감방입구에서 권총을 경비장교에게 맡긴후 지하복도에 들어섰다. 증기난방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건만 지하감방은 컴컴했고 써늘했다.

견장을 뗀 군용외투를 뒤집어쓰고 담배연기가 뽀얀 감방안을 우리에 갇힌 이리처럼 오가던 듀페이가 기가 질린 얼굴로 세사람을 바라보았다.

에니스는 감방안을 날카로운 눈길로 휘둘러보더니 뜨직뜨직 입을 놀렸다.

《자, 듀페이중좌. 이젠 자신이 중상당한 련락장교를 사살했다는걸 자인하게! 림송대위는 비록 동창생이긴 하지만 신성한 법정앞에서는 증인의 임무에 충실할걸세!》

한순간 림송에게로 향한 듀페이의 눈길이 사납게 번쩍거렸다.

그는 외투를 벗어 쇠침대우에 던져버렸다.

《림송! 유다같은놈! … 난 그를 쏘지 않았소. 이미 진술했지만 난 군률을 어기고… 검문소근처에서 림송을 따라잡았소. 그때는

이미 련락장교가 죽은 뒤였소!》
에니스는 뒤짐을 지고 림송을 돌아보며 자못 친절한 표정을 지었다.
《림송, 말해보게. 난 등뒤에 친구의 총알을 선사받은 일이 있는 자네에게 그 어떤 동정심이 남아있으리라고는 믿지 않네.》
림송은 까딱도 하지 않고 듀페이를 바라보다가 에니스에게로 홱 얼굴을 돌렸다.
《준장님,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요? 대위!》
에니스의 눈살이 꿋꿋해졌다. 림송은 빙그레 웃었다.
《두가지 리유에서입니다. 준장님, 하나는 당신이 듀페이중좌를 련락장교사살건으로 일단 기소없이 체포했을 때는 이미 그 누군가에 의해 그때의 진상이 밝혀졌기때문일것이며 둘째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한명의 증인은 한명의 범인에 대해 증언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대일이니까요.》
《일대일이라?!…》
《그렇습니다. 준장님.》
에니스는 또다시 몽둥이에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였다.
그는 림송의 사리정연한 론거앞에서 더는 숨박곡질을 할 필요가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연극은 이미 끝난셈이였다.
에니스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문용채가 제꺽 라이타를 꺼내들었다.
《좋소, 대위. 난 당신의 론거가 옳다는것을 부정하지 않겠소.》 에니스는 듀페이에게로 돌아섰다. 《그럼 듀페이, 이젠 자네가 숨김없이 말해보게! 나에겐 아직 자넬 용서할만한 아량이 남아있으니까.》
듀페이는 처음 당황한듯 얼굴을 들었으나 에니스의 예리한 눈길과 마주치자 목을 움츠렸다.
《준장님, 난… 련락장교에 대한 습격사건이 바로 림송대위에 의해 꾸며졌다는것을 기소합니다. 그는 임무를 받을 때부터 나를 따돌리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습격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림송대위뿐입니다. 이건 부정할수 없는 사실입니다!》
에니스의 입가에 다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말없이 우울하게 서있는 림송을 유심히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림송, 생활에서는 이렇게 어쩔수없이 피고석이 바뀌여지는 경우도 있소. 이젠 자신이 자기를 증명하시오!》
림송은 듀페이의 얼굴을 응시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니스는 이 순간 가슴이 섬찍해지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위구였고 한편으로는 승리의 쾌감이였다. 그는 저으기 마음이 안정되는것을 느꼈다. 이제 한순간이 지나 림송이 붉은정탐으로 확증된다면 이 방안에 있는 네사람중에서 세사람은 에니스자신의 안전을 위해 죽어야 했다. 그는 그렇게 결심했다. 세명을 다 리유없이 총살해야 한다. 아니, 리유 없이가 아니라 흔적없이 총살해야 한다.
문득 림송이 피곤한듯 한숨을 내쉬며 에니스에게 물었다.
《준장님,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질문을 제기할수 있을가요?》
《하시오.》
《준장님은 듀페이중좌가 련락장교를 사살했다고 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가요? 혹시 로병의 예감이였는가요?》
에니스는 담배불을 꺼버렸다. 그는 림송앞에서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겐지로중좌가 그 자동차에 설치한 록음기에는 당신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들어있었소.》
그러자 림송의 얼굴이 한결 밝아졌다.
《그러자면 그 록음테프에는 습격자들의 총성도 들어있었겠지요?…》
림송의 물음에 에니스는 얼핏 문용채를 돌아보았다. 어쩐지 에니스는 들은 기억이 없었다. 문용채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림송씨, 록음테프에는 당신들이 비행장에서 나눈 담화와 검문소 근처에서 한 이야기만 들어있었소.》
림송은 문용채의 말을 듣더니 랭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준장님, 이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나에 대한 변호는 끝난셈입니다.》
《대위, 그건 무슨 황당한 소리요?》 드디여 에니스는 신경질적으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난 당신과 말씨름을 하려고 이 방에 온게 아니요!》
《나 역시 지금 자신의 귀중한 명예를 두고 나를 피고석에 앉히

려고 모지름을 쓰는 적수들과 결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니스는 한동안 림송을 쏘아보다가 저으기 자제한듯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위, 흥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보게. 내가 방첩일군이 아니라는걸 상기해주게!》
《준장님, 난 당신의 추천으로 8군정보부에 들어온후 자신을 얇은 얼음장우에 서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겐지로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언제든지 이런 함정이 있을것을 예견하고 자동차에 록음기를 장치했습니다. 그 테프에는 습격자들의 총성과 함께 운명직전에 캐논방첩기관 장교들을 알아본 운전사의 말도 기록되여있습니다. 그리고 습격자들이 캐논방첩기관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들이 극비에 속한 련락장교영접을 알아낼수 있었으며 록음기까지 설치했겠습니까?》
감방안에는 갑자기 침묵이 깃들었다. 어디선가 물떨어지는 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에니스는 불현듯 자신이, 아니 겐지로가 여지없이 패했다는것을 깨달았다. 분명 림송의 판단은 옳았으며 자기는 캐논방첩기관에 속았으며 림송에게는 록음테프가 있을것이였다. 한편 자기들이 패했다는것이 명백해질수록 에니스는 더욱더 림송이 의심스러웠고 그가 대단히 로련한 붉은정탐이라는 확신이 커가는것이였다. 지금 그에게는 이 의혹, 이 확신이 불안스러웠다.
그때 소리없이 철문이 열리더니 브라운 겐지로중좌가 메마른 얼굴에 싸늘한 미소를 띄우고 감방에 들어섰다.
그는 림송을 말없이 쏘아보더니 에니스에게 돌아섰다.
《그래 준장님, 이젠 림송대위에게 무죄를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요?》
에니스는 겐지로의 말에 흠칫 놀라더니 반신반의하는 눈길로 그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준장의 입가에는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중좌, 난 이번에는 세번째로 당신을 피고석에 앉혀야겠다고 방금 결심했소.》
겐지로의 얼굴에 약간 당황한 기색이 얼핏 지나갔다. 그는 애써 랭소를 지우지 않으며 서둘러 말했다.
《난 준장님의 결심이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록음기

를 설치한건 방첩과장인 나의 의무가 아닐가요?…
그보다도 이걸 보십시오. 이 자료는 림송대위의 증언을 뒤집을 것입니다.》
겐지로는 서류가방에서 몇장의 사진을 꺼내 원탁우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한 장교가 서울의 충무로구역의 련락소앞거리를 걸어가는 모습과 철문을 향하여 건늠길을 횡단하는 모습 그리고 화분에 깨지는 창문을 바라보는 얼굴을 찍은것이였다.
에니스는 사진을 손에 들었다. 그의 손은 가볍게 떨렸다. 그 장교는 다름아닌 림송대위였다.
《나의 〈쟈스민〉은 림송대위가 접선시간을 앞두고 련락장소에 접근하는 이 모습들을 이렇게 촬영하는데 성공했지요. 어떻습니까? 준장님, 이젠 충분한 증거가 되는가요?…》
에니스는 사진에서 눈길을 떼고 림송을 돌아보았다. 한 찰나 그는 젊은 장교의 얼굴이 해쓱해지는것을 얼핏 느꼈다.
에니스는 사진을 원탁우에 내려놓고 림송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는 자신을 자제하며 림송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림송, 난 친구들간에 불신임이 생길 때가 제일 괴롭네. 수백만이 살고있는 서울거리에서 접선시간을 앞두고 붉은정탐의 아지트를 향해 걸어간 자네의 행동을 우연이라고 볼수는 없을걸세.》
《…》
《난 지금 재판관이나 검사의 위치에 서고싶진 않네. 왜냐하면 자네가 오랜 기간 자유세계에 충실했던 나의 친구의 상속인이기때문이네. 자네 역시 그 자유세계를 배신할 인물이 아니거든. 왜? 자네에겐 명예도 녀자도 권력도 재부도 필요한 모든것이 다 있거든. 나를 성실한 배심원으로 생각하고 진실을 말해주게. 진실을 말한대도 같은 정탐가로서 생명은 담보하겠소.》
에니스는 이 장소에서 사태가 급변하는 경우 벌써 겐지로도 문용채, 림송, 듀페이와 함께 죽은자들의 명부에 올려야겠다는 결심을 다시 속으로 굳히였다. 그것은 최악의 결심으로 될것이였다.
《…》
림송은 까딱도 하지 않고 줄곧 한곳을 쏘아보고있었다.
《이젠 가면을 벗을 때가 되지 않았소? 박성일씨!》
《?…》

《！…》
겐지로가 차겁게 웃으며 조소하듯 말했다.
에니스는 한순간 가슴이 철렁하였다.
자기가 너무도 때이르게 본의아니게 겐지로앞에, 림송의 《립장》에 서서 승리자연한것이 아닌가. 림송은 자기의 고급한 2중실험대우에서 미소지을 사나이가 못되였다.
《심판》의 칼자루는 여전히 겐지로의 손에 쥐여져있었다. 그 선뜩한 칼날을 쳐들고 겐지로가 내리친다면 림송만이 아닌 에니스자신의 몸에서도 피가 흐를것이다. 그것은 다름아닌 죽음의 피일것이다. 아직까지 림송은 에니스자신의 명예와 생명을 위해 최선의 《보호》를 받아야 할 《좋은 적수》였고 두사람의 숨통을 조이려드는 브라운 겐지로가 《나쁜 벗》이였다.
에니스는 문득 두사람을 돌아보더니 여유있는 어조로 말했다.
《방첩과장, 인간은 자기의 철학을 한순간에 버릴수 없소. 생각할수 있는 여유를 줍시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렇지 않다간 젊은이의 뇌수가 터지거나 자살할수도 있소. 우린 이 젊은이에게 아직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는걸 인식하게 합시다. 우리야 미국시민이 아니요! 림송대위, 지금은 3분전 6시요. 7시에 다시 찾아오겠소. 한시간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거요.》
에니스의 말에 겐지로는 불만인듯 얼굴을 찌프렸다. 그러나 감히 반대하지는 않았다. 에니스일행은 림송을 감방에 남겨두고 철문을 나섰다.
에니스에게는 감방철문이 닫기는 소리가 그 어떤 심상치 않은 장송곡처럼 들리는것이였다.
감방입구에서 무기를 도로 받으며 에니스는 두사람을 돌아보았다.
《당신들은 이 순간부터 한초도 내곁을 떠날수 없소! 이건 중대한 국가적성격을 띤 문제라는걸 알아야겠소.》
에니스의 말에 겐지로와 문용채는 다소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곁에 다가선 무장한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준장님, 우리 씨아이씨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 아닐가요?》
《중좌, 불쾌하게 생각할건 없소. 구속은 아니니까. 난 이걸 나의 명령으로 생각지 않소. 새 작전전야인만큼 만약 림송의 유죄가 판명된다면 당신들도 검토를 받아야 하오.》

《그런 경우》 하고 자제력을 회복한 겐지로가 문용채를 돌아보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준장님도 례외로 될수는 없지요!》

에니스는 홱 돌아서서 겐지로에게 눈총을 쏘았다.

《옳게 말했소. 난 언제나 군인답게 자총할 준비까지 되여있소!》

문용채는 두사람의 엄숙한 대화에 기가 질린듯 아무 말도 못했다.

에니스는 앞장서서 사무실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제 19 장

감방철문이 닫기면서 내는 자극적인 갉히는 소리가 림송의 귀를 아프게 찔렀다. 그는 팔짱을 낀채 벽에 붙어서서 까딱도 하지 않았다.

에니스의 검질기고도 예리한 검토를 이겨내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던 림송에게 있어서 겐지로의 마지막타격은 치명적인것이였다. 이제는 승리했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에 타격한 겐지로의 주먹은 정확한것이였고 그 타격을 일격에 막아낼 방어책이 림송에게는 없었다.

림송은 그 사진자료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아무런 수단도 설득력도 용기도 가지고있지 못하였다.

(이것이 과연 드디여 오고야말았던, 한시간전에 예감했던 내 운명의 종착점이란 말인가.) 하고 림송은 첫 순간 쓰거운 환멸과 암담한 자책감에 빠져 생각하였다. (결국 이 감방에서 나갈수 있는 길은 영원히 닫겨있는것인가. 한순간한순간 죽음과 위험의 고비를 지나며 가슴아픈 리별과 희생 앞에서 눈물을 씹으며 걸어온 그 길이 이 차디찬 감방안에서 끝난단 말인가. 조국이 준 임무수행을 눈앞에 두고 귀중한 사람들과의 상봉의 희망을 가슴에 묻은채 생과 리별해야 한단 말인가.

아, 지금 이 시각도 조국에서는 전사의 보고를 기다리고있을것이 아닌가. …)

림송은 머리를 싸쥐고 생각을 톺다가 천천히 소창문으로 다가갔다. 철창사이로 강철빛하늘이 희뿌옇게 내다보이고 이른봄의 담담한 눈석임냄새가 페부를 짜릿하게 하며 습새여들었다. 그 냄새속

에는 또 탁한 중유냄새도 섞여있었다.

림송은 키를 솟구었으나 그의 눈에 들어오는것은 형체도 립체감도 없는 하늘, 그 희뿌연 하늘뿐이였다.

그 하늘, 허전한 그 공간이 언젠가는 무한대한 세계로 느껴지고 바라볼수록 짓푸르러져 가슴마저 넓어지는듯하지 않았던가. 동요시절의 푸른 꿈을 싣고 숙망의 연이 날던 창공, 그것이 지금은 불투명한 한장의 종이장처럼 눈앞을 콱 막고있다. 그 회색종이장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려보고싶고, 느껴보고싶고, 잡아보고싶은 귀중하고 정답고 필요한것들이 영원한 회색어둠속에 잠겨버렸다. 문득 오타와교외를 달리던 회색군용화물차가 생각났다. 을씨년스럽게 안겨들던 광야의 공허한 하늘, 그 하늘을 줄곧 따라오던 랭혹한 눈길의 외로운 독수리 한마리, 멀어져가던 보라빛 먼 산발들과 쪽잠든 소년들의 고달픈 한숨소리… 무엇이 그 괴롬찬 인생렬차에서 림송으로 하여금 절망과 고독과 비관과 악과 배신과 허위와 실패와 불행을 이겨내게 했던가. 희망이, 랑만이, 락관이, 선이, 믿음이, 진실이, 성공이 행복에 대한 불가사의한 욕망과 열정으로 소년을 고행속에서 단련시켰던가. 피할수 없는 길, 앞으로만 나있는 길, 그것이 림송의 삶이였다. 인생목표였다!

림송은 하늘을 등지고 돌아섰다. 그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벌써 6시 25분이였다. 그러니 이제 인간으로서 그의 생애에 주어진 시간은 35분이 남아있었다. 그에게는 7시가 필요하다면 생과 무자비하게 작별하는 시간으로 될것이였다.

놈들은 살아있는 림송에게서는 단 한마디의 말도 들을수 없을것이였다. 그리고 림송은 이자리에서 생과 결별한다 해도 자기가 붉은정탐이라는것을 적들앞에서 인정할수 없다는것도 알고있었다.

지하복도 어디선가 갑자기 아츠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소음은 인차 사라졌다.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자 숨가쁜 초침소리가 기다렸다는듯 깊은 고요를 깨치기 시작했다.

한순간 림송은 가슴이 섬찍하였다. 그것은 어제저녁 평양방송으로 들은 조국의 목소리가 생각났기때문이였다. 조국에서는 그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했다는것과 새 련락선을 기다리라는것을 알려왔었다. 그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원이 된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로동계급의 전위대오의 한 성원으로 성장한것이다. 당— 그것은 림송의 삶이였고 운명이였고 미래였다. 문득 리준구동지 생각이 났다. 영원한 정치적생명의 보증인이였다. 아직은 그의 가슴에 당원증이 품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속한 당조직의 철궤속에 간직되여있을것이다. 하지만 림송의 가슴에는 당원의 심장이 있지 않는가.

본부에서는 당분간 련락선이 끊어진 조건에서 을지길정찰조를 리용할데 대한 지시가 있었다. 접선암호는 어린 시절의 림송의 모습이 찍혀있는 사진이였다！ 그 《접선암호》는 이미 림송이 눈여겨본것이였다.

림송은 두주먹을 움켜쥐였다.

조국의 임무를 수행하기전에 당원인 나에게 죽을 권리가 있는가?

(아니다！ 주어진 운명에 순종하고 동요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굴복을 의미한다. 내 심장이 고동치는 마지막순간까지 당원답게 사색해야 하며 노력해야 하며 싸워야 한다.

살자！ 투쟁하자！ 나는 나자신에게 명령한다！…)

림송은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것은 주어진 정황을 예리하게 판단할수 있는 랭정한 리성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서울의 세종호텔에서부터 충무로구역으로 갔던 일을 하나하나 추리해보기 시작했다.

겐지로의 사진자료를 보아 그의 정보원은 림송이 세종호텔을 나선 순간부터 잠시도 눈을 떼지 않은것이 분명하였다.

림송은 호텔관리인에게 방열쇠를 맡긴후 《훔벨》을 타고 천천히 명동거리를 지나 충무로구역에 들어섰다. 그다음 그는 련락소 목조건물이 마주보이는 《춘희》다방앞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가 펜구락부 기자와 한담하며 코카콜라를 마셨다. 그러면서 그는 아지트의 안전신호를 확인했었다. 그가 레스토랑에서 지체한 시간은 15분 남짓하였다. 그다음 그는 밖으로 나와 천천히 걷다가 다시 안전신호를 확인한후 9시 1분전에 아지트 출입문과 신문매대사이에서 거리를 횡단했었다. 그 순간 창문 깨지는 소음과 함께 총소리가 울렸었다. 림송은 주춤 멈춰섰다가 태연히 신문매대로 가서 조간지를 샀었다. …

(겐지로에게 사진자료의 믿음성을 담보해주는것은 접선시간을 1분

앞두고 접근한때문일가? 아니,그자들은 접선시간을 모르고있었다. 다만 리준구동지는 접선시간을 앞두고 마지막힘을 모아 창문에 화분을 던졌을것이다. 이 사실이 겐지로의 사냥군다운 심리를 건드렸을뿐이다.… 미행자는 그때 레스토랑앞에 서있던 몇대의 승용차들속에 있었을것이다.… 가만!)

문득 림송은 섬광같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그때 한식탁에 앉았던 펜구락부 기자 죤스톤과 나눈 이야기를 상기해보자… 그는 은테안경을 쓴 변태설이라는 극작가와 함께 왔었지… 그들은 나에게 종교옵써버신문발간허가증을 부탁했었지. 나는 초조한 마음에서 인차 그것을 약속했었다.…)

림송은 막연하게 붙든 이 사실에 대한 추리와 모색에 정신을 집중하자 별안간 앞이 트이는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문제는 죤스톤과 은테안경에게 나를 만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그것이다. 그들은 내가 떠난 다음 세종호텔에 전화를 걸어 나의 위치를 알았을것이다. 나는 관리인에게 충무로에 차를 마시러 가겠다고 했었지. 이 경우 추리를 계속해보자. 내가 서울에 체류한 시간은 20시간도 못되였다. 이 짧은 시간에 비밀임무를 받은 나의 서울체류를 알수 있는것은 펜구락부 기자들뿐이다. 혹은 죤스톤이 아담스에게서 알았을수도 있다.…

죤스톤이 나에게 전화를 한번만 걸었을것인가? 내가 호텔을 떠난것이 8시 30분경이였다. 죤스톤이 이렇게 늦은 아침에 전화를 걸리는 없다. 그는 은테안경의 독촉을 받고있었을테니까. 이 경우 기자들은 딸라를 위해 맹활약을 하는 법이다. 분명 내가 8군 정보부장에게 가있는 시간에 첫 전화를 걸었을것이다…

그리고 충무로구역의 《춘희》다방은 문필가들과 펜구락부 기자들의 전용다방이다.…)

림송은 다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3분 20초전 7시였다. 그는 방구석에 놓인 쇠침대로 다가가 누워버렸다. 딱딱하고 고르지 못한 쇠침대가 등에 배겨 불편했다. 사색을 집중한탓인지 머리가 아파나고 귀에서 잉하는 소리가 났다. 그는 두눈을 감았다. 그는 반생에서 순간의 중요성을 지금처럼 절감해본적이 일찌기 없었다.

(나의 방안에 빈구석은 없는가? 다시 더듬어보자…)

복도에서 발걸음소리가 들려왔다.

림송은 감방문이 열리고 찬기운이 들이닥칠 때까지 그냥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림송대위, 그만 일어나오. 왜, 절망때문이요? 아니면 진짜 여길 호텔로 착각한게 아니요?》

야유가 섞인 겐지로의 말에 림송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약간 기지개를 켜며 겐지로와 그뒤에 서있는 에니스준장일행을 의아한듯 바라보았다.

《그렇지 않아도 난 지쳤댔소. 난 준장님이 나에게 한시간이라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준데 대해 감사히 여기고있소.》

《림송대위, 휴식걱정은 안해도 되오. 당신이 희망한다면 영원한 휴식을 줄수도 있으니까.》

림송의 배포유한 행동에 저으기 불쾌해진듯 에니스는 코를 킁킁거리며 침대모서리로 다가섰다.

《그래 당신이 선택한 길은 어느 길이요? 생사중에서!》

《난 아직 죽고싶은 생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좋소. 평양이 당신에게 준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우. 아니 그게 모스크바나 런던이라도 좋소. 짧게 말해도 불만해하지는 않겠소!》

림송은 군복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준장님이 알고싶어하는건 내가 왜 충무로구역에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인줄 생각했는데요?》

《그건 당신이 련락원인 늙은 치과의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소.》

하고 겐지로가 성급히 쏘아붙였다.

《그렇다면 그 의사와 삼자대면을 시켜주었으면 하오.》

겐지로의 왼편볼에 경련이 지나갔다.

《그는 죽었단 말이요! 그건 당신도 알고있겠지? 대답하시오. 왜 대위는 그곳에 갔소?》

《중좌, 신경질을 내지 마시오. 상대방을 리해시킬 능력이 없는 사람만이 성을 내는 법이요.》

림송은 입가에 여유있는 미소를 지었다.

《여긴 런던국회도 아니고 난 외교관도 아니요. 당신은 씨아이씨장교의 공식적인 심문을 받고있소!》

《그럼 좋소. 내가 그곳에 간것은 한 극작가의 부탁을 받은때문

이였소.》
《그가 누구요?》
얼굴색이 변한 겐지로가 조용히 물었다.
《변태설이라고 불렀던지, 그 이상은… 난 다만 후한 사례금을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그를 중계했고 또 동행했던 펜구락부 기자 죤스톤씨는 구체적으로 알고있을거요. 〈춘희〉 레스토랑에서 그들의 신문발간청탁을 받은후 나는 밖으로 나왔소. 신문한담을 해서인지 문득 조간신문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나는 도로를 횡단하여 신문매대로 다가갔던거요.》
《대위, 그게 사실이요?》
림송에게는 이렇게 묻는 에니스의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침착하게 느껴지였다.
《사실입니다. 준장님, 그날 그들은 나에게 종교신문발간허가를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겐지로의 눈이 갑자기 무섭게 번쩍거리다가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다.
에니스는 홱 돌아서서 뒤에 서있는 문용채에게 말했다.
《소장, 급히 서울의 펜구락부와 지급전화로 련계를 가지시오. 만약 죤스톤이 죽었다면 시체라도 찾아오시오.》
문용채가 나간 다음 감방안에는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에니스도 겐지로도 더는 아무말이 없었다.
이 순간 림송은 얼굴에 태연한 빛을 띄우고있었지만 속은 불덩이를 안은듯 타들어갔다. 자기의 추리가 맞을것인가? 만약 죤스톤이 전화를 한번밖에 건 일이 없다면?…
림송은 쇠침대에 걸터앉아 군복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냈다. 그는 마지막담배가치를 꺼내들려다 말고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만약 겐지로가 본다면 두가지로 추리할수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하나는 그 사이 림송이 몹시 속을 태우면서 출로를 모색하기 위해 줄담배를 피웠다는것이 알려지고 다른 하나는 이 기다리는 숨가쁜 시간의 정신적긴장성을 엿보게 할수 있는것이였다.
일반적으로 정탐가는 긴장한 순간일수록 사고에서 연역추리가 아니라 귀납추리에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의지가 약하고 감상적

인 사람들은 역경에 빠지면 귀납추리가 아니라 연역추리 즉 일반적인 현상에서 특수한것에로 지향한다. 이것은 위험을 내포하고있다.
　지금 림송이 처한 위기의 구체적인 측면이 특수한 경우이기때문이였다.
　그것은 림송이 아지트앞 건늠길을 지날 때 리준구가 위험신호를 했기때문이다. 정탐신경이 발달하고 이미 반년전부터 림송에 대한 수사전을 벌려온 겐지로고 보면 림송의 그 어떤 림기응변에 대해서도 결코 의혹을 풀수 없을것이다. 이것이 문제였다.
　그렇다면 에니스는 어떠한가? 그는 지금 림송이 완전히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가? 솟아나길 바라는가? 물론 씨아이씨의 면전에서 림송이 덫에 걸린것을 두려워할것이다. 이 측면 역시 현재 림송이 리용해야 할 측면이다.
　그러니 문제는 펜구락부 기자였다. 그가 어떤 진술을 하게 되는가? 아니 내가 그 진술을 어떻게 유도하는가가 중요하다. 림송은 이제부터 자기에게 어려운 임무가 남아있다는것을 느꼈다.
　다시 고요속에 초침소리가 들려왔다.
　팔목에 찬 손목시계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 심장의 박동소리인가? 복도에서 다급한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얼굴이 땀에 젖은 문용채와 벤다프대좌가 방에 들어섰다.
　《그래 죤스톤이 살아있었소?》
　까딱않고있던 에니스가 조소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문용채대신 대좌가 대답하였다.
　《준장님, 이 림송대위를 하늘이 돕는 모양입니다. 펜구락부 기자들은 어제밤 군용기로 이 도시의 8군사령부 공보처에 와있군요. 이제 곧 그가 이 방에 나타날것입니다. 련락장교를 공보처에 보냈습니다.》
　죤스톤이 대구에 나타났다는것이 림송에게는 께름하였다.
　(이것이 다행인가, 불행인가? 그가 만약 전화를 한번밖에 건 일이 없다면? 그리고…)
　숨가쁜 시간이 그의 심장을 갉으며 흘러갔다.
　얼마후 련락장교를 따라 사색이 된 펜구락부 기자 죤스톤이 감방안으로 들어섰다.
　《기자선생, 당신은 이미 씨아이씨가 어떤곳인지 알고있으리라

믿소. 진실을 말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당신은 생명을 담보할수 있소！》
겐지로가 무겁게 말에 그루를 박았다.
《중좌, 지금 난… 씨아이씨가 나를 편행한 리유가 무엇인지 전혀 생각이 미치질 않는데요？》
죤스톤의 목소리는 가볍게 떨렸다. 그는 쭈그러진 넥타이를 습관적으로 잡아당겼다.
에니스가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좋소. 죤스톤씨, 당신은 얼마전에 서울의 충무로구역에서 림송씨를 만난 일이 있소？》
《…》
죤스톤의 눈길이 불현듯 림송에게 와서 멎었다. 림송은 그에게 미소를 보냈다. 그 미소에서 힘을 얻은듯 죤스톤의 얼굴에는 다시 화색이 피여났다.
《대답하오. 바로 〈춘희〉다방에서 붉은정탐이 죽은 날 오전에 말이요.》
겐지로가 옆에서 독촉했다. 죤스톤의 얼굴은 다시 컴컴해졌다.
《극작가 변태설씨의 부탁으로 함께 만났지요.》
《목적은？》
《변태설씨는 종교옵써버지를 발간하고싶어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림송대위를 그 시각에 〈춘희〉다방에서 만나자고 불렀소？》
한순간 죤스톤의 얼굴에는 난감해하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잘 생각나지 않는듯 쭈물거렸다.
《내가 8군정보부장에게서 돌아오니 죤스톤씨가 〈춘희〉에서 기다린다고 호텔관리인이 알려주더군요.》 하고 림송이 태연하게 먼저 입을 열었다.
죤스톤은 두팔을 벌려보였다.
《옳… 옳습니다. 내가 두번째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 림송씨가 호텔에서 〈춘희〉다방으로 출발했다고 하더군요.》
기억이란 과거의것을 새기고, 지니고, 되살리는 인간심리의 독특한 능력이다.
기억의 특성은 무엇이든 잊지 않고 잘 상기하고 회상하는데서 뚜

렷이 나타난다. 하건만 인간은 자기 리해관계에 가까왔던것을 옆에서 튕겨주면 뇌세포들이 더 활발히 움직여 과거의 무질서한 표상이 종렬횡대를 이룬다.

림송이 노린것은 이것이였다.

죤스톤의 대답을 듣고 림송은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 순간 림송과 에니스의 눈길이 부딪쳤다. 림송은 그가 전혀 이 말을 믿지 않는다는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죤스톤이 저도 모르게 가공된 말을 했다고 느꼈을가?

손가락을 떨며 겐지로가 또 캐여물었다.

《누가 전화를 받았소?》

《호텔관리인입니다.》

죤스톤의 얼굴은 본래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갔다. 그는 에니스를 바라보며 금이까지 드러냈다.

《준장님, 난 통 리해할수 없군요. 종교신문발간허가를 림송씨에게 건의한것이 잘못인가요? 난 림송씨를 대단히 고맙게 여기고있습니다. 림송씨의 부탁을 받은 레이몬드 아담스씨는 오늘아침 8군사령부 민정부장의 수표가 있는 정식 허가장을 나에게 주었는데요.》

죤스톤의 마지막말은 림송을 놀라게 했다. 그는 죤스톤의 부탁을 아담스에게 미처 알리지 못했었다. 그러니 죤스톤의 독촉을 받은 아담스가 스스로 이 일을 해준것이 아닌가.

(고맙소! 아담스선생, 당신이 그렇게 주도세밀한 사람인줄은 몰랐소! …)

림송은 브라운 겐지로를 돌아보았다. 그는 림송의 눈길을 받자 약간 당황해하더니 홱 얼굴을 돌렸다. 그의 메마른 얼굴에서 상처자리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겐지로는 원탁우의 사진에 손을 얹고 태연하게 손가락으로 톡톡 방아를 찧었다. 자기의 실패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없는 도전이였다.

… 에니스는 림송을 데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갑자기 얼굴근육을 다소 풀며 친근하게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림송, 량해하게. 난 친구들사이의 오해가 풀릴 때가 제일 기쁘네. 내가 언젠가 자네에게 말했지? 자네가 곤경에 처하더라도 이로병은 잊지 않을것이라고. 난 자네가 자기의 무죄를 반드시 증명하리라 믿었네. 자네의 강한 의지와 판단력은 나를 감동시켰네.》

《감동된》사람의 얼굴근육은 억지로 짓는 겉웃음에도 결코 풀리지 않았다.
림송은 이 늙은 승냥이가 겉으로는 추파를 던지고있지만 이 순간부터 더욱 자기를 의심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심리전은 이제 겨우 한고비를 넘긴셈이였다.
《그래 왜 첫 순간에 자기를 변호하지 못했나?》
《준장님과 계속 예리한 심리전을 할만큼 난 신경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림송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건너다보았다.
《신경이 든든하지 못하다? … 솔직히 말해줘서 고맙네. 좋네! 오늘부터 자넨 듀페이대신 나의 보좌관으로 사업하게! 일감이 많아. 작전이 박두했으니까. 듀페이는 적구에 파견될 한개 분견대를 지휘하면서 죄를 씻어야지.》
《감사합니다. 준장님.》
《〈사무소〉안에서 쉬게. 난 자넬 전선으로 보내지는 않겠네. 그래도 여긴 고요한곳이니까…》
(고요한 전선! 준장, 너에게는 고요한 전선이지만 나에게는 이 땅이 준엄한 결전장이다. 순간도 긴장을 늦출수 없는 판가리싸움터이다! …)
림송은 에니스준장에게 목례한후 천천히 그의 방을 나섰다. 벌써 늦은밤이였다. 그는 숙소로 향했다. 그는 자고싶었다. 단 하루밤이라도 모든것을 잊고 깊이 잠들고싶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제부터 단 몇초도 잠들 권리가 없었다.

《극비. 〈수성〉앞.
부대정찰조를 통해 동무가 보낸 귀중한 정보를 받았다.
동무가 보낸 〈리퍼작전〉문건을 통해 우리는 8군사령부가 인차 진행하려는 정치군사적모험인 〈레인보작전〉에 대해서 륜곽적인 견해를 가졌다. 현재 에니스의 〈리퍼작전〉은 우리의 작전속에서 정확히 진행되고있다.
동무의 의견대로 〈레인보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일차적대책을 취하였다. 캐논방첩기관과 문용채가 박아넣은 첩자들을 역리용하여 필요한 사진자료와 문건들을 아담스와 문용채에게 보내겠다.

작전을 시작하는 경우 씨아이씨에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길을 탐색할것. 동무의 임무는 이 작전의 비밀 즉 규모, 날자, 작전지역을 알아내는것이다. 을지길, 한순정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계속 련락루트를 정할수 있다. 접선암호가 필요하면 어린 시절의 사진을 상기할것.

건투를 바란다.

모란봉.》

림송은 순간의 귀중함을 오늘처럼 심각하고 예리하게 느껴본적이 없었다. 그 한순간에 성공과 실패 그리고 삶과 죽음의 모든 의미가 담겨있었다. 정탐가들은 때로 그 한순간을 위하여 귀밑머리가 희슥해지도록 반생을 기다리기도 하고 생명을 바치기도 하는것이다. 그 순간을 쟁취할 때 전선은 남으로 움직이고 전승의 축포소리도 가까이에서 들을수 있을것이였다. 그 한순간을 위해 때로는 인간다운 모든 감정, 열정, 사랑과 우정, 조국애 그리고 소중한 희망과 리상을 가슴속에 묻어두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돌격선에 나선 병사처럼 삶과 준엄한 작별을 고할 강한 의지를 가져야 했다.

림송은 지금까지 다년간 정보활동을 하면서 주어진 환경에서 정세와 정보를 분석하고 추리하는 방법으로 조국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엄혹한 전쟁의 현실은 그에게 사색과 함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순간을 다투는 전선의 변화가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요구였을뿐만아니라 림송의 심장속에서 끓는 열정의 분출이기도 하였다. 림송은 때로 얼굴을 맞대고 웃고 떠들고 잔을 쬣어야 하는 원쑤들에게 복수와 증오의 기관단총을 휘두르고싶은 강한 충동을 느끼군하였다.

리준구의 최후를 목격하게 된 그 거리에서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경찰들의 설명을 들을 때 처음 림송은 자기에게 자신을 억제할 의지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는 무심한 얼굴빛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자기 승용차로 돌아와야 했고 될수록 유유히 전우의 피가 흐르는 그 거리를 빠져나와야 했다.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과 증오, 분노와 충동을 누르며 사는것보다 더 고통스럽고 피로운 일이 있을가.

자기를 언제나 평범한 인간으로 느끼고있는 림송에게 있어서는 이

고통이 더욱 예민한것이였고 아픈것이였고 습관되기 힘든것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모험할 권리가 없었고 웃고싶을 때 웃고 울고싶을 때 울수 없었다. 인민군의 승리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장교들과 함께 《쓰거운》 얼굴표정을 지어야 했다.
림송은 자기의 이 오랜 기간 덧쌓이고 애타게 분출을 기다리는 심정을 때로는 큰 의의로 느껴지지 않는 사소한 정보자료의 연구와 분석에, 탐구와 추리에 바치는것이 마음속으로 못마땅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조국이 그에게 준 임무였다.
8군사령부관하 전선사단들에서 보내오는 봄철 류행성감기에 걸린 하사관들의 사소한 수자마저도 림송에게는 스쳐보낼수 있는 량심의 권리가 없었다. 그는 모든것을 익히고 기억하고 분석하고 추리하고 종합해야 했다. 정치정보일군이 순간을 놓칠 때 발생하는 후과란 때로는 치명적인것으로 나타날수도 있었던것이다.
순간! 그것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 시간의 상대적인 극한점이 아니였다.
정치정탐일군이 체험하는 순간순간은 사색과 추리, 행동이 집대성된 값높은 임무수행의 순간이며 그것이 흘러 위훈의 나날이 되고 그것이 뭉쳐 조국의 귀중한 순간이 되는것이다!
림송은 《레인보작전》정보가 어쩌면 자기가 수행해야 할 마지막 임무라는것을 직감하고있었다.
이미 자기가 체포를 통한 간고한 검토와 시련을 이겨냈지만 겐지로가 더욱 앙심을 품고 그에 대한 그물을 조이고있다는것을 림송은 잘 알고있었다.
《레인보작전》에 자기를 인입시키고 문건준비를 위임한것은 라이리 에니스준장의 림송에 대한 의혹의 특수한 표현이였으며 검토였다.
8240부대와 8군사령부와의 합동작전회의가 열릴 시각은 점점 박두해왔다.
작전분견대들의 투하지역과 임무 그리고 8군관하 군단들과 사단들의 주타격방향과 공격시간을 결정하는 이 회의에는 8군사령관과 장령들, 에니스준장과 대리인들인 벤다프대좌, 알랙산더대좌, 문용채소장이 참가하게 되여있었다. 《리퍼작전》후 이번 작전이 도쿄와 워싱톤의 공식비준을 받은만큼 작전회의참가대상은 비교적 넓었다.

오늘 림송은 《련락사무소》 자기 방에 앉아 8군사령부에 보낼 련락문건을 작성하면서 작전모의를 파탄시킬 최후의 방도를 탐색하고있었다.

림송은 조국의 임무를 놓고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물론 이제는 듀페이를 밀어내고 에니스의 보좌관이 된만큼 작전의 내용을 알아내는것은 힘든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림송자신이 직접 작전모의에 참가할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림송은 다른것을 생각하고있었다.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작전을 파탄시킬수는 없는가? 류산시킬수는 없는가? 그 길만이 전사 림송이 진실로 조국에 보탬을 주는 길이 아니겠는가?

문제는 에니스가 직접적인 실패의 책임을 지지 않을 때에만 작전포기의 가능성이 생기는것이다.

보좌관실의 옆방은 문건복사실이였다. 타자기소리가 비스듬히 열린 문짬으로 소란스레 들려왔다. 림송은 펜을 놀리다 말고 차광막을 제낀 창문쪽을 바라보았다. 철문사이로 질푸른 봄하늘이 내다보였다. 이따금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들려오군했다.

(만약 스케몬소좌의 항공륙전특공대가 인민군대에 의해 역리용된다는것을 아는 경우 에니스는 그것이 전적으로 자기의 실책으로 되는만큼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모험을 할수 있다. 즉 나머지 특공대와 8군의 주력에 의한 공격에 희망을 걸수 있다. 물에 빠진자가 지푸래기를 잡는 식으로 작전계획에 수표할것이다. 이 승냥이의 마지막발악이 나의 조국엔 크나큰 난관으로 될수 있다. …)

림송은 새소리를 들으며 모색을 이어갔다. (이 경우 에니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준다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불명예스러우나 안전한 길을 택할것이다. 그 제3의 공간이 문용채나 괴뢰정보국 하나만으로 되겠는가? 아니다! 문제는 씨아이씨를 여기에 개입시키는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사색하고 탐구하자. 그 길을 찾아야 한다. 요점은 씨아이씨가 《레인보작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달가와하지 않는 그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도는 무엇인가?… 아, 이런 때 리준구동지가 살아있었으면…)

《림송대위, 무슨 공상에 빠져있나?》 문득 에니스의 말소리가 등뒤에서 들리는바람에 림송은 사색에서 깨여났다.

《창밖을 내다보고있었습니다. 준장님.》

《난 자네가 그 눈동자 검은 미인을 생각하고있는줄 알았네. 림송, 난 자넬 조롱속에 갇힌 새로 여기진 않네. 청춘은 두번다시 되풀이되지 않거든. 저녁엔 시간을 주겠네.》

《감사합니다, 준장님.》

에니스는 방안을 둘러보더니 약간 열린 문건복사실 출입문을 닫고 돌아섰다.

《그러나 지금은 일을 해야겠소. 그래 8군참모부에 보낼 보고서는 끝냈나?》

《방금 타자실에 넘겼습니다.》

에니스는 림송의 대답에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자네의 그 사무능력은 나를 놀라게 하누만. 듀페이같으면 그걸 주무르는데 이틀은 걸렸을거야.》

에니스는 림송의 맞은켠 의자에 주저앉더니 눈을 쪼프렸다.

《림송대위, 자네가 도청기사건문건을 서울로 가져간 일이 생각나나?》

《기억하고있습니다. 준장님.》

《오늘 도꾜에서 대답이 왔네. 난 구태여 그때 자네가 말한 추리가 맞았다는걸 되풀이하지는 않겠네. 그건 대위를 교만하게 만들수 있으니까. 도꾜는 그 사건을 두고 캐논방첩기관에 경종을 울렸네. 자 받게!》 하고 에니스는 손에 들고있던 타자지를 림송에게 내밀었다.

《극동군정보국장 찰스 윌로우비소장이 보내온 답전이네. 난 이걸 공식문건으로 만들어 워싱톤본부에 발송할 결심이야. 캐논방첩기관은 윌로우비의 추궁쯤은 꿈쩍도 안하지. 그러나 펜타곤의 목소리를 들을 땐 이 에니스준장을 다시 상기할걸세. 난 공식문건에 도청기를 발견한 자네의 명석한 추리를 보충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네.》

《신임에 보답하겠습니다. 준장님.》

한순간 림송의 머리속에는 섬광과도 같은 생각이 번쩍하고 떠올랐다.

림송은 에니스가 방을 나간 다음에도 한동안 상념에 잠겼다. 그는 방금 에니스가 한 말을 통하여 그가 도청기사건을 잊지 못해하는 리유를 간파했다.

(에니스, 너는 나에게, 안개속을 헤매던 나에게 출로를 주었다.
에니스는 이번 도청기사건을 중시하고 그것을 떠들어 캐논방첩기관에 경종을 울리고싶어하는만큼 다시 자기 방에 도청기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을것이다.
에니스의 이 약점을 리용하자. …)
늦은 저녁 림송은 장교구락부로 돌아왔다. 림송이 자기 방에 들어서자 긴의자에 기대여 졸고있던 레이몬드 아담스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기다린지 오랬소?》
림송은 코트를 벗어 말코지에 걸며 그를 돌아보았다.
《한시간가량 됩니다.》 레이몬드는 벽장에서 꼬냐크병을 꺼내 잔에 부었다. 《우선 몸을 녹이시오. 이런 봄철엔 감기에 들수 있소.》
《고맙소.》
림송은 차대를 마주하고 레이몬드와 마주앉았다. 리준구의 죽음후 오래간만에 단둘이 앉은 자리였다. 림송은 어쩐지 이 성실한 인간과 마주앉으면 마치 자기 사람을 만난듯 마음이 평온해지고 너그러워지는것을 느꼈다.
《어제밤 〈리퍼작전〉분견대로 북에 침투되였던 나의 련락원 한사람이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필요한 몇가지 〈문건〉들을 가져왔더군요.》
레이몬드는 미소를 지으며 크지 않은 문건철을 림송에게 내밀었다.
림송은 가슴이 설레였다. 드디여 특수작전속의 특수작전이 시작되였던것이다.
《기다리던 〈문건〉이구만. 약속대로 〈문건〉사본을 문용채에게 보냈겠지요?》
《보냈지요. 그리고 지금쯤 그 련락원은 〈국군〉방첩대장의 손에 처리되였을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련락첩자의 움직임이 에니스준장에게 알려지면 안된다는걸 그들에게 통보했겠지요?》
림송의 물음에 레이몬드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지금… 당치않게 숨박곡질 노는것 같은데… 아니 이런 이야긴 그만둡시다. 당신은 내가 너무 많이 알고있다고 오해할수 있소.

걱정마시오. 난 당신의 사업을 나의 일로 생각해왔소.》
  림송은 말이 없었다. 그는 이 순간 리준구를 생각하였다. 그는 레이몬드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다. 사실 림송은 그가 아니였다면 이미 생명을 잃었을것이였다.
  림송은 그의 잔에 꼬냐크를 부었다.
  《레이몬드씨, 또 한가지 긴요한 부탁이 있소!》
  《이야기하우.》
  《당신은 캐논방첩기관이 최근에 개발한 소형도청기를 알테지요? 그걸 래일까지 꼭 구입해야겠소!》
  레이몬드는 실눈을 짓고 림송을 유심히 건너다보았다.
  《림송대위, 당신은 너무 모험하는게 아니요?》
  림송은 미소를 지었다.
  《왜 어려운 부탁이요?》
  레이몬드는 입가에 능청스러운 빛을 띄웠다.
  《아니, 그쯤한걸 뭘 그러오. 난 이 조선땅에 와서 는게 술과 밀수업이요. 필요하다면 맥아더의 애용파이프라도 얻어오겠소.》
  두사람은 마주보며 폭소를 터뜨렸다. 림송으로서는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웃음이였다.
  이틀후 림송은 사무실에 나가 철함을 열었다. 거기에는 련락사무소의 방첩과에서 보내온 분견대인사문건철이 있었다.
  문용채의 손을 거쳐 듀페이가 겐지로에게 발송한것이였다.
  림송은 이미 한부가 에니스의 금고에 들어가있는만큼 그 문건을 그냥 가지고있었던것이다. 그것이 이처럼 요긴하게 쓰일줄을 몰랐었다.
  림송은 오전중 일반문서들을 정리하면서 기회를 노렸다. 그는 방향성도청기가 설치된 인사문건을 어느 시간에 에니스준장에게 가져갈것인가를 오래동안 망설였다. 에니스준장은 겉보기에는 비만한 몸을 겨우 놀리며 늘 잠에 취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흘겨보지만 일단 사업에 들어가서는 타자지에 찍힌 영문활자의 크기에까지 신경을 쓰는 깐깐한 성미였다. 만약 일반서류들이나 정보자료들과 함께 인사문건철을 가져간다면 분명 그는 타성적으로라도 그것을 번져보게 될것이였다. 한때 련방수사국 문서고에서 소좌로 근무한적이 있는 에니스는 문건철을 뒤적이면서 독특한 인쇄잉크냄새를 맡는

데 류다른 쾌감을 느끼는것 같았다. 깐깐한 그는 또한 정해진 일과를 어기는 일이 거의 없었다. 이 도이칠란드인사무원다운 기질이 에니스로 하여금 극동군사령관에게는 성실한 일군이라는 평정을 그리고 하급장교들에게는 엄격한 지휘관이라는 평판을 가지게 했는지도 모른다. 림송은 준장의 이 깐깐한 성격을 리용하기로 결심하였다.

림송은 오전공작이 끝나기 3분전에 8군사령부에서 보내온 정황분석문건과 극동군정보국 정보 및 통보자료들을 가지고 에니스준장의 방으로 찾아갔다.

에니스는 아름이 넘쳐나게 서류들을 끼고 방에 들어서는 림송을 올려다보더니 이마를 찌프렸다.

《대위, 좋지 않소, 좋지 않아. 자넨 동정심이라고는 전혀 없구만. 이 늙은이를 영 사무실귀신으로 만들 작정인가?》 하고 에니스는 안락의자에 등을 기댄채 흐린 눈길로 림송을 올려다보았다.

《준장님, 나는 도쿄와 8군참모부에서 보내온 이 통보자료들을 당신이 점심식사를 마칠 시간까지 가지고있을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림송은 태연한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며 명료한 어조로 말했다.

《자넨 모든 짐을 이 늙은 군마같은 장령의 어깨우에 실을셈이구만.》 에니스는 림송이 눈치채지 못하게 책상우에 펼쳐놓았던 작전지도를 슬며시 접으며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좋지 않아. 하지만 난 자네의 그 성실성과 정확성에는 늘 탄복하는 사람이야. 오늘 점심은 나와 함께 장교구락부로 가세. 자네의 미인을 본지 오랬거든. 래일은 작전회의가 있으니 진저리가 날만큼 지루한 시간을 보낼테니까.》

에니스는 림송이 내미는 서류들을 받아들었다. 그는 서류들의 표지를 차례로 훑어보더니 맨우에 놓인 8군참모부 통보서를 번지기 시작했다.

한순간 림송은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리는것을 느꼈다. 갑자기 방안에는 숨막힐듯한 고요가 깃들었다. 림송은 이 한순간에 모든것이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저자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가? … 내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는가?…)

문득 에니스가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머리를 들고 림송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의아한듯 림송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대위, 왜 그렇게 낯색이 좋지 않나? 앉게. 문건을 검토하고 함께 가세.》

림송은 자기가 의자에 앉는다면 에니스가 더 여유를 가지고 문건을 뒤적일수 있다는것을 얼핏 생각했다.

벌써 에니스는 두번째 통보문건을 손에 들었다. 그다음 문건은…

림송은 얼핏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지친듯 말했다.

《준장님, 전 식사시간을 지키는데 습관되여있습니다.》

림송의 이 사소한 동작은 즉시 반응을 나타냈다. 에니스는 문득 생각난듯 자기도 손목시계를 보았다.

《림송, 그 기질은 내 마음에도 드네. 림메르트가 그랬지. 정보일군은 한초때문에 목숨을 잃을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직… 1분이 남아있지 않나!》

에니스는 문건철을 대충 번지더니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문건들을 모아 그 인사문건철우에 올려놓은후 금고로 다가갔다.

림송은 에니스가 문건철들을 금고안에 꼼꼼히 쌓아놓고 열쇠를 채우자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림송은 그가 오후에 다시 그 문건을 꺼낼 때에는 이미 이번 작전과 관련이 없는 례의 그 《리퍼작전》 성원들의 인사문건에는 손을 대지 않으리라는것을 확신하고있었다.

만약 림송이 5분전에만 이 방에 들어섰어도 꼼꼼한 준장이 그 문건을 그냥 금고로 가져가지는 않았을것이다.

물론 림송은 그가 문건연구에 짜증이 나도록 극히 불필요한 각종 통보서들과 정보부대훈련강령비준문건들을 오후 첫 시간에 가져갈것을 속으로 생각하였다.

《자, 대위. 그럼 자네의 비너스녀신을 보러 가세. 듣건대 요즘 자넨 그의 단독피아노연주회를 감상한다면서?…》

방을 나서며 에니스는 림송을 슬쩍 건너다보았다.

《바라신다면 순정아가씨는 준장님을 위해서 가극 〈카르멘〉에 나오는 비제프의 하바네라를 연주할것입니다.》

《림송, 난 〈마르타〉나 〈토스카〉를 더 좋아하지. 생각나나? 피씬의 주제가말일세.

저 별이 반짝이면
안개 고요한속에
수레소리 들리여…》

림송은 《련락사무소》 정원앞에 서있는 승용차문을 열며 빙그레 웃었다.

《전 준장님에게도 예술의 세계가 있다는것이 놀랍습니다.》

《림송, 자기를 바이론경이나 루이스공작처럼 생각 말게. 나에게도 문학을 탐독하고 〈자본론〉에 열중하던 시절이 있었다네.》

《난 준장님이 맑스주의신봉자였다는것은 더욱 몰랐습니다.》

림송은 그를 뒤자리에 안내한후 급히 승용차 앞좌석에 앉았다.

에니스는 후사경을 들여다보더니 유쾌한듯 미소를 지었다.

《준장시절이 오면 자네도 리해할걸세.》

림송은 후사경속의 에니스를 들여다보았다. 그는 두눈을 감고있었다. 림송은 이 순간 에니스가 최근 사건들이 있은후 더욱 자기를 믿지 않으며 승냥이처럼 멱을 물고 늘어질 시각을 시시각각 기다린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다음날 아침, 전선중서부에서의 미제침략군 8군의 새로운 공세를 위한 8240부대와 극동군사령부 작전국과의 합동작전회의가 에니스 준장의 방에서 열렸다. 회의장소는 2중3중으로 외부와 봉쇄되였다. 예견대로 문용채와 겐지로는 다시 회의대상에서 제거되였다. 아침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에 가서야 결속되였다.

림송은 만약을 생각하여 정보부대 사령부의 자기 방에 앉아 도청기레시바를 끼였다. 방향성도청기는 비교적 성능이 좋은것이였다.

림송은 놈들이 벌리려는 봄철대공세규모가 너무도 방대한데 놀랐다. 만약 《레인보작전》을 그대로 방임한다면 아군은 전선 중서부에서 최대규모의 반타격전을 진행하여야 할것이였다.

《그래, 어떻게 왔나? 듀페이중좌.》

《준장님, 난 전선너머로 떠나기에 앞서 당신의 전번 질문을 상기했습니다. 난 림송대위를 이번 〈레인보작전〉에 인입한 당신의 심리를 리해할수 없습니다.》

《중좌, 당신은 이제야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소? 〈리퍼작전〉의 일방적실패는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를 당신에게 설

명해줄수 있을거요. 그러나 마음놓게. 그건 단지 예감일따름이야. 나 역시 전번 감방에서의 검토를 통해 림송대위에게 호감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니까. 늙으면 자연히 로파심이 많아지거든. 듀페이, 림송은 계속 자기 임무를 수행할거요. 난 자네가 림송을 보증한데 대해 크게 감동되였댔네. 중좌, 이번에 공훈을 세우고 나의 신임을 되찾기 바라오. 가보게!》

에니스의 실무적인 어조에 듀페이는 다시한번 얼굴표정이 달라졌다.

《준장님, 보좌관직무를 빼앗긴 질투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림송은 붉은정탐이 아니래도 어쨌든 의심스러운 존재입니다.》

《동창생으로서의 예감인가?》

《아닙니다. 난 사실을 말할뿐입니다. 그는 문용채씨의 권고를 받고 전번 〈리퍼작전〉시 나의 분견대가 아니라 스케몬소좌를 당신에게 추천했지요.》

듀페이는 앙심을 품은 어조로 내밸듯 말했다. 에니스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계속하게.》

《난 스케몬소좌의 대렬속에 림송의 첩자들이 있을수 있다는겁니다. …》

《?…》

《문용채는 림송의 친구인 레이몬드 아담스라는 정체불명의 인물과 주권시장관계로 깊이 물려있지요.》

《자네의 삼단론법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군… 중좌!》

《준장님.》 듀페이의 눈에는 모든것을 체념한듯한 공허한 빛이 떠올랐다. 《복음이란 영원하지요. 까뮤는 죽음의 자유가 가장 진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북으로 침투되면 림송의 상급들, 아니 실례합니다. 인민군특수장교들이 나를 교수대로 인도할수도 있지요. 그때 나는 준장님을 생각하며 단톤의 유언을 되풀이할것입니다. 〈친구, 세상에는 인간이 할수 없는 한가지 말이 있네. 나는 죽었다!〉》

에니스는 저으기 기분이 나빠지는것을 느끼며 방안을 거닐었다.

《중좌, 난 자네가 두려워하는 점을 알고있어. 걱정 말게. 만약 자네가 다시 돌아오면 은성훈장을 내신하지.》

에니스의 말에도 듀페이의 눈에는 생기가 떠오르지 않았다.

《준장님,예수 크리스토가 말했지요.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라고. 이게 지금의 저의 인생관입니다.

닻을 올리면 출항해야지요. 다만 나의 장례식에 림송이 참가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듀페이는 화이바모를 움켜쥐였다.

듀페이가 나간 다음 에니스는 한동안 창가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회색머리중좌의 마지막말은 그에게 그가 우연히 저지를수 있었던 실수를 미연에 막아준것이나 다름없었다. 사실 그는 전선을 차지한 8군사령부관하 군단들과 8240부대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레인보작전》을 앞두고 림송을 도쿄로 완전히 소환할것을 방금 결심했었다. 이것이 자기가 우려하는 뜻밖의 사태를 빚어낼수 있었다는것이 지금 똑똑히 느껴졌다. 만약 림송이 붉은정탐이라면 분명 《레인보작전》같은 중요정보를 노릴것이며 그 작전전야에 자기를 소환하는 도쿄의 태도에서 진짜 위험을 느끼게 될것이였다. 에니스는 그가 적이든 아니든 자기보다 못지 않게 정탐심리가 예민한 사나이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의심을 받는다는것을 느낀 정탐가는 벌써 자기가 실패했다는것을 깨달을것이며 어떤 돌발적인 사태를 빚어낼지 모를 일이였다. 이것이 에니스가 가장 우려하는 문제였다. 만약 림송이 캐논방첩기관의 손에 의해 걸려든다면 그것은 더욱 치명적인것으로 될것이였다.

한편 에니스의 마음에 역작용을 하는 다른 요인도 있었다. 그것은 만약 림송대위가 붉은정탐이라면 응당 일망타진되였어야 할 스케몬소좌의 특공대가 전선너머에서 여전히 활동할수 있으며 이따금씩 눈부신 전과를 전파로 날려올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였다. 스케몬소좌는 이번 《리퍼작전》시 입은 손실때문에 웰로우비소장과 8군사령부로부터 비난과 추궁을 받을번했던 에니스준장을 위기에서 구원해준 성실한 장교였다. 벤다프대좌의 통보에 의하면 스케몬은 작전개시 30분전에 한개 련대의 무력밖에 없다고 했던 인민군지역에 강력한 포병군을 가진 증강된 사단이 편성되여있다는 급보를 보내왔던것이다. 물론 그 통보의 진실성을 분석하고 8군사령부에 급히 련락장교를 보냈을 때는 이미 작전이 시작되고 또 끝난뒤였다. 전선너머에서 스케몬소좌의 조가 엄연히 움직이고 또

보내온 긴급정보의 정확성이 판명된것으로 하여 에니스는 8군사령부 참모장과 월로우비앞에 재판관같은 숙연한 얼굴빛을 보여줄수 있었던것이다.

인민군진지에 련대무력밖에 없다는 정보는 캐논방첩기관의 정보망과 8군사령부관하 괴뢰군부대 정찰들의 합동정보였었다.

(그렇다, 씨저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 고대철학가 쏘크라테스는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다지? … 그래, 모든걸 운명에 맡기자.

림송이 붉은정탐이라면 이미 작전비밀은 평양에 넘어갔을것이다. 만약 그가 붉은정탐이라는것을 이제 와서 드러내게 되면 내가 근 반년가까이 준비한 이 제2전선 특수작전은 보류당하게 되고 난 군복을 벗든가 군법회의에 나설수밖에 없을것이다. 이제와서 방도는 무엇인가? 작전이 실패하면 그가 붉은정탐이든 제3국의 정탐이든 배신자로 몰아 그에게 책임을 넘겨씌워야 한다.

그러니 어쨌든…)

문득 에니스는 생각되는것이 있어 금고로 다가갔다. 그는 서둘러 특수열쇠를 꺼냈다. 그는 어제 림송이 가져왔던 문건철을 와락 꺼내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에니스는 서둘러 문건철을 뒤적이였다. 《리퍼작전》 인사문건철을 번지던 그의 손길이 독사라도 만진듯 흠칫 굳어졌다.

문건철에는 작은 방향성도청기가 설치되여있었다. 에니스는 한대 얻어맞은 기분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제는 분명하다. … 그는 붉은정탐이다. 평양만이 이 늙은 로병을 넘어뜨릴수 있다. 도청기사건때문에 신경이 오른 나에게 또 도청기를 제손으로 들고오다니! … 아, 나는 단 몇초의 순간을 림송에게 빼앗긴 덕분에 결국 실패했구나.

그때 내 방에 들어선 그의 눈길은 초조했고 해쓱했지. 난 왜 그것을 몰랐을가? 시간! 단 몇초가 나의 한생을 휴지장으로 만드는구나! …)

에니스는 방향성도청기가 든 인사문건을 손에 든채 악몽에 잠긴듯 눈을 감았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두번째 실패였다.

첫 실패는 자그마한것이여서 관용있는 상관들이 그것을 실수라

고 이름지었다. 오늘의 두번째 실패는 성난 황소에게 쫓기여 절벽끝에 나선것처럼 치명적이고 다급하고 절망적인것이였다.

하지만 이 둘은 동질의 성격을 띠고있었다.

그날의 작은 싹이 오늘은 거목으로 자라났던것이다. 작은 풀줄기는 그의 발을 걸어 한번 넘어뜨렸으나 오늘의 거목은 그를 깔아눕힌것이다. 어깨당기가 된 셈이다.

…나토군사령부에서 정보참모로 활약하던 시절, 그는 아이젠하워장령으로부터 새로 창설된 이스라엘정보국에 중요문건을 만들어 넘겨줄데 대한 극비임무를 받았다.

그 누구도 개입시키지 말라는 엄명이 있었다.

그는 자료보따리를 들고 관광객행색으로 아테네를 떠났다. 지중해연안에 장미빛운무가 끼는 황금의 휴양철이였다.

에니스는 직접 까히라로 가려고 려객선에 올랐다. 어느날 그는 아침커피를 마시고 갑판에 오른 순간 수심에 잠겨있는 한 녀인을 보았다. 호리호리하고 나긋나긋한 몸매에 장발의 금발머리가 눈부시고 애틋한 눈매를 가진 뛰르끼예계 미인이였다. 녀인이 돌아서는 순간, 얼굴이 정면으로 비쳐드는 순간 에니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직업적인 관찰력을 가진 대좌의 눈은 속일수가 없었다. 에니스는 스무해전 기약없는 사랑을 속삭이던 대학동창생처녀를 본것이다. 아니 자기자신이 그 시절에 되돌어선 기분이였다. 에니스는 어리둥절한 기분으로 그 녀자에게 다가갔다. …

처녀는 옛 애인인 뛰르끼예녀자 마가렛트의 딸이였다. 운명은 또 한번 에니스를 희롱한것이다. 에니스는 어쩔수 없는 감정의 힘에 이끌려 처녀를 따라 이스탐불에 내렸다. 도시 서켠, 크지 않은 이층집이 숲속에 자리잡고있었다. 친절한 하인들의 안내를 받으며 에니스는 려장을 풀었다. 그리스도교성지에 도착할 시간까지는 아직 한주일이 남아있었다. 에니스는 이곳에서 문건을 만들리라 결심하고 이미 작고한 옛애인의 사진앞에 한동안 서있었다. 저택은 텅 비여있었다. 처녀의 아버지와 애인은 자이르의 동광에 나가있고 그 녀자는 프랑스대사관 타자수로 있다가 편도선염으로 그만둔 형편이였다.

첫날과 둘째날 저녁 에니스는 녀인과 함께 차를 마시며 담화해

보았다. 순진하고 허영심에 들떠있고 어머니에 비해 지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녀자였다. 에니스는 휴양기간 회상기를 쓴다고 소개하며 그 녀자에게 문건의 타자를 맡겼다. 물론 타자는 그의 시야속에서 하루에 한시간정도 진행했고 완성된 문건은 즉시 안전장소에 보관되였다. 며칠이 지나자 녀인은 타자에 싫증을 느꼈으나 세상풍파를 다 겪은 대좌의 로숙한 애무에 희열을 느끼며 동시에 에니스의 생활을 에게해의 진주빛으로 채색하여주었다. 석별은 괴로운것이였다. 에니스는 이스탐불 선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던 그 녀인을 오래도록 잊을수 없었다. 에니스는 꾸드스에서 이스라엘 고위장교에게 문건을 넘겨주고 아테네로 돌아왔다. 이스탐불처녀는 이미 잊고있었다.

어느날 그는 아이젠하워의 부름을 받았다.

에니스는 무엇인가 랑만적인 기분을 느끼며 그의 방에 들어섰다. 그가 준 단독임무를 깨끗이 결속한 기분이 기대를 준것이다. 아이젠하워장령은 그를 차거운 눈길로 슬쩍 올려다보더니 영국에서 발행되는 신간군사잡지를 밀어놓았다.

잡지를 번지는 에니스의 손길은 떨렸다.

거기에는 그가 만들어 이스라엘정보국에 넘겨준 문건이 하나의 오자도 없이 전문그대로 실려있었다. 에니스는 그자리에 주저앉았다. 앞이 캄캄했다. 그러니 그 얼뜨기같던 마가렛트의 딸이, 돈과 춤과 애무밖에 모른다고 여겼던, 했기에 쉽게 잊었던 그 검은 눈동자처녀의 머리가 그런 비상한 촬영기였단 말인가!…

에니스는 형식론리학을 중시했다. 또 내용보다 형식을 사랑했다. 내용은 바꿀수 있어도 형식은 바꾸지 못한다. 그릇의 크기에 따라 물을 담을수 있으되 때로는 물이 아니라 위스키도 포도주도 담을수 있는것이다. 판단을 떠나 감정에, 형식에 치중한 그가 실수, 아니 실패한것이였다. 정보사업에 머리가 희여진 그가 감정의 론리를 따른것이다.… 지금까지 그것과 싸워왔으나 그는 림송이라는 신기루에 매혹되여 다시한번 넘어진것이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수도 있는것이다. 그는 허탈감에 빠져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을 생각했다.

그는 문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앞에는 군복을 가뜬하게 차려입은 림송대위가 서있었다.

에니스는 책상우에 문건철을 내려놓고 보신용권총을 집어들었다. 그는 한순간도 지체없이 자기앞에 장벽처럼 서있는 사나이를 쏴죽이고싶었다. 그는 안전장치를 풀었다.

《준장님, 자총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각이 아닐가요?》

문득 림송대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구?》

에니스는 리성을 잃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난 준장님이 그 도청장치를 며칠후에 발견하였으면 하고 내심속으로 빌었습니다.》

《그 며칠사이면 당신이 안전한곳에 피신할수 있었소? 필요하다면 내가 그 시간을 제공해주겠소!》

에니스는 자기 목소리가 그토록 침착해진데 스스로 놀랐다.

림송대위는 미소를 지었다.

《그 귀중한 시간은 준장님의 생명과 명예를 위해서 필요한것이였습니다.》

《?!…》

《그 도청기는 벌써 준장님의 방에 가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연시켰고 작전회의를 앞둔 어제는 또 반드시 준장님의 금고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미전에 벌어져야 했던 사건을 촉진시켰고 재현시켰을뿐입니다.》

《차라리 당신은 력사를 떠밀었다고 말할걸 그랬소. 그래 리유가 있을테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림송의 론조에 끌려들어간 에니스는 권총을 책상우에 놓았다.

《그것은 이번 〈레인보작전〉을 파탄시킨자들에게 그 도청기가 산증거물이 될수 있었기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문용채와 겐지로, 구체적으로는 씨아이씨를 피고석에 앉히게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청기 역시 씨아이씨가?…》

에니스는 그 어떤 일루의 희망을 느끼며 림송을 반신반의하는 눈길로 바라보았다.

림송대위는 에니스앞으로 다가가 문건철을 내밀었다.

《어제아침 나의 정보원이 입수한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인민군에 역리용되여 준장님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오는 스케몬부대가 문용채와 겐지로에게 보내는 작전지역의 은광설계도와 기타 배신을 보여주는 사진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에니스는 말없이 문건철을 뒤져보았다.
그의 얼굴은 금시 창백해졌다가 다시 검붉어졌다.
한순간 그는 눈을 감았다.
(스케몬소좌가 인민군총참모부의 사무실에 앉아 무전을 보내다니? 그럼 《레인보작전》은 결국 인민군장령들의 지시봉에 따라 진행되는것이나 다름없다. 하느님,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도 가혹하게 처벌하십니까! …)
림송이 그를 부축하여 의자에 앉혔다.
림송이 워드까잔을 입에 가져다대자 에니스는 눈을 떴다. 그는 마치 새로운 세계에라도 온듯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그래 림송대위, 당신은 이게 전부 씨아이씨의 작간이라고 생각하오?》
《씨아이씨의 음모를 결국 붉은 정탐망이 리용했다는 근거가 나옵니다. 겐지로중좌는 이미 두개의 붉은 아지트를 적발하고 무선수를 사로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문용채를 움직이는 륙군정보국이 겐지로의 동업자이기도 하지요.》
에니스에게는 비로소 모든 사실이 력연해지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에게는 자기가 빠져나갈 출로가 불현듯 눈앞에 현실적으로 나타났다는것을 알았다. 물론 그는 이 순간도 림송대위의 말을 다는 믿지 않았다. 다만 그의 두뇌에서 이미 가공된 《현실적인 자료》, 자기에게 필요한 자료만을 받아들였다.
《아, 이 조용한 〈사무소〉 안에 이런 배신이 깃들다니! …》
에니스는 다시 넉두리처럼 부르짖었다.
그의 손은 중풍이라도 인듯 부들부들 떨렸다.
림송대위는 차렷자세를 취했다.
《준장님, 가장 큰 음모는 가장 작은 도시에서 벌어지는 법입니다.》
순간 에니스는 눈을 번뜩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에니스는 현훈증이라도 온듯 두눈을 감고 뒤통수에 손바닥을 가져갔다.

(그러니 이젠 봄철대공세, 중요한 군사정치적목적을 위한 나의 《레인보작전》도 끝장이다. 나의 명예도, 이성장령공상도 끝장이다.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젠 내가 그토록 주도세밀히 준비한 《레인보작전》을 보류해야 한다. 이 작전이 그냥 진행되면 미8군은 전선에서 엄중한 참패를 당하게 되고 나는 교수대앞에 서게 될것이다! 시간이 없다. 원인은 명백하다. 캐논방첩기관의 방해가 결국은 평양의 함정을 준비시켰다. 빨리 일을 바로잡아야 한다. 멈춰서야 한다!…)

에니스는 림송을 돌아보았다.

《림송대위, 작전과에 〈레인보작전〉을 취소하는 보고문을 당장 만들라고 하시오! 그 원인과 책임이 미 8군 씨아이씨에 있다는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되였소.

문건을 즉시 도꾜의 극동군사령부에 보내야겠소!》

《알았습니다!》

림송은 차렷자세로 거수경례를 한후 방에서 나갔다.

에니스는 감사와 증오가 뒤섞인 착잡한 눈으로 림송대위의 뒤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니다, 이건 분명 저자가 꾸민 음모이다. 난 이걸 온몸으로 절감하고있다!

씨아이씨나 문용채는 저자의 손에 쥐여진 지레대에 불과하다. 저 림송대위는 그 지레대로 나를 들어 공중으로 날려보냈구나!

결국 나는 붉은 정탐에게 실패하고 또 그 손에 의해 구원을 받는셈이구나! 오, 운명이여!…)

그는… 송수화기를 들었다.

《벤다프대좌요? 듀페이분견대를 즉시 출발시키시오. 그리고…》

에니스는 송수화기를 든채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앞으로 있게 될 캐논방첩기관에 대한 《재판》놀음에서 이미 꼬리가 잡힌 듀페이가 필요없는 존재라는것을 알았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의 주패장을 다시 검토해보고싶었던것이다. 작전회의후 출발한 분견대는 《적수들》앞에서 에니스자신의 무죄를 증명할때 산 증빙자료로 될것이였다.

송수화기에서는 계속 지시를 기다리는 대리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준장님, 전 듣고있습니다.》

《알고있소. 도꾜로 출발시킬 비행기를 준비하시오. 난 특수련락장교를 급히 극동사령부로 보내야겠소. 그리고… 문용채를 조용히 체포하시오.》

《알았습니다.》

에니스는 쏘파에 앉아 워드까병을 움켜쥐였다.

결국 그의 눈부셨던 정탐가의 인생은 조선전쟁이라는 현실앞에서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그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완전히 패했다는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무엇이 모자랐는가? 정탐심리인가, 경험인가? 예감인가, 의지인가? 외교적수완인가, 판단력인가?… 아니, 이 순간, 붉은 정탐과 피치 못하게 손을 잡고 씨아이씨를 때려야 하는 이 시각 그는 자기의 정신적공허성을 발견하고 인정하는것자체가 무의미하다는것을 불현듯 깨달았다.

에니스는 자기자신을 위해서 림송대위를 최악의 경우엔 죽여버려야겠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죽여버리라. 뿌리채 뽑아 던져버리라. 아니, 죽이되 그 방법이 문제다. 만약 그런 경우가 온다면 함께 벼랑으로 떨어질수 있다. 하지만 예수 크리스토가 말했다지. 내 너희들에게 진실로 말하나니 최선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라!…)

창밖에서 직승기 동음소리가 불안스레 들려왔다.

제 20 장

오늘 전선서부 주타격방향에서 공격에로 넘어간 아군련합부대들은 림진강 이북지역에 침입했던 미제침략군을 소멸하고 문산방향으로 성과를 확대하였다.

4월 22일 17시 30분, 강력한 포병준비사격후 공격을 개시한 주타격집단 우익의 아군련합부대들도 개성—장단 일대에서 저항하는 미제침략군 1군단관하 경계력량을 소멸하고 4월 23일 5시 림진강우안에 도달하였다.

아군의 노도와 같은 군사행동앞에 1방어지대를 잃은 괴뢰군 1보병사단은 제2제대인 15련대와 11,12련대의 증강력량으로 반돌격을 시도했다.

련천—의정부 방향으로 공격하던 인민군련합부대들은 제2제대들을 전투에 진입시켜 림진강 대안에서 저항하는 괴뢰사단과 영29려단,미제침략군 3보사의 방어진을 짓부셔버렸다. 아군은 적을 익측,배후로부터 타격하면서 의정부 북쪽 20키로메터지점에서 적을 분산포위섬멸하는 일대 소탕전을 벌리였다.

전선중부에서 공격에로 넘어간 아군련합부대들은 미제침략군 9군단과 괴뢰군 1군단에 결정적타격을 안기면서 가평동북쪽 10여키로메터지점인 연평—제령리 계선에 나갔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군사적지략에 따라 전선 서부와 중부에서 아군련합부대들은 1주일간의 공격과정에 35～50키로메터나 적의 종심으로 진출함으로써 전선을 북한강—소양강 이남으로 전진시켰고 백악관으로 하여금 중요한 정치군사외교적문제인 정전담판제의에서의 주도권을 잃게 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펜타곤과 도꾜의 머리흰 장교들이 공화당 《매파》의 지지밑에 미중앙정보국이 후원하는 8군의 봄철대공세계획에 마지막희망을 걸고있었다.…

림송은 《련락사무소》 작전과에 들렸다가 에니스의 방으로 찾아갔다.

림송이 방에 들어서자 번들거리는 대머리우로 몇오리 건너간 듬성듬성한 머리칼을 조심스레 빗고있던 에니스준장이 절망에 잠긴 눈길로 그를 돌아보았다.

《림송대위,난 긴 말을 하지 않겠소. 당신은 오늘저녁 도꾜로 떠나야 하오!

극동군사령부 장령들에게 〈레인보작전〉이 왜 보류되였는가를 이 문건이 설명해줄거요. 나는 이 주요문건을 내가 자신처럼 믿는 특수련락장교인 자네에게 맡기는것이 기쁘오.》 하고 에니스는 자못 엄숙한 얼굴로 림송을 바라보았다.

《준장님의 신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림송,이 엄혹한 시각에 자네를 도꾜로 보낸다고 섭섭히 생각지 말게. 만약 이 련락문건이 도중에서 평양이나 제3국에 넘어간

다면 도꾜는 계획대로 〈레인보작전〉을 시작하네. 그러면 미8군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걸세.

이건 또… 내 운명과도 관련되는 중대한 일이지. 이젠 내가 나의 특수련락장교를 하느님의 사도로 선정한 리유를 리해했으리라고 믿소.》

《감사합니다.》

《난 출발준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주지 않겠소. 자네의 임무는 시간을 다투는거니까. 한시간후에는 장교구락부에 비행장으로 가는 자동차가 도착할거요.》

《준장님, 난 언제나 출발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림송은 차렷자세를 취하며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그 순간 림송은 에니스의 얼굴에 일종의 야릇한 조소같기도 하고 동정같기도 한 표정이 얼핏 스쳐 지나가는것을 보았다. 에니스는 코를 킁킁거리며 찌프린 눈으로 림송을 훑어보더니 입맛을 다셨다.

《그래 림송, 솔직히 대답해주게. 자넨 우리 일이 마음에 드나?》

에니스의 목소리는 저으기 부드럽게 울렸다.

《준장님, 어쨌든 이 땅이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조국이 아닙니까! 만약 유럽땅에서라면 결코 군복을 입지 않았을것입니다.》

《음, 조국이라… 한 고전가는 조국이란 철을 따라 바꾸어입을수 있는 외투같은것이라고 했지. 난 자네의 그 의지가 마음에 들거든. 좋아. 하지만 난 가끔 이 어려운 정보전에서 물러나 전선사단을 지휘하고싶은 욕망이 들 때가 있거든.

정탐가란 외교관과 비슷해서 때로는 자기의 동정심도 량심도 내던져야 하니까.》

《?!…》

두사람은 잠시 예리한 눈길로 서로 마주보았다.

(림송… 넌 죽을것이다. 난 이미 그걸 도꾜에 명령했어. 문건을 전한후 너는 죽어야 한다. 무섭지 않나? 넌 이미 죽음의 운명을 피할수 없다!…)

(준장! 당신은 조선인민군 전략정보일군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있다!… 난 죽음이 아니라 삶을 향해, 승리를 향해 걸어가고있다!… 혁명을 수호하고 조국에 기여하는것은 우리의 가장 큰 기

뿜이고 삶이다! 이걸 알라! …)

두사람은 물론 이 순간 이것이 자기들의 마지막상봉이라는것을 알았다.

에니스가 먼저 눈길을 내리깔았다.

림송은 정보부대 사령부건물을 나섰다.

그는 차단소옆에 세워둔 승용차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2층창문에서 에니스가 자기를 내려다보는것을 직감했다.

에니스의 손에는 또다시 권총이 쥐여져있었다. 어쩌면 자총을 시도할지도 모른다. 아니 그것이 시간문제이지 정치군사적으로, 정탐심리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그는 기어이 자기 심장을 겨눈 권총의 방아쇠를 당길것이다. 림송은 이것을 똑똑히 느끼고있었다.

림송은 멈춰섰다. 화창하고 맑은 날씨였다. 눈부신 태양이 질푸른 봄하늘에서 불타고있었다. 차단소옆의 키높은 한그루 은백양나무에는 파릿한 햇잎들이 돋아 바람에 설렁거리고있었다. 참새떼들이 그 가지우에서 재잘거리고있었다.

림송은 운전대를 잡은채 은백양나무 주변을 바라보았다. 포성이 울리지 않는 전선 먼곳에서 그의 눈에 안겨오는것은 봄의 화려한 성장을 한 정다운 이 땅의 모습이였다. 이 순간 림송은 영문모를 감정이 밀물처럼 가슴속에 북받쳐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래, 좋은 봄이다! 지금쯤 고향의 숲속에는 싱그러운 풀향기가 흐를거야. 상원암에는 진달래꽃이 활짝 피여 내물을 붉게 물들일테지… 비록 내가 가는 앞길에 죽음이 기다린다고 해도 난 기어이 이 길을 가야 한다. 조국의 한순간을 위해 나의 청춘, 나의 사랑, 나의 재부, 총체로 나의 삶을 바친다 한들 무슨 한이 될것이 있으랴! 승리한 조국땅우에는 봄마다 백화가 만발할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를 따르는 충성의 길에서 순간을 위해 바친 삶은 조국땅우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

림송은 승용차발동을 걸고 건물앞 차단소를 빠져나왔다. 그는 도시로 들어가는 간선도로에 들어섰다. 그는 장교구락부로 가서 을지길을 만날것을 결심하였다.

오늘낮 림송은 교회당입구에서 한순정과 접선하게 되여있었다. 하지만 지정된 시각에 차를 몰고 교회당옆을 지나갔으나 약속된 세번째 기둥옆에 한순정이 없었다.

림송은 불안감을 느꼈으나 접선을 포기하고 《사무소》로 향했던것이다.
이제는 시간이 없다. 직접 그들을 만나야 했다.
장교구락부정문을 통과하여 차고에 이른 림송은 현관앞에서 서성거리는 강수잔나의 뒤모습을 얼핏 보았다.
림송은 차고에서 나와 천천히 현관계단에 올라섰다. 레스토랑홀과 2층의 방들은 조용하였다. 그 어떤 불길한 예감이 체내에 깃드는것이였다. 림송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앞에 마주앉았다. 그는 종이장을 꺼내놓고 사색에 잠겼다. 림송의 얼굴에는 한순간 추억의 그림자와 행복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종이우에 몇글자 급히 적어내려갔다. 한순간 그는 펜을 멈추었다. 그는 머리를 들었다.
(아니, 난 중요작전을 앞두고 한순간도 자기에로 돌아갈 권리가 없다！ 순정이, 용서하오！ 그리고… 내 마음이 언제나 동무와 함께 있다는걸 알아주오. …)
림송은 편지를 불태워버린후 급히 방을 나섰다.
아래층 복도를 에돌아 안침한 구석쪽에 있는 한순정의 방까지는 먼거리가 아니였다. 그는 될수록 이 구간을 천천히 걷고싶었다. 그가 천천히 걷는 그만큼 그들을 향해 달음쳐오는 작별의 순간은 늦어질것이였다. 그러나 사정없는 시간은 줄기차게 흐르고있었다. 림송은 그 녀자의 방까지 가는 몇걸음동안에 지나간 반생을 돌이켰다. … 시내가 푸른 언덕, 잔디밭… 그들의 노래… 아버지의 운명모습… 오타와의 안개낀 거리… 리준구를 만나던 허드손강가… 역홈에서 본 그 녀자의 눈매… 다시 피아노소리… 설명절… 그 녀자의 목소리… 검은 눈동자… 어느새 림송은 한순정의 방앞에 이르렀다.

브라운 겐지로는 8군사령부 방첩과를 나오자 즉시 《련락사무소》쪽으로 차를 몰아갔다. 그는 방금 감정실에서 최근의 평양방송의 에쓰디전문을 해독하는 과정에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인민군총참모부의 로련한 일군들이 짠 전보문에서 겐지로는 《수성》이라는 글자와 《옛사진》이라는 글자를 해독하는데 성공하였다. 물론 방첩과의 전문가들은 이 두 글자에서 아무런 자극도 표상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겐지로의 후각은 인차 자기만이 느낄수 있는

독특한 냄새를 가려내였다. 그는 사진소리를 듣자 한순정의 방에서 보았던 그 사진을 상기했고 서울호텔에서 수잔나가 복사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느꼈던 그 공포의 시각을 추억했다.

겐지로는 늘 예감의 힘을 믿어왔다. 인간의 초능력적인 예감이란 리해할수 없는것이지만 겐지로는 늘 그것을 중시해왔고 참작해왔다.

(이건 분명 련락선을 잃어버린 《수성》에게 접선자를 안내한 지령문이야. 옛사진을 가진자는 다름아닌 한순정이다. 그렇다면 《수성》은 누구인가? 사진속의 그 소년인가? 그것이 분명하다. 분명 《수성》은 그 녀자의 주위에서 움직이고있다.)

겐지로의 예감은 《수성》이 바로 림송이라고 알려주고있었다.

겐지로는 에니스준장에게 통보하고 특수작전 전야인만큼 즉시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다음순간 그는 자동차속도를 늦추었다. 전번 감방사건이 문득 떠올랐다. 그것은 쓰거운 회상이였다. 다시는 그런 희비극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겐지로는 이발을 악물고 장교구락부쪽으로 차머리를 돌렸다.

나는 매대벽의 시계를 올려다보았다. 《수성》과의 접선시간이 가까와왔다. 나는 급히 장교구락부정문을 나섰다. 정오의 해빛이 눈을 시울게 내리비쳤다. 나는 천천히 길에 나서서 8군사령부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의 품속에는 귀중한 그 사진이 간직되여있었다.

묘향산집에서 가져온 그 옛사진이 적구에서 이처럼 긴요하게 쓰일줄은 몰랐다. 어제 을지길아바이는 최고사령부 전략정찰병 《수성》과 접선하며 그가 주는 임무를 수행할데 대한 부대의 지시를 받았다. 접선암호로 례의 그 옛사진을 보이라는 말을 듣고 나는 한순간 정신이 핑 돌았다.

《수성》은 누굴가? 부대에서는 그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는것을 암시해왔다. 무엇보다도 접선표시가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렇다면 《수성》은 내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는 그 사람, 떠나간 사람, 사진속의 그 사람일가? 나의 마음을 휘여잡고 놓을줄 모르는 미지의 사나이, 림송대위일가? 이렇게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일종의 기쁨과 불안으로 세차게 고동친다. 정말 그이가 옳을가? 녀성의 민감한 심장은 기대와 희망, 불안한 행복감으로 충만되여있다.
나는 시계를 본후 역전광장을 지나 교회당쪽으로 향했다. 저 교회당 세번째 기둥옆에서 이제 15분후에 《수성》이 기다릴것이다.
나는 어쩐지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것 같았다. 교회당이 보였다. 세번째 기둥, 한 사나이, 중절모를 쓴 한 사나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교회당입구 계단쪽으로 걸어갔다.

《그래, 한순정이가 장교구락부정문을 나섰다면 분명 접선장소로 갈것이요. 암호문을 해독한데 의하면 국제전신국, 동양영화관, 동촌골프장 그리고 교회당입구일수 있소.》
브라운 겐지로는 승용차에 오른 수잔나에게 나직이 중얼거렸다.
장발을 뒤머리에 틀어올린 수잔나는 들가방에서 담배를 꺼내물었다.
《매개 대상지에 정보원들을 파견했으니 걱정마세요. 그런데 문제는 림송대위가 아직까지 〈사무소〉에서 준장에게 잡혀 어물거리고있는거예요.》
림송의 이름이 나오자 겐지로는 얼굴을 홱 돌렸다.
《그건 관계없어. 우리의 그물이 아니라 해도 이젠 그자가 빠질 구멍이 없으니까. 함정은 이미 도꾜에 마련되여있소. 문제는 한순정에게서 증거를 쥐여야 해. 그런 경우 그것은 림송만이 아니라 에니스준장의 정수리를 타격할 무기가 될거요!》
《차라리 그년을 체포할가요?》
《그건 최악의 경우요.》 겐지로는 이새로 중얼거렸다.
《마지막 한걸음까지 인내성을 견지해야 하오.… 만약 우리가 정보원에게 상면암호만 대줄수 있다면!》
《지금 8군방첩과에서는 중좌님의 가설에 기초해서 상면암호를 해독하고있어요. 문제는 시간이예요!》
수잔나가 가설이라고 하는바람에 겐지로는 다시 오만상을 찌프렸다.
《흥, 가설? 그 시간이 가설인지 과학적인 추리인지 증명해줄거요.》
승용차곁으로 철갑모를 쓴 장교가 급히 다가왔다.

《중좌님, 급보입니다. 접선시간과 상면암호가 해독되였습니다.》
《뭐라구?!》
겐지로와 수잔나가 기쁨과 놀라움에 젖은 목소리로 함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탄 검은 승용차는 중고품상점 뒤골목에 대기하고있었다.

내가 교회당 기둥곁으로 다가가자 중절모를 쓴 사나이는 얼핏 길건너편을 바라보더니 급히 자리를 떴다. 나는 그의 뒤모습을 눈여겨보았다. 걸음걸이, 어깨, 뒤머리… 처음보는 사람이였다.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그는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였다.
나는 시계를 보았다. 시간은 굼뜨게 흘러갔다.
과연 《수성》은 누굴가? 떠나간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이일가?
바람이 교회당 양철지붕을 흔드는 소리가 들린다.
문득 길건너편 중고품상점 뒤골목입구에 그 사나이가 나타났다.
사나이는 서두르며 지체없이 내앞으로 다가왔다.
사나이는 나의 얼굴을 일별하고나서 침착하게 물었다.
《미사시간이 지났는가요?》
(이것은 아직 상면암호가 아닌 생활대사구나!)
《전… 알아보지 않았는데요.》
《혹시 아가씨는 옛사진에 취미를 가지고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 이 사람이 《수성》?…)
《네, 늘 품고다니지요.》
《필요하다면 내가 복사해드리지요.》
나는 한순간 주춤했다. 상면암호는 정확한것이였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어쩐지 불안과 초조감으로 조급해지고 일종의 중압감으로 무겁다. 왜 그럴가?
(왜 상면암호를 댄 이 사나이에게 믿음이 가지 않을가? 시간도 5분을 앞당겨왔다. 을지길아바이는 정찰병의 1분은 보통생활의 한해와도 대비할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왜 접선직전에 자리를 떴을가? 혹시 씨아이씨의 함정이 아닐가? 침착해야 해. 아직 시간이 있으니 좀더 기다리자. 대답하지 말자. … 아니, 자리를 움직이자. 만약 《수성》이 다른이라면 이젠 가까이 있을것이 아닌가.

《수성》에게 위험이 가서는 안된다！… 이 사나이는 분명 접선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

나는 천천히 교회당입구 계단을 내려섰다. 그러자 사나이도 따라섰다.

나는 거리를 따라 걷다가 륙군병원옆 중고품상점앞에 멈춰섰다. 나는 진렬품매대의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교외쪽 거리로 승용차가 다가오고있었다. 나의 심장은 후두두 뛰였다. 그것은 림송대위의 차였다. 접선시간 1분전이였다. 나는 녀성특유의 예리한 륙감으로 그를 알아보았다. 나는 림송대위가 교회당입구에서 차속도를 늦추는것을 보았다. 더 생각할새가 없었다.

나는 급히 돌아서서 중고품상점 옆골목, 방금전 사나이가 들어갔던 뒤골목으로 뛰여들어갔다. 다음순간 나는 뒤골목에 서있는 검은색 승용차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뒤골목은 막혀있었다. 승용차문이 열리더니 브라운 겐지로중좌와 강수잔나가 뛰여내렸다.

브라운 겐지로는 구태여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묻는 말에 한순정이 지꿎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차거운 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그 녀자앞으로 다가왔다.

《순정씨！ 당신을 부인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대해선 용서하시오. 난 이미 아가씨가 모성이 되여본 일이 없다는걸 알고있으니까. 세상에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녀자란 아마 성모마리아밖에 없을거요.》 하고 겐지로는 손가락마디를 툭툭 꺾어 불쾌한 소리를 내며 흔연한 어조로 말했다. 《난 당신이 또한 그리스도교를 믿어본일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데 대해서도 생각해보았지. 결국 난 최근에야 비로소 한순정이라는 녀성의 진모를 알았다 할가. 평양은 5년사이에 한 소녀를 공산주의자로 만들었더군. 미인을 재교육하기란 힘들텐데…》

《중좌님은 절개를 지키려는 젊은 녀자가 전쟁에 거칠어진 뭇사나이들의 공격을 물리치기가 쉬운 일인줄 아세요？》

한순정의 말에 겐지로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아가씨는 평양에서 대학을 다닐 때 그런투로 얼뜨기 로교수들을 속여넘기군했소？ 재미있소. 아주 재미있는 녀성이 됐거든. 당신의 그 재치는 당신의 미모를 더 돋구는 매력이라고 말할수 있소.

그러니 아이는 하나의 보신용 무기로 기른단말이군. 군복에서 향수내가 풍기는 고급장교들은 당신의 미모는 찬양하면서도 그 재치에는 두려움을 느꼈을거란 말이요.》 하고 겐지로는 걸웃음을 띄운 예리한 눈길로 한순정을 찬찬히 뜯어보더니 또다시 손가락마디를 꺾기 시작했다. 《난 물론 아가씨를 북조선정탐으로는 보지 않겠소. 평양은 미인들을 퍽 아낄테니까. 오늘도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접선장소에 나타났을테지. …》

《…》

《순정씨, 대답하우, 설사 당신의 대답이 뜻밖이라 해도 구원해줄 용의가 있다는걸 잊지 마시오. 당신은 아마 륙군정보국방첩대가 어떤곳인지 알고있을거요. 도꾜에 있는 캐논방첩기관의 본부 이와자끼저택 심문실은 그보다 더 랭혹하고 무자비하다는걸 명심해야 하오. 특수직업에 종사하는 위안부들까지도 그곳을 나오면 일생 악몽에 시달린다오.》

겐지로의 어조는 나직하고 부드럽기까지 하였으나 한순정은 그의 눈길이 자기의 몸을 스칠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것 같았다.

(더러운놈! 네놈들의 회유나 고문에 굴복할 내가 아니다. 아, 내가 한순간을 놓쳤다면 얼마나 큰 실수를 할번했는가? 《수성》, 혁명동지의 신변에 위험을 줄수 있었구나! …)

《자, 어서 말하오.》

《난 당신의 말씀의 뜻을 잘 모르겠군요. 결백한 사람들이 두려워할것이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신과 자기의 량심을 속이는것말이예요!》

한순정은 굴함없이 쌀쌀한 눈길로 겐지로를 마주보며 조용히 말했다.

한순간 겐지로의 얼굴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순정에게로 달려들려다가 문득 멈춰섰다. 그는 애써 자제하는듯 눈길을 돌리더니 군복웃주머니에서 한쪽 모서리가 꺾인 사진 한장을 꺼내들었다.

《아가씨는 지금… 나의 의지를 시험하고있소. 아가씨같은 연약한 녀인이 운명에 도전해서 얻을것이란 아무것도 없소. 정조를 잃게 되면 그 녀성이 아무리 마음이 고결해도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법이요. 아랍에서는 그런 녀성들에게 주홍문자가 새겨진 옷을 입

히오. 위협으로 생각지 마오. 그저 두려워할줄 알아야 한다는거요.》 하고 겐지로는 약간 목갈린 소리로 중얼거리더니 한순정의 앞으로 다가와 례의 그 사진을 내밀었다. 《자, 대답하오! 이게 나의 마지막 인내성이요! 이건 너의 접선표시였다. 이 웃는 사내가 누구지?…》

사진은 한순정의 눈앞으로 확대되여 안겨왔다. 그 녀자는 복사한 사진을 보자 눈앞이 아찔했다. 그 녀자는 창턱을 짚으며 두눈을 감았다. 눈앞이 빙빙 돌며 금방 쓰러질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 어떤 불길하고 무서운 예감이 그 녀자의 머리속에 가득찼다.

웅웅거리는 귀속으로 겐지로의 험악해진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어서! 이게 누구지?》

《?!…》

《림송대위지?…》

(어마나! 림송대위라니? 그러니 결국 나의 심장의 예감은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원쑤의 입을 통해 그걸 확인해보게 되다니! …운명의 희롱이란 이렇게도 얄궂은것인가?…)

한순정은 겐지로의 마지막물음을 듣는 순간 가슴을 쿵 치는 충격과 함께 크나큰 행복감을 느꼈다. 그 녀자의 마음은 갑자기 안정되고 힘과 열정과 용기가 생기는것이였다.…

《아, 중좌님, 여기 있는걸 홀에서 기다렸습니다.》

술냄새와 함께 귀에 익지 않은 목소리가 들리는바람에 한순정은 눈을 떴다. 중절모를 쓰고 견장이 없는 야전군복을 대강 걸친 외국인풍의 사나이가 벌거우리하게 달아오른 얼굴로 문가에 나타났다. 몇번 림송의 방에서 본 일이 있는 무뚝뚝하고 굳세보이는 사나이였다.

《레이몬드…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나타났소? 난 지금 마담과 담화중인데.…》

겐지로의 얼굴에는 당황해하는 빛이 질게 나타났다. 그는 아쉬워하는 초조한 눈길로 한순정과 레이몬드를 번갈아 바라보며 슬며시 사진을 뒤집어 원탁우에 올려놓았다.

《이봐 겐지로, 너무 그러지 말게. 자넨 미인앞에서 뼈까지 녹을 위인이군그래.》 하고 레이몬드는 취기어린 시선으로 너나들이를

하며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자, 앉게. 텅빈 레스토랑에 홀로 앉아있자니 이거야 어디 취객맛이 나나. 미인이란 심장을 틀어쥐여야 하는거야, 그러자면 사나이다운 멋과 맛이 있어야지. 매력말이야. 그런데 자네에겐 그게 없거든. 수잔나를 생각해보게!… 자, 부인, 술잔이나 좀 주시구려.》
한순정은 지긋지긋한 겐지로의 눈길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싶은 욕망에서 두말없이 찬장의 잔을 꺼내 원탁우에 놓았다. 레이몬드는 뒤주머니에서 위스키병을 꺼내더니 뒤집힌 사진우에 쾅하고 덧올려놓았다.
겐지로는 레이몬드의 입에서 수잔나이야기가 나오자 그만 기분이 잡쳐가지고 얼굴을 찌프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친구, 너무 얼굴을 찌프리지 말게. 듀페이중좌도 때로는 내 신세를 진다는걸 알아야 해. 정보도 결국 돈이 드는거지. 자넨 너무 도고한게 탈이야. 정탐가는 예술가나 심리학자처럼 만문해야겠는데 임잔 너무 꽛꽛하거든. 형사는 할수 없어! 난 그 족속들을 잘 알고있지. 자, 원쑤와도 술을 나눈다는데 마다할게 있나!》
《취했구만, 레이몬드.》
겐지로는 쓰거운듯 한마디 내뱉고는 레이몬드가 가득 부은 위스키잔을 들어 단숨에 쭉 들이켰다. 한순정은 다시 창턱에 기대선채 두 사나이의 대화에서 엿보이는 미묘한 관계를 속으로 생각해보고 있었다.
다음순간 그 녀자의 눈앞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지였다. 겐지로가 입에서 술잔을 떼려는 순간 갑자기 레이몬드가 전혀 술을 마신것 같지 않은 멀쩡한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겐지로중좌, 놀라지 마오! 방금 당신이 마신 술잔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 들어있소. 몇분후에 당신은 죽게 되오!》
레이몬드의 부드러운 말에 겐지로는 깜짝 놀라 술잔든 손길이 굳어졌다. 그는 갑자기 벌어진 사태를 리해할수 없는듯 멍청한 눈으로 마주앉은 사나이를 바라보기만 하였다.
《레이몬드… 당신, 정신나가지 않았소?》
레이몬드는 파란 상표가 붙은 해독제통을 꺼냈다.
《뭐, 크게 놀랄건 없소! 당신이 나의 질문에 대답한다면 이 해독제를 주겠소. 이건 내가 프랑스에서 비겁한 정객들에게 적용하

던 가장 단순한 방법이지.》
겐지로는 그제야 자기가 어떤 함정에 빠졌는가를 깨달은듯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한순정은 그토록 잔인하고 완강해보이던 사나이의 얼굴에서 별안간 공포와 절망의 빛을 찾게 되는것이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겐지로, 결심하시오! 순간의 선택이 한생의 운명을 결정한다는것을 잊지 마시오.》
《?…》
《!…》
《레이몬드… 결심했소. … 말하겠소.》
겐지로의 경련이 이는 입에서는 순순히 대답이 터져나왔다.
《그럼 시작해보지. … 캐논방첩기관이 도꾜로 떠나는 림송대위에 대해서 꾸미고있는 음모를 고백하오. 그러면 해독제를 주겠소.》
레이몬드는 손으로 턱을 만지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위급한 정황속에서도 겐지로의 얼굴에는 한찰나 흠칫 놀라는 주저의 빛이 지나갔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애착은 이 순간 겐지로에게서 리성을 빼앗아버렸다.
《…림송대위는 도꾜에 내린 다음… 극동군사령부에 도착하기전에… 씨아이씨장교들의 저격을 받게 되오. 련락장교인 그는 에니스가 보내는 극비문건을 오늘밤으로 극동군작전국장과 월로우비에게 전달해야 하니까… 우린 문건을 캐논중좌에게 가져가야 하오.》
《난 에니스준장자신이 이 일에 끼여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모르오. 하지만 그도 림송이 붉은 정탐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자기 명예를 우려하는것 같소. … 캐논방첩기관은 어제 그가 무전문으로 지투 특수과에 문건을 받은후 림송을 처리할데 대해 련락한걸 해독했소.
우리 책임자는 에니스준장의 이 심리를 리용해서 두사람을 동시에 제거할수 있는 이번 작전을 구상했던거요. …
자, 레이몬드, 해독제를…》
레이몬드는 의자에서 일어나 중절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소형록음기를 꺼냈다.
《중좌, 당신은 나에게 씨아이씨의 중요한 정보를 넘겨주었소, 잊지 않길 바라오!》

《그럼？！》
겐지로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질렸다. 그는 자기가 속았다는것을 깨달은듯 바지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난 당신이 상해조계지에서 〈람의사〉를 움직였다는게 믿어지지 않누만.》
두사람은 부딪친 눈길을 서로 떼려 하지 않았다.
이때 한순정은 복도에서 울리는 군화발자국소리를 들었다. 그 발자국소리에 그는 가슴이 후두두 뛰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요즘 그가 저녁마다 가슴을 조이며 기다리군하던 귀익은 발자국소리였다.
림송이 방에 들어서자 겐지로는 흠칫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림송대위, 이건 당신이 꾸민 연극이요？》
겐지로의 목소리는 공포와 비관에 짓눌려있었다.
림송은 아담스와 한순정을 둘러보고나서 빙그레 웃었다.
《중좌, 난 당신이 나와의 마지막결투에 나서고싶어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소！》
겐지로는 쓰거운듯 얼굴을 찌프리더니 다시 자리에 주저앉아 술잔을 들어 꿀꺽꿀꺽 들이켰다.
《림송, 당신에 대해서 이젠 모든걸 알았소. 자신이 누구란걸 밝히시오！》
《많이 알면 빨리 죽는 법이요！》
《아니, 천만에！ 난 오래오래 살겠소. 난 당신이 먼저 죽는걸 보게 될거요. 이제 몇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죽을거요. 그것도 결전장이 아니라 전선 먼곳에서…
그래 무섭지 않소？》
겐지로의 음산한 목소리는 깊은 동굴에서 울려나오는듯 웅글고 거칠었다.
림송은 눈을 번뜩이며 그를 쏘아보았다.
《그래 죽음이란 뭐고 산다는것은 뭐요？ 난 삶과 죽음에 대한 견해에서 당신과 다르오. 당신은 영생이라는걸 모르고있소. 우리는 삶을 사랑하오. 그러나 조국을 위해선 순간에 그 삶을 바칠수 있소. 왜냐하면 조국에 바친 삶은 영원하기때문이요！》
림송의 말에 겐지로는 이발을 악물며 머리를 숙였다. 그는 고통에 질린 낯빛으로 모지름을 쓰며 중얼거렸다.

《난… 첫 순간 당신이 왜 그리 인상깊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소! 그때 상해에서 아버지와 함께 당신을 죽여버리지 못한건 내 일생에서 가장 큰 파오였소!》

《아니, 당신의 파오는 그보다 앞에 있었소!》

《뭐라구?…》

《그건 당신이 조선사람들과 싸우려는 어리석은 망상을 한 때부터였소!》

《…》

이때 문밖에서 녀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림송은 얼핏 문쪽으로 얼굴을 돌리였다.

그 순간 겐지로가 바지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명사수인 림송 역시 준비되여있었다. 그다음 여러방의 총소리가 들렸다. 총소리는 동시에 울렸다.

한순정은 사격이 벌어지는 순간 곁에 서있던 레이몬드가 번개같이 뛰여들어 림송의 앞을 막아서는것을 보았다.

한순정은 정신을 차리자 눈앞에 쓰러져있는 겐지로의 시체를 먼저 보았다. 림송대위가 문곁에서 중상당한 레이몬드를 부축하고있었다. 그의 가슴에서 뿜어나온 선지피가 색날은 야전복자락을 붉게 물들이고있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흐려오는 눈길로 림송을 올려다보았다. 한순정은 급히 장에서 붕대와 위생솜을 가지고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레이몬드는 응급처치를 하려는 그 녀자의 손길을 가까스로 물리치더니 다시 입술을 감빨며 림송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림송대위, 분합니다. … 내 주머니에서 록음테프를…》

레이몬드의 말에 림송은 그의 어깨를 흔들며 뜨겁게 부르짖었다.

《레이몬드, 마음을 굳세게 가지오. 곧 당신을 병원으로 실어가겠소!》

그러자 레이몬드 아담스는 보일듯말듯 도리머리를 했다.

한순간이 지나자 레이몬드의 눈길에 고요한 미소가 비꼈다. 그는 손을 더듬어 림송의 팔을 움켜쥐였다.

《난 죽음이 이렇게 단순하리라고는 몰랐소. 내가 당신을 도운건 전쟁을… 반대하는 한 평범한 인간의 량심이였음을 리해해주오. 난 지난해말… 설민기선생을 만났댔소. …》

《레이몬드, 나도 모든걸 알고있었소！》
림송은 격한 눈길로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레이몬드의 눈길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운명을 앞둔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다가는 다시 밝아지고 다시 창백하게 질리군하였다. 그 어떤 추억과 회한과 동경의 뚜렷한 색조가 그의 눈가를 스쳐지나갔다. 레이몬드의 호흡은 빨라졌다.
《림송, 당신을 이렇게 부르는걸 용서하우. … 당신은 내 가슴속에 조국이란 무엇인가를 심어준 잊을수 없는 벗이였소. … 당신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요. … 전쟁이 끝나면 나의 딸 벨라를 찾아가주시오. …》
파란곡절 많은 인생행로를 지겹게 헤치며 정의와 진리와 선의를 찾아 오늘까지 걸어온 풍운아는 입가에 미소를 그린채 조용히 운명하였다. 림송은 레이몬드를 내려다보며 까딱도 하지 않았다.
한순정은 비분강개해하는 그 얼굴을 차마 볼수 없어 눈길을 돌려버렸다. …
림송의 등뒤에 턱에 면도자리가 푸릿한 을지길이 나타났다. 그는 조심스레 방안을 둘러본후 림송에게 손에 든 증명서를 내밀었다.
《방금 당신의 뒤를 밟고있던 수잔나년을 처리했습니다. 아마 저 방첩장교와 함께 왔던것 같습니다. … 이게 증명서입니다.》
을지길은 몹시 주저하는 서먹서먹한 목소리로 띠염띠염 말했다.
림송은 자신을 억제하는듯 한동안 그대로 앉아있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림송은 문득 식탁우에 엎어놓은 색날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그는 생각에 잠겨 사진속의 자기 모습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추억의 그림자가 한순간 얼른거렸다. 그는 한순정을 돌아보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 말고 주춤거렸다. 림송과 한순정의 눈길이 부딪쳤다.
《？…》
《！…》
그것은 백마디의 상면암호보다 더 진실하고 더 절박하고 더 정확한것이였다.
《순정이.》 림송은 떠듬거리며 한순정의 창백해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난 이미… 추억의 피아노소리를 들을 때 묘향산의 그

풀밭을 생각했소. 용서하시오. 어쩐지 이 순간엔 이 말밖에 할수 없구려. …》

한순정은 눈물이 핑 도는 시선으로 가볍게 머리를 끄덕일따름이였다.

림송은 격정에 젖은 눈길로 한순정의 얼굴을 이윽토록 바라보다가 군복주머니에서 문건봉투를 꺼내들고 을지길에게로 돌아섰다.

《이건 시급히 조국에 보내야 할 중대한 정보자료입니다. 한부는 내가 도꾜로 가져갑니다. 이 문건에 따라 우리 전쟁에서 중요한 문제가 결정됩니다. 아바이, 순간도 지체할수 없는 긴급정보입니다.》 하고 림송은 갈린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잠시 무슨 생각에 잠겨 말을 이으려다가 가까스로 자신을 억제하였다.

《나는 동무들을 통해 련락선을 이으라는 조국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이상 자신을 설명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걸… 리해해주십시오.》

을지길은 림송의 말에 서둘러 문건봉투를 받으며 눈길을 한순정이에게로 돌렸다.

《알겠수다. 우리도 어제 동지를 도우라는 련락을 받았수다. 걱정마십시오. 자동차를 밟으면 우리 부대련락지점까지 한시간에 갈수 있수다. 임무를 꼭 수행하겠수다!》

을지길은 미더운 눈길로 림송을 지켜보더니 악수를 청하고 급히 나가버렸다.

《그럼… 당신은 끝내 도꾜로 떠나시겠어요?》

한순정의 격정어린 얼굴에는 일종의 희망과 불안과 기대가 짙게 비껴있었다. 림송은 돌아서서 빛나는 눈길로 그 녀자를 뚫어지게 마주보았다.

《예, 난 가야 합니다.》

《다른 방도를 생각해보세요. 제가 본부에 형편을 보고하겠어요. 도꾜로 가면 위험합니다.》

한순정은 봉긋한 가슴을 들먹이며 따뜻한 인정과 초조감이 비낀 얼굴로 서두르듯 말했다. 이 순간 속눈섭이 류별나게 긴 처녀의 커다란 눈에는 사랑과 진심에 타는 크낙한 격정과 희망이 비껴 파들거리고있었다.

림송은 한순정의 생각깊은 애틋한 눈매를 바라보며 천천히 머리를 저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매 전사에게는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누구도 대신할수 없지 않습니까?》

림송의 얼굴에는 고결하고 강의한 미소가 피여났다.

《?!…》

밖에서 자동차 경적소리가 들렸다. 림송은 문득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급히 모자를 쓰고 문건가방을 집어들었다.

《우린 언제 다시 만날수 있을가요?…》

한순정은 림송을 올려다보며 절절히 부르짖었다.

림송은 불타는 눈길로 녀인을 찬찬히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띠염띠염 말을 이었다.

《그러고보니 우린 너무 오래동안 서로의 마음을 억제해왔소. 그러나… 리별의 시각부터 상봉의 시각이 가까와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순정이, 난… 전쟁이 끝난 다음… 묘향산에서 만나게 되길 바라오!》

《네?!…》

《그때는 이 사진에서처럼 다시 잔디밭에 앉아…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동무야 잘 가거라〉를 부릅시다.》

한순정의 얼굴은 불현듯 붉게 상기되였다가 다시 해쓱하게 질렸다. 그 녀자는 얼굴을 싸쥐였다가 다시 머리를 들고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꼭 묘향산에서 기다리겠어요! 윤성녀어머니와 함께… 언제까지나…》

림송은 한순간 주저하더니 군복주머니에서 얼레빗을 꺼내들었다.

《이걸… 순정이가 간직해주오. 어머니가 준겁니다.…》

《?!…》

림송은 말을 마치고 홱 돌아서더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한순정은 한동안 멍하니 서있다가 그의 뒤를 따라 장교구락부정원으로 달려나갔다.

정문곁에는 림송을 태우고 갈 승용차가 발동을 건채 대기하고있었다. 두명의 자동총수가 차곁에 버티고 서서 림송을 기다리고있었다. 림송은 승용차문을 열고 얼핏 현관쪽을 돌아다보았다. 한순

정은 손을 들려다 말고 입을 감싸쥐였다.

한순정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손가락짬으로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오열이라도 터뜨릴것처럼 가슴이 울렁거리고 심장은 세찬 박동으로 높뛰고있었다. 림송은 순정을 향하여 빙그레 미소를 보내더니 승용차안으로 들어가버렸다.

한순정은 쏟아지는 눈물을 연방 훔치며 떠나가는 승용차를 바라보았다.

노란 나리꽃이 활짝 피여난 봄날의 교외길로 승용차는 살같이 달려가고있었다. 멀어지고있었다.

1951년 5월 17일,미국대통령 트루맨과 국무장관 애치슨을 비롯한 정계와 군부의 고위관리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극동전선에서 부닥친 엄중한 정치군사적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모의를 거듭하던끝에 드디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직접 정전담판을 진행할데 대한 문제를 미국회상원에 상정시켰다.

알렌 덜레스의 특수정보무력에 의한 배후타격과 8군의 공동작전으로 이른바 《레인보작전》이라는 봄철대공세를 진행할데 대한 극동군사령부의 주요계획이 인민군의 강력한 선제타격과 정찰활동에 의해 뜻하지 않게 류산되자 불명예스러운 정전제의는 이미 피할수 없는것으로 되여버렸다.

미합동참모본부는 극동군사령관 리치웨이에게 보낸 정전담판 《기본방침》에서 《우리의 최소한의 조건까지 버리고 미국의 체면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정전에 대한 우리측의 립장을 알아내기 위한 막후외교활동에는 미국무성 관리들을 비롯하여 유럽에 나가있는 미국외교관들 그리고 쏘련주재 미국대사로 있던 케난 등이 동원되였다.

미국무장관 애치슨은 세월이 흐른뒤 자기의 전쟁추억담에서 국제사회앞에 아메리카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대기던 그때의 감정을 설명하였다.

《우리모두가 의견을 같이한 결론은 이러한 해결을 유엔의 절차를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한다든가 혹은 비밀을 잘 루설시키는 인디아의 외교부를 통해 한다는것은 모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것이라는 사실이였다. 따라서 우리가 나서서 한떼의 사냥개들처럼

냄새를 맡기 시작하였다.…》

력사의 정의로운 수레바퀴는 시대의 진로를 따라 힘차게 굴러갔다.

1951년 6월 30일,

《국제련합국군》사령관 매쓔 벙커 리치웨이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 다음과 같은 정부서한을 정식으로 보내여왔다.

《련합국군 총사령관으로서 나는 귀방에게 다음과 같은것을 통지할 명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귀방에게 조선에 있어서의 적대행동과 일체 무장행동을 중지할것을 규정하는 정전과 아울러 그러한 정전을 유지할데 대한 적당한 보장을 토론할 회합을 가질것을 정중히 제기하는바입니다. 귀방으로부터 그러한 회합제기를 수락한다는 말을 받으면 나는 나의 대표를 지명할 준비가 되여있습니다.

나는 또 그때에 그가 귀방의 대표와 만날 날자를 제의할것입니다.

나는… 단마르크병원선에서 그러한 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의합니다.》

불명예스러운 흰기를 먼저 든 미합중국의 정전제의는 수락되였다. 며칠후 개성 래봉장에서 진행된 쌍방련락군관회의에서는 담판진행에 필요한 실무적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정전담판에 참가할 쌍방대표들의 명단이 교환되였다.

쌍방대표단은 아군측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남일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과 적측에서 미극동군 해군사령관 씨.터너 죠이중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되였다.

1951년 7월 10일,전선에서 20키로메터 떨어진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인 개성 래봉장에서는 수호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방으로 하고 침략국인 미합중국을 타방으로 하는 력사적인 조선정전담판이 시작되였다.

…이 력사적인 순간까지는 아직도 준엄한 격전의 기간이 남아있었다. 아직은 봄이였고 전선 중서부로는 미제침략군 8군 기갑사단들과 보병군단들이 집결되고있었다.…

주한경장령은 방금 대구교외에서 보내온 지급무전문을 들고 커다란 작전지도앞에 서있었다.

지금 그의 눈길은 적아간의 조밀한 무력배치상태를 표시한 군사린접구역이 아니라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상을 더듬고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금시 《림송》의 얼굴이 보이는듯하였다.

새 군복에 반짝이는 까만 장화를 신은 김선형과장이 방에 들어섰다.

《장령동지, 최고사령부 교환이 나왔습니다.》

주한경은 돌아서서 김선형의 안경낀 체소한 얼굴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알겠소… 드디여 우리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승리의 보고를 드리게 되였소. … 이 귀중한 순간을 위해 지금 전선 먼곳에서는 적후의 한사람이 준엄한 운명의 길, 결전의 길을 분연히 걸어가고있소!

과장동무, 빨리 도꾜의 〈설악산〉조와 무전련락을 가져야겠소. 시간이 급하오!》

《알았습니다.》

주한경은 격동에 젖은 얼굴로 잠시 군용지도쪽을 바라보더니 힘찬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이날도 전시의 평범한 날이였다.

장편소설 **순간과 영원**

제 2 판

저　자 박 윤　　편집 한미란
표지, 삽화 최영석, 남민우　교정 김경희
콤퓨터편성 고려전자출판물사 최금희, 리경은
낸 곳 문학예술출판사
인쇄소 외국문출판사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80(1991)년 4월 30일
2판인쇄 주체94(2005)년 8월 1일
2판발행 주체94(2005)년 8월 5일

ㄱ—16057